濟州牧官衙址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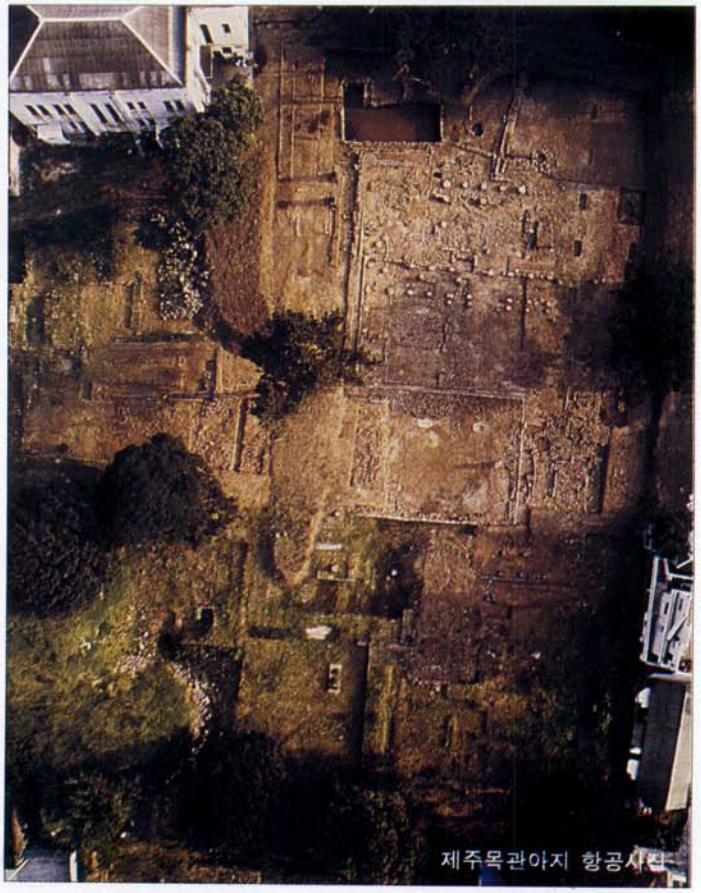
濟　州　市
濟州大學校博物館



제주목관아지(1998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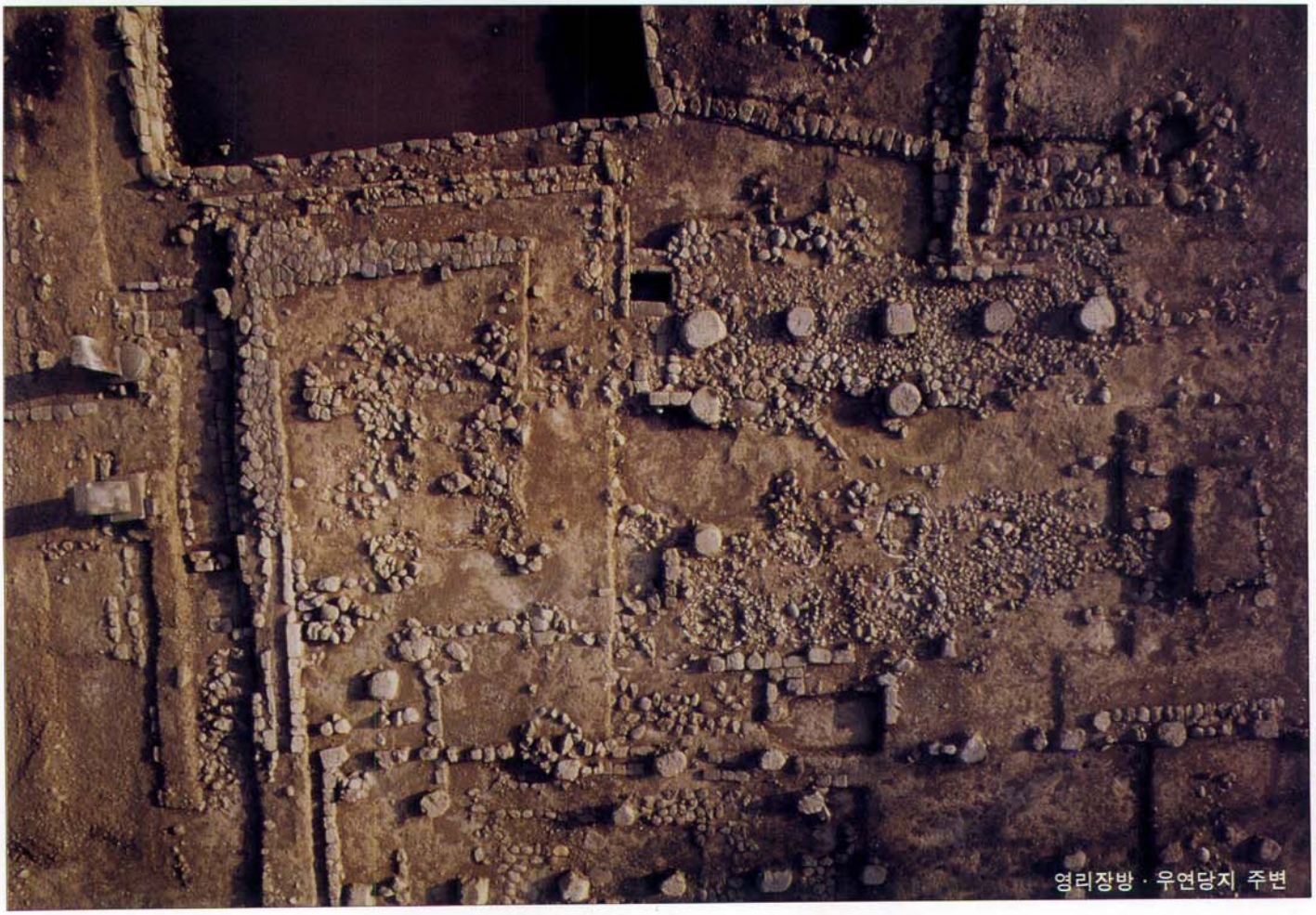
제주목관아지 항공사진



제주목관아지 항공사진



포정문지 · 연못지 주변



영리장방 · 우연당지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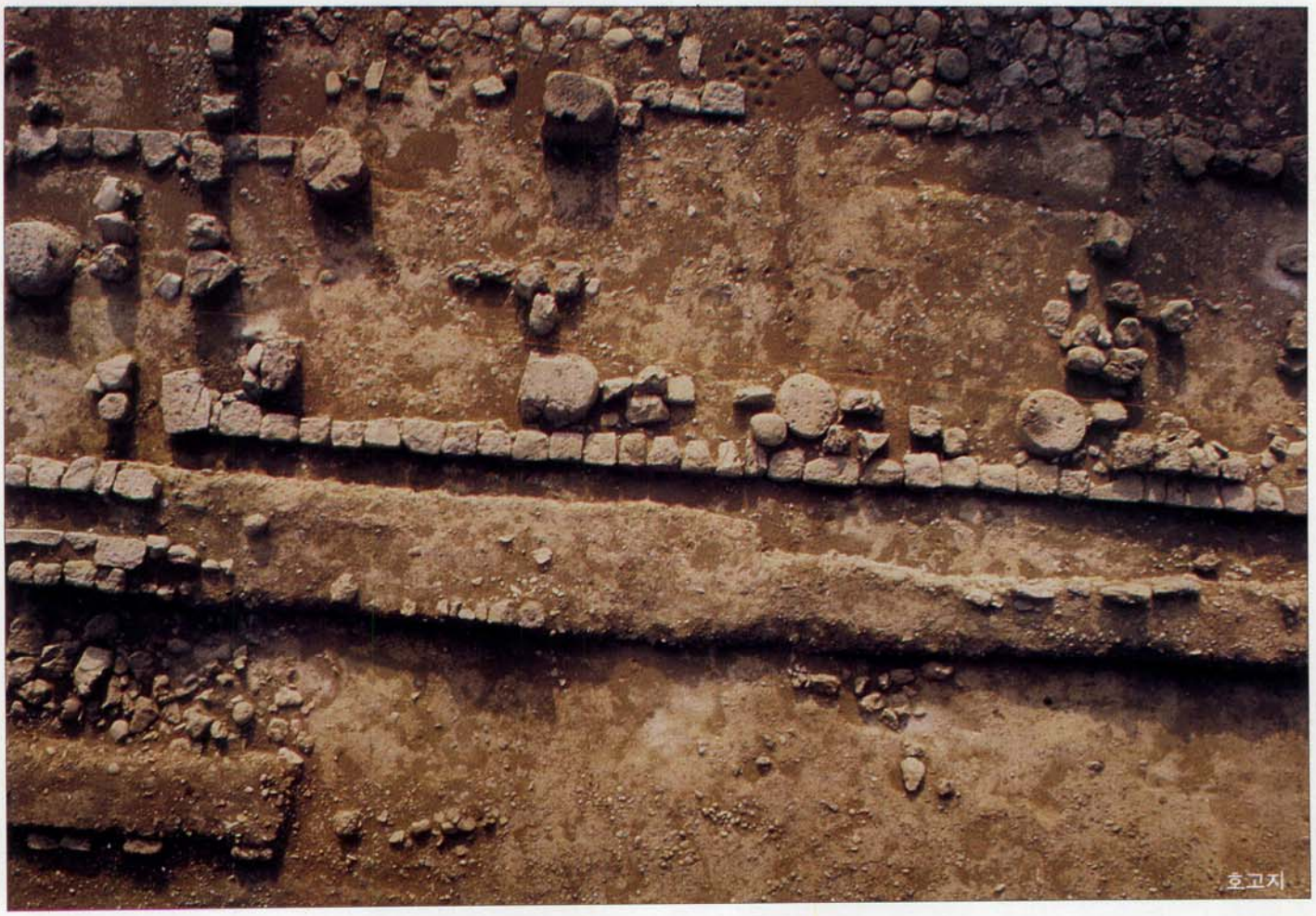
호적고 · 호고지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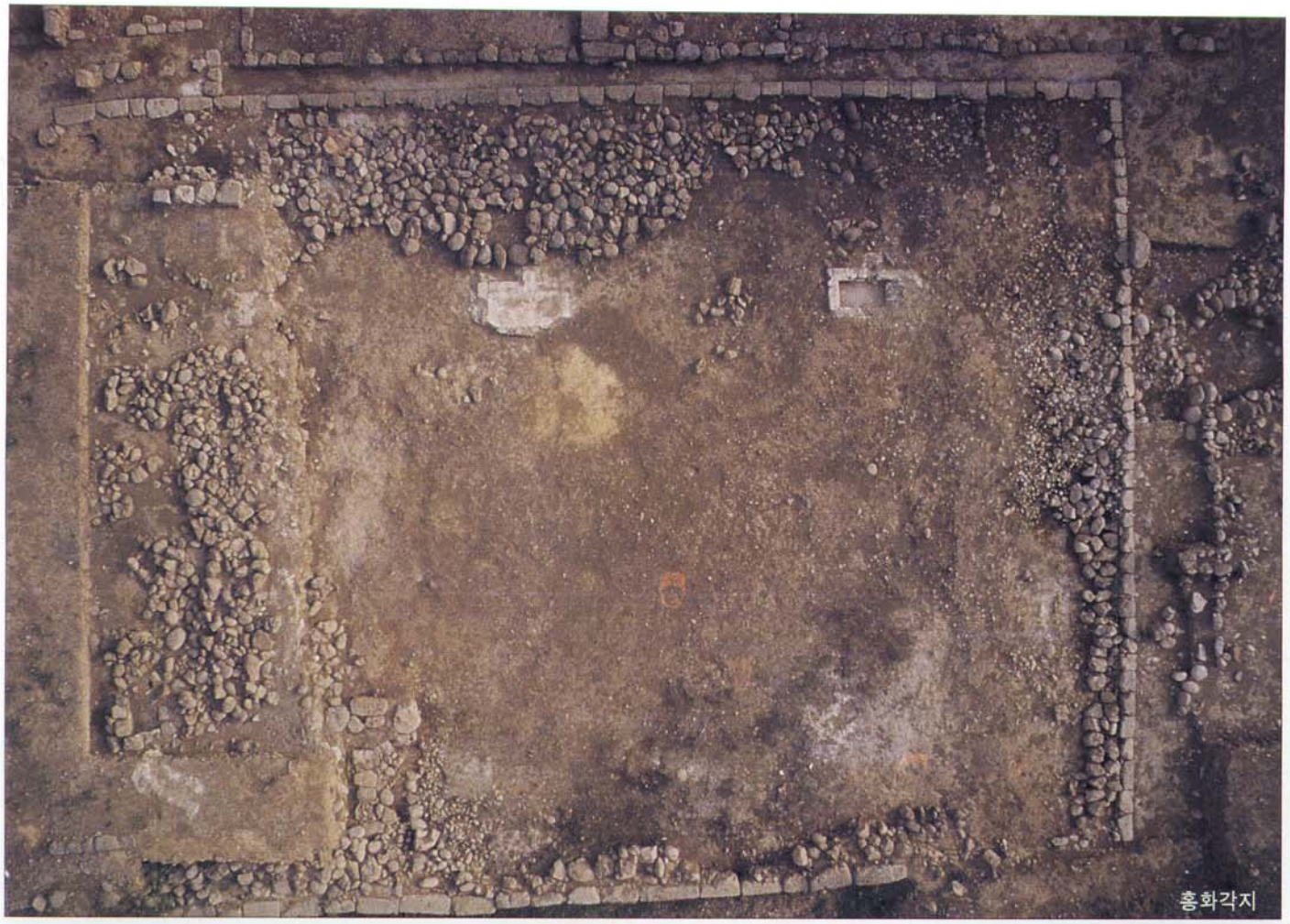
우연당지



호적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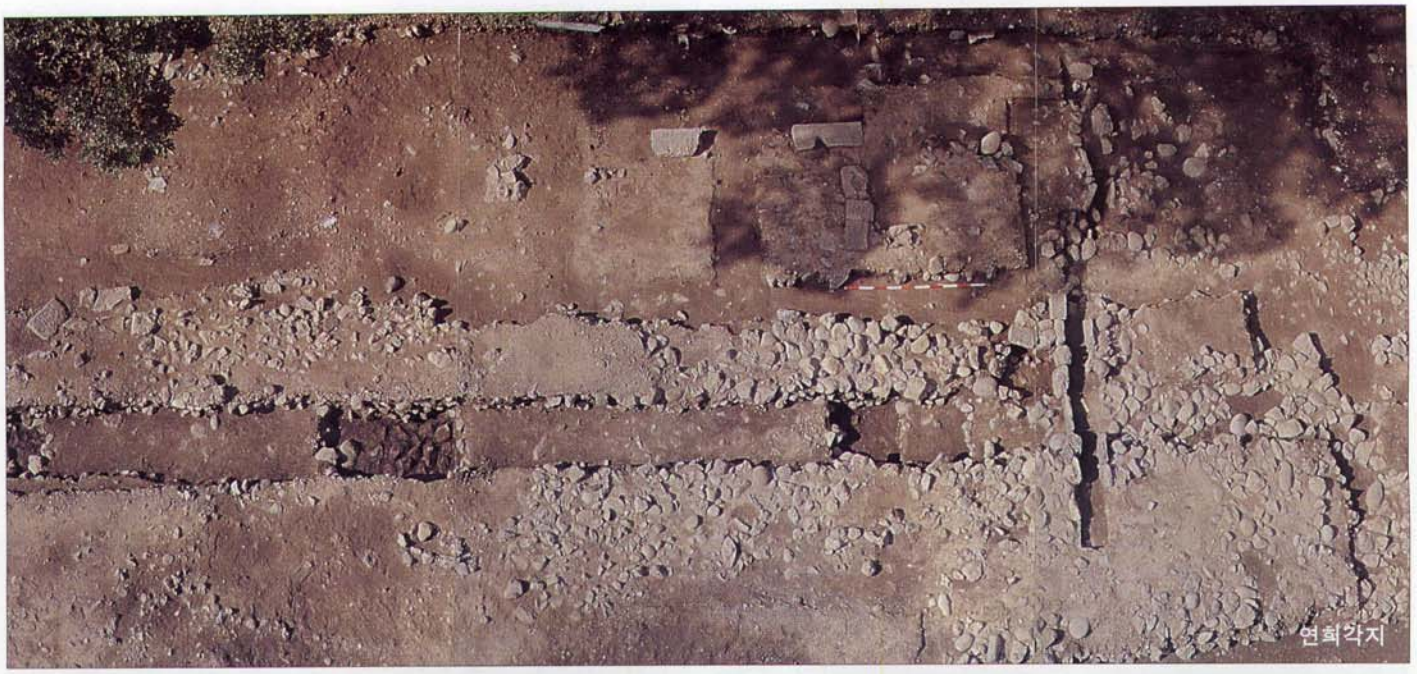
호고지



홍화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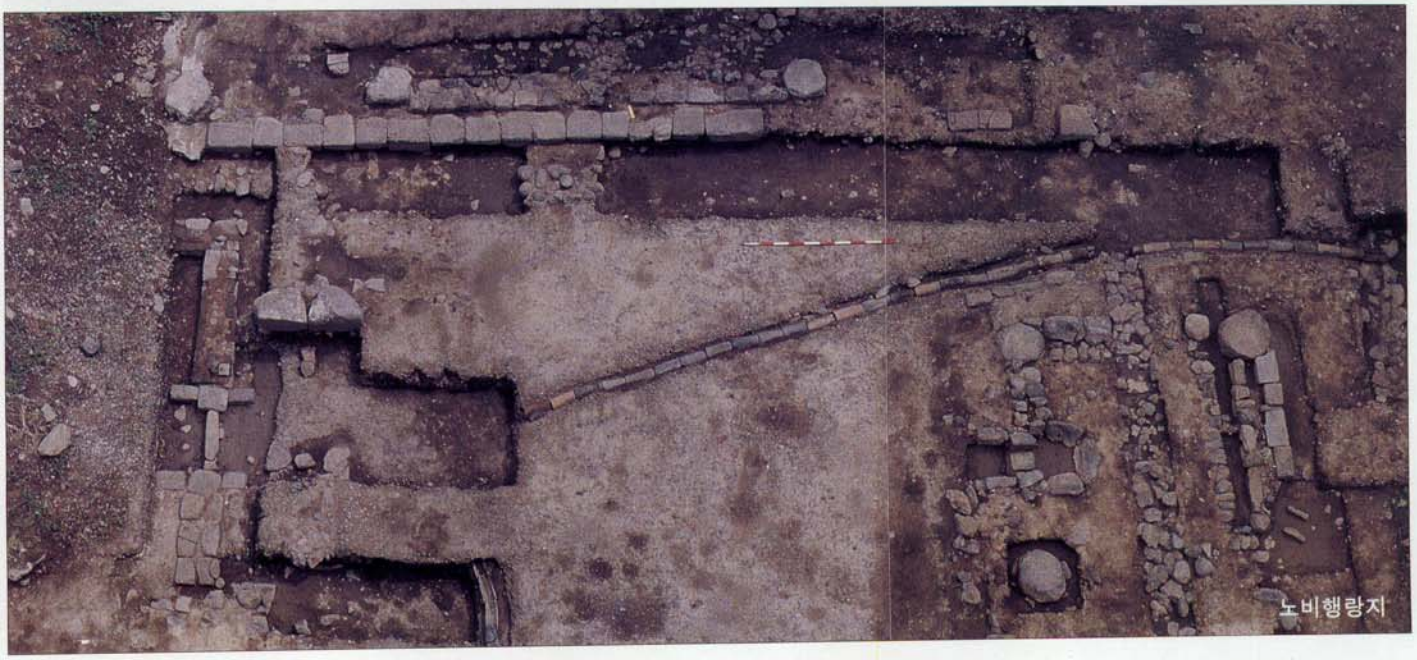
예리장방자



연희각지



동헌내아지



노비행랑지



소행정지



내대문 안쪽 도로와 보도



조선전기 와적담장지



와적담장지



제주목관아지(1995년 발굴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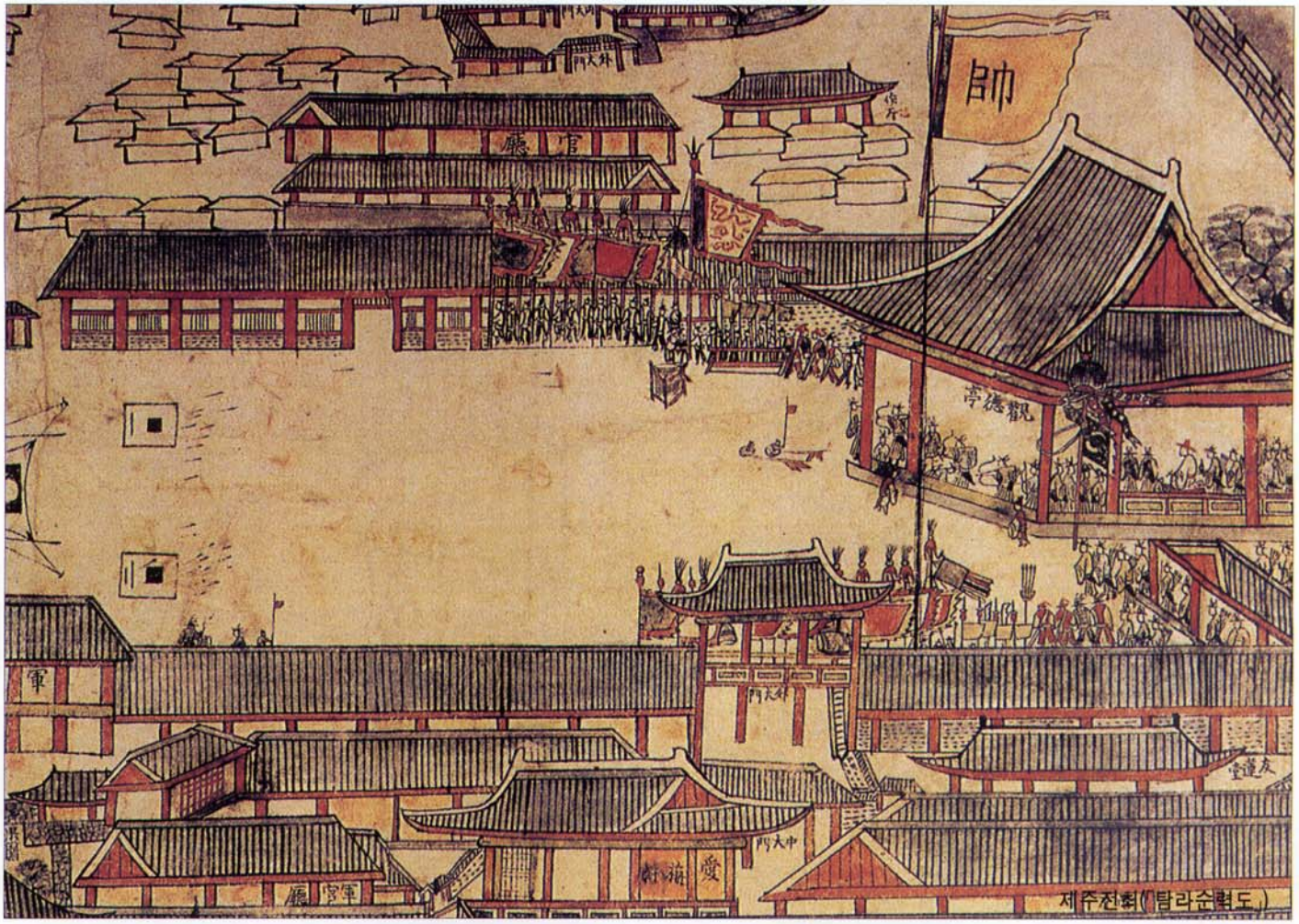
탐라시대 · 고려시대 생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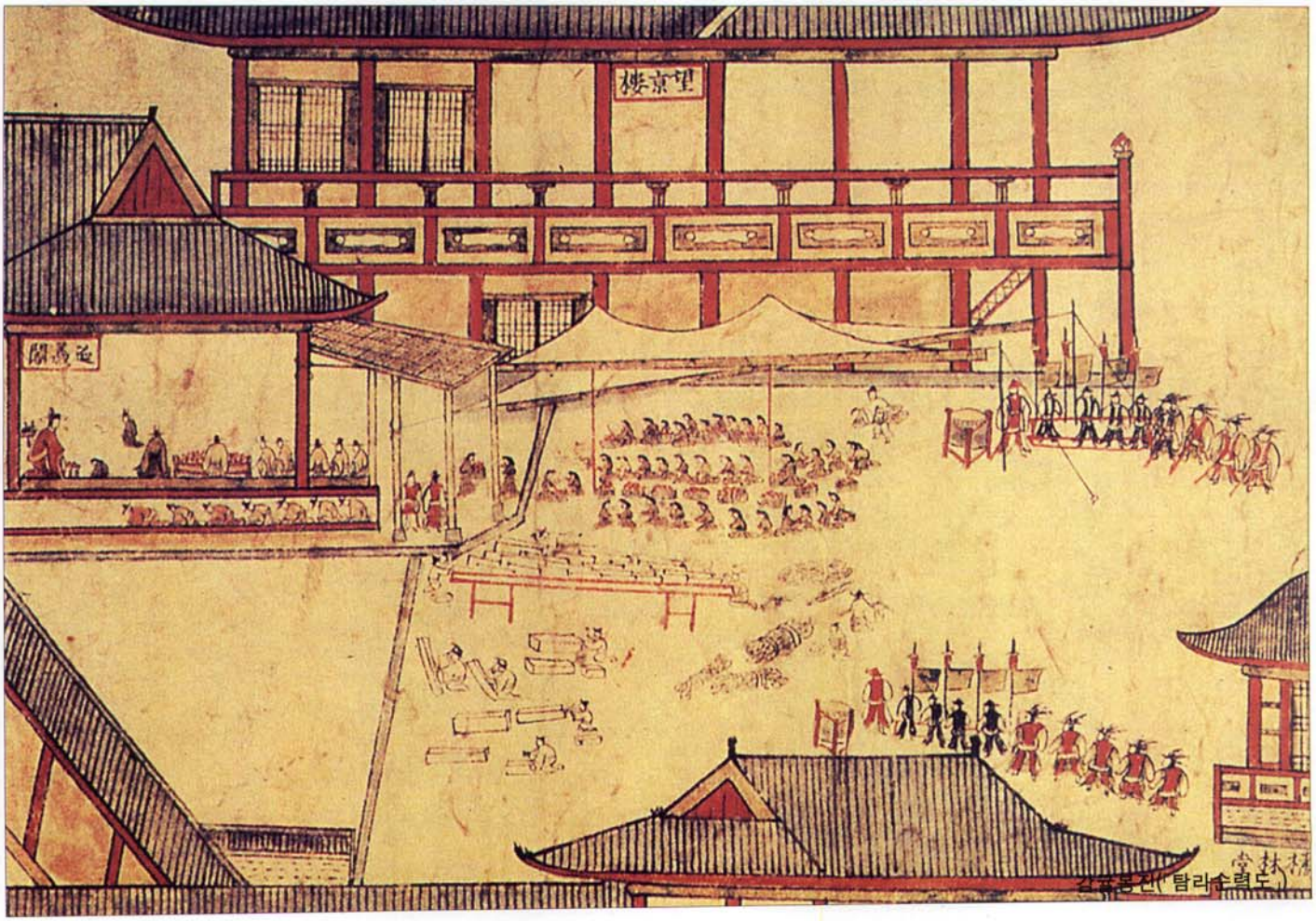
한라장촉(「탐라순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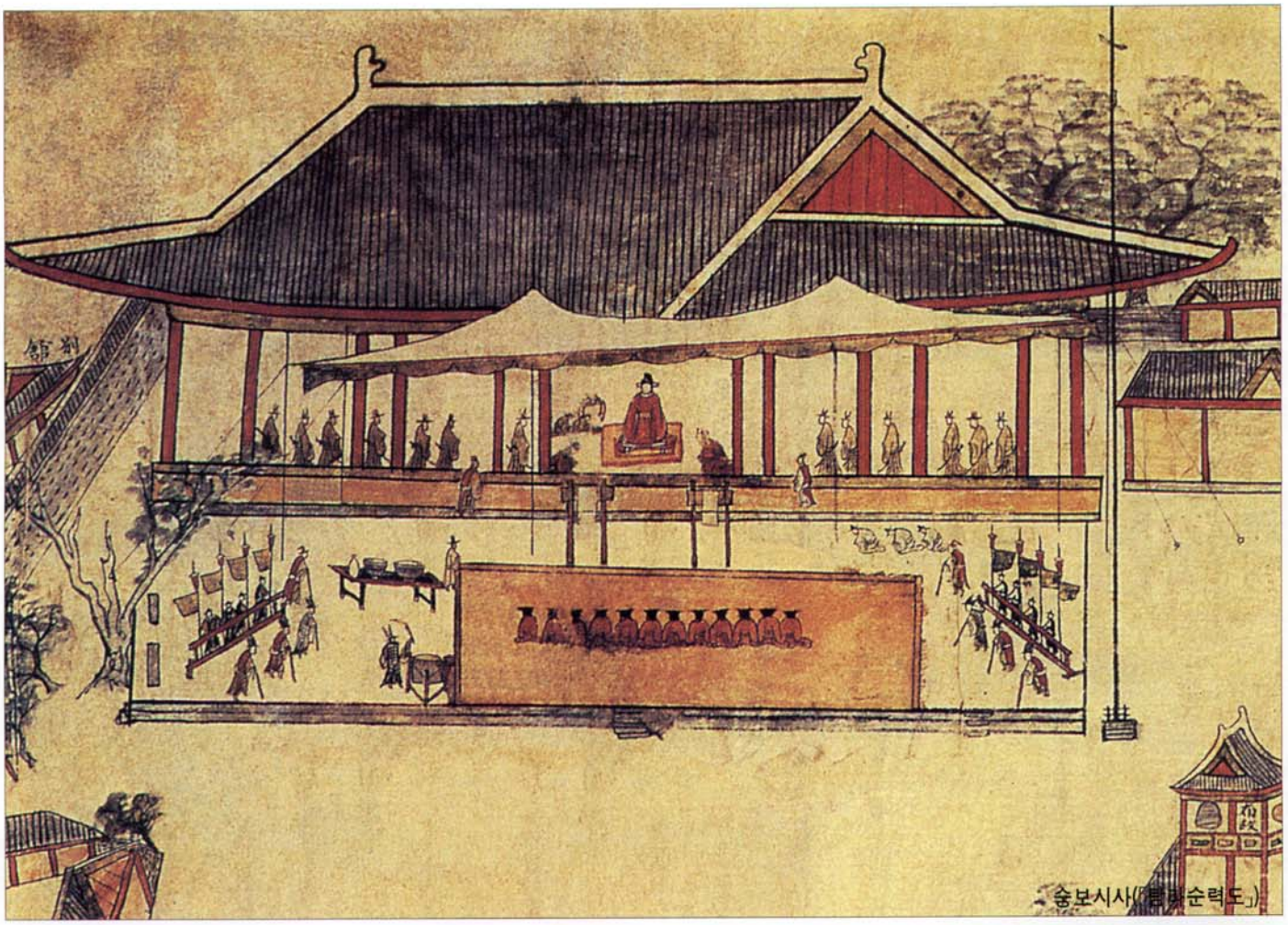
제주조점(「탐라순력도」)



제주전회(「탐라순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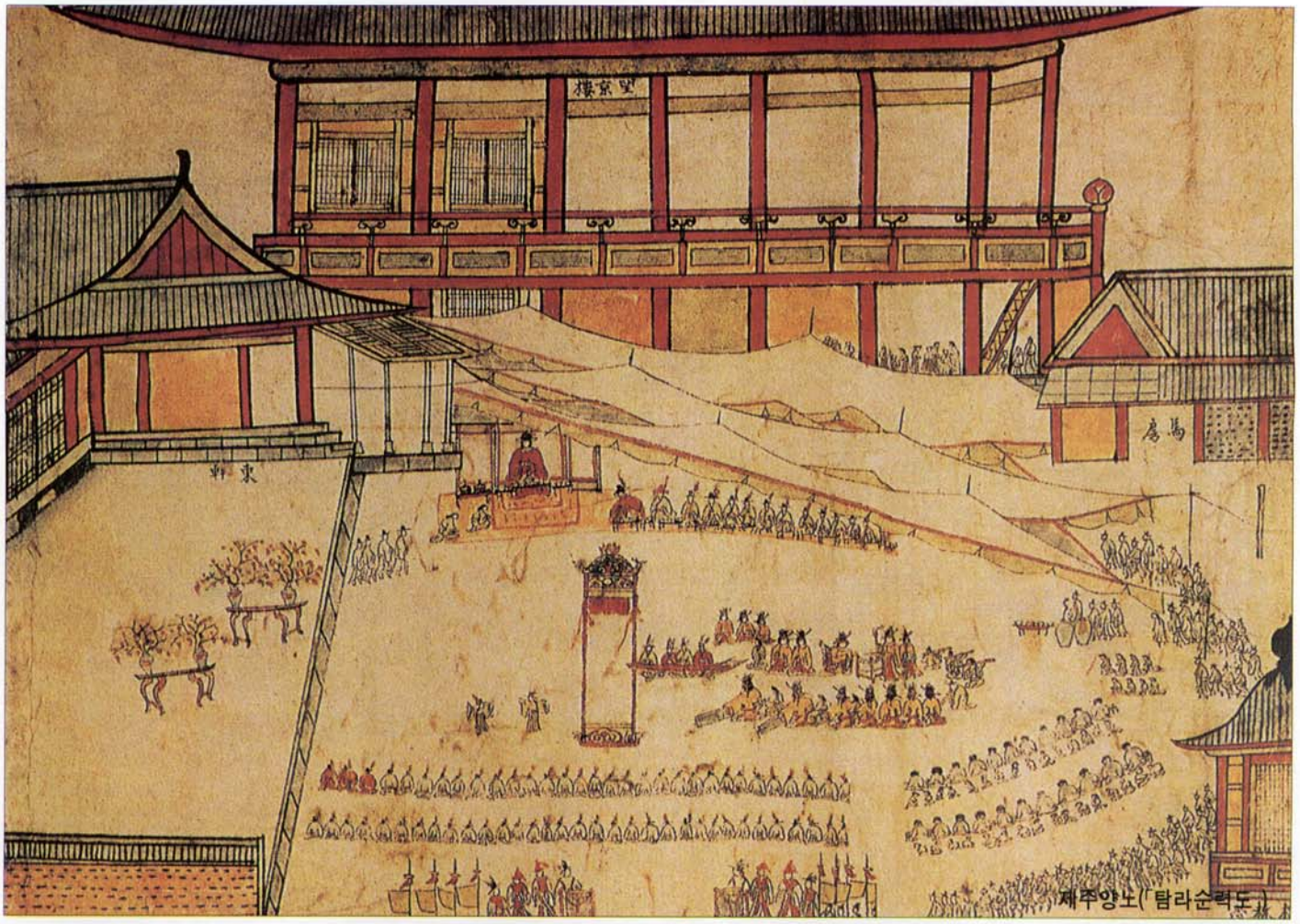
산굼부리(「탐라순력도」)



숭보시사(「탐라순력도」)



굴림풍악(「탐라순력도」)



재주양노(「탐라순력도」)



건포배은(「탐라순력도」)

발 간 사



탐라개국의 영지(靈地)인 우리 제주시는 탐라가 열린 이래 영욕의 역사가 굽이쳐온 제주역사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특히 제주성의 중심부인 관덕정 부근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대촌현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제주목이 자리했던 곳으로, 시대를 거슬러 탐라국시대에는 성주청이 자리했던 곳으로도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주목관아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문헌에 기록된 중심건물인 동헌지와 내아시설은 물론, 중대문-동헌지 마당으로 연결되는 중심도로가 밝혀졌으며, 올해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외대문, 중대문지를 비롯하여 홍화각, 애매헌, 우연당 등의 건물지와 성내연못, 우물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목관아지 발굴의 큰 성과이며 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조선시대 건물 아래로는 고려시대와 탐라시대 문화층이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관아터는 고대부터 중심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탐라국 이래로 약 2천년간 제주역사의 중심지로써 각종 행정이 이곳에서 입안되고 처리되어온 제주발전의 애환을 간직한 역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굴을 끝으로 조사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각종 문헌과 발굴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목관아지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건물지를 원형상태로 복원함으로써 오랜 제주의 역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제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보고서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제주대학교 유철인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속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8년 8월 일

제 주 시 장 **김 태 환**

축 사



탐라시대부터 최근세까지 약 2천년간 제주역사의 중심지였던 제주목관아터의 발굴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그 결실인 『제주목관아지』 보고서가 발간됨을 온 시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릇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올바르게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마치 다양한 지류가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묻혀있고 흩어진 사료들을 샅샅이 발굴하여 집대성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시는 선사시대로부터 탐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생성된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시가 본래 갖고 있는 역사와 고유한 문화유산을 더욱 품격있게 창출하고 보존해 나가는 일은 외형적인 변화와 발전 못지않게 지방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 번 파괴된 문화유산은 원형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난 91년부터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마무리한 제주목관아지에 대한 보고서는 제주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소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의회는 제주시 관내의 현존하는 역사유적은 물론 개발과정에서 유실되고 파괴된 유적의 발굴, 복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제주목관아지』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애쓰신 김태환 제주시장님과 제주대학교 유철인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8년 8월 일

제주시의회의장 **강 영 철**

머 리 말

관덕정 일대는 조선시대에 제주목의 관아가 있었던 곳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제주목 관아시설은 화재로 소실된 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1435년에 골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탐라국시대에는 부근에 성주청이 자리했던 것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박물관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주목관아지 발굴조사를 통해, 관아의 중심시설인 동헌과 내아 시설은 물론 중심도로를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제4차 발굴에서는 외대문, 중대문지를 비롯하여 서편에 자리했던 홍화각, 애매헌, 호고, 예고, 호적고, 우연당 등의 건물지를 찾았고, 성내에서 연못과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관아건물 아래로 고려시대와 탐라시대의 문화층이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어, 제주목관아지 일대는 탐라국 이래로 약 2천년간 제주역사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목관아지는 중요 사적 380호로 지정되었고, 각종 문헌자료와 발굴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목관아지 복원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원사업은 지방화시대에 제주역사의 중심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4차에 걸쳐 발굴한 구역을 전부 포함하여 묶은 종합보고서입니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발굴조사는 각각 당시 우리 대학교의 박물관장이었던 이청규교수(現 영남대, 1차·2차)와 고창석교수(3차)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의 간행작업은 1차 조사 때부터 발굴현장을 책임 맡았던 우리 박물관의 강창화 학예연구원 등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전적으로 제주시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을 빌어 관심을 기울여준 제주시장님과 문화재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굴현장에서 땀을 흘린 우리 대학교의 여러 학생들에게도 늦게나마 그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1998년 8월 일

제주대학교박물관장 유 철 인

목 차

발간사
축 사
머리말

제1장 조사개요 ····· 39

제2장 제주목의 행정과 관아시설 ····· 47

제3장 조사내용 ····· 67

제1절 유적의 위치와 현상 ····· 67

제2절 발굴방법과 층위 ····· 74

제3절 건물지 ····· 83

제4절 부속시설지 ····· 156

제4장 출토유물 ····· 201

제1절 기와 ····· 201

제2절 도자기 ····· 246

제3절 기타 유물 ····· 292

제5장 고찰 ····· 323

맺음말 ····· 348

그림목차

그림 1 유적위치도(1/25,000) / 46
그림 2 탐라방영총람과 목관아지 전체 유구배치도 / 66
그림 3 제주시 행정도로망과 제주목관아지 위치도 / 68
그림 4 제주목관아지 지적도·지형·구역별명칭 / 75
그림 5 제주목관아지 A·B·C구역 지형도 및 구역명칭 / 76
그림 6 제주목관아지 D구역 트렌치구획도 / 77
그림 7 A구역 교방지 서편 단면층위 / 78
그림 8 A구역 담장지 중복지점 Test-pit단면 층위 / 79
그림 9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pit단면 층위 / 81
그림10 C구역 담장지(2) 주변 Test-pit단면 층위 / 81
그림11 원형우물지 서편단면 층위 / 82
그림12 연희각지 / 84
그림13 연희각지 방고래시설 / 88
그림14 연희각지 마당 부석시설 / 89
그림15 연희각지 진입 박석시설 / 90
그림16 연희각지 북편 외곽담장 / 91
그림17 동헌내아지 / 94
그림18 노비행랑지 / 96
그림19 노비행랑지 동편 회랑지 / 98
그림20 홍화각지 / 100
그림21 예고지·예리장방지 / 106
그림22 예고지·예리장방지 / 111
그림23 호적고지 / 114
그림24 호고지 / 117
그림25 영리장방지 / 122
그림26 우연당지 / 126
그림27 소행정지 / 134
그림28 청심당지(구지) / 136
그림29 애매헌지 / 138
그림30 영주협당지 / 141
그림31 교방지 / 143
그림32 심약방지 / 145
그림33 와선각지 / 148
그림34 교방지 상층건물지 / 154
그림35 외대문(포정문)-중대문간 도로 / 158
그림36 내대문 안쪽도로 / 161
그림37 내대문지 / 166
그림38 대문지 / 168
그림39 연못지 / 171
그림40 조선전기 원형우물지 / 177
그림41 조선전기 우물지 / 178
그림42 조선후기 우물지 / 179
그림43 담장지(1) / 180
그림44 담장지(2),(3) / 181
그림45 담장지(4) / 182
그림46 담장지(5)~(11) / 185
그림47 담장지(10) / 188
그림48 담장지(13) / 189
그림49 적석유구 / 194
그림50 '俊戊'銘 암막새 / 201
그림51 '明崇禎'銘 암막새 / 202
그림52 梵文암막새 / 202
그림53 암막새 / 202
그림54 연화문수막새 / 203
그림55 연화문수막새 / 203
그림56 연화문수막새 / 204
그림57 연화문수막새 / 204
그림58 국화문수막새 / 204
그림59 길상문수막새 / 205
그림60 수막새 / 205
그림61 'ㅇ酉式西岳' 명와 / 205
그림62 'ㅇ衣式厂氾' 명와 / 206
그림63 '東南' 명와 / 206
그림64 '客貝戊子' 명와 / 206
그림65 '大' 명와 / 207
그림66 명문와 / 207
그림67 '造瓦' 명와 / 207
그림68 '門' 명와 / 208
그림69 '左主監造' 명와 / 208
그림70 '上甲' 명와 / 209
그림71 무문암기와 / 209
그림72 격자문암기와 / 210
그림73 격자문암기와 / 210
그림74 격자문암기와 / 210
그림75 격자문암기와 / 211
그림76 어골문암기와 / 211
그림77 어골문암기와 / 211
그림78 어골문암기와 / 212
그림79 어골문암기와 / 212
그림80 어골문암기와 / 212
그림81 어골문암기와 / 213
그림82 어골문암기와 / 213
그림83 어골문암기와 / 213
그림84 어골문암기와 / 214
그림85 어골문암기와 / 214
그림86 어골문암기와 / 214
그림87 어골문암기와 / 214
그림88 어골문암기와 / 215
그림89 어골문암기와 / 215
그림90 어골문암기와 / 215
그림91 어골문암기와 / 216
그림92 어골문암기와 / 216
그림93 어골문암기와 / 216
그림94 어골문암기와 / 217
그림95 어골문암기와 / 217
그림96 어골문암기와 / 217
그림97 어골문암기와 / 218
그림98 어골문암기와 / 218

그림99 어골문암기와 / 218
그림100 어골문암기와 / 219
그림101 어골문암기와 / 219
그림102 어골문암기와 / 219
그림103 어골문암기와 / 220
그림104 어골문암기와 / 220
그림105 어골문암기와 / 221
그림106 어골문암기와 / 221
그림107 어골문암기와 / 221
그림108 어골문암기와 / 222
그림109 어골문암기와 / 222
그림110 어골문암기와 / 222
그림111 수형문암기와 / 223
그림112 화문암기와 / 223
그림113 선문암기와 / 223
그림114 선문암기와 / 224
그림115 선문암기와 / 224
그림116 복합문암기와 / 224
그림117 복합문암기와 / 225
그림118 복합문암기와 / 225
그림119 복합문암기와 / 225
그림120 중호문암기와 / 226
그림121 중호문암기와 / 226
그림122 복합문암기와 / 226
그림123 복합문암기와 / 227
그림124 복합문암기와 / 227
그림125 무문숫기와 / 228
그림126 격자문숫기와 / 228
그림127 어골문숫기와 / 228
그림128 어골문숫기와 / 229
그림129 어골문숫기와 / 229
그림130 어골문숫기와 / 229
그림131 어골문숫기와 / 230
그림132 어골문숫기와 / 230
그림133 어골문숫기와 / 230
그림134 어골문숫기와 / 231
그림135 어골문숫기와 / 231
그림136 어골문숫기와 / 231
그림137 어골문숫기와 / 232
그림138 어골문숫기와 / 232
그림139 어골문숫기와 / 232
그림140 어골문숫기와 / 233
그림141 어골문숫기와 / 233
그림142 어골문숫기와 / 233
그림143 어골문숫기와 / 234
그림144 어골문숫기와 / 234
그림145 수엽문숫기와 / 234
그림146 선문숫기와 / 235
그림147 선문숫기와 / 235
그림148 중호문숫기와 / 236
그림149 중호문숫기와 / 236
그림150 복합문숫기와 / 236
그림151 복합문숫기와 / 237
그림152 복합문숫기와 / 237
그림153 복합문숫기와 / 237
그림154 복합문숫기와 / 238
그림155 복합문숫기와 / 238
그림156 복합문숫기와 / 238
그림157 복합문숫기와 / 239
그림158 복합문숫기와 / 239
그림159 복합문숫기와 / 239
그림160 복합문숫기와 / 240
그림161 어골문숫기와 / 240
그림162 어골문숫기와 / 241
그림163 격자문숫기와 / 241
그림164 중호문숫기와 / 242
그림165 중호문숫기와 / 242
그림166 격자문숫기와 / 243
그림167 무문숫기와 / 243
그림168 '壬申' 명와 / 244
그림169 무문전 / 244
그림170 무문전 / 245
그림171 청자대접 / 246
그림172 청자대접 / 246
그림173 청자대접 / 246
그림174 청자대접 / 246
그림175 청자대접 / 246
그림176 청자대접 / 247
그림177 청자탁잔 / 247
그림178 청자매병 / 247
그림179 청자뚜껑 / 247
그림180 청자대접 / 247
그림181 청자접시 / 248
그림182 청자접시 / 248
그림183 청자잔 / 248
그림184 청자대접 / 248
그림185 청자대접 / 248
그림186 청자접시 / 248
그림187 청자대접 / 248
그림188 청자대접 / 249
그림189 청자대접 / 249
그림190 청자대접 / 249
그림191 청자대접 / 249
그림192 청자접시 / 249
그림193 청자대접 / 249
그림194 청자대접 / 250
그림195 청자접시 / 250
그림196 청자접시 / 250
그림197 청자접시 / 250
그림198 청자뚜껑 / 250

그림199 청자마상배 / 250
그림200 청자종지 / 250
그림201 청자매병 / 251
그림202 청자병 / 251
그림203 청자대접 / 251
그림204 청자대접 / 251
그림205 청자대접 / 251
그림206 청자종지 / 251
그림207 청자종지 / 252
그림208 청자대접 / 252
그림209 청자접시 / 252
그림210 청자접시 / 252
그림211 청자잔탁 / 252
그림212 청자대접 / 252
그림213 청자병 / 253
그림214 청자접시 / 253
그림215 청자대접 / 253
그림216 청자병 / 253
그림217 흑유호 / 253
그림218 청자대접 / 254
그림219 청자마상배 / 254
그림220 청자대접 / 254
그림221 청자대접 / 254
그림222 청자대접 / 255
그림223 청자접시 / 255
그림224 백자접시 / 255
그림225 분청인화문대접 / 255
그림226 분청인화문대접 / 256
그림227 분청인화문대접 / 256
그림228 분청인화문대접·접시 / 256
그림229 분청인화문대접 / 256
그림230 분청인화문접시 / 256
그림231 분청인화문접시 / 256
그림232 분청인화문대접 / 257
그림233 분청인화문접시 / 257
그림234 분청인화문뚜껑 / 257
그림235 분청인화문대접 / 257
그림236 분청인화문접시 / 258
그림237 분청인화문접시 / 258
그림238 분청인화문대접 / 258
그림239 분청접시 / 258
그림240 분청접시 / 259
그림241 분청 '內贍' 명 접시·대접 / 259
그림242 분청호 / 259
그림243 분청대발 / 259
그림244 분청호 / 260
그림245 분청병 / 260
그림246 분청귀얄문접시 / 260
그림247 분청귀얄문대접 / 260
그림248 분청귀얄문대접 / 261
그림249 분청귀얄문대접 / 261
그림250 분청병 / 261
그림251 분청호 / 261
그림252 분청대발 / 262
그림253 분청대발 / 262
그림254 분청호 / 262
그림255 분청호 / 262
그림256 분청호 / 262
그림257 분청덤벙분장대접 / 263
그림258 분청덤벙분장접시 / 263
그림259 분청덤벙분장접시 / 263
그림260 분청덤벙분장대접 / 263
그림261 분청호 / 263
그림262 분청병 / 263
그림263 분청병 / 264
그림264 분청덤벙분장대접 / 264
그림265 분청접시 / 264
그림266 분청병 / 264
그림267 분청병 / 264
그림268 분청매병 / 264
그림269 분청호 / 265
그림270 분청호 / 265
그림271 분청병 / 265
그림272 백자접시 / 265
그림273 백자접시 / 265
그림274 백자접시 / 265
그림275 백자접시 / 265
그림276 백자접시 / 266
그림277 백자접시 / 266
그림278 백자접시 / 266
그림279 백자접시 / 266
그림280 백자접시 / 266
그림281 백자접시 / 267
그림282 백자접시 / 267
그림283 백자접시 / 267
그림284 백자접시 / 267
그림285 백자접시 / 267
그림286 백자접시 / 267
그림287 백자접시 / 268
그림288 백자접시 / 268
그림289 백자접시 / 268
그림290 백자접시 / 268
그림291 백자접시 / 268
그림292 백자접시 / 268
그림293 백자접시 / 269
그림294 백자접시 / 269
그림295 백자접시 / 269
그림296 백자접시 / 269
그림297 백자접시 / 269
그림298 백자전접시 / 269

그림299 백자접시 / 270
그림300 백자접시 / 270
그림301 백자제기접시 / 270
그림302 백자제기접시 / 270
그림303 백자대접 / 271
그림304 백자대접 / 271
그림305 백자대접 / 271
그림306 백자대접 / 271
그림307 백자대접 / 271
그림308 백자대접 / 271
그림309 백자대접 / 272
그림310 백자대접 / 272
그림311 백자대접 / 272
그림312 백자대접 / 272
그림313 백자대접 / 272
그림314 백자대접 / 272
그림315 백자대접 / 273
그림316 백자대접 / 273
그림317 백자대접 / 273
그림318 백자잔 / 273
그림319 백자잔 / 273
그림320 백자잔 / 274
그림321 백자잔 / 274
그림322 백자종지 / 274
그림323 백자종지 / 274
그림324 백자종지 / 275
그림325 백자종지 / 275
그림326 백자종지 / 275
그림327 백자종지 / 275
그림328 백자병 / 275
그림329 백자병 / 275
그림330 백자병 / 276
그림331 백자병 / 276
그림332 백자병 / 276
그림333 백자호 / 276
그림334 백자호 / 276
그림335 백자 '右乙卯' 명대접 / 277
그림336 백자 '任正牧上' 명대접 / 277
그림337 백자 '左' 명대접 / 277
그림338 백자 '右ㅁㅁ' 명대접 / 277
그림339 백자명문접시 / 277
그림340 백자명문접시 / 277
그림341 백자명문접시 / 278
그림342 백자 '大男' 명접시 / 278
그림343 백자 '朴用' 명접시 / 279
그림344 백자 '朴用' 명종지 / 279
그림345 백자 '愛用' 명접시 / 279
그림346 백자 'ㅁ用' 명접시 / 279
그림347 백자 '末只' 명대접 / 279
그림348 백자 '末' 명접시 / 279
그림349 백자 '忠ㅁ' 명접시 / 280
그림350 백자 '忠' 명대접 / 280
그림351 백자 '忠' 명접시 / 280
그림352 백자 '仁名' 명접시 / 280
그림353 백자 '仁ㅁ' 명접시 / 280
그림354 백자 '仁ㅁ' 명접시 / 280
그림355 백자 '亭' 명접시 / 280
그림356 백자 '亭' 명접시 / 281
그림357 백자 '亭' 명대접 / 281
그림358 백자 '亭供' 명대접 / 281
그림359 백자 '上' 명대접 / 281
그림360 백자 '上' 명접시 / 281
그림361 백자 '上' 명접시 / 281
그림362 백자 '上' 명접시 / 282
그림363 백자 '上' 명접시 / 282
그림364 백자 '上' 명접시 / 282
그림365 백자 '上' 명접시 / 282
그림366 백자 '上' 명접시 / 282
그림367 백자 '下' 명접시 / 282
그림368 백자 '上' 명종지 / 283
그림369 백자 '上供' 명접시 / 283
그림370 백자 '大允金?奉' 명접시 / 283
그림371 백자 '天別官上' 명접시 / 283
그림372 백자 '官' 명접시 / 283
그림373 백자 '別官' 명접시 / 283
그림374 백자 '官上' 명접시 / 284
그림375 백자 '夫巳天上' 명접시 / 284
그림376 백자 '州上' 명대접 / 284
그림377 백자 '州上' 명대접 / 284
그림378 백자 '丁ㅁ' 명접시 / 284
그림379 백자 '丁?' 명접시 / 284
그림380 백자 '天' 명대접 / 285
그림381 백자 '天' 명종지 / 285
그림382 백자 '二' 명접시 / 285
그림383 백자 '二' 명종지 / 285
그림384 백자 '十' 명접시 / 285
그림385 백자 '十' 명접시 / 285
그림386 백자 '草卜' 명접시 / 286
그림387 백자 '春' 명접시 / 286
그림388 백자 '吉己' 명접시 / 286
그림389 백자 '軍德' 명접시 / 286
그림390 백자 '金生' 명종지 / 286
그림391 백자 '生' 명접시 / 286
그림392 백자 '言' 명접시 / 287
그림393 백자 '得男' 명접시 / 287
그림394 백자 '千' 명접시 / 287
그림395 백자 '?終' 명접시 / 287
그림396 백자 '夢?' 명접시 / 287
그림397 백자 '?誰?' 명접시 / 287
그림398 백자명문접시 / 288

그림399 백자명문접시 / 288
그림400 백자명문접시 / 288
그림401 백자명문접시 / 288
그림402 백자명문접시 / 288
그림403 백자명문접시 / 288
그림404 백자명문대접 / 289
그림405 백자명문종지 / 289
그림406 백자명문대접 / 289
그림407 백자 '막개' 명대접 / 289
그림408 백자 '문' 명접시 / 289
그림409 백자 '나일년' 명접시 / 290
그림410 곽지리식토기 / 292
그림411 적갈색호형토기 / 292
그림412 적갈색호형토기 / 293
그림413 적갈색호형토기 / 293
그림414 적갈색호형토기 / 293
그림415 적갈색호형토기 / 293
그림416 적갈색호형토기 / 293
그림417 적갈색호형토기 / 294
그림418 적갈색호형토기 / 294
그림419 뚜껑 / 294
그림420 고내리식토기 / 294
그림421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그림422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그림423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그림424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그림425 적갈색심발형토기 / 296
그림426 단경병 / 296
그림427 단경병 / 296
그림428 호 / 296
그림429 호 / 297
그림430 병 / 297
그림431 대발 / 297
그림432 호 / 297
그림433 호 / 297
그림434 호 / 298
그림435 단경호 / 298
그림436 단경호 / 298
그림437 단경호 / 298
그림438 병 / 298
그림439 단경호 / 298
그림440 병 / 299
그림441 호 / 299
그림442 호 / 299
그림443 호 / 299
그림444 호 / 299
그림445 단경호 / 300
그림446 단경호 / 300
그림447 호 / 300
그림448 호 / 300
그림449 장경호 / 300
그림450 호 / 301
그림451 호 / 301
그림452 호 / 301
그림453 호 / 301
그림454 호 / 301
그림455 호 / 301
그림456 병 / 302
그림457 병 / 302
그림458 편병 / 302
그림459 병 / 302
그림460 호 / 302
그림461 병 / 303
그림462 병 / 303
그림463 시루 / 303
그림464 뚜껑 / 303
그림465 뚜껑 / 303
그림466 뚜껑 / 304
그림467 뚜껑손잡이 / 304
그림468 파수부 / 304
그림469 파수부 / 304
그림470 방추차 / 304
그림471 방추차 / 305
그림472 그물추 / 305
그림473 그물추 / 305
그림474 어망추 / 305
그림475 돌대패 / 305
그림476 숫돌 / 306
그림477 銅製馬鐸 / 307
그림478 常平通寶 / 307
그림479 骨製佩用具 / 307

사진목차

사진 1 A구역 발굴전 전경(경찰서유치장 부근) / 67
사진 2 A구역 시굴조사후 전경 / 67
사진 3 A구역 발굴중간단계 전경 / 67
사진 4 A구역 발굴완료후 전경 / 67
사진 5 A구역 현대건물・조선시대 유구 중복상태 / 69
사진 6 B・C구역 발굴전 상태 / 69
사진 7 B구역 발굴전 상태 / 69
사진 8 B구역 발굴후 상태 / 69
사진 9 B-2구역 발굴전 상태 / 69
사진10 B-2구역 발굴후 상태 / 69
사진11 B-2구역 발굴전 상태 / 69
사진12 B-2구역 발굴전 상태 / 70
사진13 발굴광경 / 70
사진14 발굴광경 / 70
사진15 시굴항(Trench) 굴착작업 / 70

사진16 시굴항 발굴상태 / 70
사진17 유구전면 노출상태 / 70
사진18 건물지·매립부 노출상태 / 70
사진19 하층유구 노출상태 / 70
사진20 B구역 우물지·탐라시대층 작업광경 / 71
사진21 A구역 시굴전 상태 / 71
사진22 B-3구역 EW.Tr(1)·NS.Tr(1)(2) 전경 / 71
사진23 B-3구역 NS.Tr(1) 전경 / 71
사진24 B-3구역 EW.Tr(1) 현대건물지 기단 노출상태 / 71
사진25 A구역 시굴트렌치 발굴모습 / 71
사진26 A구역 경찰서건물 제거후 노출된 각인 목인장 / 71
사진27 A구역 일제시대유구와 담장지 / 71
사진28 D구역 발굴전 전경 / 72
사진29 D구역 현대건물지 제거후 상태 / 72
사진30 D구역 상부매립토 제거작업 / 72
사진31 D구역 상부매립토 제거작업 / 72
사진32 D구역 시굴조사 광경 / 72
사진33 D구역 시굴트렌치 구획모습 / 73
사진34 D구역 매립층 조사광경 / 73
사진35 D구역 발굴지 전경(북서에서) / 73
사진36 D구역 발굴지 전경(북동에서) / 73
사진37 A구역 교방지 서편유구 중복상태 / 78
사진38 A구역 마구지 서쪽 Test-pit(1) 상층 단면층위 / 78
사진39 A구역 담장지 Test-pit(3) 단면층위 / 79
사진40 A구역 담장지 Test-pit(3) 전경(남에서) / 79
사진41 A구역 담장지 Test-pit(3) 원경 / 80
사진42 A구역 담장지 Test-pit(3) 단면층위 / 80
사진43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pit(3) 단면층위 전경 / 80
사진44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pit(3) 단면층위 세부 / 80
사진45 C구역 연희각지남쪽 Test-pit(4) / 81
사진46 C구역 연희각지 성토층 단면층위 / 81
사진47 A구역 Test-pit / 82
사진48 B구역 상부매립층 / 82
사진49 연희각지 적석다짐층 / 83
사진50 연희각지 상부 적석다짐층 / 83
사진51 연희각지 중앙 방고래시설·적석다짐층 / 83
사진52 연희각지 전체 상태 / 85
사진53 연희각지 동편 기단석열·부석시설 / 85
사진54 연희각지 동편 기단석열 / 85
사진55 연희각지 남쪽 기초다짐층 / 85
사진56 연희각지 남쪽 유구 중복상태 / 85
사진57 연희각지 중앙 Test-pit내 하부 적석다짐층 / 85
사진58 연희각지 남쪽 출입구 부석시설 / 85
사진59 연희각지 북쪽 바닥전시설(1) / 86
사진60 연희각지 북쪽 바닥전시설(2) / 86
사진61 연희각지 동쪽 마당시설 원경 / 86
사진62 연희각지 동쪽 마당시설 전경 / 86
사진63 연희각지 동쪽 마당 부석시설 축조상태 / 86
사진64 연희각지 동쪽 마당 부석시설 관련 배수시설 / 87
사진65 연희각지 남쪽 마당내 배수시설 / 87
사진66 연희각지 남쪽 배수시설과 와적담장지 / 87
사진67 연희각지 남쪽 마당과 배수시설 / 87
사진68 연희각지 남쪽 마당 배수시설 세부 / 87
사진69 연희각지 외곽담장지(남에서) / 91
사진70 연희각지 외곽담장과 하단 기초석열(측면에서) / 91
사진71 연희각지 하층 와적담장지와 적석층 / 91
사진72 연희각지 서편 담장지 / 91
사진73 내아건물지(위에서) / 92
사진74 내아 마당 주변유구 노출상태 / 92
사진75 내아건물지 발굴광경 / 92
사진76 내아건물지 주변시설 / 93
사진77 내아건물지내 아궁이시설 / 93
사진78 내아건물지 초석 / 93
사진79 노비행랑건물지와 주변유구 / 95
사진80 노비행랑(위에서) / 95
사진81 노비행랑내 부엌공간 / 95
사진82 노비행랑 아궁이시설 / 95
사진83 연희각지 동편유구 노출상태 / 97
사진84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 97
사진85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세부 / 97
사진86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초석·바닥전 다짐 / 97
사진87 홍화각지(위에서) / 99
사진88 홍화각지 전경(위에서) / 99
사진89 홍화각지 전경(북서에서) / 99
사진90 홍화각지 북편 기단석열 발굴전 상태 / 101
사진91 홍화각지 상부 적석층 노출상태 / 101
사진92 홍화각지 내부 교란층(현대 시멘트다짐) / 101
사진93 홍화각지 상부 한말건물지(서에서) / 101
사진94 홍화각지 전경(남서에서) / 101
사진95 홍화각지 전경(동에서) / 101
사진96 홍화각지 남쪽기단(서에서) / 101
사진97 홍화각지 남쪽기단(동에서) / 102
사진98 홍화각지 서쪽기단(북에서) / 102
사진99 홍화각지 북쪽기단(서에서) / 102
사진100 홍화각지 서쪽기단석열 축조상태 / 102
사진101 홍화각지 남쪽기단석열 축조상태 / 103
사진102 홍화각지 남쪽기단석열 내부다짐 / 103
사진103 홍화각지 마당시설 / 103
사진104 홍화각지 남서편 기단석열 마감상태 / 103
사진105 홍화각지 서편 기단석열 적석상태(1) / 103
사진106 홍화각지 서편 기단석열 적석상태(2) / 103
사진107 홍화각지 서편 기단석열 적석상태(3) / 103
사진108 홍화각지 동편 상부적석층(1) / 104
사진109 홍화각지 동편 상부적석층(2) / 104
사진110 홍화각지 동편 상부적석층(3) / 104
사진111 홍화각지 방고래시설(북에서) / 104
사진112 홍화각지 축조상태 / 104
사진113 홍화각지 방고래시설(위에서) / 104
사진114 홍화각지 북편 기단석열 축조상태 / 104
사진115 홍화각지 동편 유구 중복상태 / 105

사진116 예리장방지 · 예고지 / 105
사진117 예리장방지 동편기단 / 107
사진118 예리장방지 적석층(위에서) / 107
사진119 예리장방지 전체노출상태 / 107
사진120 예리장방지 적석층(남에서) / 107
사진121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서에서) / 107
사진122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에서) / 107
사진123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서에서) / 107
사진124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에서) / 107
사진125 예리장방지 적석상태세부(북서에서) / 107
사진126 예리장방지 기단석열 · 적석상태(북서에서) / 108
사진127 예리장방지 동편 원형적석군(동에서) / 108
사진128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남에서) / 108
사진129 예리장방지 내부 방고래시설(북서에서) / 108
사진130 예리장방지 내부 방고래시설(남동에서) / 108
사진131 예리장방지 내부 방고래시설(남에서) / 108
사진132 예리장방지 유구노출상태 / 108
사진133 예리장방지 내부 청자병 노출상태 / 108
사진134 예리장방지 내부 분청편 노출상태 / 109
사진135 예리장방지 서편 단애면(북에서) / 109
사진136 예리장방지 · 예고 세부(북에서) / 109
사진137 예리장방지 서편 건물지퇴적층(동에서) / 109
사진138 예리장방지 동편 기단석열 중복상태(북서에서) / 109
사진139 예리장방지 기단석열(남에서) / 109
사진140 예고지 · 예리장방지 / 110
사진141 예리장방지 · 예고지 중복상태 / 110
사진142 예고지 기단석열 / 110
사진143 예리장방지 서편 적석상태 / 112
사진144 예고지 내부 화구시설(동에서) / 112
사진145 예고지 내부 화구시설(동에서) / 112
사진146 예고지 내부 초석 하부적석상태 / 112
사진147 예고지 기단석열 · 적석층(북에서) / 112
사진148 예리장방지 남쪽 배수로 / 112
사진149 호적고지와 주변유적 / 113
사진150 호적고지 초석열(동에서) / 113
사진151 호적고지 초석열 · 기단(서에서) / 113
사진152 호적고지 초석(서에서) / 115
사진153 호적고지 초석하부 기단석 노출상태 / 115
사진154 호적고지 서남쪽 기단(북서에서) / 115
사진155 호적고지 서남쪽 기단(남동에서) / 115
사진156 호적고지 초석열(서에서) / 115
사진157 호적고지 초석열(동에서) / 115
사진158 호고지 / 116
사진159 호고지 동편 기단석열 · 초석배치상태 / 116
사진160 호고지 내부 / 116
사진161 호고지 내부 기단중복상태 / 118
사진162 호고지 기단 · 초석 축조상태 / 118
사진163 호고지 서편기단 / 118
사진164 호고지 남동쪽 기단석축조상태 / 118
사진165 호고지 동편기단 / 118
사진166 호고지 내부 초석 배치상태 / 118
사진167 호고지 내부 초석(북동에서) / 119
사진168 호고지 내부 초석(북동에서) / 119
사진169 호고지 내부 초석(동에서) / 119
사진170 호고지 내부 초석(북에서) / 119
사진171 호고지 동편기단(북에서) / 119
사진172 호고지 동편기단(남에서) / 119
사진173 영리장방지 / 120
사진174 영리장방지 노출상태(서에서) / 120
사진175 영리장방지 노출상태(서에서) / 120
사진176 호고지 · 영리장방지 중복상태(북에서) / 121
사진177 호고지 · 영리장방지 중복상태(남서에서) / 121
사진178 영리장방지 내부 / 121
사진179 영리장방지 동편배수로 / 121
사진180 영리장방지 내부 박석시설 / 121
사진181 영리장방지 내부 기와 방고래시설 / 123
사진182 영리장방지 하층유물 노출상태 / 123
사진183 영리장방지 내부 적심상태 / 123
사진184 영리장방지 내부적심 · 기단석 중복상태 / 123
사진185 영리장방지 내부 적심상태(동에서) / 123
사진186 영리장방지 내부적석 / 123
사진187 영리장방지 내부적석 세부 / 123
사진188 영리장방지 내부(동에서) / 123
사진189 영리장방지 내부(동에서) / 124
사진190 영리장방지 내부 남서쪽 적심상태(동에서) / 124
사진191 영리장방지 내부 적심상태(동에서) / 124
사진192 영리장방지 내부 동쪽 적심상태 / 124
사진193 영리장방지 내부 기와 방고래시설 / 124
사진194 영리장방지 내부 박석시설(서에서) / 124
사진195 영리장방지 내부 박석시설(남동에서) / 124
사진196 영리장방지 · 호고지 중복상태 / 124
사진197 우연당지 노출상태(동에서) / 125
사진198 우연당지 노출상태(남에서) / 125
사진199 우연당지 내부(동에서) / 125
사진200 우연당지 전체노출상태 / 127
사진201 우연당지 초석 · 적심상태(서에서) / 128
사진202 우연당지 초석 · 적석층(서에서) / 128
사진203 우연당지 초석 · 적심석 배치상태(동에서) / 129
사진204 우연당지 초석 · 적석층(남에서) / 129
사진205 우연당지 초석 · 적석층(북서에서) / 129
사진206 우연당지 하부적석상태(동에서) / 129
사진207 우연당지 적석상태(동에서) / 129
사진208 우연당지 남쪽기단석 / 129
사진209 영리장방지 남서편 석곽시설 / 129
사진210 우연당지 남동쪽 초석과 석곽시설 / 129
사진211 영리장방지 남서쪽 석축 · 석곽시설 / 130
사진212 우연당지 남쪽기단 · 내부적석층 / 130
사진213 우연당지 내부적석층 / 130
사진214 우연당지 동쪽기단석 마감상태 / 130
사진215 우연당지 초석 축조상태 / 130

사진216 우연당지 초석과 적석층 / 130
사진217 우연당지 초석과 적석층 / 130
사진218 우연당지 북쪽기단석열 / 131
사진219 우연당지 적심상태 / 131
사진220 우연당지 동북모서리 기단석 결실상태 / 131
사진221 우연당지 적심석열 / 131
사진222 우연당지 적심·기단 / 131
사진223 우연당지 적심 / 131
사진224 우연당지 적심 / 131
사진225 우연당지 적심 / 131
사진226 우연당지 적심 / 132
사진227 우연당지 적심 / 132
사진228 우연당지 적심층 / 132
사진229 우연당지 적심시설 / 132
사진230 영리장방지 기단과 적석시설 / 132
사진231 우연당지와 우물지 / 132
사진232 우연당지 남쪽 배수로 / 132
사진233 우연당지 주변유구 /132
사진234 소행정지 / 133
사진235 영주협당지 북편 담장유구·소행정지 진입부 / 133
사진236 소행정지와 주변유구 / 133
사진237 청심당지 / 135
사진238 청심당지와 주변유구 / 135
사진239 청심당지 적심상태 / 135
사진240 영주협당지 북편 담장지 / 136
사진241 애매헌지 / 137
사진242 애매헌지와 담장유구 / 137
사진243 애매헌지 기단과 바닥전 축조상태 / 137
사진244 애매헌지 기단석열과 바닥전시설 / 137
사진245 애매헌지와 주변유구 노출광경 / 137
사진246 애매헌지 성토층 / 138
사진247 영주협당지·군관청지 중복상태 / 138
사진248 영주협당지 상부 성토층 / 139
사진249 영주협당지·군관청지 기단석열과 적심석 / 139
사진250 영주협당지 북편 기단석열과 화구 / 139
사진251 영주협당지 북편 기단석열 / 140
사진252 교방지 / 142
사진253 A구역 일제시대유구·조선시대 건물지 중복상태 /142
사진254 A구역 상층 일제시대유구·하층 교방지 / 142
사진255 교방지 하층 성토층 / 142
사진256 심약방지 / 144
사진257 한말건물지·마구지·교방지 중복상태(1) / 144
사진258 심약방지 적심석과 유구 / 144
사진259 심약방지 성토층 / 144
사진260 심약방지·마구지·담장지 / 146
사진261 한말건물지·마구지·교방지 중복상태(2) / 146
사진262 마구지·담장지 중복상태 / 146
사진263 A구역 한말건물지와 하층 심약방·마구지 / 146
사진264 와선각지 노출상태(동에서) / 147
사진265 와선각지 기단석열·내부적석층 / 147
사진266 와선각지 노출상태(북에서) / 147
사진267 와선각지 북편기단석열 / 147
사진268 군관청지·영주협당지 기단석열 / 149
사진269 군관청지 적심과 기단 / 149
사진270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하층유구 / 150
사진271 성토층 상면 바닥전시설 / 150
사진272 영리장방지 하층유구 / 150
사진273 영리장방지 하층 조선전기건물지 / 150
사진274 영리장방지 하층 건물지 동편기단석열 / 151
사진275 기단석열과 담장지 / 151
사진276 기단석열 / 151
사진277 영주협당지 하층건물지 / 151
사진278 호적고지 하층 부석건물지와 홍화각지 마당 / 152
사진279 호적고지 하층 부석건물지 원경 / 152
사진280 호적고지 하층건물지 부석상태 / 152
사진281 호적고지 하층건물지 부석상태 / 152
사진282 부석상태 / 152
사진283 부석상태와 문지도리석 / 152
사진284 부석상태 세부 / 153
사진285 문지도리석 / 153
사진286 호적고지 하부유구 상태(1) / 153
사진287 호적고지 하부유구 상태(2) / 153
사진288 교방지 상층 한말건물지·일제시대유구 중복상태 / 155
사진289 교방지 상층 한말건물지 축조상태 / 155
사진290 호적고지 상층건물지(1) / 155
사진291 호적고지 상층건물지(2) / 155
사진292 중대문-외대문간 도로 전경 / 156
사진293 도로 축조상태(1) / 156
사진294 도로 주변유구 / 156
사진295 외대문-중대문간도로 세부 / 156
사진296 외대문지·중대문지 / 157
사진297 진입로 발굴전(남에서) / 157
사진298 발굴중간단계 일제시대 진입로 노출상태 / 157
사진299 외대문-중대문간 도로 전경 / 157
사진300 도로 축조상태(2) / 157
사진301 진입로 발굴전 상태(북에서) / 159
사진302 도로상면 자갈층 / 159
사진303 일제시대 관사 진입도로 / 159
사진304 일제시대 관사 진입도로 / 159
사진305 담장지(6)과 도로·보도 / 160
사진306 내대문지 안쪽도로와 보도(남에서) / 160
사진307 내대문지 안쪽도로와 보도(북에서) / 160
사진308 도로 축조상태(3) / 160
사진309 보도 축조상태(1) / 162
사진310 보도 축조상태(2) / 162
사진311 외대문지 / 163
사진312 외대문지(동에서) / 163
사진313 외대문지(서에서) / 163
사진314 외대문지 발굴상태 / 163
사진315 외대문지 초석과 성토 / 163

사진316 외대문지 서편 초석 / 163
사진317 외대문지 중앙 초석 / 163
사진318 외대문지 북편 중앙초석 / 163
사진319 문지초석간 석열 / 164
사진320 적심석 / 164
사진321 이탈된 초석구덩이 / 164
사진322 원형적심석과 이탈된 초석 / 164
사진323 기단과 바닥다짐 / 164
사진324 원형구덩이와 적심상태 / 164
사진325 도로·문지 전경 / 164
사진326 외대문지에서 바라본 중대문지와 도로 / 165
사진327 중대문지 전경 / 165
사진328 중대문지 전경 / 165
사진329 중대문지 석열과 바닥 / 165
사진330 중대문지 기와열과 성토 / 165
사진331 중대문지 기와바닥 다짐상태 / 165
사진332 추정 내대문지 전경 / 167
사진333 추정 내대문지 내부 석열과 유구 / 167
사진334 추정 내대문지와 조선전기 문지 / 167
사진335 추정 내대문지 내부시설 / 167
사진336 조선전기 문지석열과 적심 / 167
사진337 조선전기 문지 적심상태 / 167
사진338 조선전기 문지(서에서) / 168
사진339 조선전기 문지 적심상태 / 168
사진340 연못지 전경 / 169
사진341 연못지 원경(남동에서) / 169
사진342 연못지 전경(남에서) / 169
사진343 연못지 전경(남서에서) / 170
사진344 연못지 전경(동에서) / 170
사진345 연못지 전경 / 170
사진346 연못지 전경 / 170
사진347 연못지 근경(서에서) / 172
사진348 연못지 근경(동에서) / 172
사진349 연못지 전경(남에서) / 173
사진350 연못지와 석축(서에서) / 173
사진351 연못지와 석축(동에서0 / 173
사진352 연못지 북편 호안석축 / 173
사진353 연못지 북편 호안석축 / 173
사진354 호안석축 축조상태 / 173
사진355 호안석축 축조상태 / 173
사진356 배수로와 북서편 호안석축 마감상태 / 173
사진357 연못지와 주변유구 / 174
사진358 연못지 북쪽유구 중복상태 / 174
사진359 연못지 석축열 축조상태 / 174
사진360 연못지 축조상태 세부 / 174
사진361 배수로 맞물림상태 / 174
사진362 연못지 남쪽 경계석열 / 174
사진363 연못지 남쪽 담장과 유구 / 174
사진364 영리장방지 외곽석축과 출수구 / 175
사진365 연못지 서편 배수로 / 175
사진366 배수로와 주변유구 중복상태 / 175
사진367 배수로와 원형우물지 / 175
사진368 배수로 축조상태 / 175
사진369 배수로 축조상태(서에서) / 175
사진370 연못지 동북모서리 석축 맞춤상태 / 175
사진371 배수로와 원형우물지·담장지(20) / 176
사진372 연못지 상면 석열유구(동에서) / 176
사진373 배수로 축조상태 / 176
사진374 연못지 상면 석열유구(북에서) / 176
사진375 석축 맞물림상태 / 176
사진376 연못지 매립층 / 176
사진377 연못지 남쪽 성토층 굴착부(석축열 이탈상태) / 176
사진378 B구역 조선전기 원형우물지 상면 노출상태 / 177
사진379 B구역 조선전기 원형우물지 상면 제거후 / 177
사진380 B구역 원형우물지 / 177
사진381 B구역 원형우물지 바닥과 석축축조상태 / 177
사진382 B구역 소행정지내 방형우물지 / 178
사진383 B구역 원형우물지 상면 / 178
사진384 B구역 원형우물지와 주변유구 / 178
사진385 B구역 원형우물지 석축축조상태 / 178
사진386 원형유구 / 178
사진387 D구역 조선후기 우물지 / 179
사진388 D구역 조선후기 우물지 / 179
사진389 담장지(1) / 180
사진390 담장지(1)과 협문지 / 180
사진391 담장지(2),(3) / 181
사진392 담장지(4) / 182
사진393 담장지(4) 주변 작업광경 / 182
사진394 담장지(5)~(9),(15) 전경 / 184
사진395 담장지(5),(12) / 184
사진396 담장지(5),(8) / 184
사진397 담장지 전경 / 186
사진398 담장지(5) 와적상태 / 186
사진399 담장지(5) 와적상태 / 186
사진400 담장지(5) 와적 세부 / 186
사진401 담장지(5)와 기와배수로 / 186
사진402 담장지(9),(15) / 186
사진403 담장지(15) / 187
사진404 담장지(9) / 187
사진405 담장지(10)과 Test-pit / 187
사진406 담장지(10)과 마구지 적석층 / 187
사진407 담장지(13),(14) 전경(남에서) / 190
사진408 담장지(13),(14) 전경(북에서) / 190
사진409 담장지(13) / 190
사진410 담장지(14) 와적상태 / 190
사진411 담장지(14) 와적 세부 / 190
사진412 담장지(14) 와적 세부 / 190
사진413 담장지(13) 주변유구 중복상태 / 190
사진414 담장지(16) / 191
사진415 담장지(16) 주변 수로 / 191

사진416 담장지(16) 세부 / 191
사진417 담장지(16) 와적상태 / 191
사진418 담장지(16) 축조상태(동에서) / 192
사진419 담장지(16) 축조상태(북에서) / 192
사진420 담장지(16) 축조상태 세부 / 192
사진421 담장지(16) 할석 맞물림상태 / 192
사진422 담장지(17) / 193
사진423 담장지(18) / 193
사진424 담장지(19) 축조상태 / 193
사진425 담장지(19) 중복상태 / 193
사진426 담장지(19) / 193
사진427 담장지(19) 중복상태 / 193
사진428 담장지(20) / 193
사진429 B-2구역 하층유구 노출상태 / 196
사진430 B-2구역 하층유구 노출상태 / 196
사진431 고려시대 화덕시설 노출상태 / 197
사진432 고려시대 유구층 / 197
사진433 원형화덕시설 노출상태 / 197
사진434 탐라·고려시대 생활면 노출상태 / 197
사진435 하층유구 노출상태 / 197
사진436 탐라시대 적심노출상태 / 197
사진437 고려시대 유물층 / 197
사진438 천석무더기 / 197
사진439 기둥구멍 노출상태 / 198
사진440 기둥구멍 노출상태 / 198
사진441 탐라시대 적석유구 / 198
사진442 고내리식토기 노출상태 / 198
사진443 고내리식토기 노출상태 / 198
사진444 회색도기 노출상태 / 198
사진445 적갈색토기 노출상태 / 198
사진446 병 노출상태 / 198
사진447 방형화덕시설 노출상태 / 199
사진448 원형화덕시설 세부 / 199
사진449 매립부의 층위 / 200
사진450 매립부의 층위 / 200
사진451 매립부 노출상태(1) / 200
사진452 매립부 노출상태(2) / 200
사진453 매립부와 담장(1) / 200
사진454 매립부와 담장(2) / 200
사진455 일제시대 구덩이(1) 노출상태 / 200
사진456 일제시대 구덩이(2) 노출상태 / 200
사진457 '俊戊' 銘 암막새 / 201
사진458 '明崇禎' 銘 암막새 / 202
사진459 梵文암막새 / 202
사진460 암막새 / 202
사진461 연화문수막새 / 203
사진462 연화문수막새 / 203
사진463 연화문수막새 / 204
사진464 연화문수막새 / 204
사진465 국화문수막새 / 204
사진466 길상문수막새 / 205
사진467 수막새 / 205
사진468 'ㅇ酉式西岳' 명와 / 205
사진469 'ㅇ衣式厂氾' 명와 / 206
사진470 '東南' 명와 / 206
사진471 '客貝戊子' 명와 / 206
사진472 '大' 명와 / 207
사진473 명문와 / 207
사진474 '造瓦' 명와 / 207
사진475 '門' 명와 / 208
사진476 '左主監造' 명와 / 208
사진477 '上甲' 명와 / 209
사진478 무문암기와 / 209
사진479 격자문암기와 / 210
사진480 격자문암기와 / 210
사진481 격자문암기와 / 210
사진482 격자문암기와 / 211
사진483 어골문암기와 / 211
사진484 어골문암기와 / 211
사진485 어골문암기와 / 212
사진486 어골문암기와 / 212
사진487 어골문암기와 / 212
사진488 어골문암기와 / 213
사진489 어골문암기와 / 213
사진490 어골문암기와 / 213
사진491 어골문암기와 / 214
사진492 어골문암기와 / 214
사진493 어골문암기와 / 214
사진494 어골문암기와 / 214
사진495 어골문암기와 / 215
사진496 어골문암기와 / 215
사진497 어골문암기와 / 215
사진498 어골문암기와 / 216
사진499 어골문암기와 / 216
사진500 어골문암기와 / 216
사진501 어골문암기와 / 217
사진502 어골문암기와 / 217
사진503 어골문암기와 / 217
사진504 어골문암기와 / 218
사진505 어골문암기와 / 218
사진506 어골문암기와 / 218
사진507 어골문암기와 / 219
사진508 어골문암기와 / 219
사진509 어골문암기와 / 219
사진510 어골문암기와 / 220
사진511 어골문암기와 / 220
사진512 어골문암기와 / 221
사진513 어골문암기와 / 221
사진514 어골문암기와 / 221
사진515 어골문암기와 / 222

사진516 어골문암기와 / 222
사진517 어골문암기와 / 222
사진518 수형문암기와 / 223
사진519 화문암기와 / 223
사진520 선문암기와 / 223
사진521 선문암기와 / 224
사진522 선문암기와 / 224
사진523 복합문암기와 / 224
사진524 복합문암기와 / 225
사진525 복합문암기와 / 225
사진526 복합문암기와 / 225
사진527 중호문암기와 / 226
사진528 중호문암기와 / 226
사진529 복합문암기와 / 226
사진530 복합문암기와 / 227
사진531 복합문암기와 / 227
사진532 무문숫기와 / 228
사진533 격자문숫기와 / 228
사진534 어골문숫기와 / 228
사진535 어골문숫기와 / 229
사진536 어골문숫기와 / 229
사진537 어골문숫기와 / 229
사진538 어골문숫기와 / 230
사진539 어골문숫기와 / 230
사진540 어골문숫기와 / 230
사진541 어골문숫기와 / 231
사진542 어골문숫기와 / 231
사진543 어골문숫기와 / 231
사진544 어골문숫기와 / 232
사진545 어골문숫기와 / 232
사진546 어골문숫기와 / 232
사진547 어골문숫기와 / 233
사진548 어골문숫기와 / 233
사진549 어골문숫기와 / 233
사진550 어골문숫기와 / 234
사진551 어골문숫기와 / 234
사진552 수엽문숫기와 / 234
사진553 선문숫기와 / 235
사진554 선문숫기와 / 235
사진555 중호문숫기와 / 236
사진556 중호문숫기와 / 236
사진557 복합문숫기와 / 236
사진558 복합문숫기와 / 237
사진559 복합문숫기와 / 237
사진560 복합문숫기와 / 237
사진561 복합문숫기와 / 238
사진562 복합문숫기와 / 238
사진563 복합문숫기와 / 238
사진564 복합문숫기와 / 239
사진565 복합문숫기와 / 239
사진566 복합문숫기와 / 239
사진567 복합문숫기와 / 240
사진568 어골문숫기와 / 240
사진569 어골문숫기와 / 241
사진570 격자문숫기와 / 241
사진571 중호문숫기와 / 242
사진572 중호문숫기와 / 242
사진573 격자문숫기와 / 243
사진574 무문숫기와 / 243
사진575 '壬申' 명와 / 244
사진576 무문전 / 244
사진577 무문전 / 245
사진578 청자대접 / 246
사진579 청자대접 / 246
사진580 청자대접 / 246
사진581 청자대접 / 246
사진582 청자대접 / 246
사진583 청자대접 / 247
사진584 청자탁잔 / 247
사진585 청자매병 / 247
사진586 청자뚜껑 / 247
사진587 청자대접 / 247
사진588 청자접시 / 248
사진589 청자접시 / 248
사진590 청자잔 / 248
사진591 청자대접 / 248
사진592 청자대접 / 248
사진593 청자접시 / 248
사진594 청자대접 / 248
사진595 청자대접 / 249
사진596 청자대접 / 249
사진597 청자대접 / 249
사진598 청자대접 / 249
사진599 청자접시 / 249
사진600 청자대접 / 249
사진601 청자대접 / 250
사진602 청자접시 / 250
사진603 청자접시 / 250
사진604 청자접시 / 250
사진605 청자뚜껑 / 250
사진606 청자마상배 / 250
사진607 청자종지 / 250
사진608 청자매병 / 251
사진609 청자병 / 251
사진610 청자대접 / 251
사진611 청자대접 / 251
사진612 청자대접 / 251
사진613 청자종지 / 251
사진614 청자종지 / 252
사진615 청자대접 / 252

사진616 청자접시 / 252
사진617 청자접시 / 252
사진618 청자잔탁 / 252
사진619 청자대접 / 252
사진620 청자병 / 253
사진621 청자접시 / 253
사진622 청자대접 / 253
사진623 청자병 / 253
사진624 흑유호 / 253
사진625 청자대접 / 254
사진626 청자마상배 / 254
사진627 청자대접 / 254
사진628 청자대접 / 254
사진629 청자대접 / 255
사진630 청자접시 / 255
사진631 백자접시 / 255
사진632 분청인화문대접 / 255
사진633 분청인화문대접 / 256
사진634 분청인화문대접 / 256
사진635 분청인화문대접·접시 / 256
사진636 분청인화문대접 / 256
사진637 분청인화문접시 / 256
사진638 분청인화문접시 / 256
사진639 분청인화문대접 / 257
사진640 분청인화문접시 / 257
사진641 분청인화문뚜껑 / 257
사진642 분청인화문대접 / 257
사진643 분청인화문접시 / 258
사진644 분청인화문접시 / 258
사진645 분청인화문대접 / 258
사진646 분청접시 / 258
사진647 분청접시 / 259
사진648 분청 '內贍' 명 접시·대접 / 259
사진649 분청호 / 259
사진650 분청대발 / 259
사진651 분청호 / 260
사진652 분청병 / 260
사진653 분청귀얄문접시 / 260
사진654 분청귀얄문대접 / 260
사진655 분청귀얄문대접 / 261
사진656 분청귀얄문대접 / 261
사진657 분청병 / 261
사진658 분청호 / 261
사진659 분청대발 / 262
사진660 분청대발 / 262
사진661 분청호 / 262
사진662 분청호 / 262
사진663 분청호 / 262
사진664 분청덤벙분장대접 / 263
사진665 분청덤벙분장접시 / 263
사진666 분청덤벙분장접시 / 263
사진667 분청덤벙분장대접 / 263
사진668 분청호 / 263
사진669 분청병 / 263
사진670 분청병 / 264
사진671 분청덤벙분장대접 / 264
사진672 분청접시 / 264
사진673 분청병 / 264
사진674 분청병 / 264
사진675 분청매병 / 264
사진676 분청호 / 265
사진677 분청호 / 265
사진678 분청병 / 265
사진679 백자접시 / 265
사진680 백자접시 / 265
사진681 백자접시 / 265
사진682 백자접시 / 266
사진683 백자접시 / 266
사진684 백자접시 / 266
사진685 백자접시 / 266
사진686 백자접시 / 266
사진687 백자접시 / 266
사진688 백자접시 / 267
사진689 백자접시 / 267
사진690 백자접시 / 267
사진691 백자접시 / 267
사진692 백자접시 / 267
사진693 백자접시 / 267
사진694 백자접시 / 268
사진695 백자접시 / 268
사진696 백자접시 / 268
사진697 백자접시 / 268
사진698 백자접시 / 268
사진699 백자접시 / 268
사진700 백자접시 / 269
사진701 백자접시 / 269
사진702 백자접시 / 269
사진703 백자접시 / 269
사진704 백자접시 / 269
사진705 백자전접시 / 269
사진706 백자접시 / 270
사진707 백자접시 / 270
사진708 백자제기 / 270
사진709 백자제기 / 270
사진710 백자대접 / 271
사진711 백자대접 / 271
사진712 백자대접 / 271
사진713 백자대접 / 271
사진714 백자대접 / 271
사진715 백자대접 / 271

사진716 백자대접 / 272
사진717 백자대접 / 272
사진718 백자대접 / 272
사진719 백자대접 / 272
사진720 백자대접 / 272
사진721 백자대접 / 272
사진722 백자대접 / 273
사진723 백자대접 / 273
사진724 백자대접 / 273
사진725 백자잔 / 273
사진726 백자잔 / 273
사진727 백자잔 / 274
사진728 백자잔 / 274
사진729 백자종지 / 274
사진730 백자종지 / 274
사진731 백자종지 / 275
사진732 백자종지 / 275
사진733 백자종지 / 275
사진734 백자종지 / 275
사진735 백자병 / 275
사진736 백자병 / 275
사진737 백자병 / 276
사진738 백자병 / 276
사진739 백자병 / 276
사진740 백자호 / 276
사진741 백자호 / 276
사진742 백자 '右乙卯' 명대접 / 277
사진743 백자 '任正牧上' 명대접 / 277
사진744 백자 '左' 명대접 / 277
사진745 백자 '右ㅁㅁ' 명대접 / 277
사진746 백자명문접시 / 277
사진747 백자명문접시 / 277
사진748 백자명문접시 / 278
사진749 백자 '大男' 명접시 / 278
사진750 백자 '朴用' 명접시 / 279
사진751 백자 '朴用' 명종지 / 279
사진752 백자 '愛用' 명접시 / 279
사진753 백자 'ㅁ用' 명접시 / 279
사진754 백자 '末只' 명대접 / 279
사진755 백자 '末' 명접시 / 279
사진756 백자 '忠ㅁ' 명접시 / 280
사진757 백자 '忠' 명대접 / 280
사진758 백자 '忠' 명접시 / 280
사진759 백자 '仁名' 명접시 / 280
사진760 백자 '仁ㅁ' 명접시 / 280
사진761 백자 '仁ㅁ' 명접시 / 280
사진762 백자 '亭' 명접시 / 280
사진763 백자 '亭' 명접시 / 281
사진764 백자 '亭' 명대접 / 281
사진765 백자 '亭供' 명대접 / 281
사진766 백자 '上' 명대접 / 281
사진767 백자 '上' 명접시 / 281
사진768 백자 '上' 명접시 / 281
사진769 백자 '上' 명접시 / 282
사진770 백자 '上' 명접시 / 282
사진771 백자 '上' 명접시 / 282
사진772 백자 '上' 명접시 / 282
사진773 백자 '上' 명접시 / 282
사진774 백자 '下' 명접시 / 282
사진775 백자 '上' 명종지 / 283
사진776 백자 '上供' 명접시 / 283
사진777 백자 '大允金?奉' 명접시 / 283
사진778 백자 '天別官上' 명접시 / 283
사진779 백자 '官' 명접시 / 283
사진780 백자 '別官' 명접시 / 283
사진781 백자 '官上' 명접시 / 284
사진782 백자 '夫巳天上' 명접시 / 284
사진783 백자 '州上' 명대접 / 284
사진784 백자 '州上' 명대접 / 284
사진785 백자 '丁ㅁ' 명접시 / 284
사진786 백자 '丁?' 명접시 / 284
사진787 백자 '天' 명대접 / 285
사진788 백자 '天' 명종지 / 285
사진789 백자 '二' 명접시 / 285
사진790 백자 '二' 명종지 / 285
사진791 백자 '十' 명접시 / 285
사진792 백자 '十' 명접시 / 285
사진793 백자 '草卜' 명접시 / 286
사진794 백자 '春' 명접시 / 286
사진795 백자 '吉己' 명접시 / 286
사진796 백자 '軍德' 명접시 / 286
사진797 백자 '金生' 명종지 / 286
사진798 백자 '生' 명접시 / 286
사진799 백자 '言' 명접시 / 287
사진800 백자 '得男' 명접시 / 287
사진801 백자 '千' 명접시 / 287
사진802 백자 '?終' 명접시 / 287
사진803 백자 '夢?' 명접시 / 287
사진804 백자 '?誰?' 명접시 / 287
사진805 백자명문접시 / 288
사진806 백자명문접시 / 288
사진807 백자명문접시 / 288
사진808 백자명문접시 / 288
사진809 백자명문접시 / 288
사진810 백자명문접시 / 288
사진811 백자명문대접 / 289
사진812 백자명문종지 / 289
사진813 백자명문대접 / 289
사진814 백자 '막개' 명대접 / 289
사진815 백자 '문' 명접시 / 289

사진816 백자 '나일년' 명접시 / 290
사진817 일본자기 / 290
사진818 청자 각종 / 291
사진819 분청사기 각종 / 291
사진820 백자 각종 / 291
사진821 이형 도자기 / 291
사진822 적갈색호형토기 / 292
사진823 적갈색호형토기 / 293
사진824 적갈색호형토기 / 293
사진825 적갈색호형토기 / 293
사진826 적갈색호형토기 / 293
사진827 적갈색호형토기 / 293
사진828 적갈색호형토기 / 294
사진829 적갈색호형토기 / 294
사진830 뚜껑 / 294
사진831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사진832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사진833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사진834 적갈색심발형토기 / 295
사진835 적갈색심발형토기 / 296
사진836 단경호 / 298
사진837 단경호 / 298
사진838 호 / 298
사진839 병 / 298
사진840 단경호 / 298
사진841 병 / 299
사진842 호 / 299
사진843 호 / 299
사진844 호 / 299
사진845 호 / 299
사진846 단경호 / 300
사진847 단경호 / 300
사진848 호 / 300
사진849 호 / 300
사진850 장경호 / 300
사진851 호 / 301
사진852 호 / 301
사진853 호 / 301
사진854 호 / 301
사진855 호 / 301
사진856 호 / 301
사진857 병 / 302
사진858 병 / 302
사진859 편병 / 302
사진860 병 / 302
사진861 호 / 302
사진862 병 / 303
사진863 병 / 303
사진864 시루 / 303
사진865 뚜껑 / 303
사진866 뚜껑 / 303
사진867 뚜껑 / 304
사진868 뚜껑손잡이 / 304
사진869 파수부 / 304
사진870 파수부 / 304
사진871 방추차 / 304
사진872 방추차 / 305
사진873 어망추 / 305
사진874 숫돌 / 306

집필진

김동전(제주대 사학과 교수 · 한국사)
강창화(제주대박물관 학예연구원 · 고고학)
박용범(동국대대학원 · 미술사)
김정선(동국대대학원 · 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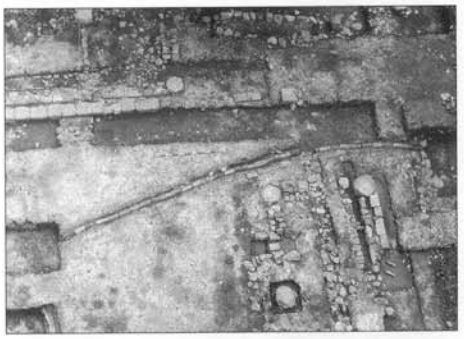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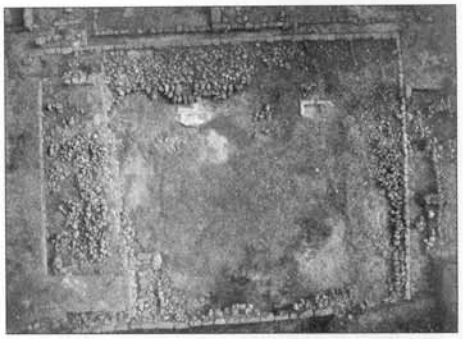
1. 이 보고서의 모든 유구 圖面의 방위 표시는 나침반에 의한 北이다.
2. 모든 도면의 축소비는 좌우측 末尾에 개별 명시하였으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물 원고에 기술되어 있다.
3. 이 보고서는 가급적 유구과 유물에 대한 용어를 한글로 서술하였다.
4. 이 보고서의 註 처리는 각 장별로 하였다.
5. 제3장 관아지 시설물은 18세기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이 시기의 문헌인 『耽羅巡歷圖』(1703년), 『耽羅防營總覽』(1760년대)과 비교한 결과, 시설물의 위치와 전체 배치가 거의 동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굴된 건물터를 문헌에 등장하는 건물명에 바로 대입하여 유구명을 부여하였다.
6. 발굴구역내 맨 아래 문화층인 통일신라시대(탐라시대후기)와 고려시대전기층에서 이 시기의 시설물과 유물이 확인되었으나 전면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략하게 기술하였다.
7. 수천점에 해당하는 기와와 도자기를 전부 기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8. 집필자는 해당 글 말미에 명시하였다.
9. 이 조사 보고서의 출간에는 본문 집필자 외에 김경주(영남대대학원), 김종찬(목포대학원), 오연숙(한양대대학원), 이상미(영남대대학원), 박근태, 김효경, 이은영, 양나래(제주대사학과학부생)가 도면실측 · 잉킹 · 사진촬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또한 본문의 유물사진은 박용범 · 김경주가 촬영한 것이고 발굴유구사진은 강창화가 하였다.
10. 이 보고서의 편집은 강창화, 박용범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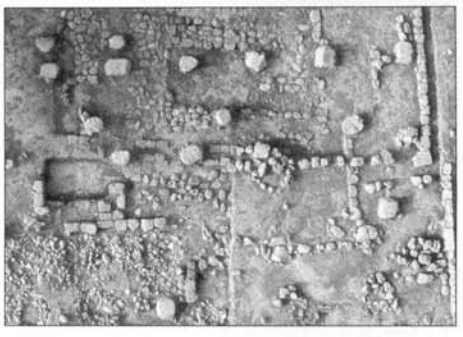
제1장 조사개요











1. 제주목관아지 전체전경 2. 연희각지
3. 동헌 내아지 4. 홍화각지
5. 호적고지

이 보고서는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43-2번지, 33-7번지, 1045번지 등에 자리했던 조선시대 지방읍치의 장소인 제주목관아지에 대한 발굴조사 종합보고서이다. 현재 관아터는 사적 38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총 4,800평에 달한다.

발굴조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조사는 이 지역이 제주시 지하주차장예정지로 결정되면서 그에 따른 사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로 실시되었다.

2차조사는 전년도 발굴결과에 따른 보완조사 및 주변 확장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주차장 계획이 백지화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3차조사는 사적지 지정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부지매입이 끝난 지점에 대한 발굴로 실시되었다. 원래 이 지점은 망경루와 연희각사이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와선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던 곳이다. 조사결과 대단위 매립을 실시했던 흔적이 확인되었고 동서장축의 와선각건물지와 그 하층에 자리했던 탐라국시대의 문화층과 유구가 확인되었다.

4차발굴은 ㈜삼부토건부지가 매입되면서 이루어졌다. 시굴조사에서 전면확대발굴로 이루어진 이 조사에서는 외대문, 중대문을 비롯하여 이를 축으로 서편에 자리했던 홍화각, 애매헌, 호고, 호적고, 우연당, 예고, 예리장방, 성내연못, 우물 유구와 이를 둘러싼 담장지가 모두 확인되었다. 결국 18세기에 자리했던 관아건물의 모든 건물배치가 확인된 셈이다. 이는 한국에서 조사된 지방관아발굴사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발굴조사의 목적은 제주도 고문헌에 기록된 제주목관아지내의 관덕정(보물 322호) 주변 조선시대 관아지를 발굴하여 당대 관아건물의 규모와 위치를 찾아내고, 사적공원 조성과 자료전시관건립과 함께 장차 제주목 관아지의 전체 복원 자료로 삼고자 하는 데 있었다.

1. 조사기간과 조사단구성

1) 조사기간

(1) 1차 시굴조사는 1991년 9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차 확장조사는 1992년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

하였다.

(2) 3차조사는 1996년 7월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3) 4차조사는 1997년 10월 29일부터 1998년 7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2) 조사단 구성

(1) 1·2차 발굴조사

지도위원에 김원룡(전한림대교수), 최영희(전한림대교수), 허선도(전국민대교수), 장경호(전문화재연구소장)가 참여하였고, 조사위원에 고창석(제주대교수), 김홍식(명지대교수)이, 조사단장은 당시 제주대학교박물관장인 이청규(전제주대교수, 현영남대교수)가 맡았다. 지표조사는 고광민(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창언(제주대학교박물관연구원), 문헌조사는 김동전(제주대교수)이 하였다. 현장 발굴은 강창화(제주대학교박물관학예연구원)가 맡아하였다. 조사보조원으로는 양윤호, 송경석, 강경의, 강선희, 김혜선(당시 제주대사학과 4년), 김정선(당시 제주대사학과 3년), 김경주, 방문배, 박용범, 김종찬, 고정민, 오연숙, 이상미, 이수미(당시 제주대사학과 2년), 강동선, 이미자, 김영심, 장은실(당시 제주대사학과 1년)이 수고하였다.

(2) 3차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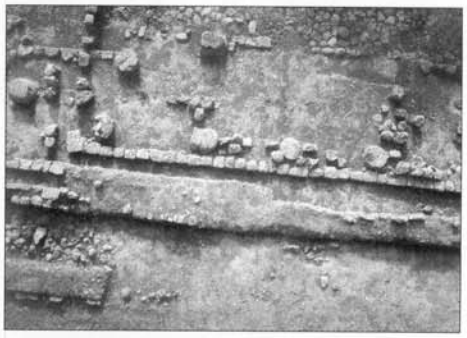
지도위원에 한병삼(문화재위원장), 장경호(문화재위원), 최영희(문화재위원)가 참여하였고, 조사위원에 권인혁(제주대교수), 이청규(영남대교수), 김동전(제주대교수)이, 조사단장은 당시 제주대학교박물관장인 고창석(제주대교수)이 맡았다. 조사원은 강창화(제주대박물관학예연구원), 양윤호(제주대사학과졸업)가 맡아하였다. 조사보조원으로는 박용범(동국대대학원), 김정선(동국대대학원), 김경주(영남대대학원), 김종찬(목포대대학원), 박근태(제주대사학과 3년)가 수고하였다.

(3)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에 한병삼(문화재위원장), 김동현(전문화재연구소장)이 참여하였고, 조사위원에 이청규(영남대교수), 김동전(제주대교수)이, 조사단장은 제주대학교박물관장인 유철인(제주대교수)이 맡았다. 조사원은 강창화(제주대박물관학예연구원), 박용범(동국대대학원), 김정선(동국대대학원), 김종찬(목포대대학원)이 보조원에 박근태, 양나래(제주대사학과 학부생)가 수고하였다.











1. 예고지 2. 영리장방지
3. 호고지 4. 우연당지
5. 연못지

2. 조사경과

1) 1차 발굴조사

1991년 8월 26일~10월 18일 : 제주시청은 시내 중심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 관덕정 일대 43-2번지 200여 평을 지상·지하 주차장부지로 예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지점에 대한 매장문화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허가를 의뢰하였고 1991년 10월 18일 허가가 내려졌다.

1991년 9월 1일~9월 30일 : 제주목 관련 문헌조사와 현장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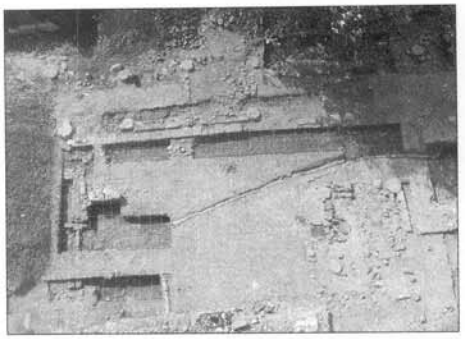
문헌조사 : 발굴대상지는 조선시대의 제주도 읍치장소인 제주목 관아지역으로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 등장하며, 특히 18세기 이후의 문헌자료가 많아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의뢰하여 기간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지표조사 : 현 경찰서부속 구치소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은 철거된 상태였다. 철거된 건물의 잔해가 발굴지점의 북편에 치우쳐 매립되어 있었고 매립된 부분의 높이는 2.5m정도였다. 구치소건물의 동편은 원래 지형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현 관덕정이 자리한 표고에서 동일한 레벨로 북으로 이어지다가 점차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이다. 유적의 중심 표고는 9.0m로, 건물지를 만들면서 원래의 지형을 크게 변동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구역 내에서 일제시대 건물이 10여 동 확인되었다. 일제의 건물은 1m 이상 지하를 굴착하여 철근과 콘크리트를 심는 공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이로인해 조선후기 건물지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크고 작은 초석, 건물지 기단석이 주변에 흩어지거나 일제건물내부의 매립자갈과 함께 섞여 들어갔다. 1945년 이후에 신축된 현대건물은 경찰서와 도지사관사 등 총 7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건물이 신축되면서 많은 유구가 또 한번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1년 9월 30일~10월 30일 : 현대시설물, 매립토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크게 남고북저, 서고동저의 지표상 레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높이는 1m 이상 차이가 나며, 트렌치 조사에서 동남쪽 구역은 약 2m 이상이 최근에 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발굴조사범위 내에서 일제시대 건물 4동, 해방 이후 현대 건물 4동이 확인되었다. 발굴중심구역에는 최근의 경찰구치소와 경찰부속건물, 일제시대 강당 등의 콘크리트 건물이 겹겹이 시설된 상태였다.











1. 동헌마당과 노비행랑 2. 회랑지
3. 전기 담장지 4. 우연당지
5. 우연당지 초석군

매립토를 제거한 후 발굴 구역내에 대한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으로 구획한 트렌치는 폭 2m, 길이 10m로 가능한 원상의 유구를 찾는 데 주력했고 일부 일제시셜물과 현대시설물이 함께 걸린 부분은 남겨두고 유구를 조사하였다. C구역 북쪽에서는 지표밑 70cm까지 일제시대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C구역 남쪽에서는 3동의 일제시대 건물지와 조선중기 및 후기의 건물지와 담장지, 적석시설이 확인되었다.

1991년 11월 16일~12월 31일 : 건물지(구치소터 주변) 확장발굴 작업을 실시하였다.

트렌치조사를 통해 건물지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지점에 대해 확장 발굴을 실시하였다. 확장 발굴시 근대 유치장 건물과 일제시대 건물이 시설되면서 거의 모든 유구가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지 3동과 담장지 4개소, 적석시설 1개소를 확인하고 맨동쪽 담장지 남쪽 끝에 테스트피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피트 층위에서 조선 전기(15세기)문화층과 탐라시대(8세기)문화층이 확인되므로 상층에서 이미 파괴된 조선중기 시설물 밑으로 장기간에 걸친 전대의 시설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차후 발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2차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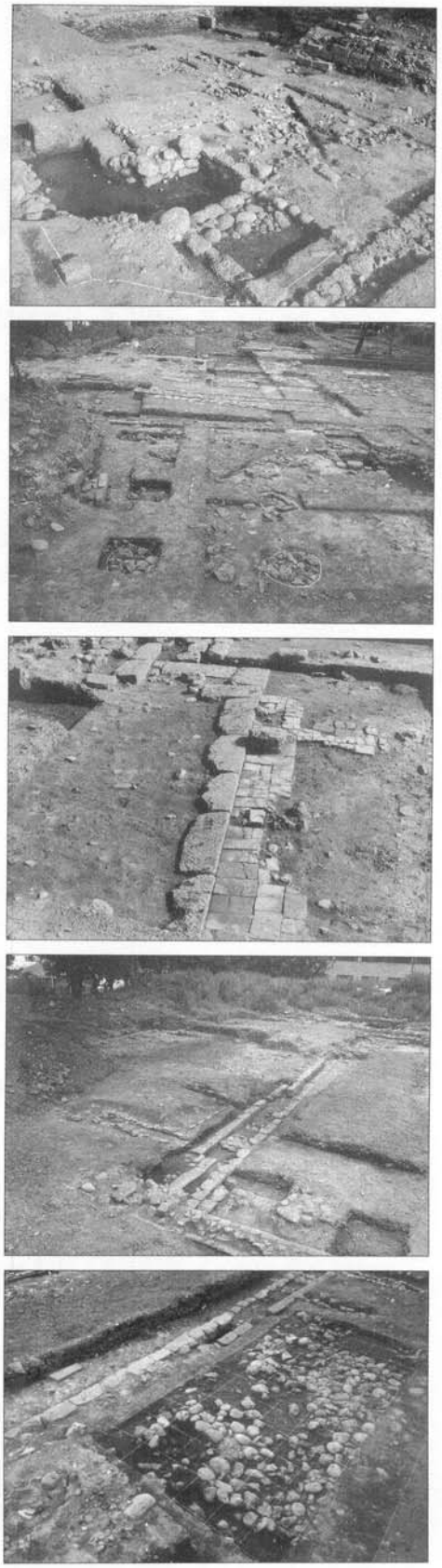
1992년 5월 27일 : 제주시청과 제주목관아지 제2차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다. 전년도의 1차 발굴조사 결과가 보고된 후, 확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주시청이 제2차 발굴허가를 얻기 위해 문화재 관리국에 의뢰하였다. 발굴에 대한 허가는 1992년 6월 22일에 내려졌다.

1992년 6월 5일~7월 1일 : 발굴구역내 현대시설물과 매립토 제거 작업을 하였다.

발굴 조사 대상지는 전년도 200여 평의 발굴지 외에 900평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 발굴지 내에는 경찰서 송신탑 1개, 경찰식당, 관사, 숙소 등 5개소의 현대식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발굴착수전에 이미 건물이 허물어져 있었고 허물어진 건물의 콘크리트 및 석재들이 조사 대상지 북편의 낮은 쪽으로 매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매립토와 현대 건물지의 바닥을 걷어내는 작업을 25일간 실시하였다.

1992년 7월 2일~8월 1일 : 트렌치조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매립토를 제거한 후의 지형은 조사대상지의 남쪽과 북쪽이 2.2m 정도의 높낮이 차를 보였다. 북쪽 끝인 추정 연희각 건물 마당의 표고는 8.0m, 남쪽끝인 포정문터의 표고는 10.2m였다. 따라서 연희각과 포정문의 존재시기를 조선후기로 보았을 때 당시 구지표는 원래의 지형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지형으로 판단되었다.



1. 소행정지 2. 청심당지
3. 애매헌지 4. 영주협당 · 군관청지
5. 영주협당지

이러한 지형을 고려하여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의 설치 방향은 연희각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마당 한복판에 기준점(D.P)을 잡고 남북방향으로 2m 폭의 트렌치를 연속하여 구획하였다. 트렌치 조사 과정에서 일제식 건물지와 현대식 건물의 하부 공사시 조선시대의 유구들이 상당량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2년 8월 2일~10월 30일 : 상층에 대한 유구노출작업을 실시하였다.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 노출부분을 확장 발굴하였다. 완전하게 건물지 시설이 남아 있는 유구는 없었다. 또한 서로 다른 시기의 유구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2년 11월 1일~11월 20일 : 상층 유구실측작업을 진행하였다. 노출된 유구에 대해서 20일간 정밀실측 조사를 행하였다.

1992년 11월 21일~12월 31일 : 하층 유구노출작업을 진행하였다. 상층 유구실측 작업이 끝난 후 하층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도 서술했다시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종류의 시설물이 축조되어 있음이 하층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 조사과정에서 상당량의 건물지 시설이 확인되었으나 조사기간과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 조사를 중단하였다.

1993년 1월 1일~1월 31일 : 하층 유구실측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하층유구에 대한 정밀실측을 30일간 실시하였다. 1차발굴지에 대한 하층 유구조사를 실시하여 1435년 화재 이전의 판석형 기단석열로 정연하게 만들어진 건물지 1개소를 확인하였다. 확장발굴을 통해 담장지 2개소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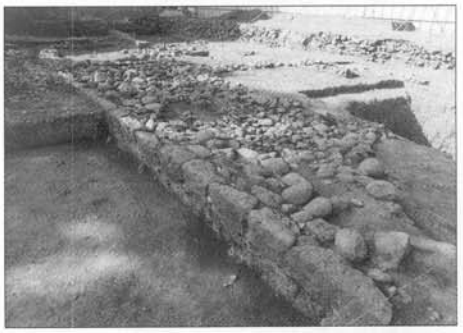
3) 3차 발굴조사

조사 구역은 문헌상에는 연희각과 망경루 사이의 구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일제시대 때 구세무서, 해방 이후에는 도청부속건물, 경찰서 관련시설이 3동 이상 자리하고 있었다. 발굴조사 전에 이전 건물의 해체와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잔해를 치우는 데 한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일부 일제시대 건물은 지하 3m 이상 지하실 형태로 들어서 있어 이 부분에 한해 이미 조선시대 유구층이 상당히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발굴대상구역을 B-2구역으로 명명하였다. 기존 발굴지와 동일한 정남북방향으로 모든 발굴지를 구획하고, 전체 건물지의 평면적·층위적인 중복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하층유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실시하며, 중요유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장 발굴을 실시하였다. 전체유구의 실측과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중요유물에 한해서는 현장 복원을 원칙으로 하였다.

발굴지 중앙부분에서 관아시설의 마지막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1. 교방지 2. 와선각지
3. 외대문지·중심도로
4. 내대문 안쪽도로와 보도 5. 외대문지

판단되는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하층유구에 대한 조사는 주로 탐라시대 문화층과 유구조사에 집중했다. 郭支2式赤褐色土器가 포함된 불규칙한 형태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앙부에는 원형으로 축조된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변에서 柱孔과 돌무더기가 군데군데서 노출되었다.

유구 전반에 걸쳐 상층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분청사기, 백자, 일제시대 자기 등의 도자기류와 명문기와, 각종 평기와가 있다. 도자기 중 '內贍'銘 분청 등이 보이며, 백자는 모두 조선중기 이후의 것들이다. 명문기와는 '万戶'銘 기와가 대부분이며, 하층의 유구에서는 8~10세기경의 陶器와 郭支2式赤褐色土器가 출토되었다.

1996년 5월 30일~6월 30일 : 발굴에 앞서 상부 현대시설물 및 표토상면의 매립토 제거작업을 한달간 실시하였다.

1996년 7월 12일 : 용역의뢰기관인 濟州市廳과 발굴기관인 우리박물관과의 발굴용역 계약이 이루어졌다.

1996년 7월 12일~8월 12일 : 발굴지내의 유구 및 문화층의 성격을 알고자 트렌치 및 일부 테스트피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1996년 8월 15일~10월 15일 : 트렌치조사 결과에 따라 상층유구에 대한 전면 노출작업을 실시하였다.

1996년 10월 1일~10월 18일 : 노출된 상층유구에 대한 실측작업과 아울러 일부 지역에 한해 하층유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 10월 19일~10월 21일 : 사진촬영, 발굴 중간단계에서 현장설명회·지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 10월 22일~11월 12일 : 기존 A·B구역에 대한 주변유구 확장발굴과 C구역에 대한 하층유구 노출작업을 실시하였다.

1996년 11월 12일~11월 30일 : 하층유구의 실측작업, 사진촬영, 유물정리작업을 병행 실시하였다.

4) 4차 발굴조사

1997년 10월 29일 : 제주시청과 제주목관아지 제4차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다. ㈜삼부토건부지가 매입되고 일제시대의 법원과 기타 삼부토건부지내 현대 건축물이 철거되었다. 철거후 우리박물관과 제주시청은 즉시 발굴계약을 체결하였다.

1997년 11월 4일~1998년 1월 10일 : 기존 발굴지역과 4차 발굴구역내의 잡초와 매립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나서 폭 2m, 길이 40m 크기의 트렌치를 남북 방향으로 구획하여 굴착작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월 11일~5월 5일 : 트렌치조사에 따른 유구파악이 이루어지고 실측을 완료한 후 전면 확장발굴을 실시하였다. 건물지, 담장지, 마당지, 우물지, 연못지, 도로, 문지 등이 후기매립토층 아래에서







1. 중대문지와 도로 2. 전기 대문지
3. 연못지 4. 연못 배수로
5. 전기 원형우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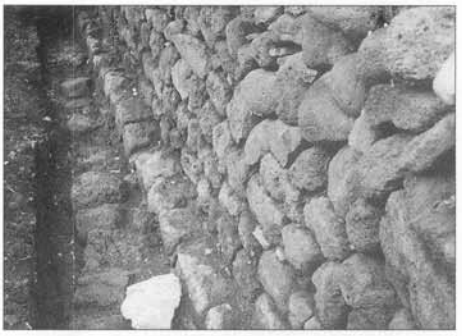
겹겹이 노출되었다.

1998년 5월 6일~6월 1일 : 상층 유구를 노출시키고 상층에서 노출된 유구에 대한 실측작업·사진촬영작업과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6월 2일~7월 20일 : 하층의 유구조사와 아울러 연못지, 문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실측·사진촬영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체 발굴을 통해 외대문, 중대문지를 비롯하여 이를 축으로 서편에 자리했던 홍화각, 애매헌, 호고, 호적고, 우연당, 영리장방, 연못, 우물 유구와 이를 둘러싼 담장지가 모두 확인되었다. 결국 18세기에 자리했던 관아건물의 전체적인 배치가 모두 확인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각 지점의 테스트피트 조사를 통해 조선전기층 아래로 고려시대·탐라시대문화층이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제주목 관아지 전역에 고대 탐라국시대부터 건물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 창 화)









1. 원형우물지 2. 연희각 주변 담장
3. 와적담장지
4. 와적담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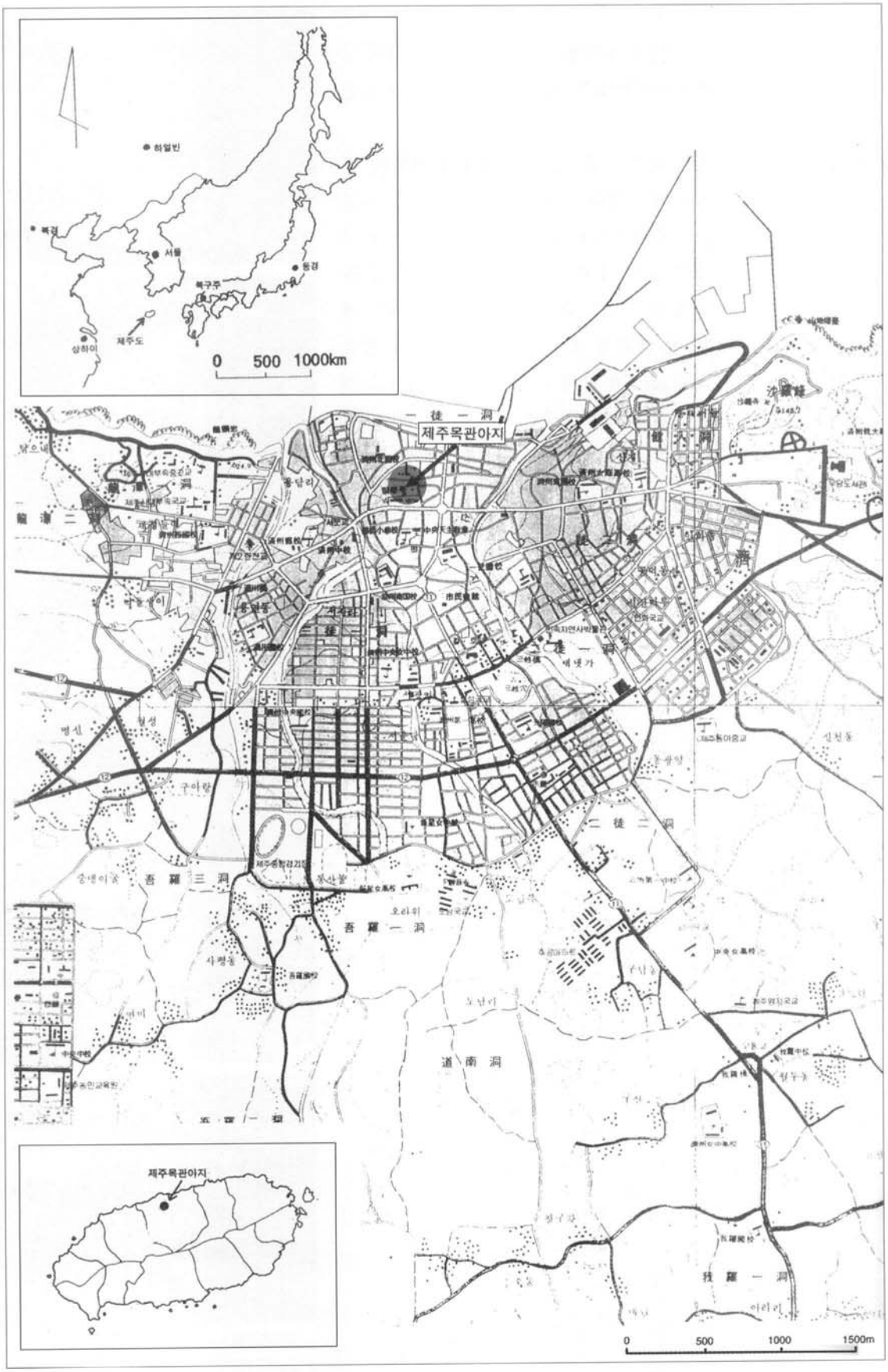


그림1. 제주목관아지 위치도

제2장 제주목의 행정과 관아시설

1. 머리말

현재 사적 제380호로 지정되어 있는 濟州牧官衙址는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 외 23필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주목 관아시설은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그 內外에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관아시설은 읍성 내에 자리해 있게 마련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읍성의 西城 인근에 위치한 觀德亭을 중심으로 좌측에 濟州牧使의 東軒을 비롯한 관아시설, 우측은 濟州判官의 관아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지역은 거슬러 올라가면 耽羅國의 관아터가 자리해 있었을[1] 뿐만 아니라, 그후 高麗의 지방행정구획으로 편입된 후에도 濟州島의 행정과 관련된 官衙가 위치해 있어서 大村縣으로 불리어왔다. 대촌현은 1416년(태종16)에 제주도가 濟州牧·大靜縣·旌義縣으로 구획될 당시, 제주목의 本邑으로 정해지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조선후기에는 面里制가 발달하면서 제주목 中面의 一徒里·二徒里·三徒里로 구분되었다.[2]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중심지역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관아시설은 해당지역에 파견된 守令들이 보다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통치의 수행과 관아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즉, 어느 지역이든간에 지방의 행정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行政使役人들이 존재하였다. 수령의 집무는 물론 행정사역인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관아시설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官員들이 政務를 보는 官衙는 官廳·官署라고도 불리는데, 크게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구분된다. 지방관아는 다시 관찰사가 道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監營과 郡縣의 守令이 해당 邑을 다스리기 위한 관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중앙의 경우, 최고 통치자인 왕이 거주하는 궁궐을 중심으로 중앙관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현의 경우도 수령의 관아인 東軒을 중심으로 많은 관아시설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궁궐이 중앙통치의 산실이라면 지방통치의 산실은 동헌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주읍성과 제주목의 행정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으로 제주목 관아시설의 개요, 발굴지역 내에 위치해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아건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록이 매우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관아시설의 건치연혁이









1. 관덕정(1880년대). 『제주100년』[서재철 사진자료]에서 발췌. 이하 동일.
2. 관덕정과 종루(1890년대)
3. 관덕정 마당 놀이광경(1900년경)
4. 종루(1900년경)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3] 따라서 각 관아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보다는 관아시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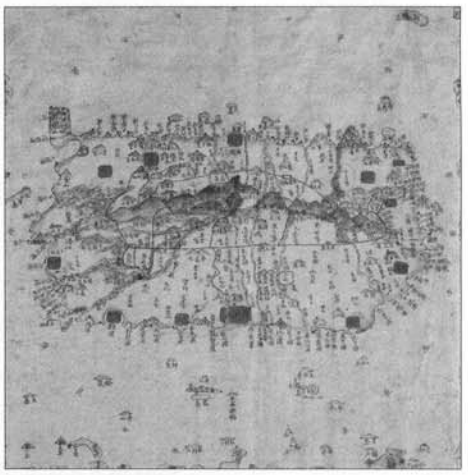
2. 濟州邑城의 沿革과 規模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국가 시대에는 한 국가의 왕이나 지배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 都城이 건립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耽羅國 시대에도 星主·王子 등 지배세력이 주로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도성, 또는 도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곽문화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건립 연대는 문헌상으로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방관아의 소재지를 邑治라 한다. 읍치의 주위는 대개 城郭으로 둘러 있고 그 안에 거의 모든 관아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을 보편적으로 邑城이라 한다. 수령이 파견되는 지역에는 읍성이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읍성은 곧 지방관의 거처인 동시에 정책의 산실이고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군현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각 군현의 읍치가 있는 곳에 읍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읍성의 축조는 지방통치가 강화되는 麗末鮮初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읍성은 행정기능 외에 유사시에는 城門을 닫음으로써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군사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다.[4]

탐라국이 소멸되고 고려의 한 군현으로 편입된 것이 1105년(숙종 10)의 일이므로 이 때에 제주도에도 명실상부한 읍성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濟州都安撫使 吳澐 및 前判官 張合 등이 1416년(태종 16) 제주도를 三邑으로 나누어 줄 것을 청하는 내용 중에 '제주에 郡을 설치(1105년을 지칭함:필자주)하던 초기에 한라산의 四面에 모두 17縣이 있었습니다. 北面 大村縣에 城을 쌓아서 本邑으로 삼고…'[5]라 하여 郡이 설치되던 초기에 大村縣을 본읍으로 삼고 城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읍성의 축조는 탐라국 시대의 성곽을 이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1411년(태종 11)에는 城의 수축을 명했다는 기록이 보인다.[6]

제주읍성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世宗實錄地理志』의 내용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즉 「邑石城 周回九百十步」[7]라 하여 읍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제주읍 石城이 910步로 경주 679보, 대구 511보, 안동 528보, 상주 576보, 성주 474보[8]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곽의 주위가 4,394척, 높이 11척으로 나타나고 있다.[9] 그러나 성 안에 물이 없어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고, 嘉樂川과 山底川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城의 개축은 계속되었다.







1. 한라장촉(탐라순력도)
2. 제주조점(탐라순력도)
3. 제주전최(탐라순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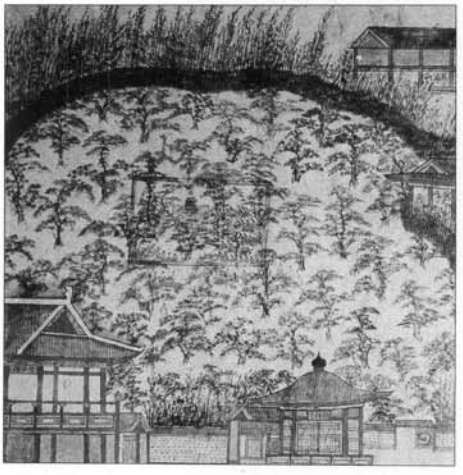
1565년(명종 20)에는 郭屹 목사가 성 안에 물이 없어 백성들의 생활이 불편하자, 東城을 가락천 밖으로 확장하여 동서쪽에 각 1문, 남쪽에는 2문을 내었는데,[10] 이 때의 성의 둘레는 7,340여 척, 높이 11척[11]이라 하였다. 그러나 『耽羅志』에는 성의 주위와 높이가 각 5,489척, 11척으로 나타나고 있다.[12]

1599년(선조 32)에 成允文 목사는 성의 기단을 5척 加築하고, 擊臺·砲樓 21개 소와 남수구·북수구에 紅門을 만드는 한편, 성 남쪽에 制夷閣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 공사가 겨울철에 이루어져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열 중에 두세 사람이나 되어 怨築城이라 일컬어졌다.[13] 1652년(효종 3) 8월에는 큰 비바람으로 남·북수구가 무너져 이원진 목사는 그해 겨울에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봄에 완성하고 북수구 위에는 亭子를 세워서 拱辰樓라 하였다. 그후 1780년(정조 4)에 金永綏 목사는 산지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옛 성터를 따라 길이 551步, 높이 9척의 間城을 쌓았다. 그 간성에는 남북에 두 개의 문을 개설하여 남문을 蘇民門, 북문을 受福門이라 하였다.[14] 1847년(헌종 13) 봄에 李宜植 목사는 北水口城을 退築하고 성 위에 天一亭을 세웠고, 간성을 더 쌓았으며, 수복문을 重仁門이라 현판을 바꾸었다.[15]

그러나 제주읍성은 한말까지 유지되다가 이 일대가 지방도시로 급성장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 1913년에 북성문, 1914년 10월에 동성문, 서성문, 간성문 등 여러 문루가 헐렸으며, 1915년에는 소민문과 북성, 1918년에는 남성문루가 훼철되었다. 1923년 동성 위에 측후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1920년대 후반 산지항 축항 공사 때에 대부분의 제주읍성을 헐어서 그 돌을 이용해 버렸고 그 遺址에는 도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제주읍성은 최근 복원된 성과 함께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1. 감귤봉진(탐라순력도)
2. 숭보시사(탐라순력도)
3. 귤림풍악(탐라순력도)

3. 濟州牧의 行政運營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기반은 郡縣制의 정비와 확립되었다. 군현제란 중앙집권제를 위하여 동일한 政令으로써 획일적으로 전국의 지방민을 통치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행정기구라 할 수 있다. 군현이란 지방의 郡과 縣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監營(관찰사의 행정구역)을 제외한 牧·都護府·郡·縣 등 지방의 행정구획 전부를 총칭해서 부른 명칭이다. 그리고 牧使·府使·郡守·縣令·縣監을 총칭하여 守令이라 하고, 수령들이 소속된 행정구획이 결국 군현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 군현제의 성패여부는 곧 왕조 및 국왕의 지방통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통치는 當代의 정치생명을 뜻하

는 것이었다.[16]

이와 같이 볼 때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은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었으며, 수령으로 목에는 목사(정3품), 현에는 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제주목에는 제주목사의 副官에 해당하는 判官이 파견되었으나, 이는 지방장관인 수령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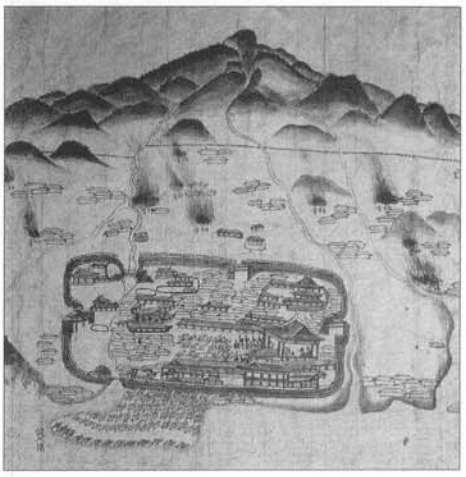
제주도에 목사의 파견은 1295년(忠烈王 21)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增補文獻備考』 권16, 여지고4, 군현연혁조에 의하면 제주목의 설치는 태조 6년(1397)의 일이라 기술되어 있다.[17] 이 당시 제주목은 제주도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끊임없는 중앙집권화 시책에 따라 1416년(태종 16)에 제주목 외에 대정현·정의현이 신설되면서, 제주목의 관할구역은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80리, 서쪽으로는 81리, 남쪽으로는 약 70여리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제주목사가 그 이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목사는 소관지역을 관할하면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행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군현은 일반적으로 군현상호간에 수령의 品秩에 있어서만 高下가 있었을 뿐, 군현간에는 상하관계 없이 직접 道에 연결되는 병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道에 파견된 觀察使와만 직접 명령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수령은 지방행정체계상 관찰사의 감독·규찰을 받으면서 所屬邑에 대한 행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령간에는 상하명령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았다.[18]

오늘날을 예로 들어 말한다면, 제주시장·서귀포시장·북제주군수·남제주군수가 직급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나, 이들은 독자적으로 제주도지사와 명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제주시장이 남제주군수보다 직급이 높다고 하여도 제주시장이 남제주군수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제주도가 하나의 도로 승격되어 도지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당시 제주도는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행정구역으로서의 독자적인 道를 형성하지 못한, 당시 제주도 지방의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제주목사·대정현감·정의현감이 독자적으로 상위관서인 전라도 관찰사의 명령을 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즉, 濟州牧使는 전라도관찰사의 褒貶을 받고 있었지만, 大靜·旌義縣監은 전라도 관찰사의 직접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목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는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전라도 관찰사가 매년 제주도에 와서 3읍 수령을 포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관찰사의 권한







1. 제주양노(탐라순력도)
2. 건포배은(탐라순력도)
3. 1910년경 관덕정 부근 오일장

중 일부를 제주목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대정·정의현감의 경우는 제주목사를 통하여 적절히 통제해 나갔다. 때문에 제주도 지방인 경우는 특수하게 수령간에 명령체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제주목사는 所管인 제주목을 총괄하면서 대정·정의현 지역을 감독·규찰해 나갔던 것이다.[19]

이와 같은 수령행정체계상에서 제주목사가 대정·정의현 지역에의 순찰시, 제주목에 관계된 사항은 제주목사의 부관격인 판관이 대행하거나 혹은 목사가 公私로 시간이 없을때 판관이 대신하여 대정·정의현의 업무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제주목사는 소관 제주목 외에 대정·정의현감을 감독·규찰하였기 때문에 濟州島의 책임자나 다름이 없었다. 제주목의 홍화각을 흔히 감영과 마찬가지로 營廳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제주목사는 행정적 기능 외에 군사적인 기능의 수행이 항상 강조되어 반드시 군사적인 직책이 겸임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주로 萬戶·安撫使의 직책을 겸임하다가 세조 12년에 兵馬水軍節制使라 하였고, 인조 16년에 防禦使, 1642년(인조 20)에 節制使, 1713년(숙종 39) 이후 방어사란 직책이 겸임되었다.[20] 이들은 명칭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軍職의 겸임이라는 데서는 동일하다.

그럼 제주도 지방의 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面里制度의 정비를 제외한다면 조선전기의 행정편제가 후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즉 守令이 파견 되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관원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할지라도 커다란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제주목에는 牧使·判官·敎授·審藥· 漢學·倭學 등이 파견되었고, 대정·정의현에는 縣監·訓導 등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直村은 자치적인 향약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인구의 증가에 따라 면리제도로 편성되었다.

각 읍의 행정실무는 중앙정부의 六曺 체제를 모방한 吏·戶·禮·兵·刑·工房의 六房으로 나누어 집행되었는데 이들 각 방의 담당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방 : 향리의 인사 및 고과 등의 실무.
②호방 : 수세·균역·호구·농사·둔전·사창·각곡·회계 등의 업무.
③예방 : 제사·簽文·예절·빈객·儒生·官敎·帖文 등에 대한 업무.
④병방 : 군사·병선·봉수·연대에 대한 사무.
⑤형방 : 재판·禁令·죄수·감옥 등에 관한 사무.
⑥공방 : 공장·營繕·公用紙 등의 사무.

이 중에서도 지방행정은 호방·이방·형방이 가장 중심이 되었으며, 그 首吏를 三公兄이라 하여 중시하였다. 제주지방의 관아에 속한 관속들의 직명은 후기에 오면서 戶長·首望·工禮色·大同色·補民色·平役色·都承發·場稅色·軍器色·醫局色·歲抄色·月令色·修工房·紙匠·馬牌吏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1] 이들은 모두 6방에 예속된 향리들로 이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作廳이라 하였다. 그러나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해 생활 보장이 되지 않아 자연히 수령과 일반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온갖 부정을 자행하게 되었다. 또 임기를 무시한 채 단행된 수령의 빈번한 교체는 향리의 부정과 비리를 더욱 용이하게 해 주었다.

이밖에도 수령의 신변에서 呼召와 使喚에 응하는 通引이란 것이 있었다. 通引은 특히 知印 또는 小童이라 불리어 지기도 했거니와 이들은 대개 향리나 公賤 출신의 연소자로 충당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 제주목사에 예속된 향리는 69명, 통인은 114명이었다.[22]

이상에서 말한 것이 수령의 행정적인 속료라고 한다면 경찰과 군사적인 속료에는 軍校라는 것이

있었다. 군교라 함은 將官·軍官을 말하는데, 특히 장관에는 千總·把總·哨官·旗牌官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군교의 밑에는 使令·羅將·軍牢 등 여러 종류의 요속이 딸려 있었다. 이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군관청·진무청·군뢰청·장관청 등으로 불린다. 이들 요속은 원래 근본이 없는 부랑배들이었지만, 문을 지키고 출입을 통제하는 閽權을 비롯하여 죄인에게 형장을 치는 杖權, 옥중에 있는 죄수에게 칼과 수갑을 채우는 獄權, 外村의 邸人 즉 面主人이 되는 邸權, 죄인을 체포하는 捕權 등 이른바 5권을 손에 잡고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23]

이같은 군교와 그 속료 외에도 官奴와 官婢가 있어 수령의 공사 생활에 사역되었다. 우선 관노에는 東軒 뜰에서 심부름하는 侍奴 즉 及唱과 貿販을 맡은 首奴, 공작을 맡은 工奴 즉 工房庫直, 말을 기르고 수령이 외출할 때 日傘을 잡는 廐奴, 수령이 거처하는 방에 불을 지피는 房奴 즉 房子, 푸줏간 일을 맡는 疱奴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았으며, 관비는 기생과 婢子 즉 汲水가 여기에 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관노방과 藏春院에서 생활하였다.

수령은 그 지방 토착인인 향리들을 시켜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는데, 정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향리들을 잘 통솔해야 될 뿐 아니라, 지방 양반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鄕廳이었다. 향청은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성종 때부터 그 체제를 완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향청은 지방의 양반 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鄕任에 임용하여 수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고 향리들이 집무하는 作廳의 일상적인 업무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수령의 자문기관인 동시에 수령의 직무를 돕는 보좌기관이기도 하였다. 향청의 임원 즉 향임은 座首와 別監·風憲 등으로 구성되었다. 좌수는 향청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일종의 해당지역 양반의 명단인 鄕案에 이름이 올라 있는 鄕班들이 향회를 열어 그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면 수령이 임명하였다. 별감과 풍헌은 좌수가 향회의 회원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추천하면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들의 임기는 대개 2년이 통례로 되어 있었으며 수령이 바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될 수도 있었다.

향청의 임원인 향임들도 작청에 근무하는 향리들과 같이 역시 6방과 그 밖의 사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좌수는 향청을 대표하는 동시에 이방·호방·병방·형방 사무를, 별감은 예방과 공방사무를 각각 담당하였으며, 그 밑에는 향임의 사무를 돕기 위한 書員 등도 있었다.

4. 濟州牧의 官衙施設

현존하는 사료상 1435년(세종 17) 이전 제주목 관아시설에 대한 추정은 대단히 어렵다. 1435년(세종 17)은 제주목 관아건물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였다. 그것은 高得宗의 「弘化閣記」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상략〉 公(당시 都安撫使 兼 判牧使인 崔海山을 지칭함:필자주)은 人和를 돈독히 하고, 무너진 관사를 수리하고자 하여 그 일을 중히 여겼으나 틈을 내지 못하였다. 때마침 관청에 불이 나자 거처할 곳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머리깎은 죄수와 번을 서는 사람들만을 동원하여 무너진 절간에서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세우니 거문고 타는 방과 욕실, 부엌, 낭사를 갖추고, 조금 서쪽에 집 三楹을 세워 政事를 보는 堂으로 하고, 좌우에 각각 곁채를 마련하여 방을 마련하니 독서하는 곳이다. 또 그 서쪽에 三

〈표〉 제주목 관아시설의 규모·위치·기능[25]

官衙名	規模(間)	相對的 位置	機能	備考
瀛洲館	35	北城內	客舍	현 북초등교 위치
弘化閣	9	延曦閣 남쪽	안무사영->절세사영->영리청	제주지방법원 舊地
愛梅軒	8	弘化閣 동쪽		
友蓮堂	10	弘化閣 남쪽	연못, 연회 및 詩酒의 장소	金倣의 享儀室記 전함
贊籌軒		觀德亭 남쪽	판관이 안부를 묻는 곳	
運籌堂	9	東城 위	군사적인 방어소, 관리의 휴식처	黃祐獻記, 申纘 序
上衙	37	弘化閣 북쪽	제주목사의 執政堂	
延曦閣	14	弘化閣 북쪽	上衙의 동헌	李源祚의 記 전함
養心堂		望京樓 밑		
二衙	47	南城 안	제주판관의 執政堂	
察眉軒		二衙 북쪽	二衙의 外東軒	제주의료원 舊地
生白軒		二衙 동쪽	二衙의 內東軒	
橘林堂	5	延曦閣 동쪽	詩酒 장소	
營軍官廳	31	愛梅軒 동쪽	軍官의 所處	
牧軍官廳	8	二衙 동쪽	軍官의 所處	
鎭撫廳	7	左衛廊 內	鎭撫의 所處	
營作廳		右衛廊 서쪽	戶長, 記官, 將校, 律生, 書員, 日守 등이 근무	
牧作廳	7	二衙북쪽	〃	
藏春院	4	新果園 서쪽	기녀와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	
觀德亭	18	弘化閣 남쪽	武藝試才所	辛碩祖記, 徐居正 重修記 吳霈의 改建上樑文 전함
望京樓	17	延曦閣 동북쪽		吳霈 및 金亮洙 重修 上樑文
濟衆樓	6	城의 동문	출입구, 제주읍성의 동문루	
定遠樓	6	城의 남문	〃 , 제주읍성의 남문루	
白虎樓	6	城의 서문	〃 , 제주읍성의 서문루	
鍾樓	3	弘化閣 동남	동헌의 외대문(영문의 대문루)	現「守令以下皆下馬」옆
演武亭	10	南城 밖 1리	閱武之場	
司倉	60	西城안	곡식 보관 창고	
軍器庫	14	左衛廊 내	군기보관(자전고라고 함)	

官衙名	規模(間)	相對的 位置	機能	備考
清霜庫	4	運籌堂 서쪽	무기 보관 창고	
火藥庫	4	新果園 북쪽	화약 보관 창고	
戶籍庫		鍾樓 서쪽	호적 보관 창고	
州司	3	西城 안	횃불감을 저장하는 곳	
營繕		運籌堂 서남쪽	땔나무, 숯, 乾草 보관	
獄	21	객사 동남쪽	감옥	이원진 「탐라지」에는 9칸
公須	18	西果園 북쪽	회계사무 담당	
營廳	30			
軍牢廳	4		軍牢의 거처	
馬房	6		마굿간	
別廳	3			
將官廳	8		把摠 등이 근무	
三學廳	12	좌위랑	漢生, 倭生, 譯生	
鄕廳	12	贊籌軒 남쪽	座首, 別監의 집무소	
軍餉庫	17			
牧假率廳	3	牧公須 동쪽	재주판관 휘하의 가솔 등이 기거	
牧公須	10	察眉軒동쪽	판관의 회계사무	
官奴房	12	友蓮堂 서쪽	관노들의 거처	
鄕校	71		文廟	
明倫堂	12	향교 내	강학공간	
東西齋	20	〃	기숙사	
講堂	7	〃	教授 所處	
書院	6		학교	
傳番堂	7			
藏修堂	9	南城 안	鄕學堂	
纛室	5	南果園	깃대의 보관	
三姓廟	25	南城 안	고·양·부의 廟	
擊臺	각1	28所		「탐라지」등에는 27所
左衛廊	48	觀德亭 좌동쪽	羅將, 譯生, 毛匠, 床匠, 藥房, 氈匠, 吹手, 箭匠, 弓匠, 旗手 등 소처	湖南援兵이 폐해지기 전에는 호남원병의 거처로 사용
右衛廊	56	觀德亭 우동쪽	營吏廳, 旗牌, 軍器, 牙兵, 定甲知印, 假率, 醫局, 武學, 馬廐 등 처	〃



관아배치도(탐라방영총람, 1760년대경)

楹을 세우고 겹처마로 보충하니 규모가 굉장하고 정밀하며 제도가 아름다워 가까이에서 보면 크고 높아 보이고, 바라보면 으리으리하여 빨간색을 칠하여 단장을 하니 볼만하였다. 그 남쪽에 半刺의 堂을 세우고 그 북쪽에는 나라에 바치는 말의 마굿간을 두고 동쪽에는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만들어 진상할 물품을 저장하고 그 남쪽 밖에 따로 樓門을 지어서 밑으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아 시간을 알리는 설비를 갖추었다. 동쪽의 藥庫와 서쪽의 廳所가 동서로 대치하게 하여 모두 담을 두르니 돌은 잘 다듬어지고 견고하였다. 집 수는 모두 206칸인데 집마다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으니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까닭이다.〈하략〉」[24]

라 하여 이전의 관아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거의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弘化閣을 건립하면서 種樓, 침실, 욕실, 독서방, 琴堂, 政堂, 藥庫, 廳所, 廊舍, 營庫 등 모두 206칸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工役은 죄수와 番을 서는 사람을 동원하였고, 재료는 島內 무너진 사찰의 재목과 기와를 이용하였다. 공사기간은 최해산 목사의 도임이 1434년 10월이고 「弘化閣記」가 쓰여진 것이 1435년임을 감안해 볼 때 수개월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나 동원된 인원수의 규모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재목과 기와를 가져왔다는 무너진 사찰이 어느 사찰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鐘樓에 달았던 鐘이 妙蓮寺의 종이라는 것으로 보아, 무너진 사찰은 제주성에서 서남 20리에 있던 묘련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후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을 서로 닿지않도록 건축하여 담장을 쌓았다. 어떻든 현재 문헌사료로 추정할 수 있는 관아건물의 골격은 이 당시부터 형성되어 나갔다. 제주목 관아시설의 개요를 이해하기 위해 〈표〉 제주목 관아시설의 규모·위치·기능을 작성하였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아시설은 闕牌와 殿牌를 모셔 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向闕望拜를 하던 영주관[객사]을 중심으로 營廳인 홍화각, 제주목사의 동헌인 연희각, 그리고 판관의 동헌인 찬주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외에 목사·판관의 사적인 공간인 내아가 있으며, 좌수·별감이 집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作廳, 군장교의 將廳,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公須廳, 죄인을 가두는 獄, 노복들의 거처인 관노방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아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觀德亭을 중심으로 주로 좌우에 치중되어 있는데, 특히 좌측에는 목사의 동헌과 관아시설, 우측은 판관의 관아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 건물의 상대적 위치는 『耽羅防營總覽』에 자세히 한 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치연혁은 부록으로 제시한 〈濟州牧 官衙施設의 略史와 建築史 年表〉를 참고할 수 있다.

5. 發掘址內 官衙建物의 沿革

1) 外大門[일명 鐘樓, 鎭海樓, 耽羅布政司]

제주목사의 관아건물로 통하는 營門의 大門樓로 弘化閣 동남쪽에 위치했었으며, 일명 鐘樓·鎭海樓·耽羅布政司라 불리었다. 1435년(세종 17) 홍화각 창건 때에 건립되었다. 樓閣 위에는 일종의 통행시간을 알리기 위해 鐘을 메달아 놓고, 이를 쳐서 성문을 열고 닫았다. 본래 이 종은 濟州城 서남 20리에 위치했던 妙蓮寺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으나, 1847년(헌종 13) 목사 李宜植이 종을 녹여 병기와 놋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이듬 해에 목사 張寅植이 역사가 오랜 耽羅古都에 종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萬戶 張錫佐로 하여금 전라남도 영암 美黃寺에서 큰 종을 사들여 다시 메달았으나, 일제 때에 없어지고 말았다.

1699년(숙종 25)에 南至薰 목사가 개건하면서 진해루를 탐라포정사라 改扁하였다. 문 위에는 李益

泰 목사가 쓴 '海中仙府天外雄藩' 이란 8字가 있었다. 그리고 門樓 앞에는 「守令以下皆下馬」라는 下馬碑를 세워 수령 이하는 營門을 출입할 때 모두 말에서 내리도록 하여 관아의 위엄을 높였다. 탐라포정사는 1916년에 훼철되었다.

文獻資料 : 「高得宗弘化閣記」, 『耽羅志』(李元鎭, 1653年), 『知瀛錄』(李益泰, 1696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大靜旌義邑誌』(1793年),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濟州郡邑誌』(1899年), 『耽羅紀年』(金錫翼, 1915年).

2) 弘化閣

延曦閣 남쪽에 있었으며, 安撫使 및 節制使의 營廳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713년(숙종 39) 제주목사가 防禦使 겸직으로 파견되면서 正衙를 別設하게 되어 이 곳은 營吏廳으로 이용되었다. 홍화각이 營廳이라 불리어지게 된 것은 제주목사가 전라도 관찰사의 임무를 일부 넘겨받아 대정현감·정의현감을 지휘·감독하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권을 장악한 데서 유래한다.

관아의 건립은 세종 때에 관아건물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자, 1434년(세종 16)부터 役事를 시작하여 1435년(세종 17)에 崔海山 목사가 침실, 욕실, 독서방, 琴堂, 政堂 등 모두 206칸을 완성하면서 홍화각이 창건되었다. 불에 타기 전의 관아명칭은 萬京樓라 하였다. 즉, 元의 世祖가 궁실을 짓고 이름하여 만경루라 했었는데, 그 의미는 사철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에서 취하였다고 한다. 만경루라는 관아명을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관아가 불에 모두 타 버렸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에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화각이라 명명한 것은 왕의 어진 덕화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1648년(인조 26) 11월 18일에 金汝水 목사가 중수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 1월 8일에 완성하였다. 「金晉鎔弘化閣重修記」(1649년 2월 1일)에 의하면, 필요한 재목은 金寧林에서 벌목하여 배에 실어 산지포구로 운반해 왔다. 그리고 '동서남 3면은 과거에 빈 터여서 오직 허물어지는 담장과 담장 안은 옛날에 초가집 몇 칸이 있었는데, 이를 官家에서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홍화각 동쪽 모서리가 우연당 북쪽 구석에 바로 닿게 하였다.' 라 한 바와 같이, 홍화각이 매우 크게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화각은 耽羅古閣이라 불리어질 정도로 관아건물 중에서 유명한 건물이었다. 그후 이 건물은 1772년(영조 48) 목사 梁世絢이 중수하였고, 1829년(순조 29)에 李行敎 목사가 개건하였다. 그러나 1940년에 홍화각은 훼철되었다.

文獻資料 : 「高得宗弘化閣記」, 「金晉鎔弘化閣重修記」, 「李源祚弘化閣重修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李元鎭, 1653年), 『知瀛錄』(李益泰, 1696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大靜旌義邑誌』(1793年),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耽羅錄』(李源祚, 1842~3年), 『耽羅紀年』(金錫翼, 1915年).

3) 延曦閣

연희각은 홍화각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목사의 執政堂으로 제주의 安危가 이에 달려 있었다. 즉, 上衙의 東軒, 목사의 居衙, 목사 衙舍, 牧使 正衙 등으로 불리웠다. 上衙라 한 것은 濟州判官의 집무처인 貳衙의 동헌과 구분해 명명된 것이다.

李源祚의 「延曦閣記」에 의하면, 연희각은 예로부터 記가 없어서 그 건치연대 및 板額의 의미와 누

구의 글씨인지를 상세히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희각과 관련된 沈演 목사(1638. 6~1640. 9 재임)의 詩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638년(인조 16)에 제주목사의 겸직이었던 절제사가 방어사로 바뀌면서 건립되었거나 그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목사의 겸직은 1642년(인조 20)에 다시 節制使, 1713년(숙종 39) 이후부터는 다시 防禦使라 하였다.

1885년(고종 22) 洪圭 목사가 연희각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1924년 일제에 의하여 연희각은 헐리고 말았다.

文獻資料 : 「李源祚延曦閣記」, 『耽羅志』(李元鎭, 1653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大靜旌義邑誌』(1793年),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耽羅紀年』(金錫翼, 1915年).

4) 友蓮堂

관덕정 북쪽과 홍화각 남쪽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일종의 연회장소였다. 1526년(중종 21) 목사 李壽童이 성안에 우물이 없으므로 못을 파서 저수하여 연꽃을 심고 그 위에 亭子를 세워 우연당이라 하였다. 우물을 만든 이유는 관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연못 가운데에는 제주를 상징하는 작은 돌 섬을 만들어 꽃과 대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후 선조 때의 楊大樹 목사(1592~1595년 재임)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하여, 연못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서 '양대수 개구리 미워하듯 한다' 는 속담이 유래되었다.

1694년 9월 이익태 목사가 우연당 5칸을 중건하고 사적을 적은 현판을 세웠다. 이에 의하면 연못 담장 벽을 네모나게 반드시 하였고, 연못을 파낸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 꽃나무를 심었으며, 우연당에 연꽃을 심고 돌로 막아 연못 중심에다 하나의 작은 섬을 만들고 도랑을 통해 연못 물을 북쪽으로 끌어 장마가 오면 넘치게 하였다고 한다.

영조 때 金儆 목사(1735~1737년 재임)가 다시 정자를 중수하고 못 가운데에 돌로 臺를 쌓아서 化竹을 심어 享儀室이라 하고 貢獻 封進 장소로 사용하였다.

文獻資料 : 「金儆享儀室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李元鎭, 1653年), 『知瀛錄』(李益泰, 1696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大靜旌義邑誌』(1793年),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耽羅紀年』(金錫翼, 1915年).

5) 愛梅軒

홍화각 동쪽의 8칸 건물이었는데, 1580년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에 舊基로 나타나고 있어, 이 이전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67년(현종 8) 李塤 목사가 개건한 바 있다.

文獻資料 : 『耽羅志』(李元鎭, 1653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6) 橘林堂

연희각 동쪽 과원 가운데 있었던 5칸 건물로 주로 詩酒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李源祚의 「橘林堂重修記」에 의하면, 귤림당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43년(영조 19) 安慶運 목사가 중수하였고, 1769년(영조 45)에 또 중수하였다. 그 후 이원조 목사가 1842년(헌종 8)에 중수하였다.

文獻資料 :「李源祚橘林堂重修記」,『耽羅志』(李元鎭, 1653年),『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南宦博物』(李衡祥, 1704年),『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耽羅錄』(李源祚, 1842~3年).

7) 素行亭

연희각 동쪽에 있었으며, 1칸 건물이었다. 1660년(현종 원년) 李襘 목사가 창건하였다. 즉, 동헌 마당 빈터에 네모진 못을 파서 자그만 섬을 쌓고 한 칸되는 정자를 지어 연못가에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고 거닐며 쉬는 장소로 삼은 것이다. 李襘의「素行亭記」에 의하면 소행정이란 '지위를 깨끗이 행한다' 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知瀛錄』(李益泰, 1696年)에 의하면 소행정은 '연희각 동쪽 마당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라 하여 창건되어서 얼마 없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文獻資料 :「李襘素行亭記」,『知瀛錄』(李益泰, 1696年),『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8) 淸心堂

애매헌 동쪽에 있었으며, 1704년(숙종 30)에 李喜泰 목사가 창건하였다. 그러나 1726년(영조 2)에 군기청이 불타자 이 당을 移建하여 洗兵軒으로 삼았다. 청심당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이다. 본래 청심당 주변에는 꽃나무가 울창하였고 사방으로 대나무를 심어 흰 모래를 가운데에 깔았었다.

文獻資料 :『蘆峯集』,『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9) 中大門

외대문 북쪽에 있었으며, 관아의 출입구이다. 1694년(숙종 20)에 이익태가 중건한 바 있다.

文獻資料 :『知瀛錄』(李益泰, 1696年),『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10) 內大門

중대문 동북쪽에 있었으며, 동헌의 출입구이다.

文獻資料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11) 東軒內衙

동헌 서쪽에 위치한 제주목사의 살림채이다.

文獻資料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12) 戶籍庫

홍화각 남쪽, 혹은 종루의 서쪽에 있었다. 삼읍의 호적을 보관하는 장소이다.『耽羅志』(李元鎭, 1653年)에 따르면 호수는 4,663호에 인구는 남자가 9,340명, 여자는 11,347명이었다. 그러나 호적은 최해산 때에 모두 불타 그 이전 것은 보관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에도 관원들이 그 중요함을 잘몰라 철권을 송두리 채 훔쳐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심지어 백성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찢어버리거나, 도려내고 혹은 발라 개조하였다. 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賤 자를 없애고, 공천에 투신하고자 하는 자는 私賤의 私 자를 없애고, 종을 데리고 살던 자는 良妻로 바꾸는 등 그 폐단이 심하였으나 호

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원진 목사는 두권을 만들어 한 권은 營門에서 철저히 보관토록 하였다.

文獻資料 : 『耽羅志』(李元鎭, 1653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13) 戶庫

홍화각 동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耽羅營事例」(哲宗年間)에 의하면, 白米, 小米, 太, 陸白米, 眞荏, 水荏, 菜種, 眞油, 法油, 眞末, 菜豆榧子, 皮牟, 正木, 利木 등의 보관 창고이다.

文獻資料 :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耽羅營事例」(哲宗年間).

14) 禮庫

호적고 서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전복, 해삼, 표고, 미역, 비자, 동백, 오징어, 추복, 인복, 은어, 生魚, 淸蜜, 白荏, 民魚, 石魚, 秀魚, 靑角, 柏子, 石花, 海衣, 白蠟, 五味子 등 각종 진상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이다.

文獻資料 :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耽羅營事例」(哲宗年間).

15) 奴婢行廊

관노비들이 거처하는 방으로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에 의하면 內衙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에 따르면 관노는 時存 111명, 藥工 7명, 營及唱 26명, 牧及唱 21명이며, 관비는 時存 83명, 妓生 66명이다.

文獻資料 :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16) 營吏掌房

「耽羅營事例」(哲宗年間)에 의하면 營吏掌房은 戶長, 吏房, 副吏房, 公事戶房, 番吏房 6, 刑房, 禮吏, 都鎭色, 州賑色, 東賑色, 西賑色, 州補色, 東補色, 西補色, 都船色, 副船色, 箋文色, 啓書色, 習啓書色, 戶房色, 歲抄色, 耗粗色, 都承發, 會計色, 書寫, 重記色書寫, 啓錄書寫, 戶籍色, 番禮吏 9, 番承發 6, 紙筒通引, 番首通引 6으로 나타난다.

文獻資料 :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耽羅營事例」(哲宗年間).

17) 敎坊

新果園 서쪽에 있었으며, 일명 藏春院이라고도 한다. 1689년(숙종 15) 목사 李宇恒이 창건하였다. 교방은 官妓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곳이다. 樂工은 官奴에서 擇定하였고, 妓生은 官婢 중에서 재모가 있는 자를 택하였다.

文獻資料 : 『耽羅志』(李元鎭, 1653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18) 審藥房

左衛廊에 있었는데, 일명 審檢堂이라고도 한다. 원래 심약과 의생들이 거처하였으나 뒤에 檢律

도 함께 기거하였다. 심약은 조정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는 종9품의 관원이다.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원 중에서 선임되었으며, 제주에는 1인이 파견되었다. 1849년(헌종 15)에 張寅植 목사가 건물을 개건하였다.

文獻資料 : 『耽羅志』(李元鎭, 1653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19) 雇馬庫

營牧의 刷馬價인 元木 30여 同으로 매년 이자를 거두어서 교체되어 가는 지방관의 行資로 사용하였다. 즉, 고마고는 지방관이 바다를 건넌 후에 말을 빌리는 자금으로 삼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1781년(정조 5)에 朴天衡 어사가 狀啓를 올려 혁파하였다.

文獻資料 :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耽羅誌草本』(李源祚, 1842~3年).

20) 臥仙閣

연희각 북쪽에 있었다. 李益泰 목사가『知瀛錄』(1696年)을 이 곳에서 저술하였다. 따라서 목사의 서재 등의 용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文獻資料 : 『知瀛錄』(李益泰, 1696年),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

21) 軍官廳

애매헌 동쪽에 있었다. 옛날에 군관의 수가 15인이었는데, 어사 이경억이 장계하여 10인을 감하였다. 그리고 왕래 때에는 말[馬]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말을 가지는 것은 금지하였다.

文獻資料 : 『耽羅志』(李元鎭, 1653年), 『耽羅巡歷圖』(李衡祥, 1703年),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

6.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제주목의 행정과 관아시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제주목 관아지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일대는 탐라국 이래 약 2천년간 제주역사의 중심지였다. 도민들에 대한 행정이 모두 이 곳에서 입안되고, 처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전통시대에는 도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상징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전반에는 도민의 원한이 맺힌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서울의 덕수궁, 경복궁, 경희궁 보다도 더 의미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는 초기부터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정치의 산실이고 島民의 魂과 恨이 교감되는 제주목 관아지를 탐라국 이래 제주도 역사의 중심 현장이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이 더 이상 문화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 원형을 되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김 동 전)

註

1) 李膺鎬는『乇羅國紀』에서 탐라국시대 성주청의 위치를 '조선조 세병헌이 있었던 곳으로 左右紫電·青霜庫가 있었고, 지금은 우편국 자리가 되었다.' 라 하여 현재의 제주우체국 자리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홍정표 역시「七星臺와 星主廳」(『耽羅星主遺事』, 고씨종문회 총본부, 1979.)에서 古老들의 구전을 종합해 볼 때 성주청이 있었던 자리는 1903년 濟州郵便受取所, 1905년 木浦郵便局出張所, 1907년 濟州郵便局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2)『濟州邑誌』(正祖年間), 坊里條.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호구는 일도리 351戶 1,890口, 이도리 282戶 1,466口, 삼도리 337戶 1,670口로 나타난다.

3) 제주목의 관아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著者 및 編者	資 料 名	作成年代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年
李元鎭	『耽羅志』	1653年
李衡祥	『耽羅巡歷圖』	1703年
李衡祥	『南宦博物』	1704年
	『耽羅防營總覽』	1760-70年代
	『濟州邑誌』	正祖年間
	『濟州 大靜 旌義邑誌』	1793年
李源祚	『耽羅誌草本』	1842-3年
李源祚	『耽羅錄』	1842-3年
	『濟州郡邑誌』	1899年
金錫翼	『耽羅紀年』	1915年
全羅南道 濟州島廳	『未開の寶庫 濟州島』	1924年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島』	1929年
高頴鍾	『濟州島便覽』	1930年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5, 7, 9年

4) 반영환,『한국의 성곽』, 교양국사총서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144.

5)『太宗實錄』卷31, 太宗 16年, 5月 丁酉條.
「濟州都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 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七縣 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

6)『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正月 甲子條.「命修築濟州城」.

7)『世宗實錄地理志』濟州牧條 참조.

8) 앞의 책, 各 郡縣條 參照.

9)『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城郭條.

10) 李元鎭,『耽羅志』, 濟州 城郭條.「嘉靖乙丑 郭屹爲牧使時 退築東城 嘉樂泉 今在城內」. 김석익의『耽羅紀年』에는 이를 1566년(명종 21)이라 기술하였으나, 을축년은 1565년(명종 20)이다.

11) 金錫翼,『耽羅紀年』, 明宗 21年.

12) 앞의 책과 같음.

13) 金錫翼,『耽羅紀年』, 宣祖 32年.

14) 金錫翼, 앞의 책, 正祖 4年 및『濟州邑誌』(正祖年間) 參照.

15) 앞의 책, 헌종 13년 참조.

16) 李存熙,『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硏究』, 一志社, 1990, p. 182.

17)『增補文獻備考』卷 16, 輿地考 4, 郡縣沿革條.

18) 李存熙, 앞의 책, p. 128; 金東栓,「朝鮮前期守令制度硏究」,『史學志』21, 1987.

19) 金東栓,「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濟州島史硏究』창간호, 1991.

20)『肅宗實錄』卷 54, 肅宗 39年 6月 丁丑條.

21) 金仁澤,「丁丑 六月 日 大靜縣衙中日記」(『大靜고을』, 반석, 1988 所收) 참조.

22)『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 官職條.

23)『譯註 牧民心書Ⅱ』, 창작과비평사, 1979, pp.98~110.

24) 李元鎭,『耽羅志』, 濟州 宮室條.

25) 1704년 이형상에 의해 편찬된『南宦博物』誌廨條의 관아명과 규모를 기본으로 삼고, 상대적 위치 및 기능은 다른 邑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附錄 : 〈 濟州牧 官衙施設의 略史와 建築史 年表 〉

耽羅國時代(1105년 이전) 星主廳 및 주요 관아시설의 옛 터로 추정.
1435년(세종 17) 安撫使 崔海山이 관아가 불타없어지자 弘化閣, 種樓(鎭海樓 : 耽羅布政司) 등 206間을 건립.
1448년(세종 30) 牧使 辛淑晴이 觀德亭 창건.
1466년(세조 12) 목사 李由義가 향교를 중수함에 교수 文紹祖가 주재함.
1480년(성종 11) 목사 梁瓚이 觀德亭 중수.
1511년(중종 6) 목사 金錫哲이 객사문 밖에 있던 左右衛廊을 觀德亭 동쪽으로 이건.
1512년(중종 7) 定遠樓(남문의 초루)를 金錫哲 목사가 창건.
1526년(중종 21) 목사 李壽童이 城 중에 우물이 없어 友蓮堂 창건, 삼성혈 내에 紅門 건립.
1534년(중종 29) 목사 沈連源이 鄕學堂을 南城내에 세움.
1536년(중종 31) 목사 심연원이 明倫堂 중수.
1556년(명종 11) 金秀文 목사가 望京樓 창건(延曦閣 동북쪽).
1568년(명종 23) 봄에 목사 郭屹이 運籌堂을 高陵에 창건.
1578년(선조 11) 판관 趙仁後가 가락천 동쪽에 충암사를 창건.
1582년(선조 15) 목사 金泰廷이 향교를 가락천 동쪽에 이건.
1592년(선조 25) 목사 楊大樹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友蓮堂을 메워 버림.
1592년(선조 25) 목사 李慶祿이 山底泉 위에 決勝亭(옛 海山臺)을 창건.
1599년(선조 32) 목사 成允文이 察眉軒 동북쪽에 待變廳(뒤에 禦邊廳으로 고침) 건립, 南城 내에 制夷閣, 南水口와 北水口에 虹門을 건립.
1620년(광해군 12) 司倉을 혁파하고 常平倉 軍資倉으로 곡식을 移附.
1636년(인조 14) 목사 申景琥가 演武亭을 廣壤에 건립.
1648년(인조 26) 목사 金汝水가 弘化閣을 중수함.
1651년(효종 2) 목사 李元鎭이 군기를 수리하고 洗兵軒이라 현판함.
1653년(효종 4) 목사 이원진이 北水門을 수축하고 그 위에 拱辰亭 창건.
1660년(현종 1) 목사 李檜가 素行亭(延曦閣 동쪽), 藏修堂(향학당)을 南城 안에 창건.
1665년(현종 6) 판관 崔鎭南이 충암사를 藏修堂 남쪽으로 이건.
1666년(현종 7) 延祥樓(옛 濟衆樓로 城의 동문)와 北水口의 虹門을 洪宇亮 목사가 중수.
1667년(현종 8) 목사 李墳이 愛梅軒을 개건.
1668년(현종 9) 목사 李墳이 觀德亭 서쪽에 賑恤倉을 설립, 望京樓 개건, 향교를 가락천 서쪽 옛 터로 옮김.
1669년(현종 10) 목사 李墳이 永惠祠를 藏修堂 동쪽에 창건.
1672년(현종 13) 목사 尹階가 醫局을 설치.
1680년(숙종 6) 목사 任弘望이 冊版庫를 향교 옆에 세움.
1682년(숙종 8) 愼景尹 목사가 運籌堂 중건.
1689년(숙종 15) 목사 李宇恒이 瀛洲館 개건, 紫電庫(洗兵軒 내), 藏春院(左衛廊 在) 건립.
1690년(숙종 16) 목사 이우항이 觀德亭 개건.
1691년(숙종 17) 판관 金凍 가락천 서쪽에 있던 鄕射堂을 察眉軒 서북쪽으로 이건.
1694년(숙종 20) 목사 李益泰가 演武亭, 運籌堂 중수, 右衛廊에 三學廳 창건.
1698년(숙종 24) 목사 柳漢明이 博審堂을 글림서원에 세움.
1699년(숙종 25) 목사 南至薰이 種樓(鎭海樓)를 개건 하고 耽羅布政司라 扁額.
1702년(숙종 28) 李衡祥 목사가 敎鍊廳(옛 旗牌廳) 설립.

1704년(숙종 30) 李喜泰 목사가 淸心堂 건립(愛梅軒 동쪽).
1705년(숙종 31) 목사 宋廷奎가 定遠樓 중수.
1706년(숙종 32) 목사 李奎成이 瀛洲館 중수.
1718년(숙종 44) 목사 鄭碩賓이 箭庫 설치.
1720년(숙종 46) 목사 閔濟章이 南水口 虹門을 개축.
1724년(경종 4) 愼惟益 목사가 향교를 가락천 동쪽으로 이설.
1726년(영조 2) 洗兵軒이 불타자 淸心堂을 洗兵軒 자리로 이건함.
1735년(영조 11) 목사 金俶이 友蓮堂을 중수하여 향의실로 삼고 貢獻封進장소로 사용, 瀛洲館 구내에 尊敬閣을 세우고 賀禮時에 香燭奉安토록함.
1736년(영조 12) 목사 金俶이 三泉書堂 창건, 尊賢堂을 건립해 塾師의 거처로 사용.
1737년(영조 13) 延敎亭을 東城 밖에 세움.
1738년(영조 14) 어사 李度遠이 均役廳 설치.
1739년(영조 15) 목사 趙東漸이 白虎樓(서문의 초루)를 중수.
1743년(영조 19) 목사 安慶運이 橘林堂 개건, 運籌堂 중수.
1744년(영조 20) 목사 金潤이 牧子庫를 설치하여 貢馬의 자금을 도움.
1746년(영조 22) 동문 밖에 演武亭(현 제주동초등교 자리) 개건.
1753년(영조 29) 金夢煃 목사가 運籌堂, 觀德亭 중수.
1755년(영조 31) 목사 洪泰斗가 향교를 廣壤(현 삼성초등교 자리)에 옮겨 세움.
1762년(영조 38) 목사 申光翼이 均役廳을 平役庫라 개칭.
1766년(영조 42) 목사 尹著東이 補民庫(一名 安民庫) 설치.
1768년(영조 44) 목사 南益祥이 裨將廳 건립, 南·北水口 수축.
1772년(영조 48) 목사 梁世絢이 弘化閣 중수.
1773년(영조 49) 목사 朴聖浹이 白虎樓를 중수하고 鎭西樓라 편액.
1778년(정조 2) 黃最彦 목사 觀德亭 중수.
1780년(정조 4) 목사 金永綏가 運籌堂, 定遠樓, 演武亭 중수, 間城(길이 551步, 높이 9尺)을 구축하고 蘇民門·受福門 건립, 光濟橋 개설, 南城門 서쪽의 淸風坮를 老將坮라 題名함, 관덕정에 「耽羅形勝」이란 글씨를 써서 걸어 놓음.
1787년(정조 11) 覃恩庫를 李命俊 목사가 설치.
1794년(정조 18) 瀛洲館 동쪽에 어사 沈樂洙가 大一觀을 건립하고 御製御筆 및 倫音을 봉안토록 함.
1797년(정조 21) 방어사 柳師模가 鄕射堂을 鄕社堂으로 改扁.
1801년(순조 1) 판관 李宗蕃이 總物堂, 三姓祠 등 관아시설 100여 칸을 중수.
1803년(순조 3) 판관 趙慶遠이 瀛洲館 중수.
1806년(순조 6) 朴宗柱목사가 望京樓 개건.
1807년(순조 7) 목사 韓鼎運이 拱辰亭 중건(이원진 목사가 건립, 중간에 폐지됨).
1808년(순조 8) 목사 한정운이 廷祥樓를 중수.
1809년(순조 9) 목사 李顯宅이 制勝亭과 運籌堂을 개건.
1810년(순조 10) 판관 孫應虎가 察眉軒 중수.
1827년(순조 27) 李行敎 목사가 향교를 지금의 용담동으로 이설.
1828년(순조 28) 목사 李行敎가 大一館을 중수함.
1829년(순조 29) 목사 이행교가 弘化閣을 개건함.
1831년(순조 31) 목사 李禮延이 三泉書堂 북쪽에 拱辰亭 이건.
1832년(순조 32) 목사 韓應浩가 共濟堂 창건(延曦閣 동남쪽).

1834년(순조 34) 목사 한응호가 觀德亭 중수.
1835년(헌종 1) 목사 朴長復이 향사당 중수, 總物堂 개건.
1843년(헌종 9) 목사 李源祚가 永惠祠 동쪽에 鄕賢祠를 창건, 삼천서당 중수.
1847년(헌종 13) 목사 李宜植이 北水口城을 퇴축하여 그 위에 天一亭 창건, 受福門 12間 건립, 객사, 연무정 37칸, 동문·서문·남문 각 12칸을 중수.
1848년(헌종 14) 목사 張寅植이 拱辰亭 중수, 金鐘閣을 포정문 밖에 세움.
1849년(헌종 15) 목사 장인식이 右衛廊에 春蒙齊를 개건, 北城 안에 審固堂 창건, 左衛廊 내에 있는 譯學堂을 지어당으로 개편.
1851년(철종 2) 李玄功 목사 觀德亭 개건.
1853년(철종 4) 동·서 남문루 각 12칸, 군기고 27칸, 군관청 16칸, 나졸청 11칸, 공수 13칸, 진휼고 43칸 개건.
1856년(철종 7) 목사 蔡東健이 남문루, 서문루, 망경루 30칸, 군관청 12칸 중수.
1871년(고종 8) 향현사, 藏修堂 毁撤.
1875년(고종 12) 목사 李熙忠이 洗兵軒 중수, 敬信堂을 藏修堂 옛 터에 세움.
1879년(고종 16) 목사 白樂淵이 司馬齊 창건.
1882년(고종 19) 朴善陽 목사 觀德亭 중수.
1884년(고종 21) 목사 沈賢澤이 拱辰亭 중수.
1885년(고종 22) 목사 洪圭가 延曦閣 중수.
1886년(고종 23) 폭우로 南水口 虹門이 무너지자 이를 개건함.
1892년(고종 29) 運籌堂이 화재로 소실되자 察理使 李奎遠이 개건.
1894년(고종 31) 左衛廊에 있던 鎭撫廳, 右衛廊에 있던 武學廳, 定甲廳, 牙兵廳 폐지.
1897년 金熙胄 郡守가 察眉軒 중수.
1900년 摠物堂 중수.
1904년 목사 洪鐘宇가 拱辰亭, 망경루 중수, 泳恩亭 건립.
1907년 군수 尹元求가 瀛洲館 자리에 제주보통학교 설립.
1907년 화재로 摠物堂이 소실됨, 의신학교를 경신재 터에 설치, 제주우편국 설치.
1909년 세병헌 자리에 경찰서 설치.
1912년 자혜의원을 이아 터에 설치.
1913년 북성문이 헐림.
1914년 망경루가 헐림. 10월에 동성문, 서성문, 간성문 등 여러 문루가 헐림.
1915년 소민문과 북성이 헐림.
1916년 포정사가 훼철됨.
1917년 경찰서를 공제당 옛 터에 옮겨 세움.
1918년 남성문루 훼철.
1921년 연무정 옛 터(현 제주동초등학교 자리)에 감옥 설치.
1923년 동성 위에 측후소 설치.
1924년 연희각이 헐림.
1924년 前田善次 島司 觀德亭 중수.
1926년 제주읍성을 헐어 산지항 축항을 쌓음, 이아가 헐림.
1940년 홍화각 훼철.
1948년 도청이 불에 타 버림.
1951년 도청을 광양에 신축함.
1955년 경찰국을 도청 옛 자리에 신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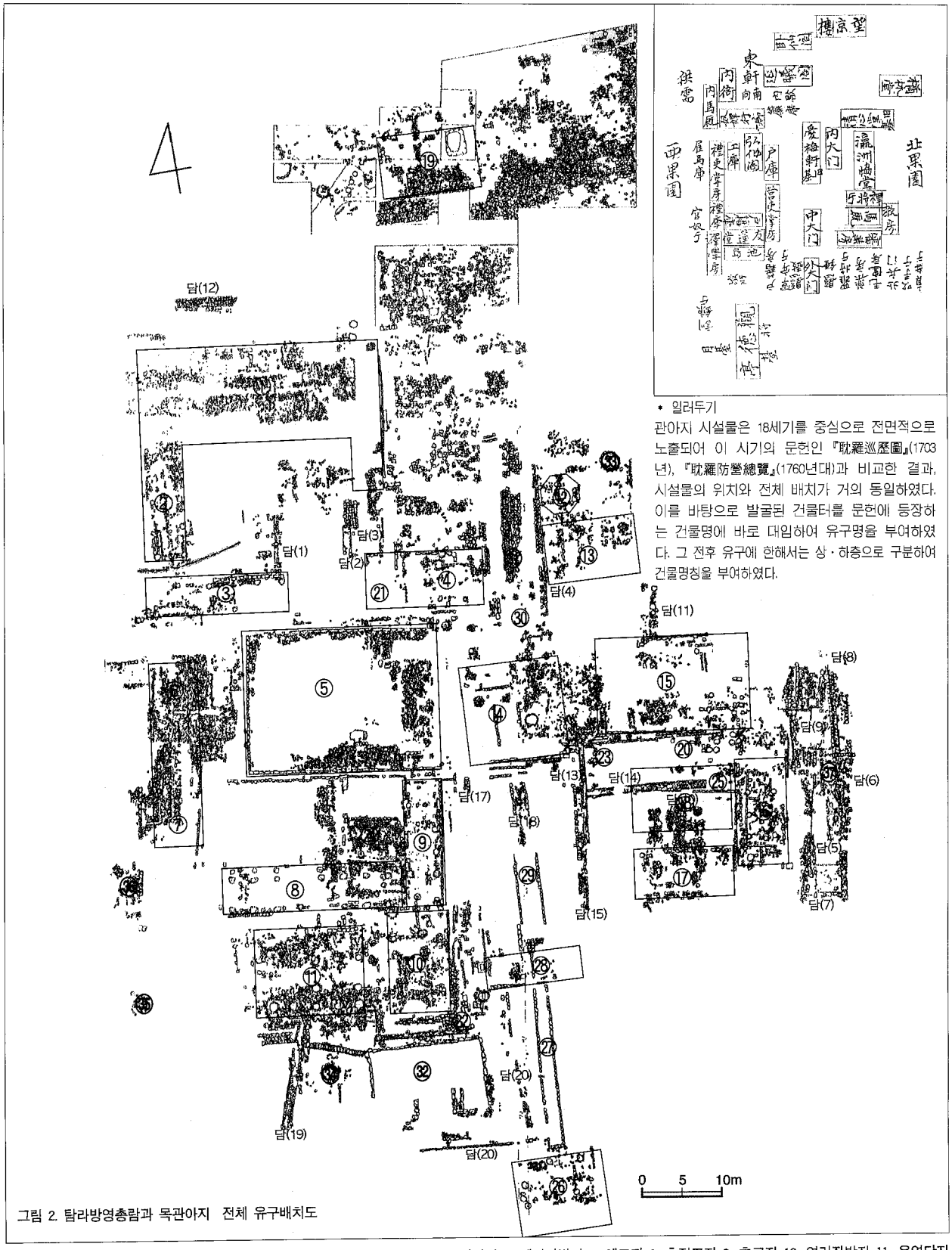


그림 2. 탐라방영총람과 목관아지 전체 유구배치도

* 일러두기
관아지 시설물은 18세기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이 시기의 문헌인 『耽羅巡歷圖』(1703년), 『耽羅防營總覽』(1760년대)과 비교한 결과, 시설물의 위치와 전체 배치가 거의 동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굴된 건물터를 문헌에 등장하는 건물명에 바로 대입하여 유구명을 부여하였다. 그 전후 유구에 한해서는 상·하층으로 구분하여 건물명칭을 부여하였다.

범례 : 1. 연희각지 2. 동헌내아지 3. 노비행랑지 4. 노비행랑동편희랑지 5. 홍화각지 6. 예리장방지 7. 예고지 8. 호적고지 9. 호고지 10. 영리장방지 11. 우연당지 12. 소행정지 13. 청심당지 14. 애매헌지 15. 영주협당지 16. 교방지 17. 십약방지 18. 마구지 19. 와선각지 20. 군관청지 21. 노비행처하층전기건물지 22. 영리장방지하층전기건물지 23. 영주협당지하층중기건물지 24. 호적고하층중기건물지 25. 교방지상층말기건물지 26. 외대문지(포정사) 27. 외대문-중대문간도로 28. 중대문지 29. 중대문-내대문간도로 30. 내대문지 31. 내대문안쪽도로 32. 연못 33. 전기원형우물지 34. 원형우물지 35. 원형우물지 36. 관아지서편외곽담장지(담장지 16) 37. 관아지동편외곽담장지(담장지 8)

제3장 조사내용

제1절 위치와 현상

1. 유적의 위치

제주목관아지는 제주도 북단 중앙에 위치한 제주시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적인 지번은 제주시 삼도2동 43-2번지, 33-7번지, 1045-1번지이다.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0.5km정도 떨어져 있고, 관아지 서편으로 병문천과 한천이, 동편으로는 산지천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이 자리한 해발고도는 10m정도이며, 보물 322호인 觀德亭이 제주목관아지의 범위내에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이며, 濟州邑城내의 관아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는 18세기초 문헌인 이형상목사의 『耽羅巡歷圖』와 18세기 중엽의 『耽羅防營總』에 나타난 관아 배치도가 그러한 상황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지표조사를 통해 관덕정주변에 수많은 건물지 석재와 도자기 파편 등이 산재되어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었다.

유적의 양옆으로 흐르는 산지천과 병문천, 그리고 제주 한천주변은 풍부한 水原과 함께 옛부터 선사인의 삶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여 주었다. 주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기원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대의 용담동 옹관·석곽묘유적, 제주도의 전형적인 고인돌, 통일신라시대(耽羅後期)의 제사유적이 있다.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제주시의 산지포구와 탑동해안은 수려한 해안 풍경을 연출했으며 탑동의 해안가 검은 자갈은 유명했다. 목관아지 발굴과정에서 마당과 도로에 깔았던 검은 자갈은 이 해안에서 가져온 것들 임에 틀림없다.

2. 발굴전 현상

조사지역은 크게 남고북저, 서고동저의 지표상 레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높낮이는 현 남쪽 끝자리인 삼도동중앙 파출소입구와 북쪽끝인 제주북초등학교 남쪽도로와 2.3m 차이가 나며, 트렌치조사에서 기준점 남쪽구역은 약 2m이상 일제시대와 최근에 와서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발굴조사범위내에 일제시대 건물 10여동, 해방 이후 현대 건물이 총 10여동 자리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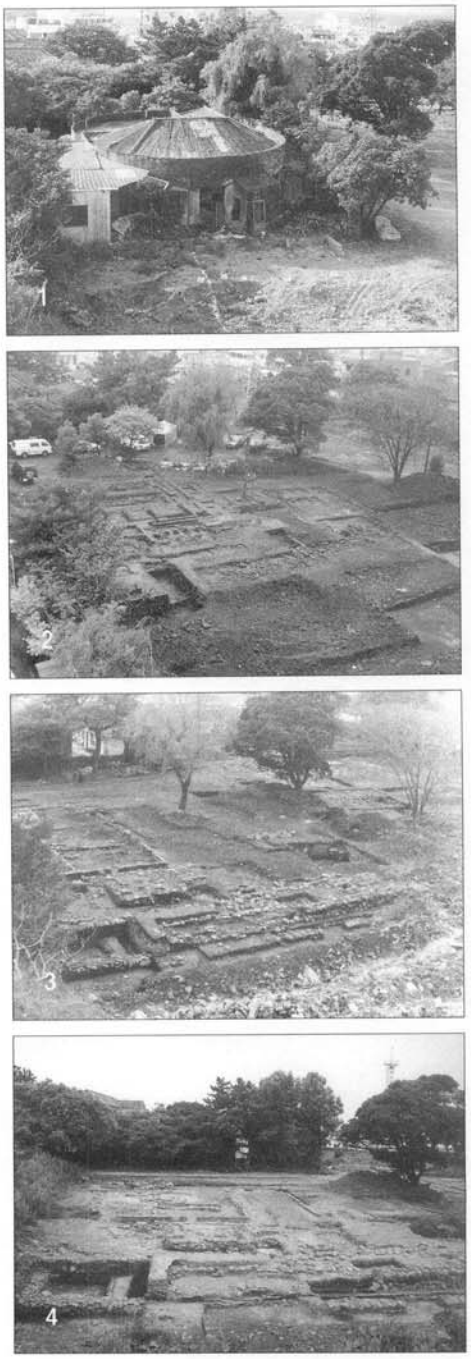


사진1. A구역 발굴전 전경 2. 시굴조사후 전경
3. 발굴중간단계 4. 발굴완료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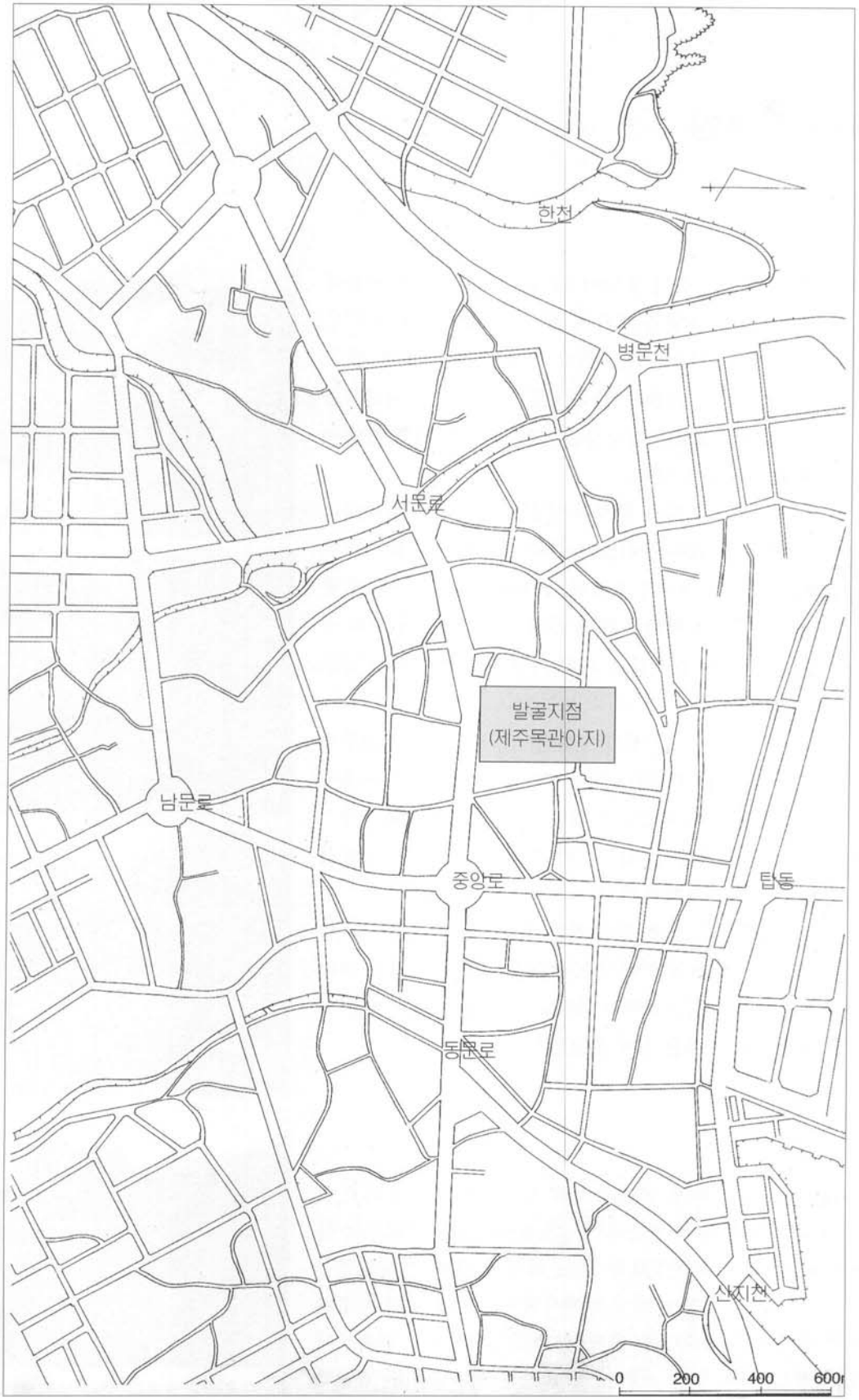


그림 3. 제주시 행정도로망과 제주목관아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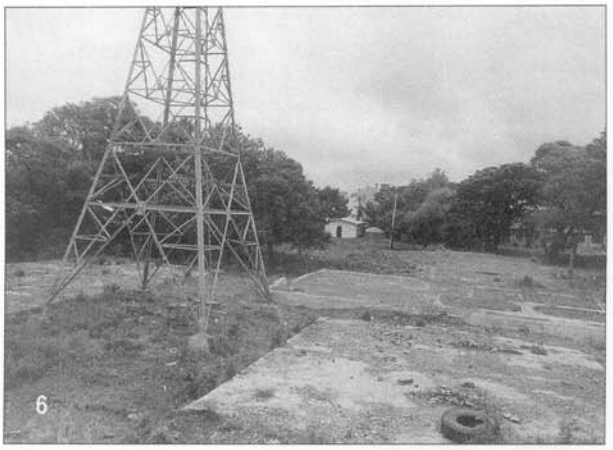












사진 5. A구역 유구 중복상태 6. B・C구역 발굴전 전경 7. B구역 발굴전 전경태 8. B구역 발굴후 전경
9. B-2구역 발굴전 전경 10. B-2구역 발굴후 전경 11. B-2구역 발굴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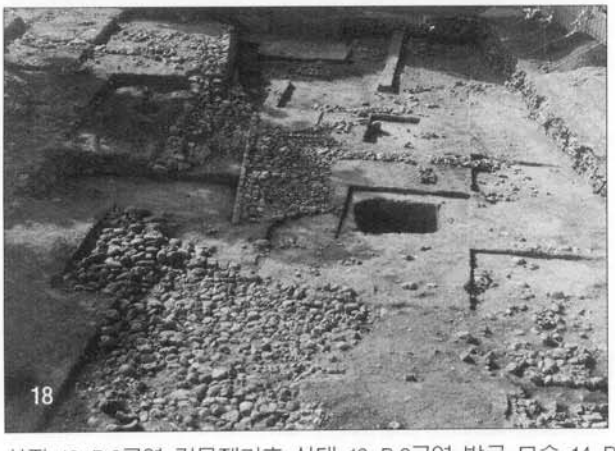




사진 12. B-2구역 건물제거후 상태 13. B-2구역 발굴 모습 14. B-1구역 발굴 모습 15. 시굴항 굴착작업
16. 시굴항 굴착작업 17. B-2구역 유구 전면 노출상태 18. B-2구역 유구노출상태 19. B-2구역 발굴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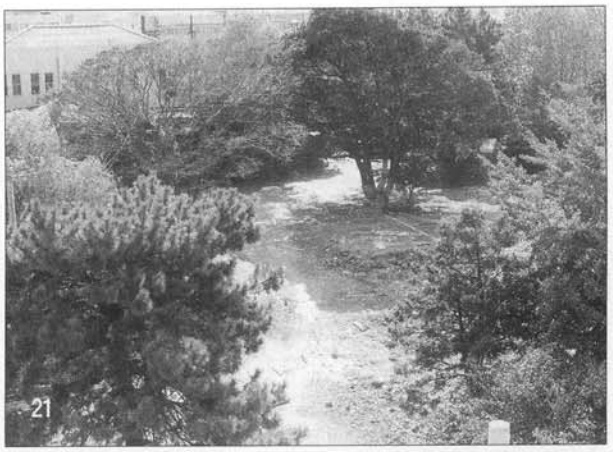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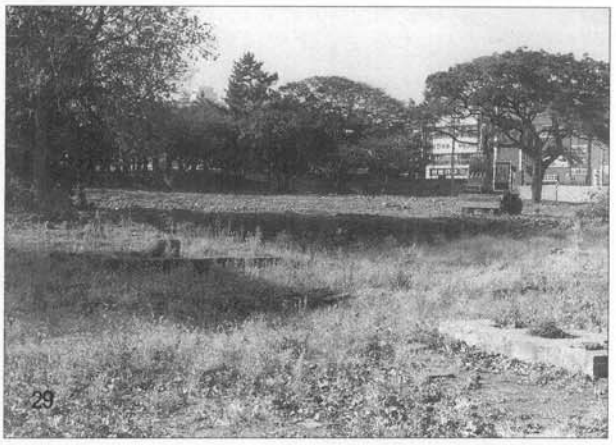






사진 20. B구역 우물지 · 탐라시대층 작업광경 21. A구역 시굴전 상태 22. B-3구역 EW.Tr(1) · NS.Tr(1)(2) 전경 23. B-3구역 NS.Tr(1) 전경 24. B-3구역 EW.Tr(1) 현대건물지 기단 노출상태 25. A구역 시굴트렌치 발굴모습 26. A구역 경찰서건물 제거후 노출된 각인 목인장 27. A구역 일제시대유구와 담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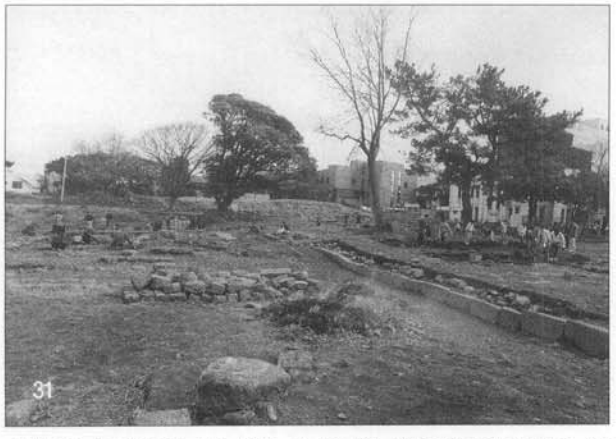




사진 28. D구역 발굴전 전경 29. D구역 현대건물지 제거후 상태 30. D구역 상부매립토 제거작업
31. D구역 상부매립토 제거작업 32. D구역 시굴조사 광경



33. D구역 시굴트렌치 구획모습

발굴중심구역에서 근대 경찰서 유치장과 경찰서 부속건물, 일제시대 강당 등은 콘크리트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후기 건물지가 파괴되었고, 문지 초석, 크고 작은 치석된 건물석재, 건물지 기단석이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지거나 일제건물 내부의 매립자갈과 함께 섞여 들어갔다. 1945년 이후에 신축된 현대건물은 경찰서와 도지사관사 등 총 10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건물이 신축되면서 많은 유구가 또 한번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1년에 시굴된 A구역은 발굴착수시 상부의 모든 건물이 철거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철거된 상태였다. 철거된 건물의 잔해가 발굴지점의 북편에 치우쳐 매립되어 있었고, 매립된 부분의 높이는 2.5m 정도였다. 舊제주경찰서 구치소건물의 동편은 원래 지형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현 관덕정이 자리한 표고에서 동일한 레벨로 북으로 이어지다가 점차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이다. 유적의 중심 표고는 10.0m로, 건물을 만들면서 원래의 지형을 크게 변동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992년도에 발굴된 B·C구역은 전년도 200여평의 발굴지 외에 900평정도이며, 발굴지 내에는 경찰서 송신탑 1개, 경찰식당, 관사, 숙소 등 5개소의 현대식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발굴착수전에 이미 건물지가 해체되어 있었고, 허물어진 건물지의 콘크리트 및 석재들은 조사 대상지 북편의 낮은 쪽으로 매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매립토와 현대건물지의 바닥을 긁어내는 작업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매립토를 제거하고 난 후의 지형은 조사대상지의 남쪽과 북쪽이 2.5m 정도의 높낮이 차를 보였다. 북쪽 끝인 와선각지의 표고는 6.0m이고, 남쪽끝인 외대문지(탐라포정사)의 표고는 8.5m였다. 따라서 연희각과 포정사의 존재시기를 조선 후기로 보았을 때 당시 구지표는 원래의 지형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지형으로



34. D구역 매립층 조사광경



35. D구역 발굴지 전경(북서에서)



36. D구역 발굴지 전경(북동에서)

판단된다. 이러한 지형을 고려하여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의 설치 방향은 추정연희각 건물의 마당 한복판에 기준점(D.P)을 잡고 남북방향으로 2m폭의 트렌치를 연속하여 구획하였다. 트렌치조사 과정에서 일제식 건물지와 현대식 건물의 하부 공사시 조선시대의 유구들이 상당량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2구역은 일제시대 구세무서, 해방이후에는 도청부속건물, 경찰서 관련시설이 3동이상 자리하고 있었다. 발굴조사 전에 이전 건물의 해체와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잔해를 치우는 데 한달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일부 일제시대 건물은 지하 3m 이상 지하실 형태로 들어서 있어, 이 부분은 이미 조선시대 유구층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었다.

D구역은 일제시대 법원, 이와 관련된 부속건물(당시 삼부토건부지) 등 8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부건물을 제거하고 실시한 트렌치조사에서 이곳의 지면은 일제시대 건물을 시설하면서 다른 구역과는 달리 2m이상 복토하여 평삭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2절 발굴방법과 층위

1. 발굴방법

전체발굴면적 3000평(9,600㎡)을 발굴연도별로 정리하여 A구역(1991년 발굴구역), B구역(1992년 발굴구역), B-1·2(1995년 발굴구역), C구역(1992년 발굴구역), D구역(1998년 발굴구역)으로 명명하였다. 각 지점마다 동서트렌치와 남북트렌치, 10×10m 규모의 Grid를 총 60개 가량 구획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구역별로 지형이 달라 발굴구획도 상황에 맞춰 실시하였다. B, C구역은 지상에 노출된 현대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발굴에 임했고, A구역은 현대·일제시대 건물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발굴구획을 하였다. B구역은 테스트피트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유구층보다 높게 현대·일제시대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상층의 현대 건물을 완전하게 철거한 반면, C구역은 조선후기 건물지와 현대·일제시대 건물지가 중복관계를 보여 부득이 현대건물지의 바닥을 철거할 수 없었다. 상층유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층에서 그 이전시기의 건물지 및 기타 부속유구가 확인되어 이 유구에 대해서는 상층유구가 파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피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구역별 발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A구역

(1) Grid의 방향(정북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남북트렌치(2×30m)를 구획, 각 Grid의 남쪽에 4개소를 구획하였고 또한 동서트렌치도 각 Grid의 남과 북에 설치하였다. Grid내에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없이 구획발굴하였다.

(2) 구역내 남쪽과 동쪽, 북쪽에서 건물지군이 확인되어 확장발굴을 실시하였다.

NS Tr(1), (2)의 남쪽부분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부분에 한해 확대조사를 실시하였다. 교방지, 마구지, 심약방지와 담장지 (5)~(13)까지의 유구를 노출시켰다.

2) B구역

(1) B-1구역은 상면의 현대건물기초를 2m 이상 제거한 후 2×30m의 트렌치발굴을 실시하였다. 일제시대 건물지의 기초다짐이 계속 노출되어 전면발굴을 실시하였다. 구역 동편에서는 건물지와 우물지, 서편에서는 마당시설과 보도, 도로 등이 노출되었고 부분적으로 하부토층조사를 위한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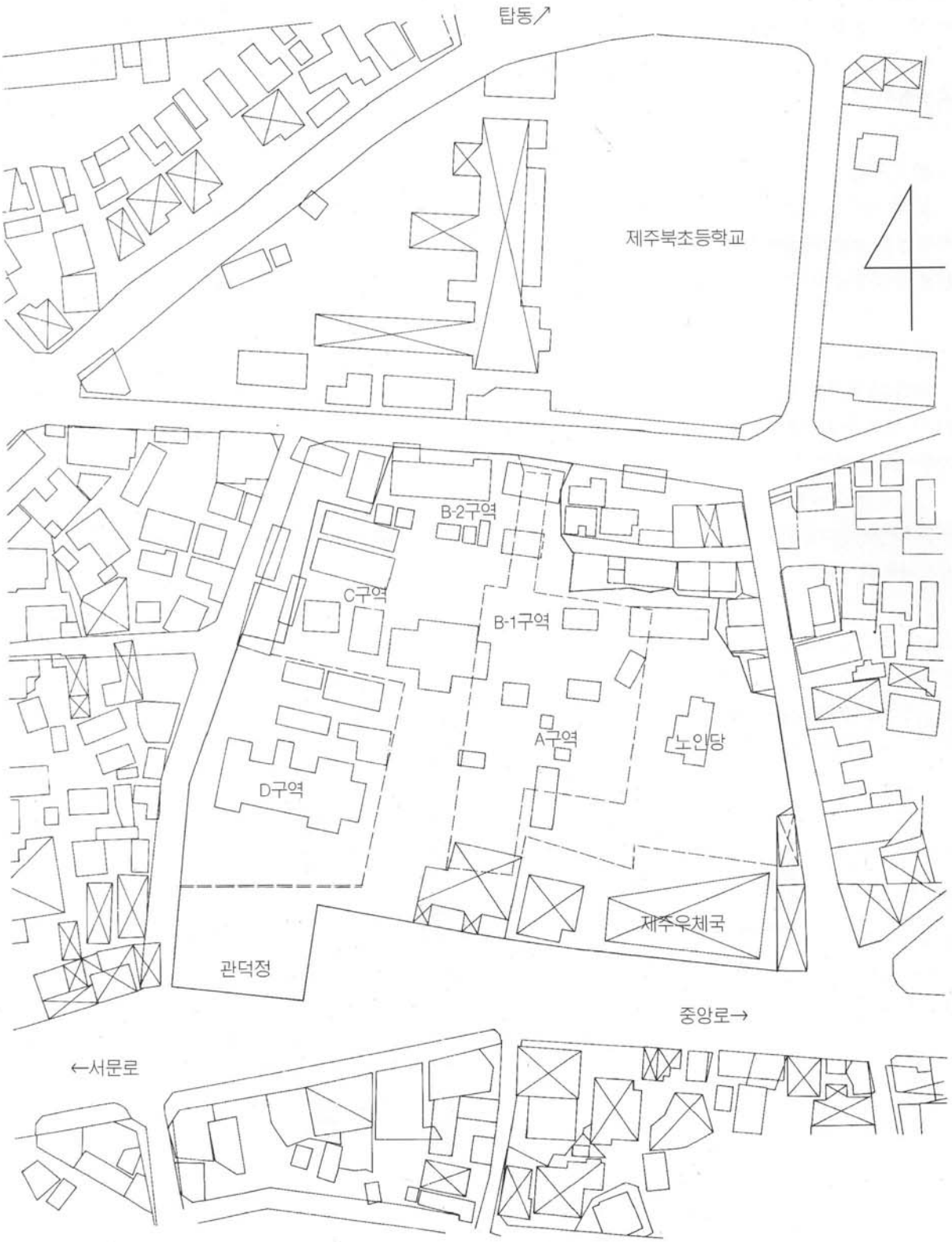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목관아지 지적도 · 지형 · 구역별 명칭

(2) B-2구역은 기존 B-1구역 발굴지와 동일한 동서방향으로 모든 발굴지를 트렌치로 구획하여 전체발굴지의 평면적·층위적인 중복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하층 유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실시하여 중요유구에 대하여 확장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유구층 밑으로 고려·통일신라시대(탐라국시대)문화층이 노출됨으로써 이 유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C구역

현대 경찰서 건물이 밀집되었던 장소로 지하실 1개소와 경찰송신탑시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발굴지 상면 제거작업을 통해 지상에 노출된 콘크리트 및 매립적석부를 제거한 후 2×30m 크기의 동서, 남북트렌치를 4m간격으로 구획발굴하였다.

4) D구역

전면 트렌치발굴을 실시한 후 보크를 제거하고 확장 발굴을 실시하였다. 트렌치는 1.5m의 보크를 두고 3m와 4m의 트렌치를 두었다. 상층부는 1.5m 정도가 복토되어 있었다. 이 복토층은 시멘트와 잡석, 그리고 적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제시대 건물을 만들면서 상당히 교란되어 있었다.

상층부를 제거한 후 조선시대 유구 노출작업에 착수하였다. 조선시대 유구층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성토층을 확인하는 작업과 적심시설 확인작업에 주력하였다. 우물지와 연못지는 매립층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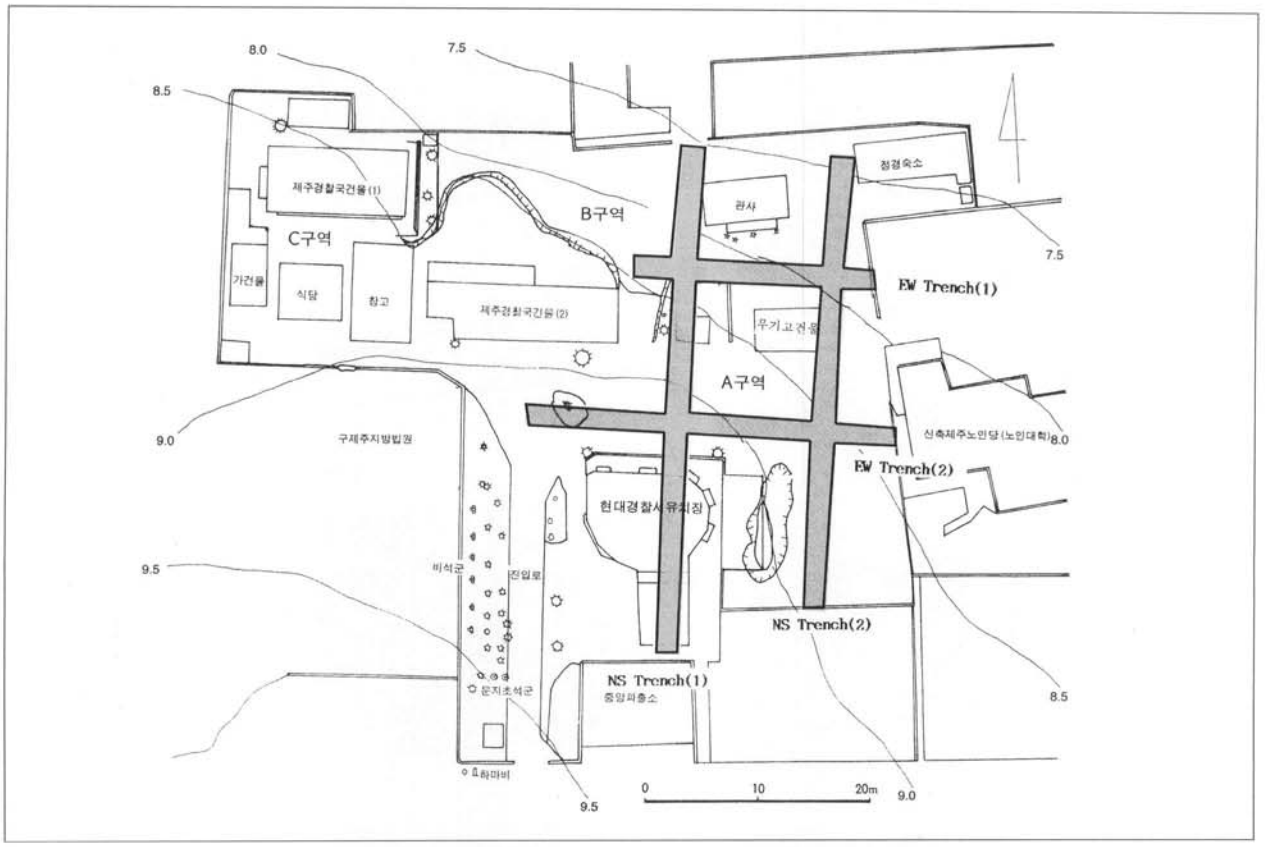


그림 5. 제주목관아지 A·B·C구역 지형도 및 구역 명칭



그림 6. 제주목관아지 D구역 트렌치 구획도

2. 층 위

발굴이 진행되면서 발굴지점에 여러시기의 건물지가 중복되어 나타났다. 층위조사는 토층상태가 잘 남아 있거나 유구중복이 심한 곳에 한해 테스트피트 형태로 조사하였다. 이 층위조사는 관아지의 연속적인 중복관계 및 건물지 선후관계의 해결뿐만 아니라 축조범위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크게 6개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점에서 나타난 층위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A구역 교방지 서편 단면 층위

건물지와 담장지가 밀집되어 발견된 구역으로 조선후기의 외대문과 중대문간의 도로 동편에 위치한다. 이 층위는 조선중기 이후의 층위로 파악된다.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1층	15~17	황갈색	후대에 잡석, 자갈, 모래가 섞인 교란층.
2층	20~21	흑 색	흑색 소토로 수평띠가 형성된 층.
3층	37~42	황 색	황색점토층으로 토양입자가 곱고 소량의 소토로 구성된 층.
4층	62~67	흑갈색	잔자갈이 혼입된 양이 많고 백자편, 와편, 소토가 혼합된 층.
5층	67 이하	황갈색	대형 할석과 괴석이 섞여 있고 단단한 점토성분으로 구성된 층.

1층의 상면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경찰서구치소건물이 들어섰던 관계로 콘크리트로 덮혀 있었다. 이로 인해 1층이 상당히 교란된 상태였다. 3층은 조선후기층으로 여겨지며, 이 구역은 조선시대 마지막 단계의 건물이 시설된 층이다. 상층인 2층의 소토층은 이 시기에 건물이 소실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4층인 자갈층은 조선중기의 건물지 폐기후 이루어진 층으로 판단되며 조선중기 건물지 상면을 덮고 있어, 이 시기에는 이 구역내에 건물지보다 담장지가 자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5층은 조선중기층으로 각종시설들이 평면상 중복되어 나타나는 시설물의 성토층이다.





사진 37. A구역 교방지 서편유구 중복상태
38. A구역 마구지 서쪽 Test-pit(1) 상층 단면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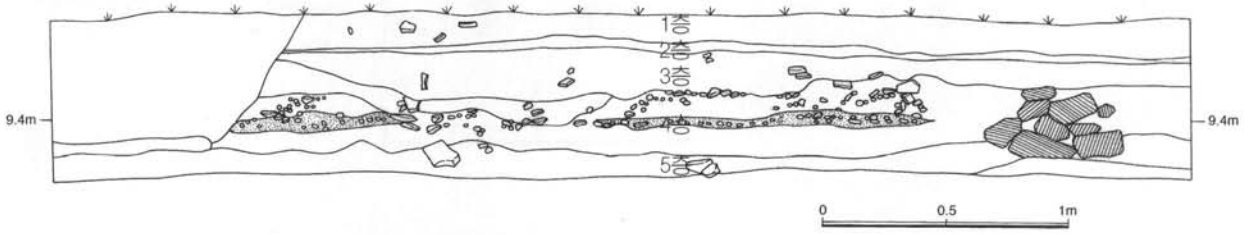


그림 7. A구역 교방지 서편 단면 층위

2) A구역 담장지중복지점 Test pit 단면 층위

조선시대 전기의 와적담장지(5) 서편 층위는 크게 5개의 시설물층과 3개의 간층이 확인된다. 시설물층은 유구가 확인되는 층과 황색점토를 다진 층이다. 간층은 소토층과 잔자갈층 그리고 굵은 자갈과 할석이 매립된 층이다. 위의 층위중, 문화층은 1, 3, 5, 8, 10층이고 간층은 2, 4, 7층이다. 매립층으로 확인되는 층위는 7, 9층이다. 이러한 모든 층위는 자갈층을 제외하고 굴곡이 심하다. 조선전기 와적담장지 동편은 7층윗면의 층위 모두가 매립층이다. 세 번에 걸쳐 매립되었음을 토층단면에서 읽을 수 있다.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1층	35~40	흑갈색	항아리(옹기)가 묻혀있고 각종 현대유물이 섞인 부식토층.
2층	60~70	황갈색	단단한 점토 위주로 구성. 자갈, 소토가 소량 함유된 부식토층.
3층	70~72	황 색	경도가 낮고 소토함양이 많아지며, 자갈이 없는 층.
4층	90~95	흑 색	검은 소토층이며 목탄 일부가 남아 있는 재층.
5층	100~112	흑갈색	기와편이 다량 함유된 자갈층.
6층	120~130	갈 색	경도가 높고, 소토 및 잡석이 혼합된 층.
7층	130~140	흑갈색	사립을 포함한 둥근 자갈층.
8층	152~170	황갈색	기와편, 소토, 자갈이 혼합된 사질점토층.
9층	175~177	암갈색	자잘한 할석이 포함된 점토층.
10층	180~	황 색	단단하게 인위적으로 다져진 점토층.





사진 39. A구역 담장지 Test-pit(3) 단면층위
40. A구역 담장지 Test-pit(3) 전경(남에서)

층위내 유물출토상황을 살펴보면 6층(소토층)상면에서 백자편이, 7, 8, 9층에서는 분청편이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백자와 분청이 혼합된 층이 없이 확연하게 소토층을 간층으로 구분된다. 이는 분청사기와 백자의 주 사용시기 차를 반영하는 것이다. 9층에서 청자편이 간혹 출토되나 주로 분청편이며, 10층에서는 탐라국시대의 심발형적갈색토기편과 도기편이 확인된다.

이 구역에서 발견되는 담장지는 층위로 볼 때 15세기경의 분청시기 담장지와 조선중기와 후기의 백자층에 속한 담장지로 나누어 진다. 분청시기의 유구는 담장지 1개소에 대한 일부조사에 그쳤고 동서로 이어지는 기와배수시설로 보아 동편에 분청시기의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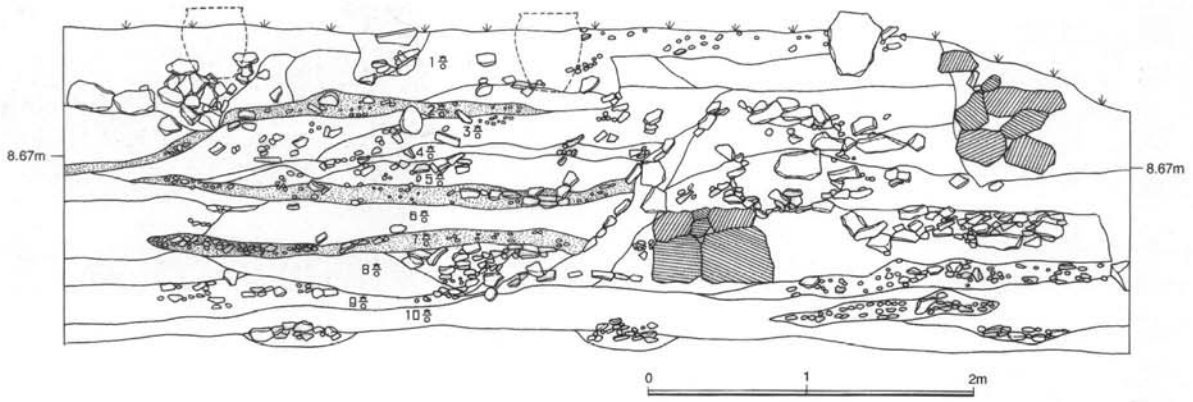


그림 8. A구역 담장지중복지점 Test pit 단면 층위

3)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 pit 단면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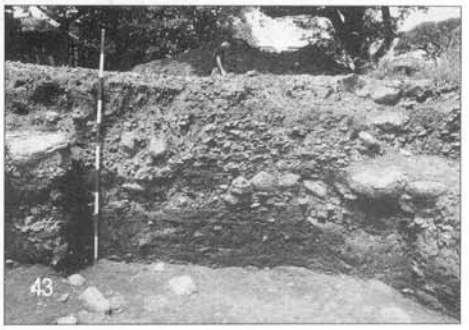
일제시대건물지와 도로가 들어섰던 부분이다. 발굴과정에서 이 Test pit 지점은 일제시대 원형콘크리트시설이 지하 3m 이상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는 조선 전·중·후기의 건물지가 중첩되어 조사되었다.

층위상황을 보면 크게 ① 점토층, ② 자갈층, ③ 소토층, ④ 적석매립층으로 나누어 진다. 점토층과 적석매립층은 건물지의 성토층이다. 자갈층은 다시 잔 자갈층과 굵은 자갈층으로 나누어지며, 잔 자갈층은 건물지외의 시설물(마당시설이나 도로)에, 굵은 자갈층은 건물지외의 유적의 전범위에 일정한 두께로 깔아 놓은 층이다. 소토층은 건물지나 부속시설물의 화재 혹은 인위적인 소토층으로 판단되는 층이다. 위 층위에서 3, 7, 12, 14, 18층은 모두 황갈색점토로 구성된 층으로 건물지의 성토와 관련된 층위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토위주의 성토는 2차성토로 건물지의 상면에 깐 층위로 여겨지며 이 층밑으로 자갈이나 크고 작은 자연석, 기와 등을 섞어 다진 1차매립토층(적석매립토층)이 이어진다. 이 층은 건물지를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다진 흔적이 뚜렷한 층이다. 테스트피트내 19층에서는 탐라시대의 적갈색심발형토기(곽지2식토기)편이 확인된다.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1층	0~20	흑갈색	현대 매립토층으로 자갈, 기와, 잡석이 포함된 층.
2층	18~42	흑갈색	자갈과 자잘한 잡석이 포함된 푸석푸석한 층.
3층	42~51	흑갈색	자잘한 자갈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점토층.
4층	51~62	흑갈색	점토층으로 자잘한 자갈과 기와가 다량 포함된 층.
5층	65~78	흑갈색	자갈이 다량 포함된 층으로 점토와 섞여 다져진 층.
7층	79~100	흑갈색	점토층으로 자갈과 목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층.
8층	83~88	흑갈색	목탄이 소량 포함된 점토층.
9층	88~97	황갈색	소토가 포함된 단단하게 다져진 점토층.
10층	100~105	황갈색	목탄이 다량 포함된 재층.
11층	103~112	흑갈색	점토층으로 목탄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재층.
12층	111~119	황갈색	소토가 포함된 물먹은 듯한 무른 점토층.
13층	117~125	흑갈색	잔 자갈층. 황갈색 점토에 다량의 자갈을 채워 단단하게 다진 층.
14층	127~133	흑갈색	황색의 점토가 포함된 점토층.
15층	131~135	적갈색	소토가 다량 포함된 점토층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층.
16층	142~149	흑갈색	기와, 잔 자갈이 소량 포함된 점토층.
17층	153~155	흑갈색	사질의 무른 점토층.
18층	149~160	흑갈색	벼가 혼입된 단단하게 다져진 점토층.
19층	165~173	암갈색	물먹은 듯한 무른 점토층.


41


42


43


44

사진 41. A구역 담장지 Test-pit(3) 원경
42. A구역 담장지 Test-pit(3) 단면층위
43.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pit(3) 단면층위
44.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pit(3) 단면층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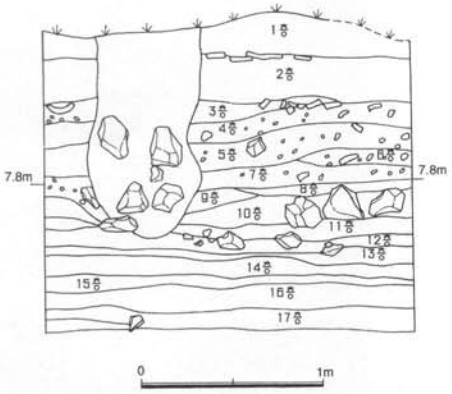


그림 9.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 Test pit 단면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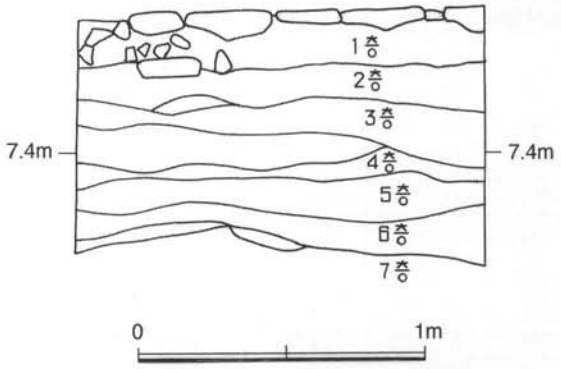


그림 10. C구역 담장지(2) 주변 Test pit 단면 층위

4) C구역 담장지(2) 주변 Test pit 단면 층위

제1층과 2층은 현대・일제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층이다. 3층에서 8층까지는 조선시대 중・후기와 관련된 유구층으로, 건물지와 보도, 薄石시설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토층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3층은 보도시설과 관련된 층, 6층은 건물지중앙에 자리한 마당시설과 관련된 수평자갈층, 8층은 조선중기 건물지와 관련된 토층으로 해석된다. 10층은 조선전기의 매립유구로 판단되는 층으로 앞서 기술한 연희각지의 남쪽 테스트피트내 하부 적석매립층과 동일한 성격의 층이다.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20	흑갈색	현대콘크리트편과 부식토가 혼합된 층.
1층	21~45		현대콘크리트층.
2층	46~158		현대건물지내부 매립토층. 자갈과 조선시대의 건물석재가 혼합된 층.
3층	159~175	흑갈색	점토층. 보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황색 점토를 다진 층. 일부 점토내부에서 목탄이 확인됨.
4층	176~192	갈 색	점토층. 점성이 매우 무름. 조선시대후기 건물지 내부 성토와 관련된 층.
5층	193~219	황갈색	단단한 점토층.
6층	220~235	흑 색	순수자갈층. 인위적으로 동일높이로 깔아 놓은 상태. 동편 마당에 깐 10cm 두께의 자갈층과 동일 높이임.
7층	236~254	흑 색	자갈층. 패각과 기와가 혼합되어 있는 층.
8층	255~275	황갈색	단단한 점토층. 소토가 다소 포함된 층.
9층	276~284	황 색	점성이 매우 무른 층.
10층	285~335	흑갈색	적석매립토층. 인위적으로 잡석을 매립한 층.





사진 45. C구역 연희각지남쪽 Test-pit(4)
46. C구역 연희각지 성토층 단면층위

5) B구역 원형우물지 주변 Test pit 토층단면

이 토층은 매립층 및 우물지와 건물지 성토층으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매립토층은 일제시대의 매립구덩이와 조선전기의 적석매립구덩이로 구분되는 3층, 7층이다. 3층은 일제시대 건물을 만들면서 잡석을 채워 기반공사를 하면서 형성된 층이고, 7층은 조선전기에 관아건물 및 시설물을 만들면서 낮은 지형에 적석하여 주변 대지

층 위	깊이(cm)	색 깔	층 위 내 용
표토층	0~200	흑갈색	잡석층. 일제시대 현대건물 등이 들어서면서 매립한 성토층.
1층	201~215	적갈색	자갈을 포함한 사질점토층.
2층	216~256	흑갈색	목탄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사질의 푸석푸석한 층.
3층	200~276	흑갈색	일제시대 매립구덩이.
4층	200~257	흑갈색	목탄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사질의 푸석푸석한 층.
5층	256~266	적갈색	목탄을 다량 함유한 사질 점토층.
6층	267~275	적갈색	단단하게 다져진 점토층.
7층	258~300	흑갈색	적석매립층과 무른 점토로 구성된 혼합토층.
8층	220~	황 색	단단하게 굳은 점토층.
9층	301~	황 색	생토암반층.





47. A구역 Test-pit
48. B구역 상부매립층

를 동일 높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층이다. 7층은 앞서 기술한 제1지점의 8층과 9층, 제5지점의 10층과 동일한 성격의 층으로 판단된다. 8층인 황색점토층은 우물지와 관련된 층으로, 'U'자형태를 그리며 내려간다. 이 층 밑은 황색생토암반층과 연결되는데 생토암반층을 파들어간 불규칙한 타원형의 구덩이가 북편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에서 탐라시대 곽지2식 적갈색 심발형토기와 반구형의 목을 가진 병편 등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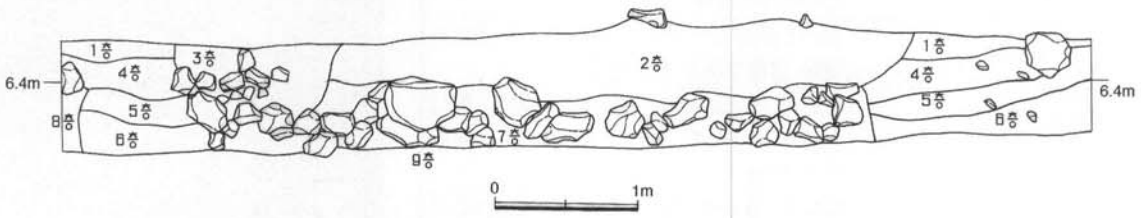


그림 11. 원형우물지 서편 단면 층위

제3절 건물지

1. 延曦閣址(東軒)

李衡祥의 『南宦博物』(1704년)에 의하면 '東軒'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규모는 10칸건물, 위치는 弘化閣 북쪽에 있다고 전한다. 李源祚의 「延曦閣記」에 의하면 14間으로 기재되어 있다.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에는 역시 '東軒'으로 표기되어 있다. 홍화각의 북쪽, 노비행랑과 내아를 가진 중심건물로 나타난다. 1885년 목사 홍규에 의해 마지막으로 重修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발굴에서 드러난 이 건물지는 목관아지 한 복판에 중심건물지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20도 틀어진 남향집이었다. 이는 『탐라순력도』의 연희각 관련 그림과 『탐라방영총람』의 관아배치도와도 일치한다.

전체 규모는 정면 30m, 측면 18m 이상되는 건물이다. 이를 推算해보면 면적은 540㎡(163평)이고 정면 5칸, 측면 3~4칸이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목관아지내의 건물 중 관덕정(87평), 홍화각(101평)보다 큰 건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탐라방영총람』에 등장하는 '簾席'과 '內歇'처럼 마당에 평평한 돌을 장방형으로 깐 부석시설과 배수로, 주변 담장, 차양시설, 판석형 기단석, 계단, 주변회랑지 등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는 관아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탐라순력도』와 『탐라방영총람』에 의하면 마당과 한단 높은 前庭을 갖고 있는 중심건물지로 판단되며, 여러가지 발굴사실로 근거해 보아 연희각 즉 上衙의 東軒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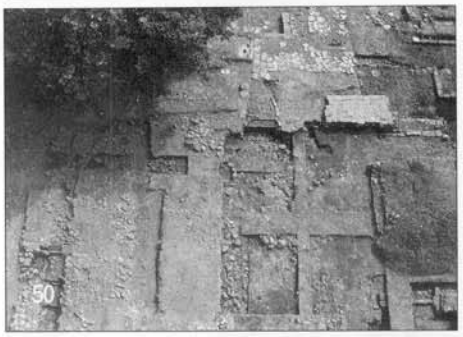
이 건물지는 1차 중심점에서 편서 35m지점에서 이 건물의 동편 기단석열이 지나간다. 건물지 방향은 N20°E이고 자리한 건물지 위치로 보아 동서장축의 장방형 건물로, 남향집이다.

내부의 층위는 건물지 남쪽 층위조사에서 겹겹이 다져 놓은 여러 퇴적·성토층을 확인하였다. 건물지 내부의 층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층은 흑갈색을 띠며, 자잘한 자갈과 기와편이 소량 포함된 부식토층으로 깊이가 42cm에 이른다. 2층은 황색계통이며 소토가 포함된 부드러운 점토층으로 깊이는 23~54cm에 이른다. 3층은 황갈색을 띠며 소토, 기와가 소량 포함된 점토층으로 깊이가 46~58cm에 이른다. 4층은 흑갈색을 띠는 점토층으로 사질계통의 점토와 잔자갈이 섞여 있는 푸석푸석한 점토층이다. 깊이는 40~68cm이다. 5층은 소토와 대형 목탄이 포함된 소토층으로 두께는 10~12cm가량되며, 깊이 72cm에 이른다. 6층은 깊이가 130cm에 이르며 두께는 30~35cm정도 된다. 소토가 섞인 점토층으로 입자가 곱다. 7층은 매립적석층으로 크고작은 괴석과 할석을 섞어 일정한 높이로 매립된 흔적이 확인된다. 흑갈색토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깊이는 150cm이상 된다.

이러한 7개의 층위는 크게 건물지 성토층과 적석매립토층으로 나누어진다.


49


50


51

사진 49. 연희각지 적석다짐층
50. 연희각지 상부 적석다짐층
51. 연희각지 중앙 방고래시설·적석다짐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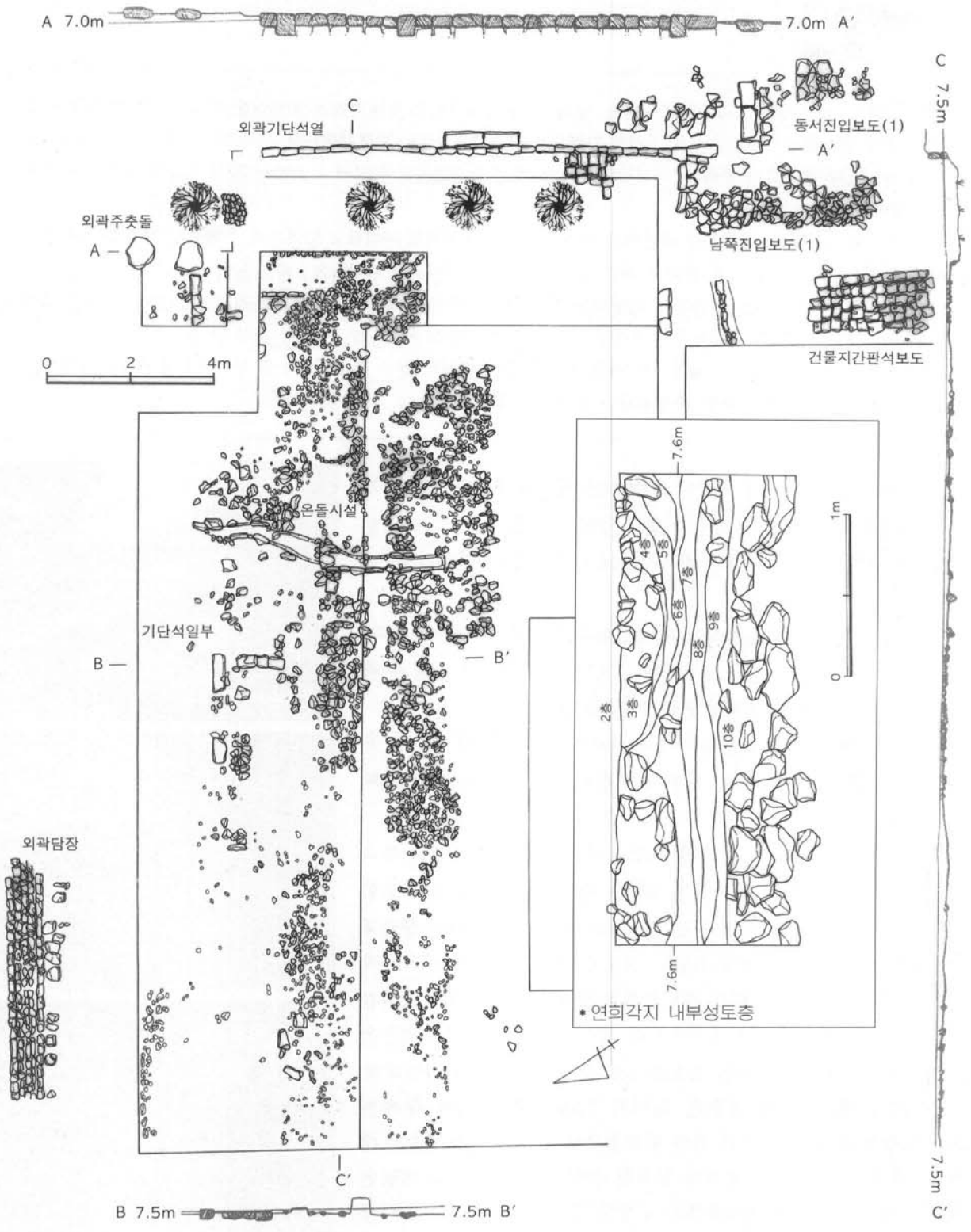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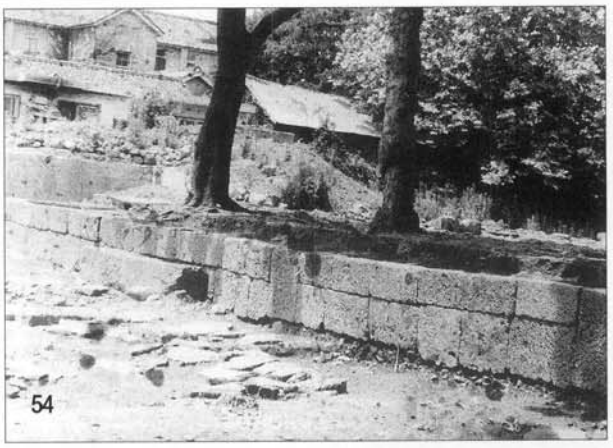

A 7.0m
7.0m A′
C
외곽기단석열
C
동서진입보도(1)
A′
외곽주춧돌
A
남쪽진입보도(1)
0 2 4m
건물지간판석보도
온돌시설
기단석일부
B
B′
외곽담장
7.6m
1m
0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2층
3층
10층
7.6m
* 연희각지 내부성토층
C′
B 7.5m
7.5m B′
C 7.5m
7.5m C′

그림 12. 연희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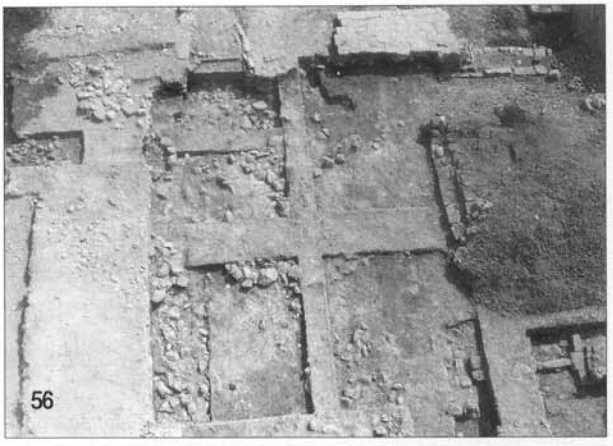






사진 52. 연희각지 전체 상태 53. 연희각지 동편 기단석열 · 부석시설 54. 연희각지 동편 기단석열 55. 연희각지 남쪽 기초다짐층 56. 연희각지 남쪽 유구 중복상태 57. 연희각지 중앙 Test-pit내 하부 적석다짐층 58. 연희각지 남쪽 출입구 부석시설

상층인 1층에서 5층까지는 성토층으로 해석된다. 6층 이하에서 나타나는 회백색 혹은 흑백의 소토층은 연희각건물의 신축전, 건물의 화재나 혹은 전시기의 건물지 성토층으로 판단되는데, 모든 층위가 수평층으로 나타난다. 하부의 적석매립층은 조선전기 건물지를 시설하면서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당보다 한 단 더 높게 건물지를 시설하기 위한 매립적석층으로 해석된다. 이 적석매립층에서 인화분청이 섞여 출토되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성토는 앞에서 기술한 건물지 내부층위 중 4층의 갈색 점토층이 1차성토층으로 여겨지며, 이 성토층 위로 적석층이 나타난다. 이 적석층은 크게 두 개의 층으로, 하층은 지름 5cm미만의 자갈층, 상층은 지름 10cm이상의 굵은 할석과 괴석 등이 혼합된 층으로 이루어졌다.

건물지와 관련된 기단석열은 건물지의 북편과 동편에서 확인되었다. 동편에서 확인된 기단석열은 장방형의 판석을 이용하여 2단으로 축조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기단석열은 축조 당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단석열의 축조방식을 보면, 양쪽 끝과 중앙에 면석을 세워 이중으로 맞물려 석열자체의 이동을 막고 외관상 안정감을 주도록 축조되었다. 석열의 바닥 높이는 동편의 박석유구와 동일한 높이로 축조되었고 마당과 석열 상면의 높낮이 차는 0.6m이다. 따라서 마당쪽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건물지를 높이려고 하였다. 기단석열의 북쪽은 높이 0.56m의 면석을 세워 마감하면서 직각으로 길이 1.2m, 폭 1.0m의 전돌을 맞추어 깐 보도가 일부 확인되었다. 직각으로 연결되는 북편의 기단석열은 파괴되었다. 동쪽 기단석열의 남쪽 끝은 직각으로 마감했다. 남아있는 길이는 1.8m이다. 북편 기단석열은 거의 파괴되었고 현재 판석형 기단석이 같은 방향으로 2매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내부의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대에 들어선 건물지로 인해 모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크고 작은 냇돌과 현무암 제 잡석을 채워 원형으로 돌린 적심석이 건물지 남동쪽에서 확인된다. 건물지 중앙의 적석중 적심석과 관련된 유구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건물지 내부에서는 온돌시설만이 확인되었다. 이 온돌시설은 앞서 기술한 건물지 내부 성토층인 갈색 점토층에 시설되었으며 건물지 중앙에 위치한다. 온돌시설은 화구와 방고래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온돌은 건물의 남북방향과 동일하며 북편에서 불을 지피도록 되어있다. 북편에서 중앙까지는 'S'자형으로 축조되었는데 석재는 냇돌과 괴석이 사용되었다. 방고래의 중앙부분은 일제시대 건물지의 하부 기초시설에 의해 파괴되어 있다. 화구는 잘 다듬은 판석을


59


60


61


62


63

사진 59. 연희각지 북쪽 바닥전시설(1) 60. 북쪽 바닥전시설(2) 61. 동쪽 마당시설 원경 62. 동쪽 마당시설 전경 63. 동쪽 마당 부석시설 축조상태

세워 축조되었는데 길이 3.6m 폭 0.4m이다. 바닥은 갈색점토층이고 두께 3~5cm가량의 재가 깔려 있었다. 방고래시설은 1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온돌의 북서편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길이 0.8m 폭 0.8m이고 석재는 판석이다. 바닥과 벽석에는 불먹은 흔적이 확인되었다.

연희각 건물지와 관련된 외부시설로는 遮陽施設(『耽羅巡歷圖』의 '濟州養老'를 보면 경노잔치 장면에서 동헌 동편에 드리워진 시설이 보인다), 보도시설, 담장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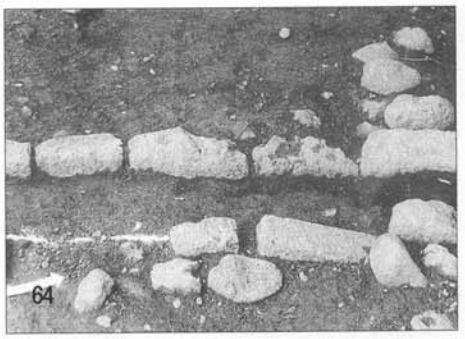
차양시설은 건물지 동북편의 바닥전을 깐 보도와 잇대어 축조되어 있다. 기둥을 올렸던 초석이 1.6m 간격으로 나란히 남북방향으로 놓여있다.

보도시설은 건물지의 남쪽과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의 보도시설은 남향건물지의 입구 보도이고, 북편의 보도는 건물지의 동서를 오가는 통로 보도로 판단된다.

남쪽 보도시설은 동남편 기단석열 모서리와 직각으로 길이 5.1m, 폭 2.6m의 규모로 확인되는데, 보도의 끝부분은 다시 동서로 이어지는 마당 보도와 연결된다. 현재 전자와 후자의 보도시설 연결 부위는 교란이 심하여 접합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계단시설로 두 개의 보도를 연결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건물지 동편 기단석열이 남쪽 끝 모서리에서 1.6m가량 연장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연희각 건물이 자리하였던 지점은 전체 평면 모양으로 볼 때 추정연희각 건물지 동편 기단석열을 축으로 동, 서 건물지의 높낮이 차가 0.67m가량 된다.

塼築보도는 건물지 북편 모서리가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확인된 도로는 길이 1.2m 폭 1.0m이다. 축조방식은 방형의 바닥전 6매를 1열로 하여 동·서로 배치하였다. 현재 노출된 모양은 방형으로 나타난다. 이 보도 바로 위에서 '監營' 명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마당시설물은 연희각 건물의 동편기단석 중앙에 위치한 1단의 계단석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장방형의 박석형건물 2동이 위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장방형 박석시설의 간격은 2.4m이고 일제시대와 현대의 화장실 배수시설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마당북쪽 장방형 부석유구는 교란된 것으로 파악된다. 판석형 석재로 길이 7.4m, 남북 3.5m 규모로 시설한 내부에 점판암계의 얇은 자연석을 깔아놓았다. 동서로 이어지는 판석열은 계단이 놓인 방향과 일치하며 석열이 치석된 면이 북편인 점으로 보아 계단과 연결되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부석시설의 남쪽에 일부 남아 있는 석열로 알 수 있다. 이 장방형 박석으로 이루어진 부석유구는 교란이 심하여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상으로는 동헌마당 시설물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 시설물 중앙 북편에 폭


64


65


66


67


68

사진 64. 동쪽 마당 부석시설 관련 배수시설 65. 남쪽 마당내 배수시설 66. 남쪽 배수시설과 와적담장지 67. 남쪽 마당과 배수시설 68. 남쪽 마당 배수시설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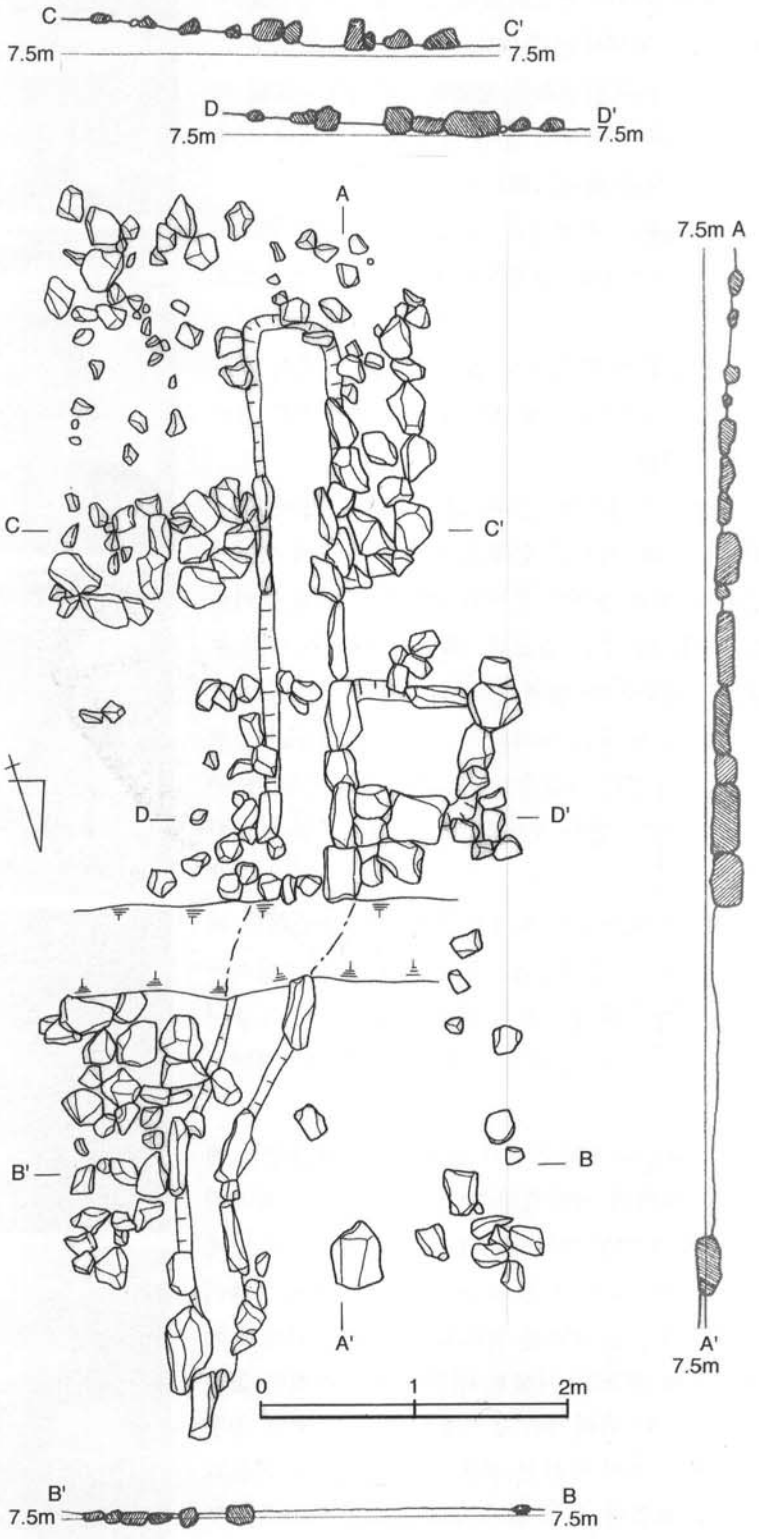


그림 13. 연희각지 방고래 시설



그림 14. 연희각지 마당 부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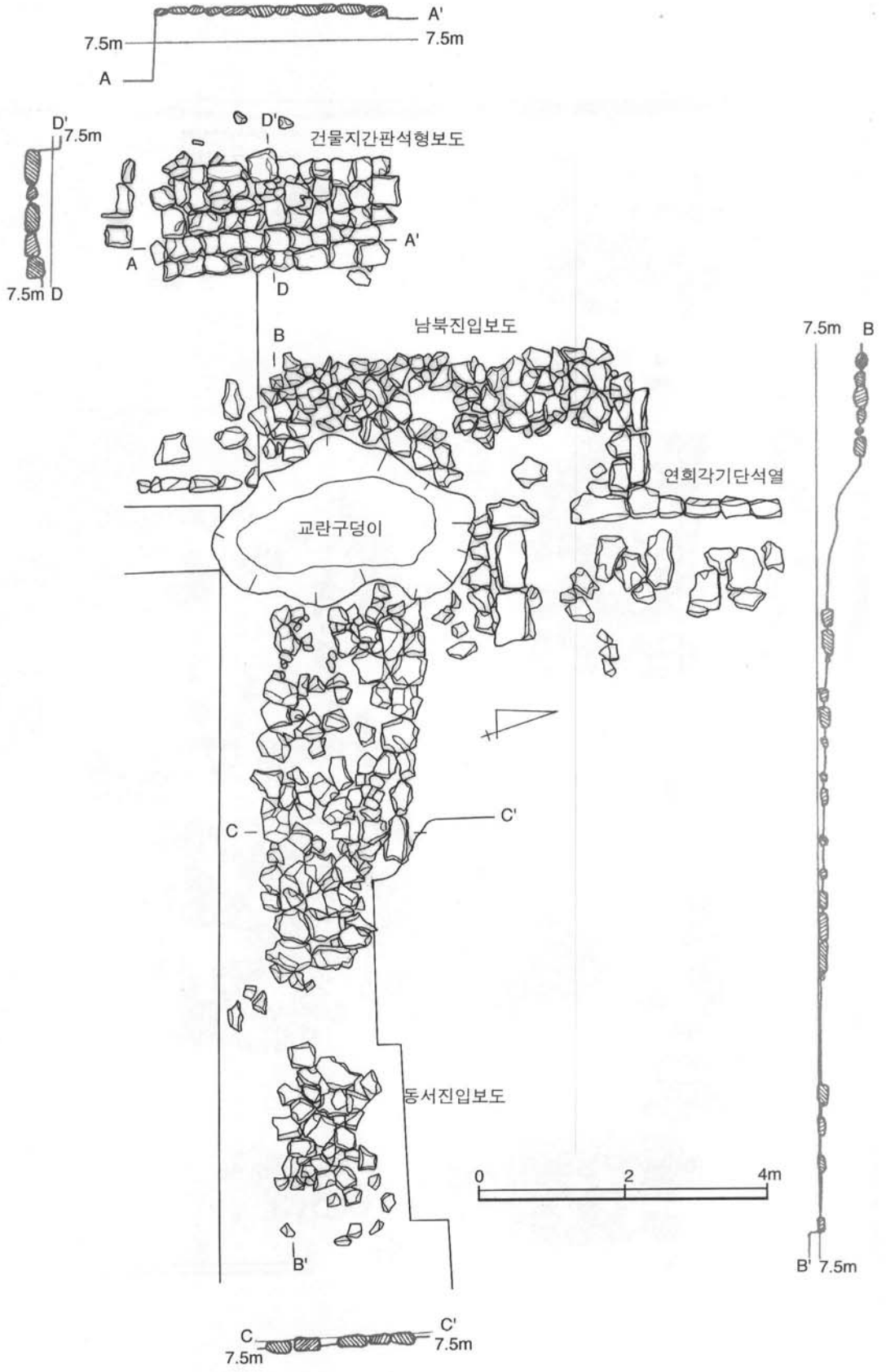


그림 15. 연희각지 진입 박석시설

0.5m, 길이 3.8m의 온돌 시설이 확인되며 온돌의 북쪽 끝에서 다량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이 온돌은 박석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당남쪽 장방형 薄石시설은 북편 박석유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되었다. 전자의 유구와 대칭으로 시설되었다. 박석시설의 서쪽 부분은 일제시대 화장실, 중앙부분은 현대의 화장실 배수로가 박석시설 중앙테두리를 돌린 장방형 석열을 거의 파괴시킨 상태이다. 북편 박석유구와 마찬가지로 이 유구도 동편에 온돌시설이 일부 남아 있다. 온돌시설은 내대문 진입로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마당중앙 부석유구는 북편 부석유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2.7m, 폭 2.1m가 남아 있다. 이 유구는 내대문 진입로의 보도 박석시설과 동일한 석재로, 현무암제 할석과 점판암제 할석으로 이루어졌다. 내대문 진입로와 관련되어 해석되나 내대문진입로의 북쪽 끝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남쪽 장방형 박석유구와 관련된 온돌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아직 유구의 성격을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외에 북편 장방형 부석유구와 관련된 온돌시설 부근에 마당을 정지할 때 낮은 부분을 매립하여 같은 높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구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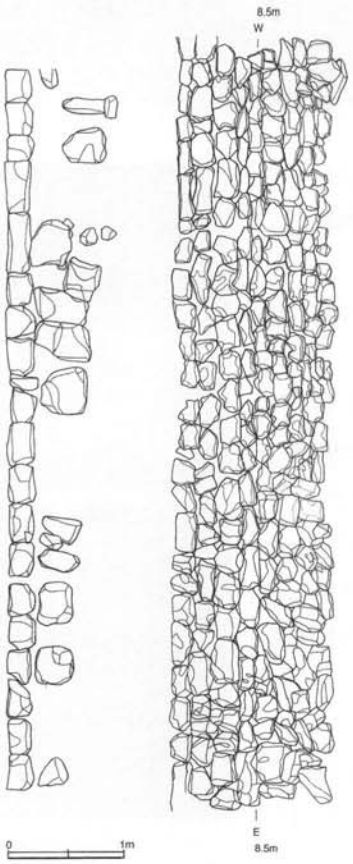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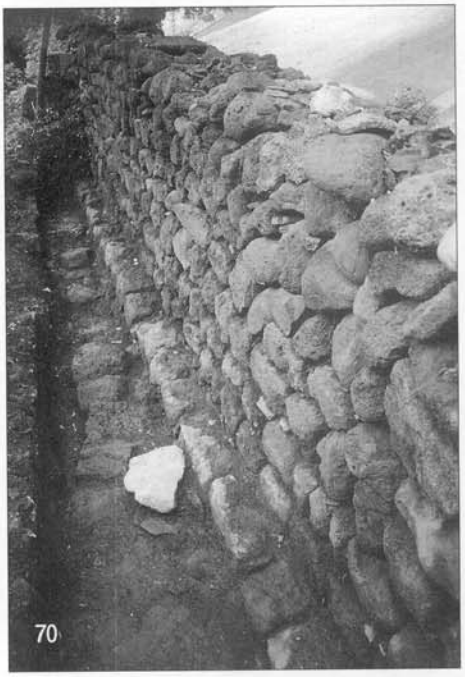


그림 16. 연희각지 북편 외곽담장


69


70


71


72

사진 69. 연희각지 외곽담장지(남에서) 70. 외곽담장과 하단 기초석열(측면에서) 71. 하층 와적담장지와 적석층 72. 서편 담장지

2. 東軒 內衙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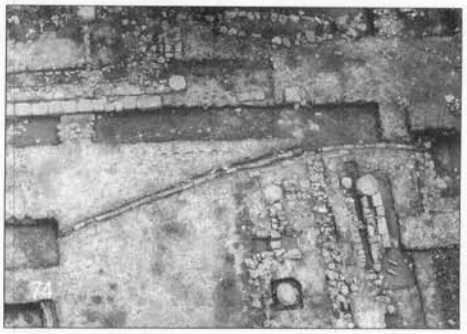
『탐라방영총람』에는 연희각 서편에 자리하며 연희각과 직각으로 마주하는 것으로 표기되었다. 발굴에서 확인된 이 건물지는 연희각지 남서편에 직각으로 붙여서 시설되어 있었고 정면 5 칸 이상, 측면 1칸의 건물이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13m이상, 측면 4.8m로 63.7㎡(19.3평)이다. 건물지 내부의 초석은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초석은 기단석열과 맞물리게 축조되어 있어 회랑식 건물임을 짐작케한다. 초간 간격은 3.2m에서 2.8m에 이른다. 건물지의 내부시설로는 장방형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외부시설은 연희각과 마주한 곳에 자갈을 깐 마당과 기와배수로가 확인되었다.


73

건물지의 성토층은 잡석으로 면을 다진 후, 황갈색 점토로 성토 다짐을 하였다. 황갈색 점토의 두께는 10~15㎝로 동편마당에 잔자갈을 깐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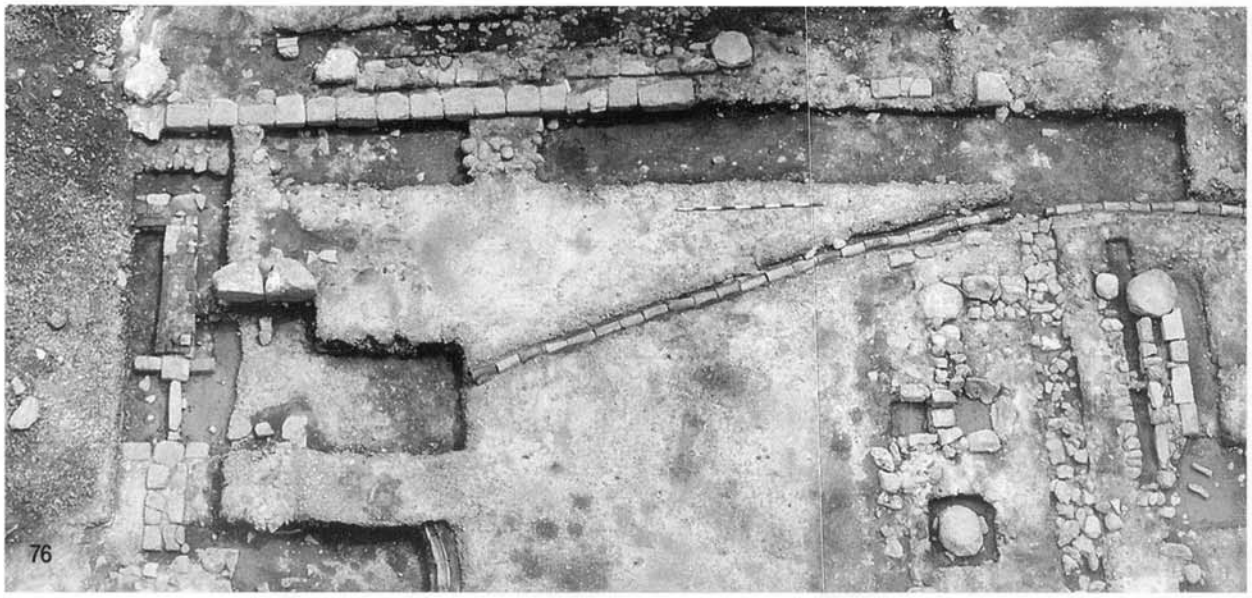
현재 기단석열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정면칸의 초석열 중 서쪽 1번 초석 부분과 5번 초석 부분이다. 1번 초석 부분의 기단석열은 원상에서 다소 이동된 듯하며 현무암제 판석으로 길이 1.8m가 남아 있다. 5번 부분에 남아 있는 초석은 현무암제 판석으로 이 또한 약간 원상에서 이탈되어 있다. 동편 기단석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석열이 드문드문 남아 있다. 원래는 초석과 맞물려 동, 서로 판석을 사용하여 정연하게 축조되었으리라 추정되나 일제시대의 건물과 현대 경찰서의 식당, 송신탑을 만들면서 기단석열의 석재를 재사용하므로써 이와 같이 파손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상층매립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지 내부의 초석은 총 6매가 확인되었다. 초석은 기단석열과 맞물리게 축조되어 있어 회랑식 건물임을 짐작케 한다. 초석은 현무암제로, 1차 치석후 주변을 다듬어 만든 원형초석이 대부분이며 서쪽의 제3칸과 제5칸에 위치한 초석만 방형초석이다. 초석의 하부는


74


75

사진 73. 내아건물지(위에서)
74. 내아 마당 주변유구 노출상태
75. 내아건물지 발굴광경



원형으로 적심시설을 만든 후에 초석을 수평으로 올려 놓았음을 확인하였다. 정면칸의 초석간 거리는 3.0m이고 측면의 각 칸은 첫째칸이 3.2m, 둘째칸이 3.2m 세째칸이 2.8m 네째칸이 2.8m이다.

건물지의 내부시설로는 장방형 방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은 건물지의 동편 기단석열 제1칸과 측면 제1칸의 양옆으로 시설되었다. 동편기단석열 1칸에서 확인된 방고래는 장방형꼴로 기단석열을 경계로 바깥쪽에서 불을 땔 수 있도록 화구를 두었고, 건물지 내부로 화구와 연결되는 방형의 방고래 시설을 두었다. 이 유구에 이용된 석재는 현무암재 판석이다. 화구부분은 석재를 세워 불을 용이하게 지필 수 있도록 하였고 방고래 부분은 넙적한 판석을 눕혀서 경사지게 하여 火氣가 잘 모여지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유구를 방 내부에서 찾을 수 있으나 후대의 교란으로 성격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 방고래시설의 반대편에서도 화구일부로 여겨지는 세워진 판석 2매가 확인된다. 이 건물지의 외부시설은 자갈을 깐 마당과 기와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배수시설은 연회각지와 노비행랑, 그리고 이 건물지의 가운데에 자리한 마당에 시설된 기와시설이다. 수키와 2매를 맞물려 서로 연결하여 만든 시설이다. 크게 보아 연회각에서 나오는 배수로와 중앙에서 서편경사면으로 이어지는 기와열이 확인되는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경사지게 시설되어 있다. 현존 길이는 12.5m이다. 이러한 형태의 배수시설은 조선전기의 담장지(5) 주변에서도 확인되어 조선전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76. 내아건물지 주변시설
77. 내아건물지내 아궁이시설
78. 내아건물지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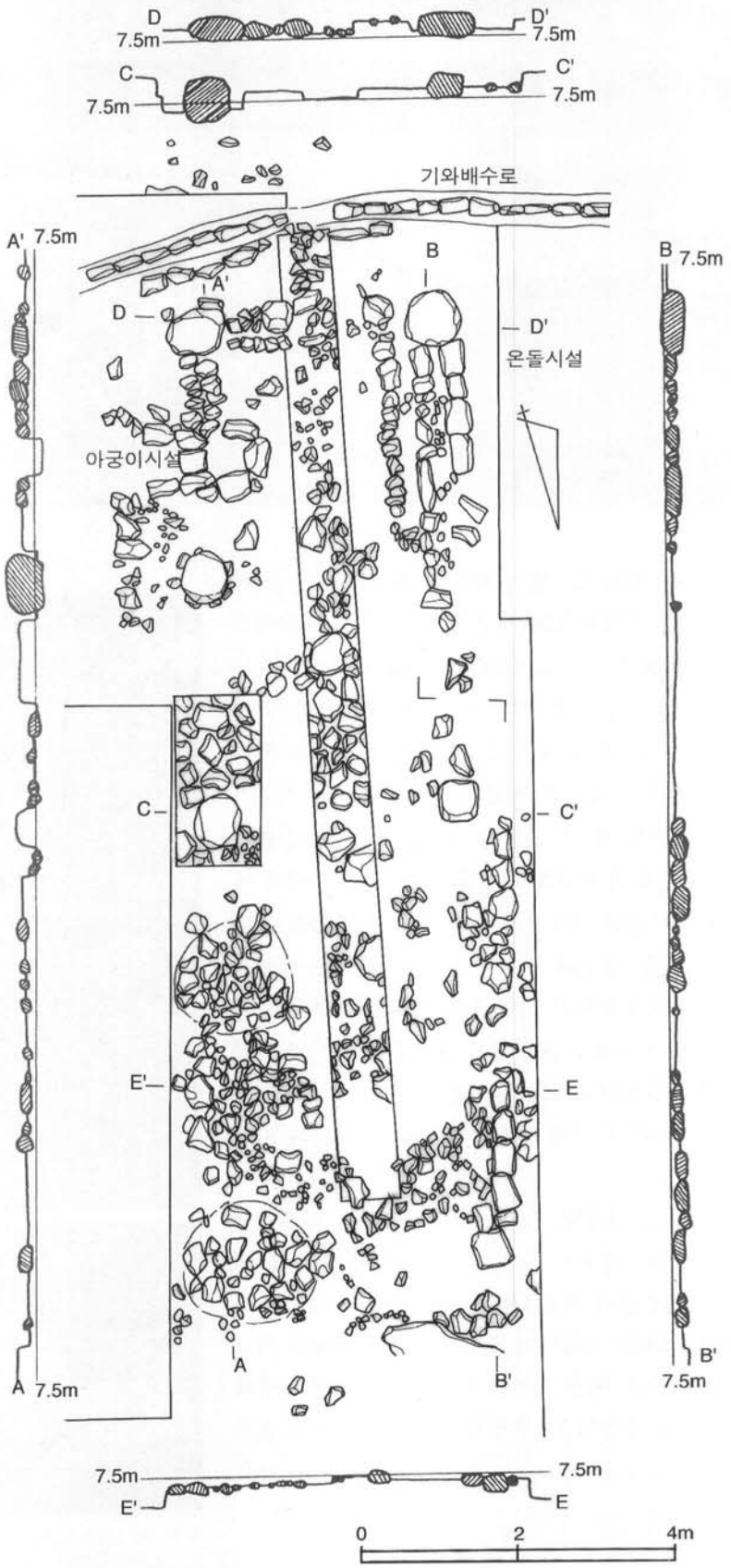

D
D'
7.5m
7.5m
C
C'
7.5m
7.5m
기와배수로
A' 7.5m
B
B 7.5m
A'
D
D'
온돌시설
아궁이시설
C
C'
E'
E
A
B'
A 7.5m
B'
7.5m
7.5m
7.5m
E'
E
0
2
4m

그림 17. 동헌 내아지

3. 奴婢行廊址

『탐라방영총람』에는 내아와 직각으로 마주하여 앉은 동서장축의 장방형 남향 건물로 나타난다. 발굴된 건물지는 위치와 성토층의 유물시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앞서 내아 남쪽끝과 직각으로 교차하여 동-서로 놓여 있었다. 건물지 규모는 동서 11.0m이상, 남북 4.0m정도로 55㎡(16평) 이상 된다. 초간 간격 3.0m로 정면 4칸 이상, 측면 1칸인 회랑식건물이다. 초석은 5기가 확인되었고, 건물지 내부시설로는 방고래시설과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내부는 자갈층을 다진 위로 10~15cm의 황갈색 점토를 성토다짐하였다. 건물지내부 test-pit조사 결과 이 곳의 층위는 대략 다섯 개의 층위로 확인되었다. 1층은 현대 및 일제시설 건물지 층으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층이고, 2층은 황갈색층으로 건물지 성토층이며, 3층은 소토 및 작은 자갈과 기와가 섞인 잡석으로 일차 건물지를 만들면서 다진 중심성토층으로 판단된다. 4층은 백자편을 포함하는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층이다. 5층은 대형할석과 괴석으로 이루어진 매립층으로 분청사기가 포함되어 있다. 5층의 깊이는 108~145c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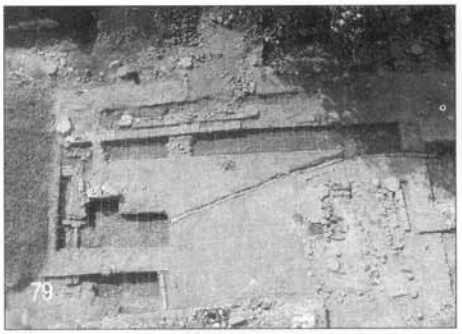
층위를 분석해 보면, 조선전기에 이 부분에 적석하여 단을 만든 다음에 건물지를 시설했고 그 후 건물이 폐기된 후 다시 조선후기에 건물지를 신축했음을 알 수 있다. 위 층위중에 2층과 3층이 건물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지의 기단은 북편 기단석 일부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기단의 석재는 현무암제 판석으로 밑부분을 정면하여 상면을 고르게 만들었다. 축조방식은 앞서의 내아, 후술할 노비행랑동편 회랑지와 동일하다. 건물지의 동편은 일제시대 지하실이 들어서면서 파괴되었고 건물지의 서편은 경찰서건물이 들어서면서 파괴되었다.

초석은 총 5기가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북쪽기단석열 부분에 동, 서방향으로 3기가 놓여 있고 남쪽으로 2기가 놓여 있다. 초석간의 간격은 정면 2.9m, 측면 2.6m이다. 초석과 북편 기단석열과의 간격은 0.8m이다. 초석은 현무암제 판석이고 형태는 불규칙한 원형 및 방형이다. 하부에는 초석테두리를 돌아가며 적심석이 깔려있다.

건물지 내부시설로는 방고래시설과 방구조를 알 수 있는 초석간의 기초석열이 확인된다.

방고래시설은 건물지의 남쪽 측면 2, 3번 초석사이에 위치해 있다. 기단석열을 경계로 바깥쪽에서 불을 땔 수 있도록 화구가 놓여 있다. 사용된 석재는 현무암제 할석이며 장방형이다. 2번 초석 근처의 방고래시설은 방형으로 허술하게 만들어졌고 트인 방향이 남쪽으로 되어 있어 불을 지핀 방향은 남쪽임을 알 수 있다. 내부는 모두 불먹은 흔적이 있다. 바닥은 전이 깔려 있고 바닥에 쌓인 재층의 두께는 10cm이다.


79


80


81


82

사진 79. 노비행랑건물지와 주변유구 80. 노비행랑(위에서) 81. 노비행랑내 부엌공간
82. 노비행랑 아궁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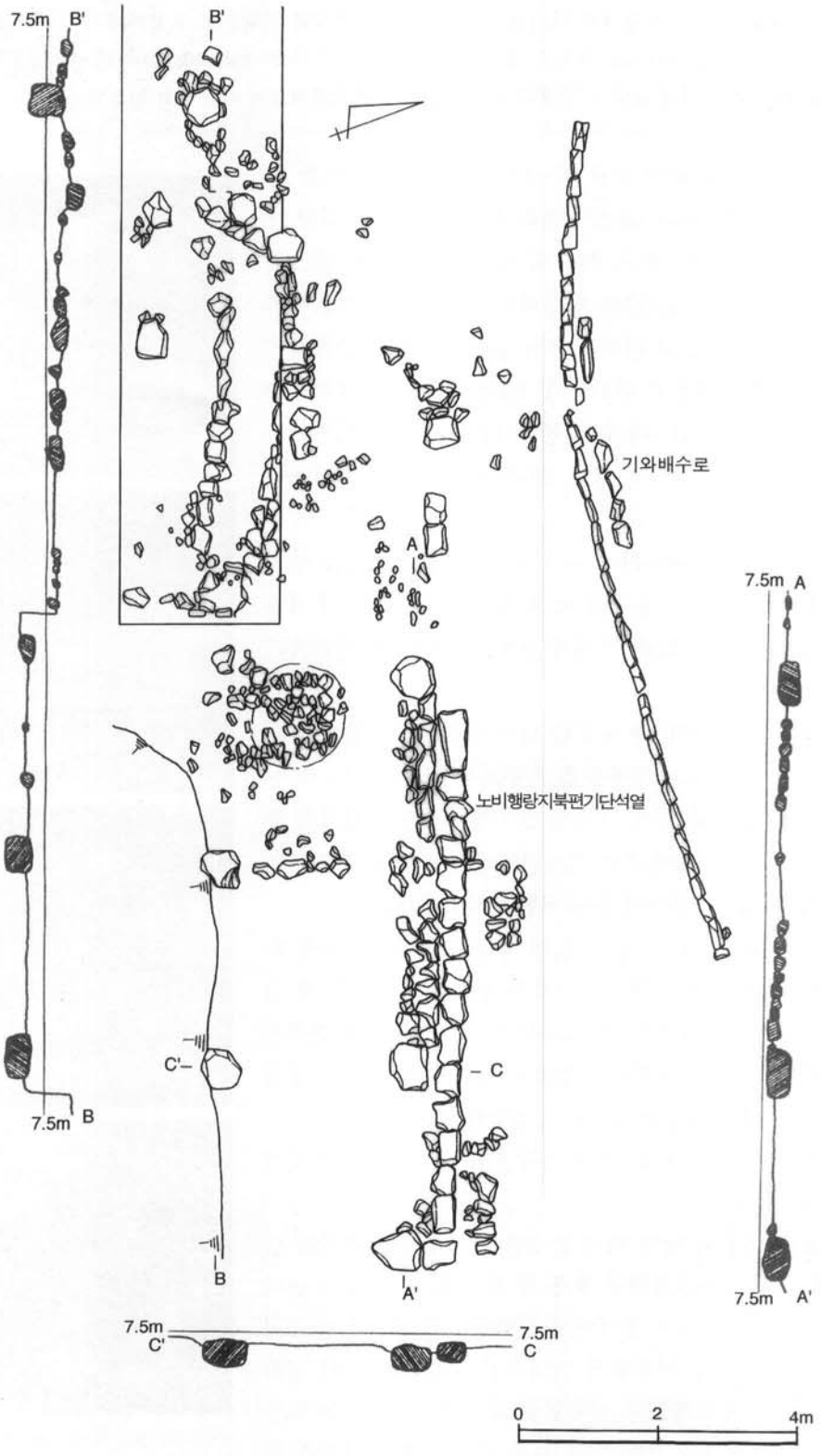

7.5m B'
B'
기와배수로
A
7.5m A
노비행랑지북편기단석열
C'
C
7.5m B
B
A'
7.5m A'
7.5m
C'
7.5m
C
0
2
4m

그림 18. 노비행랑지

4. 奴婢行廊址 東便 回廊址

『耽羅巡歷圖』(1703)에는 동헌 앞에 동서장축의 남향 건물로 보이고 있어 60년 후인 『耽羅防營總覽』에 등장하는 노비행랑과 연결된 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발굴된 건물지는 회랑 성격의 남향 건물지로 판단되며 정면 3칸, 측면 1칸 이상 되며, 10평 정도의 크기이나 후대에 들어선 경찰서 지하건물로 인해 파괴된 범위가 15평 이상된다. 내부초석은 건물지의 맨 동편에 좌우 2기가 남아 있다. 초석간의 간격은 3.7m이다.

이 건물지는 노비행랑지과 같은 방향으로 시설된 회랑성격의 건물지로 판단되며 정면 1칸, 측면 3칸 이상의 건물로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이 시설된 건물지이다.

건물지 내부의 층위는 대략 3개의 층위로 나누어 진다. 1층은 황갈색 점토층, 2층은 자갈층, 3층은 점토층으로 이루어졌다. 2층은 건물지 기초성토층에 해당하고 1층은 두께가 10~20cm정도인 주성토층이다. 주 성토층은 황색점토로 소토와 작은 기와편 등이 함께 섞여 있는 층이다. 1층에서 확인되는 도자기류는 백자접시편과 백자항아리편 위주이다. 이 건물지 하층에서 분청사기를 사용한 시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의 바닥은 전을 깔아놓았고 그 위로 마루판자가 놓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건물지 기단은 건물지의 북편과 남쪽 모서리 부분에 일부가 남아 있다. 북쪽 기단석열의 잔존길이는 4.8m이고 남쪽 기단석열의 잔존길이는 2.6m이다. 북편 기단석열은 자갈층 위에 점토를 다져 만들어졌는데 기단석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작은 돌을 기단석 밑으로 고여 놓았다. 동편의 남과 북의 기단석열은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북편 기단석열은 0.5m 가량 밖으로 나와 있다.

내부초석은 건물지의 맨 동편에 좌우 2기가 남아 있다. 초석간의 간격은 3.7m이다. 북쪽의 대형 초석에는 기둥이 놓였던 홈과 대문 여닫이 흔적이 남아 있어, 문지도리로 여겨진다. 여닫이 부분의 홈을 자세히 관찰하면, 여닫이 방향이 휘어져 돌아가기 때문에 동쪽으로 입구를 만든 문임을 알 수 있다.


83


84


85


86

사진 83. 연희각지 동편유구 노출상태 84.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85.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세부 86.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초석·바닥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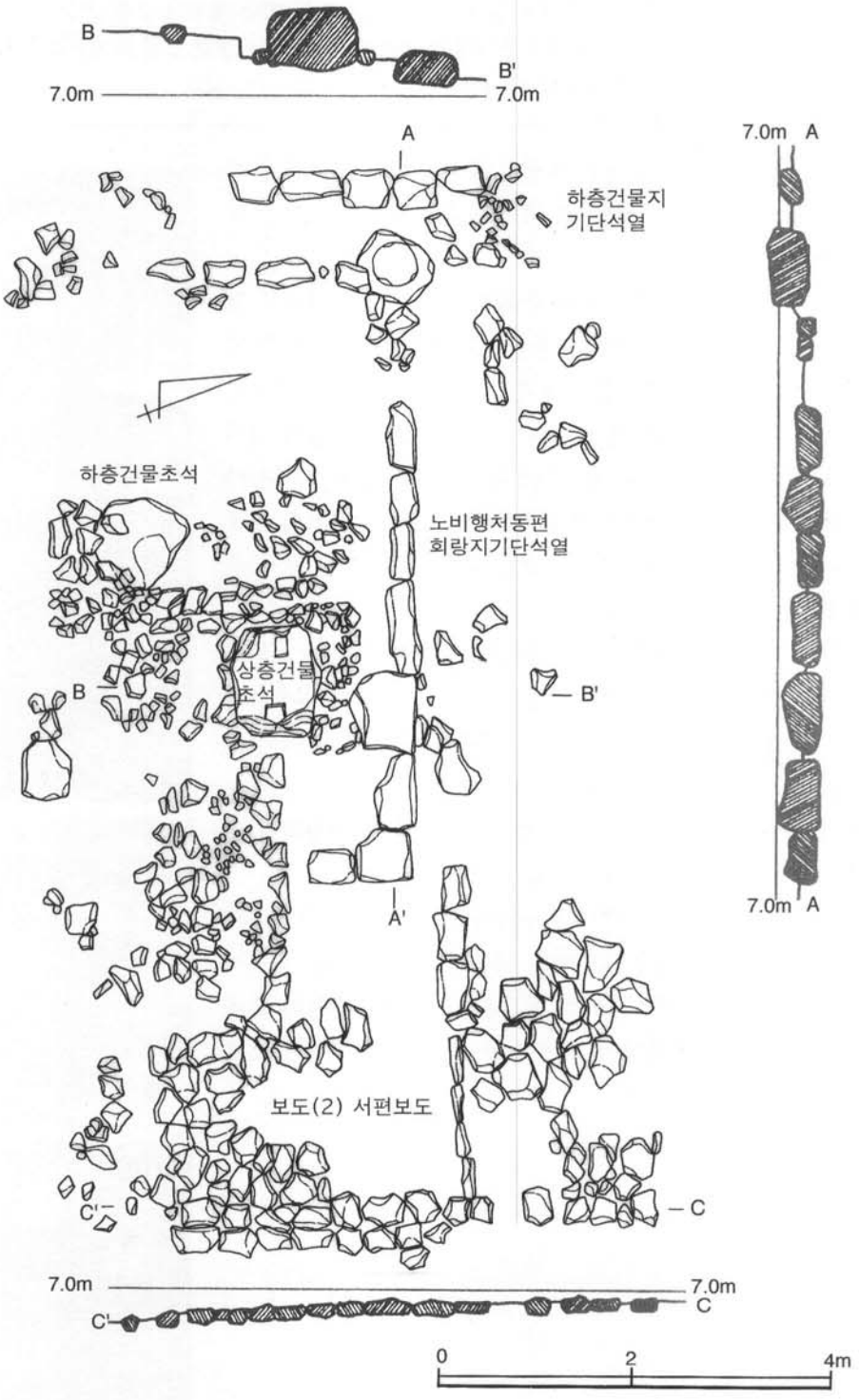


그림 19.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5. 弘化閣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는 안무사의 營이었으나 절제사의 營廳이 되었다고 한다. 『知瀛錄』(1696년)에는 인조 27년(1649)에 중창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南宦博物』(1704년)에는 9칸으로 나오며, 상아의 남쪽으로 기재되어 있고 『탐라순력도』의 "濟州殿最' 그림에는 애매헌의 서편에 자리한다. 『탐라방영총람』에는 동헌 남쪽 노비행랑의 남쪽에 자리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濟州邑誌』(正祖年間)에는 耽羅古閣으로 나온다.

이 건물지는 예고지 동편, 노비행랑지와 그 동편 회랑지의 남쪽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노출된 건물은 정면 21m이고 측면 16m(330㎡, 101평)인 장방형 남향 건물지이다. 내부시설로는 동북쪽에서 확인되는 기단적심석과 북에서 남으로 들어오는 고래시설 일부가 확인된다. 한편 외부시설로는 남쪽에서 건물지 정면으로 들어오는 'ㄷ' 자 형태의 진입시설과 부석된 마당시설이 있다. 각종 문헌에도 등장하듯 여러차례 증·개축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 건물지는 예고지 동편, 노비행랑지와 그 동편회랑지의 남쪽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2차 발굴시 (주)남부토건 부지내에 있었으나 4차 발굴시 전면 노출되었다.

노출된 건물은 동-서 21m이고 남-북 16m인 장방형 건물이다. 건평으로는 336.0㎡이다. 동편의 기단석열은 일단 기단석열로 높이 0.29m, 길이 7.0m이며, 서편의 기단석열은 높이 0.5m, 길이 8.2m이다.

건물지는 동서 장축의 남향건물일 것으로 여겨진다. 기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져넣은 적석이 기단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기단은 2중기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있는 하부기단은 남쪽면을 가지런하게 맞추고 상면을 다듬은 점에서 보아 결실된 상부기단도 잘다듬은 판석형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희각과 내아가 자리한 곳에서 확인된 2중기단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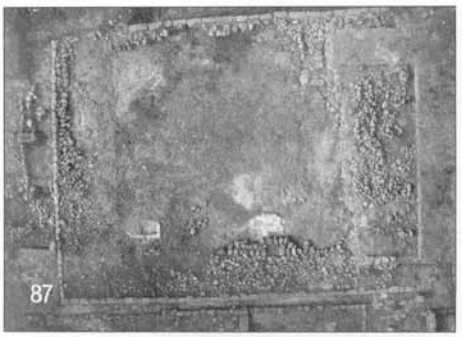
기단은 조선중기 이전의 자갈층을 파고 들어가서 시설되었다. 현재 동쪽끝부분의 기단은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북쪽기단에 사용된 석재는 다른 기단석보다 대형이며 세워서 축조하였다.

내부는 적석부와 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멘트건물을 시설할 당시에 파괴되었고, 그 하층에서 적석과 황색점토가 넓게 확인될 뿐이다.

건물지 내부 초석이나 적심자리는 확인되지 않으며, 건물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중앙부에는 근대 건물이 시설되면서 파고들어간 시멘트 바닥이 남아 있다.

내부의 적석다짐은 기단석열과 잇대어 안쪽으로 적석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적석부는 모두 천석으로 남동쪽기단, 서쪽, 북쪽기단 내부 일부에서 확인된다. 원래는 건물지 전면에 깔려있었던 것 같다. 천석이 매립된 내부에서 기와, 백자, 분청사기 편 등이 같이 섞여서 매립되었으며, 고내리식토기편 등도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동북쪽에서 확인되는 기단적심석과 북에서 남으로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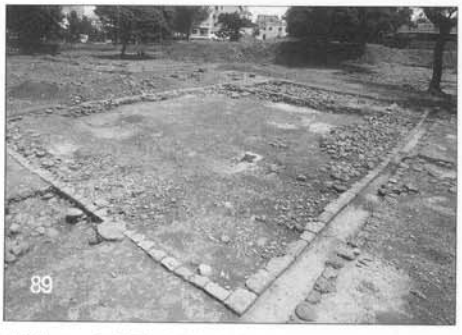

89

사진 87. 홍화각지(위에서)
88. 홍화각지 전경(위에서)
89. 홍화각지 전경(북서에서)

들어오는 고래시설일부가 있다. 한편 외부시설로는 남쪽에서 건물지 정면으로 들어오는 'ㄷ' 자형태의 진입시설과 부석된 마당시설이 있다.

대형의 판석상 석재 일부를 남북방향으로 깔아서 상부에서 내려받는 하중을 견디도록 하였다. 'ㄷ' 자형 진입시설은 홍화각지 남쪽기단석에서 약 70~80㎝정도까지 시설되었으며 현재 하부기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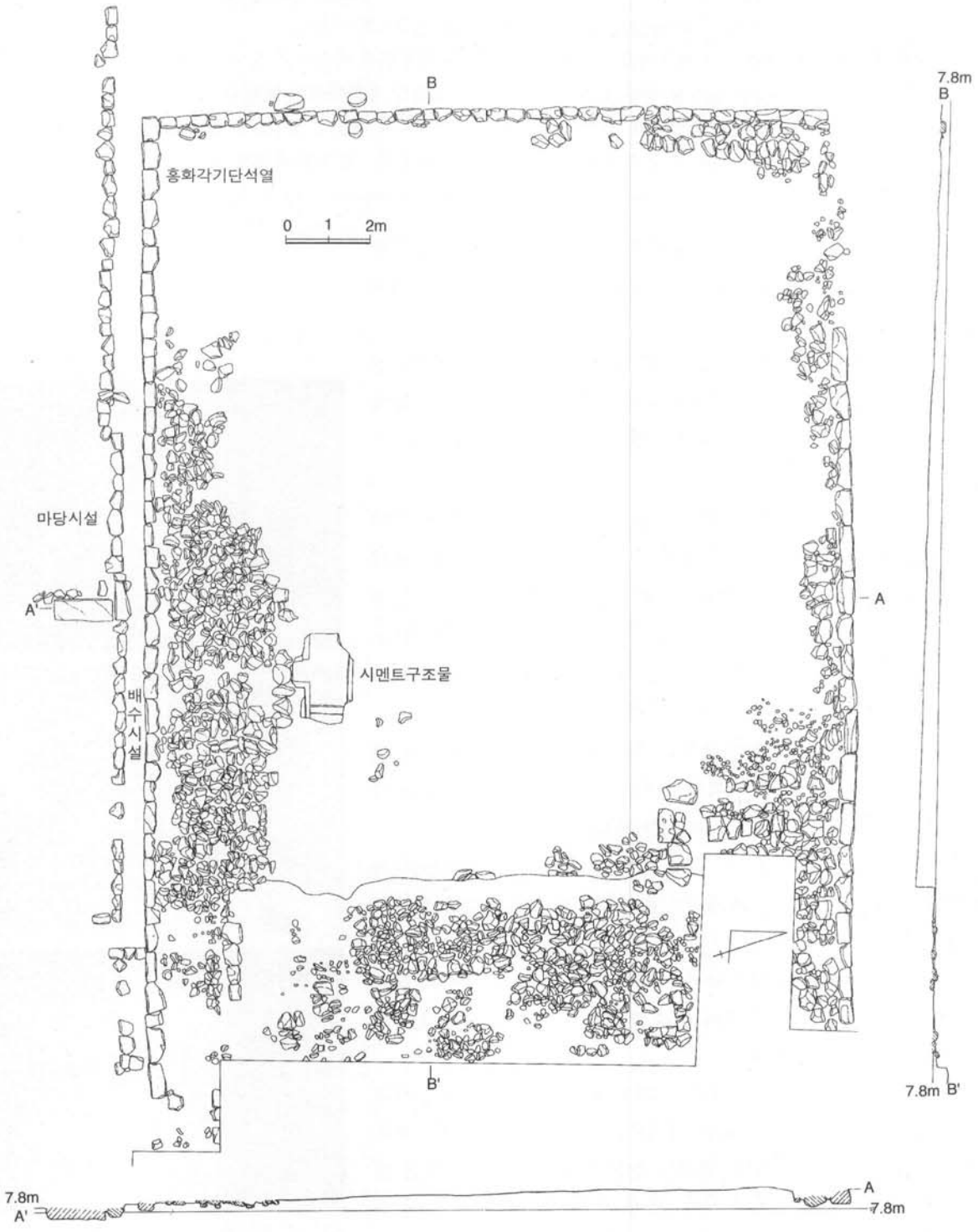


그림 20. 홍화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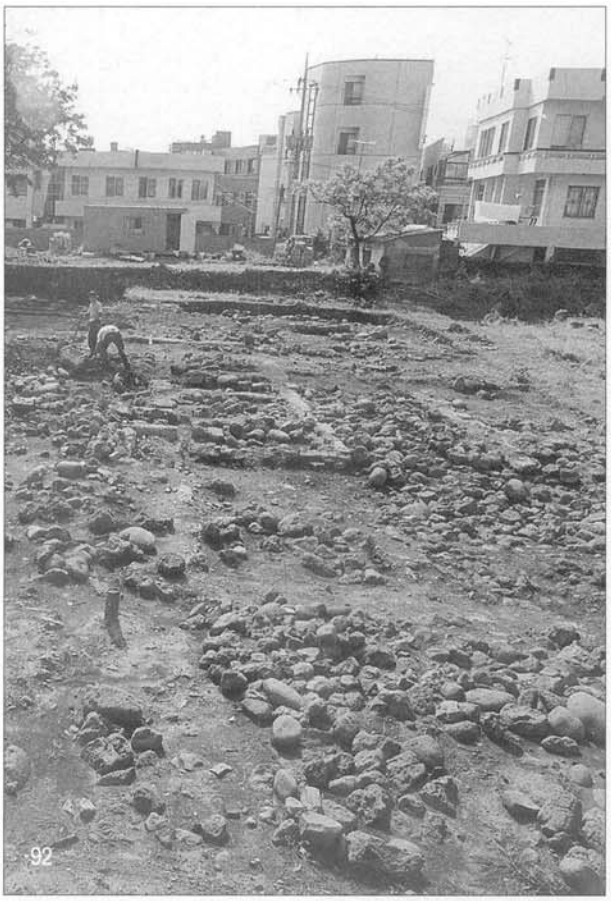












사진 90. 홍화각지 북편 기단석열 발굴전 상태 91. 홍화각지 상부 적석층 노출상태 92. 홍화각지 내부 교란층(현대 시멘트다짐) 93. 홍화각지 상부 한말건물지(서에서) 94. 홍화각지 전경(남서에서) 95. 홍화각지 전경(동에서) 96. 홍화각지 남쪽기단(서에서)









사진 97. 홍화각지 남쪽기단(동에서) 98. 홍화각지 서쪽기단(북에서) 99. 홍화각지 북쪽기단(서에서)
100. 홍화각지 서쪽기단석열 축조상태















사진 101. 홍화각지 남쪽기단석열 축조상태 102. 홍화각지 남쪽기단석열 내부다짐 103. 홍화각지 마당시설 104. 홍화각지 남서편 기단석열 마감상태 105. 홍화각지 서편 기단석열 적석상태(1) 106. 홍화각지 서편 기단석열 적석상태(2) 107. 홍화각지 서편 기단석열 적석상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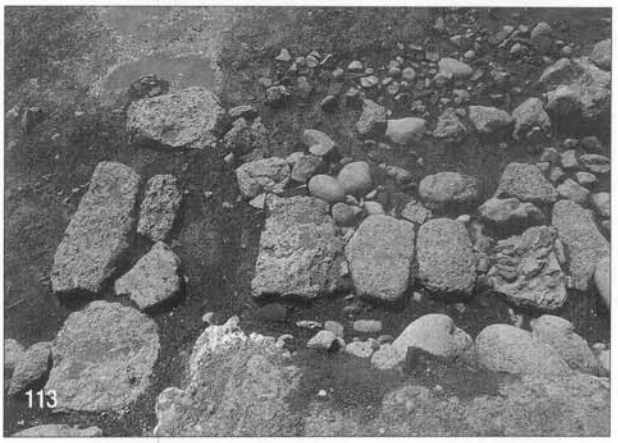






사진 108. 홍화각지 동편 상부적석층(1) 109. 홍화각지 동편 상부적석층(2) 110. 홍화각지 동편 상부적석층(3) 111. 홍화각지 방고래시설(북에서) 112. 홍화각지 축조상태 113. 홍화각지 방고래시설(위에서) 114. 홍화각지 북편 기단석열 축조상태 115. 홍화각지 동편 유구 중복상태

6. 禮吏掌房址

『탐라방영총람』에는 예고지의 북쪽에 있는 건물로 예리장방과 일직선상에 있는 건물로 표기되었다. 발굴된 건물지는 정면 多間, 측면 1칸 건물로 확인되었고, 남북으로 길게 자리한 정동향 건물로 노출된 면적은 10.6m×5.7m(60.4㎡, 18.3평)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에 적심석이나 초석은 남아 있지 않았으며, 내부시설로는 동서방향으로 놓인 폭 35~40cm의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건물의 기단석은 조선전기의 잔자갈층 바로 상면에 놓여있다. 남아 있는 동쪽 기단은 둥근천석과 일부 할석을 사용했으나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는게 아니라 천석과 천석사이에서 매립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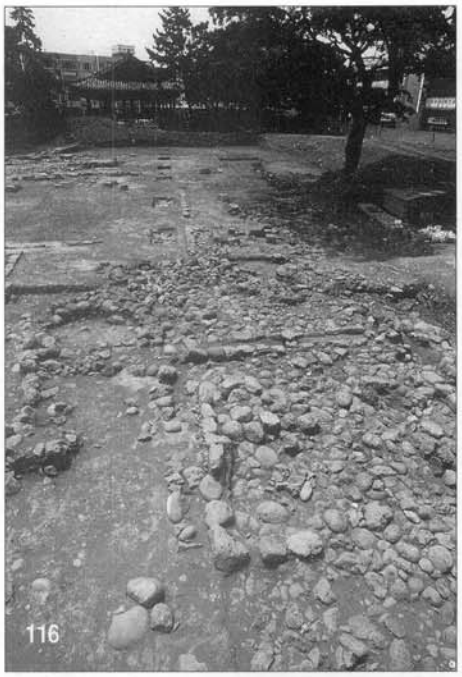
건물지내부에 적심석이나 초석은 남아있지 않다. 층위상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건물지로 보이나 초석이 남아있지 않으며 건물지 서편으로 경사지게 내려간 단애면이 확인되는 점에서 사태에 의해 쓸려내려 갔을 가능성이 짙다.

건물의 내부 성토는 15~20cm 두께로 잔자갈, 소토, 기와 부스러기 등이 퇴적되어 있었으며, 퇴적층을 제거한 하부는 둥근 천석과 괴석, 자잘한 잡석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동쪽기단 석열은 상층과 하층에서 중복되어 나타난다. 상층과 하층기단석의 높낮이는 30~40cm 정도 차이를 보인다. 상층기단은 일부 할석과 괴석이 이용되었으나 하층기단은 둥근 천석과 괴석이 석재로 사용되었다. 북쪽기단은 교란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남쪽기단은 예고지와 맞붙어 있어서 기단은 남아 있지 않았다.

내부시설로는 동서방향으로 놓인 폭 35~40cm의 배수로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된다. 일부 할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시설한 2열의 석열 위에 뚜껑돌로 보이는 넓은 판석상 석재 1매가 놓여 있다. 배수로 내부에서 확인되는 흙은 흑색부식토였다.

또한 이 건물지의 북동편에서 확인되는 부정형의 괴석 수매로 만들어진 폭 60cm, 길이 150cm의 아궁이시설이 확인되나, 예리장방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시설이 아니라 발굴 초기에 현대건물을 제거하여 상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었다.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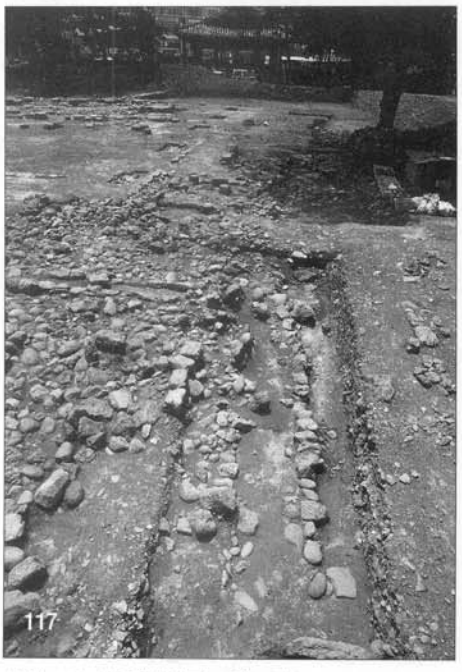

117

사진 116. 예리장방지 · 예고지
117. 예고지 동편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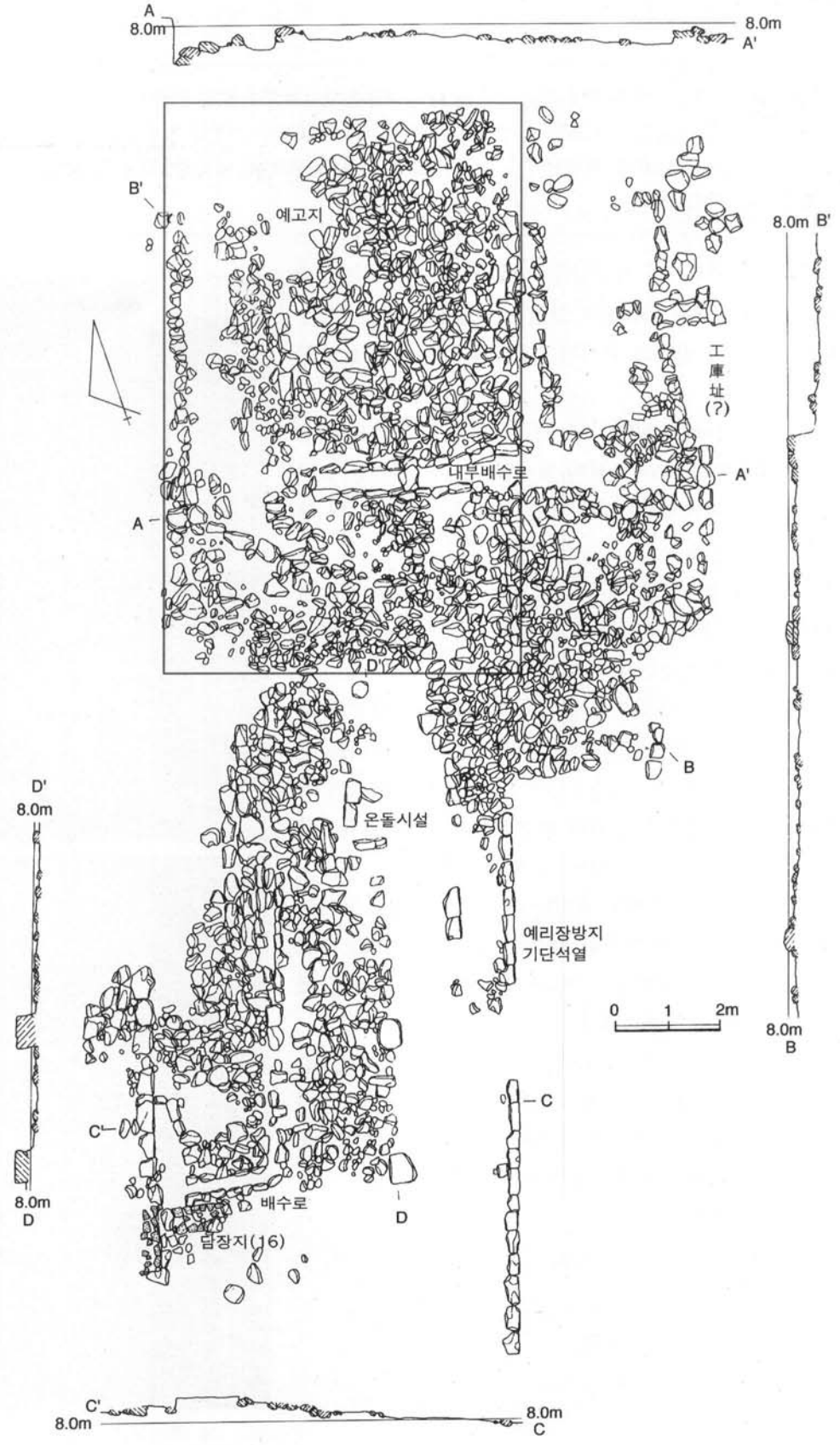


그림 21. 예고 · 예리장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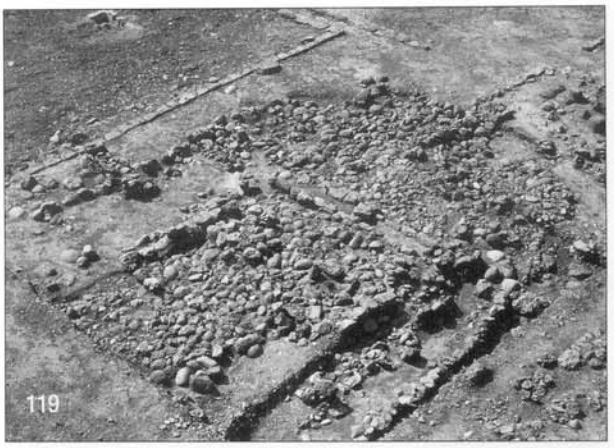














사진 118. 예리장방지 적석층(위에서) 119. 예리장방지 전체노출상태 120. 예리장방지 적석층(남에서) 121.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서에서) 122.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에서) 123.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서에서) 124.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북에서) 125. 예리장방지 적석상태세부(북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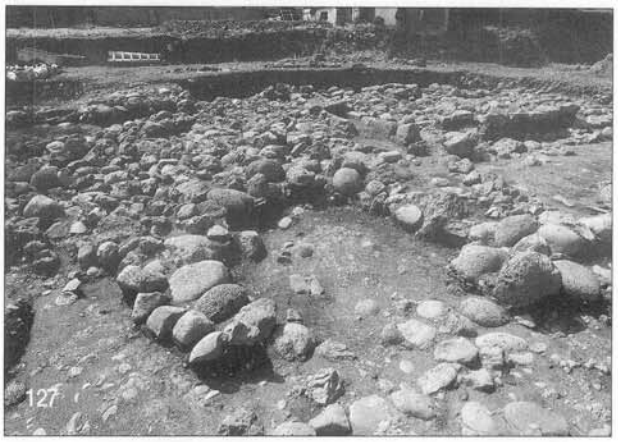














사진 126. 예리장방지 기단석열 · 적석상태(북서에서) 127. 예리장방지 동편 원형적석군(동에서) 128. 예리장방지 적석상태(남에서) 129. 예리장방지 내부 방고래시설(북서에서) 130. 예리장방지 내부 방고래시설(남동에서) 131. 예리장방지 내부 방고래시설(남에서) 132. 예리장방지 유구노출상대 133. 예리장방지내부 청자병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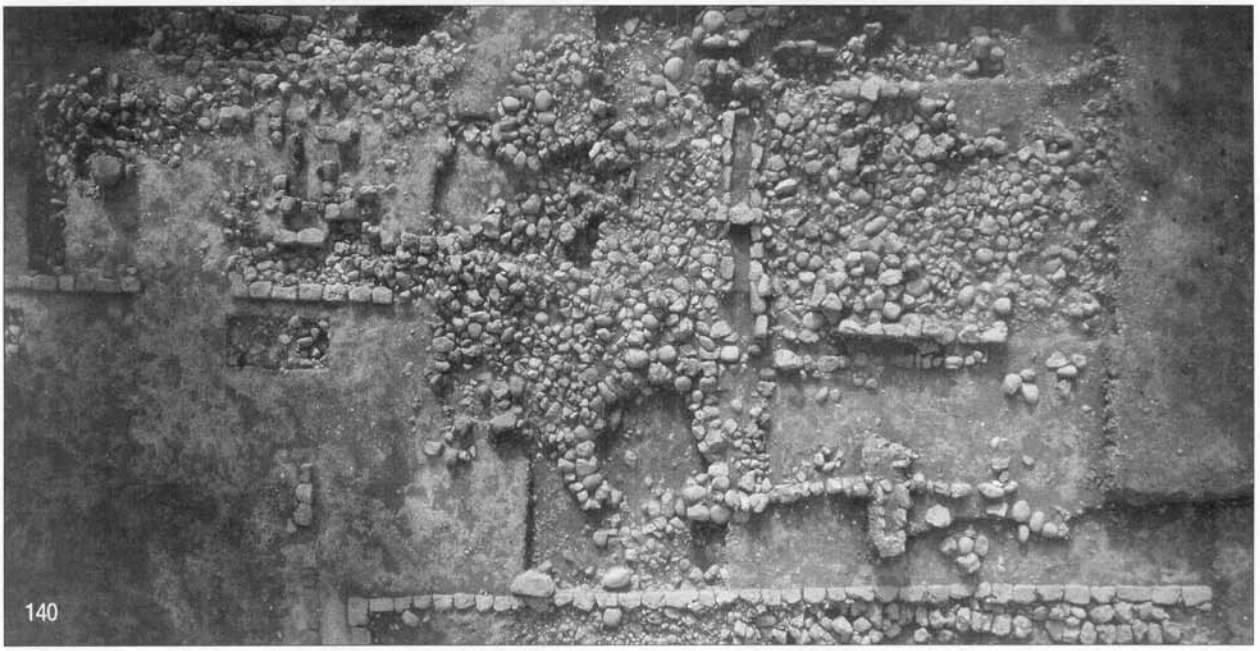




사진 134. 예리장방지내부 분청편 노출상태 135. 예리장방지 서편 단애면(북에서) 136. 예리장방지 · 예고 세부(북에서) 137. 예리장방지 서편 건물지퇴적층(동에서) 138. 예리장방지 동편 기단석열 중복상태(북서에서) 139. 예고지 기단석열(남에서)

7. 禮庫址

『탐라방영총람』에 의하면, 예리장방지 남쪽에 있는 건물로 예리장방과 일직선상에 있는 건물로 표기하고 있다. 확인된 건물지는 예리장방지와 바로 맞붙어 있는 남북장축의 건물로 정면 多間, 측면 1間의 긴 건물이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14.0m×5.7m(79.8㎡, 24.2평) 정도이다. 기단과 초석이 놓여있는 층은 조선전기의 자갈층 상면이었다. 내부시설로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140

이 건물지는 예리장방지와 바로 맞붙어 있는 남북장축의 건물로 정면 多間, 측면 1間의 긴 건물이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격은 14.0×5.7m이다. 기단과 초석이 놓여있는 층은 조선전기의 자갈층 윗면이다.

기단은 동쪽일부의 기단만이 확인되며 군데군데 결실된 상태이다. 일부 다듬은 할석을 사용한 기단은 건물 안쪽으로 1m 들어간 지점에도 2매가 확인되어 2중기단으로 된 건물로도 생각되나 현재 결실된 서쪽기단과 그 서쪽에서 확인되는 담장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건물의 측면 1칸이 들어설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바깥쪽에서 확인되는 석열을 건물의 기단으로 본 건물의 측면 길이는 약 5.0m이다.

초석은 규격 55×80㎝정도인 삼각상의 타원형초석과 직경 60㎝인 원형 초석 2매가 내부에 있다. 상면을 치석하여 고른 현무암석재로 동쪽기단열과 150~160㎝정도 간격을 두고 있다. 초석 1매는 원상에서 이동된 흔적이 역력했다. 다른 1매의 초석은 상면이 정연하게 놓여 있으나 초석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서 초석의 하부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초석의 밑에서 확인되어야 할 적심이 발견되지 않아 이 초석 또한 원상을 이탈한 것으


141


142

사진 140. 예고지 · 예리장방지
141. 예리장방지 · 예고지 중복상태
142. 예고지 기단석열

로 확인되었다.

건물의 내부 성토는 자갈이 깔린 황색층으로 홍화각지 남쪽의 자갈이 깔린 마당과 비슷한 높이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선문기와 등이며 바닥층 밑의 천석과 괴석으로 채워넣은 적석사이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등문양은 어골문계였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건물의 북편에 자리하며 2중기단석으로 보이는 안쪽기단과 동쪽끝을 맞추었다. 아궁이는 할석형 석재를 사용한 폭 65~70㎝, 길이 180㎝정도의 장방형이다. 건물의 출입이 동쪽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화입구는 서쪽에 위치했을 것이나 예리장방지와 마찬가지로 서쪽부분이 쓸려내려가 있어서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의 내부에서 소토와 목탄이 섞인 적갈색층이 확인되었다. 한편 건물지 남쪽에서도 적갈색의 성토가 확인되나 뚜렷한 아궁이 시설은 없었다.

예고지 바로 서쪽편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사면을 확인한 후 실시한 테스트피트 조사에서 건물지의 남서쪽을 파괴시키며 파 들어간 근대 건물의 정화조시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정화조시설을 제거하고 하부조사를 진행했으나 하층 바닥면에서 물이 고여 있는 지형을 이루었다. 이 바닥층에서 수거되는 기와의 등문양은 복합문, 무문, 선문계통의 기와였다.

탐라방영총람에는 예고와 예리장방이 반대로 표기되었다. 발굴결과 건물의 내부구조가 서로 다른점에서 이 두 건물지의 명칭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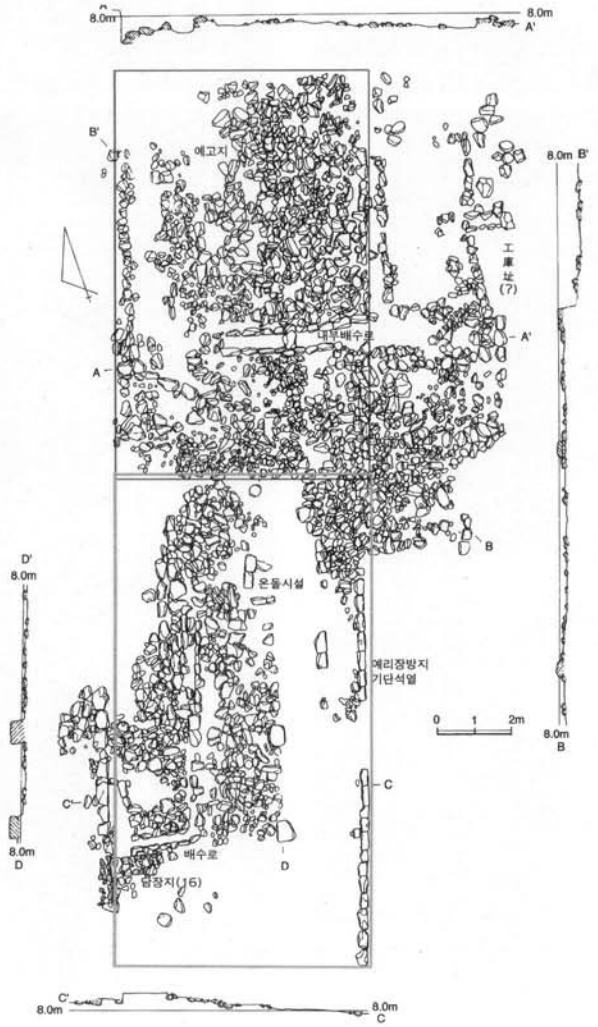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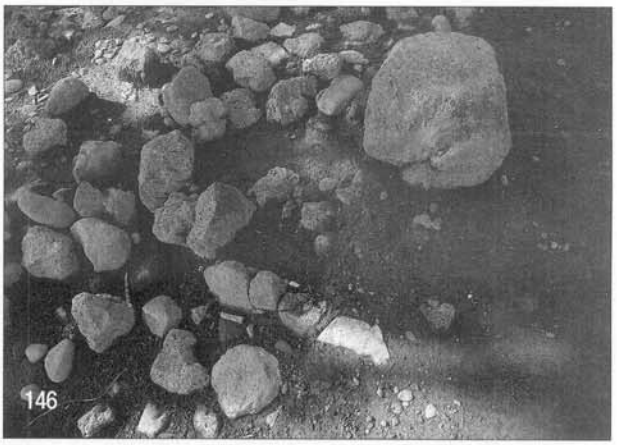


그림 22. 예리장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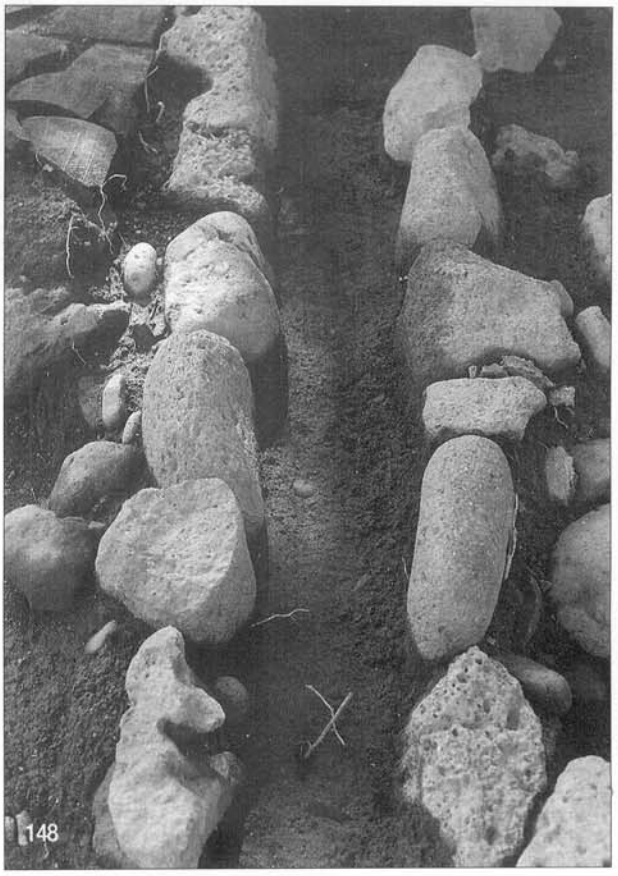


사진 143. 예리장방지 서편 적석상태 144. 예고지 내부 화구시설(동에서) 145. 예고지 내부 화구시설(동에서) 146. 예고지 내부 초석 하부적석상태 147. 예고지 기단석열 · 적석층(북에서) 148. 예고지 남쪽 배수로

8. 戶籍庫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우연당 북쪽에 있으며, 우연당과 맞붙은 동서 장축의 건물로 표기되었다. 『남환박물』(1704년)에는 종루의 서쪽에 있다고 기재되었으나, 『탐라지초본』(1843년경)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노출된 건물지는 동서장축의 긴 건물지로 정면 8칸, 측면 1칸 건물지이나 측면으로 1칸이 더 달린 형태로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5.4m×22.3m(120.4㎡, 36.5평) 정도이다.


149

동서장축의 긴 건물지로 정면 8칸, 측면 1칸 건물지이나 측면으로 초석열이 1열 더 시설되어 비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 같다. 노출된 면적은 5.4×22.3m이다. 기단과 초석의 놓인 층은 조선전기 자갈층보다 10~20㎝정도 높다.

기단은 건물의 남서쪽일부에서 확인되며 사용된 석재는 할석과 괴석을 사용하여 남쪽면을 고르게 맞추었다. 초석과 바로 맞붙어 있다.

초석은 상면을 정연하게 다듬은 원형에 가까운 현무암석을 사용하였다. 적심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적심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웃한 건물지와의 높이를 고려한 면도 있겠지만 이 건물 하부에서 확인되는 부석시설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별도로 지경을 다지거나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초석간의 거리는 정면간 330㎝, 측면간 260㎝, 90㎝이다.

건물지의 내부 성토는 하부의 부석시설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많은 양이 제거된 상태나 일부 초석의 밑면에 남아있는 토층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석시설 상단으로 10~15㎝ 가량 잔자갈이 매립된 층과


150


151

사진 149. 호적고지와 주변유적
150. 호적고지 초석열(동에서)

성토된 흙은 이 황갈색토로 보인다.

관련시설물로는 건물의 동편끝에서 확인되어 4번 초석의 하부까지 확인되는 부석시설이 있다. 호적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 부석시설의 북쪽경계석으로 추정되는 2중담장이 호적고의 동남쪽 기단을 파괴한 상태로 초석의 하층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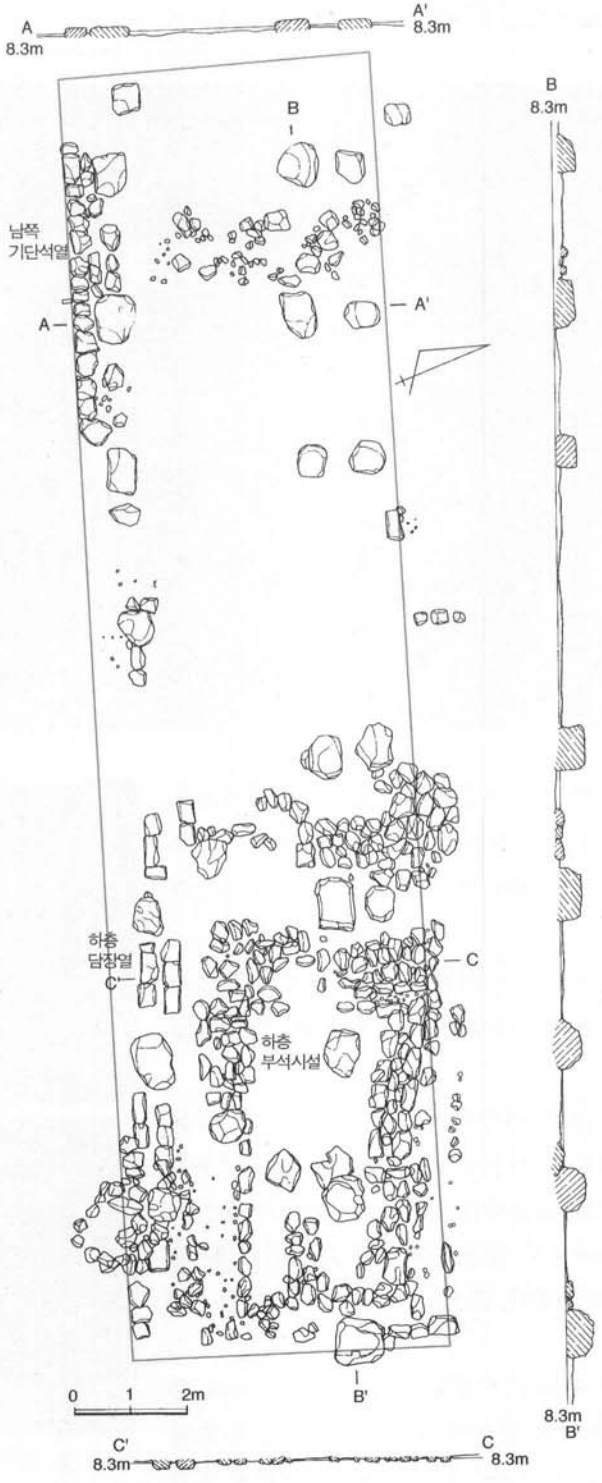


그림 23. 호적고지













사진 152. 호적고지 초석(서에서) 153. 호적고지 초석하부 기단석 노출상태 154. 호적고지 서남쪽 기단(북서에서)
155. 호적고지 서남쪽 기단(남동에서) 156. 호적고지 초석열(서에서) 157. 호적고지 초석열(동에서)

9. 戶庫址

『耽羅防營總覽』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으며, 영리장방과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표기되었다. 노출된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1칸 건물인 것으로 보이나 초석 5기만이 남아 있고 하부로도 중복된 건물지가 존재한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16.0m×4.2m(67.2㎡, 20.4평) 정도이다. 앞서 호적고 건물과 'ㄱ' 자상으로 직교한다. 기단석은 부정형의 할석형 석재를 사용하였다.


158

이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1칸 건물인 것으로 보이나 초석 5기만 남아있고 하부로도 중복된 건물지가 존재한다.

건물지의 동쪽 기단은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서쪽기단은 초석이 기단의 중앙부에 자리하여 나타난다. 호적고 건물과 'ㄱ' 자상으로 만난다. 기단석은 부정형의 할석형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전기 자갈층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 초석과 기단이 자리하며 초석은 상면을 치석한 원형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적심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쪽기단석 밑을 가로지르는 남북방향의 기단석열과 남쪽기단석열이 확인되는데 호고건물지의 서쪽기단석과 초석에서 보이는 초석이 기단석의 중앙에 끼워넣어진 현상이 이 하층건물지에서도 확인된다. 남쪽기단석에 사용된 석재는 천석과 괴석을 사용하였다.


159


160

사진 158. 호고지
159. 호고지 동편 기단석열 · 초석 배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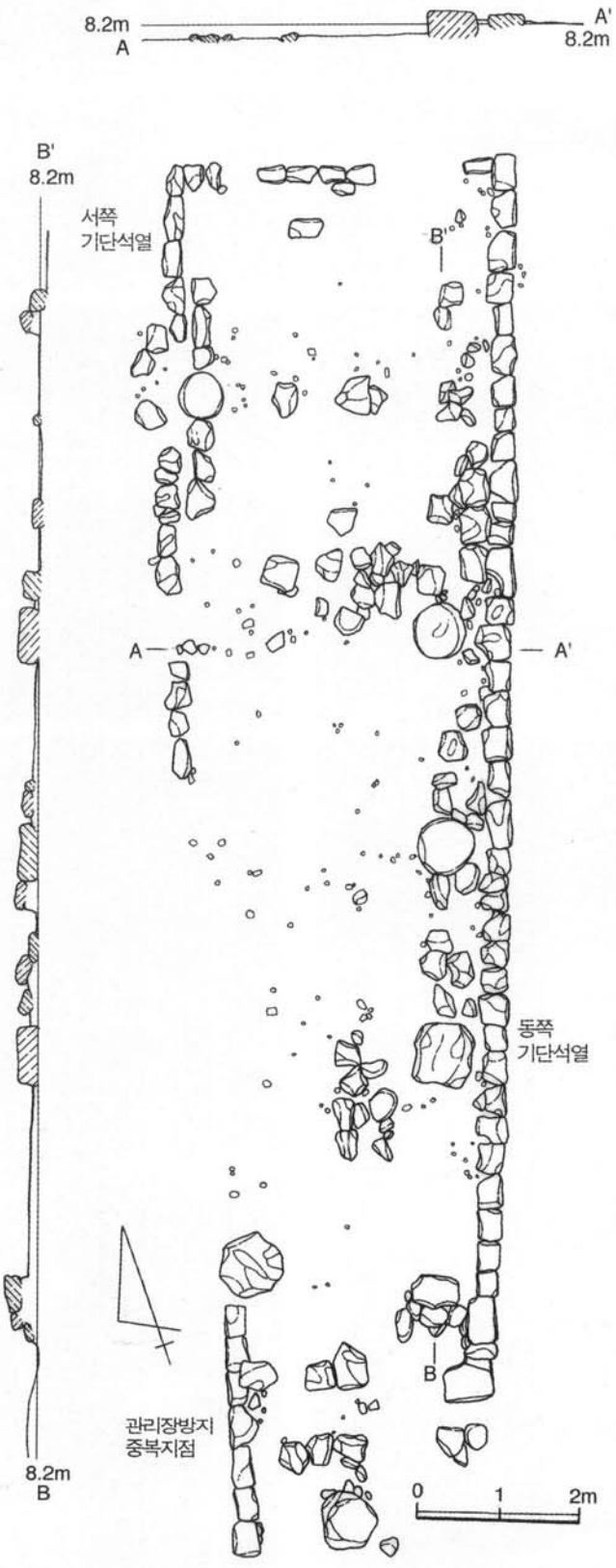


그림 24. 호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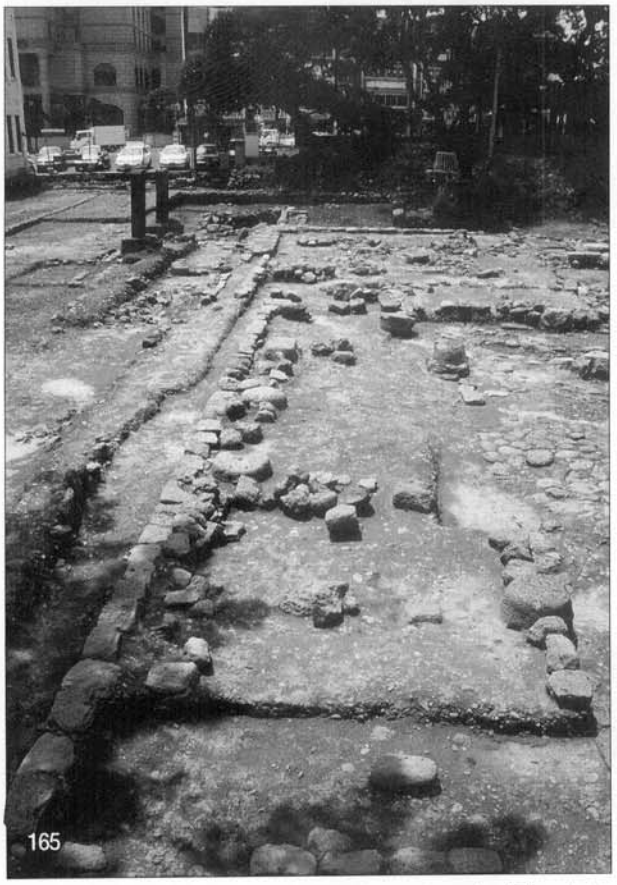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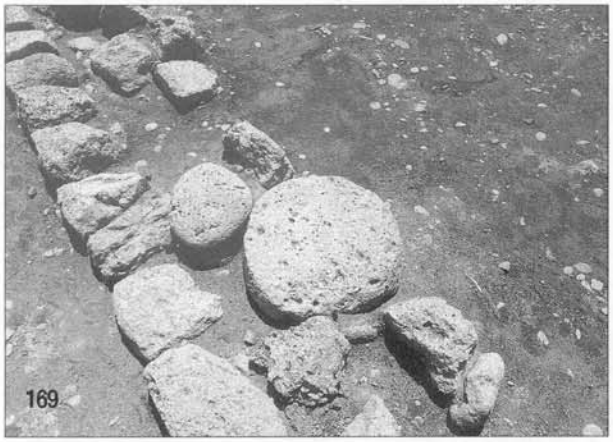




사진 161. 호고지 내부 기단중복상태 162. 호고지 기단·초석 축조상태 163. 호고지 서편기단
164. 호고지 남동쪽 기단석축조상태 165. 호고지 동편기단 166. 호고지 내부 초석 배치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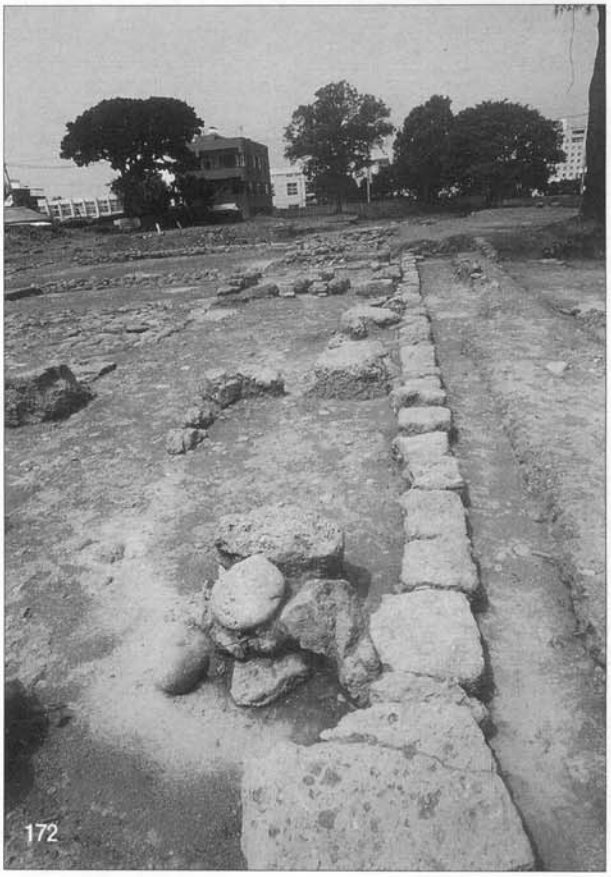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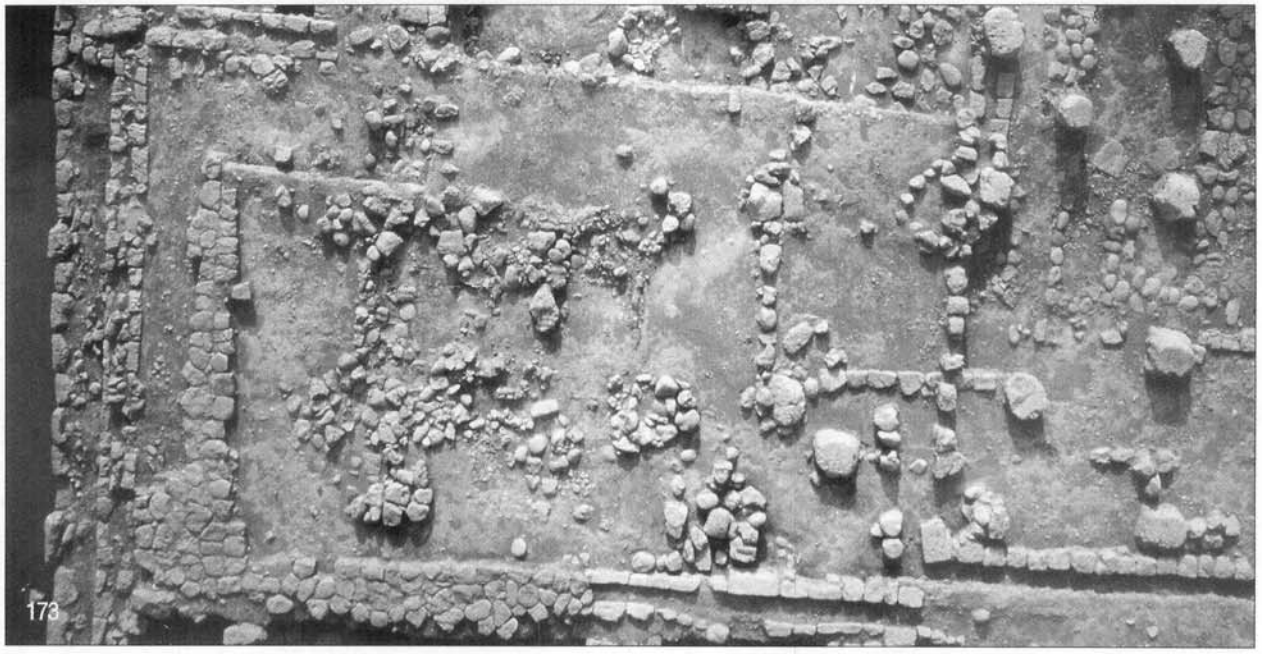


사진 167. 호고지 내부 초석(북동에서) 168. 호고지 내부 초석(북동에서) 169. 호고지 내부 초석(동에서)
170. 호고지 내부 초석(북에서) 171. 호고지 동편기단(북에서) 172. 호고지 동편기단(남에서)

10. 營吏掌房址

『耽羅防營總覽』에는 호고 남쪽에 위치하며, 호고와 일직선상에 배치된 건물로 표기되었다. 발굴과정에서 이 건물지는 우연당의 성토층을 밑에 두고 그 보다 약 40~50㎝정도 높은 지점에 자리하여 우연당 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탐라순력도』'제주전최'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12.3m×7.7m(94.7㎡, 28.7평) 정도이다.


173

戶庫址 바로 남쪽에 위치한다. 외관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건물지로 호고건물지의 하층 건물지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고, 초석과 기단석도 대량 결실된 건물이다.

건물지는 우연당의 성토층보다 약 40~50㎝정도 높은 지점에 자리하며 내부성토는 황갈색이다. 우연당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에 자리한 이유는 영리장방지 남쪽에 자리한 연못지를 고려해서 만든 건물지외곽의 석축이 높게 자리한 때문이며 이 때문에 건물의 높이는 상당히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건물지의 기단과 초석은 후대에 지면정리과정에서 상당량의 유실되었다. 건물지외각 석축은 남쪽과 서쪽일부가 남아 있다. 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일부를 다듬은 할석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맞추고 내부에 부정형의 석재를 채워넣었다. 이 석축의 폭은 70㎝정도로 2중으로 되어있다. 남서쪽일부의 석재는 뚜껑돌이 덮혀있어 상부에 집결되는 물을 연못으로 흘러내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이 석축열은 연못석축과 75~115㎝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연못과 정확하게 축선상으로 위치하지 않는다.

적심석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군은 직경 110~120㎝정도로 10기정


174


175

사진 173. 영리장방지
174. 영리장방지 노출상태(서에서)

난잡하게 확인되어 적심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건물지의 중앙부에서 황갈색의 점토를 기와와 기와사이에 끼워 넣은 와적시설이 확인되는데 원래 방형이었으나 현재는 'ㄴ' 자형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이 와적에서 확인되는 기와의 등문양은 와적담장에 사용된 고려말~조선초기의 어골문기와였다.

기타 시설로는 건물지의 남동쪽에서 확인되는 박석시설과 수로시설이 있다.

박석시설은 부정형의 할석과 납작한 천석을 사용하여 황갈색성토위에 'ㄱ' 자상으로 놓여있다. 건물지의 내부기단과 맞붙여서 시설한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동편기단석 위를 덮은 형태로 남아 있다.

건물지의 동쪽기단석으로 보이는 석재는 긴 판석형 석재로 약 2m 정도가 이어지다가 다시 일부분만을 치석한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단석과 30~45㎝ 정도 떨어진 동쪽으로 부정형의 할석을 길게 남북으로 이어 만든 수로로 보이는 시설이 있다. 노출된 수로의 길이는 5m 정도이다. 수로의 북쪽은 파괴되었으며, 남쪽은 'ㄱ' 자상의 박석시설물 밑으로 들어간 관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서쪽수로에 사용된 석재가 동쪽의 석재보다 잘 다듬어진 것으로 보아 이 서쪽수로는 영리장방지의 동쪽기단으로 사용된듯 하다.











사진 176. 호고지 · 영리장방지 중복상태(북에서) 177. 중복상태(남서에서) 178. 영리장방지 내부 179. 동편배수로 180. 내부 박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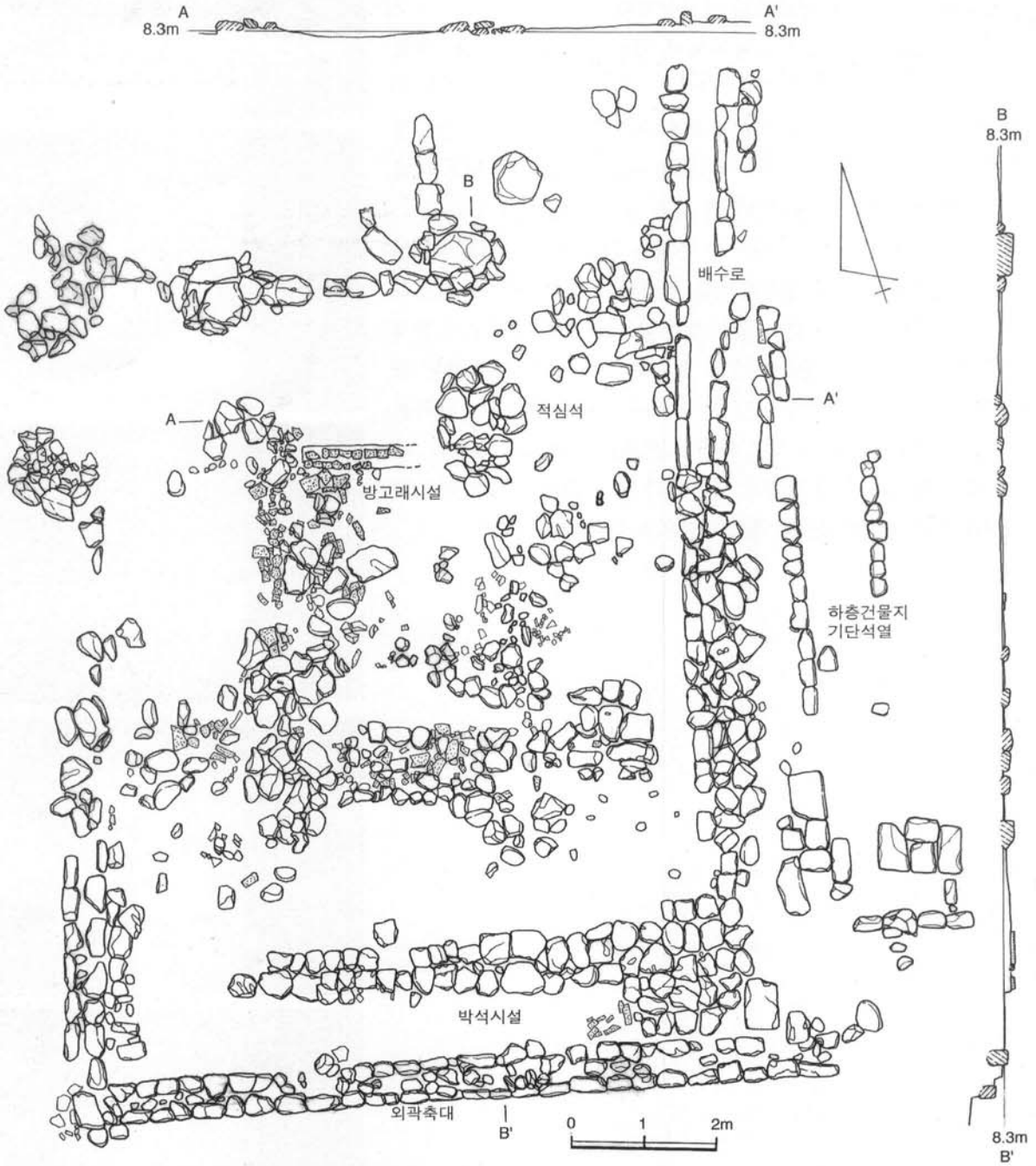

A
8.3m
A'
8.3m
B
8.3m
B
배수로
A
적심석
A'
방고래시설
하층건물지
기단석열
박석시설
외곽축대
B'
0
1
2m
8.3m
B'

그림 25. 영리장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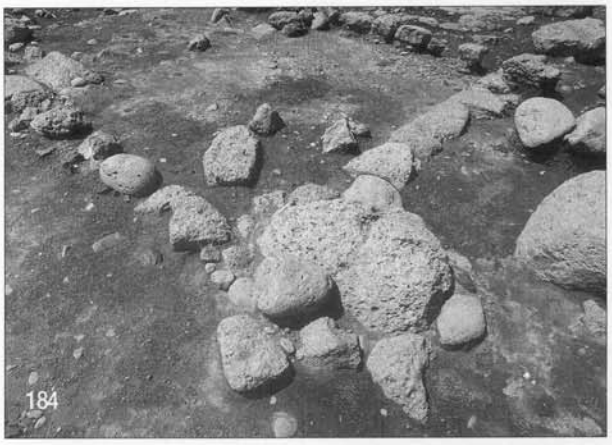










사진 181. 영리장방지 내부 기와 방고래시설 182. 영리장방지 하층유물 노출상태 183. 영리장방지 내부 적심상태 184. 영리장방지 내부적심·기단석 중복상태 185. 영리장방지 내부 적심상태(동에서) 186. 영리장방지 내부적석 187. 영리장방지 내부적석 세부 188. 영리장방지 내부(동에서)

















사진 189. 영리장방지 내부(동에서) 190. 영리장방지 내부 남서쪽 적심상태(동에서) 191. 영리장방지 내부 적심상태(동에서) 192. 영리장방지 내부 동쪽 적심상태
193. 영리장방지 내부 기와 방고래시설 194. 영리장방지 내부 박석시설(서에서) 195. 영리장방지 내부 박석시설(남동에서) 196. 영리장방지 · 호고지 중복상태

11. 友蓮堂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예리장방 서편, 호적고의 정남쪽에 위치한 건물로 나타난다. 『남사록』(1601년)에는 목사 이수동이 성중에 우물이 없어 못을 파서 저수하여 연을 심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나, 목사 양대수가 개구리 소리가 듣기 싫다 하여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탐라지』(1653년)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知瀛錄』(1696년)에서는 5칸을 중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남환박물』(1704년)에는 10칸으로 나오고 연못이 있으며, 동헌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제주읍지』(정조년간)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탐라지 초본』(1843년경)에는 김정목사시 중수하여 향의실로 삼아 공헌봉진 장소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건물지는 거의 완전하게 확인되었다. 『탐라방영총람』의 호적고 바로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며, 연못지의 북서편에 자리한 남향 건물지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규모는 11.0m×15.5m(107.5㎡, 51.6평) 정도이다

호적고 바로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며, 연못지의 북서편에 자리한 건물지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있는 초석은 정면 4칸까지 뿐이다. 측면 1칸의 초석들은 사라져서 적심석만 확인된다. 정면칸과 측면칸 초석간의 거리는 330㎝이다. 기단도 일부만 확인되며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격은 11.0×15.5m이다.

건물의 기단과 초석은 조선전기 자갈층 상면에 놓여 있다.

초석은 원형으로 잘 다듬은 직경 1m이상되는 거석이 이용되었으며 原狀으로 놓인 것은 7기뿐이며, 1기는 원상에서 이탈되어 노출되어 있으며, 나머지 초석은 결실되었다.

기단은 잘 다듬은 할석상 석재로 건물의 북동쪽과 남동쪽, 남서쪽에서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적심은 성토면을 파고 들어가 초석을 놓고는 그 주위로 둥그렇게 잡석과 괴석을 채웠으며, 석심의 직경은 160~170cm에 달한다. 초석이 결실된 적심의 상태를 보면 초석이 들어가는 자리를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초석밑은 잔돌과 기와편으로 다져넣은게 확인되었다.

내부적석은 측면칸의 협칸에 속하는 곳에서만 천석과 잡석을 사용하여 빼곡하게 채웠는데 측면칸의 중앙칸에 속하는 곳에서는 황갈색의 성토만이 그냥 깔려있다. 적석과 함께 채워 넣은 기와에서 확인되는 문양은 어골문계였다.

이 건물지의 하층에서는 측면 중앙칸 부분에서 확인되는 기단석의 일부로 보이는 3매의 석재가 확인되나 워낙 미미한 부분만이 남아 있어서 건물지의 기단석인지는 불분명하다.

관련된 시설물로는 우연당지 남쪽 기단석과 맞붙여서 시설된 석열군이 있다. 동서로 길게 시설된 석열은 괴석을 사용하여 남북의 끝단을 맞춘 형태로 동쪽과 서쪽부분이 파괴되었다. 이 시설물의 용도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담장보다는 두껍게 축조되었고, 연못지의 배수시설이 끝나는 지점의 상부에 위치해있으므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모종의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197


198


199

사진 197. 우연당지 노출상태(동에서)
198. 우연당지 노출상태(남에서)
199. 우연당지 내부(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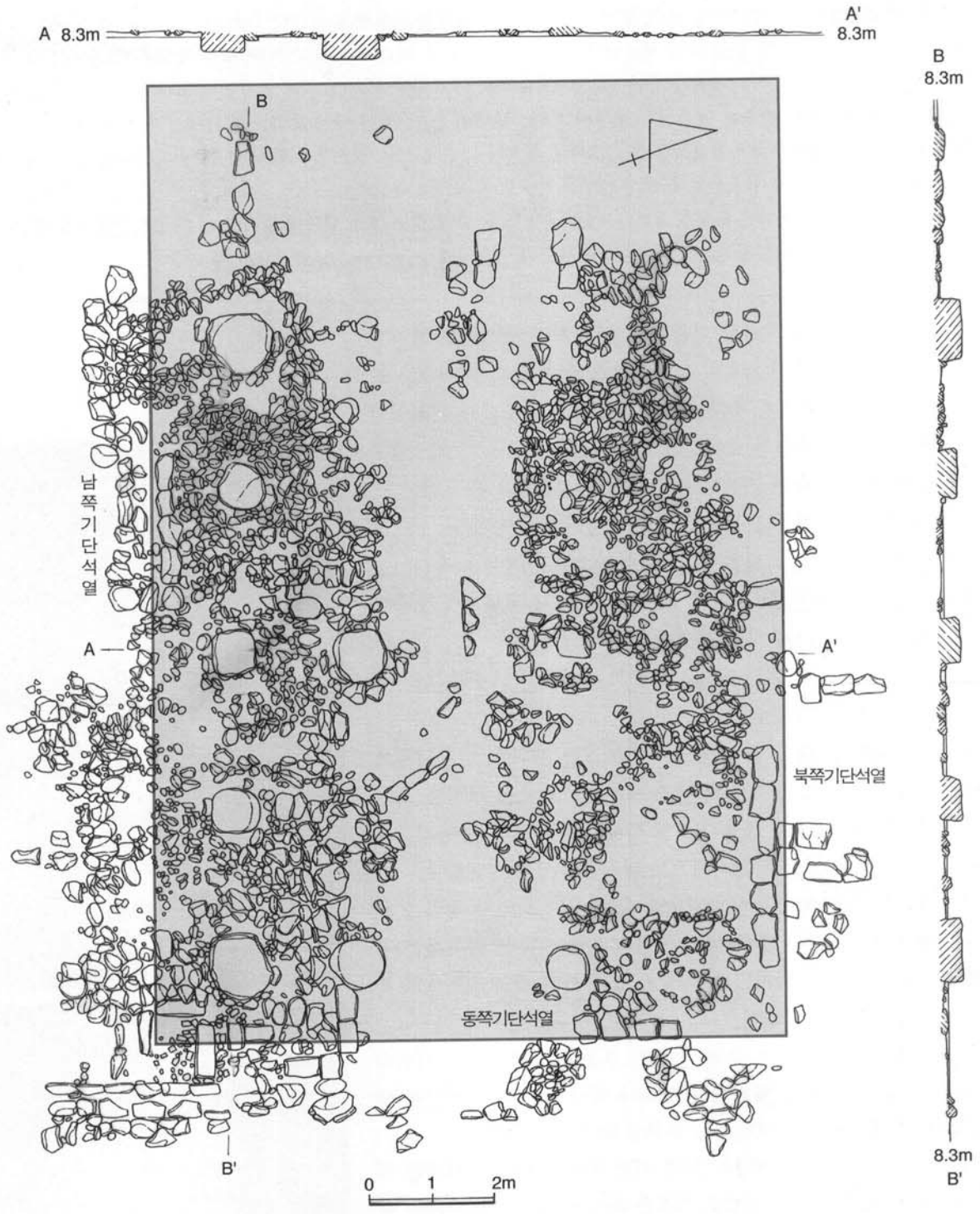


그림 26. 우연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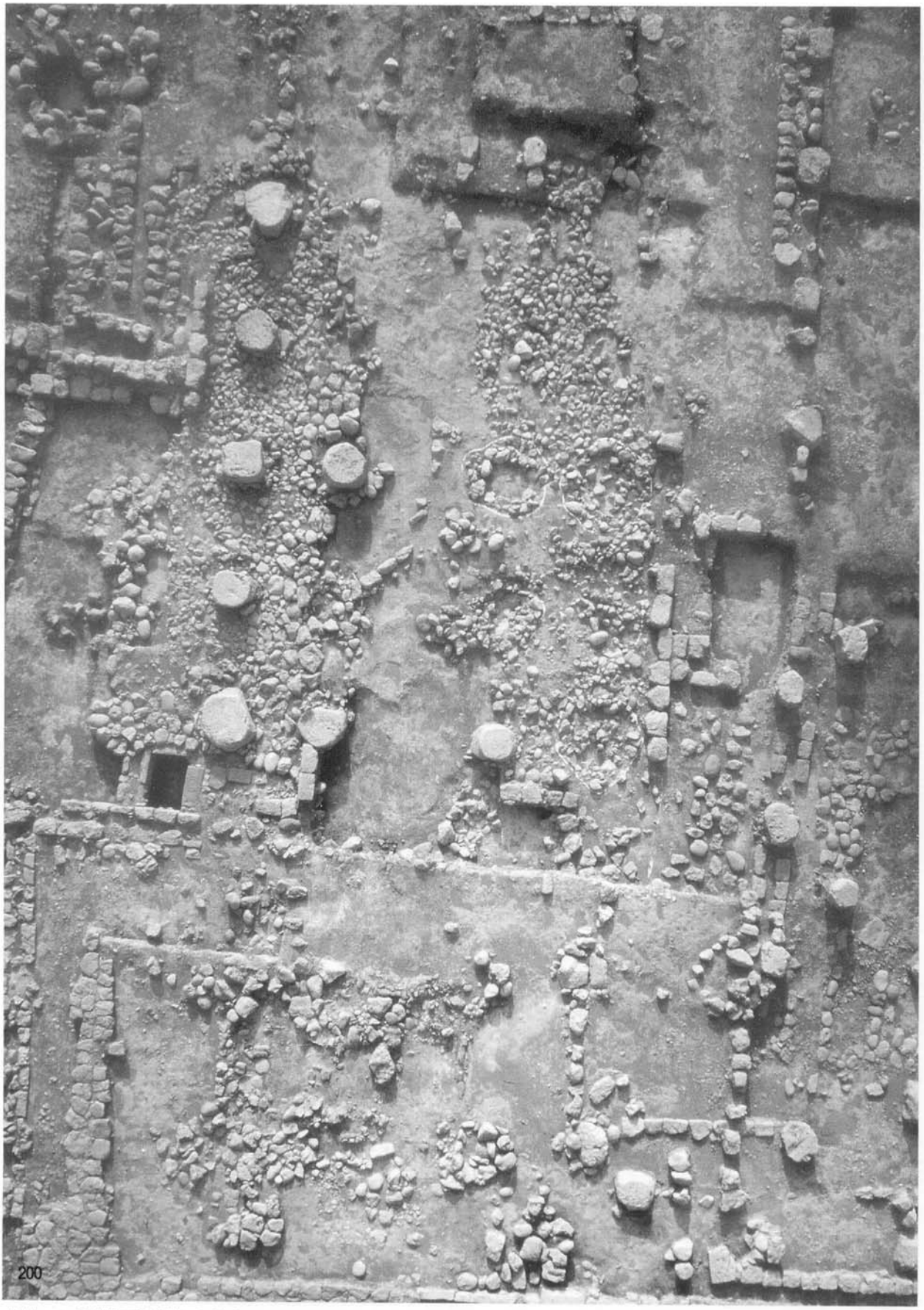


사진 200. 우연당지 전체노출상태





사진 201. 우연당지 초석 · 적심상태(서에서)
202. 우연당지 초석 · 적석층(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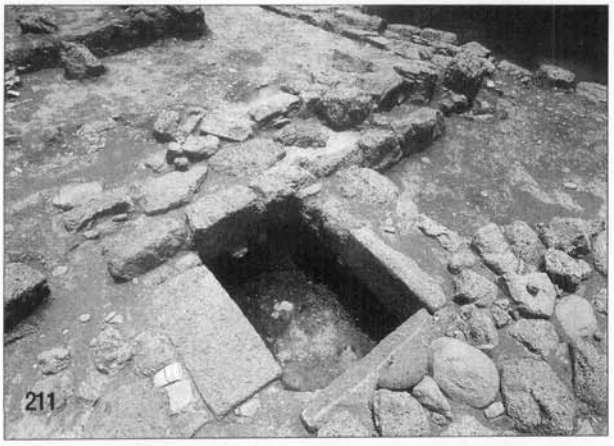








사진 203. 우연당지 초석 · 적심석 배치상태(동에서) 204. 우연당지 초석 · 적석층(남에서) 205. 우연당지 초석 · 적석층(북서에서) 206. 우연당지 하부적석 상태(동에서) 207. 우연당지 적석상태(동에서) 208. 우연당지 남쪽기단석 209. 영리장방지 남서편 석곽시설 210. 우연당지 남동쪽 초석과 석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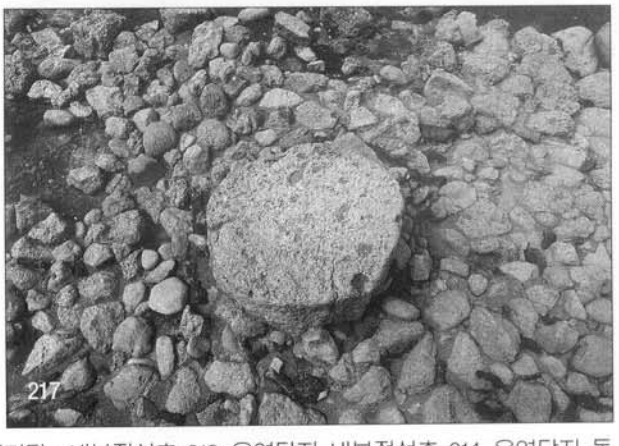


사진 211. 영리장방지 남서쪽 석축 · 석곽시설 212. 우연당지 남쪽기단 · 내부적석층 213. 우연당지 내부적석층 214. 우연당지 동쪽기단석 마감상태 215. 우연당지 초석 축조상태 216. 우연당지 초석과 적석층 217. 우연당지 초석과 적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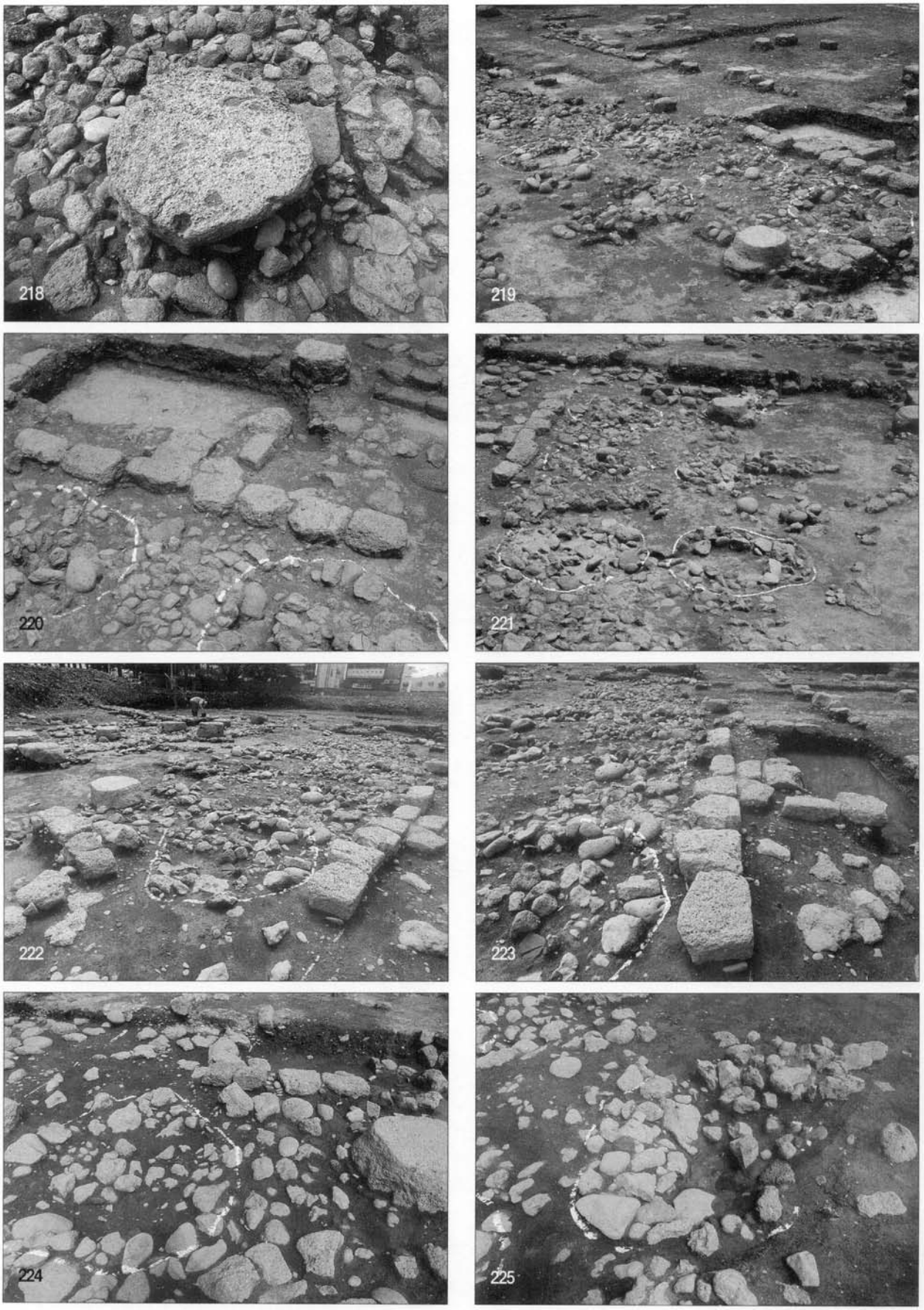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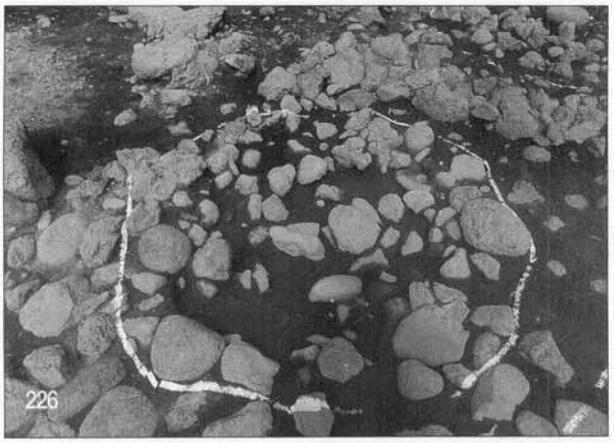


사진 218. 우연당지 북쪽기단석열 219. 우연당지 적심상태 220. 우연당지 동북모서리 기단석 결실상태 221. 우연당지 적심석열 222. 우연당지 적심 · 기단 223. 우연당지 적심 224. 우연당지 적심 225. 우연당지 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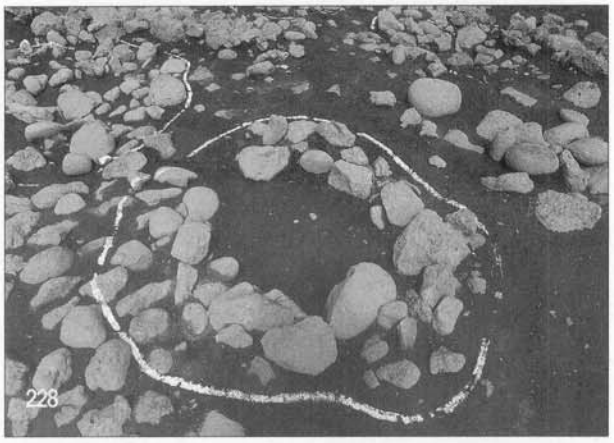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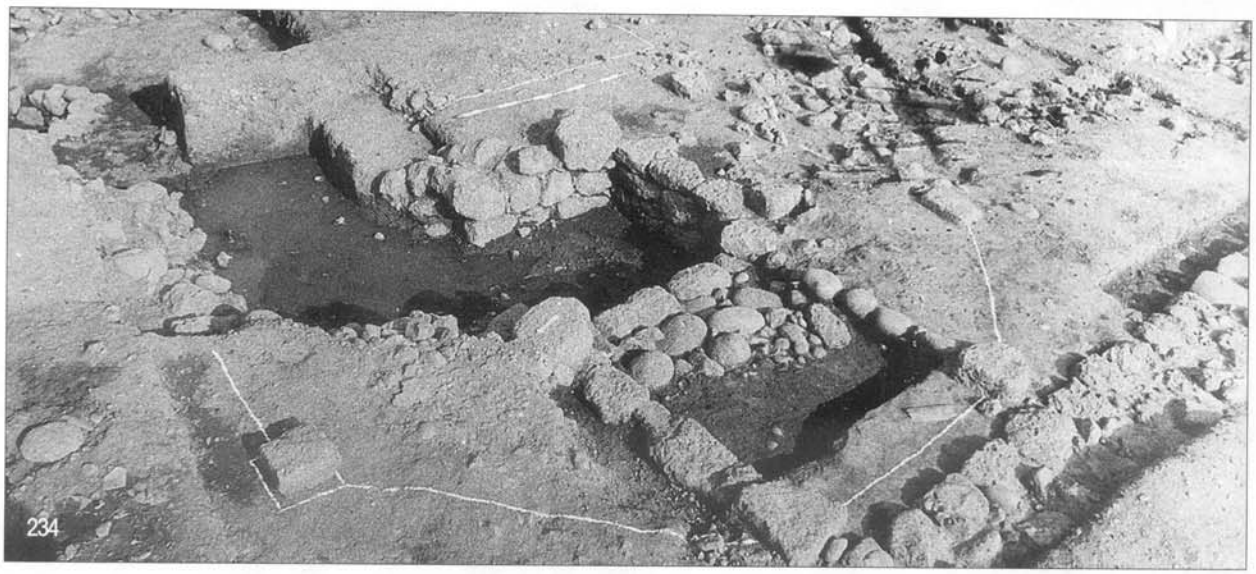




사진 226. 우연당지 적심 227. 우연당지 적심 228. 우연당지 적심층 229. 우연당지 적심시설 230. 영리장방지 기단과 적석시설 231. 우연당지와 우물지 232. 우연당지 남쪽 배수로 233. 우연당지 주변유구

12. 素行亭址

『知瀛錄』(1696년)에 '연희각 東便에 있었으며, 이는 현종 원년(1660) 목사 이회가 만들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知瀛錄』의 素行亭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헌마당 앞 빈터에 번을 서는 하졸을 시켜 네모진 못(塘)을 파게하고 자그만 섬을 쌓고 한 칸 되는 정자를 지어 연못가에 여러가지 꽃나무를 심고는 거닐며 쉬는 장소로 삼았다' 는 내용이 전한다. 그 후의 문헌인 『탐라방영총람』과 『탐라순력도』(1704년)에는 동헌 正東便에 영조 19년(1743)에 개건했다 하는 橘林堂이 있다. 이 귤림당은 분명 다른 건물과 달리 팔각의 정자건물로 『탐라순력도』에 그려져 있다.


234

조선후기 중대문-내대문간의 도로 동편에서 확인된 방형의 亭은 판석을 방형으로 쌓아올려서 축조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못의 규모는 폭2.0m, 깊이 0.6m이다. 못의 네 귀퉁이에 4개의 초석과 주변으로 초석이 팔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초간격은 1.9m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팔각 정자형태의 건물안에 못이 자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못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조선초기의 분청사기편과 '만호' 명 기와편이다. 하층의 바닥은 흘러나오는 물과 진흙으로 덮여 있어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웠다. 방형 못지는 다음에 기술할 원형우물지보다 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원형우물지 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원형우물지가 폐쇄된 직후 바로 시설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못지의 석재를 볼 때 원형 우물지보다 매우 정교하게 축조해 놓은 것을 엿볼 수가 있다.


235


236

사진 234. 소행정지
235. 영주협당지 북편 담장유구·소행정지 진입부 236. 소행정지와 주변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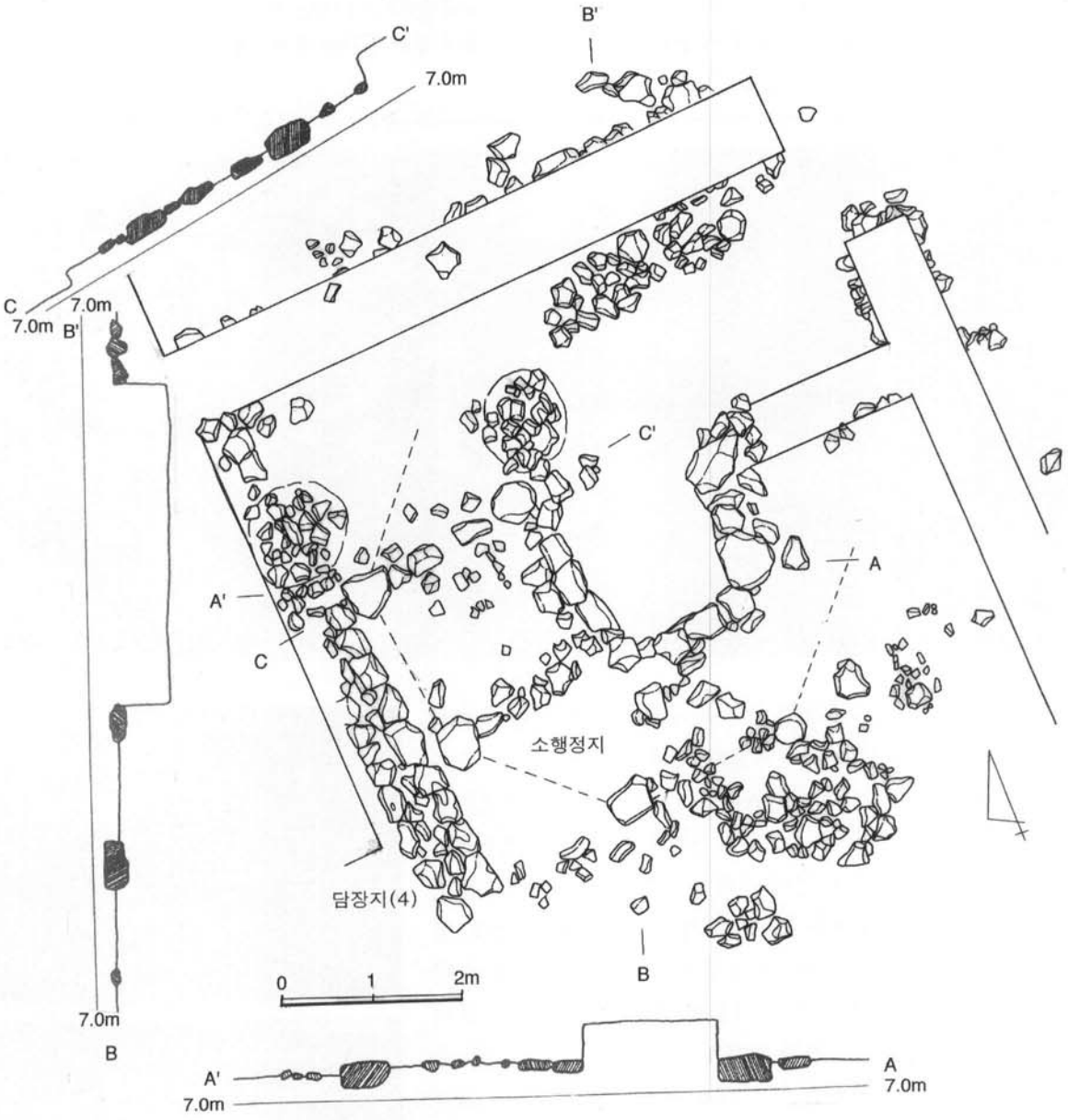


그림 27. 소행정지

13. 淸心堂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영주협당지 정북에 자리하며 '淸心堂舊基'로 표기되어 있다. 청심당은 이희태 목사가 애매헌 동쪽에 건립했는데, 1726년 세병헌이 불타 없어지자 세병헌 자리로 이건하였다. 이 건물지는 성토층에서 분청사기편만이 출토되어 18세기 이전에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소행정지와는 존속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남향건물지로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이다. 규모는 6.2m×11.0m(68.2㎡, 20.6평) 정도이다. 초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적심석만 확인된다.


237

이 건물지는 영주협당 하층 건물지의 정북에 위치한다. 영주협당지는 백자편이 성토층에서 확인되고 이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분청사기편이다. 또한 단면 토층확인결과, 전자의 건물지는 자갈층 상면에 위치하는 반면 후자의 건물지는 자갈층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두 건물지 사이의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백자가 출토되는 영주협당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시설되었던 건물지로 보이며 이 건물지는 1704년에 지어진 청심당 건물로 판단된다. 1760년대에 저술된 『탐라방영총람』에 舊基로 표기되어 있고 소행정지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 건물이 존속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지의 성토로 확인되는 층위는 황갈색 점토층이다. 성토에는 소량의 기와편과 자기편, 소토가 포함되어 있다.

적심석만 확인되며 건물지의 외각선이나 기단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초석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적심석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데 적심간의 간격은 맨 서편에서 정면 1칸 3.0m, 2칸 3.0m, 3칸 3.0m이고 측면의 적심간의 간격은 3.5m이다. 따라서 건물지 적심석의 배치로 보아 측면 1칸 이상, 정면 3칸 이상의 건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동편은 후대의 적석구덩이로 인해 파괴되었다. 원형의


238


239

사진 237. 청심당지
238. 청심당지와 주변유구
239. 청심당지 적심상태

현무암제 할석을 사용하여 지름 1.0m의 원형 테두리를 돌리고 그 안에 천석과 자잘한 할석을 채웠다. 맨 동편의 적심석 주변에서는 방형의 적석군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소행정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초석과 기단석열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1726년 세병헌 자리로 이전할 당시에 건물지의 석재가 모두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전 지표조사시에 확인된 청심당이라고 음각된 초석형태의 건물지의 표지석이 바로 청심당의 석재였던 것이다.



사진 240. 영주협당지 북편 담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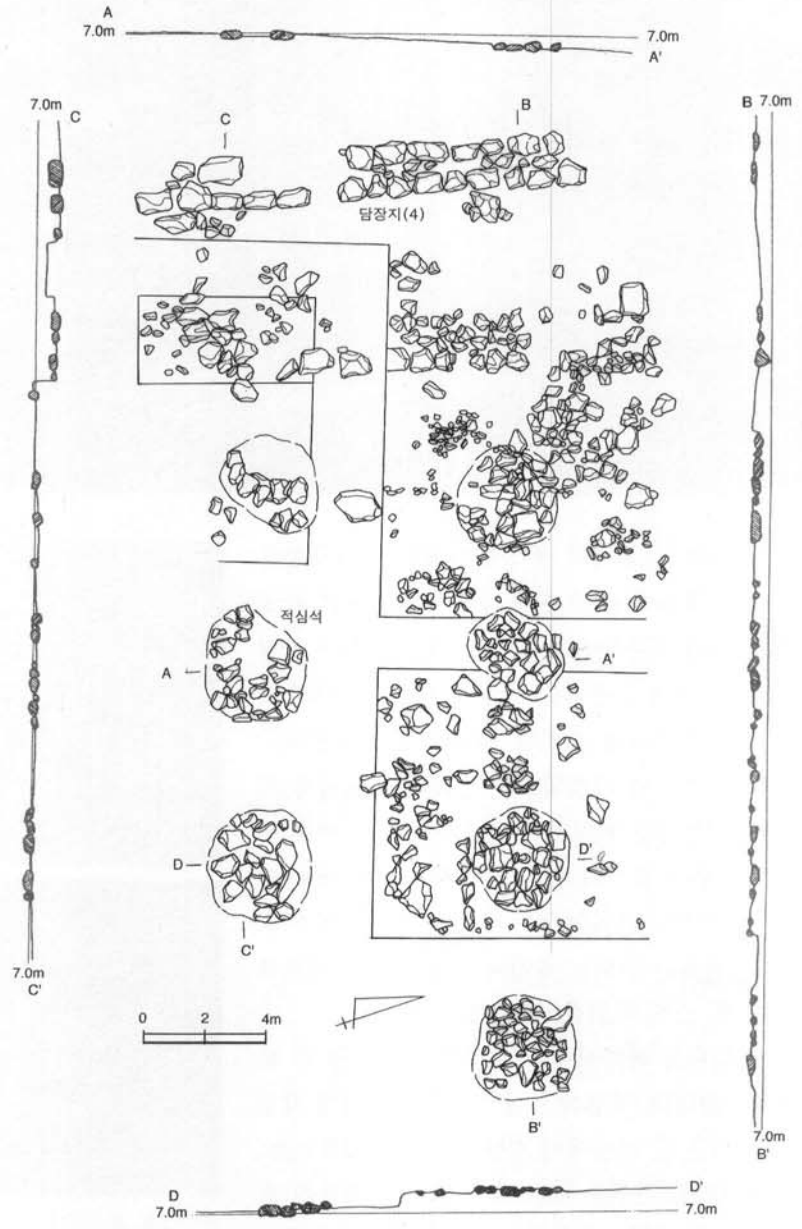


그림 28. 청심당지

14. 愛梅軒址

『탐라방영총람』에는 舊基로 표기되어 있고 내대문 서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탐라지』(1653년)에는 홍화각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남환박물』(1704년)에 8칸으로 기재되었다. 『탐라지초본』(1843년)에는 홍화각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고 나타난다. 이 건물은 적어도 정조년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는 홍화각지의 동편에 위치한 남향건물지로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이다. 규모는 11.7m×12.5m(146.25㎡, 44평) 정도이다.

이 건물지는 홍화각지의 동편에 위치한 동서장축의 건물지로 현재 상층에 자리한 건물지와 서쪽에 자리한 老松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건물의 정남향은 중대문지간의 도로와 일직선상에 자리한다. 현재 노출된 규모는 11.7×12.5m이다.

남쪽기단석열만이 확인되며 기단석의 석재는 잘다듬은 장방형의 판석이 사용되었다. 일부 기단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길이가 120㎝에 이르는 것도 확인되었다. 조선전기 자갈층 밑에서 확인된다.

초석과 심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의 내부 성토는 황갈색토로 재와 기와부스러기 등이 섞여 있다.

관련시설물로는 건물지기단석열 남쪽으로 맞붙여 시설한 바닥전 시설이 있다. 건물전면으로 들어오는 시설일 것으로 생각되는 이 바닥전 시설은 20×30㎝, 15×25㎝ 규격의 두 종류의 전이 사용되었다. 원래는 기단석에서 전면 125㎝정도까지 전부 시설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ㄷ'자형으로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일부는 전면에서 45㎝만 남아 있다. 이 바닥전 시설이 끝나는 서쪽으로 건물지의 외부기단으로 보이는 잘다듬은 판석상 석재를 사용한 기단석열이 동서로 길게 자리한다.

애매헌지의 상층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보도시설과 그 동편에서 확인되는 원형적석시설이 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건물지의 북편 상층에는 할석과 천석, 일부 괴석으로 바닥면을 끼워맞춘 돌무더기가 확인되며 일부 와편과 도자기편들이 섞여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정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애매헌이 이른 시기에 사라진 것을 감안한다면 상층에서 확인되는 이 적석군은 조선후기의 내대문지와 관련된 석재들일 것으로 여겨진다. 유구가 놓인 층은 잔자갈이 일부 섞인 흑갈색층으로 바닥의 애매헌 기단석열이 놓인 층과는 약 25~30㎝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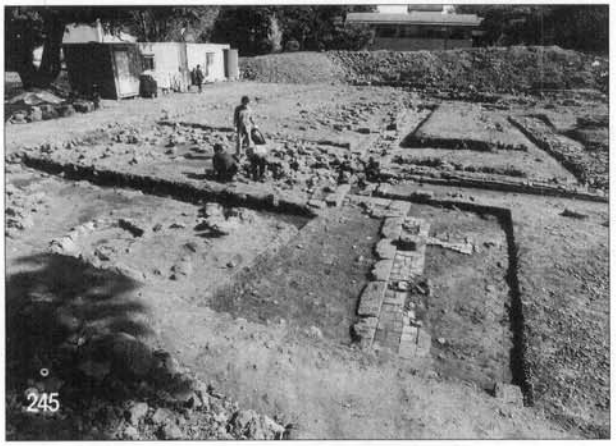

241


242


243


244

사진 241. 애매헌지 242. 애매헌지와 담장유구
243. 애매헌지 기단과 바닥전 축조상태
244. 애매헌지 기단석열과 바닥전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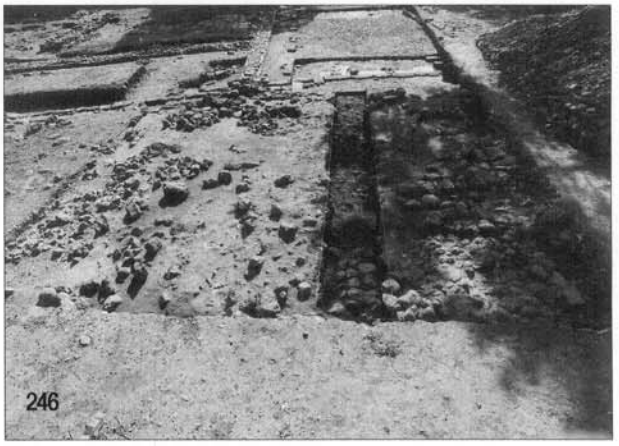


사진 245. 애매헌지와 주변유구 노출광경 246. 애매헌지 성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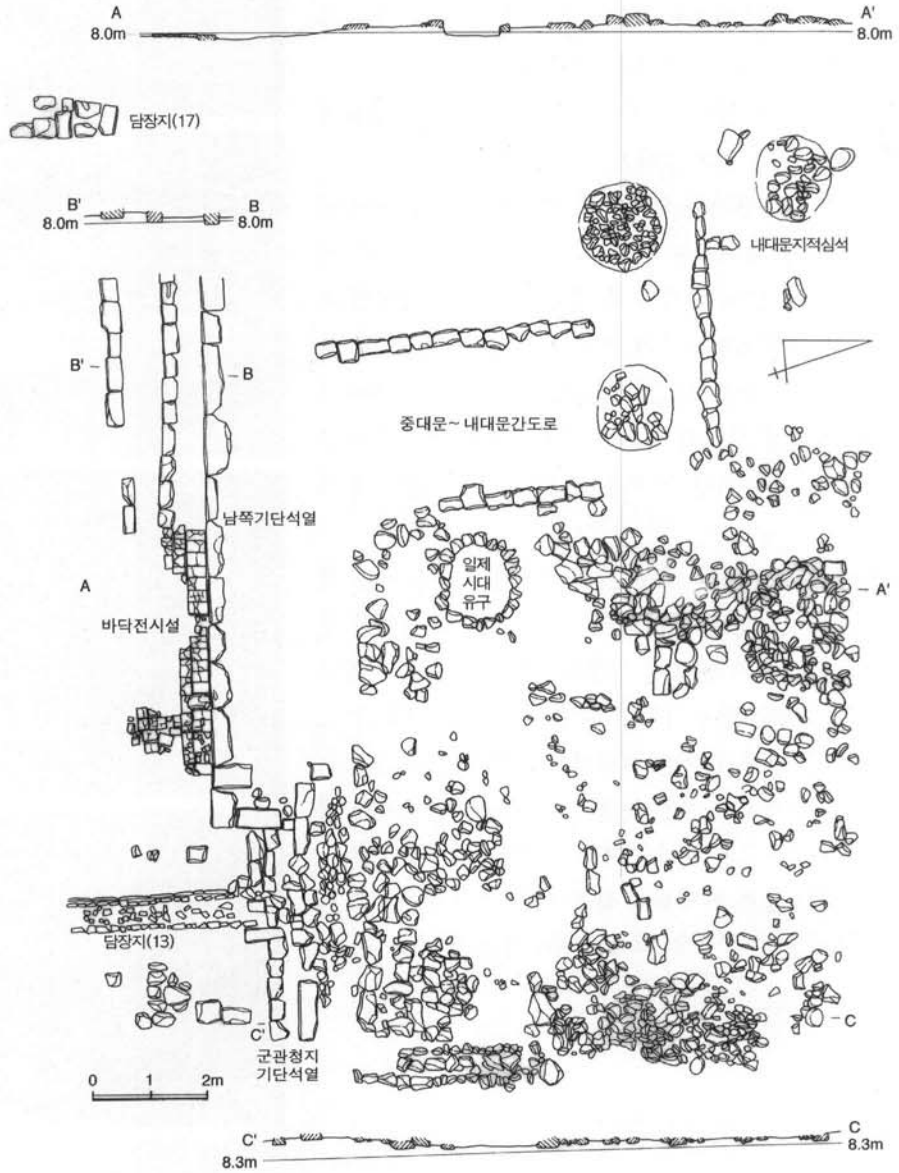


그림 29. 애매헌지

15. 瀛州協堂址

『耽羅防營總覽』에는 내대문의 동쪽, 애매헌 동쪽, 청심당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된 건물지는 애매헌지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4개의 건물지가 높이차를 보이며 중복된 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12.3m×18.9m(232.4㎡, 70.4평) 정도이다. 남향 건물로 판석형 건물지이다. 내부는 점토와 적석을 채워 넣었다. 내부시설로는 수개의 방고래가 확인되어 온돌방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47


248

이 건물지는 발굴한 건물지 중에 유일하게 기단석열의 측면과 기단석열의 축조법, 내부의 성토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지는 청심당지 남쪽에 위치한다. 지표에서 약 70cm정도 굴착된 부위에서 확인되며 담장지(7)과는 같은 높이에서 축조되었다. 건물지 상층과 기단석열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백자편과 일부 분청사기편이다.

건물지의 주 성토층은 자갈층이며 자갈층 밑으로는 황갈색 점토가 깔려 있다. 건물지 내부의 성토층은 앞서 기술한 test-pit(3) 단면층위에서 읽을 수 있다.

층위상으로 보아 이 건물지는 적어도 자갈층(6층) 이전에 만들어졌고 소토층(12층) 이후에 형성된 건물지임을 알 수 있다.

후대 시설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구가 파괴되어 현재 남쪽 기단석열만이 확인되며 건물지 모서리와 동서 기단석열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의 초석 역시 후대 시설물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다. 이 건물지는 건물지 내부성토와 층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시기에 결쳐 건물지가 중복되었고 실제로 건물지의 남쪽과 북쪽 기단석열 부분에서 적어도 세 번에 걸쳐 중복된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남쪽 기단석열 부분의 중복상태는 매우 복잡하다. 1차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지 기단석열은 3차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의 기단석열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설되었다. 1차시기에 만들어진 기단석열은 판석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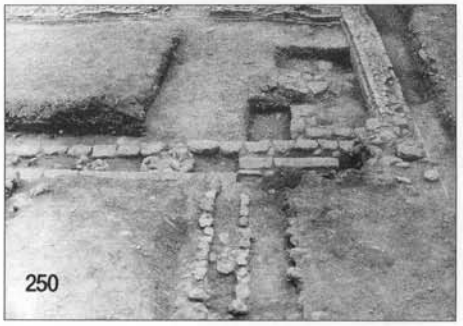

250

사진 247. 영주협당지·군관청지 중복상태 248. 영주협당지 상부 성토층 249. 영주협당지·군관청지 기단석열과 적심석 250. 영주협당지 북편 기단석열과 화구

이 아닌 기단의 바깥쪽면을 맞춘 할석형 기단석이다. 2차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지는 판석형 기단석열로 기단석 간의 맞물림 상태가 정연하다. 3차시기에 만들어진 기단석열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3차시기 기단석은 장방형의 판석으로 기단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맞춘 정연한 기단이다. 1차시기 기단은 자갈층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2차시기 기단은 자갈층에 포함되어 있으며, 3차시기 기단은 자갈층 위에 시설되어 있다.

북쪽 기단석열 부근은 건물지 기단석열 2개소와 담장지 2개소가 중복되었다. 기단석열은 8.0m가 남아 있고 판석형 할석을 맞춰 기단을 시설하였다. 초석은 2기가 확인되었다. 원형초석으로 주변에 할석을 고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주초간격은 2.0m이다.

내부시설로는 온돌시설 3개소가 확인된다. 건물지의 남쪽기단석열 동편에서 확인된 온돌시설은 부정형 할석과 점판암제 판석, 평기와를 사용하여 2단이상 쌓아 화구를 만들었으며 건물지 남쪽기단석열 중앙에 자리한 온돌시설은 부정형 괴석을 세워 1단으로 축조되어 있다. 북동편 기단석열 안쪽에서 확인된 온돌시설은 판석과 할석을 세워 축조하였다.

내부는 점토로 1차 지면정리를 한 후 30~40cm가량 적석 시켜 그 위로 10cm미만의 황갈색 점토를 성토하였다.

외부시설로는 건물지 북편에서 前代의 담장과 교란되어 이동한 초석군이 확인되나 건물지와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물지와 동일시기에 북편에 우물지와 서편에 문지가 자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51. 영주협당지 북편 기단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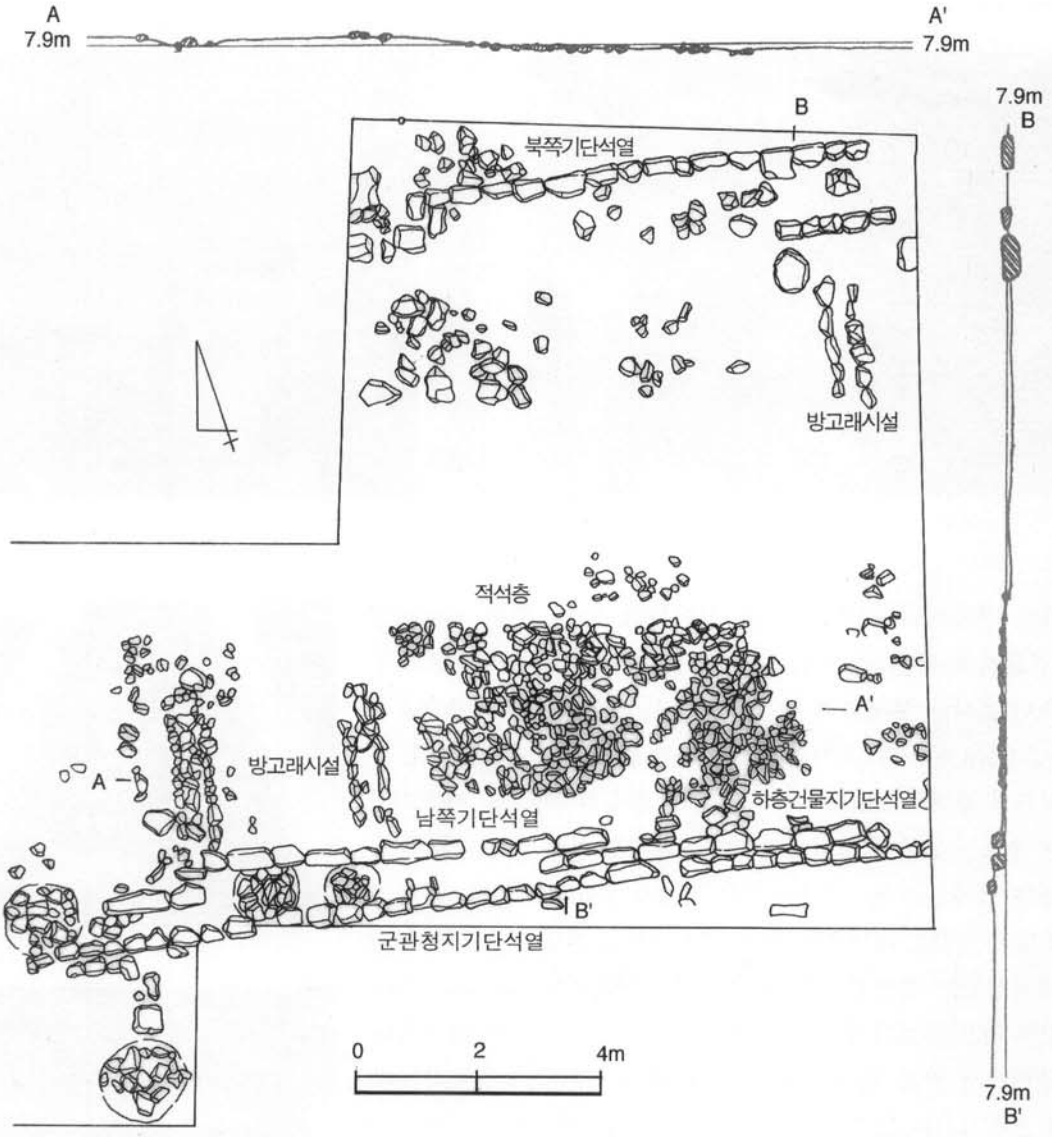

A
7.9m
A'
7.9m
B
북쪽기단석열
방고래시설
7.9m
B
적석층
A'
A
방고래시설
남쪽기단석열
하층건물지기단석열
B'
군관청지기단석열
0
2
4m
7.9m
B'

그림 30. 영주협당지

16. 敎房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영주협당 남쪽에 자리한 건물로 남북 장축의 건물로 표기되었다.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13.7m×5.4m(74.0㎡, 22.4평) 정도이다. 초석 배치상태로 보아 정면 5칸 이상, 측면 1칸 건물로 확인된다. 건물지 내부성토는 황색점토로 상면에 검은 재층이 약 3~4cm 가량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초석 주변에서 검게 탄 평기와·백자 접시류가 주로 출토되었다.


252


253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서편 기단석열 13.7m, 동편 기단석열 5.4m, 건물지의 폭은 5m이다. 건물지 내부에 원상의 초석 6개가 놓여 있으며 초석은 부정형의 할석을 사용한 원형초석이다. 초석간의 간격은 2.4m(8자)이다. 초석과 기단석간의 간격은 0.7~0.8m이고 측면 초석간의 간격은 2.4m이다. 이 건물지 역시 심약방지와 마찬가지로 현대 유치장 건물과 일제시대 강당건물지로 인해 남북이 모두 잘려 나갔다. 남아있는 동, 서편의 기단 석열과 초석으로 보아, 남북 장축의 장방형 건물로 정면 5칸 이상, 측면 1칸인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지 내부성토는 황색점토로 상면에 검은 재층이 약 3~4cm 가량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초석 주변에서 검게 탄 기와편과 함께 백자 접시류가 출토되는데, 유물의 소속시기는 조선중기 이후로 여겨진다. 따라서 심약방·마구지와의 연대차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54


255

사진 252. 교방지
253. A구역 일제시대 유구·조선시대 건물지 중복상태
254. A구역 상층 일제시대 유구·하층 교방지
255. 교방지 하층 성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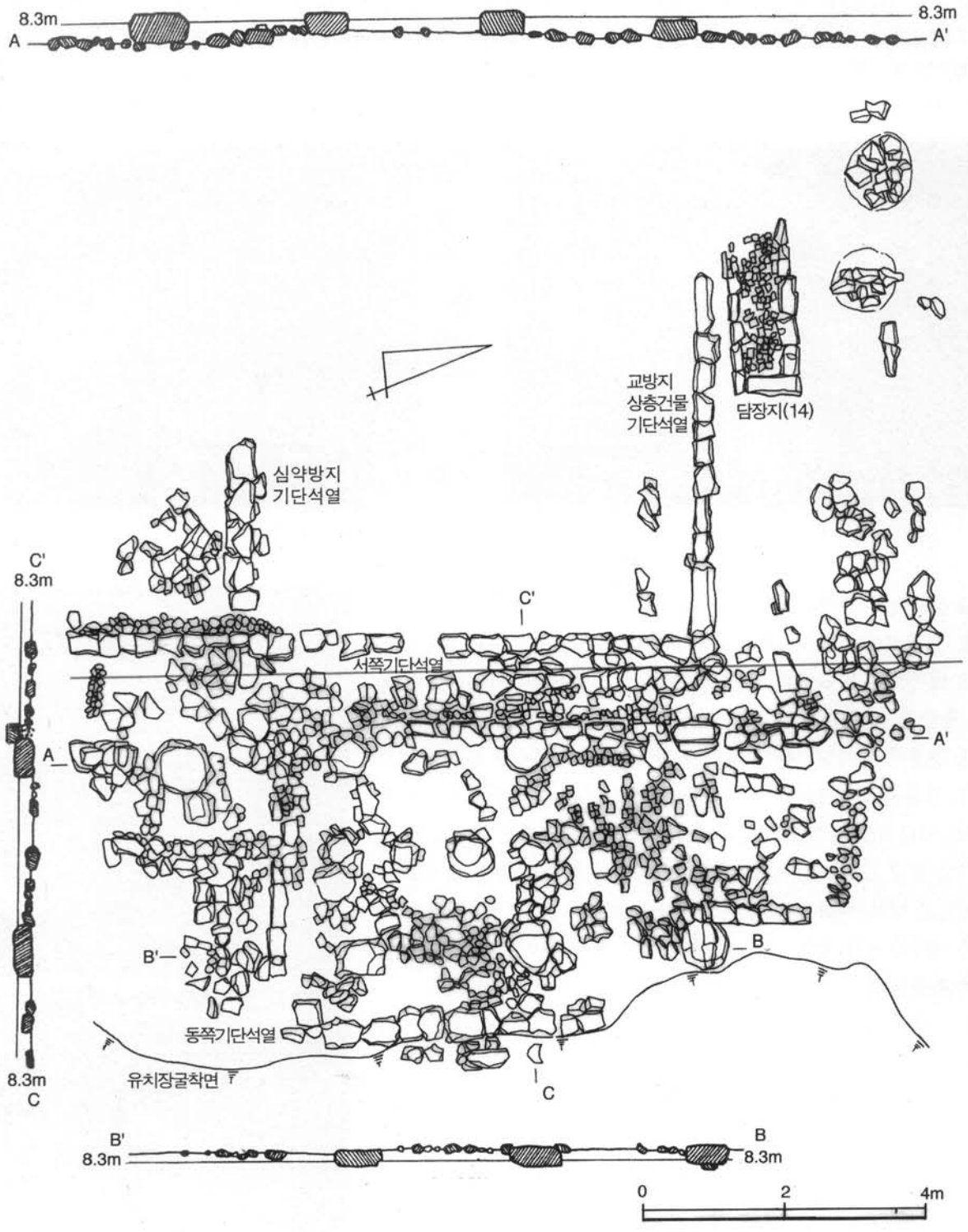

8.3m
A
8.3m
A'
교방지
상층건물
기단석열
담장지(14)
심약방지
기단석열
C'
8.3m
C'
서쪽기단석열
A
A'
B'
B
동쪽기단석열
유치장굴착면
C
8.3m
C
B'
8.3m
B
8.3m
0
2
4m

그림 31. 교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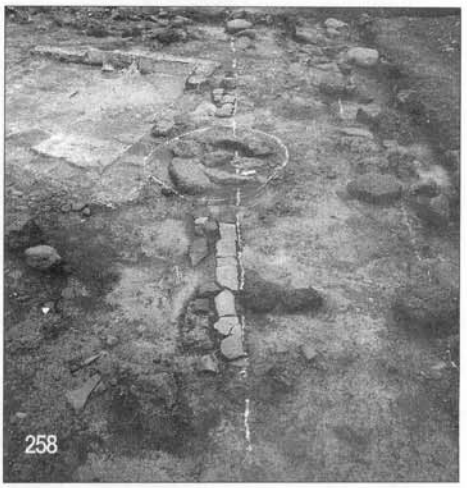
17 審藥房

『耽羅防營總覽』에는 교방의 남서쪽에 자리한 건물로 동서장축의 건물로 표기되었다.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5.7m×11.2m(63.8㎡, 19.3평) 정도이다. 초석 배치상태로 보아 정면 5칸 이상, 측면1칸의 남향 건물로 확인된다. 내부 성토층은 점토층이며 내부시설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으며, 성토층 상면으로 자갈층이 두텁게 깔려 있어서 건물이 폐기된 후 마당시설이나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56


257

포정사에서 중대문으로 오는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되어 동서방향으로 시설되어 있다. 불규칙한 기단석열 11.2m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배치되어 나타났다. 이 석열은 남북 1칸, 동서 5칸이상인 건물로, 장방형 건물의 북쪽 기단으로 판단되며 건물지의 남쪽 석열은 현대 경찰서 유치장건물에 의해 동편 석열은 교방지에 의해 파괴되었다. 건물지 내부초석이나 시설물은 아직 미확인 상태이나, 확인된 2단의 기단석열 중앙으로 담장지(10) 석열이 남북으로 교차하여 지나가고 있고 교방지 기단석보다 교방지의 초석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부 시설은 이미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 내부는 자갈층으로 덮여 있으며 이 층에서 조선 전기말(16세기경)백자가 출토된다.


258


259

사진 256. 심약방지 257. 한말건물지・마구지・교방지 중복상태(1) 258. 심약방지 적심석과 유구 259. 심약방지 성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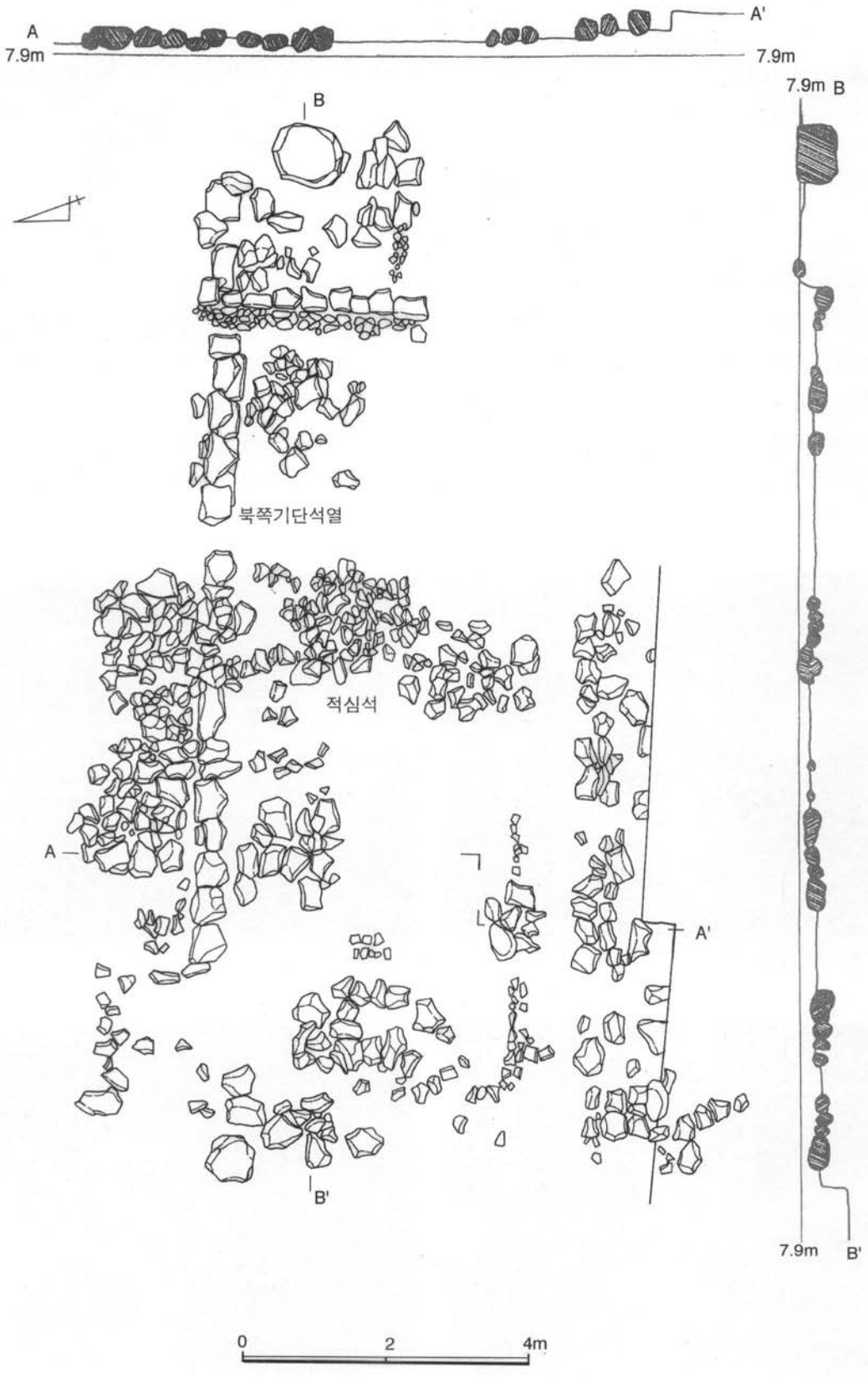


그림 32. 심약방

18. 馬廐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심약방의 북쪽에 자리한 동서장축의 건물로 교방의 서편에 직각으로 자리한 건물로 표기되었다. 이 건물지는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심약방과 교방지보다 앞서 만들어진 건물지로 판단된다.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8.5m×3.0m(25.4㎡, 7.7평) 정도이다. 초석 배치상태로 보아 정면 3칸 이상 되는 건물로 확인된다. 내부 성토층은 점토층이며 심약방 건물의 북쪽 기단석열이 하단에서 맞물려 확인된다.

건물지의 적심석은 군데군데 확인되며 조선중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건물로, 고래시설이나 일정한 내부·주변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요 용도의 건물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물지는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교방지와 심약방지보다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지로 판단되는데, 초석의 축조방식은 지반을 다진후 적심석을 채우고 그 위에 초석을 얹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47). 건물지의 남쪽기단부가 확인되는데, 노출된 기단석열의 길이는 8.5m이다. 심약방지의 북쪽 기단석열이 하단에서 맞물려 확인된다. 건물지의 적심석은 군데군데 확인되나 건물지 전체가 후대건물지와 시설물로 인해 거의 파괴된 상태이다. 건물의 축조상태로 보아 급하게 만들어진 건물지이고, 초가건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0


261

사진 260. 심약방지·마구지·담장지(10) 261. 한말건물지·마구지·교방지 중복상태(2)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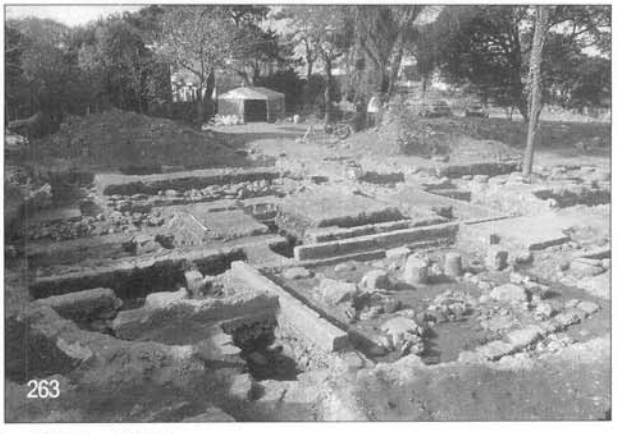

263

사진 262. 마구지·담장지 중복상태 263. A구역 한말건물지와 하층 심약방·마구지

19. 臥仙閣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연희각 북편에 자리한 건물로 표기되었다. 『知瀛錄』(1696년)에는 이익태목사가 이곳에서 『知瀛錄』을 기술했다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건물지는 연희각 건물지에서 북서편에 치우쳐 있다. 동서장축인 이 건물지는 정면 10.4m×측면 3.8m(39.5㎡, 12평 이상) 정도이다. 건물지는 황색점토층 위에 잡석을 다지고 그 위로 황갈색 점토로 성토 다짐을 하였다. 내부 온돌시설이 일부 확인된다.

건물지는 연희각 건물지에서 북서편으로 12.5m 떨어져 있다. 동서장축인 이 건물지는 측면 3칸 이상의 건물로 판단된다. 현재 노출된 건물지의 규모는 남북 3.80m, 동서 10.40m이다. 건물지의 성토층은 황색점토층 위에 잡석을 다지고 그 위로 황갈색 점토로 성토 다짐을 하였다. 황갈색 점토의 두께는 15cm이다.

현재 기단석열이 남아있는 부분은 남쪽 일부로 북쪽 기단석열은 모두 파괴되었다. 기단석열 안쪽으로 잡석을 채워 넣었다. 건물지와 관련된 초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적심석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돌무더기가 확인된다. 건물지의 내부시설은 온돌시설의 일부로 여겨지는 화구가 확인되나, 후대에 교란되었다.





사진 264. 와선각지 노출상태(동에서) 265. 와선각지 기단석열・내부적석층





사진 266. 와선각지 노출상태(북에서) 267. 와선각지 북편기단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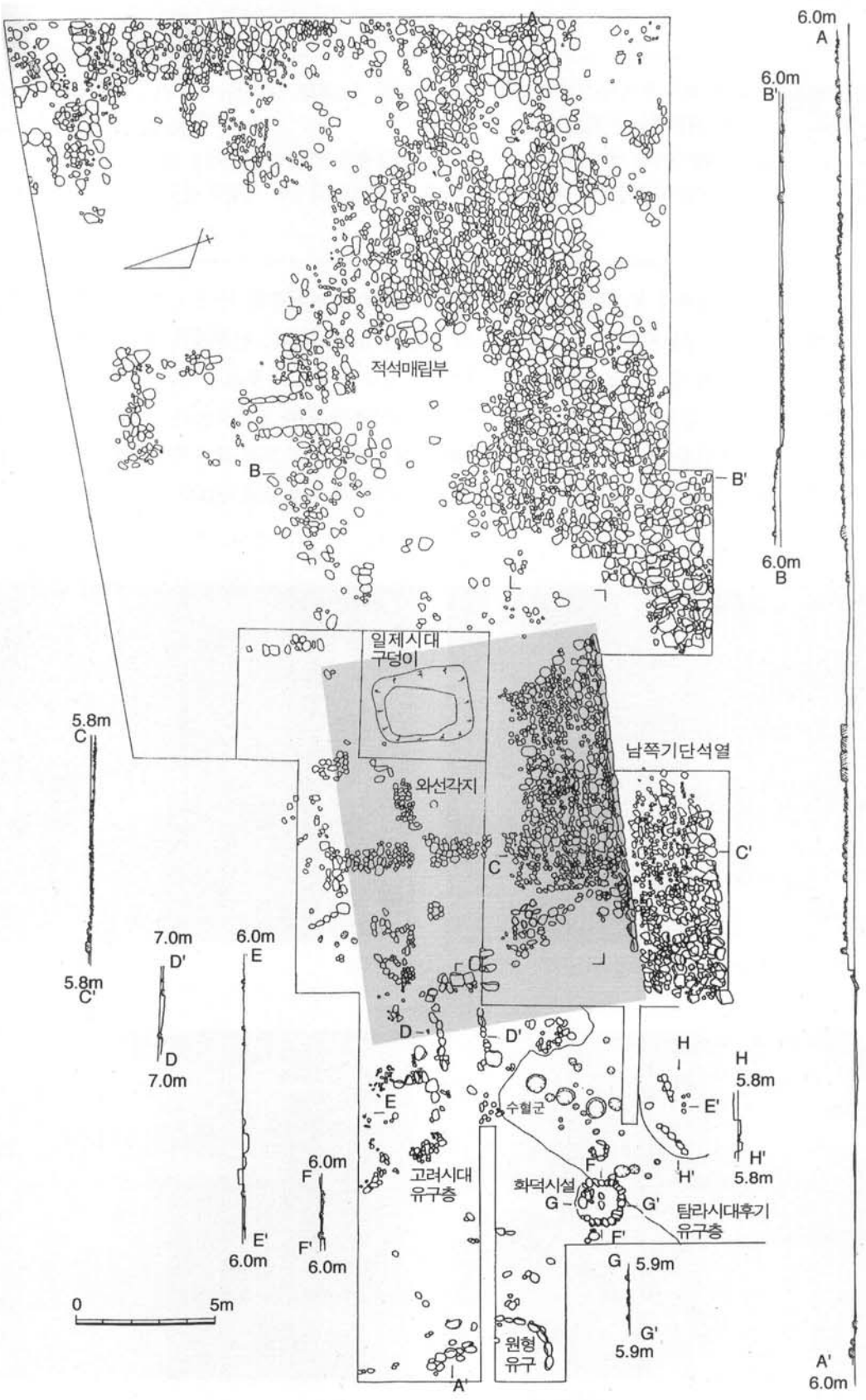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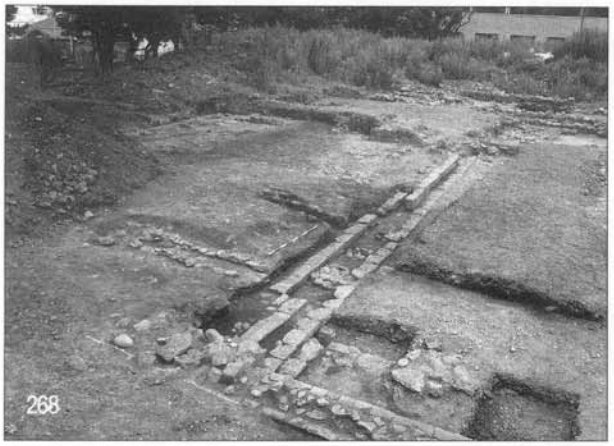

적석매립부
일제시대
구덩이
남쪽기단석열
와선각지
수혈군
고려시대
유구층
화덕시설
탐라시대후기
유구층
원형
유구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6.0m
5.8m
7.0m
5.9m
0
5m

그림 33. 와선각지

20. 軍官廳址

『耽羅防營總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탐라순력도』의 '제주전최' 그림에는 애매헌 동편에 동서장축의 남향 건물로 나타난다. 또한 『제주읍지』(정조년간)에는 홍화각 동쪽에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건물지는 영주협당지의 아래층에서 확인되었다. 애매헌과 동일시기에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장축인 이 건물지는 정면 11.0m 이상 ×측면 7.0m(77.0㎡, 23평 이상) 정도이다. 건물지의 성토층은 황색점토층이며 내부 적석층이 일부 확인된다.

이 건물지는 앞서 영주협당지의 하단에서 확인되었다. 영주협당 하층건물지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의 석재를 사용하여 건물지의 기단을 축조하였다. 건물지의 층위와 규모는 앞에 서술한 내용과 같다. 건물지의 남쪽부분은 서쪽부분보다 34cm 정도 낮게 시설되어 있다. 건물지 성토는 점토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편 기단석열 중앙으로 동일시기의 담장지(11)이 남북으로 지나가며 기단석열과 동일한 방향으로 후대의 담장지가 이 기단석열을 재이용하여 시설되어 있다(그림 30).


268


269

사진 268. 군관청지 · 영주협당지 기단석열 269. 군관청지 적심과 기단

21, 奴婢行廊 東便 回廊址 下層 建物址

조선전기 건물지로 판단되며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하부에 자리한 건물지로 적어도 정면 2칸 이상, 측면 2칸의 건물지로 완전한 유구 조사가 어려운 상태인 건물지이다(그림 18).

건물지 내부의 성토는 기와가 혼합된 황갈색 점토층으로 그 위로 소토층과 자갈층이 형성되어 있다. 소토층은 건물지의 폐기와 관련된 층위로 그 두께는 5cm 미만이다. 자갈층은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층위로 판단되는데, 앞서 노비행랑지의 성토층과 연결되는 층위이다.

기단석열은 건물지의 서쪽과 북쪽에 일부가 남아 있다. 잔존하는 서편 기단석열의 길이는 2.6m이고 북쪽은 1.7m가 남아 있다. 기단석열은 장방형 현무암제 할석을 주석재로 하여 일정하게 맞추어 축조하였다.

이 건물지와 관련된 초석은 총 3기가 확인되었다. 북서쪽 모서리의 초석 1기는 원형의 초석으로 내부에 원형의 낮은 초두를 둔 덤벙주초로, 제주도의 고려말사찰에서 발견되는 초석의 형태와 유사하다. 나머지 2기의 초석은 원형주초석으로 면이 고르다. 이 초석은 특정한 적심석없이 놓여 있으나 기와와 잔돌로 수평을 유지하려는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인다. 서쪽 기단석열의 초석간의 간격은 2.8m이고 중앙초석의 동서간격은 3.1m이다. 기단과 초석의 간격은 0.9m이다.

내부시설로는 건물지 성토층 내부에 바닥전을 겹겹이 깐 시설이 확인되었다. 현재 이 바닥전시설은 남쪽이 동쪽보다 높게 시설되어 있다. 완전한 장방형 혹은 방형의 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여 반파된 전을 서로 짜맞춰 놓은 상태이다. 전시설은 주초석보다 5cm 가량 낮게 시설되어 있어 마루바닥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외부시설로는 와적담장지와 동서 적석시설이 확인된다.





사진 270.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하층유구 271. 성토층 상면 바닥전시설

22. 營吏掌房址 下層 建物址

영리장방지의 동편 테스트피트 하층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로 상층건물지보다 약간 편서향하는 건물지로 남북장축의 동편 기단석만 확인하였다. 잘다듬은 판석형 석재를 사용한 기단석열은 연못지가 자리한 방향과 축을 이룬다(그림 25).

내부에서 확인되는 성토는 단단하게 다진 갈색토이다. 이 기단석열은 전기의 자갈층보다 하층에서 확인되며, 석열상면의 레벨과 연못축조 석열 상면과 높이차가 거의 없다. 이 건물지 남동편에는 장방형의 판석을 짜맞춘 시설이 있으나 상부에 놓인 비석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사진 272. 영리장방지 하층유구 273. 영리장방지 하층 조선전기 건물지




사진 274. 영리장방지 하층 건물지 동편 기단석열 275. 기단석열과 담장지

23. 瀛州協堂址 下層 建物址

이 건물지는 앞서 노비행랑 동편건물의 동편 15.1m 지점에 나란히 배치되어 시설되었던 건물지이다. 현재 건물지는 기단석열 일부만이 남아 있다. 이 건물지는 일제시대의 관사건물이 중앙에 자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제시대 건물의 내부 기반공사를 하면서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기단석열의 좌우 상층에 일제시대와 관련된 시멘트구조물이 남아 있다(그림 30).

건물지의 내부성토는 내대문 중앙도로 북편의 테스트피트에서 확인되는데, 층위를 보면 주 성토층은 황갈색 점토층이고 하층에는 자갈을 깔아 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교란이 심하여 초석은 확인할 수 없었고 기단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 있는 기단은 장방형의 판석을 이용하여 2단으로 겹쳐서 쌓았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앞서 연희각의 동편 기단석열의 축조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기단의 중앙부에 계단석이 놓여있다. 장방형 판석 2매를 석열의 방향과 동일하게 시설하고 난 후 석열과 계단석 사이에 잡석을 채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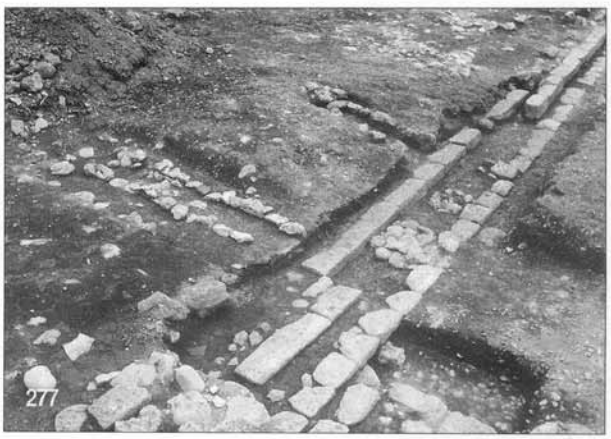



사진 276. 기단석열 277. 영주협당지 하층건물지

24. 戶籍庫 下層 建物址

호적고의 하층과 호고의 동편 기단석열 서편에서 확인되는 부석시설은 천석과 할석을 사용하여 바닥을 깐 시설이다. 동편과 서편에서는 부석이 일부 결실되었으나 북편 석열은 일정하게 바깥면을 맞추었다. 부석시설 내부에는 장방형의 매립부가 있고 내부에 초석과 황갈색 점토가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부석시설의 내부와 바깥에서 문도리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2매 확인된다. 이 부석시설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 문헌에도 나와있지 않으나 건물지의 하부 구조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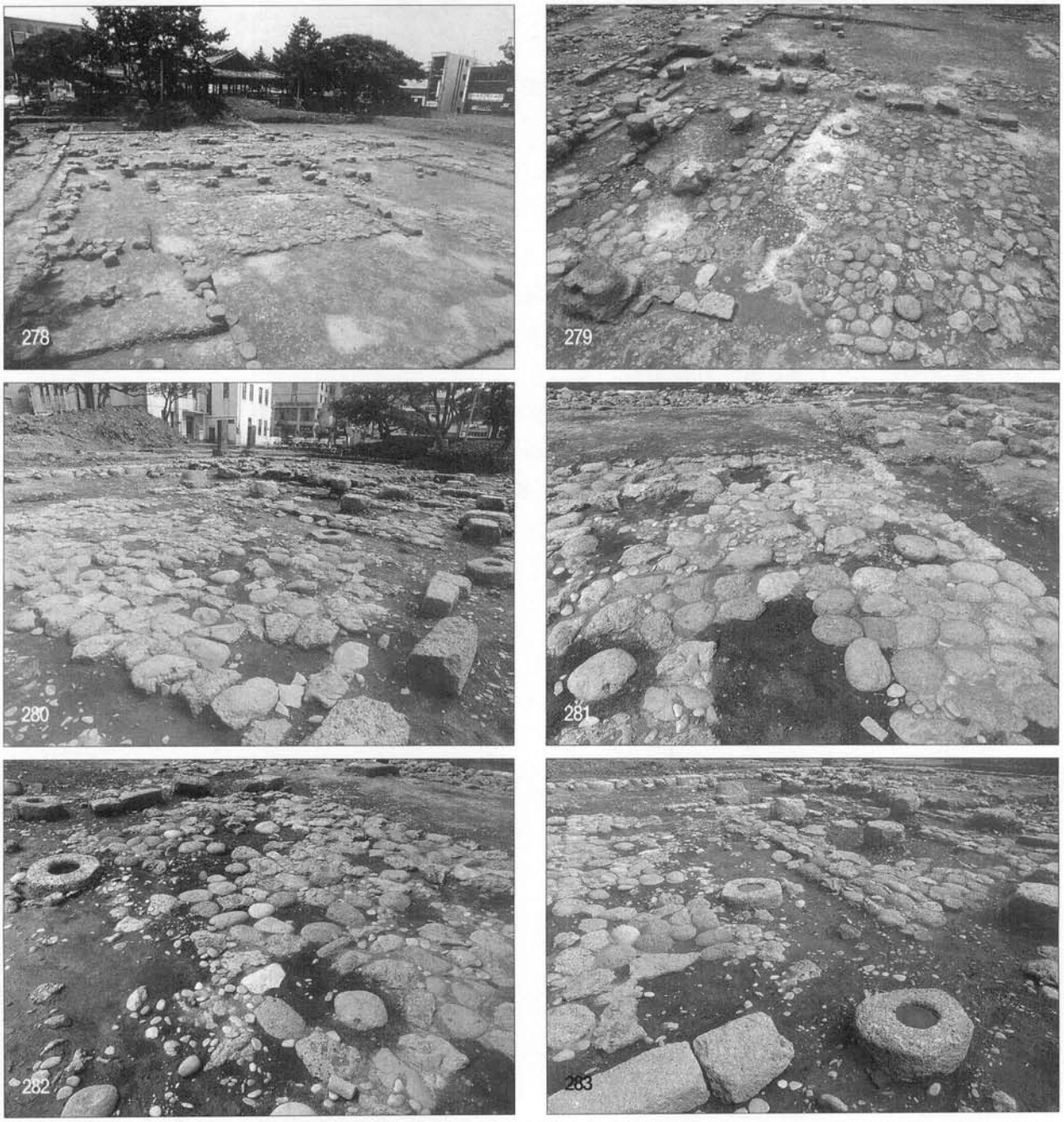


사진 278. 호적고지 하층 부석건물지와 홍화각지 마당 279. 호적고지 하층 부석건물지 원경 280. 호적고지 하층 건물지 부석상태 281. 호적고지 하층 건물지 부석상태 282. 부석상태 283. 부석상태와 문지도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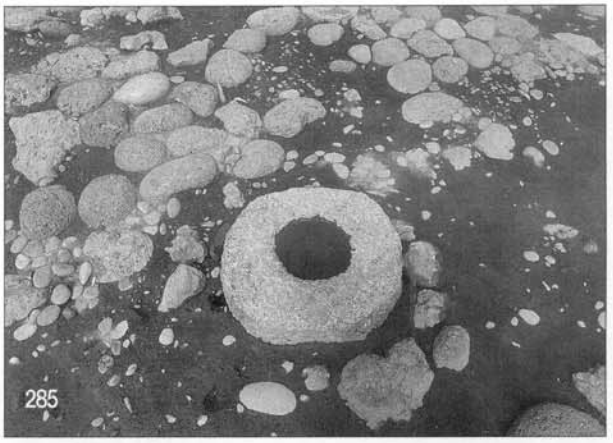






사진 284. 부석상태 세부 285. 문지도리석 286. 호적고지 하부유구 상태(1) 287. 호적고지 하부유구 상태(2)

25. 敎房址 上層 建物址

현재 확인된 기단석열은 동서 9.2m, 남북 9m로, 'ㄷ' 자형건물의 서쪽기단으로 여겨지며, 지표에서 약 10~15cm 하단에서 유구가 발견되어 일제시대 건물 및 현대건물 신축시 내부초석 및 시설물이 거의 파손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 건물지 내부에 시설되었던 초석이라고 여겨지는 7개의 원형 초석이 원상에서 이탈하여 한 군데에 모여 있었다. 이 건물의 기단석은 교방지의 초석과 담장지(7)의 상면으로 지나가고 석열이 놓인 층위도 황색 점토층(2층) 상면인 점으로 보아 교방지와 심약방지와는 축조시기가 차이가 있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단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교방지와 심약방지가 납짝한 현무암 자연석을 약간 다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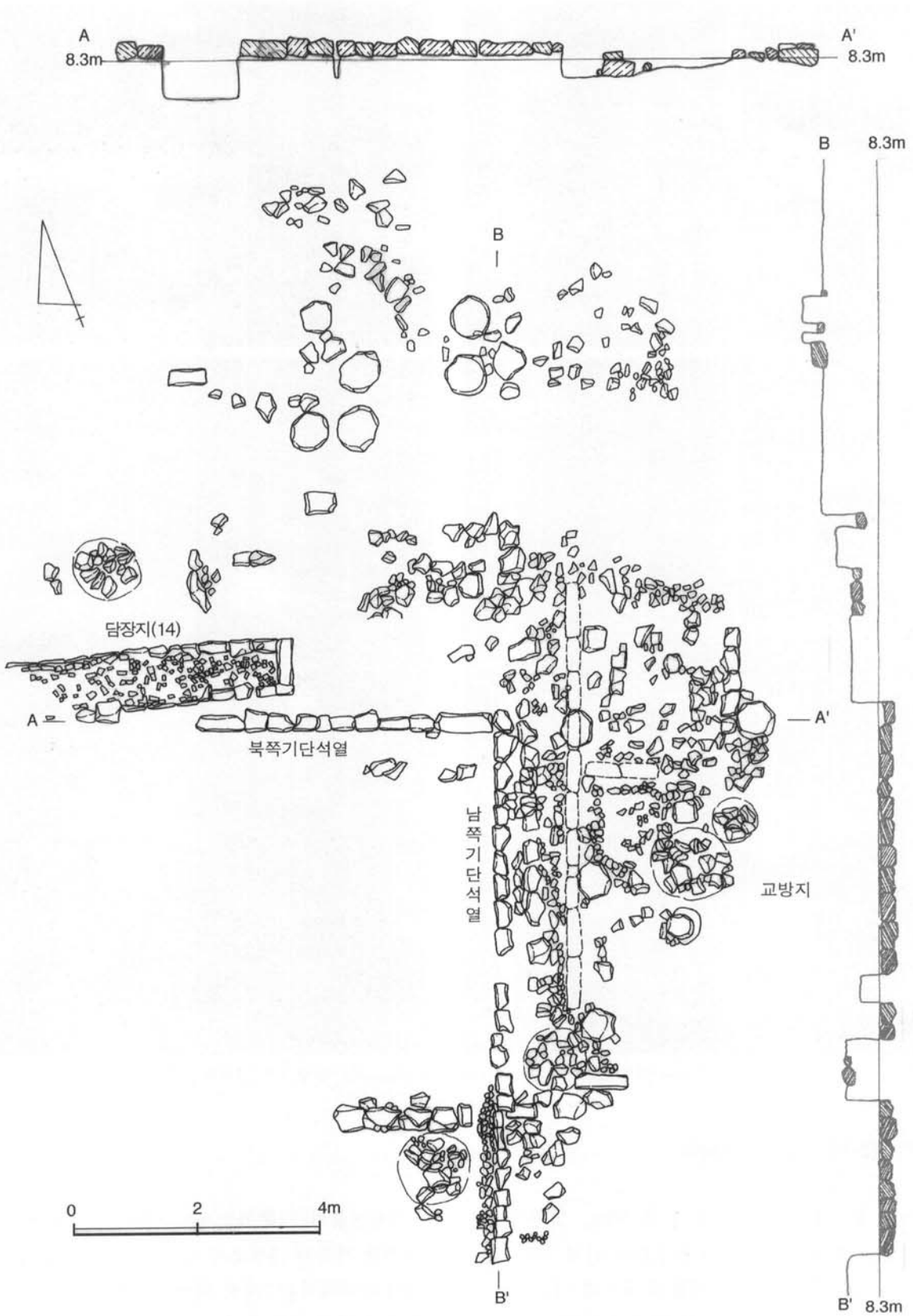


그림 34. 교방지 상층건물지

사용한 반면, 이 건물지의 기단 석열은 정교하게 다듬은 할석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담장지(11)의 축조방식과 동일하다.





사진 288. 교방지 상층 한말 건물지 · 일제시대 유구 중복상태 289. 교방지 상층 한말 건물지 축조상태

26. 戶籍庫址 上層 建物址

호적고 초석레벨보다 10cm 위에서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 역시 교방지 상층 건물지로 동일한 수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그림 6). 남북장축의 긴 건물로 동편 기단석열의 길이는 13.5m, 서편 기단석열도 이와 비슷하다. 잘 다듬은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기단은 'ㄱ' 자상으로 꺾이는 회랑식 건물인지 아니면 도로와 같은 경계석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도로 내부에서 보이는 잔 자갈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건물지의 기단석으로 잠정지었다.





사진 290. 호적고지 상층 건물지(1) 291. 호적고지 상층 건물지(2)

제4절 부속시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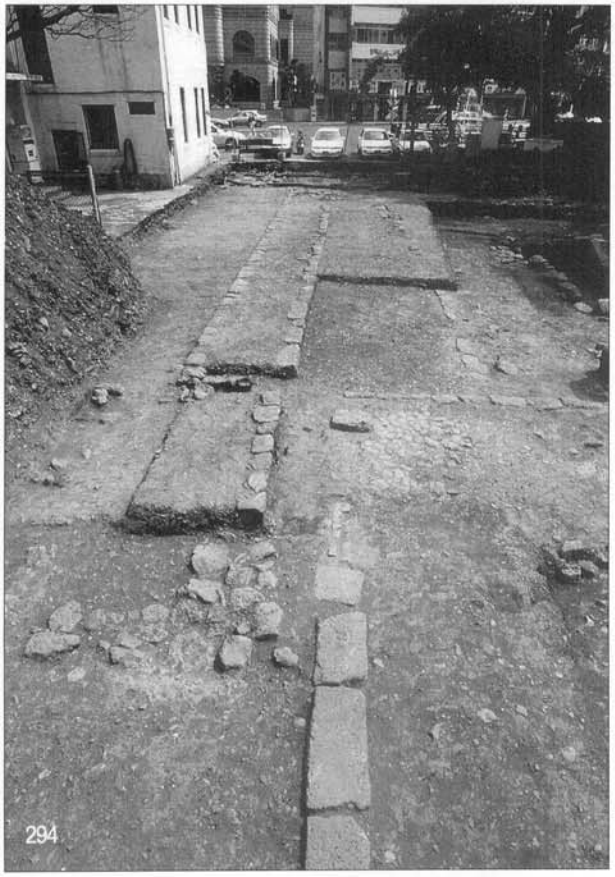
1. 도로 · 보도

1) 외대문[포정문]-중대문간 도로

현재 노출된 길이는 남북 20.0m, 폭 2.0m로 잘 다듬어진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도로의 상면은 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외대문의 진입방향과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중대문을 곧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다. 잘 다듬


292


293


294


295

사진 292. 중대문-외대문간 도로 전경 293. 도로 축조상태(1) 294. 도로 주변유구 295. 외대문-중대문간도로 세부











사진 296. 외대문지 · 중대문지 297. 진입로 발굴전(남에서) 298. 발굴중간단계 일제시대 진입로 노출상태
299. 외대문-중대문간 도로 전경 300. 도로 축조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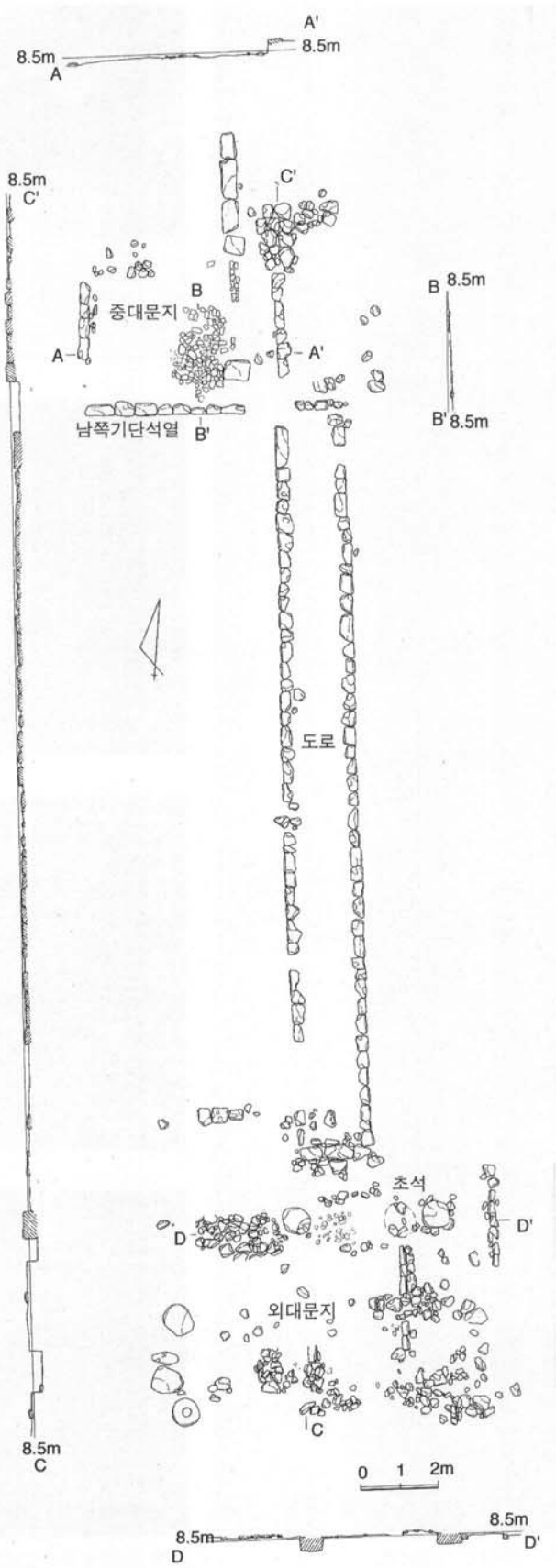


그림 35. 외대문(포정문)- 중대문간 도로

은 판석상의 석재는 상면과 바깥면을 고르게 맞추었다. 이 도로의 서편으로는 연못지와 경계하는 담장열이 지나가고 동편으로는 파출소 건물이 자리한다. 외대문과 중대문 사이에는 좌, 우위랑이 시설되었던 것이 『탐라방영총람』에 기재되어 있다.

2) 중대문-내대문간 도로

현재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29.0m, 폭 2.9m로 당시 도로의 길이는 남북 33.0m 가량으로 추정된다. 잘 다듬어진 판석을 사용해서 축조되었다. 도로의 상면은 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외대문에서 중대문으로 들어오는



사진 301. 진입로 발굴전 상태(북에서) 302. 도로상면 자갈층 303. 일제시대 관사 진입도로 304. 일제시대 관사 진입도로

보도보다 더 서편으로 기울어져 있고 레벨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대문-중대문간 보도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층위적으로는 동일층에 있다. 현재까지도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까지도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로의 동편석열이 확장되어 일제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내대문 안쪽 도로

현재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15.8m, 폭 2.6m로 당시 도로의 길이는 남북 30m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도로는 점토층 상면으로, 좌우에 할석형 보도와 판석형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제시대 건물지 축조과정에서 파괴되어 현재는 동편의 보도만이 남아 있고 서편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는 대부분 유실되고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동편의 보도끝 석열이 도로 안쪽으로 맞추어져 있어 서편의 보도끝 역시 도로 안쪽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도로는 연희각지의 기단과 같은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동 시기의 유구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다음에 기술할 보도와 더불어 연희각과 와선각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것으로 여겨진다.

4) 내대문 안쪽 보도

현재 확인된 규모는 길이 15.7m, 폭 2.3m이다. 일제시대 건물지 축조과정에서 파괴되어 현재는 동편 보도만 남아 있다. 반대편의 보도는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보도는 크게 할석형 보도와 판석형 보


305


306


307


308

사진 305. 담장지(6)과 도로 · 보도 306. 내대문지 안쪽도로와 보도(남에서) 307. 내대문지 안쪽도로와 보도(북에서)
308. 도로 축조상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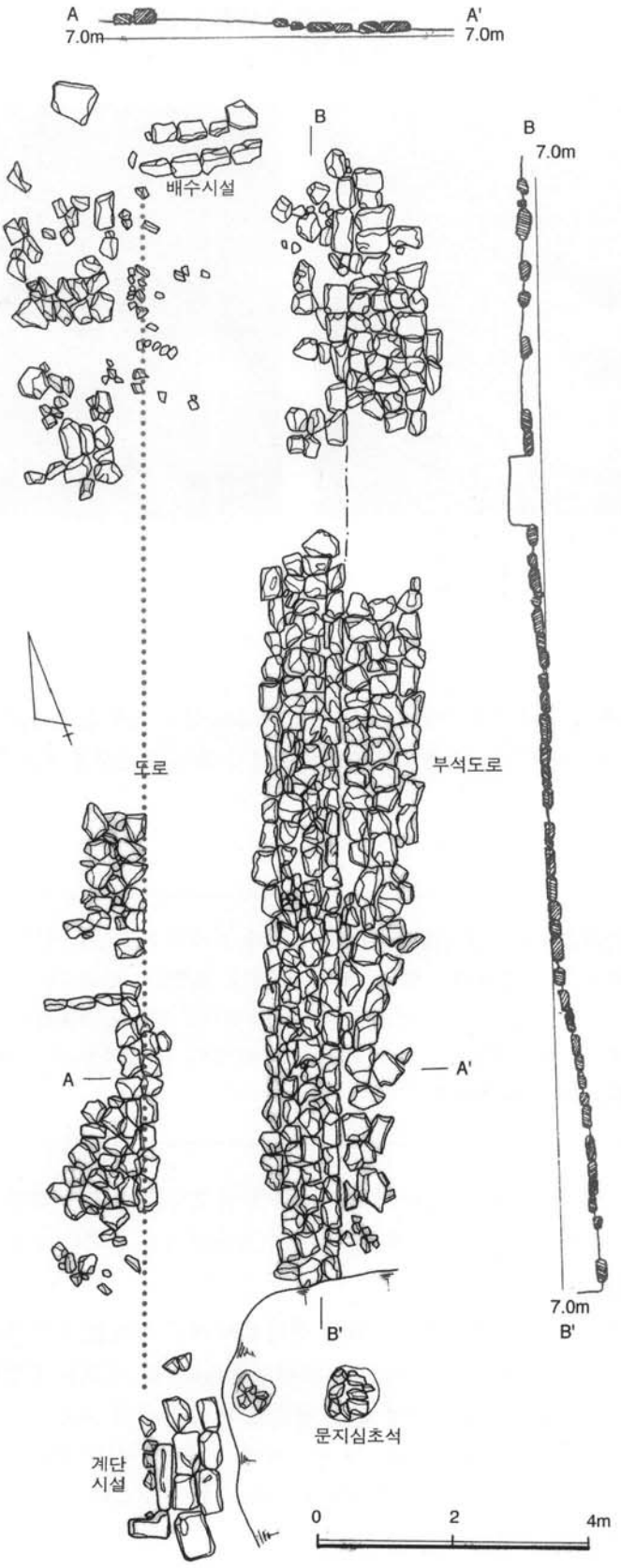


그림 36. 내대문 안쪽 도로

도로 나누어지는데, 서편의 보도는 연희각의 진입보도로, 그리고 추정 연희각 건물지 마당의 박석시설로 연결되는 보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희각 등 건물이 있었던 조선후기 건물지의 연결 부분인 마당시설은 보도에 깔린것과 같은 판석을 이용해서 연결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309


310

사진 309. 보도 축조상태(1) 310. 보도 축조상태(2)

2. 문지

문지는 사료상에 종루라고 알려진 외대문과 북쪽으로 약 20m정도 들어온 중간부분에 위치해 있는 중대문으로추정되는 문지 1개소가 확인되었고, 이 중문지 북쪽하층에서 확인된 조선전기의 문지 1개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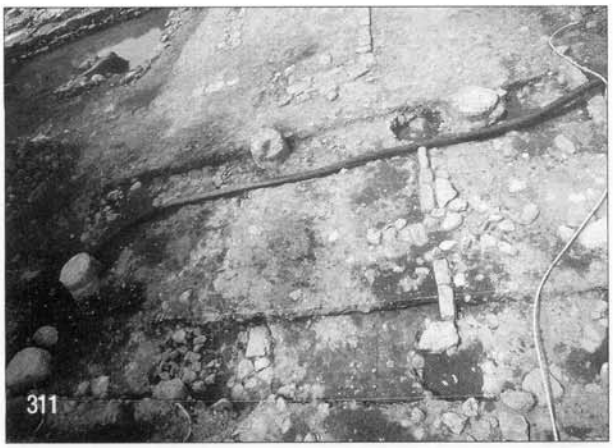
1) 외대문지

외대문지는 문헌에 '耽羅布政司', '鎭海樓'로 표기되어 있다. 관아의 관문으로 1435년 홍화각 창건시에 건립했다고 전하며, 1699년 南至薰목사가 개건했다고 한다. 2층 누각건물로 鐘樓로도 활용되었다. 여기서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성문을 여닫는다고 하며, 그 종은 묘련사의 옛 터에서 가져왔다고 전한다. 李衡祥의 『탐라순력도』(1703년),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 목관아지 정문으로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남환박물』에 의하면 총 18칸으로 나오며, 관아가 존속했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현 중앙파출소건물의 남서쪽모서리 서쪽에서 확인되며 발굴조사로 없어진 경찰서 진입로가 위치했던 지점이다. 원래는 정면 3칸 측면 2칸 대문이나 측면 1칸 규모가 발굴구역을 벗어난 도로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면 3칸, 측면 1칸만 노출되었다.

상부에 노출된 6기의 초석은 모두 원상에서 이탈된 상태임의 하부 적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부적심으로 측정한 초석간의 간격은 정면칸이 330㎝, 측면칸 350㎝였다. 성토는 황갈색점토로 15~20㎝ 정도 두께로 다져넣은 후에 초석이 들어갈 부분을 직경 90㎝ 정도로 파고 들어가 작은 천석과 잡석으로 단단하게 다져넣었다. 황갈색점토의 성토 상부의 토층상은 비교적 단순한데 잔자갈이 섞인 매립토였다. 이렇게 단순한 층위상을 보이는 것은 유구가 확인되는 지점에 현대에 매설한 고압선과 상수도관이 매설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매설할 당시에 파괴된 흔적은 하층에서도 확인된다.

초석은 직경 60㎝ 내외의 원형으로 중층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상단과 하단 초석을 구별하였는데 주변에 노출된 초석은 상하가 뒤집어진 체 놓여있는 것도 있으며 지표조사시에 확인되었던 돌출부와 함몰부가 뚜렷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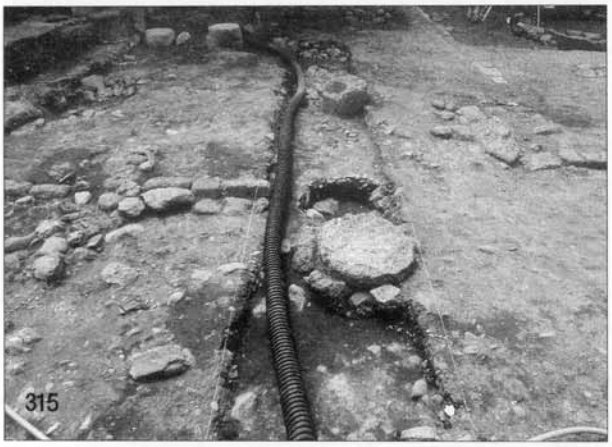








사진 311. 외대문지 312. 외대문지(동에서) 313. 외대문지(서에서) 314. 외대문지 발굴상태 315. 외대문지 초석과 성토
316. 외대문지 서편 초석 317. 외대문지 중앙 초석 318. 외대문지 북편 중앙초석



사진 319. 문지초석간 석열 320. 적심석 321. 이탈된 초석구덩이 322. 원형적심석과 이탈된 초석
323. 기단과 바닥다짐 324. 원형구덩이와 적심상태 325. 도로 · 문지 전경

대석 초석들은 모두 외대문지의 초석들이다.

황갈색점토 밑으로는 기와를 깔아서 편평하게 다진 시설이 일부 확인되며, 정면칸의 중앙초석사이에 잘다듬은 소형 판석을 세워서 맞춘 석열 일부가 있다. 중앙진입구 초석과 같은 방향으로 약 1m가량이 남아 있다. 이 석열의 동편부는 고압선을 매설할 당시에 교란되었다.

2) 중대문지

외대문과 일직선상에 있으며, 외대문지 도로가 끝나는 북단에 위치한다. 흑색부식토와 잔 자갈이 섞인 교란


326


327


328


329


330


331

사진 326. 외대문지에서 바라본 중대문지와 도로 327. 중대문지 전경 328. 중대문지 전경
329. 중대문지 석열과 바닥 330. 중대문지 기와열과 성토 331. 중대문지 기와바닥 다짐상태

된 층 밑에서 확인된다. 외대문지 도로보다 약간 올라가서 시설된 도로가 약 2.5m정도 남아 있는 바로 밑층에서 확인된다. 현재 동서 3.9m의 남쪽기단과 남북 2.0m 정도의 서쪽기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동서장축의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에 보수된 도로는 중대문지와 약 0.6m 간격으로 진행하는데 토층상으로는 이 지점을 경계로 하여 동쪽과 서쪽의 토층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쪽은 흑색부식토로 파괴된 반면 서쪽부분은 성토층으로 판단된다. 잔자갈과 함께 기와가 고르게 깔린 황갈색토였다. 토층이 달라지는 곳을 경계로 한 지점에서 남북장축의 잘 다듬은 판석을 사용한 기단이 확인된다. 이 기단은 중대문과 관련된 석재임이 분명하나 더 이상의 해석이 어렵다. 또한 일부가 남아 있는 서쪽기단과 연접해서 진행하는 남북방향의 석열도 해석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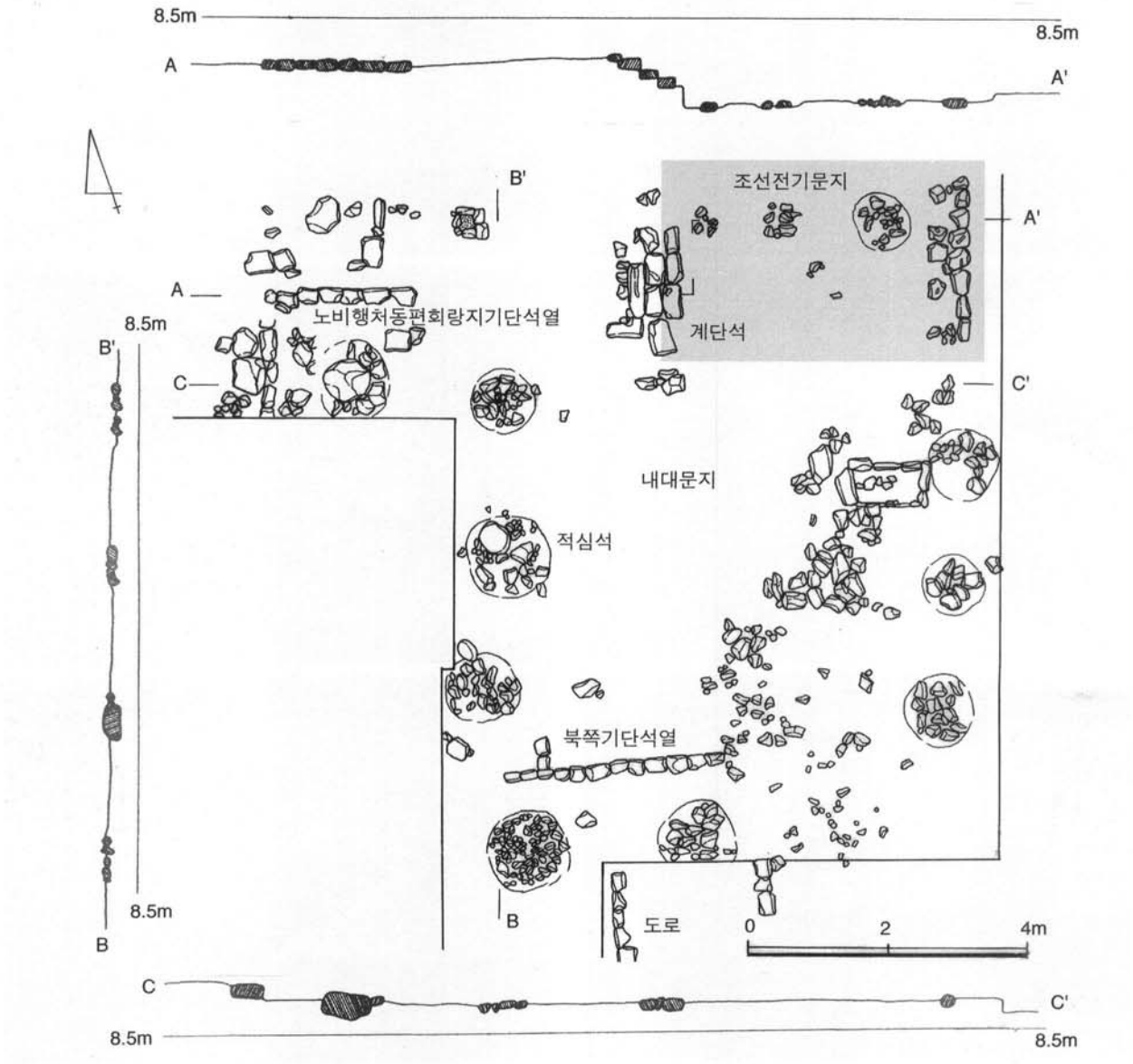


그림 37. 내대문지 · 조선전기 문지

3) 내대문지

외대문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관아중심도로(2)의 끝부분에서 확인되었다. 2기의 초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심석만이 확인되었으며 적심간의 거리는 2.4m이다. 적심은 잡석으로 채워져 있었고 가공된 기단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지내부 동편에 후대에 파괴된 매립층이 보이고 바닥에는 작은 자갈이 넓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문지 동편 부분에 장방형의 온돌시설이 보이는데 이는 다른 건물지의 내부시설로 판단된다. 이 문지는 내대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대문과 내대문 사이는 보도(1)에 의해 연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확인된 적심석은 총 6군데이며 일부는 발굴구역 밖으로 벗어나 있어 전체적인 문지의 규모는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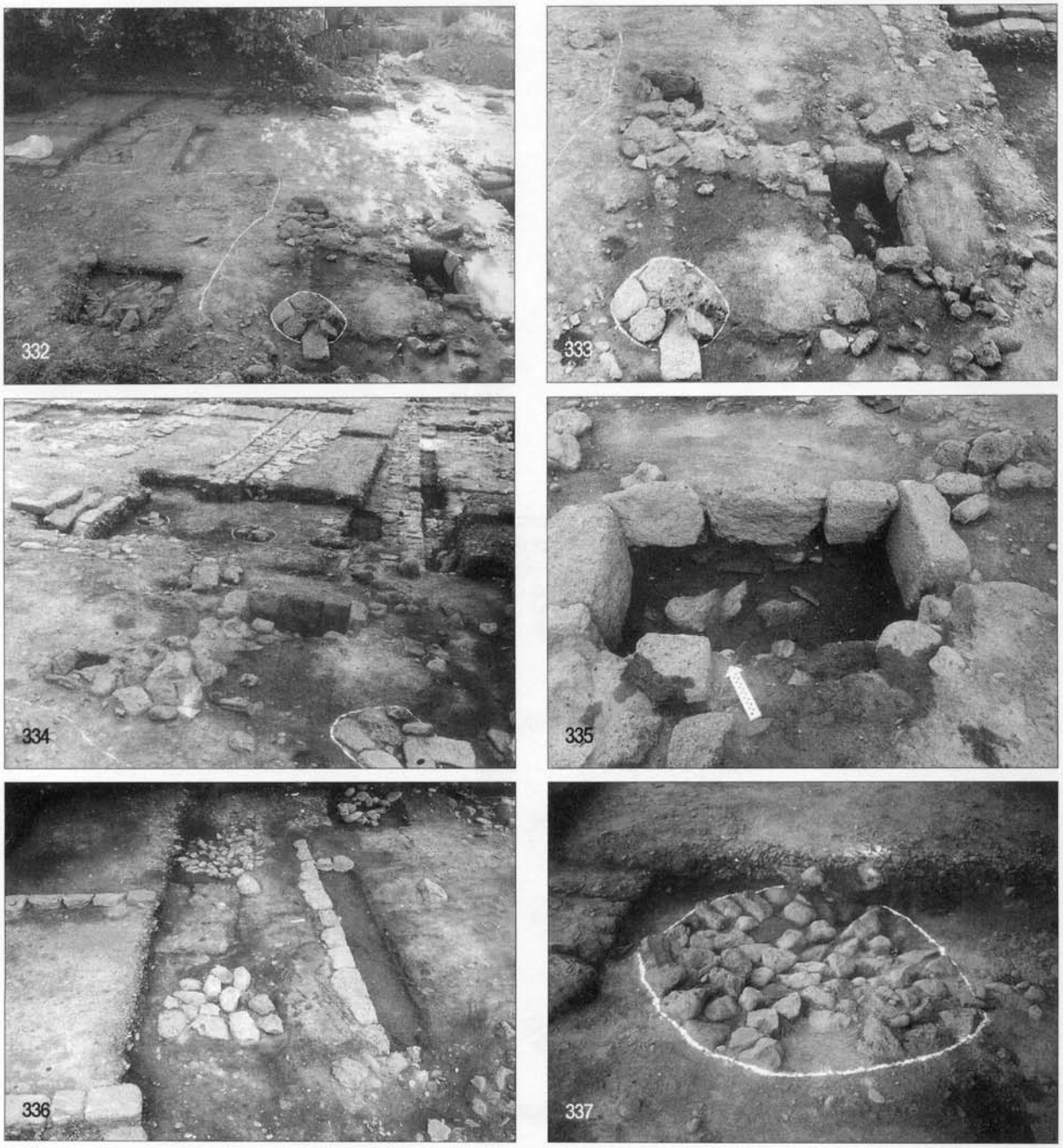


사진 332. 추정 내대문지 전경 333. 추정 내대문지 내부 석열과 유구 334. 추정 내대문지와 조선전기 문지
335. 추정 내대문지 내부시설 336. 조선전기 문지석열과 적심 337. 조선전기 문지 적심상태

4) 조선전기 문지

내대문지와 도로(2)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앞서 내대문지와는 층위상으로 자갈층과 점토층밑에서 확인되었다. 문지 심초석만이 나란히 3군데가 확인되었다. 문지 심초석은 잡석으로 채워져 있으며 심초석간의 동서길이는 2.0m이다. 현재 상태로는 전체적인 문지의 규모는 알 수가 없다. 레벨상으로 앞서의 내대문지와 0.8m의 차이가 나며 도로와도 20cm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전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38. 조선전기 문지(서에서) 339. 조선전기 문지 적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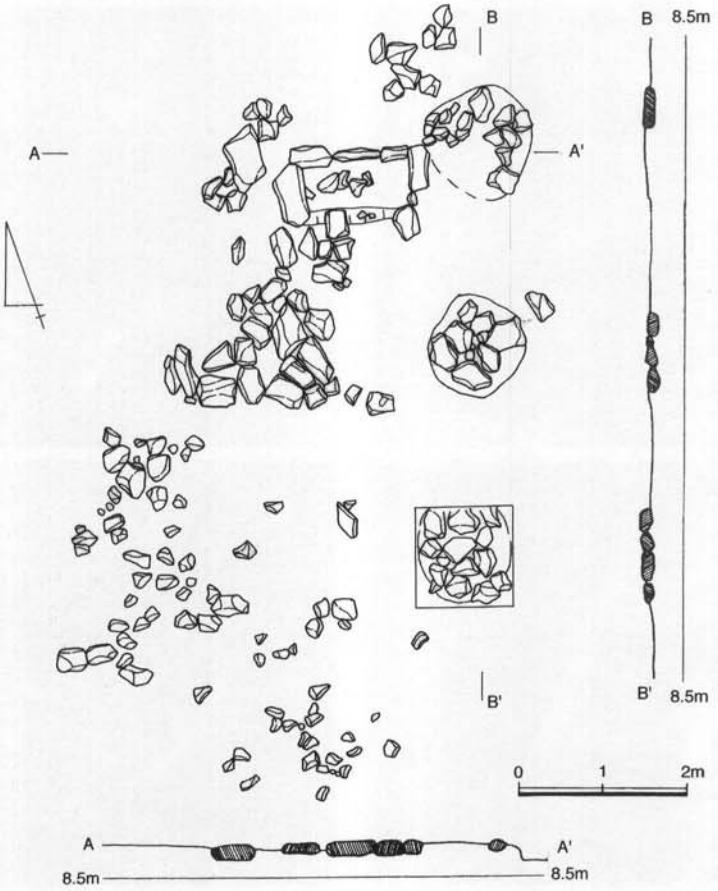


그림 38. 내대문지

3. 연못 · 우물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에 우연당 남쪽에 '池島' 로 표기되어 있어 현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문헌에 의하면 1526년(중종 21)에 李壽童목사가 성 안에 우물이 없어서 만들었고, 양대수 목사(제주목 재임기간:1592~1595년)때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메웠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본 보고서의 소행정지 바로 앞쪽 원형우물지로 판단되며 이 연못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40

1) 연못지

연못지는 영리장방지 남쪽에 자리하며, 외대문과 중대문간 도로와 담장을 경계로 서쪽에 자리한다. 연못의 길이는 동서 13.5m, 남북 7.7m 정도이다.

조선전기의 자갈층과 생토층을 파고 들어가 시설되었으며, 현재 가장 잘 남아있는 북쪽 호안석축은 현재 3단이 확인되었다. 가장 상단인 3단 석축은 잘다듬은 할석을 세워맞추어서 석축의 높이가 일정치 않으나, 그 밑 2~3단 석축은 판석형석재를 사용하여 수평면을 고르게 맞췄다. 동편호안석축은 2단이 확인되며 서쪽과 남쪽 호안석축은 1단만 남아 있다. 또한 남쪽은 바닥 생토암반이 올라가는 면을 그대로 살려 1단의 석축을 올리거나 그냥 토축만을 하였다.


341


342

사진 340. 연못지 전경 341. 연못지 원경(남동에서) 342. 연못지 전경(남에서)

연못지의 단면 토층상황을 보면 1층은 잔자갈층으로 흑갈색부식토와 혼재되어 있고 기와편과 잡석이 포함되어 있는 층이다. 2층은 흑갈색의 점토층으로 하층으로는 생토암반층이 이어지며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2층은 생토암반을 굴착하여 일정량의 점토로 굴착면을 단단하게 다진후에 연못지 벽석을 쌓아놓았던 층이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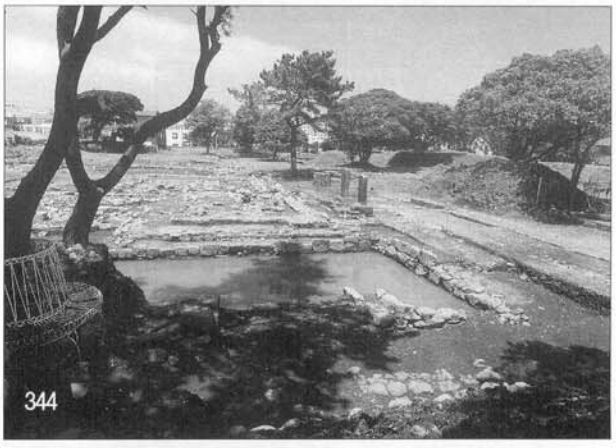
한 석축의 사이 사이의 공간은 황갈색의 점토로 채워 공간을 메꾸어 놓았다.

연못지 내부 퇴적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평기와와 백자편이 확인되었다. 평기와의 문양은 변형어골문과 선문, 중호문 등이었으며, 백자편은 내부에 명문이 음각된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관련시설물은 우물지 북서쪽모서리부터 시작되어 우연당남쪽의 동서석열군 밑까지 확인되는 길이 7m규모의 수로가 있다. 이 수로의 성격은 연못의 저수량이 많을 경우에 넘쳐나는 물을 이 수로를 통해 북서쪽의 공지로 흘려보내는 용도였다.

연못지 동편담장은 2중으로 된 담장으로 일부 다듬은 할석을 사용하고 내부에 잡석을 채워넣었다. 이 담장과 직교하는 우물지 남쪽에서 확인되는 담장은 현재 1열만 노출되었으나 2중담장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담장과 외대문지를 둘러싼 담장사이의 공간은 발굴지의 토사를 쌓아놓은 관계로 발굴조사되지 못한 체 발굴을 종료하였다.


343


344


345


346

사진 343. 연못지 전경(남서에서) 344. 연못지 전경(동에서)
345. 연못지 전경 346. 연못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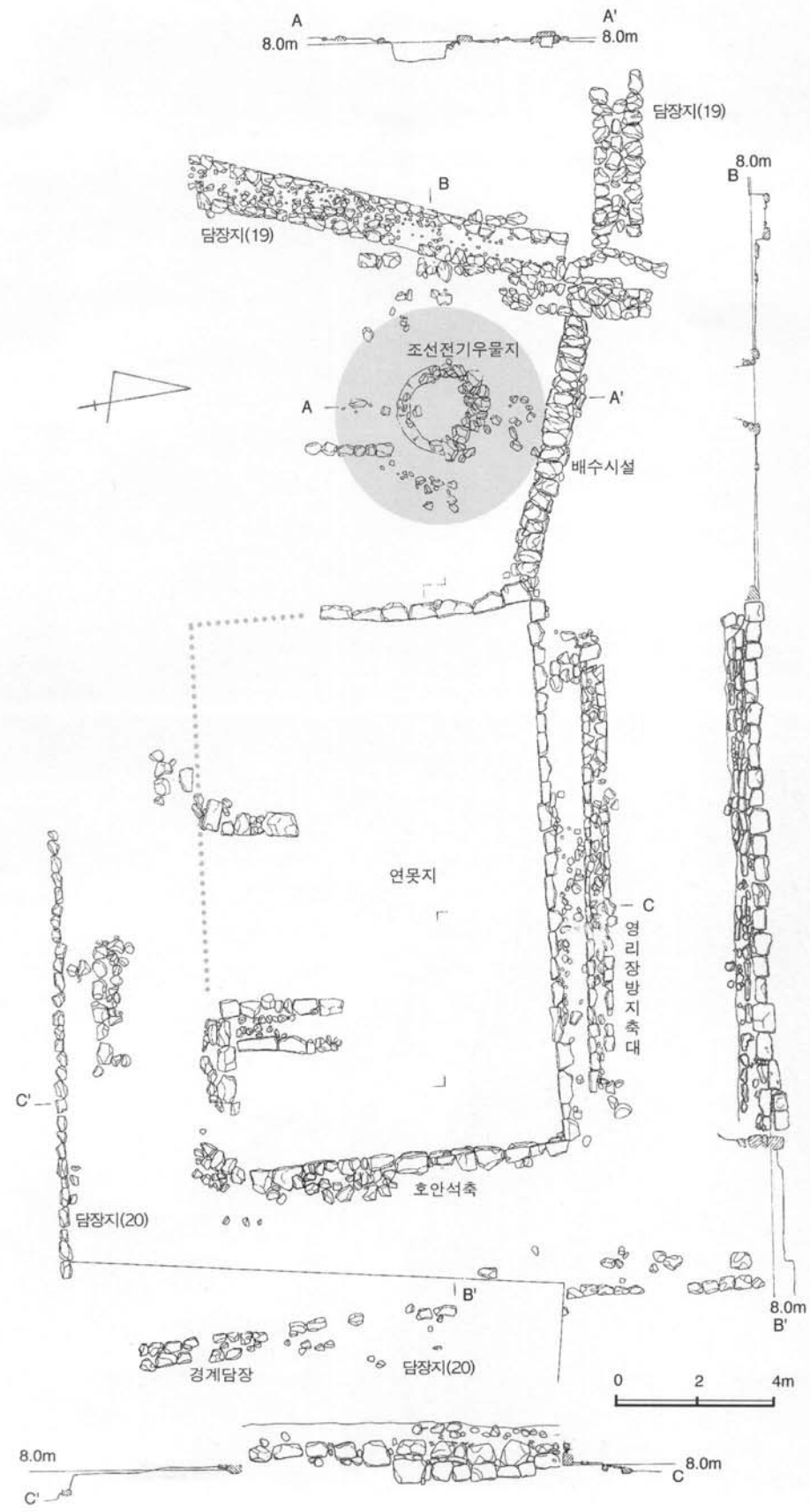

A
A'
8.0m
8.0m
담장지(19)
B
8.0m
B
담장지(19)
조선전기우물지
A
A'
배수시설
연못지
C
영리장방지축대
C'
호안석축
담장지(20)
B'
8.0m
B'
경계담장
담장지(20)
0
2
4m
8.0m
C'
C
8.0m

그림 39.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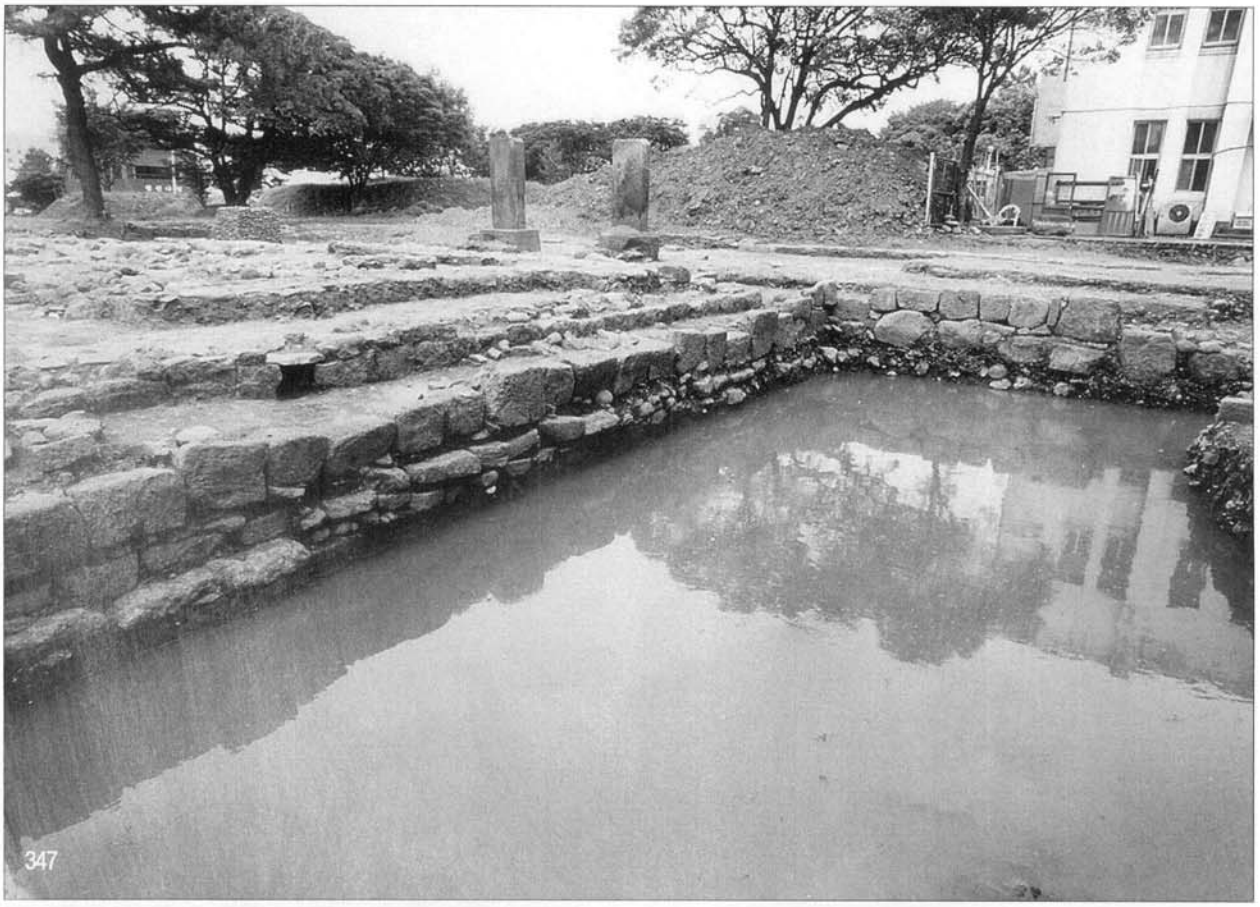




사진 347. 연못지 근경(서에서) 348. 연못지 근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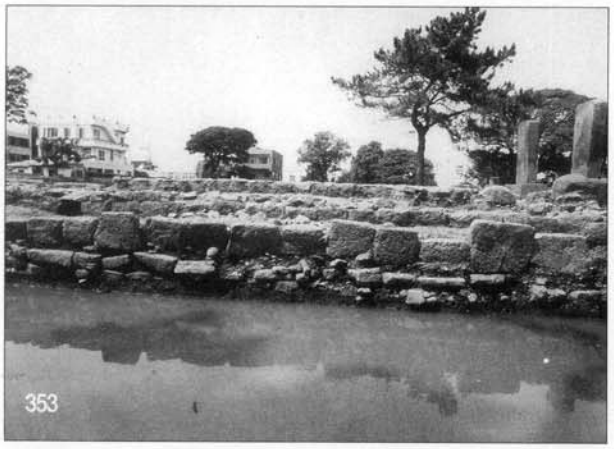








사진 349. 연못지 전경(남에서) 350. 연못지와 석축(서에서) 351. 연못지와 석축(동에서0 352. 연못지 북편 호안석축
353. 연못지 북편 호안석축 354. 호안석축 축조상태 355. 호안석축 축조상태 356. 배수로와 북서편 호안석축 마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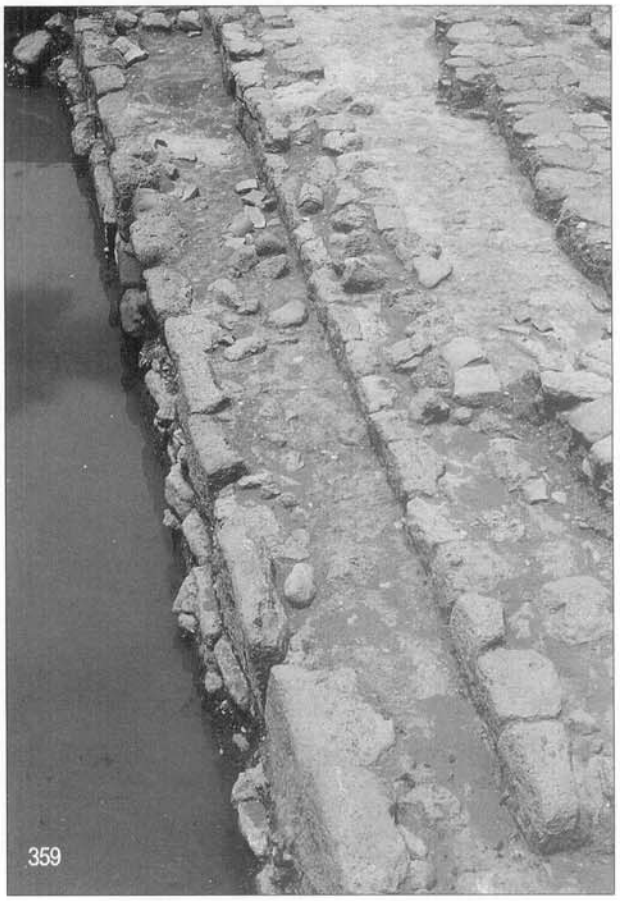












사진 357. 연못지와 주변유구 358. 연못지 북쪽유구 중복상태 359. 연못지 석축열 축조상태 360. 연못지 축조상태 세부
361. 배수로 맞물림상태 362. 연못지 남쪽 경계석열 363. 연못지 남쪽 담장과 유구















사진 364. 영리장방지 외곽석축과 출수구 365. 연못지 서편 배수로 366. 배수로와 주변유구 중복상태
367. 배수로와 원형우물지 368. 배수로 축조상태 369. 배수로 축조상태(서에서) 370. 연못지 서북모서리 석축 맞춤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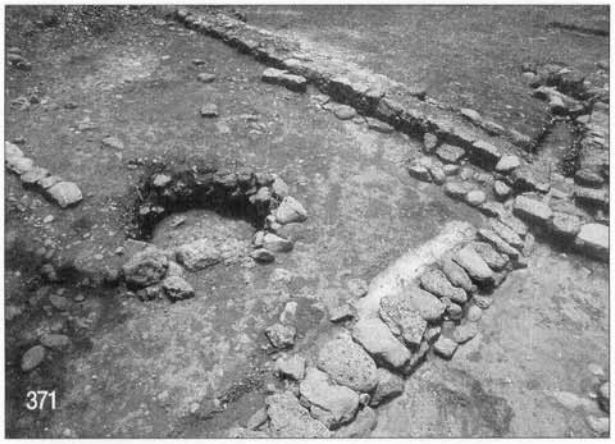














사진 371. 배수로와 원형우물지 · 담장지(20) 372. 연못지 상면 석열유구(동에서) 373. 배수로 축조상태 374. 연못지 상면 석열유구(북에서) 375. 석축 맞물림상태 376. 연못지 매립층 377. 연못지 남쪽 성토층 굴착부(석축열 이탈상태)

2) 우물지

(1) 조선전기 원형 우물지

층위상으로 소행정보다 이른 시기에 매립되어진 것으로 보아 문헌에 나와 있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매립했다는 우연당일 가능성이 짙은 못지이다.

소행정지의 동편으로 2.9m 떨어져 축조되어 있다. 이 우물지는 할석과 자연석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정교하게 쌓아올렸다. 처음에 유구를 노출시켰을 때는 원형의 우물안에 자연석을 매립한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방형우물지를 축조하기 이전에 이 우물지를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토층상 점토층이 퇴적된 후에 소행정이 축조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우물의 규모는 직경 2.2m이고 현존 깊이는 2.5m이다. 생토층을 파고 들어가서 시설되어 있는데 바닥은 생토에서 2m 가량 내려가 있다. 우물지는 안쪽으로 정연하게 맞춰 원형으로 만들었고 바깥쪽은 자연석인 상태 그대로 축조하였는데, 첫 번째 단을 올리고나서 그 위에 흑갈색 점토를 얹어서 다지고 다시 두 번째 단을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출토유물로는 상층에서 분청사기와 기와편을 볼 수 있으나 우물지 내부의 하층에서는 암반위로 흘러나오는 물과 진흙이 쌓여 있었고 기와편이 몇점 보일뿐 도자기 등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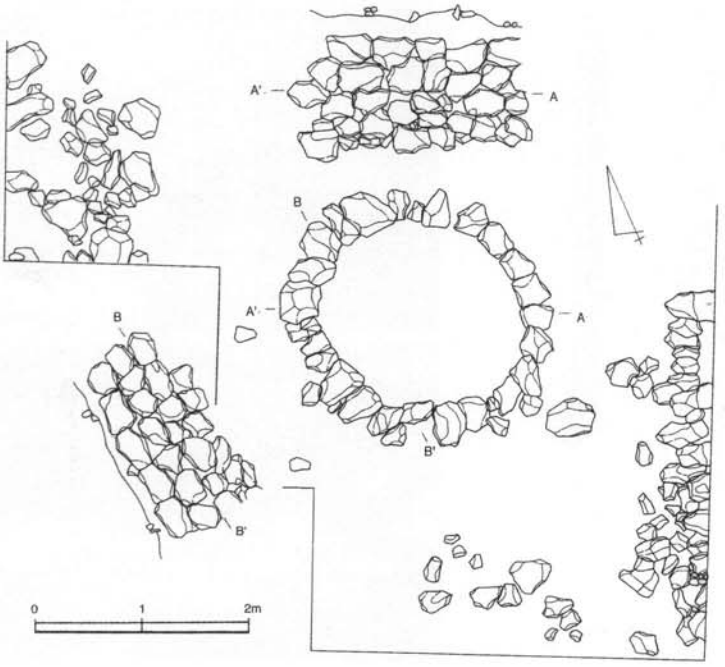


그림 40. 조선전기 원형 우물지









사진 378. B구역 조선전기 원형우물지 상면 노출상태
379. B구역 조선전기 원형우물지 상면 제거후
380. B구역 원형우물지
381. B구역 원형우물지 바닥과 석축축조상태

(2) 조선전기 우물지

연못지 서편에서 확인된 우물지이다. 상면에서 잡석무더기로 확인되었으나, 외곽의 돌들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부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를 들어 내었다. 조사 결과 이 유구는 우물지로 확인되었다. 석축은 북쪽 일부에만 남아 있고, 우물지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만들다가 중도에 그만 둔 우물지로 판단된다. 황갈색 토가 나타나는 바닥층까지 파 들어 갔으나 하부 시설이 완전한 상태를 보이지 않았다. 천석과 괴석을 사용하여 둥글게 축조하다 만 흔적이 뚜렷하다. 우물의 직경은 약 210㎝ 정도이다. 바로 옆에 연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한 곳에 우물이 관정된 것은 음용수의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물지의 바닥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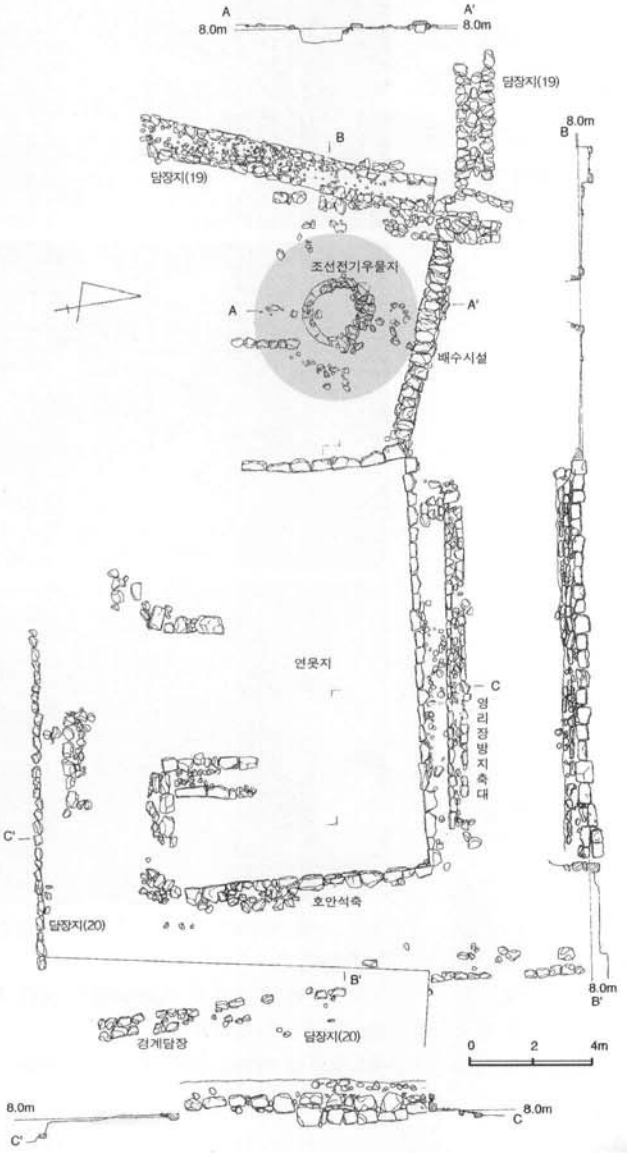


그림 41. 조선전기 우물지











사진 382. B구역 소행정지내 방형우물지 383. B구역 원형우물지 상면 384. B구역 원형우물지와 주변유구 385. B구역 원형우물지 석축축조상태 386. 원형유구

(3) 조선후기 우물지

우연당 서쪽에 자리한 우물지로 황갈색 점토를 파고 들어가 시설되었다. 이 곳의 층위는 비교적 단순하여 근대 매립토층 바로 밑으로 황갈색토가 나타난다. 관아지의 다른 지점에서 나타나지 않는 단순층위로 주변에 아무런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일시에 매립된 토층이라고 여겨지며, 우물 내부에서 복합문 기와와 유리제품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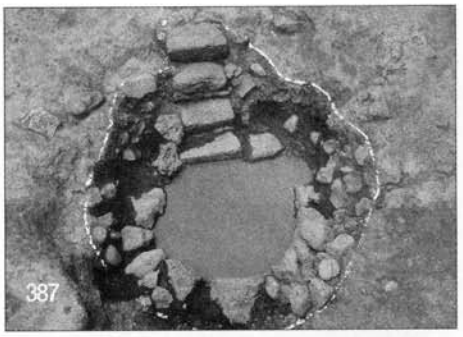




사진 387. D구역 조선후기 우물지
388. D구역 조선후기 우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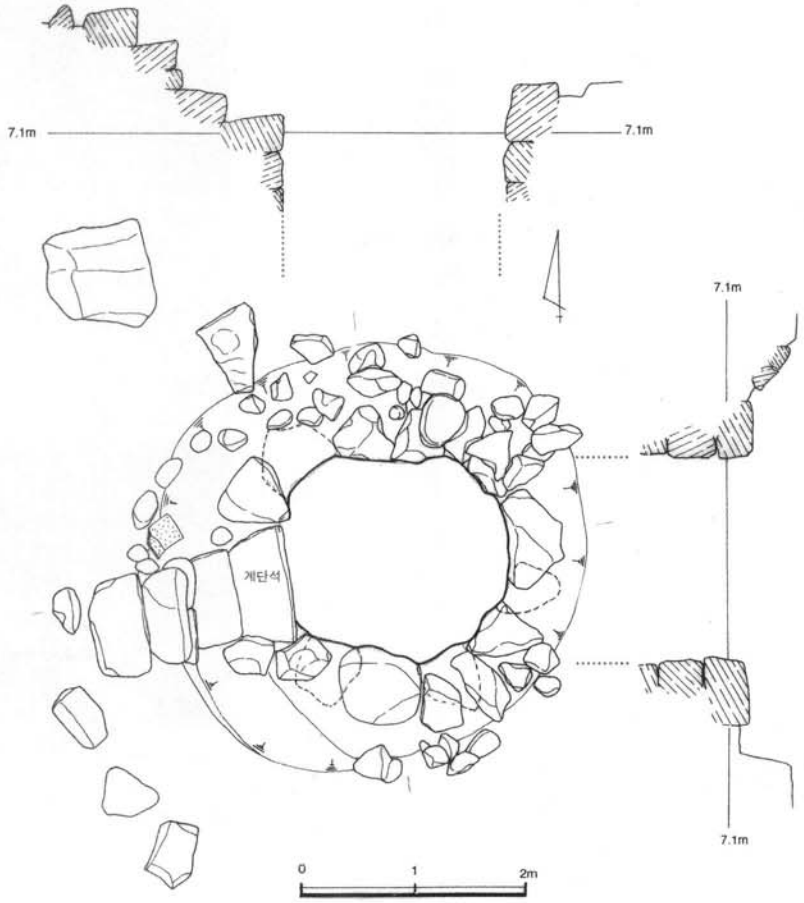


그림 42. 조선후기 우물지

4. 담장지

제주목관아지에서 확인된 담장지는 건물지 배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담장지는 총 16개소가 확인되었고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동일지점에 중첩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조선초기의 담장지는 와적담장지가 주이고 조선후기의 담장지는 할석형담장지가 대부분이다. 현존하는 담장도 2개소가 있다.

1) 담장지(1)

연희각의 남쪽, 노비행랑지의 동편하단부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노출된 잔존길이는 4.7m이고 폭은 0.5m이다. 담장지의 방향은 남북으로 향해 있고 판석열로 담장 기초를 축조하고 난후, 기와담을 쌓아올린 와적담장이다. 담장지(2)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축조되어 졌고 건물지군 내부의 담장으로 판단된다. 이는 담장지 중앙에 자리한 협문지로 알 수 있다. 협문지는 담장지 밖으로 타원형초석이 동서로 놓여 있는데 초석간의 간격은 1.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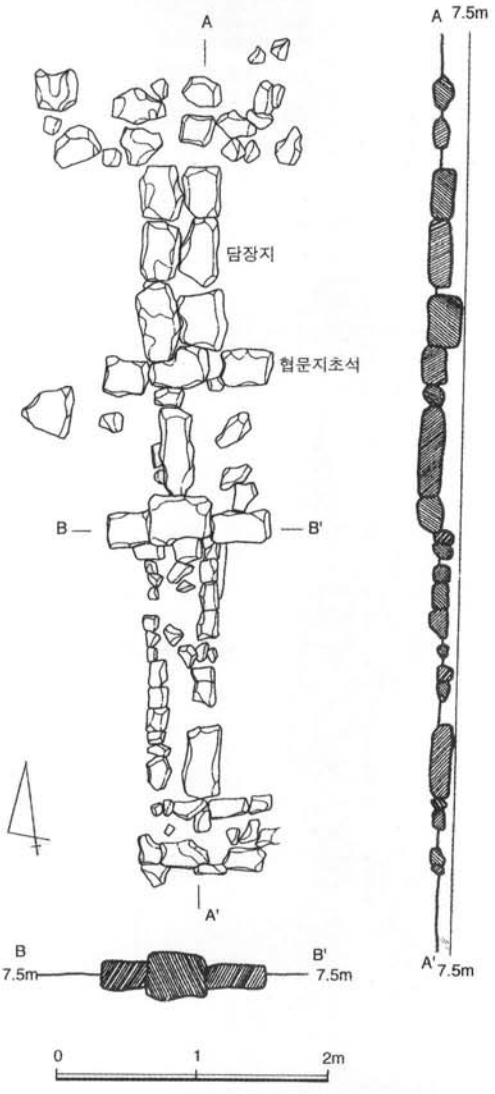


그림 43. 담장지(1)





사진 389. 담장지(1)
390. 담장지(1)과 협문지

2) 담장지(2)

노비행랑지 동편회랑지의 서쪽하단부에서 확인되며 담장지(1)과 8.5m의 간격을 두고 평행배치되어 있다. 현재 노출된 길이는 3.9m이고 폭은 1.0m로 확인되었다. 담장지의 방향은 남북으로 놓여 있고 남쪽끝부분에서 직각으로 담장지(3)과 연결된다. 이 담장지 역시 와적담장지로 연회각지 동편 내부 하단에서 확인되는 와적열과 남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와적담장의 흔적은 2단만이 현존하며 발견되는 기와는 모두 평기와로 '만호' 명와도 일부 확인된다.



사진 391. 담장지(2),(3)

3) 담장지(3)

담장지(2)와 직각으로 꺾이면서 축조되어 있다. 방향은 동서로 놓여있고 그 잔존길이는 1.6m이고 폭은 1.0m이다. 이 부분에 후대 건물지 및 담장지가 들어서면서 파괴상태가 심하다. 이 담장지는 담장지(1), 담장지(2)와 함께 건물지 군락내 경계분할을 하기 위한 조선초기의 담장지군락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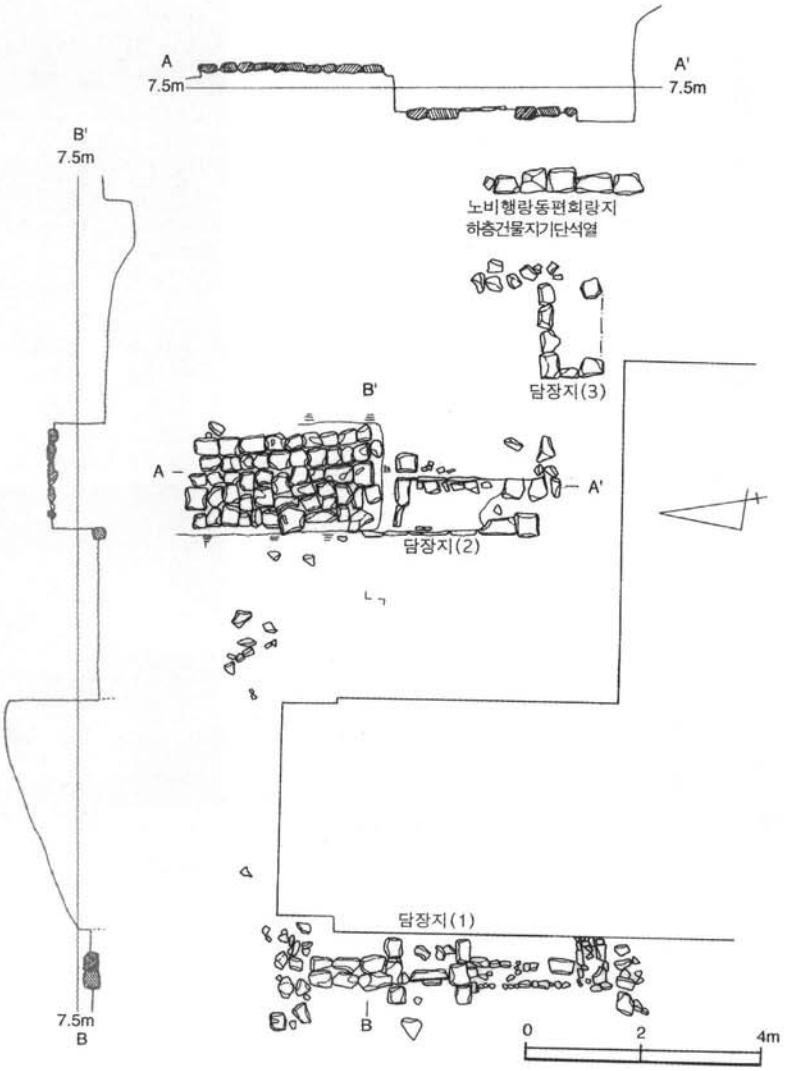


그림 44. 담장지(2), (3)

4) 담장지(4)

이 담장지는 내대문 도로의 하단부에서 확인되었다. 잔존길이는 14.4m, 폭 0.8m로 조선시대 시설물이 연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담장지의 남쪽과 북쪽끝의 파괴가 매우 심한 상태이다. 담장지의 시설방향은 조선초기의 와적담장보다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담장지의 축조방법은 조선초기의 판석형 와적담장과는 달리, 할석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든 석축담장으로 판단된다. 원형우물지와 관련된 시기의 담장으로 판단되는데 주변성토에서 조선청자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와적담장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와적담장지 시기의 시설물이 이 담장지를 파괴시킨 점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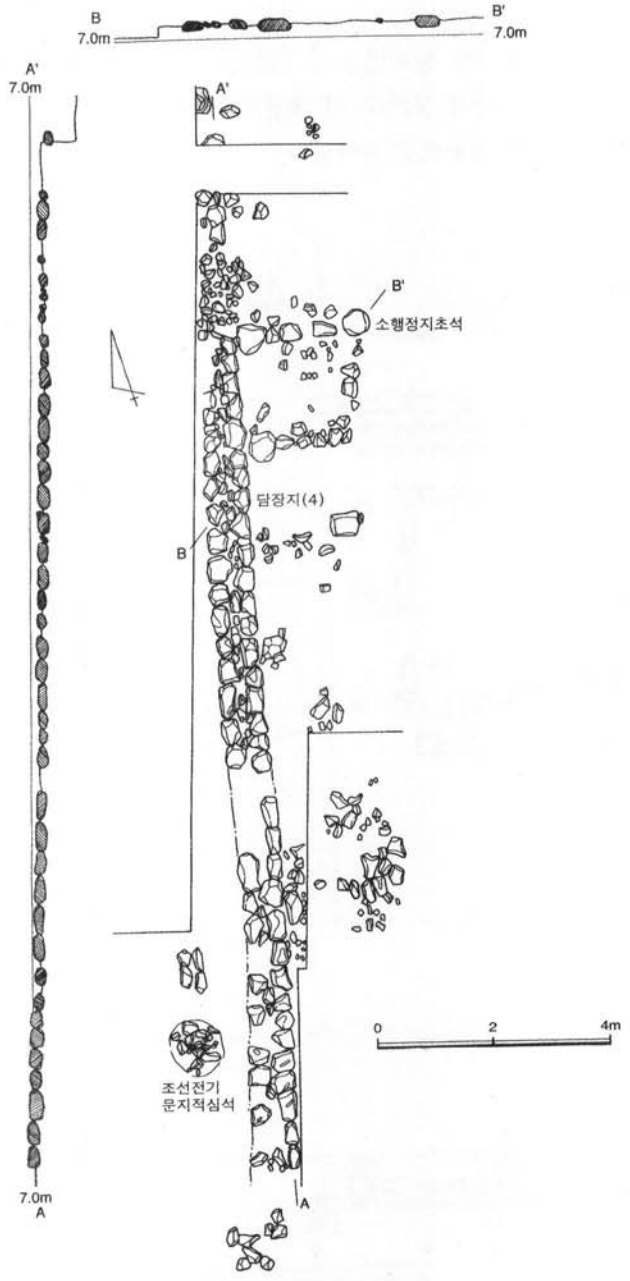


그림 45. 담장지(4)





사진 392. 담장지(4)
393. 담장지(4) 주변 작업광경

5) 담장지(5)

교방지의 동편 담장지 군락 중 맨 하단에서 확인되었다. 이 담장지는 앞서 담장지(1)~(3)과는 달리 건물지군락의 외곽담장지로 판단되는데, 다져진 평면 위에 석축렬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사진 지형에 축조되어 있고 기와의 쌓음 상태가 매우 정교하다(그림 46).

현존길이 25.76m, 폭 0.8m로 남북방향으로 길게 축조되어 있다. 담장지의 남쪽 끝은 동서로 연결되는 담장지(6)과 교차하도록 시설되어 있다.

이 담장지의 남쪽부분(test pit(2)부분)에서 담장지 동일 층위 레벨에 놓인 동서건물지 배수용 기와시설이 확인되었다.

6) 담장지(6)

이 담장지는 담장지(5)의 중간부분에서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현재 와적담장의 기와로 쓰인 기와유형이 담장지(5)보다 10~12cm가량 높게 시설되어 있어 시기적인 차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6). 후대에 시설된 담장지군락과 일제·현대 건물의 기초공사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다. 현재 규모는 길이 1.7m, 폭 0.6m, 잔고 0.3m이다.

7) 담장지(7)

일제시대 강당건물의 배수 시설물과 현대 유치장 건물의 수도시설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으나, 현재 교방지(13)과 2m의 간격을 두고 길이 25.2m, 폭 1.2cm가 남아 있다(그림 46). 담장지(10)과 평행한 정남북 방향이고, 토층 역시 흑갈색자갈층 상면에 축조되었다. 그리고 담장지(10)과 동일한 축조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형 할석과 괴석을 사용하여 석열 좌, 우단을 축조하였다. 이 부근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담장지(13)의 출토 백자와 동일 시기의 백자가 출토되며 특이한 것은 이들 백자중 '대해', '정공', '정' 등의 명문이 보인다.

8) 담장지(8)

담장지(9)와는 2.5~3m간격을 두고 정남북에서 20°가량 동향으로 축조되었다(그림 46). 노출된 담장의 길이는 15.7m, 폭 0.8m가 남아 있으며, 일제시대 배수시설로 인해 담장지 중앙 부분이 5.2m 가량 잘려나간 상태이다. 조선 전기말 이후에 경사면을 채워 다진 층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중기의 담장지로 판단되는 담장지(7), (10)과는 달리 정연한 할석으로 정교하게 맞물려 축조한 것이 앞서 마구지 기단 석열 축조 방식과 동일하다.

9) 담장지(9)

이 담장지는 담장지(7)과 담장지(8)사이에 노출된 남북으로 길게 만들어진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적석담장지이다. 담장지의 석재는 주로 자연석을 이용하고 있으나, 남쪽 부분은 냇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그림 46). 담장지 축조방식은 담장지(9)와 동일하나 담장열의 좌, 우단에 잡석을 끼운 것이 아니라 2열의 잡석군의 크기를 조절하여 외벽열을 맞춰 일직선으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일제시대건물과 배수시설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변 담장지 석재들이 섞여 있어 제대로 담장유구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담장지의 규모는 길이 24.3m, 폭 0.75m이다.

10) 담장지(10)

이 담장석열은 앞서 심약방의 상면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며 놓여있다(그림 47). 현재 잔존길이는 길이 8m, 폭 1.10~1.22m이다. 담장지 북편은 교방지 상층건물지에 의해 파괴되었고 남쪽은 현대 건물에 의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다. 석열의 축조층위는 제1점 test-pit 층위상태로 볼 때 흑갈색자갈층(Ⅲ층) 상면에 놓여 있다. 이 담장의 하부 축조 방식은 담장 외벽을 만들고 안쪽을 잡석으로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석열 사이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심약방지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조선전기말(16세기말) 백자편이 확인된다.

11) 담장지(11)

이 담장지는 영주협당지의 북편 기단석열 북서편 모서리에서 북으로 가로 질러 만들어졌다(사진 251). 즉, 영주협당지의 상면성토층이 적석과 다져진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지점은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고 북편기단밖의 토층이 남쪽보다 상대적으로 무르고 낮아 이 부분에 한해 한단 더 담장석열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조방식은 담장지(10)과 동일하다. 현재 남아있는 담장의 규모는 길이 5.9m, 폭 0.96m, 잔고 0.57m이다. 담장지의 북편과 남쪽은 각각 일제시대의 건물로 인해 모두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아있는 담장지 중앙에 2기의 초석이 확인되어 유구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394


395


396

사진 394. 담장지(5)~(9) 전경 395. 담장지(5),(8) 396. 담장지(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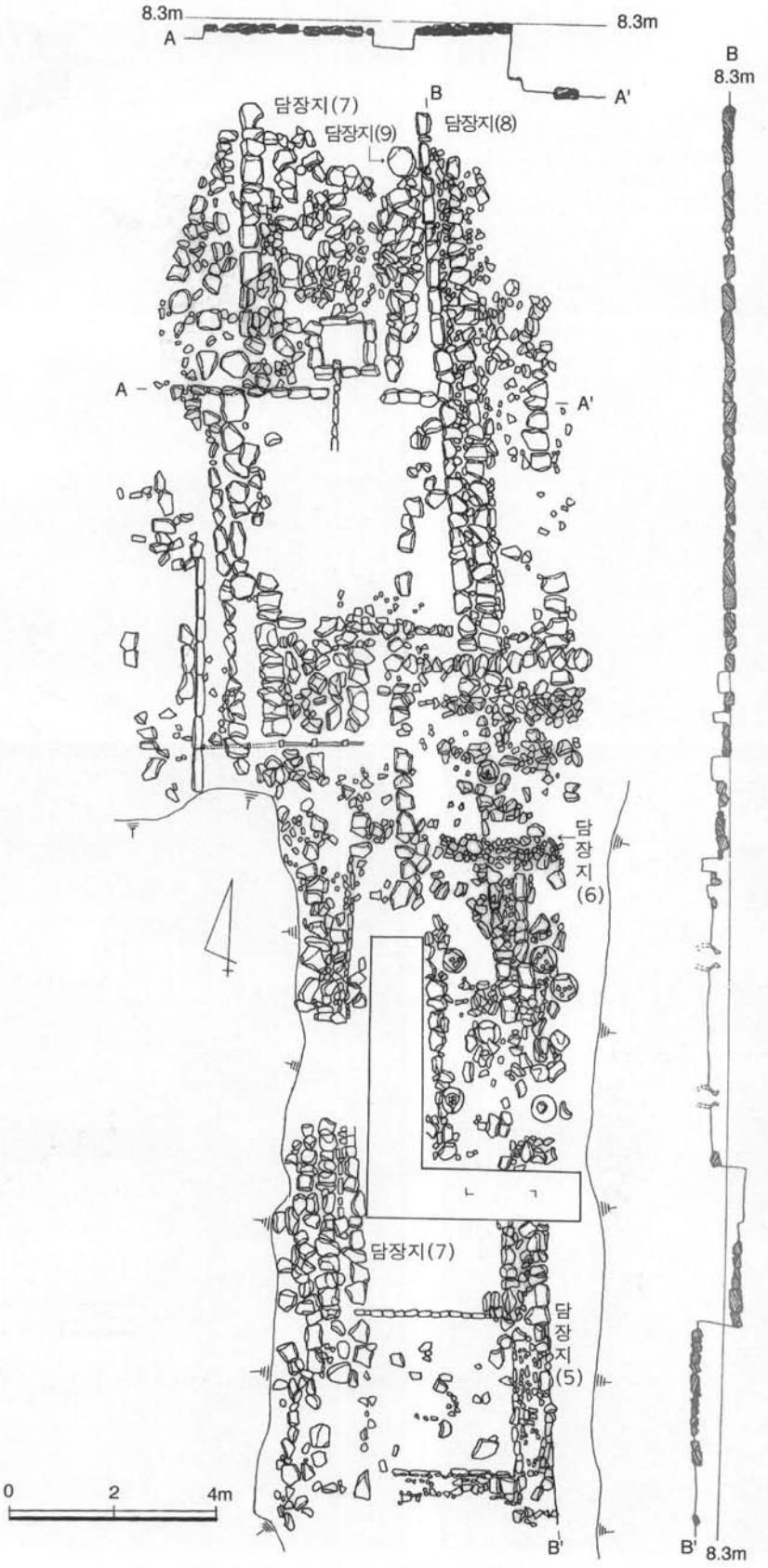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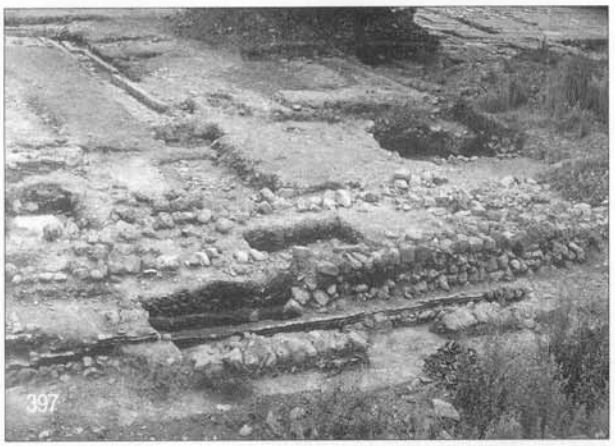


그림 46. 담장지(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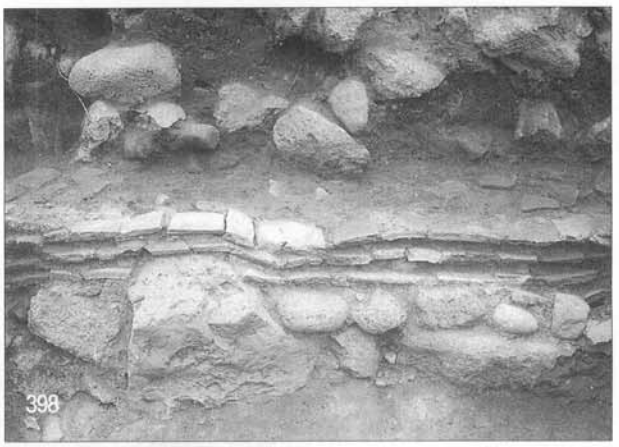










사진 397. 담장지 전경 398. 담장지(5) 와적상태 399. 담장지(5) 와적상태 400. 담장지(5) 와적 세부
401. 담장지(5)와 기와배수로 402. 담장지(8),(9)





사진 403. 담장지(8) 404. 담장지(9)

12) 담장지(12)

이 담장지는 연희각지의 북편에 위치한다. 현재 담장의 석축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그림 16). 담장지 하부축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 하부담장기단 석열이 상단의 적석담장보다 넓게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면 단면을 보면 '凸' 자형태이다. 담장석축의 현존규모는 길이 20.48m, 하단기초석열의 폭 1.2m, 상단석축의 폭0.85m, 높이 2.0m이다. 석축의 축조상태는 현무암제 할석을 사용하여 각 단을 수평으로 쌓아 올렸다. 적석틈에는 점토를 다져 넣어 석축담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다. 추측컨데, 이 담장상면은 기와지붕형태로 마무리 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 405. 담장지(10)과 Test-pit 406. 담장지(10)과 마구지 적석층

13) 담장지(13)

이 담장지는 남북방향으로 놓인 조선전기의 와적담장이다(그림 48). 영주협당지와 동일시기에 만들어진 담장지로 판단되는데 조선전기의 영주협당지와 완전하게 직각으로 축조되어 있다. 담장지의 기초석재는 잘 다듬은 편이다. 담장지의 규모는 길이 20.48m, 폭 0.7m이다. 잔고는 가장 높은 곳이 0.35m이다. 층위상태로는 앞서 서술한 담장지(6)과 동일시기로 판단되며, 담장지(5)의 상편에 나타나는 자갈층 위에 놓여 있어 와적 담장지중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판단되나, 축조시 사용된 기와류가 모두 담장지(5)의 기와류와 동일하다. 따라서 시기적인 차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고찰된다.

14)담장지(14)

담장지(6)과 관련하여 담장지(13)의 중앙부분(북쪽 끝에서 5.7m)에서 서쪽으로 맞물려 축조되어 있다. 담장

지의 축조 방식은 앞서 기술한 담장지(7)과 동일하며 노출된 판석 기초담장석열 사이에 기와가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8). 와적 상태는 점토와 기와를 번갈아 올린 간격이 좁고, 점토다짐상태가 양호하다. 동서로 길게 만들어진 담장지는 동쪽끝부분에서 서쪽 맞물림부분까지 완전하게 남아 있는데, 규모는 길이 14m, 폭 0.9m, 잔존높이 0.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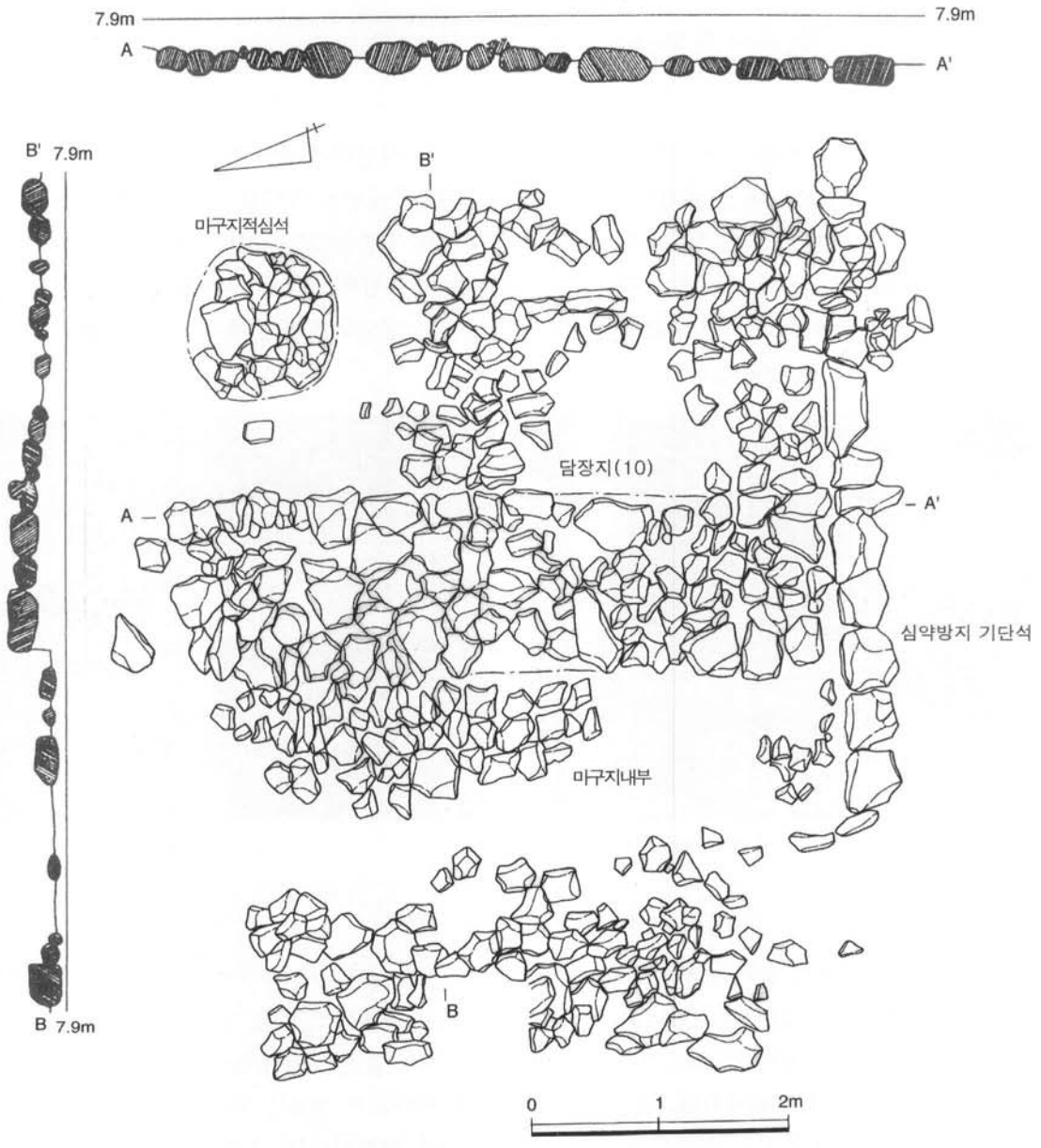


그림 47. 담장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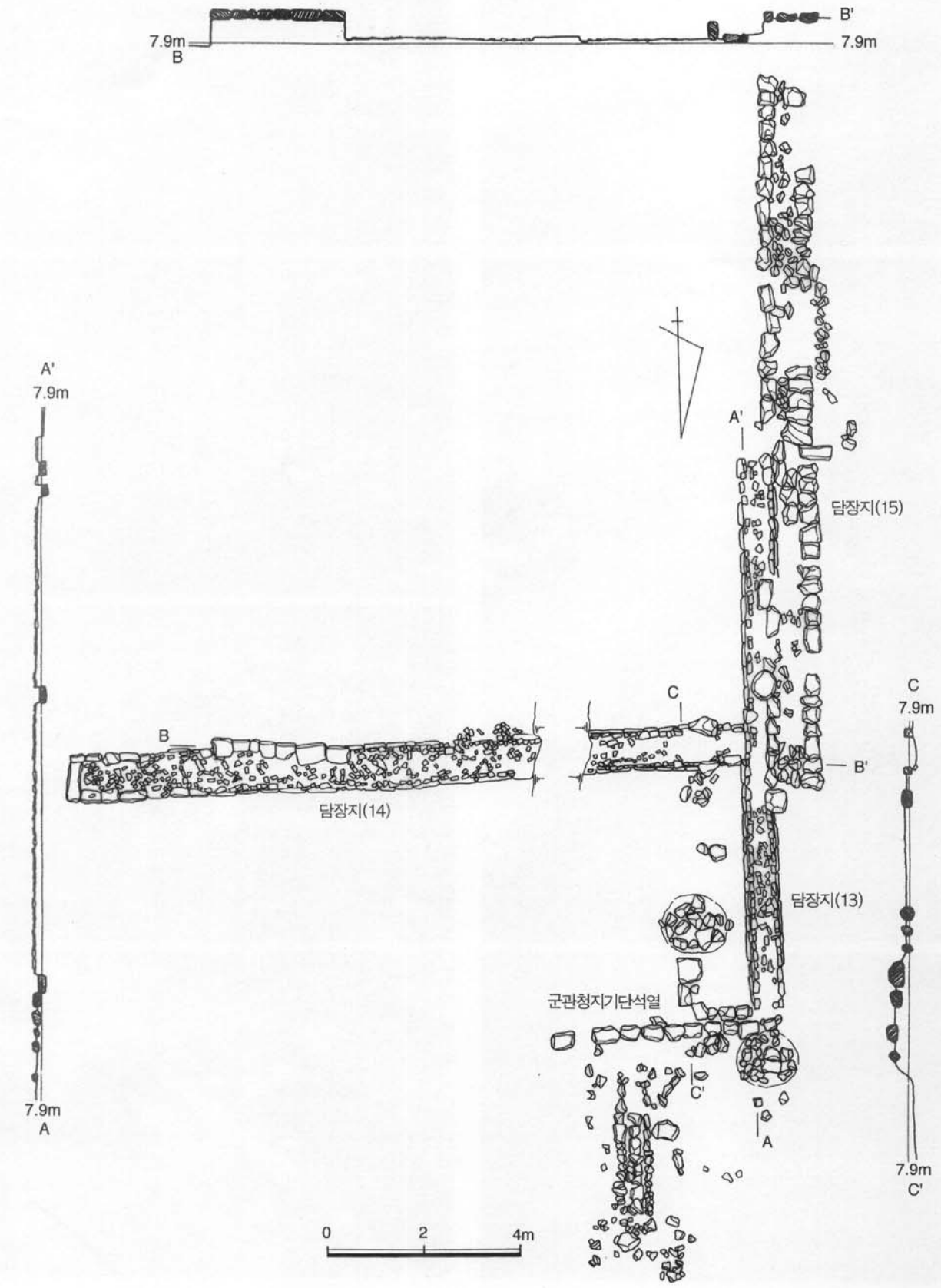

B'
7.9m
B
7.9m
A'
7.9m
A'
담장지(15)
C
C
7.9m
B
B'
담장지(14)
담장지(13)
군관청지기단석열
C'
A
7.9m
A
7.9m
C'
0
2
4m

그림 48. 담장지(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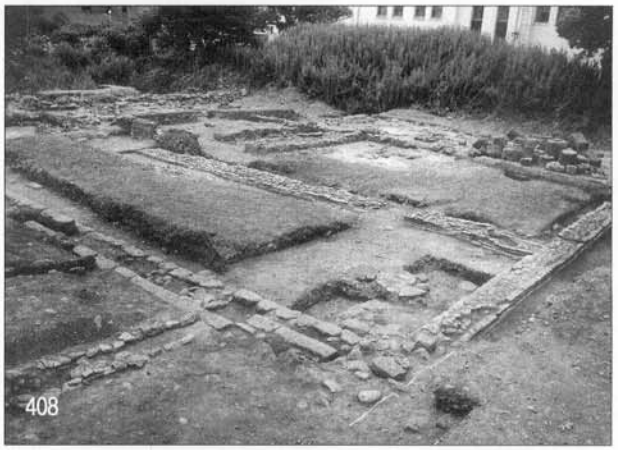












사진 407. 담장지(13),(14) 전경(남에서) 408. 담장지(13),(14) 전경(북에서) 409. 담장지(13) 410. 담장지(14) 와적상태
411. 담장지(14) 와적 세부 412. 담장지(14) 와적 세부 413. 담장지(13) 주변유구 중복상태

15) 담장지(15)

이 담장지는 조선후기의 도로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관아진입도로 바로 동편 담장이다(그림 48). 이 담장지는 할석을 사용하여 양쪽의 석열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그 안에 자잘한 자갈과 기와 등을 섞고 나서 다져 올린 적석담장으로 판단된다. 이 담장지 주변에서 일제시대의 구덩이와 장방형정화조시설 등이 확인되고 담장석재가 서로 뒤섞여 있어 아마도 일제시대에 이 담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아있는 담장지의 규모는 길이 7.1m, 폭 1.2m, 잔고 0.3m이다. 이 담장지 밑으로 자갈층과 점토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층 밑으로 조선전기의 와적담장이 확인된다.

16) 담장지(16)

예고지 남서쪽에 위치한 담장의 현존 길이는 13.0m, 폭 0.7m로 중간부분이 파괴되었다(그림 21). 북쪽에 남아있는 담장지는 와적담장으로 A구역에서 확인되는 고려말의 기와가 점토와 번갈아 가며 쌓여 있었다. 반면 남쪽에 남아 있는 담장은 할석형 석재를 이중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현재 밑으로 3단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담장의 하부구조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부분은 상당량이 파괴되어 현 표토아래에서 3.0m지점까지도 잡석과 초석무더기들이 매립되어 있어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점이 조선후기 당시에도 급격한 경사를 보이고 있어 외곽석축역할을 하는 담장을 쌓아 동일한 높이로 관아지의 내부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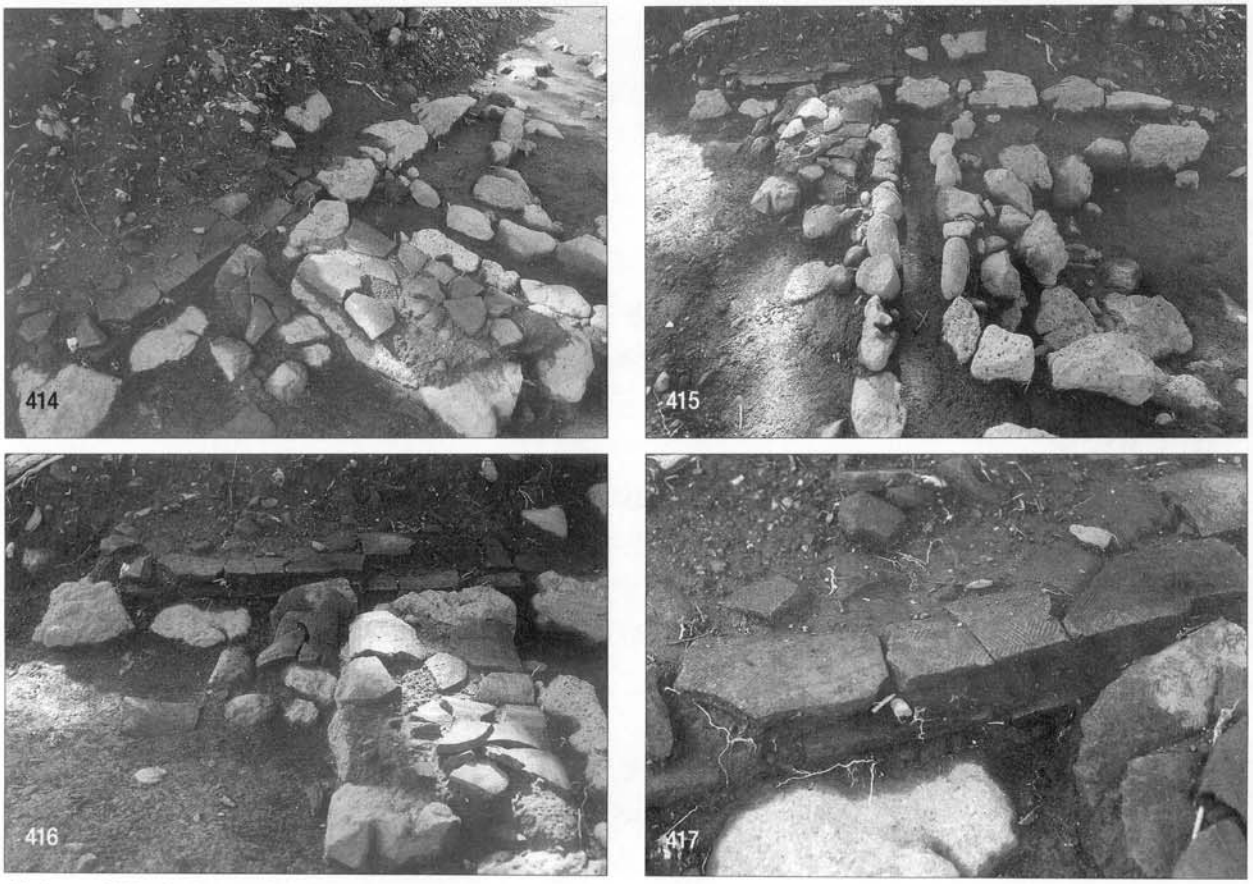


사진 414. 담장지(16) 415. 담장지(16) 주변 수로 416. 담장지(16) 세부 417. 담장지(16) 와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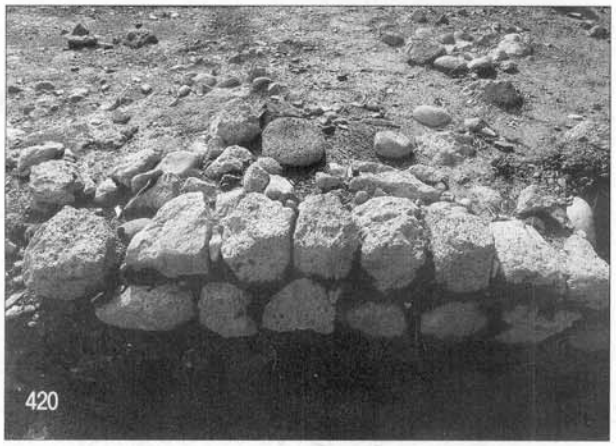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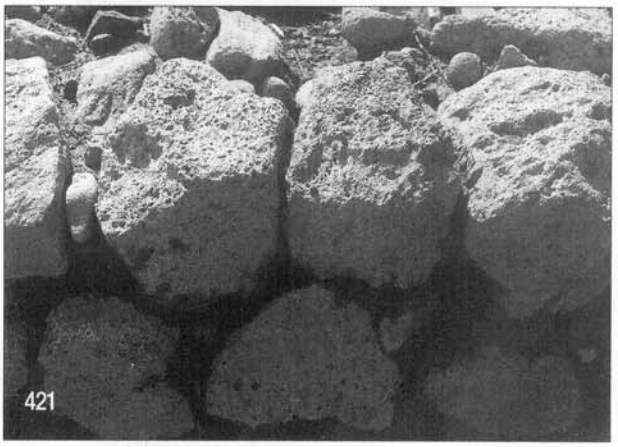



사진 418. 담장지(16) 축조상태(동에서) 419. 담장지(16) 축조상태(북에서)
420. 담장지(16) 축조상태 세부 421. 담장지(16) 할석 맞물림상태

17) 담장지(17)

홍화각 동남모서리 남쪽에서 확인되는 담장지로 현재 폭 0.6m정도로 약 1.2m정도만 남아 있다. 홍화각지의 기단과 동일한 방향으로 놓여 있다(그림 29). 잘 다듬은 판석상 석재로 된 하부구조가 확인되는 점에서 조선중기의 담장지로 여겨지나 더 이상의 해석이 어려운 담장지이다.

18) 담장지(18)

애매헌지의 남쪽에서 확인되는 담장지이다(사진 423). 관아지의 담장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담장인 듯 하다. 현재 길이 7.7m, 폭 2.m 가량이 남아 있다. 바깥면을 고르게 맞춘 할석상 석재를 바깥단으로 하고 내부는 잡석과 잔자갈을 채워 넣었다. 현재 남아 있는 상면이 고르게 맞춰진 것으로 보아 도로일 가능성도 있으나, 시설된 높이가 다른 도로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담장일 가능성이 짙다.

19) 담장지(19)

우연당지 남쪽에서 확인되는 담장지로 우연당과 약간 축을 달리하여 편서향하는 담장지이다(그림 39). 동서 4.5m, 남북 11.0m정도가 남아 있으며, 담장의 폭은 1.0m이다. 할석과 괴석을 사용하여 바깥단을 쌓고 내부로 잔자갈과 흙, 기와편 등을 채워 넣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담장지의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이 접합되는 지점의 하부로 연못지의 물을 빼어내는 배수로가 들어간다. 이런 사실로 보아 이 담장은 우연당과 연못지의 외각을 두른 담장지이며 담장의 외곽은 우연당과 연못의 상단 대지보다는 한단 정도















사진 422. 담장지(17) 423. 담장지(18) 424. 담장지(19) 축조상태 425. 담장지(19) 중복상태 426. 담장지(19)
427. 담장지(19) 중복상태 428. 담장지(20)

낮은 지형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장외곽에서 어떠한 건물이나 시설물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 점도 더욱 수긍이 가게 한다.

20) 담장지(20)

연못지의 남쪽과 동쪽에서 확인되는 담장지로 괴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이중으로 쌓은 담장이다(그림 39). 현존 길이는 남북 18.5m, 동서 14.4m가량이나 남북으로 이어지는 담장지는 근대 폐기물구덩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내부는 그다지 잘 다져넣지 않았고, 바깥면도 고르지 못하다. 중대문지에서 남쪽으로 뻗어나와 연못지의 남쪽에서 꺾여 서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다. 이 담장의 역할은 동쪽으로 외대문지 도로와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우위랑과 경계를 짓는 역할일 것으로 짐작된다.

5. 적석 유구

B-1구역 중복 건물지 내부에서 발견되는 타원형 혹은 부정형 할석의 적석군은 각 시기 건물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교방지로부터 북편 32m지점 NsTr(2)에서 2단3열의 적석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아직 주변 확장 발굴이 되지 않아 확실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조선전기초의 유구로 판단되는 바, 분청사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 적석유구 북편에서 곽지식 적갈색토기와 홈돌 등의 조리용 석기가 다량 수습되었으나 유구 흔적은 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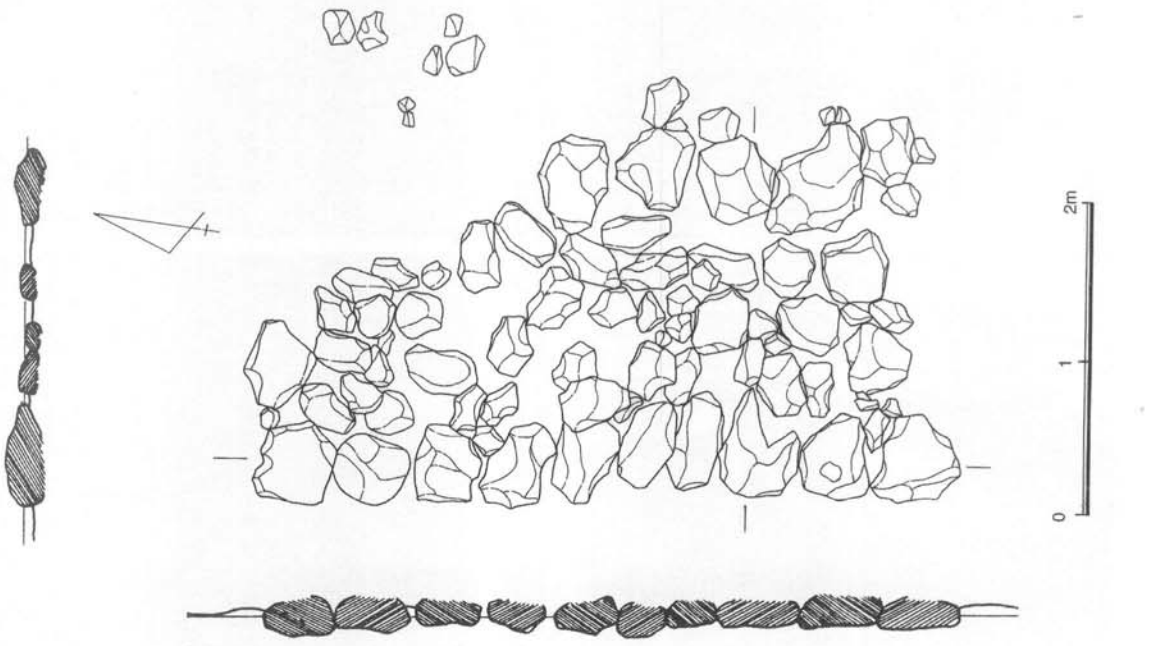


그림 49. 적석유구

6. 탐라 · 고려시대 문화층과 유구

1) 장방형 석곽시설

와선각 하층에서 천석과 할석을 가지고 장방형으로 곽을 돌린시설이나 적석시설, 그리고 시설물과 동일한 높이에서 기둥구멍이 확인되는데, 이들유구에서 고려시대기와와 흑상감청자, 도기병이 출토된다. 이 시대의 생활지 노면상에 나타난 유구로 판단된다(그림 33).

2) 수혈유구

탐라시대에 고내리식토기가 포함된 불규칙한 형태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그림 33). 이 유구의 중앙에 원형의 냇돌 무더기로 축조된 화덕시설이 확인된다. 화덕시설의 직경은 1.5m정도이다. 또한 주변 여기저기에서 불규칙한 기둥구멍이 나타나고 있다. 기둥구멍외에 천석으로 돌린 적심시설이 확인되며 틈새에서 곽지2식토기편이 끼여있다. 이 시설도 앞서 장방형 수혈유구와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초기의 집자리내 생활유구로 판단된다..

7. 조선시대 적석 매립지와 기타 유구

직경 30~50㎝ 이상되는 천석과 자연석, 할석, 판석 등으로 불규칙하게 매립된 토층이 확인되었다(그림 33). 이것은 낮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와선각지의 앞부분과 옆부분도 모두 이러한 잡석으로 매립하였는데 아마도 일제시대 이전에 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유구로서 일제시대에 파놓은 두개의 장방형 구덩이와 원형 우물지가 확인되었다(그림 33). 두 개의 장방형 구덩이에서는 일본자기와 기와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규모는 가로 340㎝, 세로 235㎝, 깊이 250㎝로 생토층을 완전히 파고 들어가 시설되었다.

일제시대 우물지는 소형 원형우물지로, 자연석을 사용하여 맞물려 축조하였는데 일본자기와 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3). 규모는 직경 54㎝, 깊이 250㎝ 이상된다. (강창화 · 박용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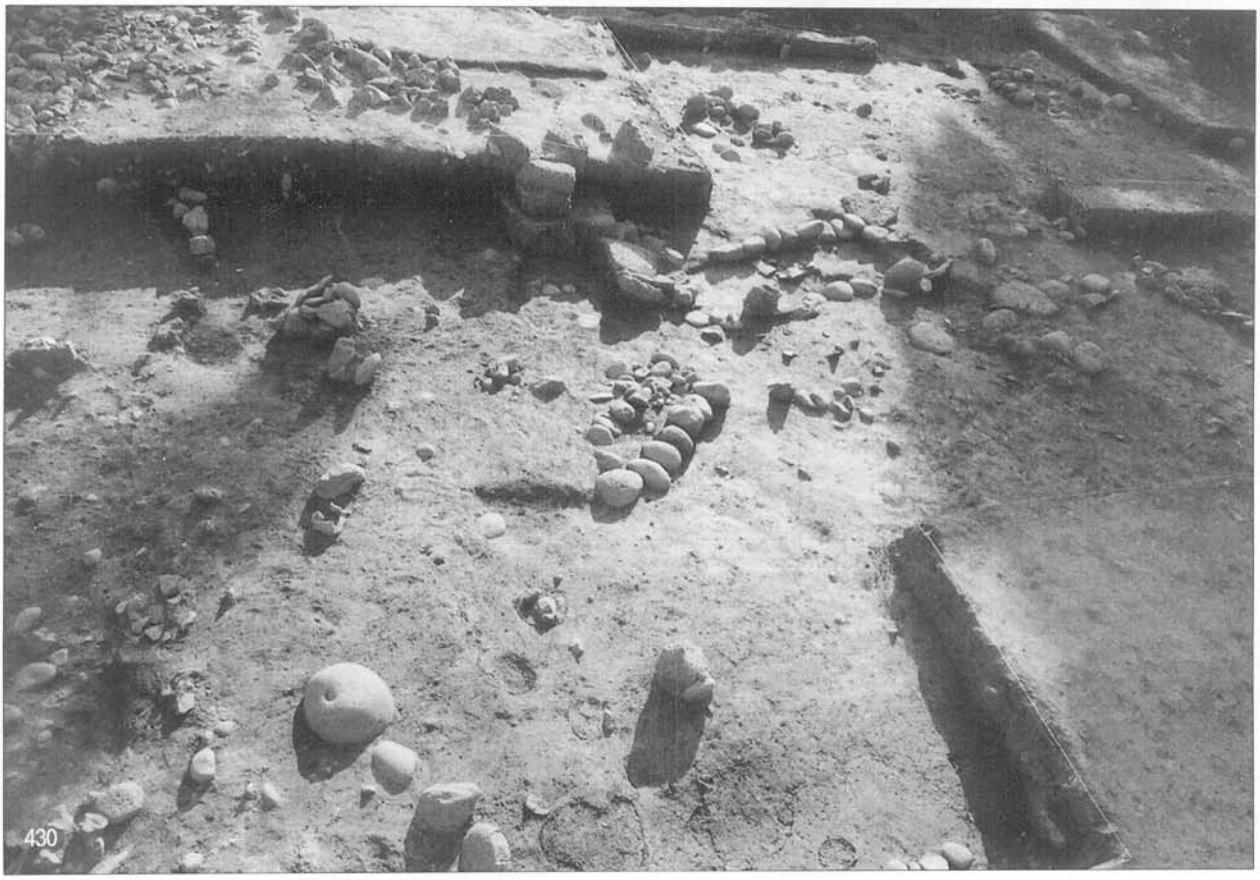


사진 429. B-2구역 하층유구 노출상태 430. B-2구역 하층유구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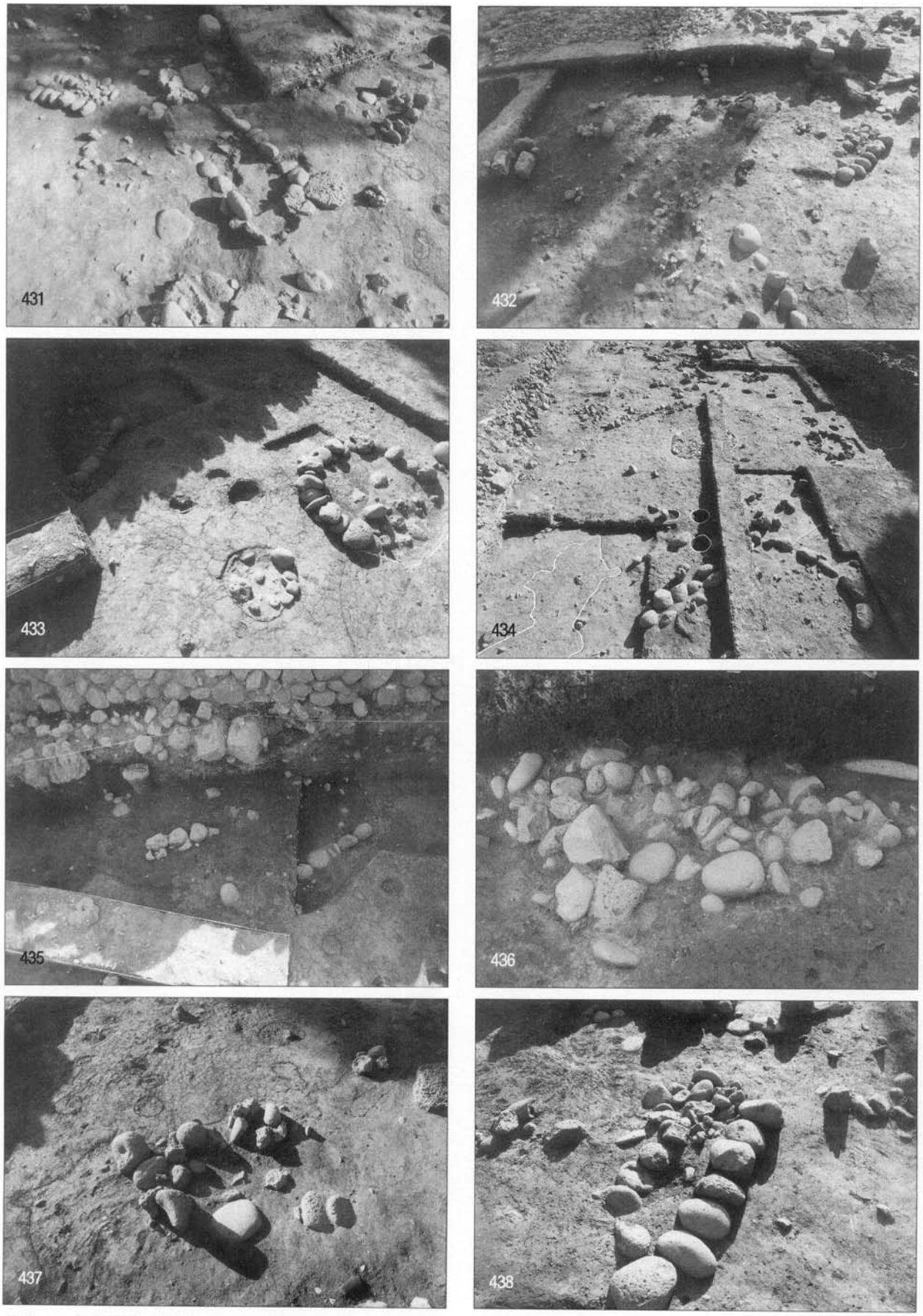


사진 431. 고려시대 화덕시설 노출상태 432. 고려시대 유구층 433. 원형화덕시설 노출상태 434. 탐라 · 고려시대 생활면 노출상태 435. 하층유구 노출상태 436. 탐라시대 적심노출상태 437. 고려시대 유물층 438. 천석무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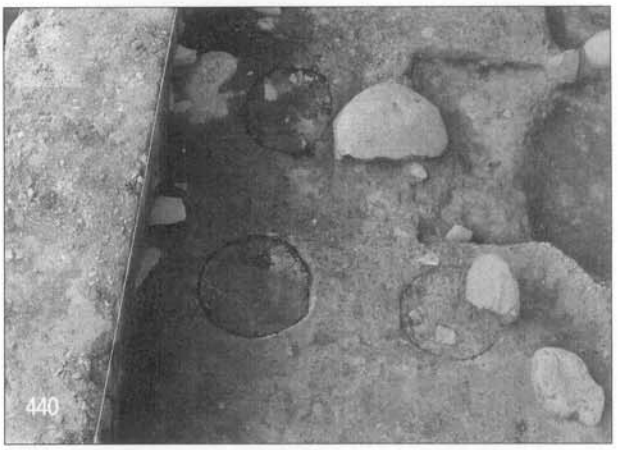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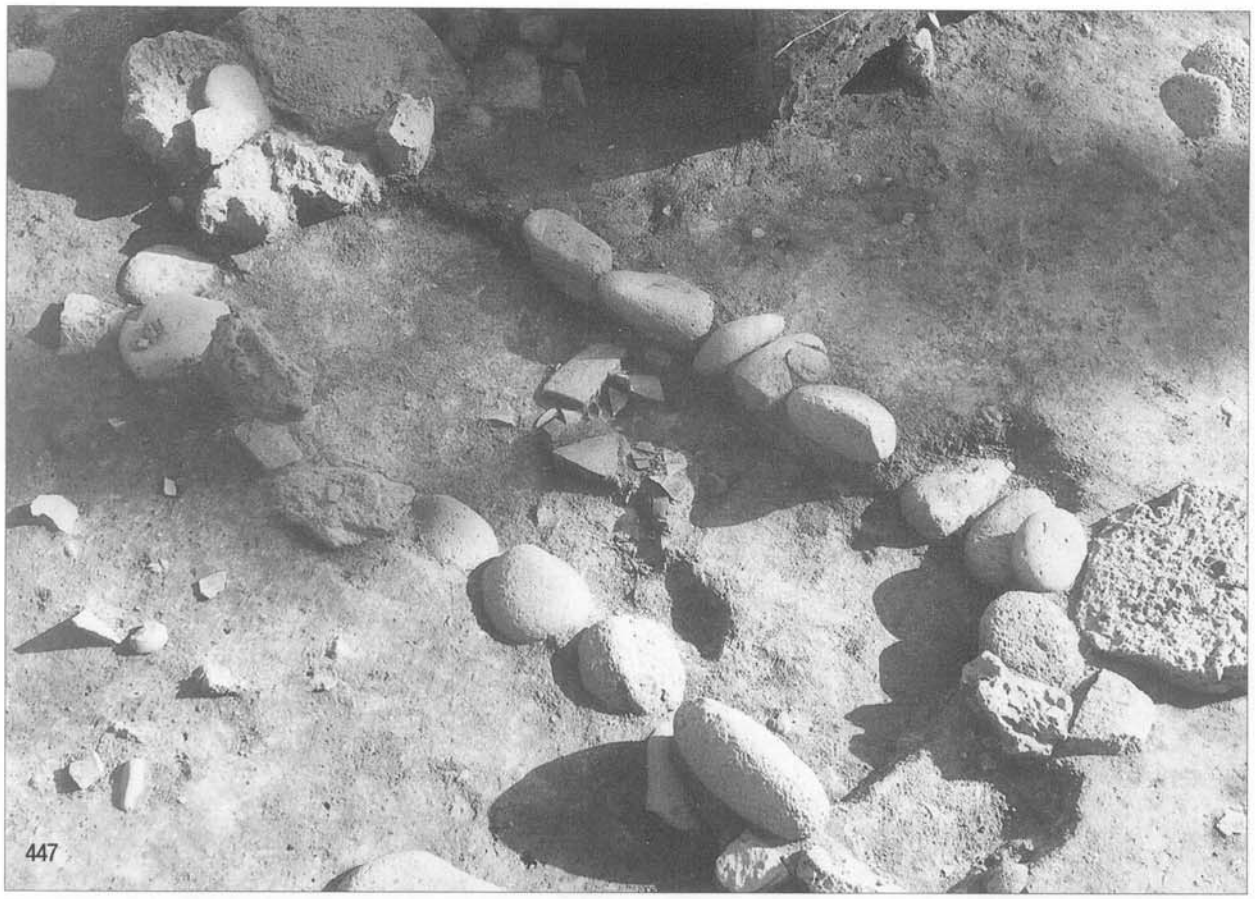








사진 439. 기둥구멍 노출상태 440. 기둥구멍 노출상태 441. 탐라시대 적석유구 442. 고내리식토기 노출상태
443. 고내리식토기 노출상태 444. 회색도기 노출상태 445. 적갈색토기 노출상태 446. 병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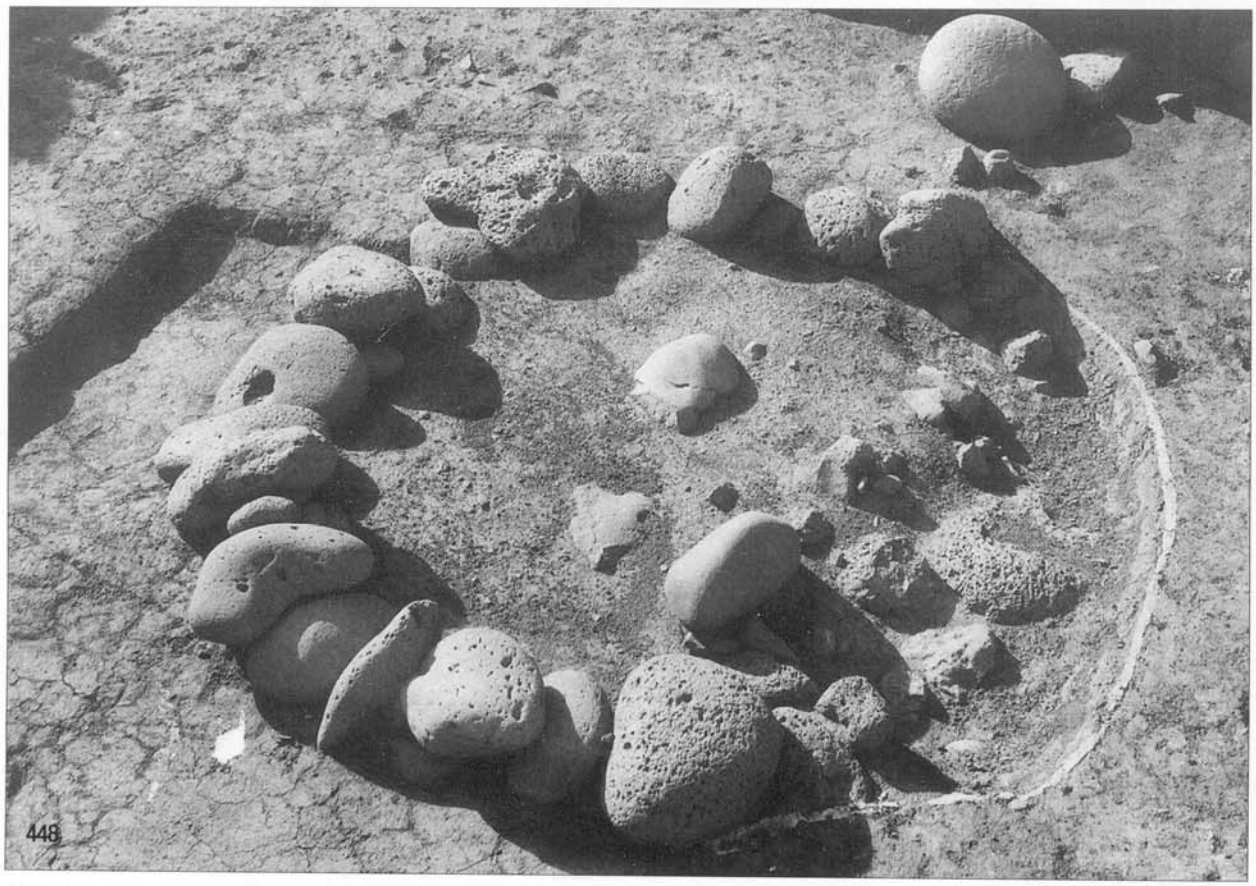


사진 447. 방형화덕시설 노출상태 448. 원형화덕시설 세부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사진 449. 매립부의 층위 450. 매립부의 층위 451. 매립부 노출상태(1) 452. 매립부 노출상태(2)
453. 매립부와 담장(1) 454. 매립부와 담장(2) 455. 일제시대 구덩이(1) 노출상태 456. 일제시대 구덩이(2) 노출상태

제4장 출토유물

제1절 기와류

지표조사 단계에서 부터 많은 양의 기와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기와는 크게 막새류와 평기와로 나누고 막새는 가능한 모든 종류를 소개하고, 평기와는 타날판 문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에 한해서 소편이라도 가능한 많은 양을 소개하려고 시도하였다.

1. 막 새

암·수막새는 지표상에서 수습된 것과 발굴조사중에 수습된 것들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막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같은 종류의 막새가 많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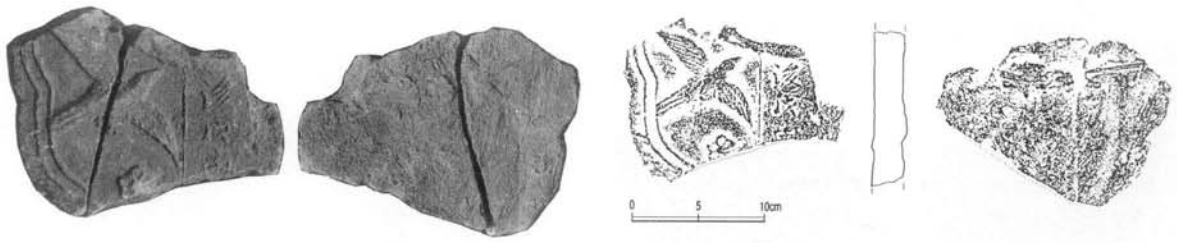
1) 암막새

암막새는 크게 네가지 종류가 출토되었다. 지표조사시에 수거되었던 많은 양의 화문암막새와 인장이 찍힌 일본식와당은 보고서에서는 제외시켰다.

(1) '俊戊'銘 막새(사진 457, 그림 50)

회갈색 경질의 암막새로 세사립이 일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삼단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양끝과 하단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명문은 기와를 이등분한 형태의 우측에 '俊戊'라고 세로방향으로 양각되어 있는데 바로 밑부분에도 판독이 불가능한 명문이 한 글자 더 있다. 同種의 막새편에서 '戊申'字가 확인되었다. 좌측에 명문과는 일단의 세선을 경계로 하여 제비로 추정되는 날아가는 새와 5엽을 가진 花文이 표현되었다. 막새의 주연부는 2조의 양각 돌출선으로 표현하였다. 암기와와 직각으로 접합되며, 접합부 밑으로는 보토한 흔적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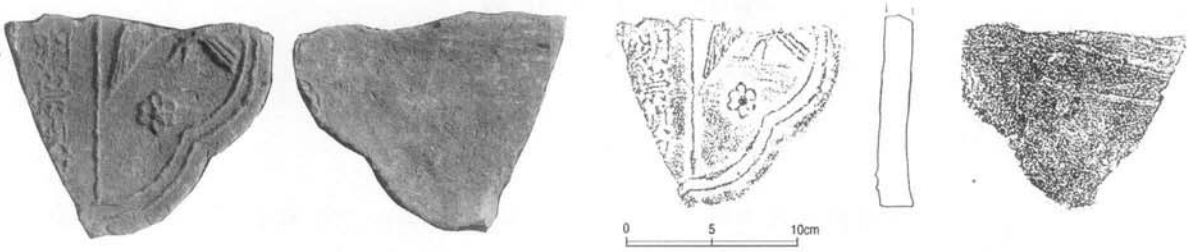
두께:2.4㎝ 素行停 주변



(2) '明崇禎'銘 막새(사진 458, 그림 51)

회색 경질의 암막새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상단부와 좌측하단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전자의 막새와는 반대로 명문은 좌측에 세로로 시문되었으며 '明崇禎' 밑으로도 1자가 더 확인되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동종의 막새편에서 '大明'字가 확인되므로, 전체 명문은 '大明崇禎'으로 결실부에는 간지명이 더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의 막새와 좌우측면을 달리하였을뿐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막새인 듯 하다. 후면에 빗질흔과 손톱으로 누른듯한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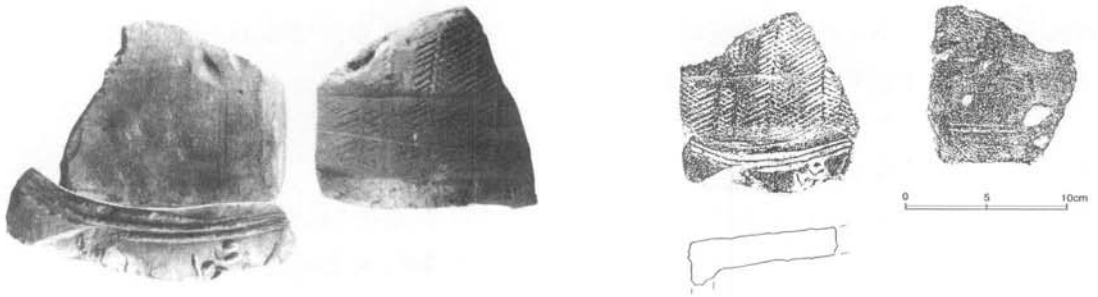
두께: 2.1㎝ 소행정 부근



(3) 梵文막새(사진 459, 그림 52)

회청색 연질의 암막새로 미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막새의 좌측과 하단부가 파손되었으나 암기와가 부착된 형태로 발견되었다. 범문은 막새의 측면과 하단이 파손된 상태이다. 주연부는 2조의 양각 돌출선으로 표현하였다. 암기와와 직각으로 접합되며 후면에 빗질흔과 역방향의 예세흔이 관찰된다. 암기와의 문양의장은 어골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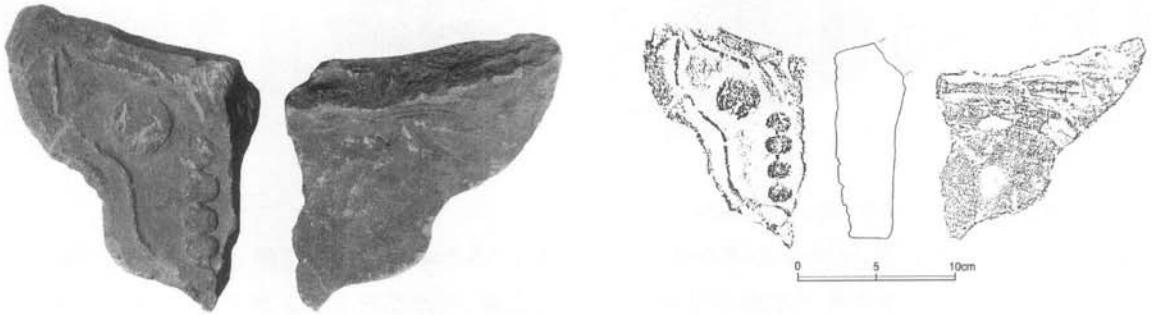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11 두께: 2.2㎝ 구역와적담장



(4) 암막새(사진 460, 그림 53)

회청색 경질의 막새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막새의 외형과 동일한 돌출선으로 주연부를 표시하고 내부에 鬼目과 같은 큰 구슬이 달려 있고, 그 하단으로도 작은 구슬 4개가 연결되어 달려 있다. 암기와와는 둔각으로 접합된다. 막새의 끝은 조정되었으며, 측면도 물손질되었다. 후면 접합부 밑으로 침선으로 처리되어 접합을 용이하게 한 흔적과 손으로 누른 흔적이 보인다.

포목의 빈도수: 10×11 두께: 3.0㎝ D구역지표



2)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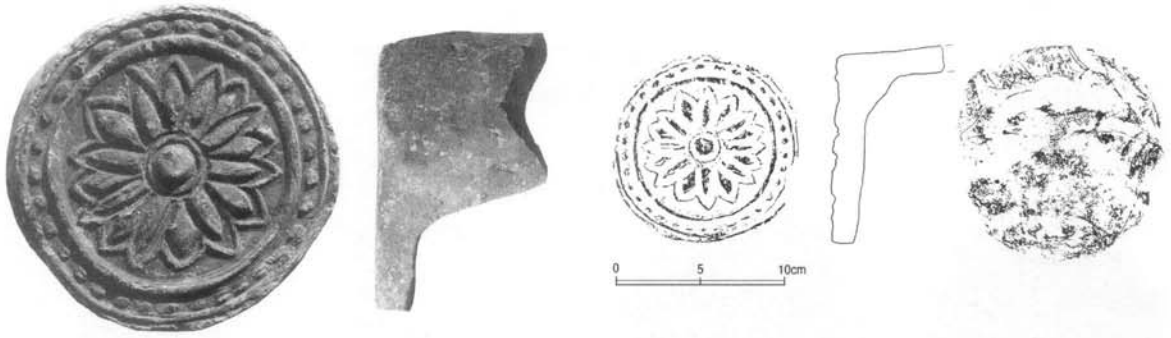
수막새는 연화문이 4종류가 출토되었다. 국화문 1종, 길상문 1종, 형태를 알 수 없는 소편이 1종 확

인되었다. 연화문은 2종류가 비슷한 형식을 취하나 제작수법과 세부형태에서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연화문(사진 461, 그림 54)

회청색 색조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16엽 연화문막새이다. 지방 주위로 원권이 표현되었다. 화엽은 방을 두르는 원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곧바로 뻗어 있다. 화엽을 에워싸는 외곽선은 화엽과 0.3cm의 거리를 둔다. 막새의 직경은 14.5cm이고, 자방경은 1.8cm이다. 연주문은 총 33果가 달려 있다. 기와와 둔각으로 접합하며 보토한 흔적이 있다. 후면에 손으로 누른 흔적과 물손질한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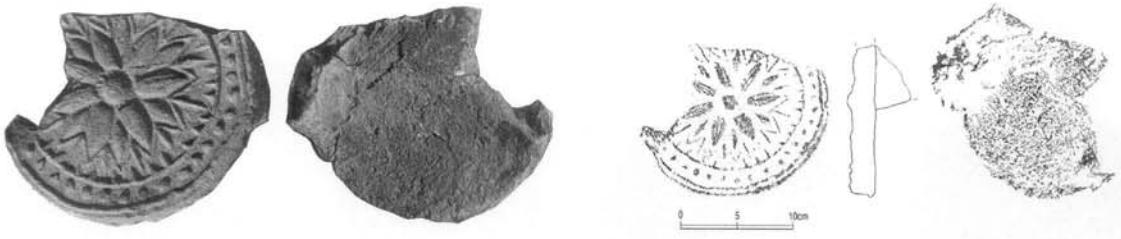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2 두께: 2.1㎝ D구역 연못지 수로남쪽



(2) 연화문(사진 162, 그림 55)

회청색 경질의 수막새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앙에 크게 돌출된 球形의 자방이 있고, 7엽과 7개의 간엽으로 표현된 연화문막새이다. 동종의 막새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14엽 연화문막새이다. 외구에는 화판과 동일한 형식의 돌출선이 표현되었다. 주연부는 양각 돌출선으로 표현하였다. 기와와 다소 둔각으로 접합되고 보토한 흔적이 있다. 막새 하부에는 손으로 눌러서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직경 14.5㎝, 자방경 1.5㎝, 주연부의 폭 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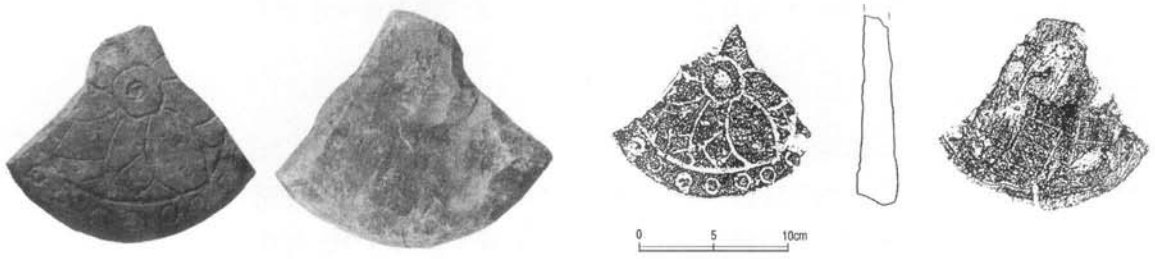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8 두께 1.9㎝ B구역



(3) 연화문(사진 463, 그림 56)

회청색 연질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瓦范을 사용하여 찍어낸 것이 아니라 0.2㎝정도의 음각선을 사용하여 제작한 막새이다. 형식이 단조로우면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모두 나타내었다. 기와의 복원경은 16.4cm이고 자방경은 2.8㎝이다. 자방은 지름 1.2cm의 함몰된 공간으로 나타내었다. 화엽은 9개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며 주연부와 맞닫는다. 잎과 잎사이에는 각기 하나씩의 잎이 다시 돌출되고 있다. 연주문은 8개가 남아있으며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가진다. 기와와 둔각으로 접합된 것으로 여겨지며 후면은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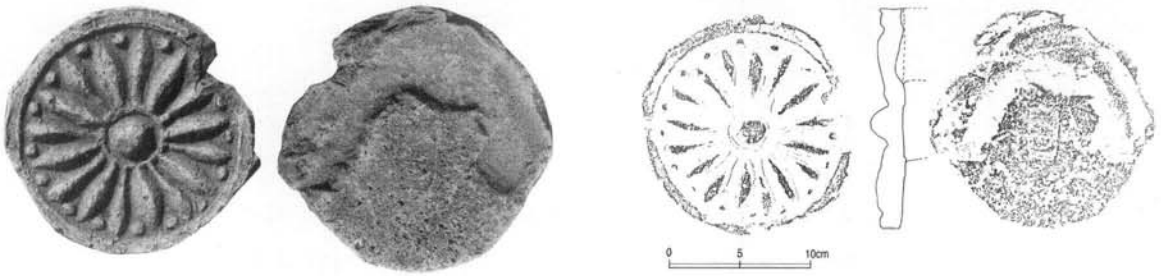
두께: 2.8㎝ B구역



(4) 연화문(사진 464, 그림 57)

회색 경질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크게 돌출된 자방과 16엽을 가진 연화문막새이다. 연주문은 주연부가 아니라 판단 사이에 달려 있다. 직경 16.0cm이고, 자방경 2.5cm, 주연부의 폭은 0.7cm이다. 막새 후면을 파고 들어가 기와와 접합한 흔적이 보인다. 후면에 인각되어 남겨진 장방형의 홈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기와와 직각으로 접합된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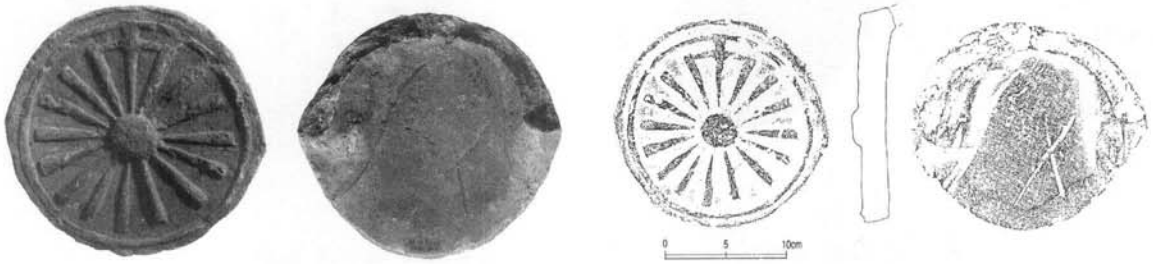
두께: 1.6cm C구역 상층



(5) 국화문(사진 465, 그림 58)

회청색 경질로 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크게 돌출된 자방과 16엽을 가진 막새이다. 직경은 16.2cm이다. 주연부는 굵기 0.5cm의 돌대문으로 표현하였다. 막새는 기와와 다소 둔각으로 접합되었다. 후면에 포흔이 있으며 보토한 흔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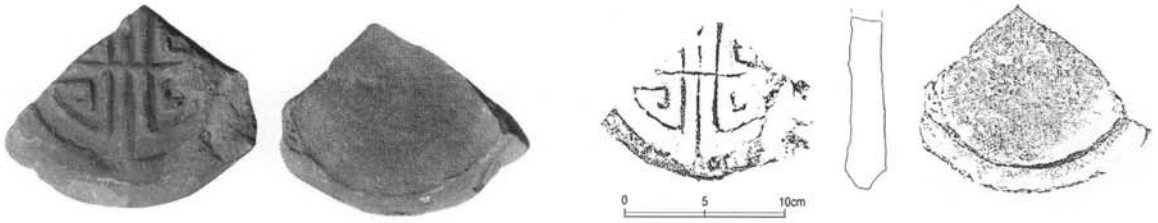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4×13 두께: 2.5cm B구역



(6) 길상문(사진 466, 그림 59)

회청색 경질의 수막새편으로 '壽'자가 도안화 된 길상문이 장식되었다.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둘레가 비스듬하게 조정되었다. 기와와 둔각으로 접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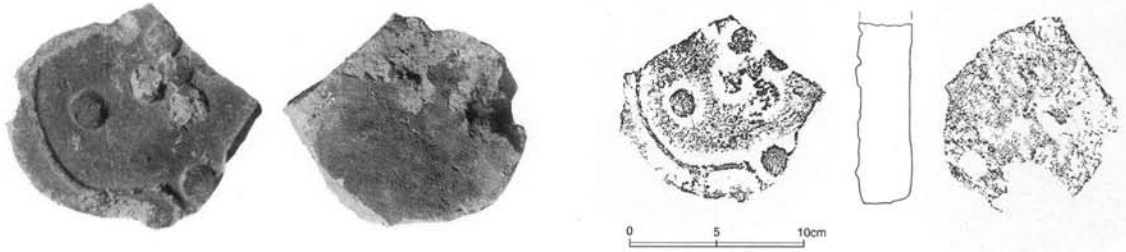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0×10 두께: 1.4cm D구역 지표



(7) 수막새(사진 467, 그림 60)

회청색 경질의 수막새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하부만 남아 있는 소편이다. 중앙에 5개의 구슬이 달려 있고, 외구 안쪽으로도 2개가 달려 있다. 전면에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포목의 빈도수: 10×10 두께: 2.5㎝ C구역 교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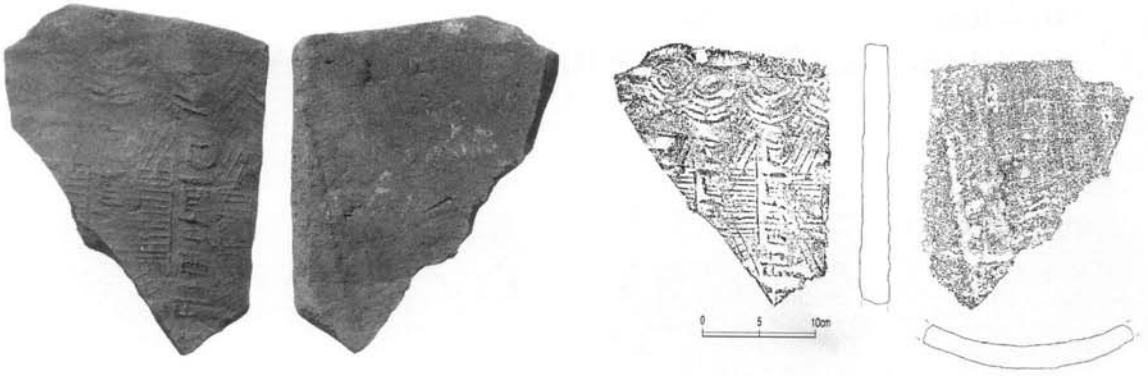
2. 명문기와

명문이 시문된 기와는 92년도 보고서에서 많은 수를 다루다 보니 평기와에 대한 소개가 빈약한 점이 있었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명문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기존에 소략하게 설명된 기와를 중점으로 하여 다시 소개하였다.

(1) '○酉貳西岳' 명와(사진 468, 그림 61)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의 상부에 중호문이 결합되고, 명문의 외곽은 횡선 혹은 격자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배치되었다. 명문은 右書로 양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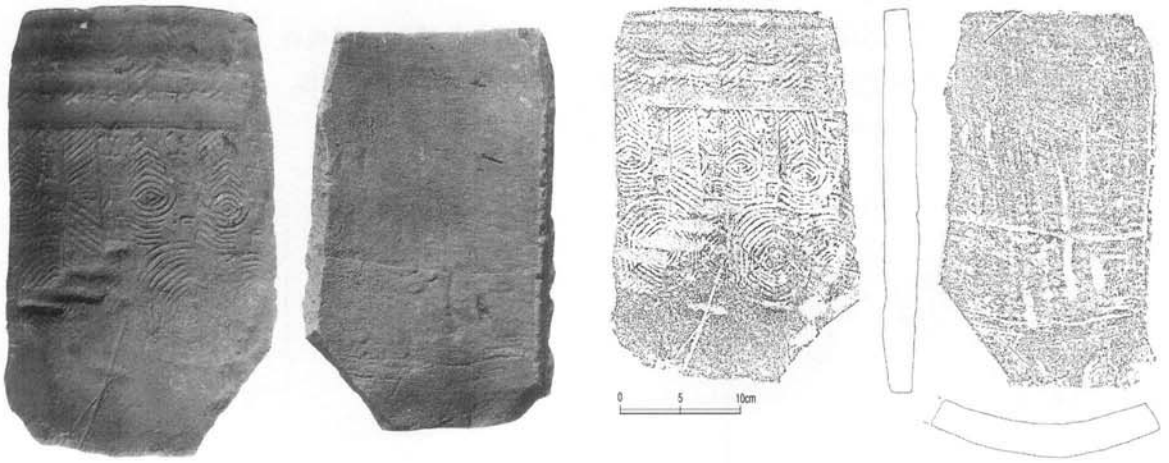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7 두께: 2.4㎝ 연못지 주변



(2) '○衣式厂汜' 명와(사진 469, 그림 62)

적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크고 작은 중원문 사이에 명문이 자리한다. 상단은 3단의 물끊기 홈이 있다. 도구에 의해 두드려진 흔적과 예세흔이 관찰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連綴痕, 輪綴痕이 관찰되며 단부는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기와의 길이는 3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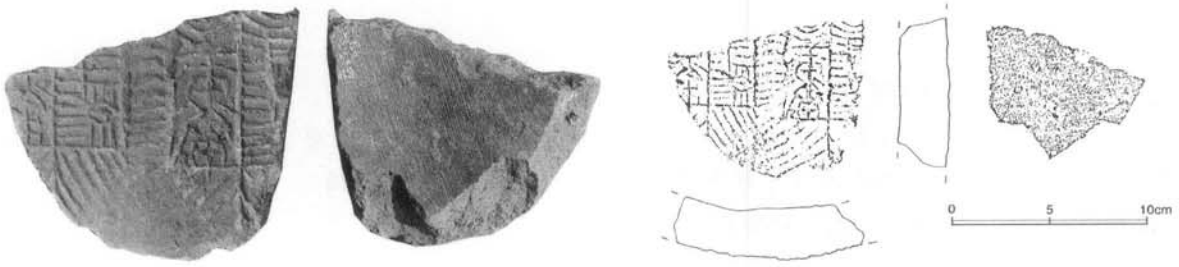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10 두께: 3.0㎝ B구역 상층



(3) '東南' 명와(사진 470, 그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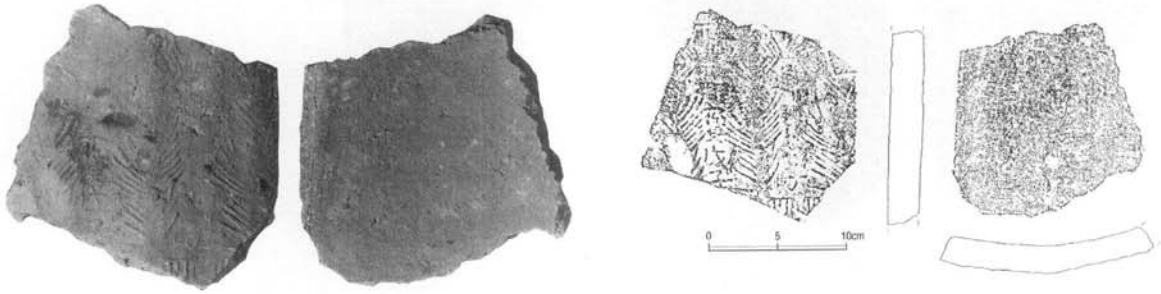
암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명문과 기하문이 좌우에 배치된 형태이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2㎝정도로 추정된다.

포목의 빈도수: 9×11 두께: 2.2㎝ 戶籍庫 상층



(4) '客貝戊子' 명와(사진 471, 그림 64)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토와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 하부는 종선문이 표현되고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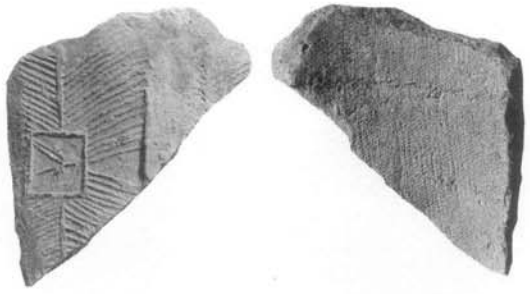
우에는 중호로 가는 단계의 사선문이 결합되었다. 동종의 기와에서 확인되는 명문은 '客'字 위로 '天下○○'字가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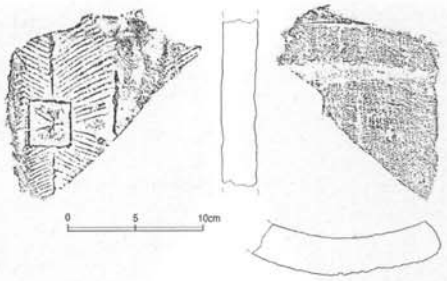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0×11 두께: 2.0㎝ 내아 배수시설 주변

(5) '大' 명와(사진 472, 그림 65)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입자가 굵은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어골문 중앙에 3.0㎝ 정도의 방곽 내부에 기와의 측방향으로 자리한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9.0㎝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0×9 두께: 2.3㎝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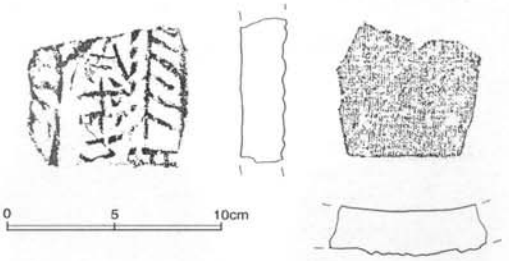


(6) 명와(사진 473, 그림 66)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굵은 입자의 점토가 군데군데서 확인된다. 사선문으로 처리된 테두리선 내부로 명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남아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하단은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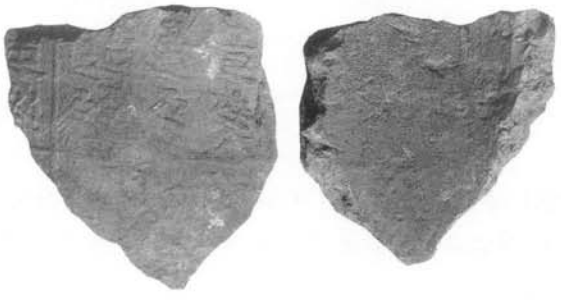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1 두께: 2.0㎝ 弘化閣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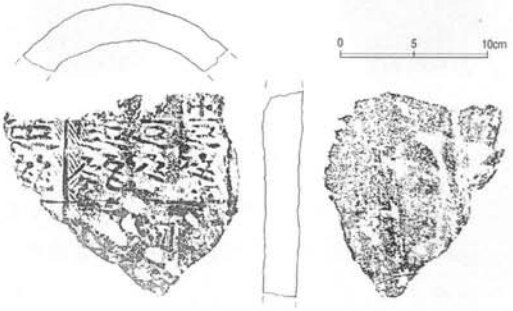




(7) '造瓦' 명와(사진 474, 그림 67)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흑색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명문은 거칠게 양각되었으며 '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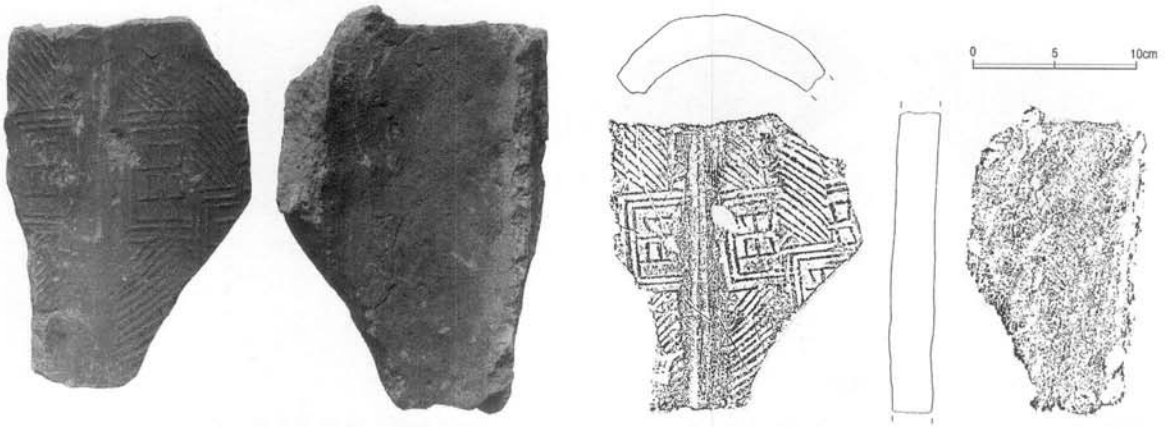
瓦' 銘 밑으로 1조의 횡선을 경계로 다른 글자가 더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명문은 어골문 사이에 나타난다. 후면에 빗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파악 불가. 두께: 2.5㎝ 예고 서쪽 담장 주변

(8) '門' 명와(사진 475, 그림 68)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3조의 방곽문을 두른 내부로 명문이 측방향으로 타날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봉분할 돌대에 의해 생긴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물손질로 인해 포흔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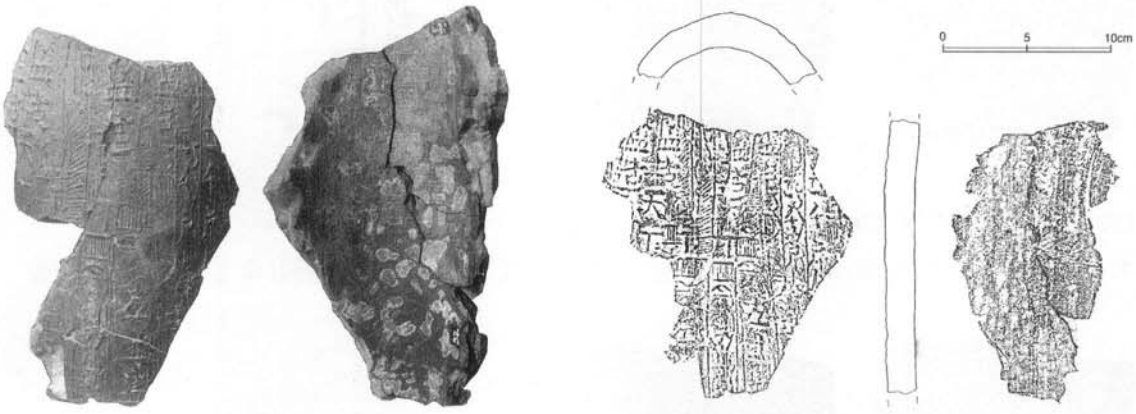
투께: 2.5㎝ 애매헌 상층



(9) '左主監造' 명와(사진 476, 그림 69)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1㎝내외의 외곽테두리 내부는 사선으로 채워져 있다. '左主監造'는 큰 글씨로 나타나나 그 밑의 명문인 '천호○○'는 작은 글씨로 나타난다. '天下' 명도 확인되는데 여러번 중복 타날되어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포목의 빈도수: 16×15 두께: 1.6㎝ 外大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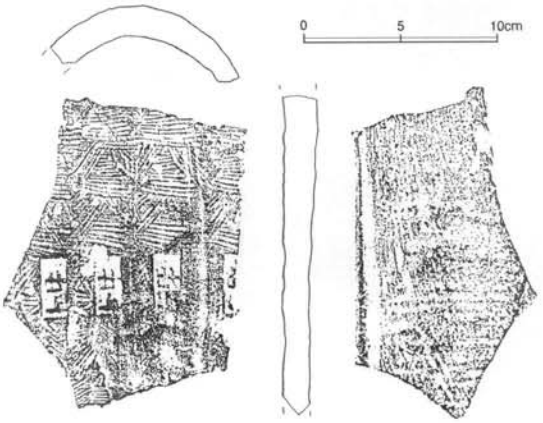


(10) '上甲' 명와(사진 477, 그림 70)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호문이 표현된 기와의 중앙에 측방향으로 명문이 타날되었다. 외곽테두리선은 단순히 凹면으로 처리되어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分割界線, 絲切痕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7×5 두께: 1.5㎝ C구역 상층





3. 평기와

평기와는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건물지의 하층 적심과 건물지 내부, 외곽담장, 근대건물의 하부구조 등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트렌치조사 기간과 발굴 종료단계 2회에 걸쳐 각 출토지별로 유물을 수거하였고, 타날판의 문양을 기준으로 소편이라도 가능한 많은 종류를 소개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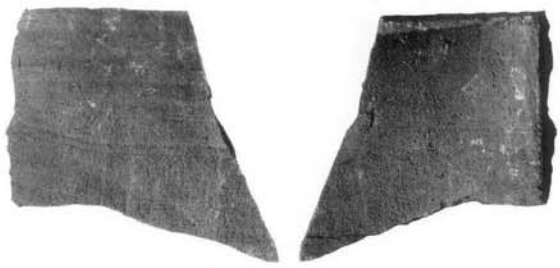
1) 암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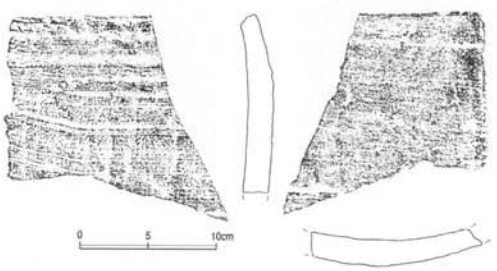
암기와 등 문양이 확인되는 한 하나의 개체로 보고 타날판 복원을 시도하였다. 확인되는 문양은 어골문, 어골문과 다른 문양의장이 결합된 복합어골문이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다. 조선 전기의 와적담장상에서 확인되는 기와는 순수어골문, 기하문이 결합된 어골문, 화문이 결합된 어골문, 만호겸목사명문 등이다. 격자문, 복합문은 예리장방 서쪽 단애면에서 많은 수가 확인되었다.

(1) 무문(사진 478, 그림 71)

흑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면적으로 물손질되었고, 횡방향으로 남겨진 빗질흔적에 의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상단부는 수차에 걸쳐 조정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포목의 빈도수: 10×10 두께: 1.8㎝ D구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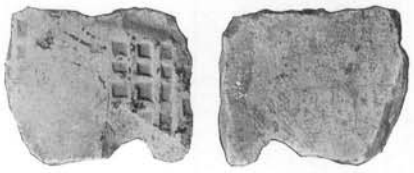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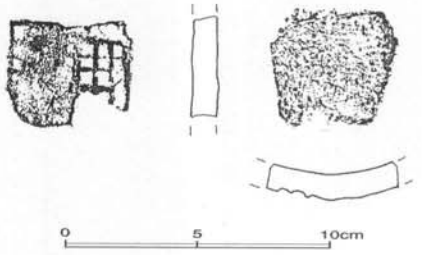


(2) 격자문(사진 479, 그림 72)

회청색 연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뚜렷하게 타날된 정격자가 확인되는 小片이다. 전면에 빗질흔이 확인된다.

두께: 0.9㎝ B-2구역 耽羅時代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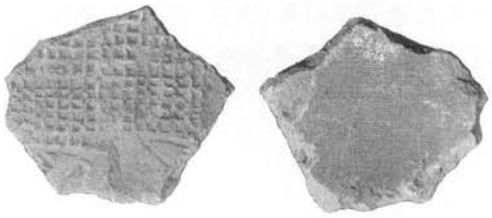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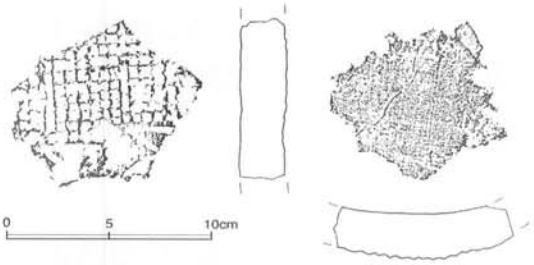


(3) 격자문(사진 480, 그림 73)

적갈색 연질의 암기와로 자토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상위의 정격자문 밑으로 ×字狀文이 음각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포목의 빈도수: 10×10 두께: 2.0㎝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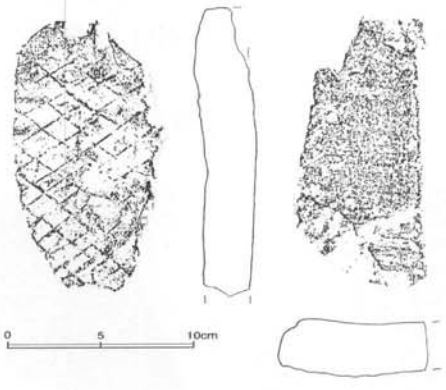


(4) 격자문(사진 481, 그림 74)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사격자문 일부에 눌린 곳이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두께: 2.8㎝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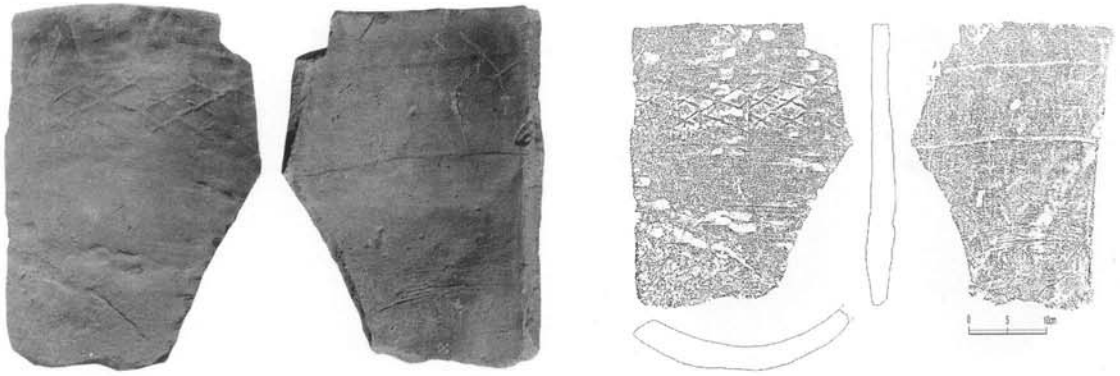


(5) 격자문(사진 482, 그림 75)

적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색 사립과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완형에 가까운 기와로 사격

자문이 넓게 표현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0㎝이다. 하단부는 비스듬하게 깎여서 조정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 상부에서 빗질흔이 관찰되며, 물손질로 인해 포목자국은 많이 지워져 있다. 단부는 물손질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연철흔, 윤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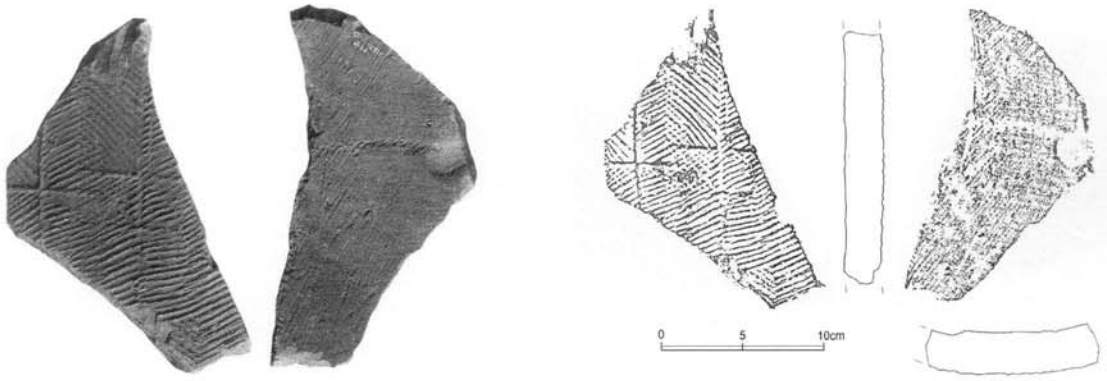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9×11 두께: 2.0~3.2㎝ 규격: 28.0×36.5㎝ 禮庫 상층



(6) 어골문(사진 483, 그림 76)

암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紫土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횡선이 둘러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상하를 진행하는 어골문이 표현되었다. 후면에 연철흔과 사절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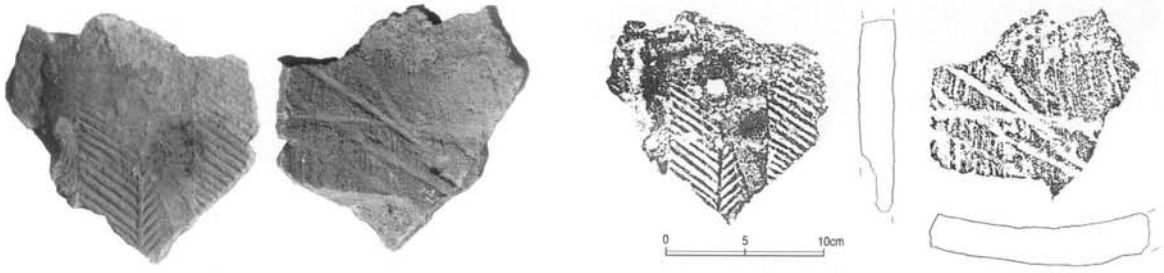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3×13 A구역 와적담장



(7) 어골문(사진 484, 그림 77)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단부만 남아 있으며 빗질흔이 확인된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0㎝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 빗질흔이 확인되며 사선방향으로 그어진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두께: 1.9㎝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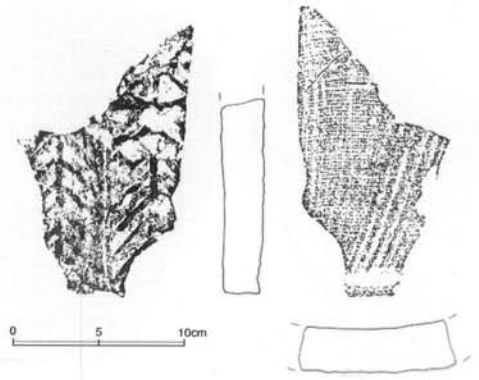


(8) 어골문(사진 485, 그림 78)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가지가 넓은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2㎝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에 윤철흔, 사절흔 등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6×5 두께: 2.5㎝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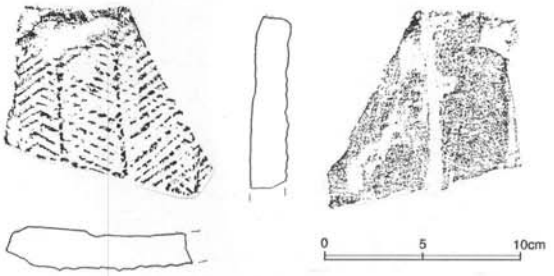


(9) 어골문(사진 486, 그림 79)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색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포목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두께: 1.8㎝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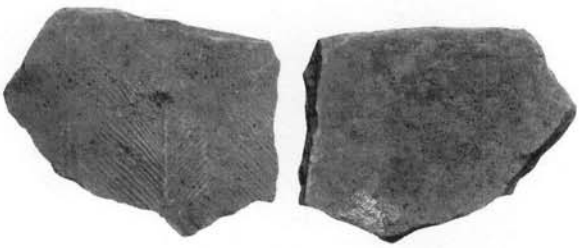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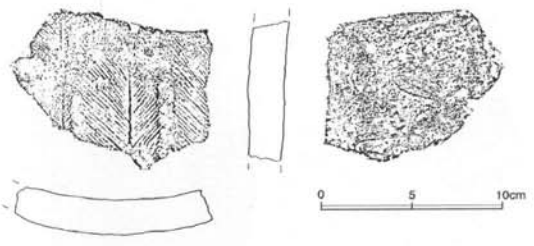


(10) 어골문(사진 487, 그림 80)

명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은 가는 선으로 표현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4㎝정도로 추정된다. 빗질흔이 관찰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¼정도 남아 있다.

포목의 빈도수: 14×13 두께 1.7㎝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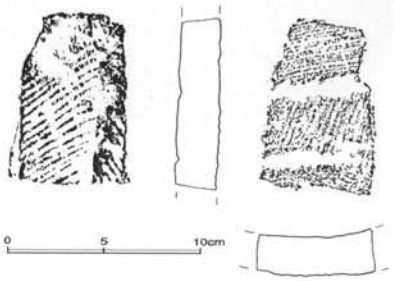
(11) 어골문(사진 488, 그림 81)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이 한쪽편만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8㎝정도로 추정된다. 빗질흔과 손가락자국이 관찰된다. 후면에 연철흔, 사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7×6 두께: 1.8㎝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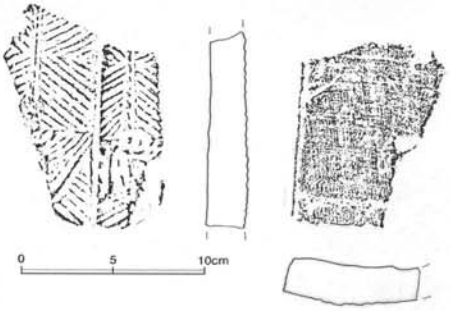


(12) 어골문(사진 489, 그림 82)

회색 연질의 암기와로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의 중심가지는 2겹으로 표현되었고, 상하로 진행하는 일부에 기하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8㎝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1×13 두께: 2.1㎝ 友蓮堂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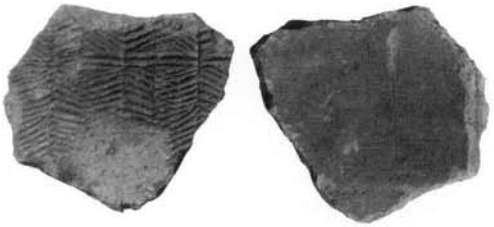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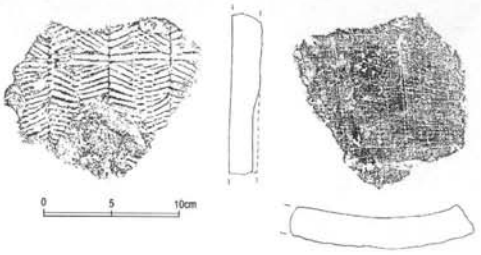


(13) 어골문(사진 490, 그림 83)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앙에 2조의 횡선을 중심으로 어골문이 상하로 진행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1×12 두께: 2.2㎝ 禮吏掌房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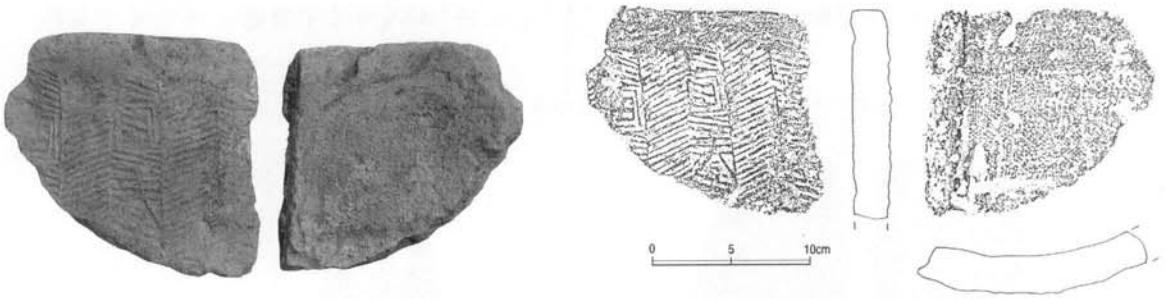




(14) 어골문(사진 491, 그림 84)

회갈색 연질의 암기와로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과 일부에 명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결합된 형태이다. 상부 일부에 손가락자국이 찍혀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5×5 두께: 2.0㎝ 中大門址 바닥



(15) 어골문(사진 492, 그림 85)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앙에 日字 비슷한 문양이 첨가된 가지가 넓게 표현된 어골문이다. 전면 일부에 빗질흔이 확인된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8㎝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예세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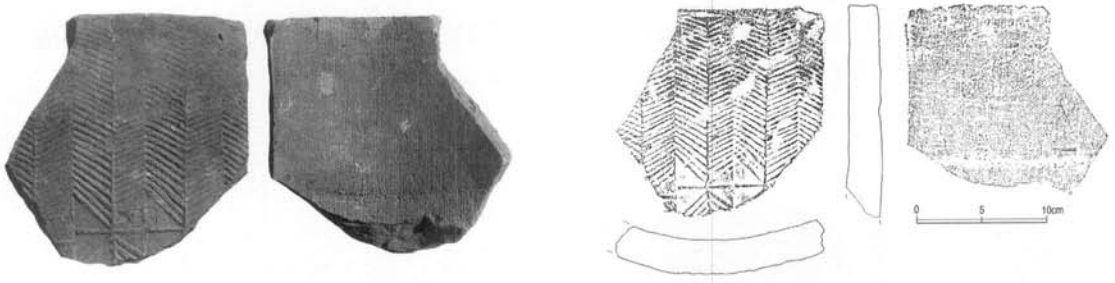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0×9 두께: 1.9㎝ 우연당 하층



(16) 어골문(사진 493, 그림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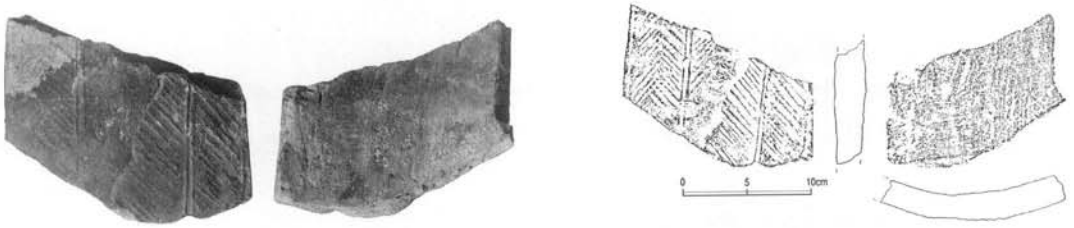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타날된 깊이가 뚜렷하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5.0㎝정도로 추정된다. 상하로 진행하는 어골문의 중앙은 한줄의 횡선으로 처리하였다. 단부에 예세로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8×9 두께: 2.5㎝ 홍화각 상층



(17) 어골문(사진 494, 그림 87)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의 중심가지가 2겹으로 표현되었다. 전면



에 점토판을 이은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2번에 걸쳐 절단되었다. 후면에 예세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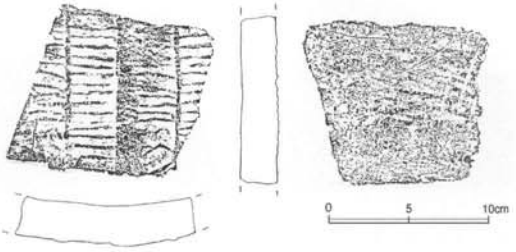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7 두께: 2.0㎝ 우연당 하층

(18) 어골문(사진 495, 그림 88)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곁가지가 수평으로 진행하는 타날판의 흔적이 뚜렷하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0㎝이다.

포목의 빈도수: 7×8 두께: 2.4㎝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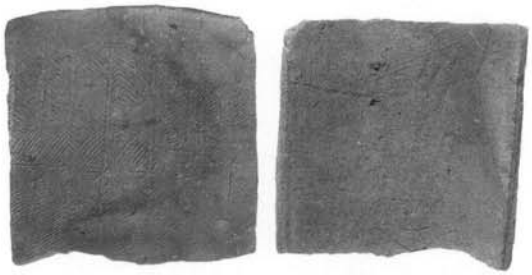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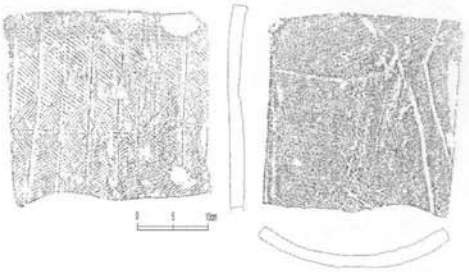


(19) 어골문(사진 496, 그림 89)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기와 중앙을 경계로 상하로 진행하는 어골문이 표현되었다. 기와의 가로 길이는 28.0㎝이고, 타날판의 규격은 7.6×34.5㎝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 연철흔, 예세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1×11 두께: 2.0㎝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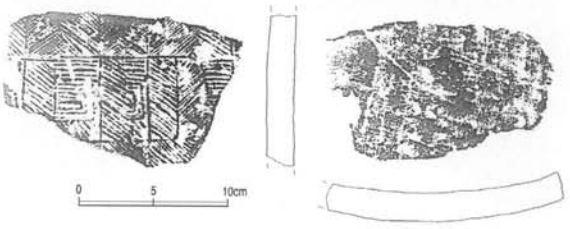




(20) 어골문(사진 497, 그림 90)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은 어골문으로 어골문중앙에 직경 5.7㎝의 공간을 두고 내부에 어골문과 방곽문이 相對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방곽이 표현된 부분은 중복타날되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5.3㎝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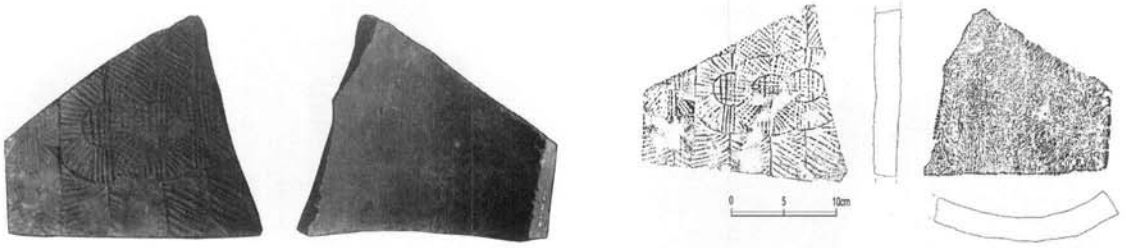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7 두께: 1.8㎝ 호적고 상층

(21) 어골문(사진 498, 그림 91)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국화문으로 보이는 화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꽃의 중앙부는 정격자문이 표현되고 꽃잎은 방사선으로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⅔정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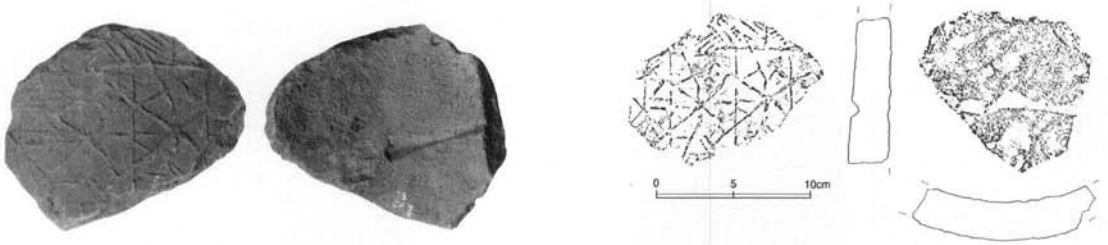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1 두께: 1.9㎝ 예고 상층



(22) 어골문(사진 499, 그림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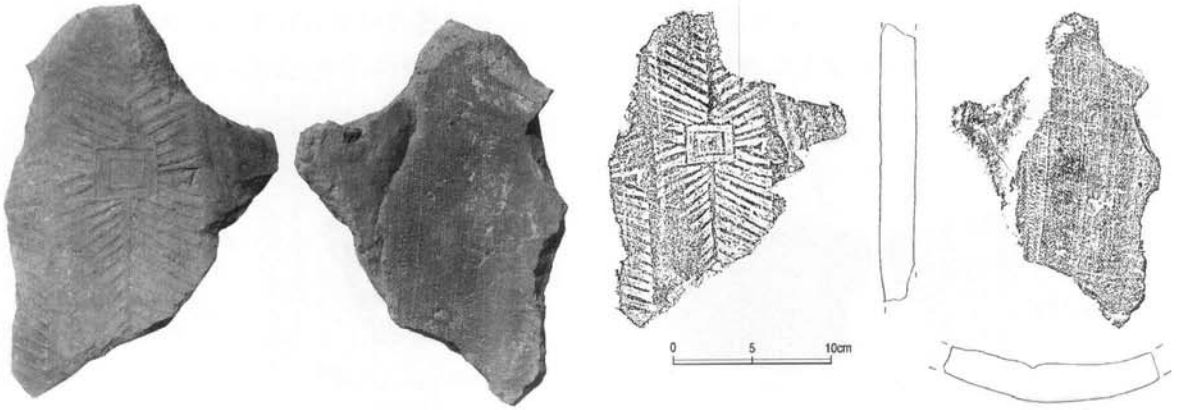
적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자토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은 일부에서 확인되며 중심에 자리한 문양은 직교하는 선문이 放射狀으로 표현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5.0㎝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에 三角狀으로 타날된 흔적이 관찰된다.

포목이 빈도수: 7×8 두께: 2.5㎝ 홍화각 상층



(23) 어골문(사진 500, 그림 93)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방곽문이 2중으로 표현된 형태이다. 전면적으로 물손질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8㎝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에 점토판을 이은 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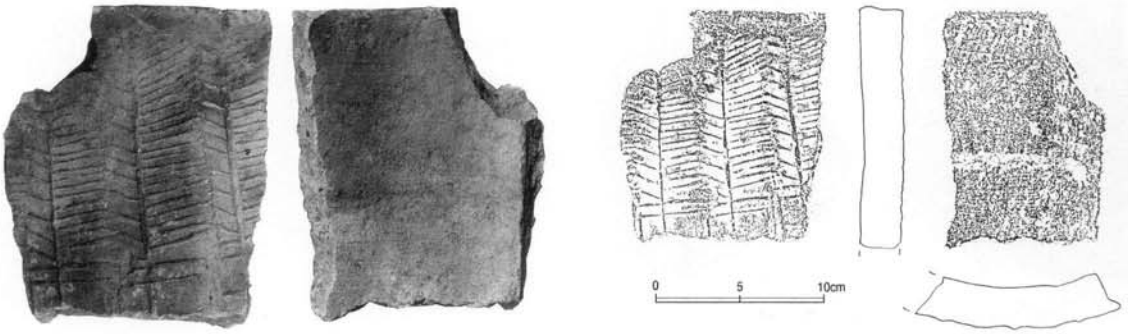
적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7×8 두께: 2.3㎝ 官吏掌房 동편배수로

(24) 어골문(사진 501, 그림 94)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방곽문과 어골문이 결합된 형태로 한 쪽가지가 더 조밀하게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확인되며, 물손질되어 포흔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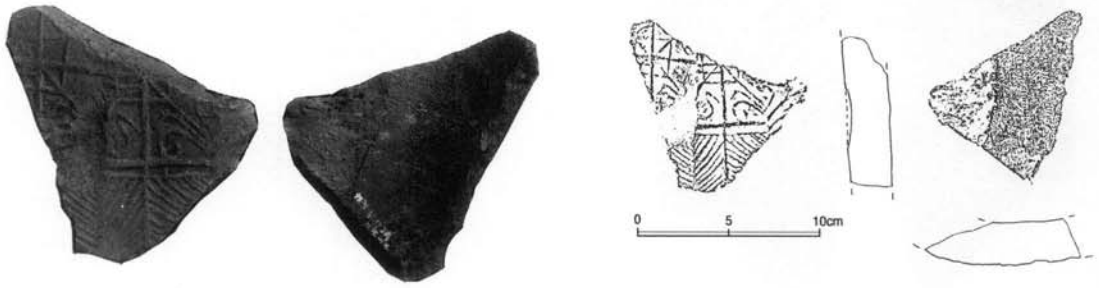
두께: 2.3㎝ 중대문지 바닥



(25) 어골문(사진 502, 그림 95)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방곽을 두르고 내부에 방사선문과 궐수문 혹은 당초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결합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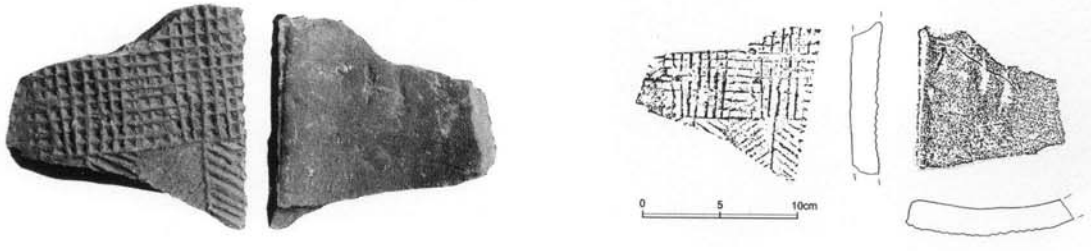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0 두께: 2.2㎝ 영리장방 상층



(26) 어골문(사진 503, 그림 96)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과 정격자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⅔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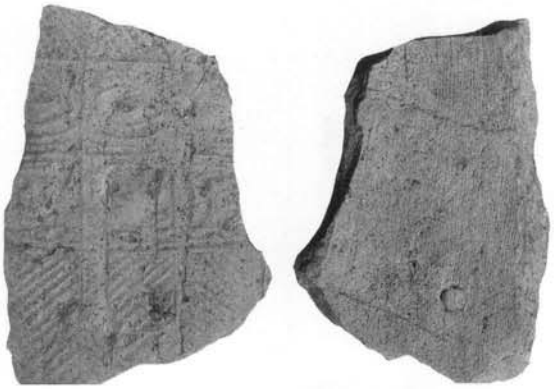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0×10 두께: 1.6㎝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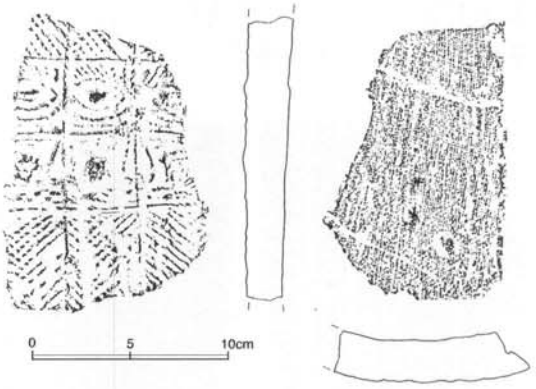


(27) 어골문(사진 504, 그림 97)

명갈색 연질의 암기와로 자토가 일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부에 방곽을 두고 내부를 4등분하여 眼象과 같은 돌출부를 두었다. 방곽 내부는 사선문으로 채워넣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0㎝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흔은 많이 마모되었다.

두께: 1.9㎝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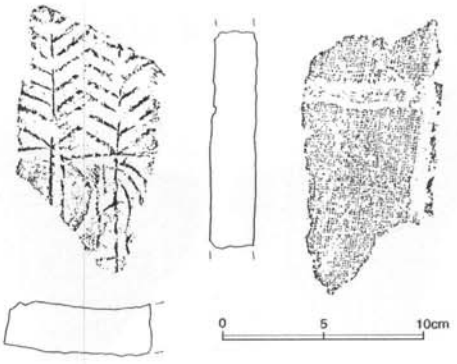


(28) 어골문(사진 505, 그림 98)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자토가 일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樹圓形文이 결합된 기와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과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8×8 두께: 2.2㎝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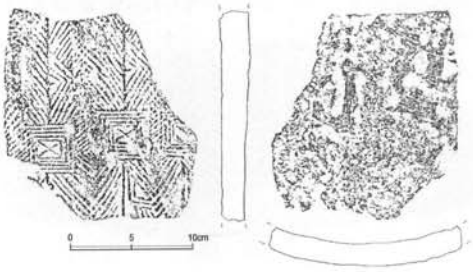




(29) 어골문(사진 506, 그림 99)

회색 연질의 암기와로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 중앙부에 4조의 방곽문을 두르고 내부에 ×字形文이 들어선 형태이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4㎝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은





많은 부분이 박리되어서 포목의 빈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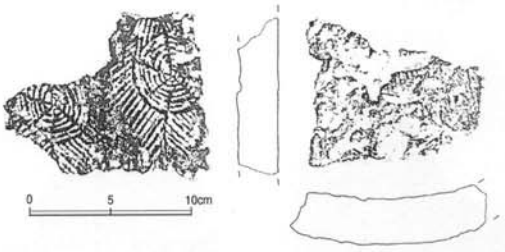
두께: 1.9㎝ 예고 상층

(30) 어골문(사진 507, 그림 100)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미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중원과 방사선문이 표현된 기와이다. 방사선문은 6개의 선으로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은 박리되었다.

두께: 2.3㎝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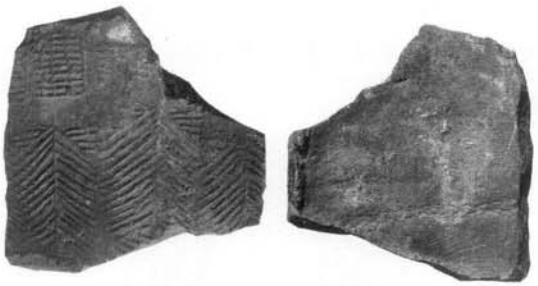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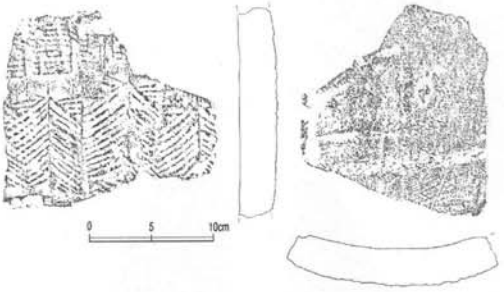


(31) 어골문(사진 508, 그림 101)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격자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2㎝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 사절흔,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3×11 두께: 2.6㎝ 내아 배수시설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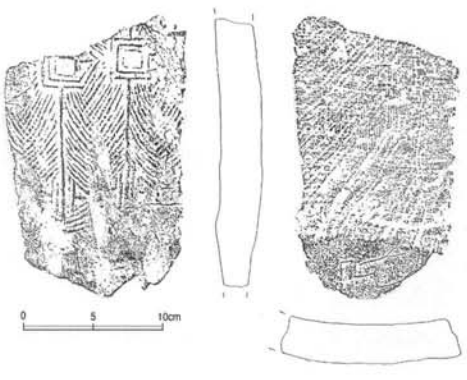




(32) 어골문(사진 509, 그림 102)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3조의 방곽문이 표현되었다. 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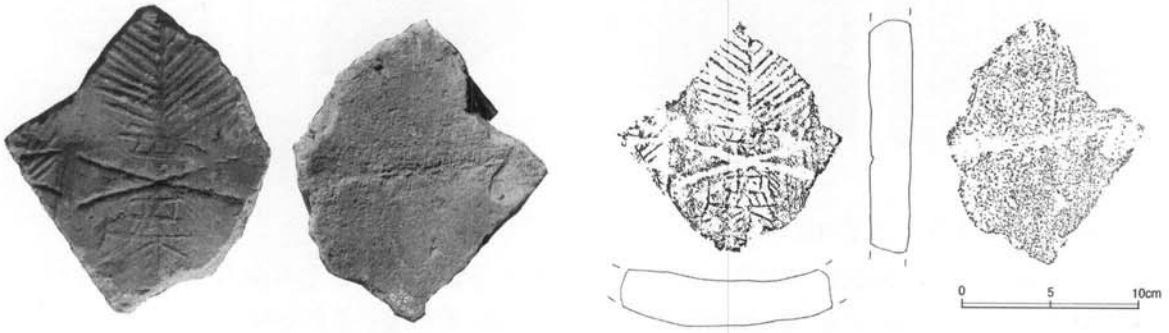
에 종선과 역방향의 어골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하단부는 빗질흔이 보이며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되며, 단부는 4.5㎝까지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포목의 빈도수: 8×8 두께: 2.7㎝ 홍화각 상층

(33) 어골문(사진 510, 그림 103)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2중 방곽을 두르고 내부에 기하문을 표현하였다. 방곽과 방곽 사이의 문양은 단사선이 사용되었다. 기하문으로 보이는 내부 문양은 타날판을 고정시킨 끈 흔적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5㎝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두께: 7.5㎝ 예고 상층



(34) 어골문(사진 511, 그림 104)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가는 선으로 표현된 어골문과 4중원을 두른 내부로 격자문과 종선문이 좌우에 相對하는 형태의 기와이다. 떡살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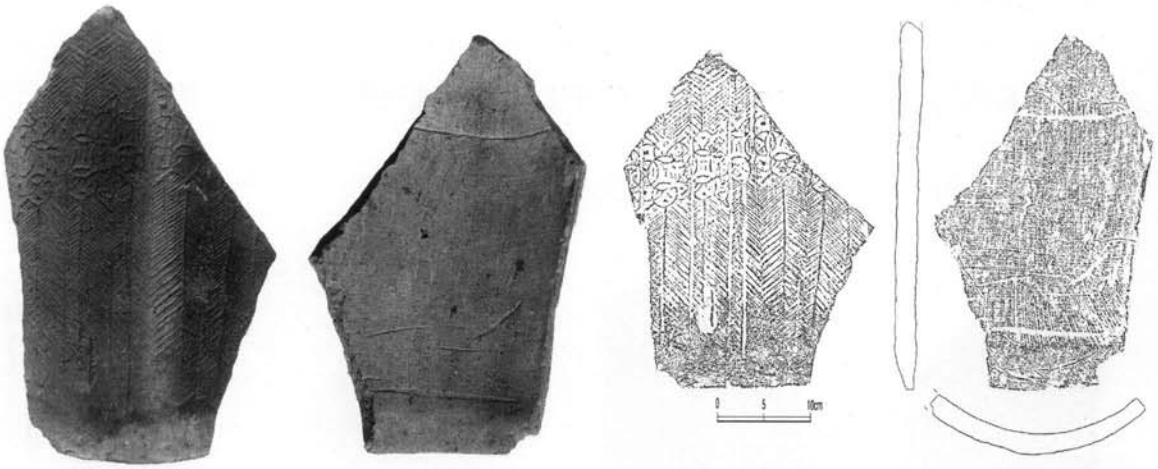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9 두께: 1.6㎝ B-2구역 상층



(35) 어골문(사진 512, 그림 105)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기와의 중앙을 경계로 좌우의 색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토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과 화문이 결합된 형태로 중앙에 서로 겹치는 8개의 원과 보다 큰 원을 사용하여 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타날판의 추정 규격은 5.2×37.0㎝정도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 단부는 3.5㎝정도까지 깎여서 조정되었다. 연철흔, 윤철흔, 예세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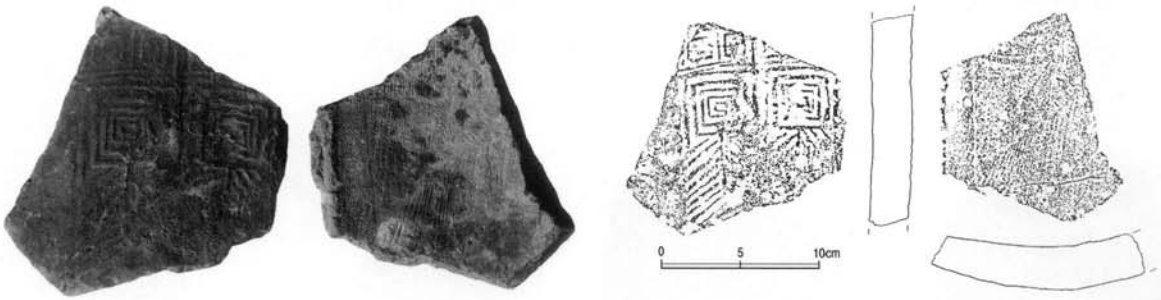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9 두께: 2.1㎝ A구역 와적담장



(36) 어골문(사진 513, 그림 106)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과 방곽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방곽 밑으로 다시 소형 방곽문이 좌우에 배치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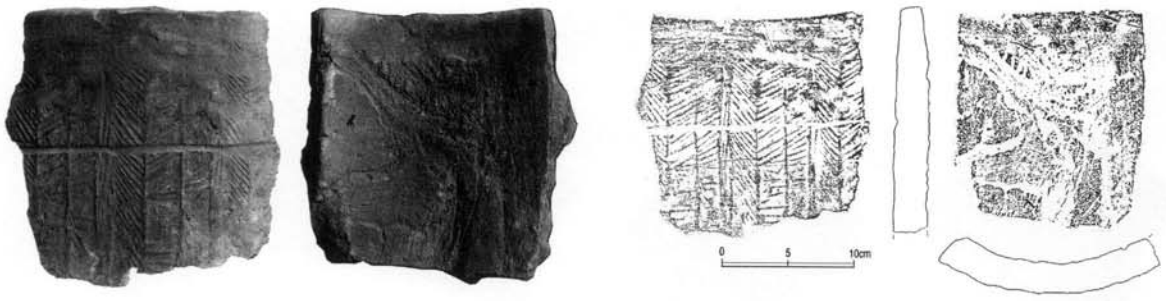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9 두께: 2.4㎝ 호적고 상층



(37) 어골문(사진 514, 그림 107)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타날판을 고정시켰던 끈 흔적이 뚜렷하게 타날되었다. 중앙에 명문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상단으로 3.5㎝정도까지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포목의 주름과 예세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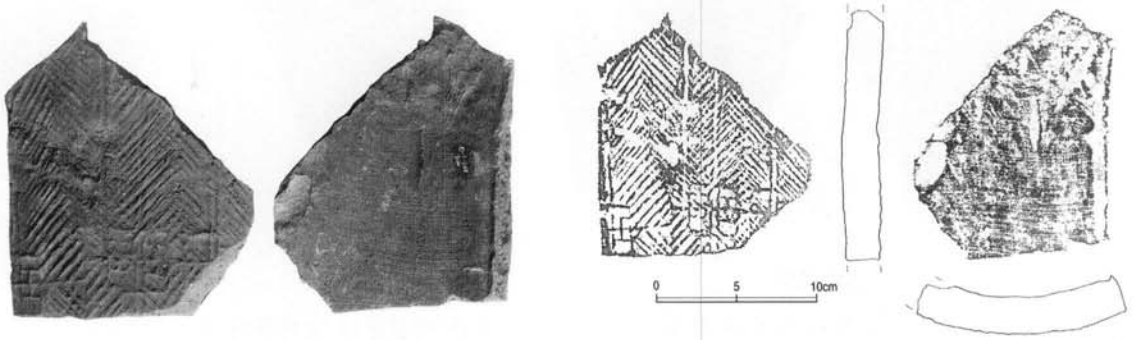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2×11 두께: 2.8㎝ D구역 와적담장



(38) 어골문(사진 515, 그림 108)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은 어골문으로 중앙에 기하문이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후면에 봉분할돌대에 의해 생긴 분할계선과 빗질흔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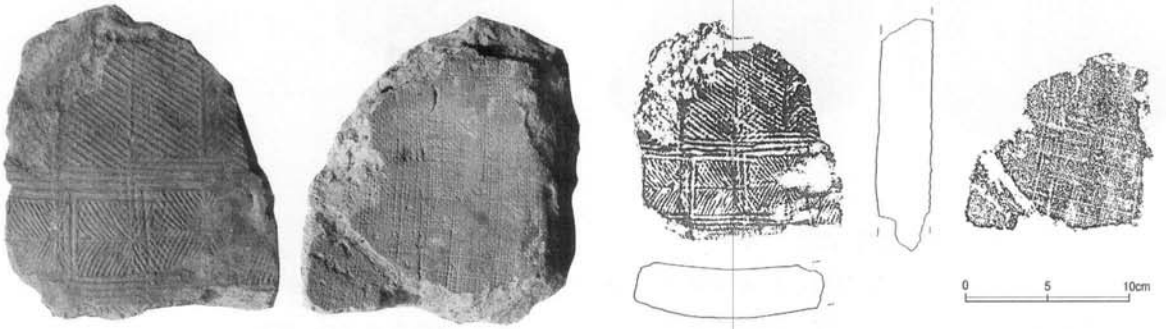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2 두께: 2.1㎝ 호고 상층



(39) 어골문(사진 516, 그림 109)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색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주문양은 어골문으로 어골문 중앙에 4조의 방곽을 두르고 내부에 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어골문이 표현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7.0㎝정도로 추정된다. 측면은 2회에 걸쳐 절단되었으며,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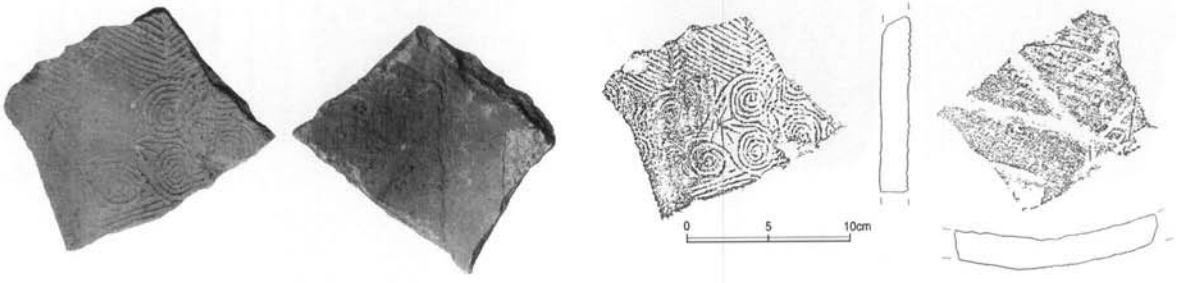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8 두께: 2.8㎝ 호적고 상층



(40) 어골문(사진 517, 그림 110)

적갈색 연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나선문 4개가 결합된 형태이다. 일부 물손질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8.2㎝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에 合綴痕, 연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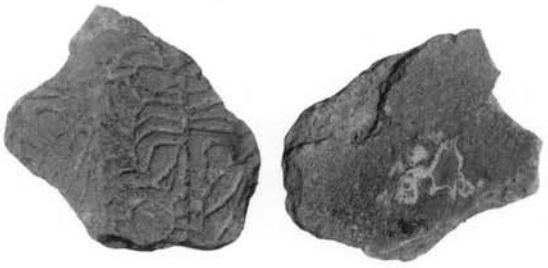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3×14 두께: 1.6㎝ D구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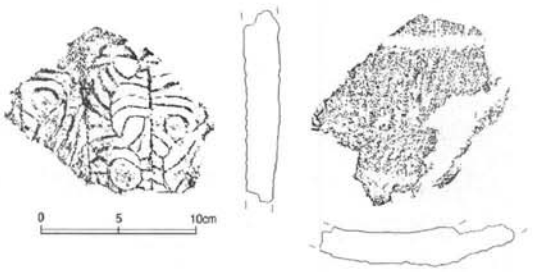


(41) 樹形文(사진 518, 그림 111)

황갈색 연질의 암기와로 자토와 흑색 미립자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나무가지가 굽이치는 형태와 일부 꽃잎으로 보이는 문양이 결합된 형태이다. 파손된 부분의 문양은 어골문으로 추정된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8.0㎝정도로 추정된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포흔은 확실하지 않다.

두께: 1.8㎝ D구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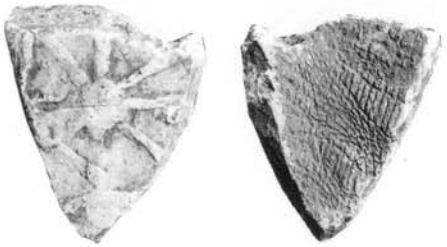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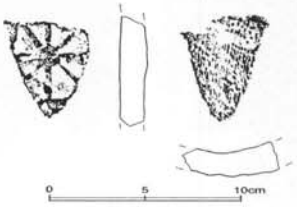


(42) 화문(사진 519, 그림 112)

회백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車輪文으로도 보이는 8엽을 가진 화문이 표현되었다.

포목의 빈도수 6×4 두께: 1.4㎝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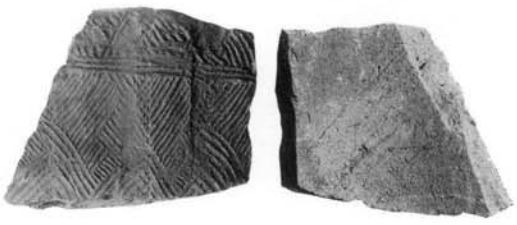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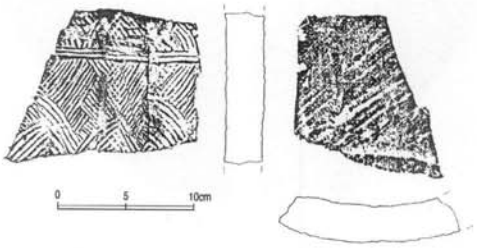


(43) 선문(사진 520, 그림 113)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색 미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과 상위에 사선방향이 선문이 연속적으로 표현되고, 하위에 3조의 횡선이 결합된 형태이다. 일부에 빗질흔이 관찰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連綴痕과 斜切痕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0×11 두께: 2.7㎝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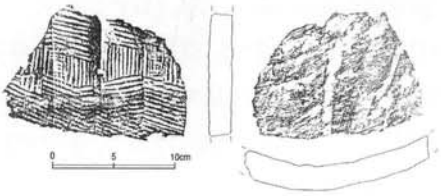


(44) 선문(사진 521, 그림 114)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사선문+종선문+사선문 순으로 구성되었다. 한쪽의 타날판만 남아 있어서 전체 문양의장은 어골문+종선문+어골문일 가능성도 있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된다.

포목이 빈도수: 10×11 두께: 1.7㎝ 戶庫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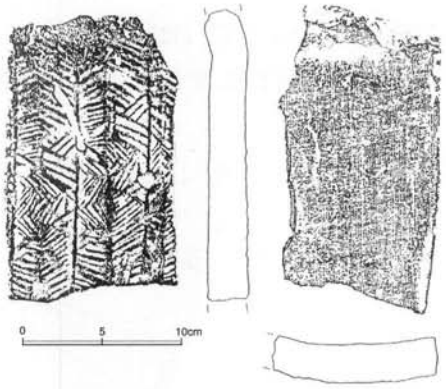


(45) 선문(사진 522, 그림 115)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양단으로 어골문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중앙에는 불규칙한 사선문이 확인된다. 단부는 물손질되었고 빗질흔이 여러곳에 나타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輪綴痕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7×8 두께: 2.2㎝ 호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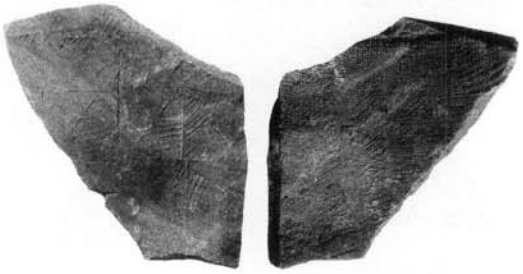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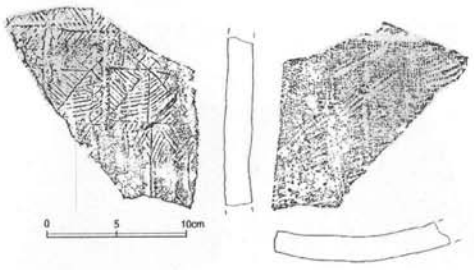


(46) 복합문(사진 523, 그림 116)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과 거미줄과 유사한 방사상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많은 부분이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 일부에 미세하게 남아 있다. 후면에 빗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입자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두께: 1.9㎝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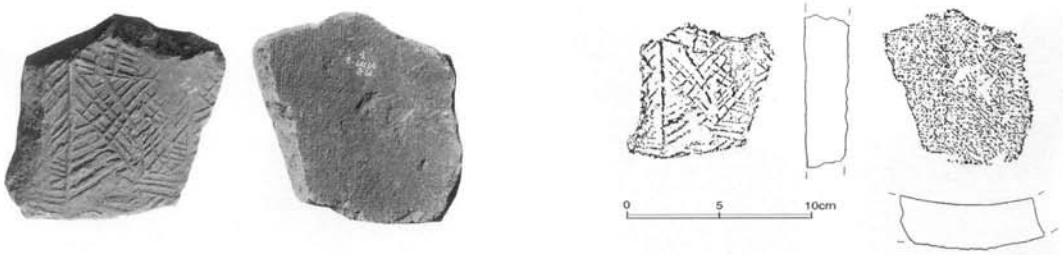




(47) 복합문(사진 524, 그림 117)

암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과 사격자문, 일부 정격자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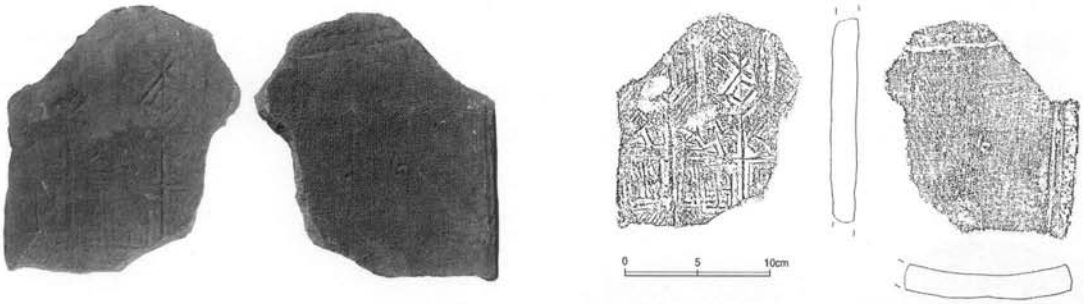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7 두께: 2.2㎝ 홍화각 하층



(48) 복합문(사진 525, 그림 118)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수직선상에 중첩된 마름모문이 연속되고 하위에 종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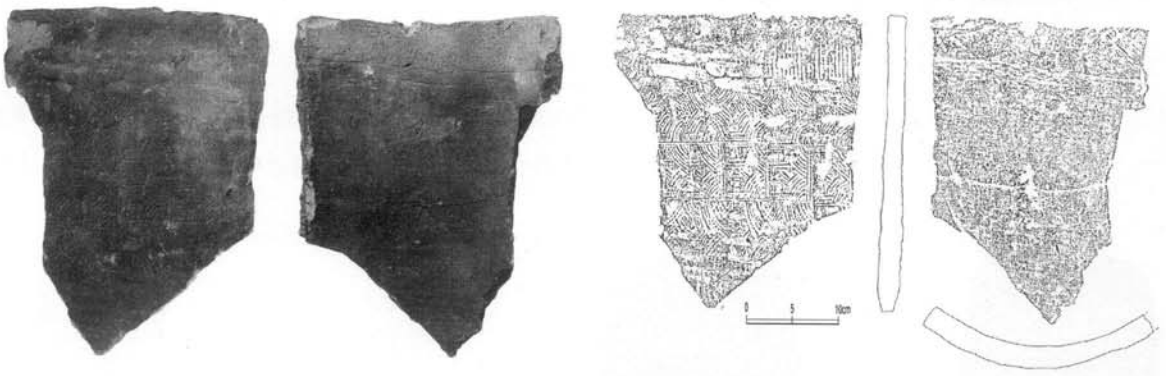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9 두께: 2.0㎝ 중대문지 바닥



(49) 복합문(사진 526, 그림 119)

흑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굵은 점토입자와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기와의 상하위에 종선이 표현되고 내부에 중호로 가는 단계의 사선문이 상하에 결합되었다. 기와중앙에는 방곽을 표현하였다. 전면 상부는 물손질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타날판의 규격은 6.5×28.5㎝정도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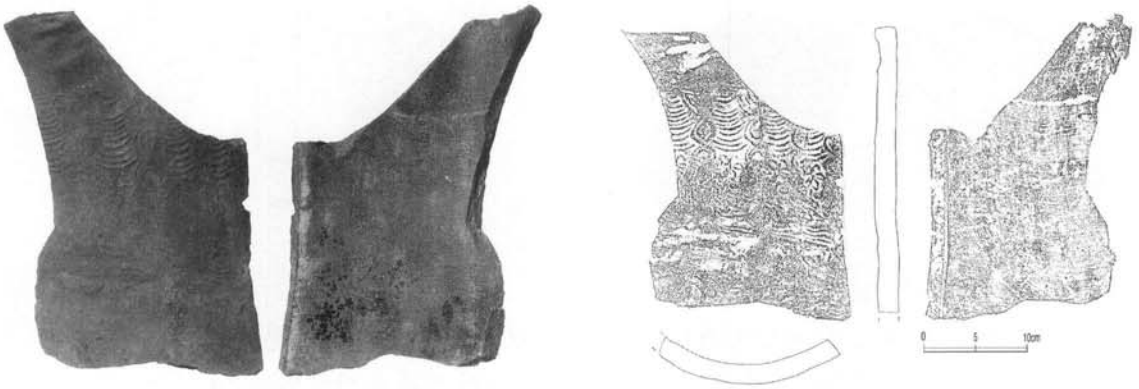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13 두께: 2.0㎝ D구역 지표



(50) 중호문(사진 527, 그림 120)

회청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호를 그리는 단선과 일부에 화엽으로 보이는 문양이 결합된 형태이다. 상단은 물손질되고 전면적으로 빗질흔적이 관찰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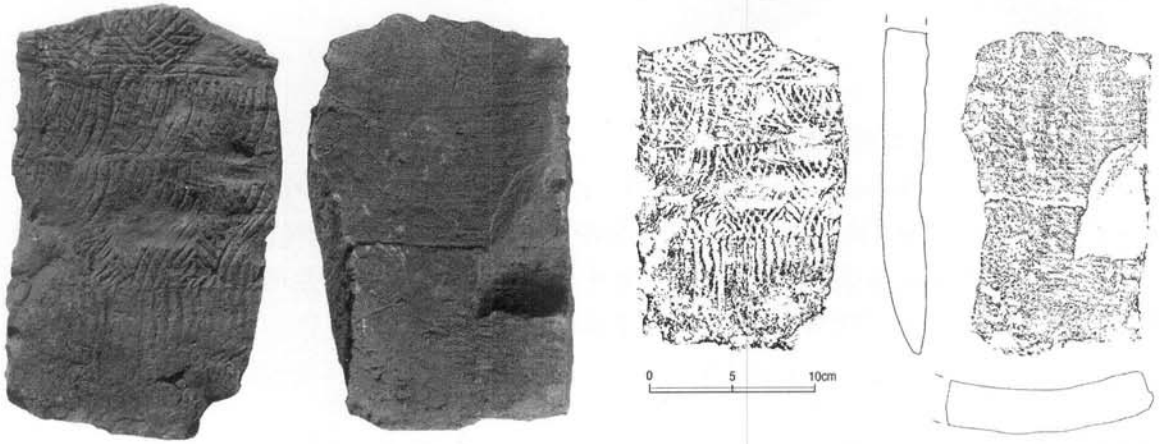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7 두께: 2.0㎝ 예고 하층적석



(51) 중호문(사진 528, 그림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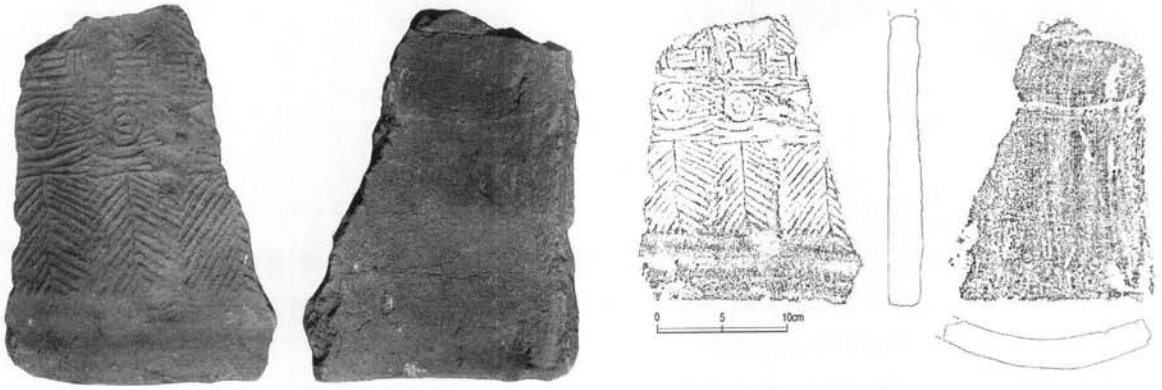
회갈색 경질의 암기와로 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하위의 문양은 종선문이고 상위의 문양은 중호문 혹은 변형 사격자문으로 보인다. 이 기와 역시 선문에서 중호문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단부는 물손질되었으며 일부에 마포자국이 남아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 하단부는 깎여서 물손질되었고 연철흔, 사절흔 등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0×11 홍화각 상층



(52) 복합문(사진 529, 그림 122)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사립과 흑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방곽문+重圓文이 결합되었다. 단부는 조정되어 물손질되었고 물끊기 홈이 2개가 확인된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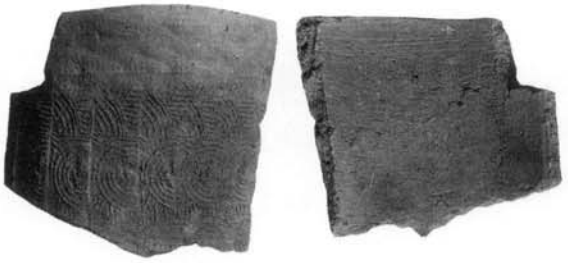
7.2㎝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이 확인되며 하부는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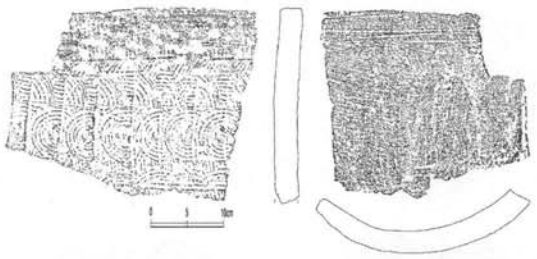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9 두께: 2.0㎝ 예리장방 서쪽

(53) 복합문(사진 530, 그림 123)

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중원문과 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선문은 사선, 종선, 횡선이 모두 나타난다. 중원은 기와 중앙부에 보이며, 상단으로 8.0㎝정도까지는 물손질되었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8.5㎝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 빗질흔이 관찰된다.

두께: 1.7~3.2㎝ 예리장방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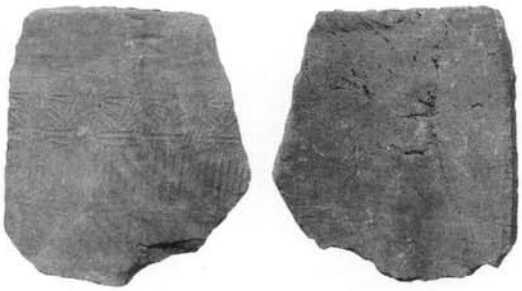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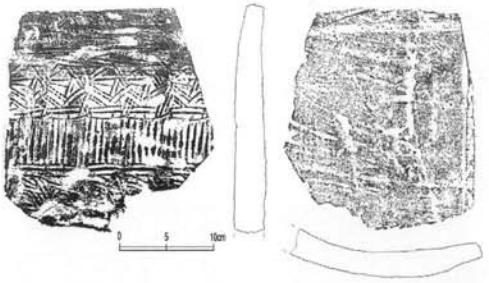


(54) 복합문(사진 531, 그림 124)

암회색 경질의 암기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종선과 횡선, 불규칙한 사선이 상하로 자리한 형태이다. 단부는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 빗질흔이 관찰되며, 점토판을 이은 흔적이 확인된다. 단부에 예세로 그은 흔적이 확인된다.

포목의 빈도수: 9×10 두께: 3.1㎝ 예리방방 서쪽





4.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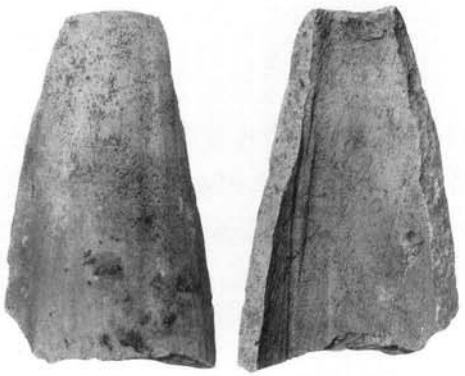
수키와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기와는 어골문과 중호문계의 기와이다. 어골문은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나 대부분이 파편이다. 연못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기와는 중호문 일색이며, 후기 건물지라고 생각되는 예리장방 서쪽 단애면에는 복합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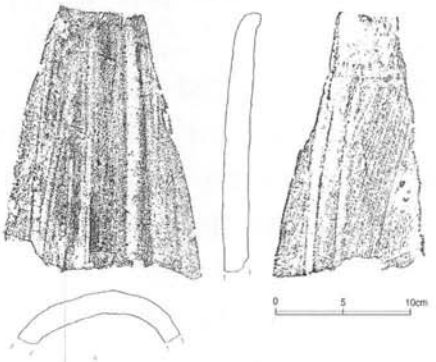
(1) 무문(사진 532, 그림 125)

암회색 연질의 수키와로 흑회색 미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무단식 기와의 상부이다. 상하로 길게 쓸어내린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후면에 윤철흔, 분할계선, 사절흔, 빗질흔이 관찰된

다.

두께: 1.5㎝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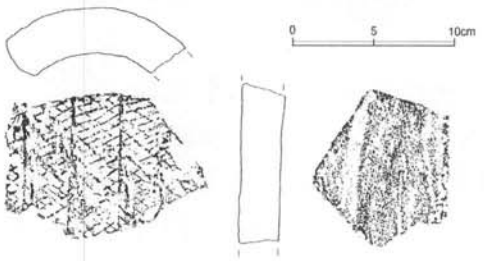


(2) 격자문(사진 533, 그림 126)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사격자문은 중심가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어골문이 중복타날된 것 같기도 하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포목의 빈도수: 7×9 두께: 2.4㎝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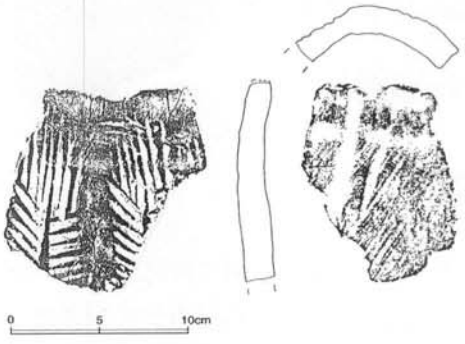




(3) 어골문(사진 534, 그림 127)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무단식 기와의 상단부로 굵은 선으로 표현된 어골문의 상위는 밀집종선문으로 확인된다. 단부는 조정되었고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사절흔, 빗질흔이 관찰된다. B-2구역 탐라시대층





(4) 어골문(사진 535, 그림 128)

적갈색 연질의 수키와로 자토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무단식 기와의 상단부로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 상단은 손으로 다듬어서 날렵해지고 물손질되었다.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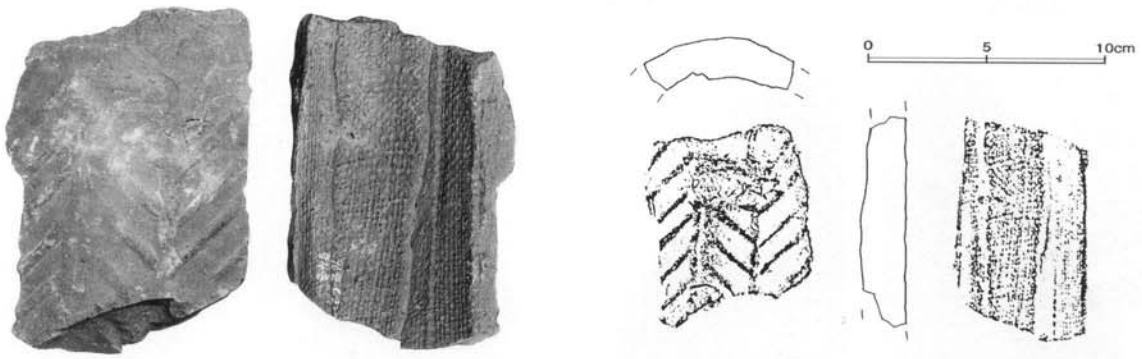
두께: 1.6㎝ B-2구역 상층



(5) 어골문(사진 536, 그림 129)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언강부는 물손질되었다. 후면에 점토판을 이은 흔적과 合綴痕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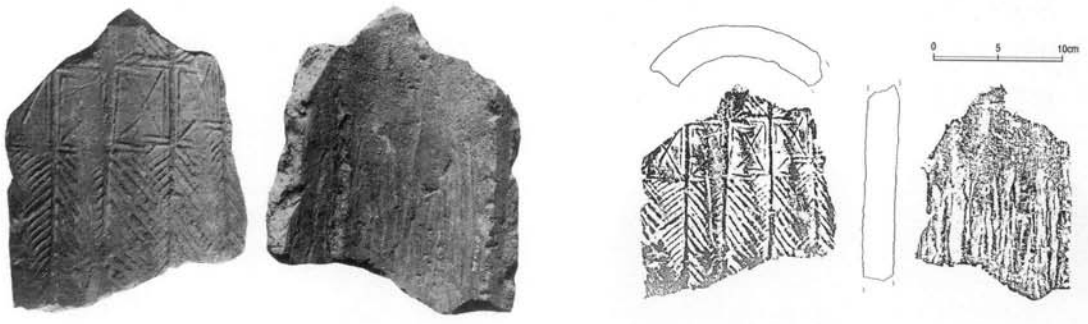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7×7 두께: 1.4㎝ B-2구역 탐라시대층



(6) 어골문(사진 537, 그림 130)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입자가 큰 흑색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방곽을 두른 내부에 ×字狀文이 결합된 형태이다. 일부에 빗질흔이 남아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⅔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빗질흔과 예세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파악 불가. 두께: 2.7㎝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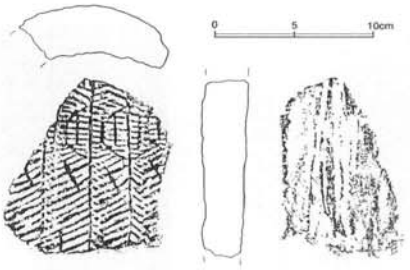


(7) 어골문(사진 538, 그림 131)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원을 두르고 내부에 정격자문이 표현되었다. 어골문 사이 사이에 짧은 사선이 관찰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함께 종방향으로 남겨진 집선문이 깊게 패어 있다.

두께: 2.6㎝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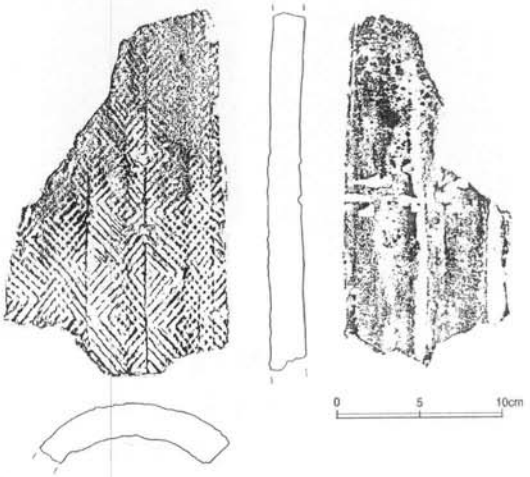


(8) 어골문(사진 539, 그림 132)

회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상하로 직교하는 어골문이 위 아래에 연속적으로 표현된 기와이다. 상위의 어골문은 하위의 어골문과 만나서 중첩된 마름모로 보인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연철흔과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미세한 포목자국과 일부에 타날흔이 남겨져 있다.

포목의 빈도수: 16×14 두께: 2.2㎝ A구역 와적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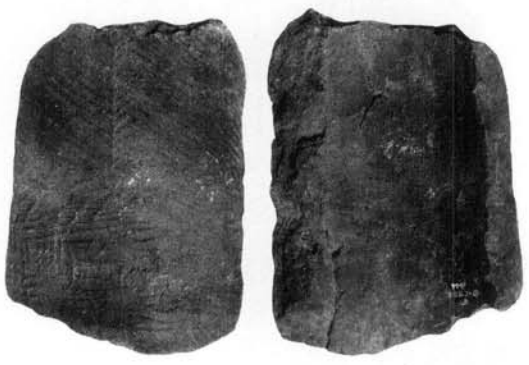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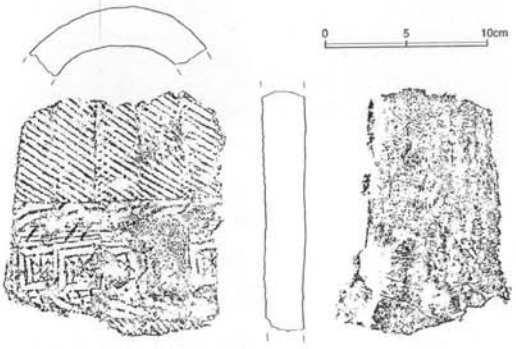


(9) 어골문(사진 540, 그림 133)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은 한쪽으로만 확인되며, 중앙에 방곽을 구획하고 내부에 *字狀文이 결합된 형태이다. 후면에 점토판을 이은 흔적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9×9 두께: 2.2㎝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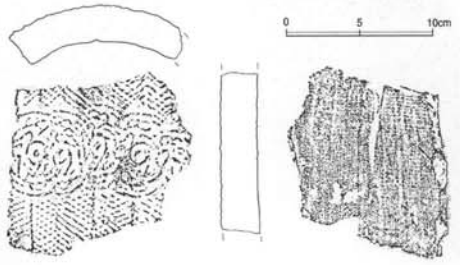


(10) 어골문(사진 541, 그림 134)

황갈색 연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내부에 2~3중의 원권을 두르고 내부에 巴形文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포목의 빈도수: 13×10 두께: 2.5㎝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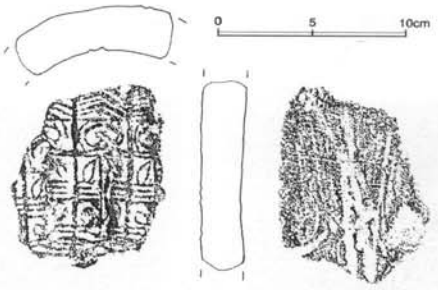


(11) 어골문(사진 542, 그림 135)

갈색 연질의 수키와로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3~4조의 띠를 두르고 3등분하여 내부에 잎과 같은 문양이 들어선 형태이다. 후면은 와통의 흔적이 뚜렷하다.

포목의 빈도수: 12×10 두께: 2.0㎝ 홍화각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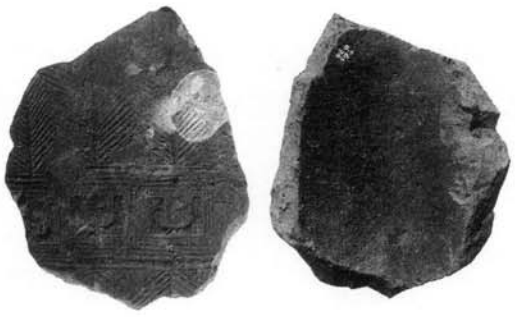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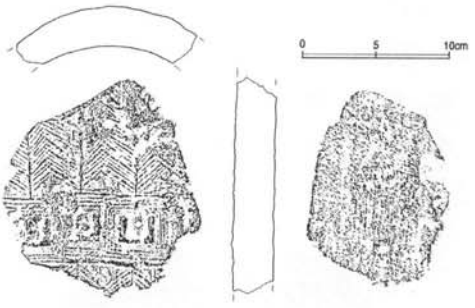


(12) 어골문(사진 543, 그림 136)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자토가 일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4~5중의 방곽을 두고 내부에 양각으로 돌출된 'ㄷ'字狀文이 표현되었다. 후면은 물손질되었다.

두께: 2.5㎝ 예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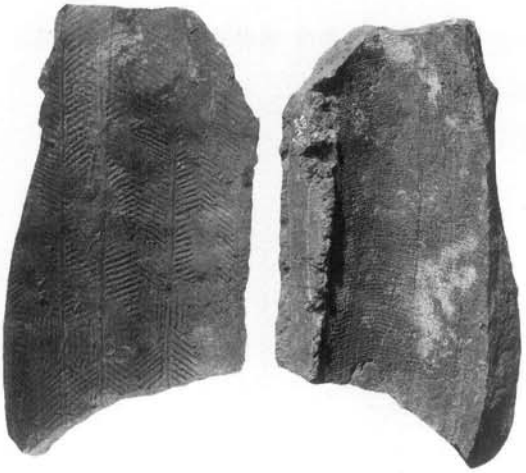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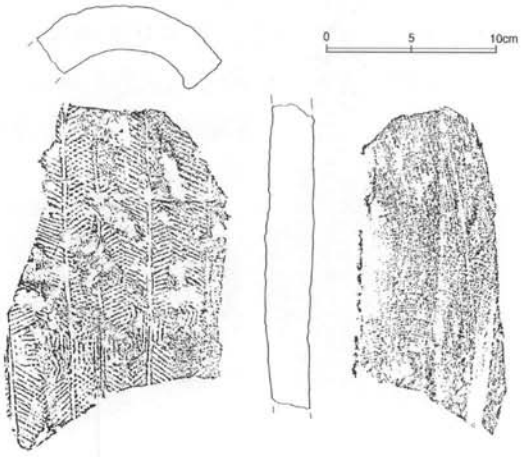


(13) 어골문(사진 544, 그림 137)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심가지가 2겹으로 표현된 기와로 중앙부에 중첩된 소형 방곽문이 확인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⅔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사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1×9 두께: 2.2㎝ 내아배수시설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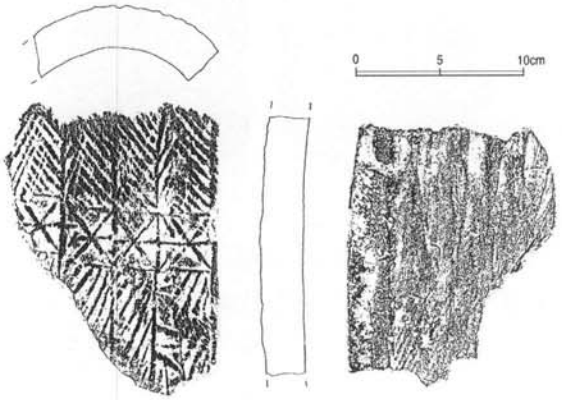


(14) 어골문(사진 545, 그림 138)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字狀文이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 빗질흔이 관찰되며, 대칼로 조정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 1.8㎝ 중대문지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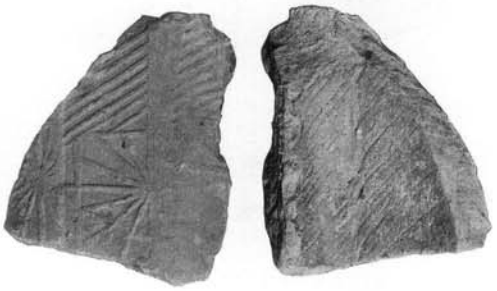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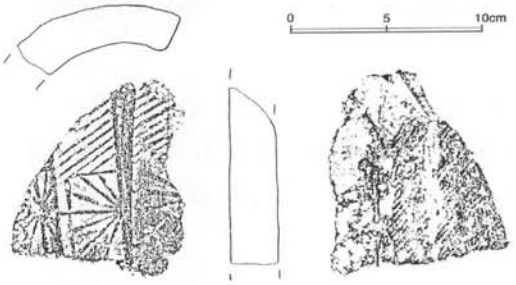


(15) 어골문(사진 546, 그림 139)

적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방곽을 두르고 내부에 방사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타날판의 가로 길이는 6.2㎝정도로 추정된다. 측면 절단흔은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된다.

두께 : 2.3㎝ 홍화각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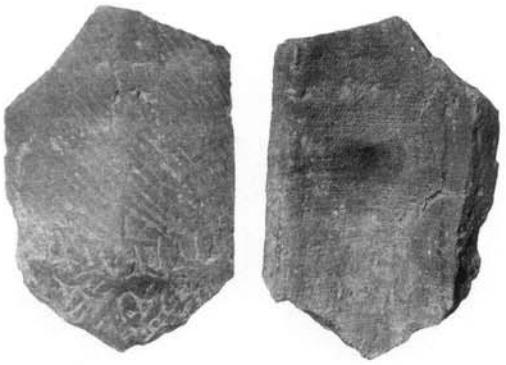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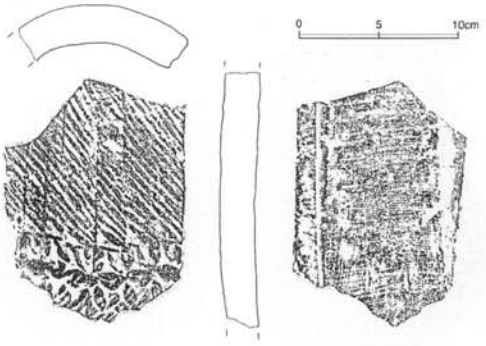


(16) 어골문(사진 547, 그림 140)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뚜렷한 깊이를 가진 화엽이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포목의 빈도수: 5×6 두께: 2.1㎝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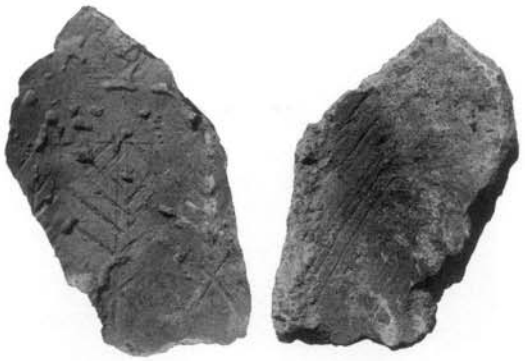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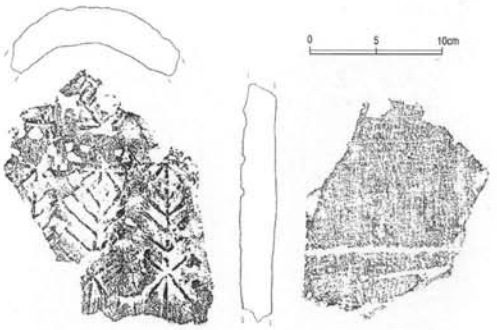


(17) 어골문(사진 548, 그림 141)

적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자토가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넓게 표현된 어골문과 중앙에 3.5㎝ 정도의 공간을 두었는데, 공간 내부의 문양은 물손질로 지워져 있다. 전면 곳곳에 작은 구멍이 보인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2×16 두께: 2.3㎝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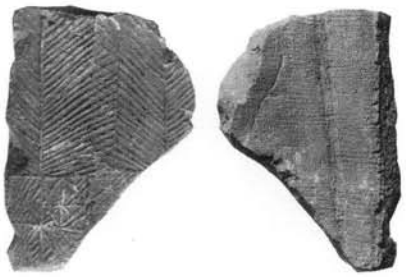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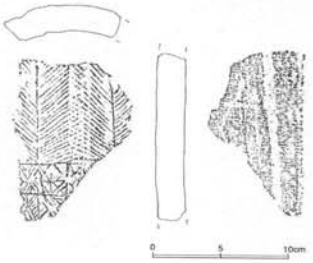


(18) 어골문(사진 549, 그림 142)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띠를 두른 듯한 내부로 직교하는 선문과 함께 마름모형태의 문양이 결합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일부 남아 있다. 후면에 합철흔과 점토판을 이은 흔적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3×11 두께: 1.8㎝ 예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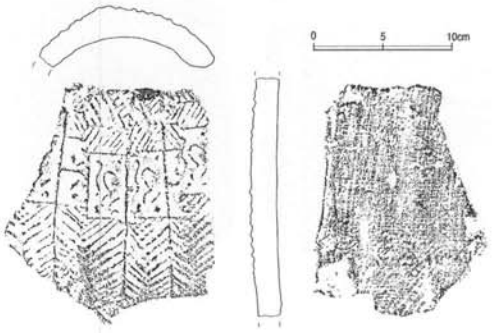


(19) 어골문(사진 550, 그림 143)

황갈색과 회청색이 양분되어 나타나는 연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앙에 4.7㎝정도의 공간을 두고 좌우에 범어가 들어 있는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11×9 두께: 1.8㎝ 영리장방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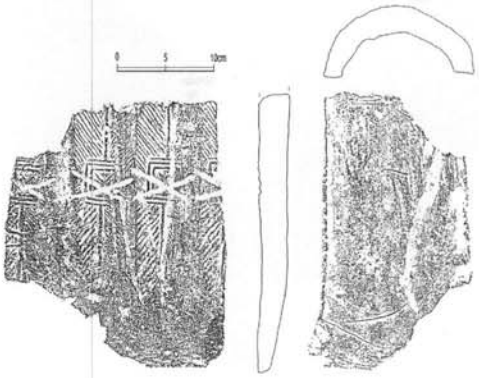




(20) 어골문(사진 551, 그림 144)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기와의 가로 길이는 16.4㎝이다. 어골문 중앙에 3조의 방곽문을 두르고 내부에 ×字狀文이 표현되었다. 또한 타날판을 묶었던 ×字狀의 끈 흔적이 뚜렷하게 타날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단부는 5.5㎝까지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두께: 2.3㎝ 호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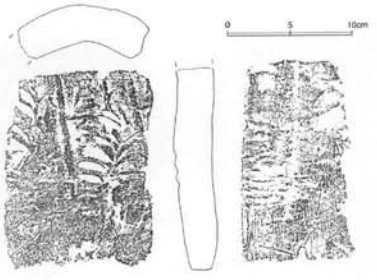




(21) 樹葉文(사진 552, 그림 145)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심가지는 두꺼운 돌출선으로 표현했으나,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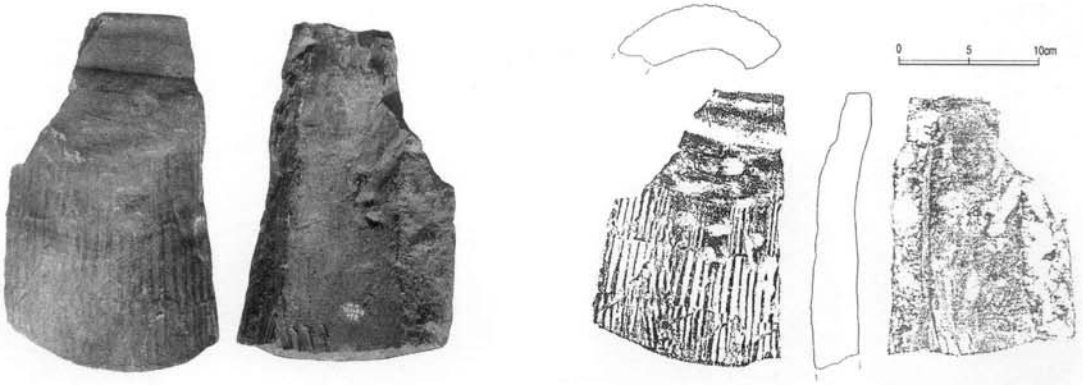
잎은 음각되었다. 하단부는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윤철흔과 합철흔이 관찰된다. 단부는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포목의 빈도수: 13×13 두께: 2.8㎝ 호적고 상층

(22) 선문(사진 553, 그림 146)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유단식기와로 미구와 언강부는 수차에 걸쳐 조정되어 물손질되었다. 종선이 자리한 일부에 짧은 횡선문이 보인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¼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와통의 윤곽이 남아 있으며, 일부 타날흔, 빗질흔이 관찰된다.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두께: 3.0㎝ 예고 상층



(23) 선문(사진 554, 그림 147)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세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일부에 사격자문과 정격자문이 확인되는데, 어골문이 중복 타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포흔은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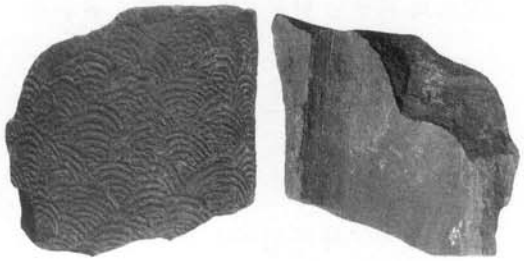
두께: 2.3㎝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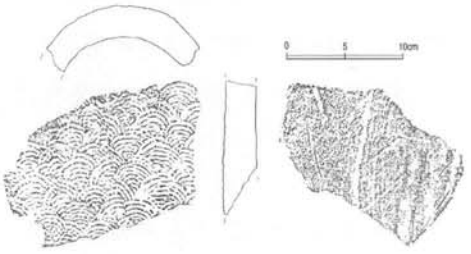


(24) 중호문(사진 555, 그림 148)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된다.

두께: 2.5㎝ 호적고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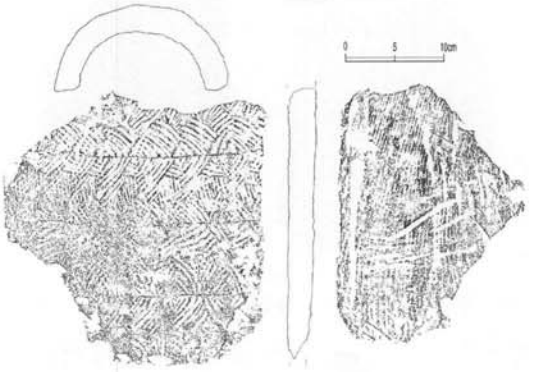


(25) 중호문(사진 556, 그림 149)

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미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사선문이 점차 弧를 그리는 점에서 선문에서 중호문으로 가는 과정의 기와로 추측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으며, 절단면에 빗질흔이 확인된다. 후면에 분할계선, 사절흔 등이 확인된다.

포목의 빈도수: 11×10 두께: 2.6㎝ D구역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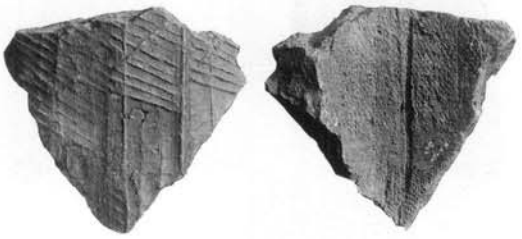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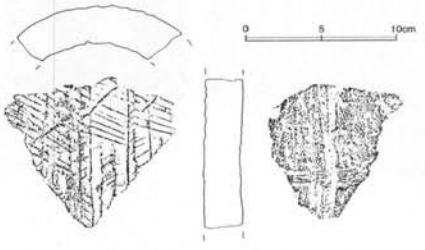


(26) 복합문(사진 557, 그림 150)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사선문과 종선이 표현된 일부에 빈 공간을 두고 명문으로 보이는 글자가 결합되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같은 종류의 기와가 예리장방 서쪽의 와적담장 위에서도 확인되었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두께: 2.3㎝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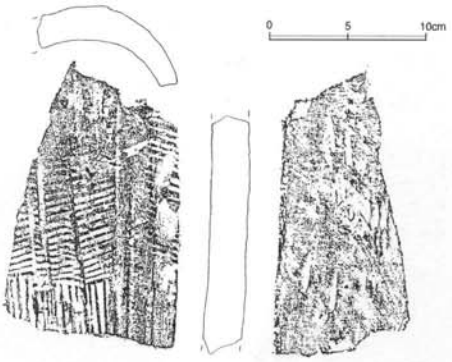


(27) 복합문(사진 558, 그림 151)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종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어골문은 가지가 낮게 진행한다. 기와 전면에 빗질흔적이 관찰된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⅔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과 함께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남겨진 타날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9×10 두께: 1.7㎝ 호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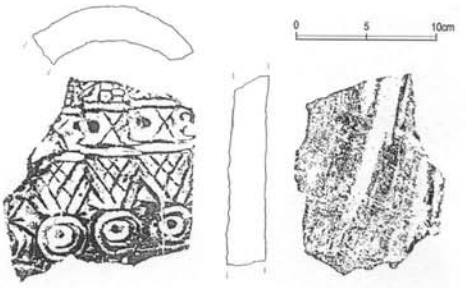


(28) 복합문(사진 559, 그림 152)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원문+사격자문+×字狀文+정격자문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원문은 2~3중으로 겹쳐서 표현되었고, 내부에는 ×字狀文 사이에 표현된 구슬이 달려 있다. 측면은 깨끗하게 잘렸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포목의 빈도수: 9×9 두께: 2.5㎝ 예리장방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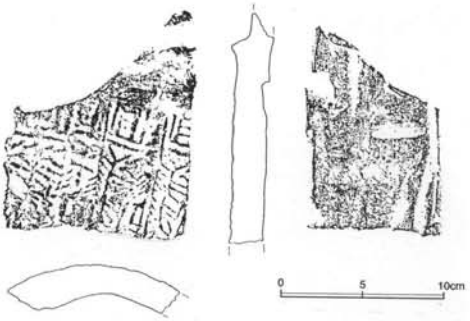


(29) 복합문(사진 560, 그림 153)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유단식 기와의 상단부로 언강은 깎인 후 물손질되었다. 문양의장은 '門'字와도 유사한 문양과 어골문 혹은 사선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⅔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횡방향의 빗질흔적이 관찰된다.

두께: 2.2㎝ 예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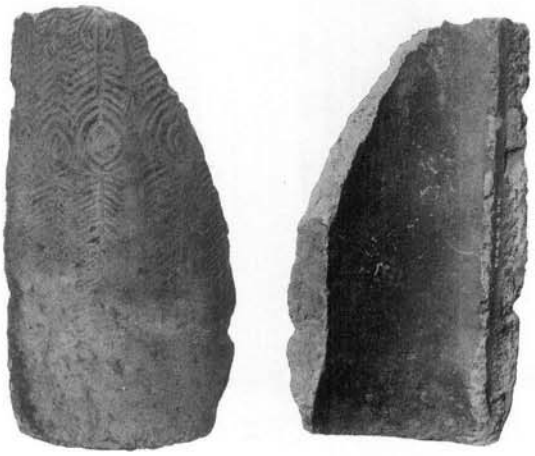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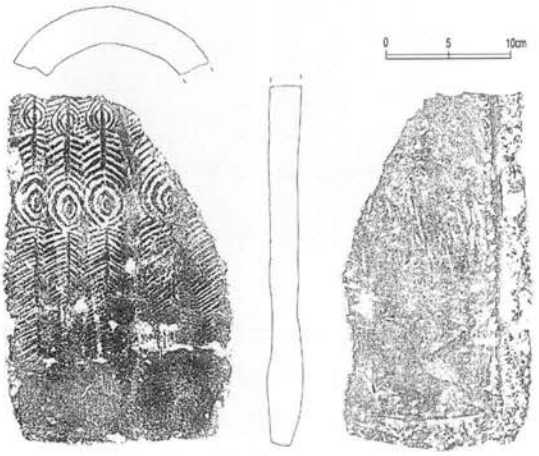
(30) 복합문(사진 561, 그림 154)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흑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 중심가지를 잇는 중원문이 사

이사이에 표현된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 단부는 4.0㎝까지 물손질되었다.

두께 : 2.6㎝ 예고 하층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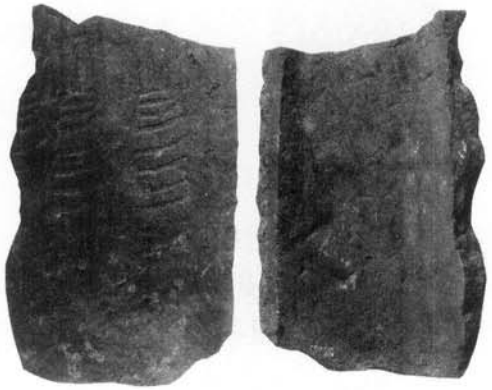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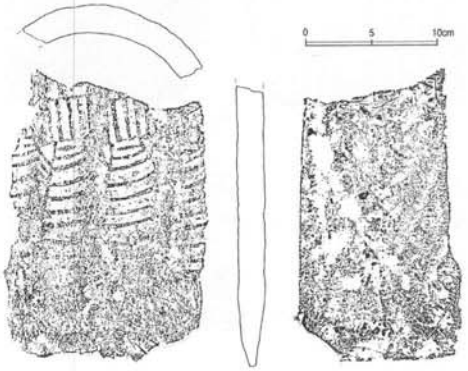


(31) 복합문(사진 562, 그림 155)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종선문과 중호로 가는 단계의 반호가 결합된 형태이다. 하부의 문양은 물손질에 의해 지워져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은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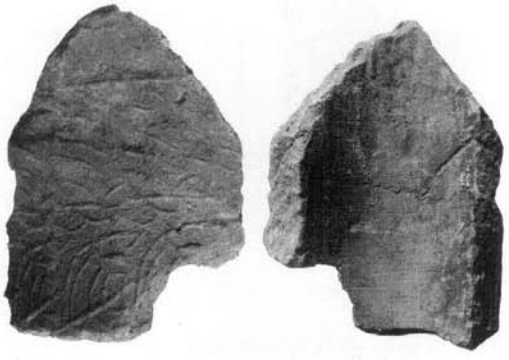
두께 : 2.1㎝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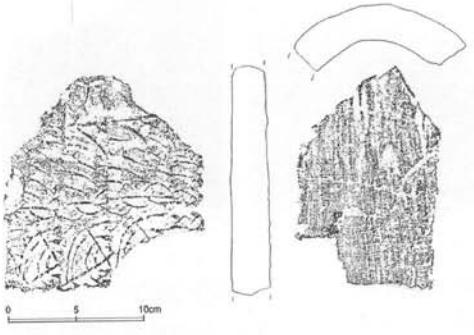




(32) 복합문(사진 563, 그림 156)

회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자토가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중호로 가는 단계의 짧은 선과 내부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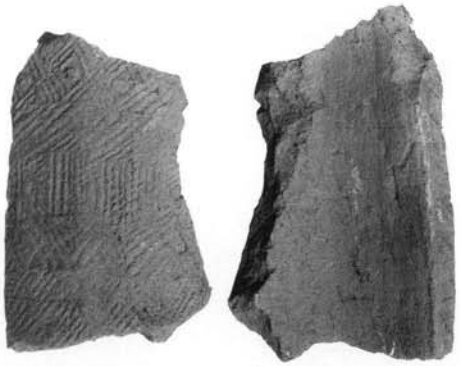
字狀文을 갖는 중원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은 깨끗하게 잘렸다. 후면에 연철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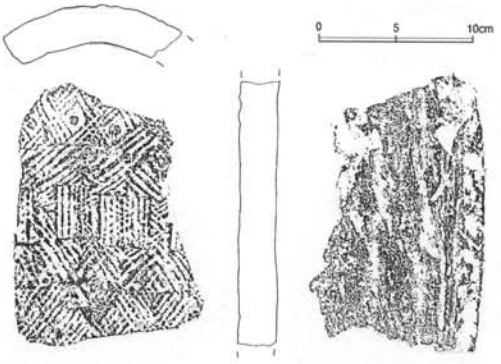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0 두께: 3.0㎝ 호고 상층

(33) 복합문(사진 564, 그림 157)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어골문+종선문+마름모문의 순으로 결합되었고 마름문 내부로 珠形 돌출부가 달려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사절흔이 관찰된다.

두께: 2.1㎝ 연못지 배수로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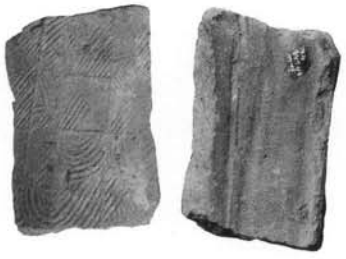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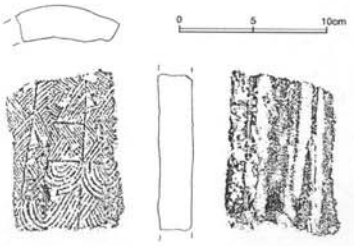


(34) 복합문(사진 565, 그림 158)

황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상하와 기와 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어골문과 중호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물손질되었다.

두께: 2.2㎝ 홍화각 하층기단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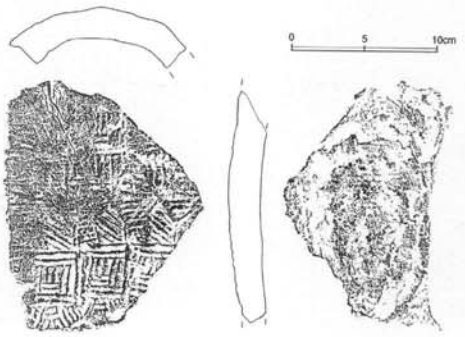




(35) 복합문(사진 566, 그림 159)

흑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문양의장은 어골문+ 종선문+사선문이 결합된





형태이다. 하단은 상당부분이 물손질되어 문양이 지워져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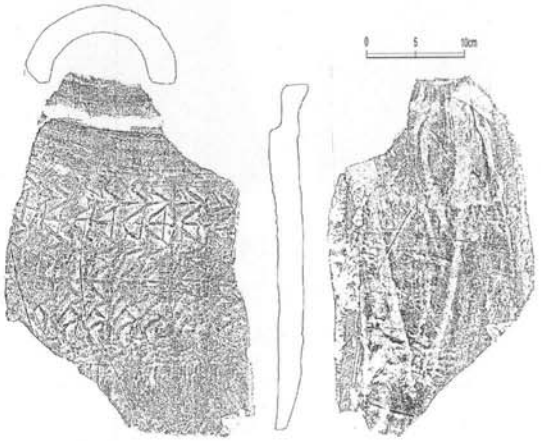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4×10 두께: 2.3㎝ 예리장방 서쪽

(36) 복합문(사진 567, 그림 160)

흑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유단식기와로 전장 35.0㎝이다. 상부 폭은 14.5㎝이고, 하부 폭은 17.0㎝이다. 내부에 +字狀文을 갖는 三角狀의 기하문이 연속되다가 하부에서 종선과 결합되는 형태이다. 언강과 미구, 하단부는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합철흔이 관찰되며, 단부는 5.5㎝까지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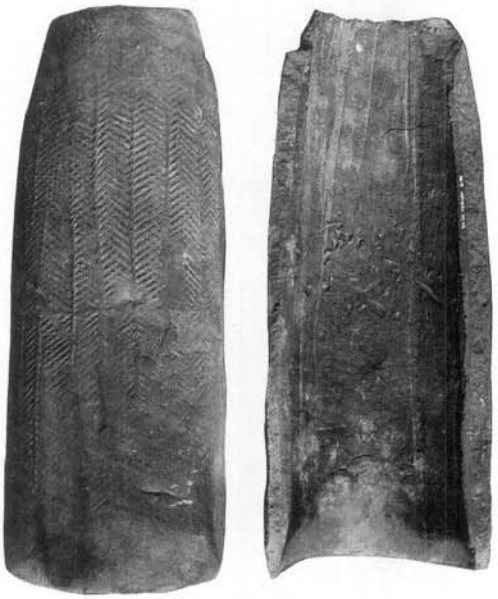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6×11 두께: 2.1㎝ 내아 배수시설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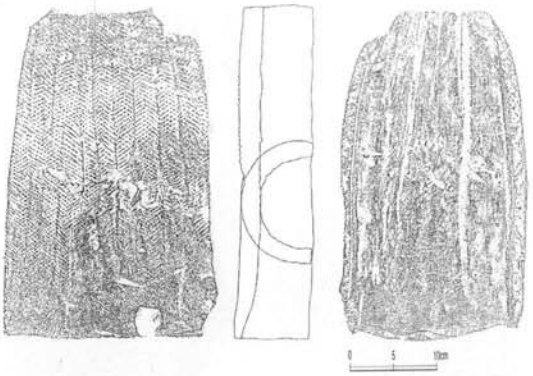




(37) 어골문(사진 568, 그림 161)

· 회청색 경질의 무단식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장 39.5㎝이다. 상부 폭은 12.5㎝이고, 하부 폭은 15.5㎝이다. 상단은 물손질처리된 물끊기 홈이 띠를 두르듯 표현되었으나, 깊이가 뚜렷하지





않다. 하단은 빗질흔이 보이며,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⅓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모골흔으로 보이는 흔적과 거칠게 남겨진 三角狀의 타날흔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빗질흔, 물손질된 흔적이 보이며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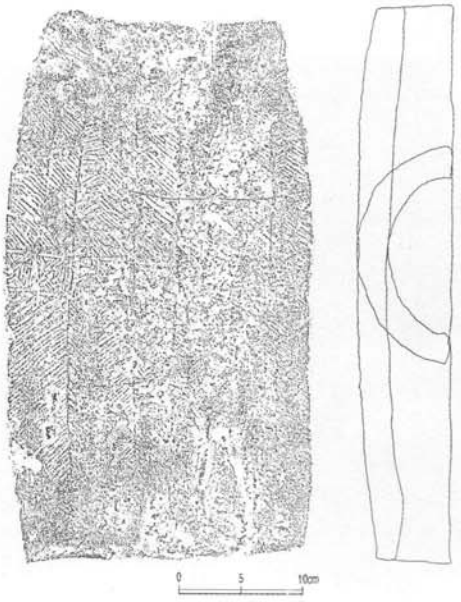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0 두께: 2.0㎝ 예리장방 하층

(38) 어골문(사진 569, 그림 162)

회청색 경질의 무단식수키와로 세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장 44.7㎝이다. 상부 폭은 11.5㎝이고 하부 폭은 18.4㎝이다. 표면에 불순물과 점토덩어리가 많이 달라붙어 있다. 기와 중앙에 띠를 두른 듯한 내부로 방사상의 기하문이 표현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균열이 심하게 나타나며,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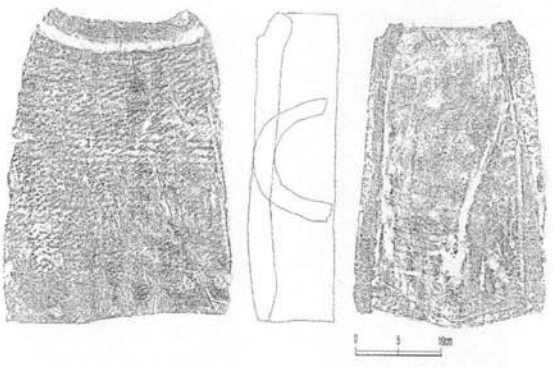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0×9 두께: 2.3㎝ 영리장방 적심





(39) 격자문(사진 570, 그림 163)





회청색 경질의 유단식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격자문은 승석문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전면에 빗질흔, 예세흔이 관찰된다. 전장 37.8㎝이고, 미구의 길이는 2.9㎝이다. 상부 폭은 14.0㎝이고, 하부 폭은 15.3㎝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균열흔, 분할계선, 빗질흔 등이 보이며,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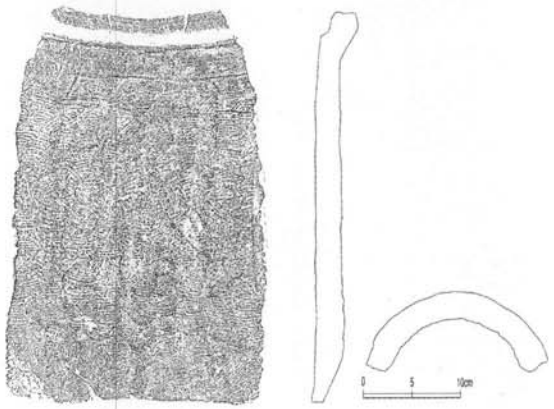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8×11 두께: 2.4㎝ 내아 배수시설

(40) 중호문(사진 571, 그림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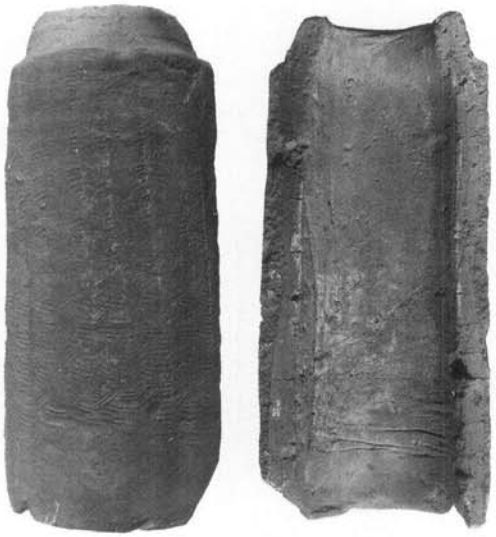
회청색과 적갈색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유단식수키와로 전장 40.5㎝이고, 미구의 길이 2.0㎝이다. 상부 폭은 17.8㎝이고, 하부 폭은 18.5㎝이다. 전면에 균열흔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빗질과 물손질되었다. 중앙부의 화문은 많이 지워져 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와통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단부는 깎여서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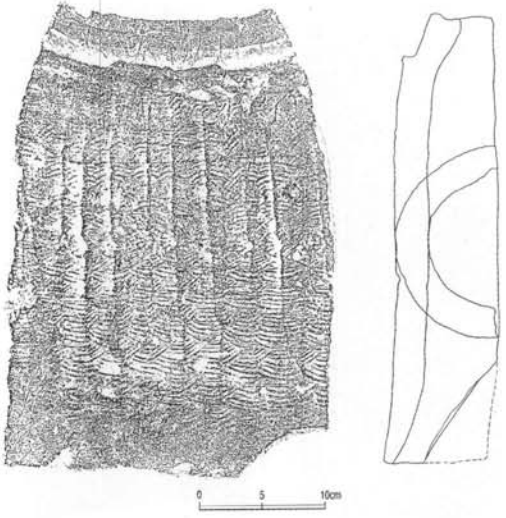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8 두께: 2.5㎝ 내아 배수시설





(41) 중호문(사진 572, 그림 165)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유단식기와로 전장 39.5㎝이고, 미구의 길이 3.2㎝이다. 상부 폭은 15.8㎝이고, 하부 폭은 16.5㎝이다. 여러번 타날되어 타날판의 반쪽면만 뚜렷하게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에 점토판을 이은 흔적과 윤철흔이 관찰되며,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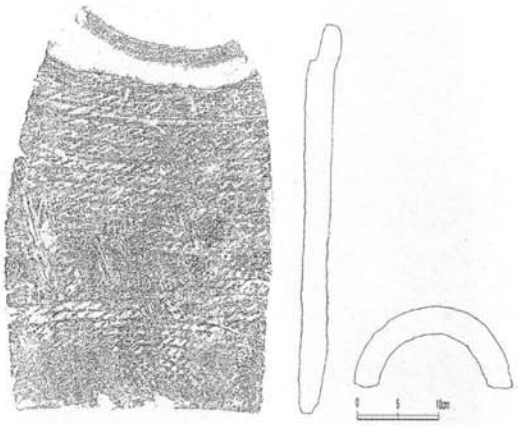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9×8 두께: 2.7㎝ 내아 배수시설

(42) 격자문(사진 573, 그림 166)

회갈색 경질의 수키와로 사립이 섞인 태토로 제작되었다. (39)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으로 제작되었다. 전장 38.0㎝이고, 미구의 길이 2.5㎝이다. 상부 폭은 16.3㎝이고, 하부 폭은 16.7㎝이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많은 부분의 문양이 지워져 있다. 측면은 정연하게 잘려 있다. 후면에 합철흔, 윤철흔이 보이며,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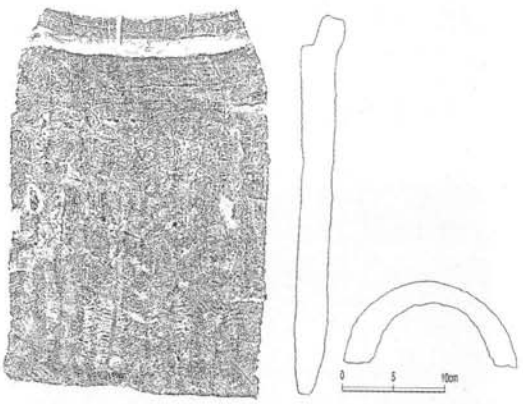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9×12 두께: 2.5㎝ 내아 배수시설





(43) 무문(사진 574, 그림 167)





흑청색 경질의 유단식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웠으나, 하부에서 일부 확인되는 문양은 어골문 혹은 중호문으로 보인다. 전장 36.5㎝이고, 미구의 길이 2.7㎝이다. 상부 폭은 15.0㎝이고, 하부 폭은 16.7㎝이다. 측면은 정연하게 잘려 있다. 후면에 분할계선과 윤철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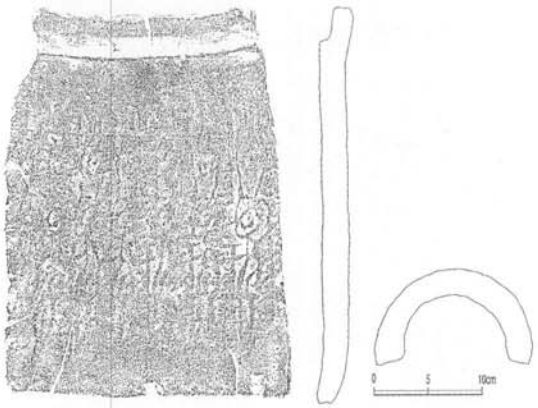
포목의 빈도수: 11×12 두께: 2.5㎝ 내아 배수시설

(44) '壬申' 명와(사진 575, 그림 168)

흑청색 경질의 유단식수키와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으나 일부에서 당초문 줄기와 함께 '壬' 字와 '申' 字가 판독된다. 전장 35.5㎝이고, 미구의 길이 3.2㎝이다. 상부 폭 12.8㎝이고, 하부 폭 13.5㎝이다. 측면 절단흔은 안쪽으로 ½정도 남아 있다. 후면 미구에 빗질흔이 보이며, 합철흔이 관찰된다. 단부는 물손질되었다.

포목의 빈도수: 13×12 두께: 2.2㎝ 내아 배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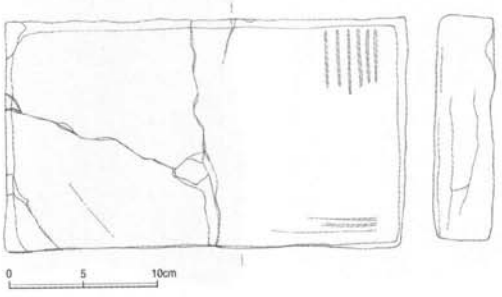


5. 전

애매헌지의 기단 전면 바닥에서 확인되는 전은 두 종류로 모두 방형전이다. 상층 건물지의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완형으로 깔려 있는 것이 한 점도 없다.

(1) 무문(사진 576, 그림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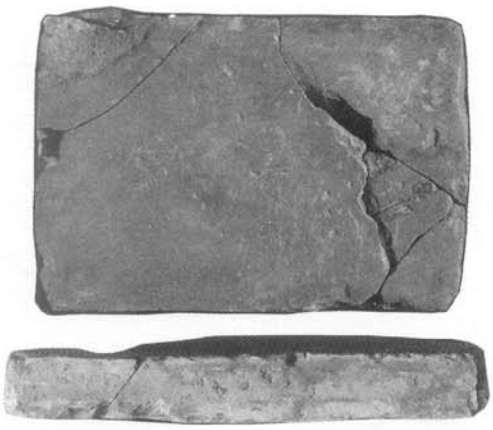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무문전으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의 규격은 15.2×16.6㎝이고, 두께 3.7㎝이다. 예세로 그은 흔적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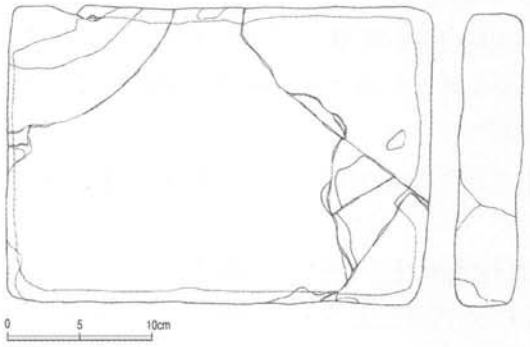
애매헌지 바닥

(2) 무문(사진 577, 그림 170)

회갈색 경질의 무문전으로 고운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의 규격은 19.0×28.7㎝이고, 두께 3.2㎝이다. 전면은 물손질로 깨끗하게 다듬었으나, 후면은 거칠게 빗질흔이 남아 있다.

애매헌지 바닥 (박 용 범)





제2절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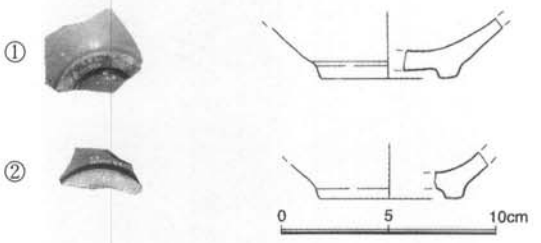
1. 고려청자

발굴지 전역에서 소량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자의 종류는 초기의 해무리굽 청자를 비롯하여 순청자, 상감청자, 음각청자, 양인각청자, 조질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청자가 몇 점 있으나 대부분 말기의 퇴락한 상감청자와 조질청자류가 많다.

1) 청자대접(사진 578, 그림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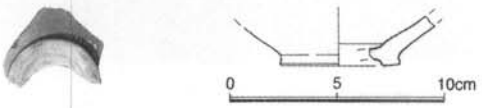
표면이 황녹색을 띠는 해무리굽 대접이다. 굽 접지면의 폭이 0.8~0.9cm로 낮고 단정하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내화토비짐을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황갈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① B-2구역 탐라시대층, ② 우물지(1) 남쪽 단면



2) 청자대접(사진 579, 그림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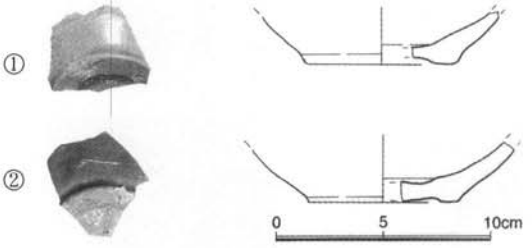
해무리굽 대접으로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표면은 황녹색을 띠며 가는 빙렬이 있다. 태토는 황갈색으로 양질이다. A구역



3) 청자대접(사진 580, 그림 173)

굽 둘레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해무리굽 대접으로 굽 속까지 시유되었다. ①은 접지면의 유를 닦고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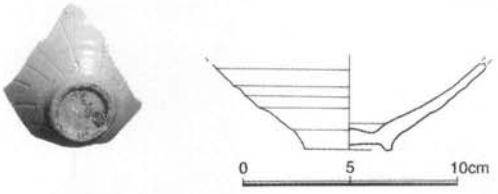
① A구역, ② 우물지(1) 주변 매립지



4) 청자대접(사진 581, 그림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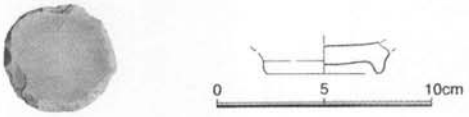
작은 내저원각이 있고 외면에 불규칙적인 음각선문이 장식된 대접이다. 굽 속을 포함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흑갈색의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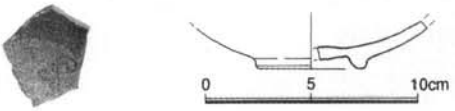
5) 청자대접(사진 582, 그림 175)

저부만 남아 있는 앵무문 대접으로 내면 바닥에 2마리의 앵무새가 서로의 꼬리를 향하도록 음각되어 있다. 녹색이 도는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고 태토는 회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지표



6) 청자대접(사진 583, 그림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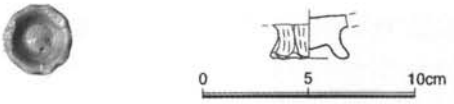
내면에 음각문이 장식된 대접으로 전면에 빙렬이 있다. 진녹색유가 시유되었으며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홍화각 주변



7) 청자탁잔(사진 584, 그림 177)

탁잔의 저부편으로 접지면을 화형으로 오리고 굽다리에 음각선으로 장식되었다. 잔 내면에 음각선문이 장식되어 있으나 뚜렷한 무늬를 알 수 없다. 전면에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3곳에 규석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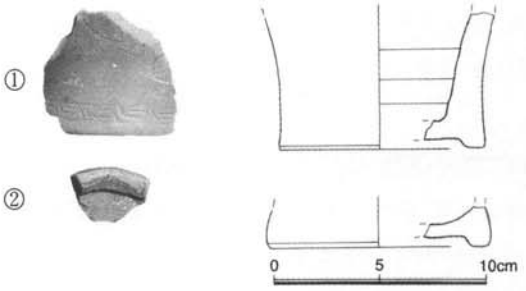
B-2구역 상층



8) 청자매병(사진 585, 그림 178)

매병의 저부편으로 안굽의 형태를 하고있다. ①은 저부에 뇌문대가 음각되어 있고 동체에 음각장식되었으며 ②는 저부에 부드러운 1조의 파상문이 음각장식되었다. 굽 속까지 암녹색유가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고 적갈색 토사와 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②는 표면이 산화되어 광택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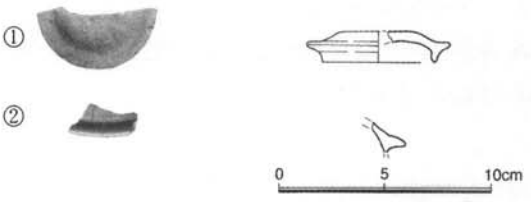
① 우물지(1) 주변 매립지, ② 홍화각 상층



9) 청자뚜껑(사진 586, 그림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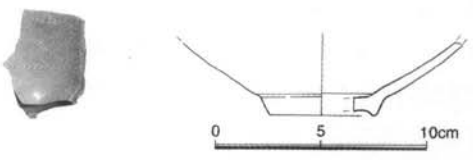
다소 편평한 상면이 부드럽게 주연으로 이어지는 뚜껑편이다. ①은 상면 전체에 음각으로 화문을 장식하였는데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어 무늬가 뚜렷치 않다. 상면 중앙에 꼭지가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여 있고 기공이 있어 다소 불량하다. ②도 가는 음각선으로 상면에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녹황색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① 와적담장 북편, ② 영리장방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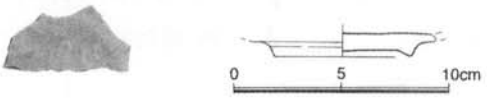
10) 청자대접(사진 587, 그림 180)

내면에 포도문이 양인각된 대접이다.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좁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 속까지 시유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황색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와적담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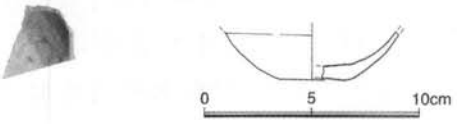
11) 청자접시(사진 588, 그림 181)

내면에 초화문이 양인각된 접시이다. 암녹색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광택이 있고 다소 성근 빙렬이 있다. 굽 안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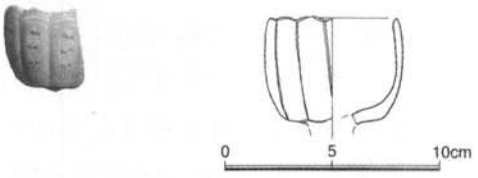
12) 청자접시(사진 589, 그림 182)

내면에 모란당초문이 양인각된 소형접시이다. 바닥은 평굽으로 한쪽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었다. 예고 서쪽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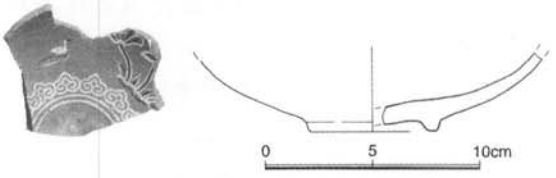
13) 청자잔(사진 590, 그림 183)

탁잔의 잔편으로 구연이 화형으로 오려지고 동체도 화형으로 성형되었다. 각 면의 상하에 2줄의 백상감 선문을 장식하고 각면 중앙에 2개의 국화문을 배치하여 상감하였다. 녹색유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B-2구역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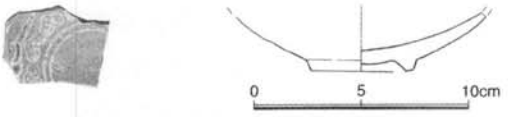
14) 청자대접(사진 591, 그림 184)

내외면에 도식화된 무늬가 상감된 대접이다. 암녹색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을 띠며 양질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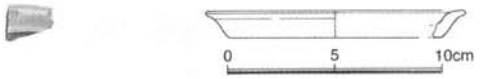
15) 청자대접(사진 592, 그림 185)

내면에 도식화된 무늬가 장식된 대접으로 전면에 암녹색유가 시유되었다.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고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회청색 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다. 우연당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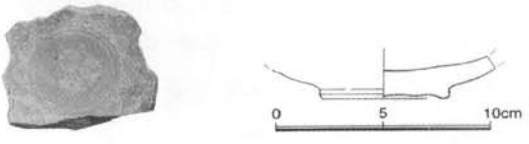
16) 청자접시(사진 593, 그림 186)

기형이 다소 도톰하고 구연이 외반된 얕은 접시이다. 외반된 구연 내면에 2조의 선문이 상감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을 띠며 양질이다. 홍화각 상층



17) 청자대접(사진 594, 그림 187)

내외면에 시문된 대접으로 연녹색유가 전면에 두껍게 시유되었다. 굽은 낮고 둥글게 성형되었으며 굽 속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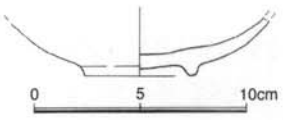


A구역 적석

18) 청자대접(사진 595, 그림 188)

내면에 여의두문과 국화문, 외면에 당초문이 상감된 대접이다. 전면에 연녹색유를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다.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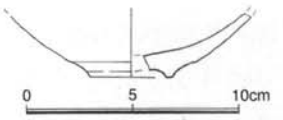




19) 청자대접(사진 596, 그림 189)

내면 중앙에 여의두문이 장식되고 동체에 나뭇잎 무늬가 면상감된 대접이다. 백토감입 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암녹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고 빙렬이 있다.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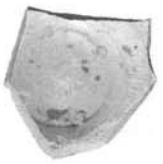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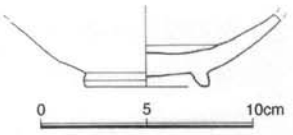


20) 청자대접(사진 597, 그림 190)

내면에 장식된 대접으로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전면에 녹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에 황색토사와 내화토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C구역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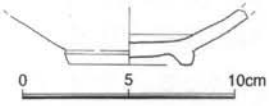




21) 청자대접(사진 598, 그림 191)

내면에 장식된 대접으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심하게 산화되어 광택이 없고 거칠다.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그 안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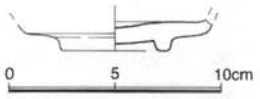




22) 청자접시(사진 599, 그림 192)

내면에 여의두문이 장식된 접시이다. 녹색유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유 속에 작은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태토는 황회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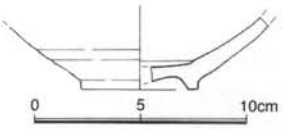




23) 청자대접(사진 600, 그림 193)

내면에 장식된 대접으로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에서 급하게 꺾여 동체로 올라간 형태를 하고 있다. 암녹색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가는 빙렬이 있다.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우연당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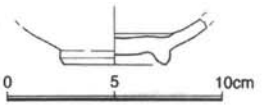




24) 청자대접(사진 601, 그림 194)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전면에 암녹색유가 시유되었다. 굽은 죽절굽으로 모양이 일정치 않다. 내저원각 안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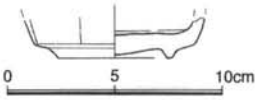




25) 청자접시(사진 602, 그림 195)

각 면에 백상감 장식을 한 각접시로 전면에 연녹색유를 시유하였다.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황백색의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와적담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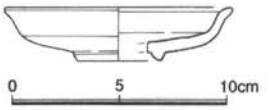




26) 청자접시(사진 603, 그림 196)

구연이 외반되어 전의 형태를 하고 있고 동체가 얕은 죽절굽의 소형 접시이다. 내면 중앙에 백상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녹색의 유가 전면에 시유되었고 가는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B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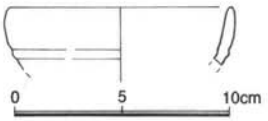




27) 청자접시(사진 604, 그림 197)

내외면에 백상감선과 화문이 있는 소형 접시이다. 구연은 내만되어 있고 외면 동체부 하단에 2조의 굵은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암녹색유가 시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황백색을 띤다. 태토는 회청색의 치밀질로 양질이다. B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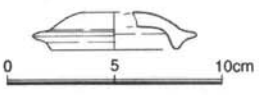




28) 청자뚜껑(사진 605, 그림 198)

다소 둥근 상면에서 부드럽게 주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뚜껑으로 상면에 상감되어 있다. 녹색의 투명유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유 속에 잔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뚜껑 내부에 황색토사와 모래를 섞어 빚은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B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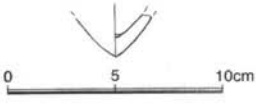




29) 청자마상배(사진 606, 그림 199)

원추형으로 생긴 마상배의 하단부이다. 중심에서 뻗어나가듯 백상감문이 장식되어 있다. 기포가 형성된 녹색유를 시유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지표





30) 청자종지(사진 607, 그림 200)

소형 종지의 저부편으로 전면에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황색토사와 모래를 깔고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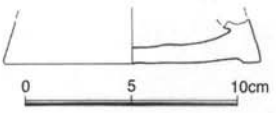
조하였는데 굽 속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A구역

31) 청자매병(사진 608, 그림 201)

저부에 백상감 뇌선문대가 돌려진 매병의 저부편이다. 전면에 녹색유가 시유되었다. 안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게 성형되었다. 황색토사와 모래를 섞어 빚은 커다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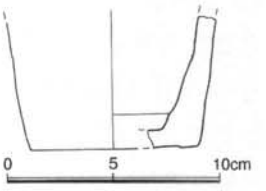


32) 청자병(사진 609, 그림 202)

바닥에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한 병의 저부이다. 저부에 연판문과 그 위에 뚜렷치 않은 무늬가 백상감되었으나 백토의 감입상태가 좋지 않다. 태토는 황회색으로 양질이다. 녹색 투명유가 전면에 얇게 시유되었다. 굽은 안굽으로 규사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영리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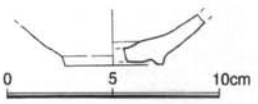




33) 청자대접(사진 610, 그림 203)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이다. 전면에 기포가 있는 황녹색유가 고르게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굽 안쪽에 모래와 황색토사를 섞어 빚은 받침 흔적이 있다. 우물지(1) 주변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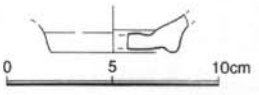




34) 청자대접(사진 611, 그림 204)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의 저부편이다. 황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황갈색으로 다소 거칠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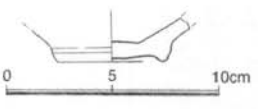




35) 청자대접(사진 612, 그림 205)

전면에 황녹색유가 시유된 대접편으로 빙렬이 있다. 다소 볼록하고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굽 안쪽에 규사와 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황회색으로 거칠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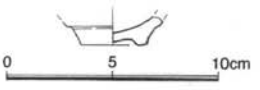




36) 청자종지(사진 613, 그림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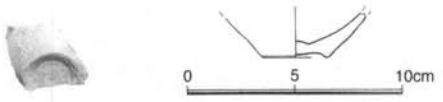
내면 바닥이 오목한 소형 종지의 저부편이다. 회녹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두께가 고른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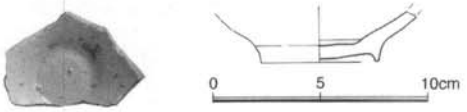
37) 청자종지(사진 614, 그림 207)

소형종지로 굽과 동체의 구분이 거의 없는 안굽의 형태를 하고 있다. 황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다소 연질로 보이는 황색으로 양질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38) 청자대접(사진 615, 그림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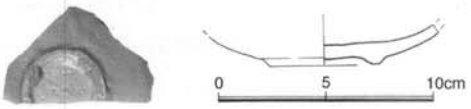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전면에 녹색유가 시유되었다. 굽 안쪽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영리장방 하층 건물



39) 청자접시(사진 616, 그림 209)

전면에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된 접시로 부분적으로 유가 뭉쳐 있다. 내외면에 황색토사와 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40) 청자접시(사진 617, 그림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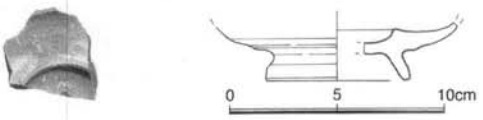
안굽의 형태를 하고 있는 소형접시로 암녹색유가 시유되어 있고 빙렬이 있다. 굽 속의 유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지면 언저리 세 곳에 황색토사와 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A구역



41) 청자잔탁(사진 618, 그림 211)

암녹색유가 시유되었으나 표면이 다소 산화되어 황백색을 띠는 잔탁이다. 굽은 외반되었고 잔이 놓이는 자리는 턱을 두어 구분하였다. 잔이 놓이는 자리 밖으로 내화토 비짐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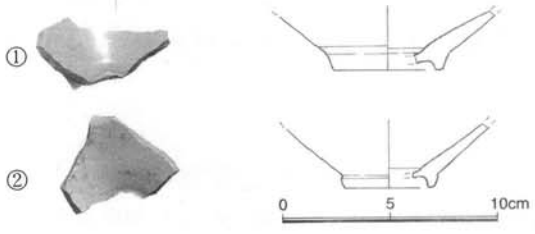
와선각 북편



42) 청자대접(사진 619, 그림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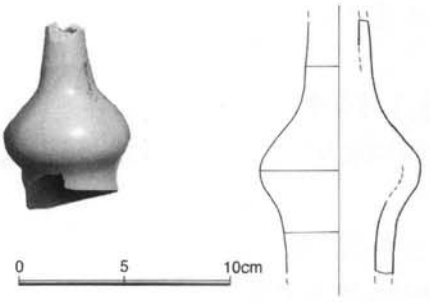
좁은 내저원각이 있고 기벽이 사선으로 뻗어 있는 대접으로 전면에 시유하였고 접지면의 유를 닦고 흑갈색 토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녹색유를 시유하였으며 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다.

① B-2구역 상층. ②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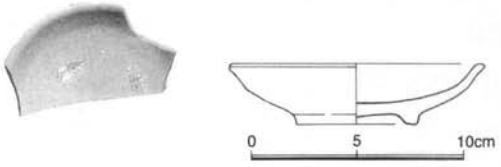
43) 청자병(사진 620, 그림 213)

표형병의 상단으로 기포가 있는 녹색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번조시의 환경변화에 의해 절반 정도는 황녹색을 띤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예고 하층



44) 청자접시(사진 621, 그림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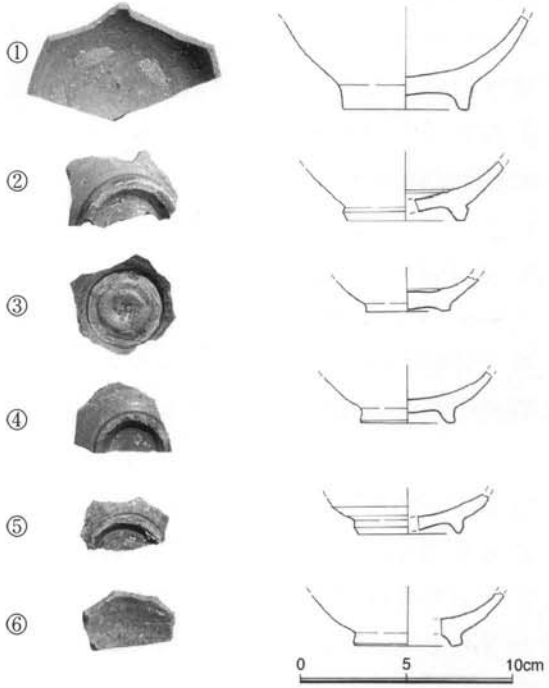
낮은 굽에서 낮고 원만한 동체부를 지나 뭉툭하게 외반된 구연으로 이어지는 접시이다. 접시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황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산화되어 황녹색을 띤다. 내면에도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A구역



45) 청자대접(사진 622, 그림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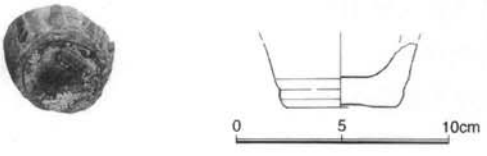
조질청자 계통이다. ①을 제외하고는 모두 굽속까지 암녹색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고 잡물이 붙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사립 등 불순물이 다소 섞여 있어 거칠고 표면에 태토의 불순물이 드러나 있다.

① B-2구역 상층, ② 지표, ③ 애매헌 상층, ④ B-2구역 상층, ⑤ 와적담장 주변, ⑥ 우물지(1) 주변 매립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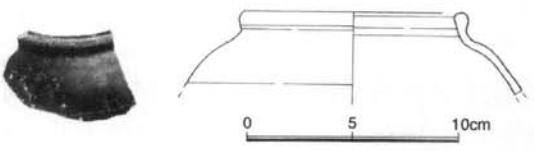
46) 청자병(사진 623, 그림 216)

암녹색유가 시유되고 사이사이 흑유가 흘러 내린 병의 저부편이다. 평굽으로 둥근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표면은 산화되어 광택이 없고 거칠다. 태토는 자보라색을 띠며 양질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47) 흑유호(사진 624, 그림 217)

구연이 도톰한 흑유호이다. 미세한 빙렬이 있다. 표면은 흑유의 두께에 따라 색을 달리하고 있다. 태토는 황회색의 치밀질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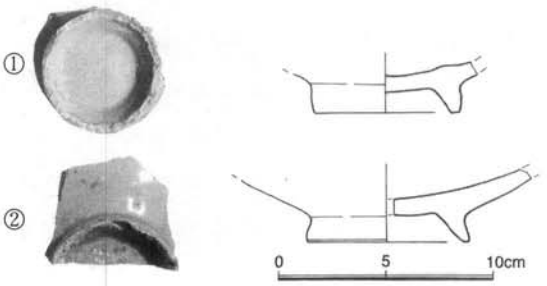
2. 조선청자

기형가 색감에서 고려청자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조선청자가 발굴지 내에서 3점 확인되었다. 굽다리가 밖으로 외반된 2점의 대접과 높은 나팔형굽이 있는 마상배로 마상배 내부에는 예리한 음각문이 장식되어 있다.

1) 청자대접(사진 625, 그림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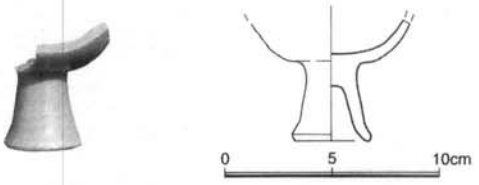
연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된 대접이다. 유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은 다소 높고 외반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고 모래와 규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① 우연당 하층, ② B-2구역 탐라시대층



2) 청자마상배(사진 626, 그림 219)

둥근 동체에서 나팔형의 높은 굽으로 이어지는 마상배이다. 연녹색 투명유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동체부 내면 바닥과 측면에 음각선문이 장식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우연당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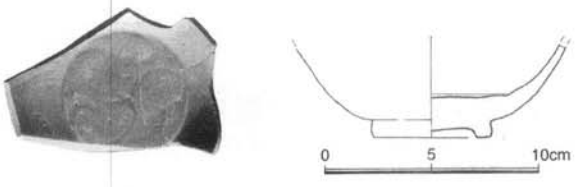
3. 중국자기

전 구역에서 8점이 확인되었다. 청자대접 6점, 청자접시 1점, 백자접시 1점으로 접시류는 소형이다. 색감은 서로 다르지만 수법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 청자대접(사진 627, 그림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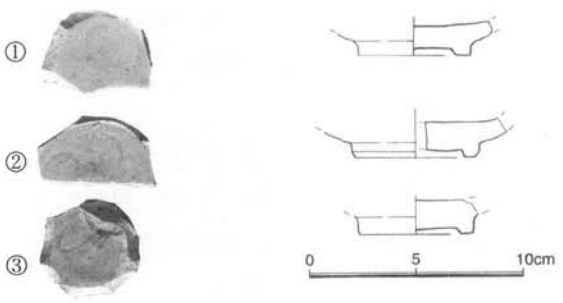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그 안과 내측면에 화문이 음각(획화)된 청자 대접이다. 굽은 다소 외반되었으며 단정하다. 접지면의 두께는 0.7~0.8cm 정도로 고르고 접지면의 유를 닦고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유색은 녹갈색을 띠며 태토는 회청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무게중심이 저부에 쏠려있다.

B-2구역 탐라시대층



2) 청자대접(사진 628, 그림 221)

대접편들로 파손되어 저부만 남아 있다. 편평한 내저에 음각선문이 장식되어 있다(획화). ①의 유색은 연녹색을 띠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두껍게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청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②,③은 황녹색을 띠며 굽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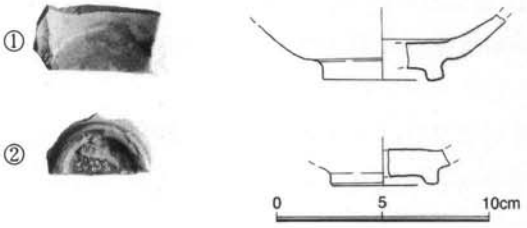


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②는 접지면의 유를 닦고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갈색을 띠며 양질이다.

① B-2구역 상층, ② 배수시설 남쪽, ③ 와적담장 북편

3) 청자대접(사진 629, 그림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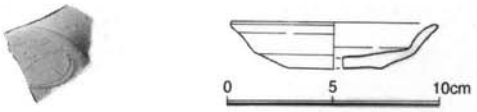
녹색유가 두껍게 시유된 무문의 청자 대접편이다. ①은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굽은 다소 외반되었다. 굽 속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번조하였다. ②는 굽 속에 유가 조금 흘러 들어가 있고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① 예고 서쪽, ② 홍화각 상층

4) 청자접시(사진 630, 그림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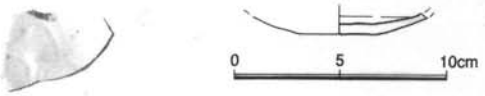
평굽에서 동체로 이어지다 동체에서 한번 크게 꺾여 외반된 구연으로 연결되는 소형 접시다. 내면 바닥에 음각선과 점선으로 무늬가 시문되었다. 황녹색유가 고르게 시유되었는데 굽과 그 주변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B-2구역 상층

5) 백자접시(사진 631, 그림 224)

편평한 바닥에서 동부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소형 백자접시이다. 내면 바닥에 음각으로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우연당 서쪽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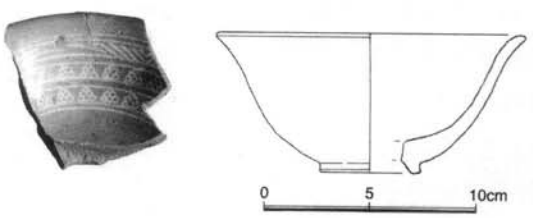


4. 분 청

백토의 감입이 좋고 태토가 양질인 분청사기가 소량 있고 대부분 귀얄이나 덤벙분장 또는 얕게 인화된 후 귀얄 분장한 그릇들이다. 인화분청 몇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개어 번조한 것들로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병류와 호류가 소량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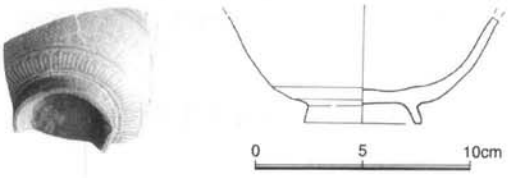
1)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32, 그림 225)

외반된 구연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동체부와 낮은 굽으로 이어지는 분청인화문대접으로 내면에 시문되었다. 회색 투명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우물지(1) 남쪽 단면



2)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33, 그림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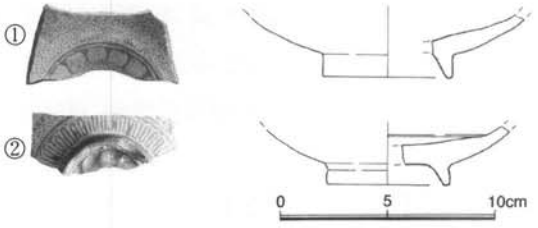
내외면에 빽빽하게 시문된 인화분청 대접으로 백토감입 상태는 양호하다. 굽은 밖으로 벌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굽 다리에 연주문이 시문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가는 모래와 내화토를 깔고 번조하였다. 지표



3)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34, 그림 227)

내외면에 시문된 분청편으로 밖으로 벌어진 굽 다리에 연주문이 시문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회갈색으로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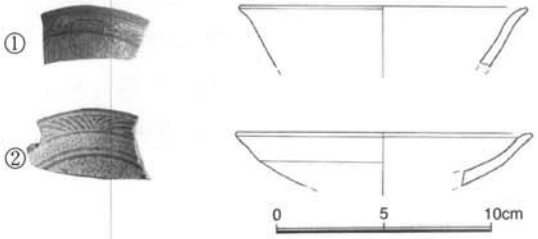
① B-2구역 일제시대 우물지 부근, ② B-2구역 상층



4) 분청인화문대접・접시(사진 635, 그림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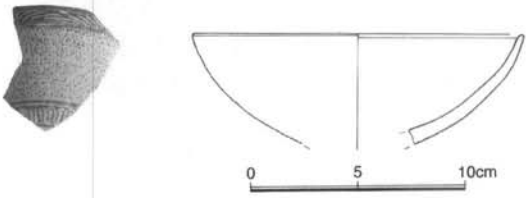
무늬의 구성이 비슷한 대접과 접시의 구연부편으로 모두 외반구연이다. 연녹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① 지표, ② 우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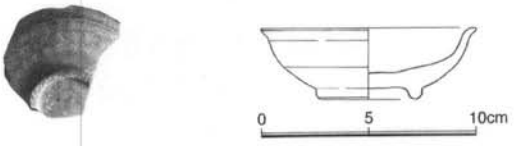
5)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36, 그림 229)

내외면에 빽빽히 시문된 대접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이 내만되었다. 투명유가 시문되었으며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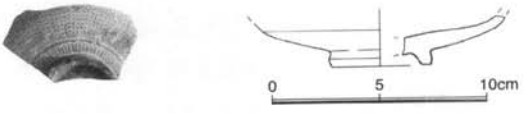
6) 분청인화문접시(사진 637, 그림 230)

내외면에 시문된 소형 접시편으로 구연은 외반되었다. 태토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나 회갈색으로 양질이다. 굽 다리는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예고 서쪽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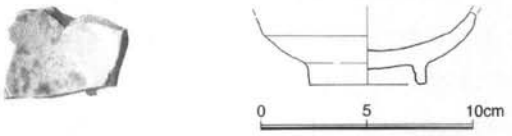
7) 분청인화문접시(사진 638, 그림 231)

내외면에 시문된 분청편으로 연녹색을 띠는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굽 다리에는 도식화된 초문이 시문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작은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양질이다. 우연당 하층



8)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39, 그림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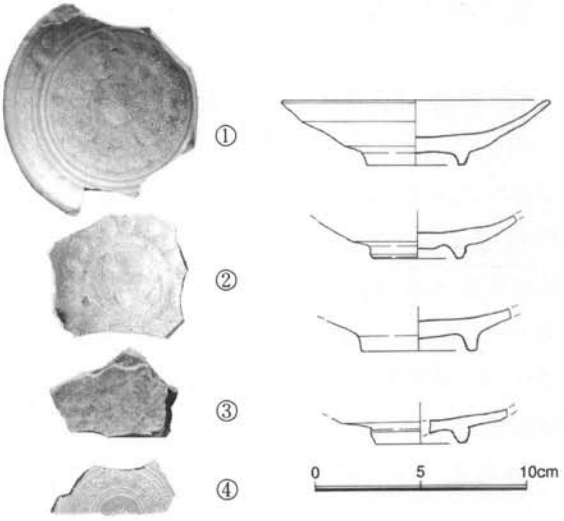
내외면에 시문된 분청대접으로 무늬의 구성이 다소 성글게 배치되었다. 굽은 비교적 높고 굽 속은 시유하지 않았다. 내면 바닥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어 포개어 번조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지표



9) 분청인화문접시(사진 640, 그림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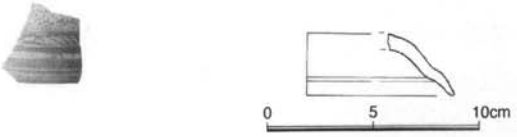
내면에만 시문된 접시편들로 중앙에서부터 1~4개의 국화문, 3~9 중의 원권문 그리고 다시 국화문을 배치한 형태이다.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나 4점 모두 굽 속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3점은 내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없으나 ②의 내면 4곳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① B-2구역 탐라시대, ② B-2구역 상층, ③ B-2구역 상층, ④ 우연당 서쪽 주변



10) 분청인화문뚜껑(사진 641, 그림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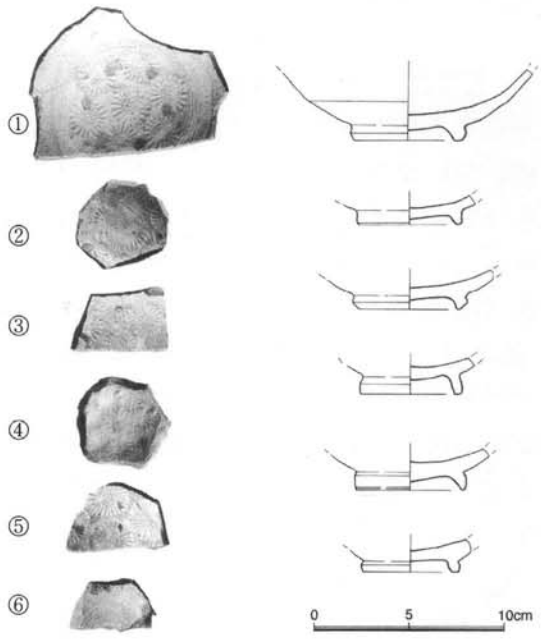
상면에 국화문이 인화되고 그 아래로 초문대를 두른 뚜껑편으로 초문대 밑으로 1단의 턱이 형성되었다. 유는 연녹색의 투명유로 유속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면 일부는 산화되어 황백색을 띤다. 우물지(1)주변 매립지



11)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42, 그림 235)

내면 중앙에 다소 큰 7~8개의 국화문을 인화하고 그 주변에 동심원문 등을 시문한 후 백토를 대충 바른 대접편들이다. 내면 중앙 4~6곳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는데 ①은 가는 모래와 내화토를 섞어 빚은 받침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태토비짐을 사용하여 번조되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굽은 죽절굽으로 정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태토에 가는 모래가 섞여 있으나 대체로 양질이다. ①의 접지면 7곳에 내화토와 가는 모래를 섞어 빚은 받침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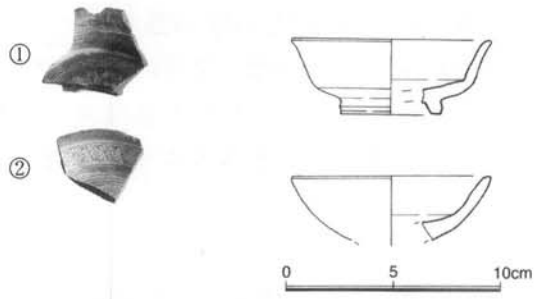
① B-2구역 상층, ② 와선각 북편, ③ B-2구역 상층, ④ 우연당 서쪽, ⑤ B-2구역 상층, ⑥ B-2구역 탐라시대층



12) 분청인화문접시(사진 643, 그림 236)

굽 언저리에서 급하게 꺾여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소형 접시편이다. 구연은 다소 외반된 형태이며 굽은 죽절굽이다(②). 내면에 성근 국화문과 선문으로 장식되었으며 외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치밀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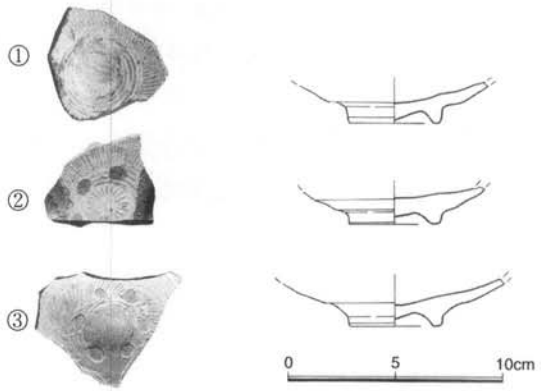
① 우연당 서쪽, ② B-2구역 상층



13) 분청인화문접시(사진 644, 그림 237)

내면 중앙으로부터 국화문, 3~4중의 원권문 그리고 파상문을 시문한 뒤 백토로 분장한 접시편들이다. 세점 모두 내면에 포개어 구운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굽 속까지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6~7곳에 가는 모래와 내화토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굽 언저리에서 한단 꺾여 동체로 이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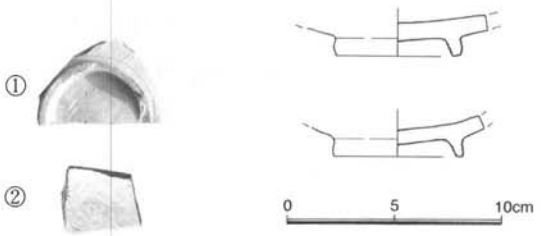
① 지표, ② B-2구역 상층, ③ 우물지(1) 주변 매립지



14) 분청인화문대접(사진 645, 그림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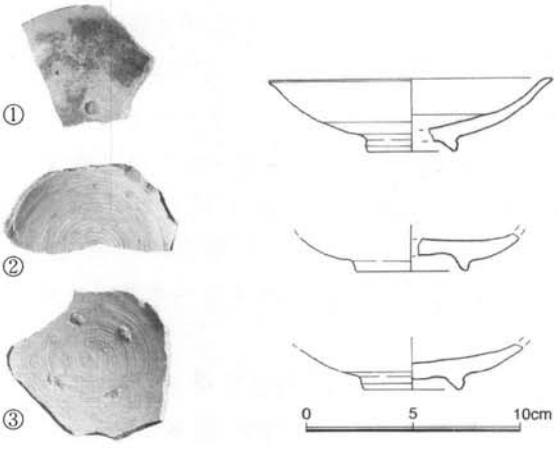
내외면에 시문된 대접의 저부편으로 다소 외반되는 듯 둥글게 성형된 굽 다리에 연주문이 인화되었다. 굽 속까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회백색을 띠며 다소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양질이다.

① 예고 서쪽 담장, ② 와적담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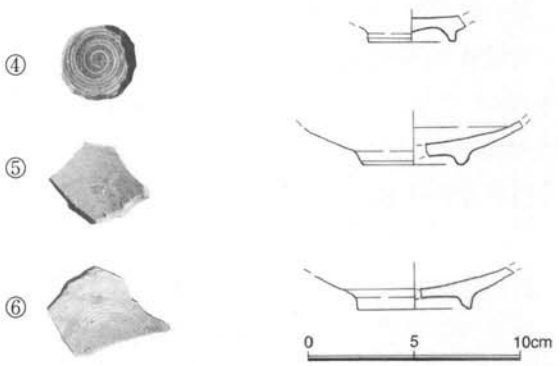


15) 분청접시(사진 646, 그림 239)

내면에 와선문 또는 원문을 음각한 후 백토분장한 접시편들이다. 굽은 대체로 둥글거나 죽절굽이 많고 ①의 경우 구연부가 살짝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②와 ④를 제외한 나머지의 내부에는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어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포개어 변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는 백토를 감입한 와선문 사이에 1조의 흑토를 감입한 와선문이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백토로 분장되었다. 굽에는 모두 시유되지 않았으며 ③의 경우 굽 언저리에도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 회색으로 가는 모래 입자가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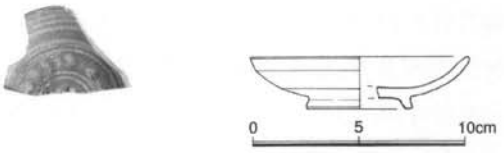


① 지표, ② B-2구역, ③ 지표, ④ B-2구역 상층, ⑤ 호적고 상층, ⑥ 와선각



16) 분청접시(사진 647, 그림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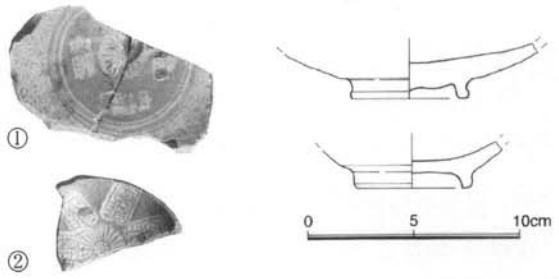
내면에 선문과 국화문으로 장식되고 외면 구연부에 선문이 장식된 소형 접시편이다. 구연은 내만되었으며 굽의 모양은 일정치 않다. 굽 속을 포함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홍화각 상층



17) 분청 '內贍' 명 접시 · 대접(사진 648, 그림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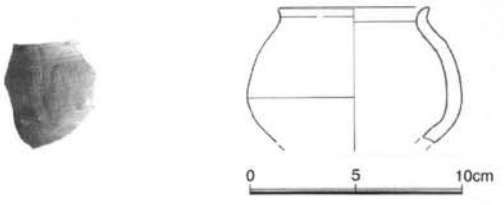
'內贍' 명 접시는(①) 내외면에 국화문을 장식하고 중앙에 1개의 국화문을 두고 그 주변 4곳에 '內贍' 명을 인화하였다. 대접(②)은 별 다른 장식없이 내면에 직사각형의 틀 안에 들어있는 '내섬' 명을 인화하였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접시는 굽 속을 포함한 전면에 시유하였고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번조하였으며 대접은 굽 주변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 회색과 회청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①,② B-2구역 상층



18) 분청호(사진 649, 그림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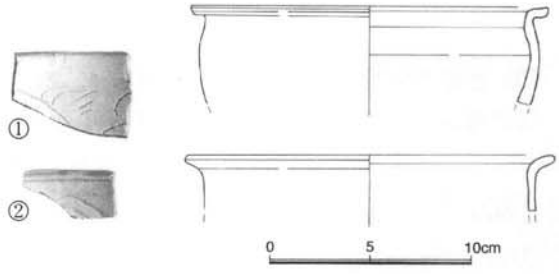
구연이 살짝 외반된 호로 짧은 경부에서 동체부로 볼록하게 성형되었다. 동체부 상단에 인화문을 시문한 후 분장하였으나 뚜렷한 무늬를 파악할 수 없다. 표면은 산화되어 황색을 띤다. 구연부의 유가 박락되어 태토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 태토는 양질이다. A구역



19) 분청대발(사진 650, 그림 243)

내외면에 백토분장한 후 내면에 음각문을 시문한 구연이 넓은 발이다. 구연은 폭 1㎝정도의 전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 미세한 빙렬이 있으며 일부 유가 박락되었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어 다소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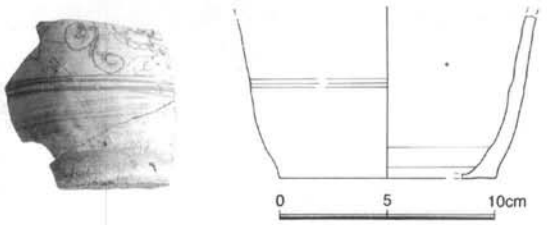
① B-2구역 탐라시대층, ② 우연당 서쪽 주변



20) 분청호(사진 651, 그림 244)

외면에 귀얄로 백토를 바른 후 음각문을 시문한 호이다. 굽은 평굽으로 굽 언저리가 산화되었다. 태토에 사립이 섞여 거칠고 부분적으로 기공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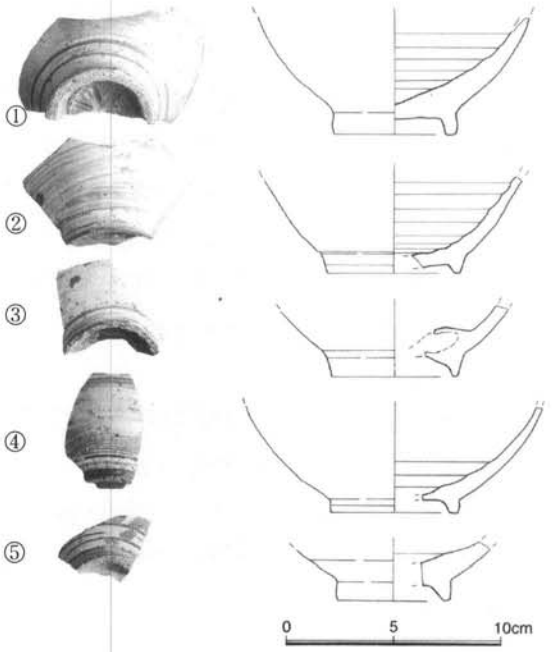
영리장방 적심 사이



21) 분청병(사진 652, 그림 245)

병의 저부편으로 굽 언저리에 1~4조의 음각선을 두르고 전면에 귀얄로 백토분장되어 있다. 동체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백토분장한 후 동체상부에 철화기법으로 무늬가 장식된 철화분청병으로 여겨진다. 회녹색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모래가 혼입되어 있어 다소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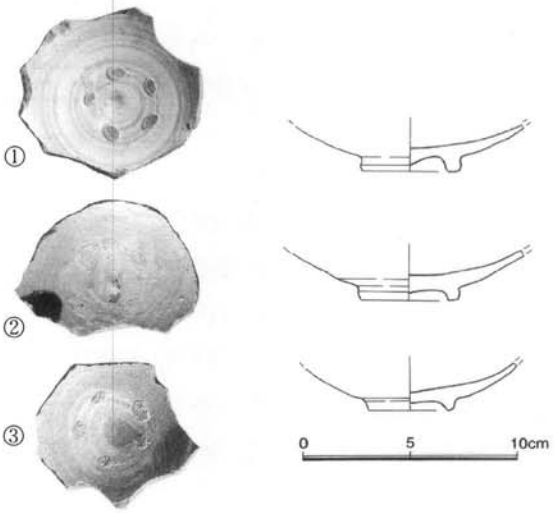
① 지표, ② B-2구역 상층, ③ 와선각 북편, ④ B-2구역 상층, ⑤ 지표



22) 분청귀얄문접시(사진 653, 그림 246)

내면에 귀얄로 백토 분장된 접시이다. 내면 바닥을 중심으로 둥글게 귀얄분장되었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각 5개씩의 번조받침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태토에 모래알갱이들이 혼입되어 다소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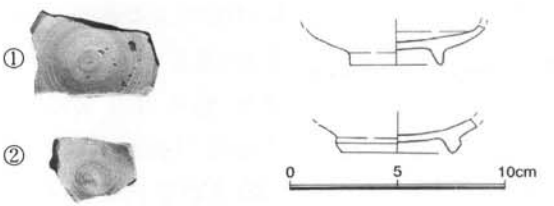
① 지표, ② 홍화각 상층, ③ 지표



23) 분청귀얄문대접(사진 654, 그림 247)

내면에 귀얄분장된 대접으로 연녹색 투명유가 굽을 제외한 전면에 얇게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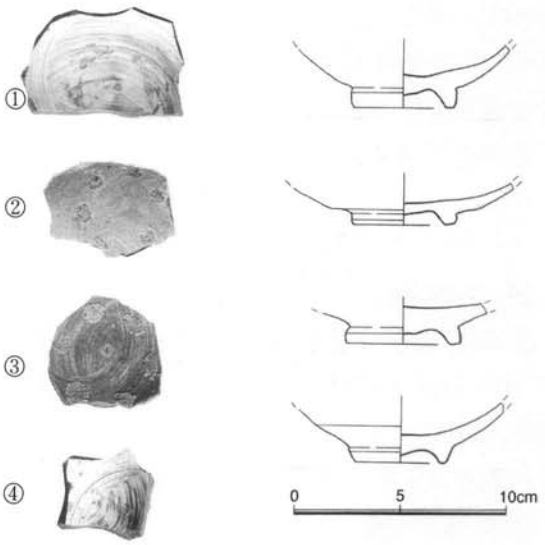
① 우물지(1)주변 매립지, ② B-2구역 상층



24) 분청귀얄문대접(사진 655, 그림 248)

그릇 내면 중앙부터 자유롭게 귀얄분장된 대접으로 내면과 굽에 가는 모래와 토사를 섞어 빚은 받침 흔적이 뚜렷하다. 투명유가 전면에 시유되었다. 대부분의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며 ②는 회색으로 규사와 모래알갱이가 혼입되어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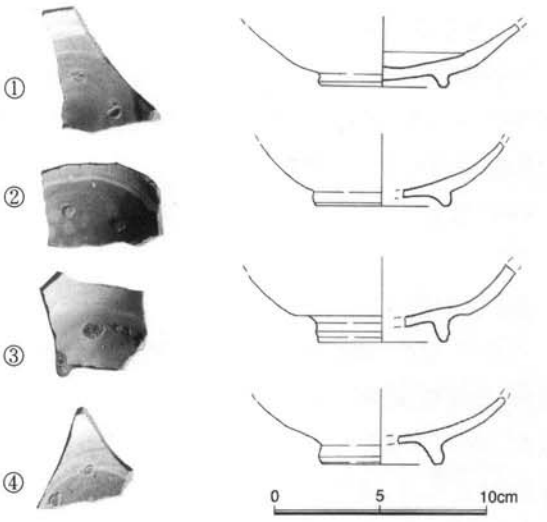
① 홍화각 상층, ② 영리장방, ③ 연못지, ④ B-2구역 상층



25) 분청귀얄문대접(사진 656, 그림 249)

내면 측면에만 귀얄 분장된 대접이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은 대마디 굽이다. ①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①,②는 내면에 태토비짐받침 흔적 ③,④는 흑색토사비짐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에 미세한 입자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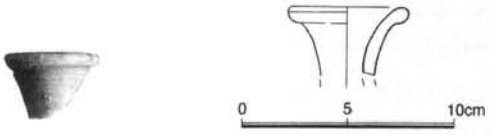
① 영리장방, ② 우연당 하층, ③ 영리장방, ④ 예고 상층



26) 분청병(사진 657, 그림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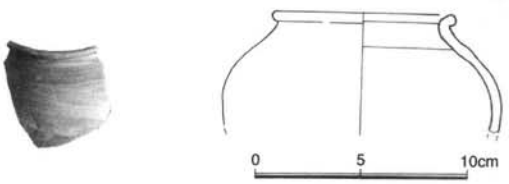
구연이 도톰하게 밖으로 벌어져서 나팔형 구연을 하고 있는 병이다. 외면에 희미하게 귀얄분장되었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우물지(1)주변 매립지



27) 분청호(사진 658, 그림 251)

구연이 둥글게 말리고 동체 상부가 팽창된 형태의 호이다. 외면에 얇게 귀얄분장되었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과 규사가 혼입되어 있다. 유 속에 기포가 있고, 빙렬이 있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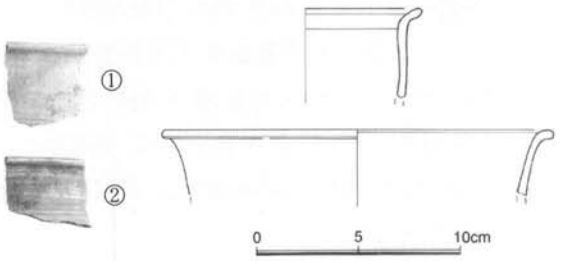


28) 분청대발(사진 659, 그림 252)

거의 수직한 동체에서 밖으로 크게 벌어진 구연으로

이어지는 대발이다.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①의 태토는 미세하고 양질이나 ②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 다소 거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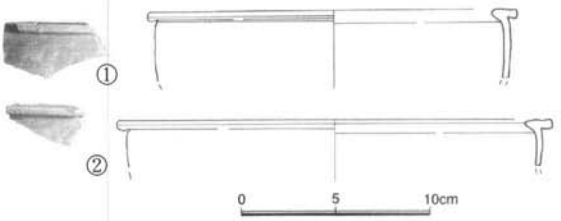
① 와선각 북편, ② 지표



29) 분청대발(사진 660, 그림 253)

호 또는 넓은 대발의 구연부편으로 폭 1.0~1.5cm 정도의 전이 달려 있고 전 상부에 가는 모래비짐받침 흔적이 있다. 내외면에 희미하게 귀얄로 백토가 칠해져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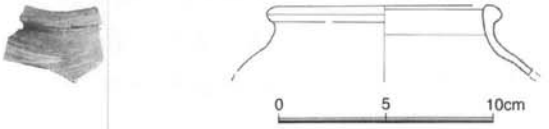
①,② 예고 상층



30) 분청호(사진 661, 그림 254)

구연이 도톰하게 말려서 밖으로 벌어진 호로 외면에 귀얄로 백토가 발라져 있다. 유약은 청녹색빛이 도는 투명유로 광택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을 띠며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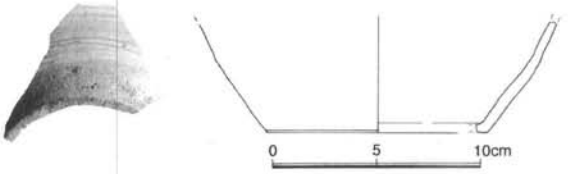
예고 상층



31) 분청호(사진 662, 그림 255)

기벽이 얇은 호의 저부편으로 귀얄로 백토가 발라져 있다. 동체부 하단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기공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평굽이며 바닥에서 완만하게 퍼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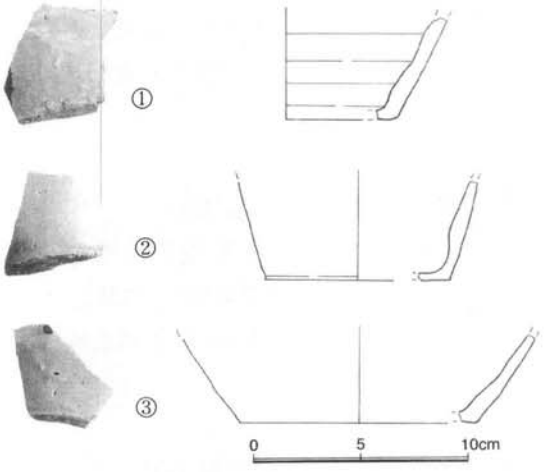
A구역



32) 분청호(사진 663, 그림 256)

바닥이 평굽인 호의 저부편들이다. 회색 투명유가 바닥까지 시유되었으며 잔 빙렬이 있다. 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어 다소 거칠다. 편평한 바닥에서 사선으로 퍼진 형태이다.

① 우물지(1)주변 매립지, ② 예고 상층, ③ A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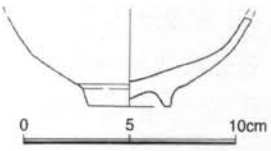


33) 분청덤벙분장대접(사진 664, 그림 257)

덤벙분장 대접으로 굽까지 완전히 백토분장되었다. 분장상태가 양호하다.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가 얇고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잔 빙렬이 있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흑갈색으로 기공이 있다.

중대문-외대문간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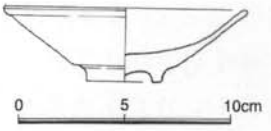




34) 분청덤벙분장접시(사진 665, 그림 258)

작은 굽에서 동체부로 사선으로 이어지다 구연이 도톰하게 살짝 외반된 접시이다. 굽을 포함한 전면에 백토분장되었으나 백토가 부분적으로 뭉쳐 있고, 박락된 곳도 있어 다소 분장상태가 불량하다. 암녹색의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나 표면에 기공이 생겼고 빙렬이 있다.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다소 거칠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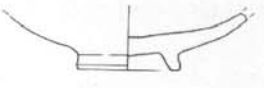


35) 분청덤벙분장접시(사진 666, 그림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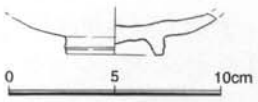
내면과 굽 언저리까지 덤벙분장된 접시이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굽은 죽절굽으로 단정치 않다.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에 사립이 많이 섞여 있어 거칠다.

① B-2구역 탐라시대층, ② 우물지(1)주변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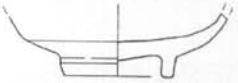


36) 분청덤벙분장대접(사진 667, 그림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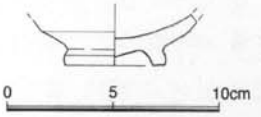
내면에 덤벙분장된 대접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으며 태토는 거칠다.

① A구역, ② B-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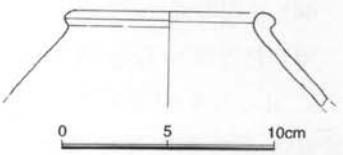




37) 분청호(사진 668, 그림 261)

백토가 두껍게 분장된 호로 구연이 도톰하게 말려져 있다. 구연부 내부쪽에 백토가 박락되었다. 구연부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예고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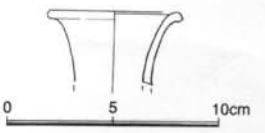




38) 분청병(사진 669, 그림 262)

병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이 밖으로 벌어진 나팔형이다. 표면에 철반이 생겼고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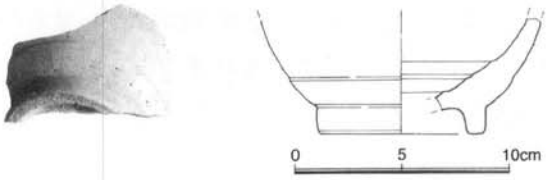




불순물이 섞여 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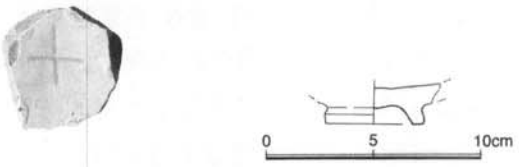
39) 분청병(사진 670, 그림 263)

분장된 병의 저부편으로 저부 하단에 1단의 턱이 형성되어 있다. 굽 속까지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어 거칠다. 우물지(1)주변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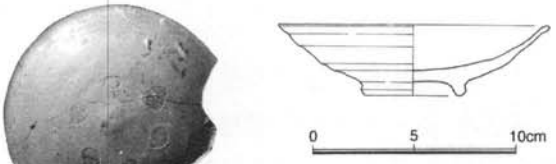
40) 분청덤벙분장대접(사진 671, 그림 264)

내면에 백토분장된 대접으로 내면 중앙에 十자가 음각되어 있고, 그 둘레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굽은 울퉁불퉁하며 단정하지 못하고 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태토는 회색으로 거칠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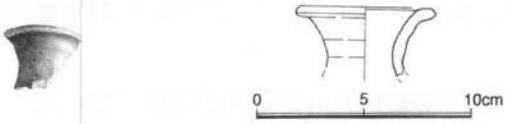
41) 분청접시(사진 672, 그림 265)

백토분장되지 않은 접시로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구연은 다소 외반되었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는 곡면으로 6개의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다. A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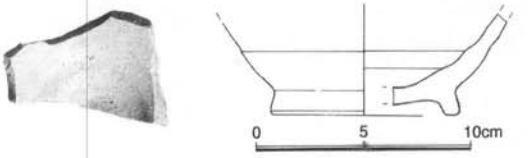
42) 분청병(사진 673, 그림 266)

구연이 나팔형으로 벌어진 병의 구연부편으로 광택이 다소 떨어지는 암녹색유가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우물지(1)주변 매립지



43) 분청병(사진 674, 그림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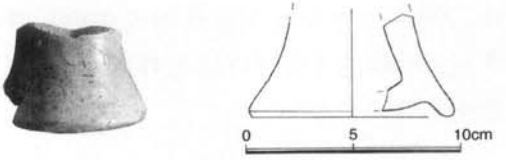
분장되지 않은 분청병으로 연녹색 투명유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고 광택이 있다. 태토에는 사립·규사 등이 섞여 있어 거칠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연못지



44) 분청매병(사진 675, 그림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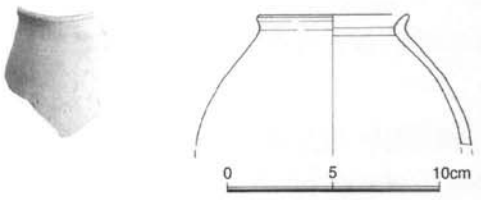
백토분장되지 않은 매병의 저부편이다. 저부가 나팔형으로 벌어지게 성형되었다. 접지면은 둥글게 다듬었고 안굽이다. 회색유가 굽 속을 포함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A구역



45) 분청호(사진 676, 그림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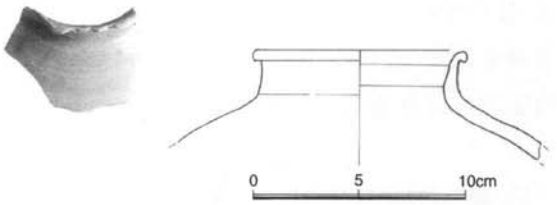
구연 끝이 다소 말리고 경부가 곧은 호로 백토분장되지 않았다. 전면에 녹색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섞여 있다. 영리장방



46) 분청호(사진 677, 그림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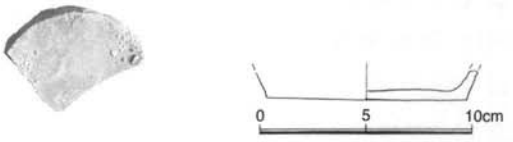
밖으로 말린 구연에서 곧은 경부, 넓게 벌어진 동체부로 이어지는 호이다. 암녹색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잔 빙렬이 있다. 내면 구연에 유가 흘러 뭉쳐 있다.

우물지(1)주변 매립지



47) 분청병(사진 678, 그림 271)

바닥과 동체 접합부에 접합흔이 남아 있는 병의 저부편으로 기벽이 얇다. 바닥은 평저로 바닥까지 시유되었다.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을 띠며 모래가 섞여 있어 거칠다. 예고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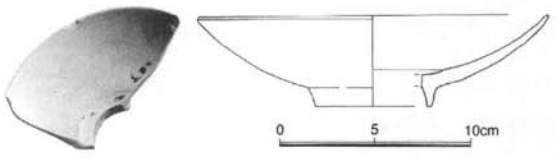


5. 백 자

초기의 상품백자부터 말기의 청화백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확인되는 기형은 대접, 접시, 소형종지, 소형접시, 병, 호, 제기접시 등이다. 내면에 여러 개의 번조받침이 있는 다소 시대가 떨어지는 소형접시류와 소형종지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1) 백자접시(사진 679, 그림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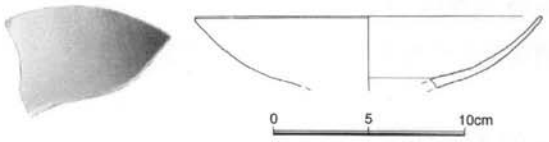
곧고 단정한 굽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동체부와 내만된 구연으로 이어진 접시이다.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표면은 암회색을 띠며 광택이 다소 떨어진다. 접지면에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흔적이 거의 없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2) 백자접시(사진 680, 그림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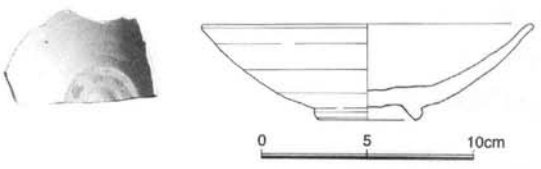
위의 것과 기형이 같은 접시로 구연부편이다. 표면에 광택이 있고 빙렬은 없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3) 백자접시(사진 681, 그림 274)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내만된 속이 다소 깊은 접시이다. 외면에 물레흔이 뚜렷하고 굽의 정리상태도 다소 불량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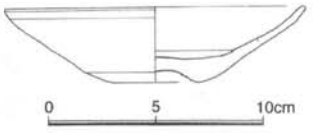
다. 내면과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우물지(1) 주변 매립지

4) 백자접시(사진 682, 그림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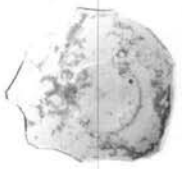
뚜렷한 내저원각이 있는 속이 깊은 접시로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구연은 내만되며 굽은 안굽이다. 내면과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번조시의 환경차에 의해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비교적 입자가 곱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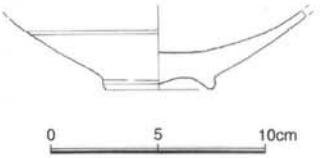




5) 백자접시(사진 683, 그림 276)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그 안에 4개의 태토비짐을 놓고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는 속이 깊은 접시이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이 도는 유를 시유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치밀질이다. 접지면에 백색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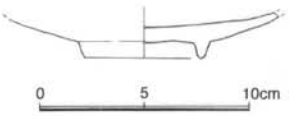




6) 백자접시(사진 684, 그림 277)

표면이 회백색을 띠는 접시로 굽이 단정하게 성형되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굽 언저리에는 산화되어 광택이 없고 황백색을 띤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의 치밀질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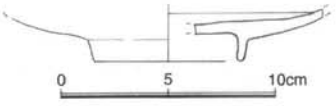




7) 백자접시(사진 685, 그림 278)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기형이 단정하게 성형되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 속이 다소 깊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우물지(1) 주변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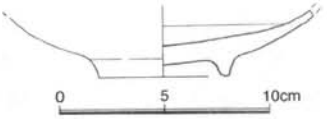




8) 백자접시(사진 686, 그림 279)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접지면의 유를 깨끗이 닦고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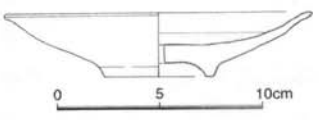




9) 백자접시(사진 687, 그림 280)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외반구연 접시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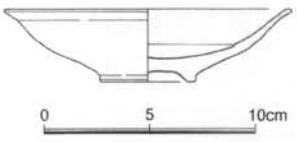


10) 백자접시(사진 688, 그림 281)

내면 바닥이 곡면이고 내저원각이 있는 외반구연 접시이다. 굽은 낮고 굽과 내면에 굵은 모래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다. 전면에 청회색이 도는 유를 시유하였다. 외면 일부에 성긴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입자가 곱다.

호적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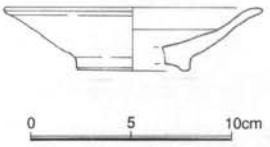




11) 백자접시(사진 689, 그림 282)

내면이 곡면이고 구연이 크게 외반된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고 죽절굽이다. 청색이 도는 유를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외면에 부분적으로 뭉쳐져 있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접지면에는 번조받침 흔적이 거의 없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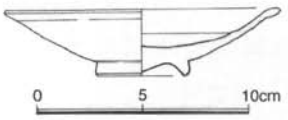




12) 백자접시(사진 690, 그림 283)

구연은 다소 외반되고 굽은 죽절굽인 접시이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전면에 성긴 빙렬이 있다. 내면 바닥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으나 굽에는 번조받침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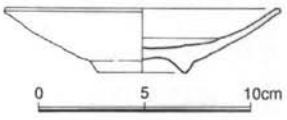




13) 백자접시(사진 691, 그림 284)

내저원각이 있으며 구연이 살짝 외반된 접시이다. 회색유가 전면에 얇게 시유되었다. 내면과 굽에 백색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는데 굽에는 지저분하게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홍화각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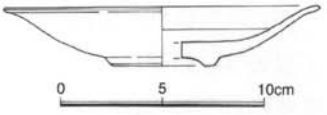




14) 백자접시(사진 692, 그림 285)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죽절굽의 접시로 기벽이 얇게 성형되었다. 굽과 굽 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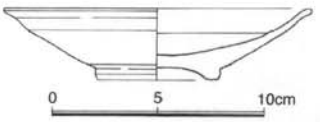




15) 백자접시(사진 693, 그림 286)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고 구연은 외반되었다. 굽은 죽절굽으로 다소 투박하게 성형되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회색유를 시유하였다. 내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





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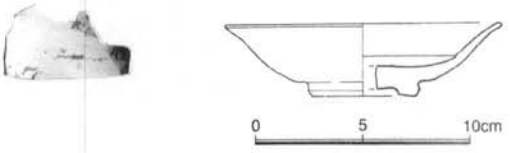
16) 백자접시(사진 694, 그림 287)

다소 완만한 바닥에서 뚜렷한 내저원각을 거쳐 외반된 구연으로 이어진 접시이다. 굽은 낮게 성형되었고 굽 주변에 유가 뭉쳐 있다. 내면과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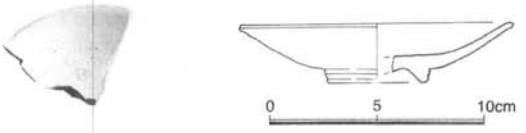
17) 백자접시(사진 695, 그림 288)

희미하고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구연이 외반된 접시이다.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나 외면에는 뭉쳐 있고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이 파손되었다. 내면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밀질이다. 예리장방 상층



18) 백자접시(사진 696, 그림 289)

구연이 외반된 죽절굽 접시로 내면에 1조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유가 시유되었으나 산화되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외면에는 유가 흘러 뭉쳐 있다. 내면과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회색의 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어 다소 거칠다. 호적고 상층



19) 백자접시(사진 697, 그림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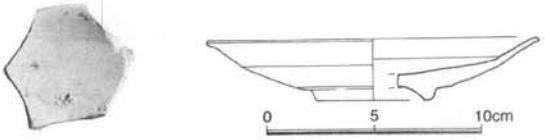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녹색의 유가 시유된 외반된 접시이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다. 굽에는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예고 서쪽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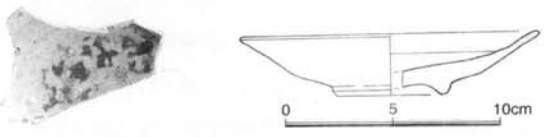
20) 백자접시(사진 698, 그림 291)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접시이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청백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내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우연당 서쪽



21) 백자접시(사진 699, 그림 292)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불량하다. 내면과 접지면에 모래와 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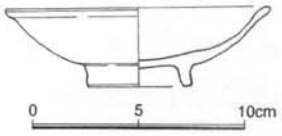
토사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외면에 물레자국이 심하게 남아있다.

B-2건물지 북편

22) 백자접시(사진 700, 그림 293)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태토는 석고질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잔빙렬이 있다. 내면과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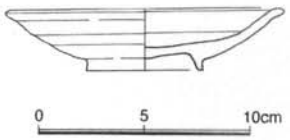




23) 백자접시(사진 701, 그림 294)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전면에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황백색으로 다소 연질이다. 전면에 빙렬이 있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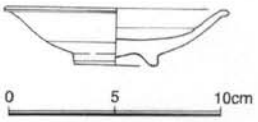




24) 백자접시(사진 702, 그림 295)

구연이 밖으로 말리면서 외반된 접시로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청백색의 유를 시유하였는데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내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우물지(1) 부근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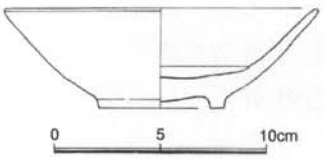


25) 백자접시(사진 703, 그림 296)

굽이 넓고 구연이 곧은 접시로 속이 다소 깊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면과 굽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굵은 빙렬이 있다. 태토는 황백색 석고질로 연질이다. 외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호적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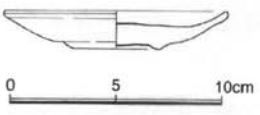


26) 백자접시(사진 704, 그림 297)

굽이 낮고 구연이 다소 내만된 접시이다. 내저원각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내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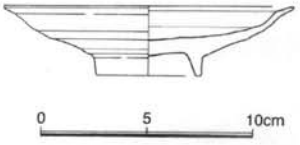


27) 백자전접시(사진 705, 그림 298)

폭 1㎝정도의 전이 있는 접시로 굽이 다소 높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유가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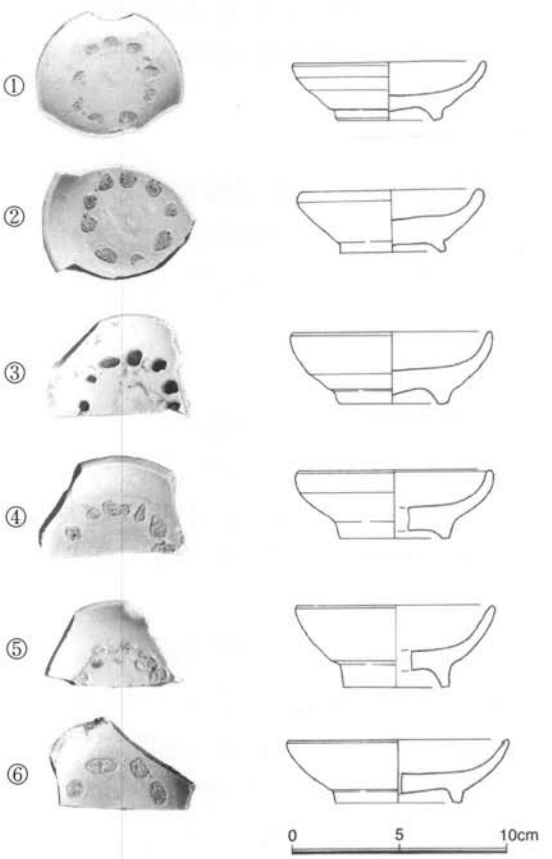




28) 백자접시(사진 706, 그림 299)

구연이 내만된 소형 접시로 내면과 접지면에 각각 8개 이상의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전면에 비교적 고르게 시유되었다. 한두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빙렬이 없다.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고 정형화되어 있어 틀을 이용하여 다량 찍어낸 그릇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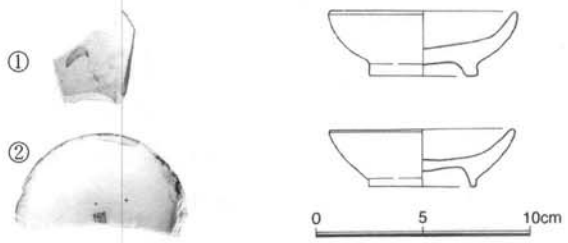
①,②,③,④,⑤,⑥, 연못지



29) 백자접시(사진 707, 그림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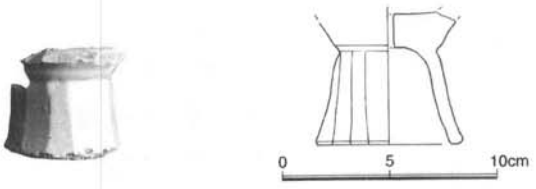
구연이 내만된 소형 접시로 내면 중앙에 청화안료로 작은 무늬가 그려져 있다. ①은 굽이 다소 외반되었고 ②는 굽의 높이보다 굽 속을 더 깊이 성형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①,② 예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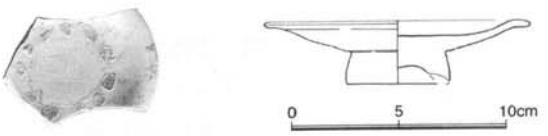
30) 백자제기접시(사진 708, 그림 301)

굽이 높고 각이 진 제기 접시로 회청색의 유가 전면에 두껍게 시유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기공이 형성되었다. 연못지



31) 백자제기접시(사진 709, 그림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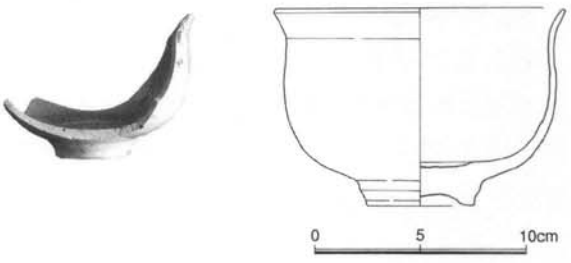
구연이 외반되고 굽다리가 둥근 제기 접시이다. 전면에 회백색유가 시유되었다. 내면에 11개의 황색 토사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예리장방 상층



32) 백자대접(사진 710, 그림 303)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부 하단에 볼륨이 있는 대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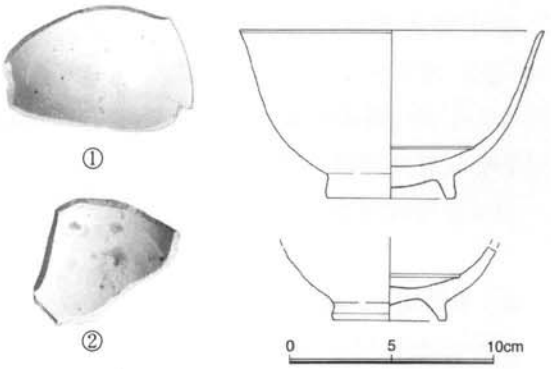
다.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5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예고 서쪽 담장



33) 백자대접(사진 711, 그림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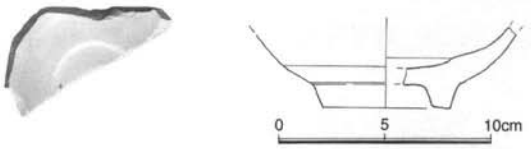
구연이 외반되고 내저가 곡면인 대접으로 굽은 둥글게 성형되었다. 굽 둘레보다 다소 넓은 음각선이 내면 바닥에 돌려져 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굽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번조받침 흔적이 거의 없다.

①,② 예고 내부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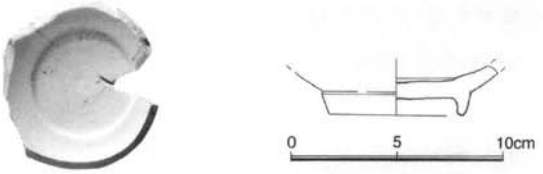
34) 백자대접(사진 712, 그림 305)

굽 둘레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굽은 다소 높고 단정하며 접지면의 폭도 고르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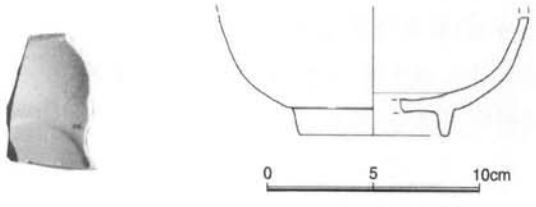
35) 백자대접(사진 713, 그림 306)

청색빛이 도는 유를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대접으로 굽 둘레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태토는 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와적담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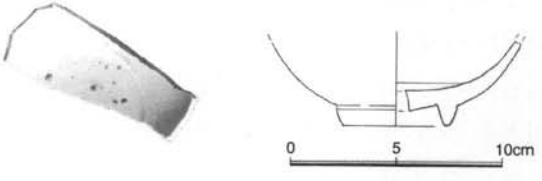
36) 백자대접(사진 714, 그림 307)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동체부 하단에 볼륨감이 있는 대접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지표



37) 백자대접(사진 715, 그림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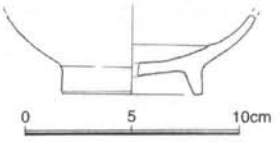
청색빛이 도는 유를 전면에 시유한 대접으로 가는 빙렬이 있다. 굽 둘레보다 다소 큰 내저원각이 있다. 굽은 단정하게 성형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지표



38) 백자대접(사진 716, 그림 309)

다소 높고 단정한 굽에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청백색유를 전면에 고르게 시유하였다. 접지면의 유를 대충 닦고 가는 백색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빙렬은 없으며 태토는 백색 치밀질이다. 호적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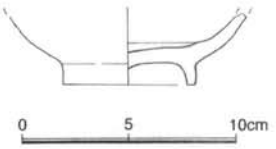


39) 백자대접(사진 717, 그림 310)

굽이 넓고 뚜렷한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의 저부편이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유가 시유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에 각 4개씩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내면 일부에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외대문-중대문간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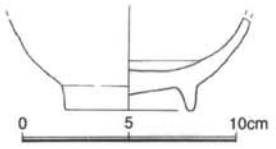




40) 백자대접(사진 718, 그림 311)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기형이 단정하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내면에는 4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영리장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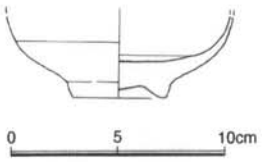


41) 백자대접(사진 719, 그림 312)

굽 둘레보다 큰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내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양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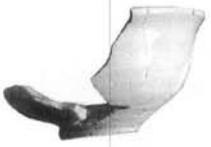
예리장방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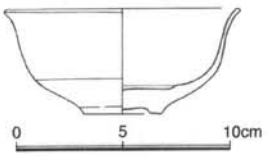




42) 백자대접(사진 720, 그림 313)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부 하단에 볼륨감이 있으며 낮은 굽으로 이어지는 작은 대접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굽 둘레보다 다소 큰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호적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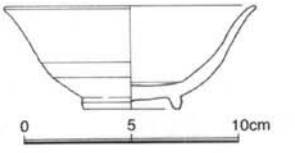




43) 백자대접(사진 721, 그림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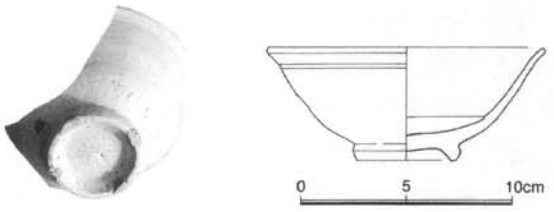
외반된 구연에서 완만한 동체부를 거쳐 죽절굽으로 이어지는 대접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불순물이 다소 섞여 있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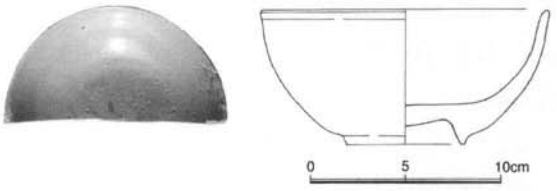
44) 백자대접(사진 722, 그림 315)

구연이 살짝 외반된 대접으로 굽이 다소 투박하게 성형되었다. 전면에 청색빛이 도는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나 외면 굽 언저리에는 기공이 형성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불순물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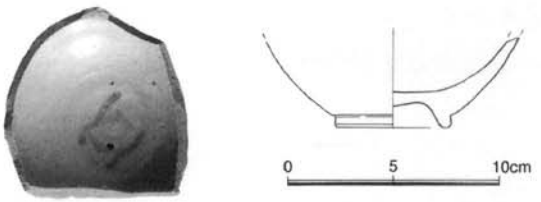
45) 백자대접(사진 723, 그림 316)

다소 내만된 듯한 구연에서 둥그런 동체부, 낮은 굽으로 이어지는 대접으로 내면에 청화안료로 시문되어 있다. 굽다리의 높이보다 굽 속을 깊게 성형하였다. 전면에 암회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일부에 유가 흘러 뭉쳐져 있다. 접지면과 굽 언저리에 번조받침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다. 연못지



46) 백자대접(사진 724, 그림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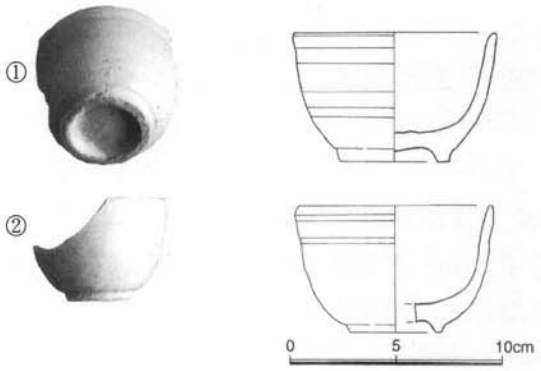
내면에 청화안료로 시문된 대접으로 굽 속을 깊이 성형하였다. 암회색의 유를 전면에 두껍게 시유하였다. 굽 언저리에 유가 뭉쳐져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예고 상층



47) 백자잔(사진 725, 그림 318)

구연이 직립한 통형 잔으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표면은 회백색을 띠며 빙렬은 없다.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그릇의 두께가 다소 두꺼워 투박해 보이며 표면에 기공이 생겨 매끄럽지 않다.

①, 예고 서쪽 담장, ②, 우물지(4) 상층



48) 백자잔(사진 726, 그림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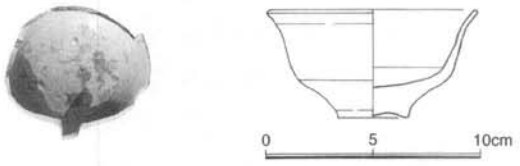
구연이 다소 내만된 듯한 잔으로 전면에 청색빛이 도는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다. 굽은 낮고 굽 속을 깊게 성형하였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번조받침 흔적이 거의 없다. 태토는 회색으로 불순물이 섞여 있다. 홍화각 상층



49) 백자잔(사진 727, 그림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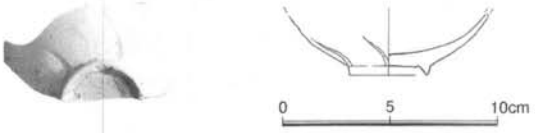
굽은 낮은 평굽이고 구연이 외반된 잔으로 표면은 황녹색을 띤다. 전면에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놓고 번조하였다. 기벽이 대체로 얇다.

예고 서쪽 담장



50) 백자잔(사진 728, 그림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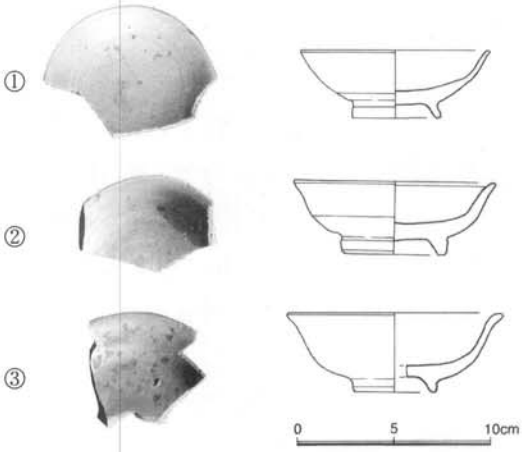
외면 하단부에서 위로 화형을 음각한 화형잔으로 청백색의 유를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지표



51) 백자종지(사진 729, 그림 322)

외반된 구연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다 동체하단에서 꺾여 죽절굽으로 이어진 종지이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호하다. 표면에 번조시 달라붙은 불순물이 부분부분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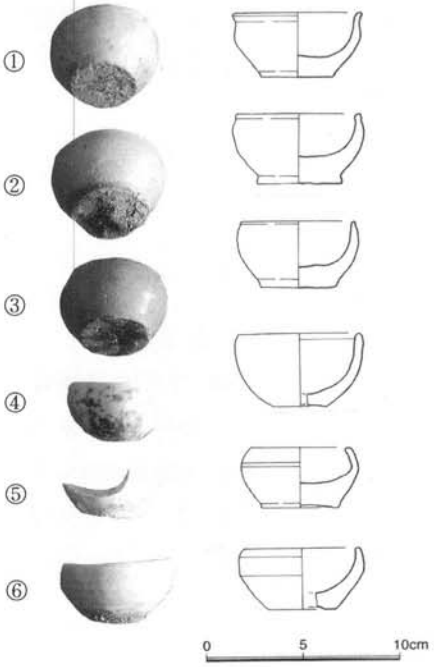
①,②,③ B-2구역 상층



52) 백자종지(사진 730, 그림 323)

평굽에서 도톰한 구연으로 이어지는 소형 종지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대체로 빙렬은 없다. ①, ②는 구연이 외반되었으며 ③, ④, ⑤, ⑥은 직립하거나 살짝 내만된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릇의 외면정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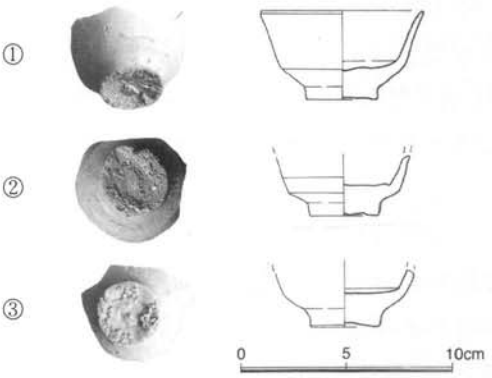
①,②,③,④,⑤,⑥ 호적고 상층



53) 백자종지(사진 731, 그림 324)

동체 하단에서 급하게 꺾여 상단으로 올라가는 평굽의 종지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이 다소 거칠며 빙렬은 없다. 기벽은 대체로 얇고 단정하나 굽의 정리상태는 불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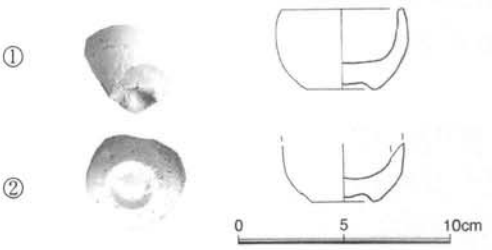
①,②,③ 홍화각 상층



54) 백자종지(사진 732, 그림 325)

내만된 구연에서 둥그런 동체를 지나 굽으로 이어지는 종지로 굽은 안굽이다. 표면은 유백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태토는 황백색으로 석고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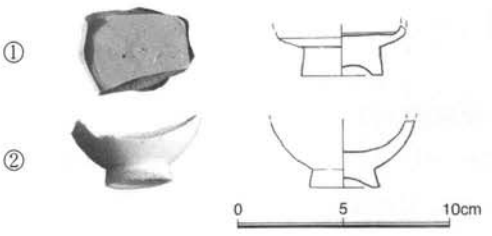
①,② 예리장방 상층



55) 백자종지(사진 733, 그림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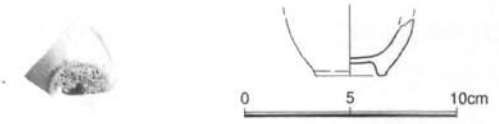
굽이 높고 외반된 종지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②의 굽 속은 산화되어 광택이 없고 거칠다. 태토는 각각 암회색과 백색으로 양질이다. 접지면에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번조받침 흔적은 거의 없다.

①,②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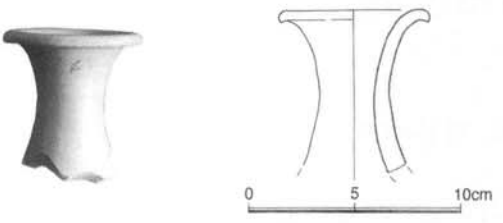
56) 백자종지(사진 734, 그림 327)

내면 중앙에 청화안료로 시문된 소형 종지이다. 굽은 낮고 속을 깊이 성형하였으나 굽 속에 번조받침이 녹아 붙어 있다. 청백색이 도는 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배수시설 남쪽



57) 백자병(사진 735, 그림 328)

구연이 밖으로 크게 말린 나팔형의 병으로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시유상태가 좋으며 빙렬은 없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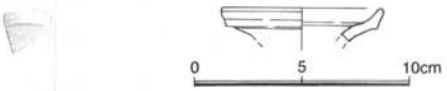
58) 백자병(사진 736, 그림 329)

구연이 벌어진 나팔형의 병으로 청회색이 도는 유를 시유하였으나 구연일부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잔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색의 치밀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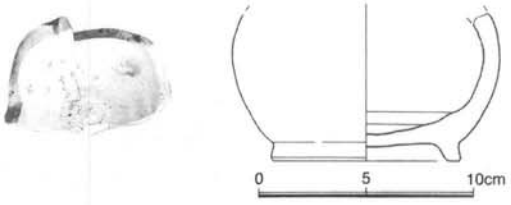
59) 백자병(사진 737, 그림 330)

병의 구연부 소편으로 구연이 수직으로 내려오다 급하게 꺾인 반구형이다. 외면에 물레자국이 있다. 청회색유가 고르게 시유되었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지표



60) 백자병(사진 738, 그림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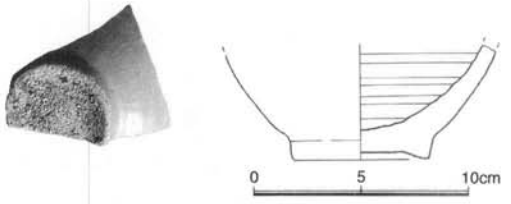
동체하부에 볼륨감이 있는 병의 저부이다. 청색빛이 도는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광택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는데 굽 속에 지저분하게 번조받침이 녹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홍화각 상층



61) 백자병(사진 739, 그림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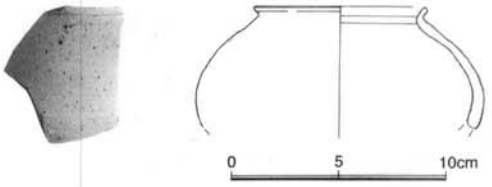
표면이 암회색을 띠는 병의 저부이다. 전면에 암회색유를 시유하였다. 굽 바닥 전면에 모래받침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암회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홍화각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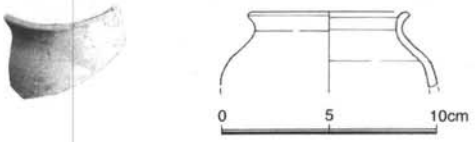
62) 백자호(사진 740, 그림 333)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 상부에 볼륨감이 있는 호로 녹색빛이 도는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외면에 철반이 형성되었다. 태토는 회색으로 불순물이 혼입되었으나 양질이다. 연못지



63) 백자호(사진 741, 그림 334)

구연이 외반되고 짧은 경부를 거쳐 볼륨감있는 동체로 이어지는 호이다. 표면은 회색을 띠나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황백색을 띠는 곳도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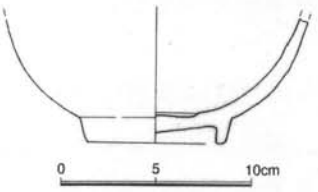
6. 명문백자

다수 확인된 명문백자 중 유약 위에 음각되거나 묵서된 소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쪼아서 새긴 명문들이다. 명문의 종류를 보면 大男, 忠, 亭, 上, 州上, 大允金?奉, 別官, 官上, 天別官上 등과 글자가 아닌 부호, 한글 명문 등으로 내면 바닥, 굽속, 굽다리 등에 새겨져 있다.

1) 백자 '右乙卯' 명대접(사진 742, 그림 335)

굽 안에 '右乙卯' 명이 음각된 대접으로 작은 내저원각이 있다. 굽은 곧고 단정하며 굽 속까지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굽다리 한쪽에 '官上' 명이 쪼아서 새겨져 있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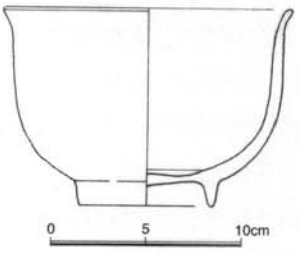




2) 백자 '任正牧上' 명대접(사진 743, 그림 336)

외반된 구연에서 부드럽게 동체부로 연결되고 동체 하부가 다소 팽창된 대접으로 굽은 곧고 단정하게 성형되었다.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쪼아져 있다. 굽 속에 '左' 명이 음각되고 그 한쪽에 치우쳐 '壬正牧上'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잔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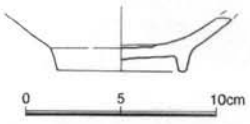




3) 백자 '左' 명대접(사진 744, 그림 337)

굽 둘레 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전면에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굽 속에 '左' 명이 음각되었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접지면의 유를 닦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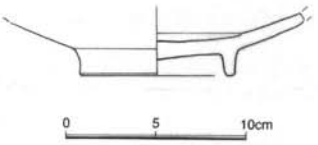




4) 백자 '右□□' 명접시(사진 745, 그림 338)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굽은 다소 높고 단정하게 성형되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 속에 '右□□' 명이 음각되었다. 굽다리 한쪽에 '官上' 명이 새겨져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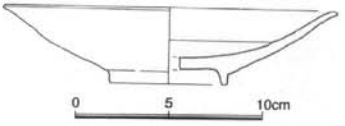




5) 백자명문접시(사진 746, 그림 339)

구연이 다소 외반되고 완만한 동체부에서 곧은 굽으로 이어지는 접시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면에 잡물이 붙어있다. 굽 속까지 시유되었으며 굽 속에 글자가 음각되었으나 반파되어 뚜렷하게 알 수 없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우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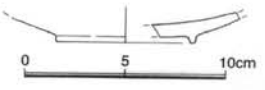




6) 백자명문접시(사진 747, 그림 340)

낮고 둥근 굽을 가진 접시이다. 전면에 시유되었고 굽 속에 글자가 음각되었으나 파손되어 읽을 수 없다. 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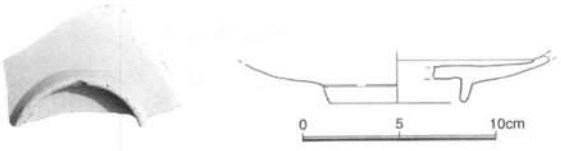




면의 유를 닦지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호적고 상층

7) 백자명문접시(사진 748, 그림 341)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 속에 글자가 음각되었으나 파손되어 글자를 알 수 없다. 전면에 잔 빙렬이 있다. 우물지(1) 주변 매립지



8) 백자 '大男' 명접시(사진 749, 그림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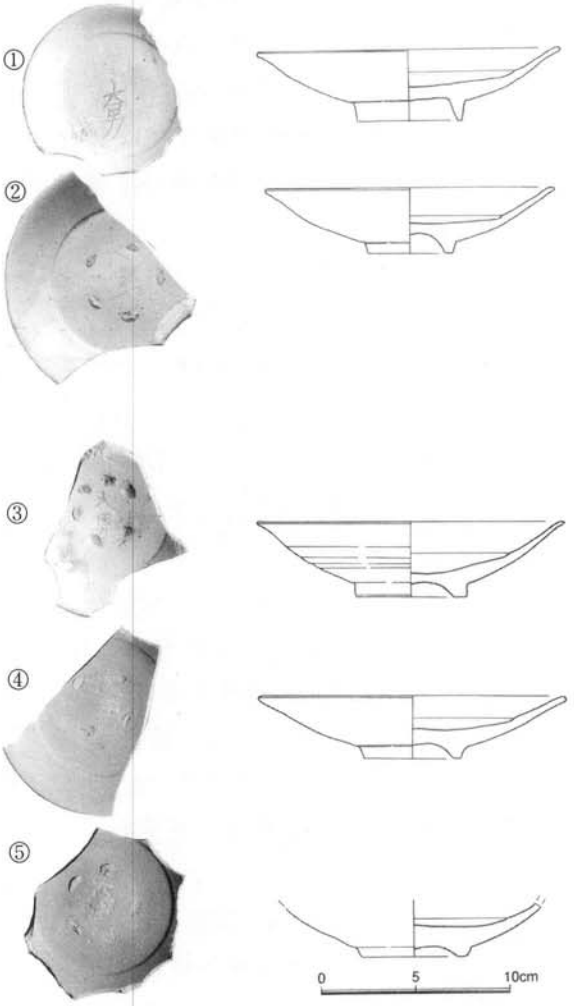
① 구연이 살짝 외반되고 완만한 동체에서 곧은 굽으로 이어지는 접시로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 바닥 한쪽에 치우쳐 '大男'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문되었으며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②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구연이 외반된 접시이다. 내면 5곳에 태토비짐받침 흔적이 있고 그 안에 '大男' 명이 쪼아서 새겨져 있다. 전면에 녹회색유가 시유되었으나 외면에는 유가 흘러 뭉쳐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③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외면 동체부에 5줄의 가는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내면 6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고, 그 안에 '大男' 명이 쪼아서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두께가 고른 접지면에 모래와 내화토를 깔고 번조하였다. 연못지

④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외반된 접시로 표면은 황녹색을 띤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내면과 접지면 각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내면 중앙에 '大男' 명이 쪼아져 있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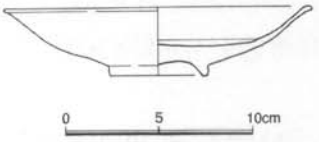
⑤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 중앙에 '大男'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내면에 5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황녹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9) 백자 '朴用' 명접시(사진 750, 그림 343)

넓은 내저원각에서 동체로 꺾여 외반된 구연으로 이어지는 접시이다. 내면 중앙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으며 내면 중앙에 '朴用' 명이 쪼아서 새겨져 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색유가 시유되었으나 외면은 시유상태가 불량하여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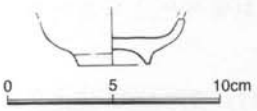


10) 백자 '朴用' 명종지(사진 751, 그림 344)

편평한 내면 바닥에서 동체로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소형종지로 내면 바닥에 '朴用' 명이 쪼아져 있다. 표면은 황갈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굵은 모래와 토사를 섞어 빚은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우물지(1)주변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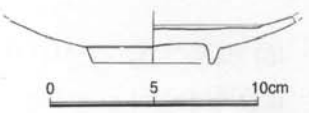


11) 백자 '愛用' 명접시(사진 752, 그림 345)

굽이 곧고 단정한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愛用'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세사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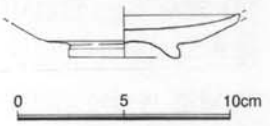


12) 백자 '□用' 명접시(사진 753, 그림 346)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과 굽에 굵은 모래 받침 흔적이 있다. 내면에 '□用' 명이 쪼아져 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C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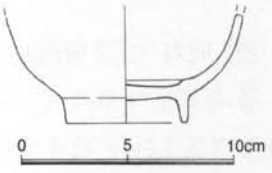


13) 백자 '末只' 명대접(사진 754, 그림 347)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곧은 굽에서 다소 둥그런 동체부로 이어진다. 내면 바닥에 '末只'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백색으로 양질이다.

C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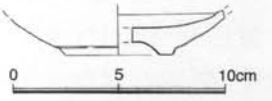




14) 백자 '末 '명접시(사진 755, 그림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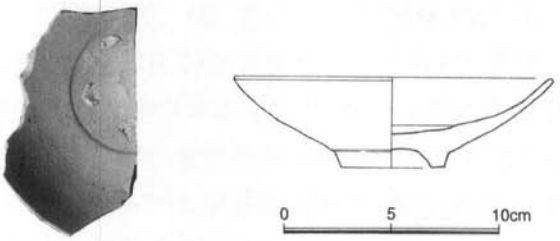
내저원각이 있고 그 안에 '末' 명이 쪼아진 접시로 표면은 황녹색을 띤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애매헌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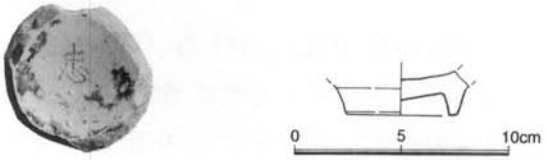
15) 백자 '忠□' 명접시(사진 756, 그림 349)

굽 둘레보다 다소 큰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중앙에 '忠□' 명이 쪼아져 있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놓고 포개어 번조하였으며, 접지면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회색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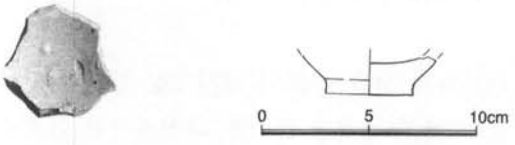
16) 백자 '忠' 명대접(사진 757, 그림 350)

내면 중앙에 '忠' 자, 굽다리에 '元' 자가 쪼아진 대접의 저부편이다. 청백색의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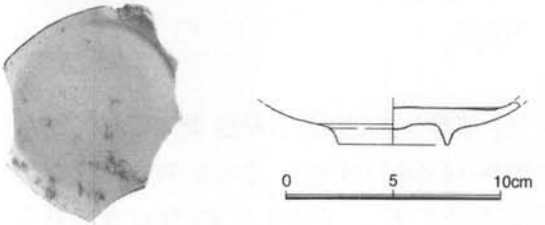
17) 백자 '忠' 명접시(사진 758, 그림 351)

녹색유가 시유된 접시의 저부편으로 내면 바닥 한쪽에 치우쳐 '忠' 자가 쪼아져 있다. 굽은 평굽으로 잘 정돈되지 않았으며 접지면에 번조시 받쳤던 굵은 모래가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거칠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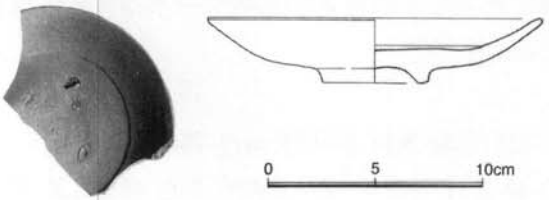
18) 백자 '仁名' 명접시(사진 759, 그림 352)

내면바닥이 다소 볼록한 접시로 내면에 '仁名' 자가 쪼아져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와선각 북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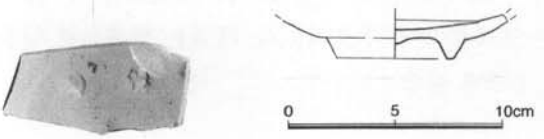
19) 백자 '仁□' 명접시(사진 760, 그림 353)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살짝 외반된 듯한 접시이다. 내면 바닥에 '仁□' 자가 새겨져 있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놓고 포개어 번조하고 굽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와선각 북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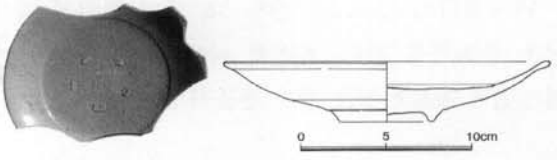
20) 백자 '仁□' 명접시(사진 761, 그림 354)

굽 둘레보다 다소 큰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 바닥에 '仁□' 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내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21) 백자 '亭' 명접시(사진 762, 그림 355)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내면 중앙에 '亭' 자가 쪼아져 있다. 내면에 5개의 태토비짐 흔적이 있으며 굽 접지면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전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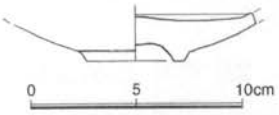


시유되었으며 표면색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예리장방 서쪽담장

22) 백자 '亭' 명접시(사진 763, 그림 356)

내면 중앙의 다소 볼록한 접시로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 중앙에 '亭' 자가 새겨져 있다. 내면 바닥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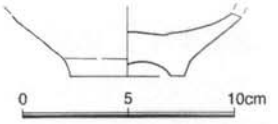




23) 백자 '亭' 명 대접(사진 764, 그림 357)

좁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외면 동체부 하단에 가로로 '亭' 자가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두께가 고른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5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호적고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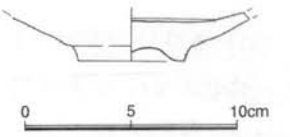




24) 백자 '亭供' 명대접(사진 765, 그림 358)

굽 둘레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내면바닥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 중앙에 '亭供' 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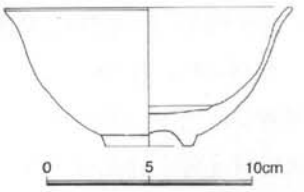


25) 백자 '上' 명대접(사진 766, 그림 359)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부 하단에 볼륨감이 있는 대접이다.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고 그 안에 '上' 자가 쪼아져 있다. 내면에 4개의 태토비짐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광택이 다소 떨어진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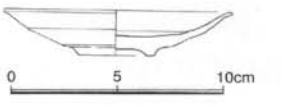




26) 백자 '上' 명접시(사진 767, 그림 360)

낮은 굽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동체부, 살짝 외반된 구연으로 이어지는 접시이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上' 자가 쪼아져 있다. 내면과 접지면에 각 5개의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표면은 암녹색을 띤다. B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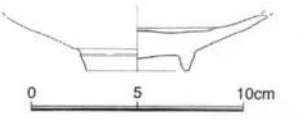




27) 백자 '上' 명접시(사진 768, 그림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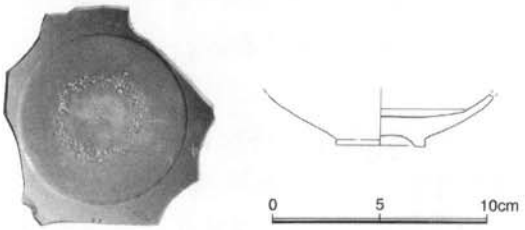
표면은 암회색을 띠는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上' 자가 쪼아져 있다. 굽은 다소 높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접지면에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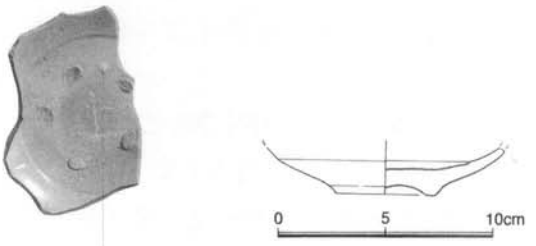
28) 백자 '上' 명접시(사진 769, 그림 362)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내면과 접지면에 둥글게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내면 중앙에 '上' 자가 쪼아져 있다. 외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내부



29) 백자 '上' 명접시(사진 770, 그림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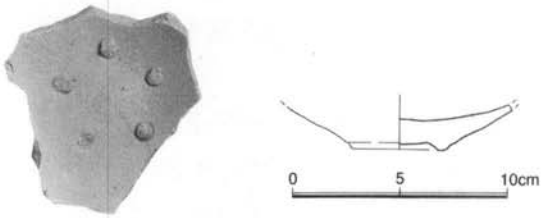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 바닥과 굽 접지면에 각 5개씩의 태토비짐을 놓고 번조하였다. 내면바닥에 '上' 자가 쪼아서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유의 두께와 발색이 고르지 않다. 영리장방 상층



30) 백자 '上' 명접시(사진 771, 그림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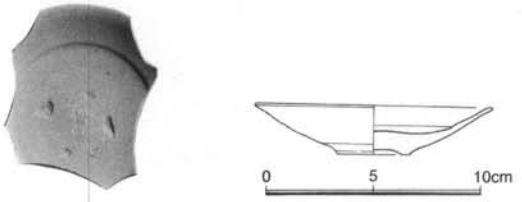
굽이 낮은 접시로 내면에 5개의 태토비짐받침 흔적과 굽 전체에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 중앙에 '上' 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홍화각지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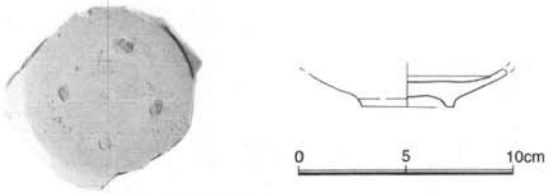
31) 백자 '上' 명접시(사진 772, 그림 365)

굽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치 않고 구연이 외반된 소형 접시로 기벽이 얇고 큰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바닥과 접지면에 각 5개씩의 번조받침이 있다. 내면 중앙에 '上' 자가 쪼아져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호적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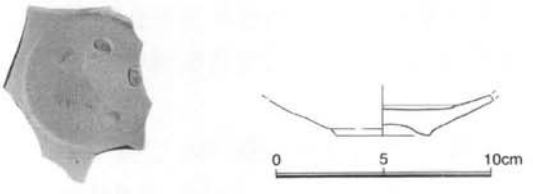
32) 백자 '上' 명접시(사진 773, 그림 366)

내면 바닥 한쪽에 치우쳐 '上' 자가 쪼아진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내면바닥에 4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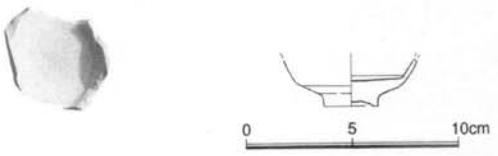
33) 백자 '下' 명접시(사진 774, 그림 367)

굽과 동체부의 구분이 뚜렷치 않은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下' 자가 쪼아져 있다. 내면바닥과 접지면에 각 5개의 태토비짐을 놓고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황회색을 띤다.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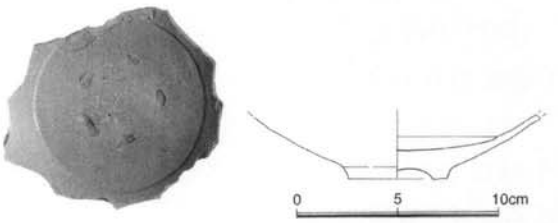
34) 백자 '上' 명종지(사진 775, 그림 368)

편평한 내면 바닥에서 급하게 꺾여 동체로 이어지는 소형 종지이다. 내면 중앙에 '上' 자가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번조받침을 놓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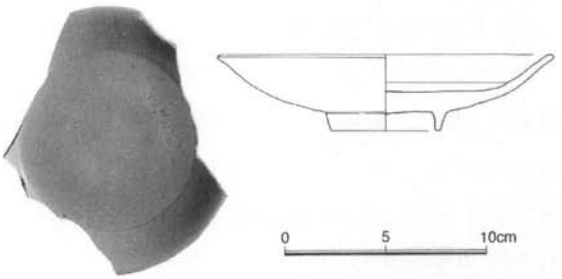
35) 백자 '上供' 명접시(사진 776, 그림 369)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그 안에 '上供' 자가 쪼아져 있고 글자 주위로 5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표면은 암회색으로 다소 광택이 떨어지며 빙렬이 있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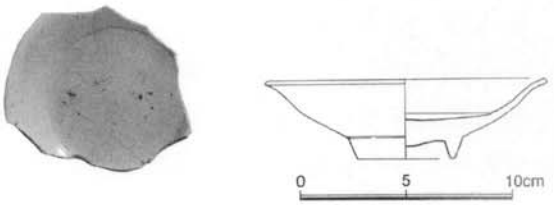
36) 백자 '大允金?奉' 명접시(사진 777, 그림 370)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기형이 단정하다. 내면 바닥 중앙과 오른쪽에 치우져 '大允金?奉' 명이 쪼아서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외면 동체 하단에 1조의 가는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37) 백자 '天別官上' 명접시(사진 778, 그림 371)

다소 높은 굽에서 부드럽게 외반된 구연으로 이어지는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 바닥 중앙과 왼쪽에 치우쳐 '天別官上'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은 회백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연못지



38) 백자 '官' 명접시(사진 779, 그림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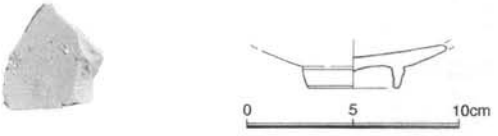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바닥에 '官' 자가 쪼아져 있으며 나머지는 반파되어 알 수 없다. 내면과 굽에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굽 속에 묵서되어 있으나 글자는 알 수 없다.

연못지



39) 백자 '別官' 명접시(사진 780, 그림 373)

내면에 '別官' 명이 쪼아진 접시로 내면과 접지면에 모래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회백색을 띤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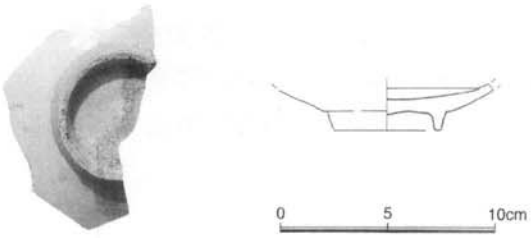
40) 백자 '官上' 명접시(사진 781, 그림 374)

바닥이 파손된 접시로 내면 바닥에 '官上' 명이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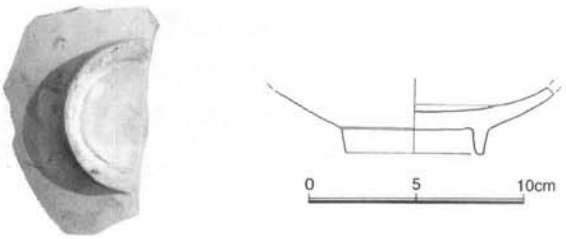
41) 백자 '夫巳天上' 명접시(사진 782, 그림 375)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굽다리 부분에 유가 일부 뭉쳐 있다. 굽다리를 돌아가며 '夫巳天上' 명이 뚜렷하게 쪼아서 새겨져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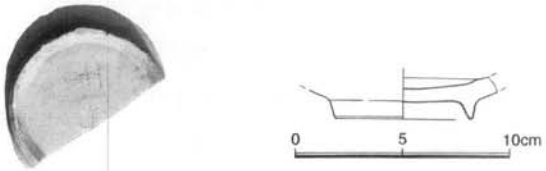
42) 백자 '州上' 명대접(사진 783, 그림 376)

대접으로 굽 둘레보다 다소 큰 내저원각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외면에는 광택이 거의 없다. 굽속에 '州上' 명이 쪼아져 있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하였으나 흔적이 거의 없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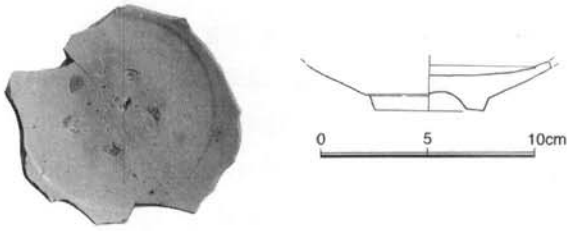
43) 백자 '州上' 명대접(사진 784, 그림 377)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청색빛이 도는 유를 전면에 고르게 시유하였다. 굽 속 중앙에 '州上' 명이 쪼아져 있다. 유를 닦지 않은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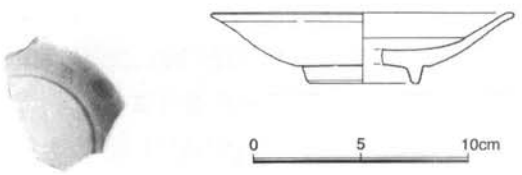
44) 백자 '丁□' 명접시(사진 785, 그림 378)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 바닥에 '丁□' 명이 쪼아져 있다. 내면 중앙과 굽 접지면에 각 5개씩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가는 빙렬이 있다. 태토에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예고 상층



45) 백자 '丁□' 명접시(사진 786, 그림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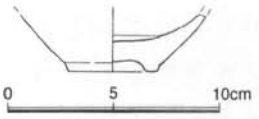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접시이다. 굽은 다소 높고 단정하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일부가 산화되어 백색을 띤다. 내면에 '丁□' 명이 새겨져 있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예고 상층



46) 백자 '天' 명대접(사진 787, 그림 380)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내면 바닥 한쪽에 치우쳐 '天' 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두께가 고른 접지면 4곳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표면은 황회색을 띤다. 호적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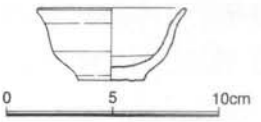




47) 백자 '天' 명종지(사진 788, 그림 381)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 하단에 볼륨감이 있는 소형 종지로 기벽이 얇다. 굽에는 전체적으로 번조시의 굵은 모래가 달라 붙어 있다. 청색이 도는 투명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내면에 '天' 자가 새겨져 있다. 태토는 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영리장방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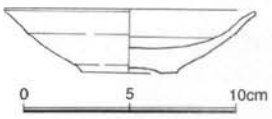




48) 백자 '二 '명접시(사진 789, 그림 382)

희미한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굽과 동체부의 구분이 뚜렷치 않다. 내면 중앙에 '二' 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 둘레에 6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표면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우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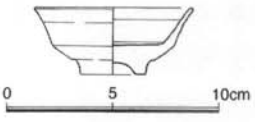




49) 백자 '二' 명종지(사진 790, 그림 383)

굽이 단정하고 동체 하단에 볼륨감이 있으며 구연이 외반된 소형 종지이다. 내면 중앙에 '二' 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가는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4개의 번조받침을 놓고 번조하였다. 예고 서편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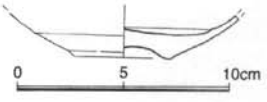




50) 백자 '十' 명접시(사진 791, 그림 384)

굽이 낮고 동체부의 구분이 뚜렷치 않으며 물레자국이 남아있는 접시로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 바닥에 '十' 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회백색유가 시유되었으나 외면에는 뭉쳐 있다. 내면 바닥과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우연당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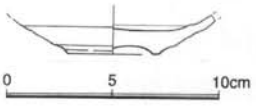




51) 백자 '十' 명접시(사진 792, 그림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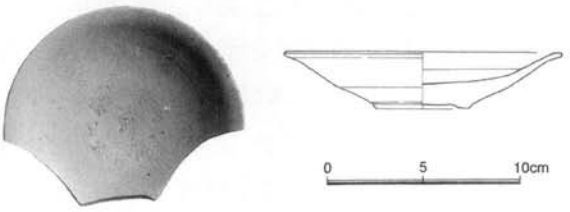
굽과 동체부의 구분이 뚜렷치 않은 접시로 내저원각이 있다. 내면과 두께가 고른 접지면에 각 5개씩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내면 중앙에 '十' 자가 새겨져 있다. 태토는 황백색으로 다소 연질이다.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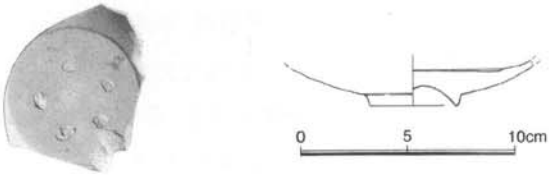
52) 백자 '草卜' 명접시(사진 793, 그림 386)

구연이 크게 외반된 접시로 내면 중앙에 '草卜' 명이 새겨져 있다. 내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표면에 작은 철반들이 생겼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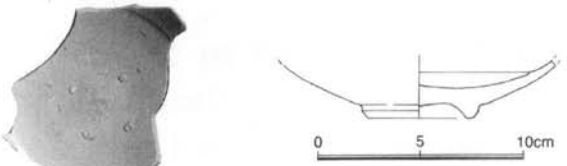
53) 백자 '春' 명접시(사진 794, 그림 387)

내저원각이 있는 중앙에 '春' 자가 새겨진 접시로 내면 바닥과 접지면에 각 5개씩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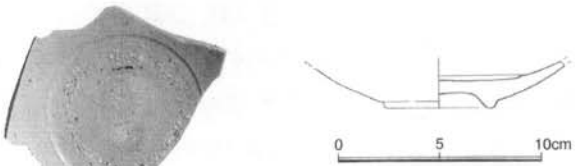
54) 백자 '吉己' 명접시(사진 795, 그림 388)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에 '吉己' 명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회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내면에 4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작게 남아 있고 접지면에도 번조받침 흔적이 있다. B-2구역 탐라시대층



55) 백자 '軍德' 명접시(사진 796, 그림 389)

내저원각이 있고 내저원각 바로 안쪽과 굽 접지면에 둥그렇게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는 접시이다. 내면의 번조받침 흔적 안쪽으로 '軍德' 명이 새겨져 있다. 굽은 낮고 둥글게 성형되었고 굽 속은 오목하다. 표면은 회색을 띤다. 연못지



56) 백자 '金生' 명종지(사진 797, 그림 390)

저부만 남아 있는 소형 종지로 내면 바닥에 '金生' 명이 새겨져 있다. 굽 속은 오목하게 성형되었다.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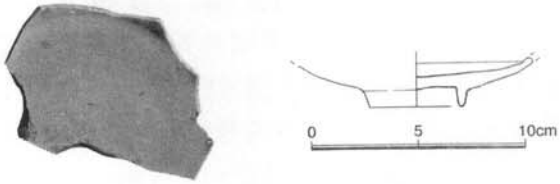
예고 상층



57) 백자 '生' 명접시(사진 798, 그림 391)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에 '生' 자가 새겨져 있다. 기벽은 대체로 얇고 굽은 단정하게 성형되었다. 굽 속까지 시유되었으며 내면은 회색, 외면은 청백색은 띤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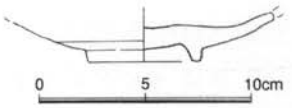
B-2구역 탐라시대층



58) 백자 '言' 명접시(사진 799, 그림 392)

내면중앙에 '言' 자가 뚜렷하게 새겨진 접시이다. 글자의 둘레와 접지면에 각 6개의 태토비짐을 놓고 번조하였다. 표면은 황백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태토는 황백색으로 다소 연질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유가 묻지 않은 곳이 있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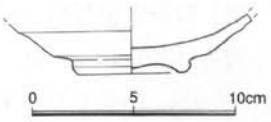


59) 백자 '得男' 명접시(사진 800, 그림 393)

굽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은 접시로 내면 바닥에 '得男' 명이 새겨져 있다.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가는 빙렬이 있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기공이 있고 다소 거칠다. 내저원각의 흔적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홍화각지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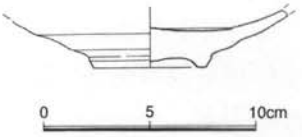




60) 백자 '千' 명접시(사진 801, 그림 394)

굽 둘레보다 다소 큰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 바닥에 '千' 자가 쪼아져 있다. 굽 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시유상태가 불량하다. 내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 치밀질로 양질이다. 굽 속에 묵서흔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예고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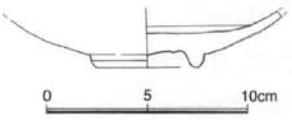


61) 백자 '?終' 명접시(사진 802, 그림 395)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에 '?終' 명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B-2구역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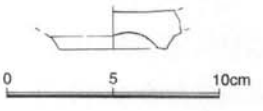




62) 백자 '夢?' 명접시(사진 803, 그림 396)

저부만 남아있는 접시로 내면 중앙에 '夢?' 명이 새겨져 있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내면과 굽 접지면에 각 5개의 태토비짐은 받쳐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우물지(4)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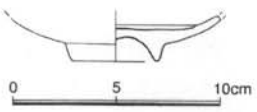




63) 백자 '?誰?' 명접시(사진 804, 그림 397)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바닥에 '?誰?' 명이 새겨져 있다. 표면은 회녹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은 단정하고 굽 속은 깊고 오목하게 성형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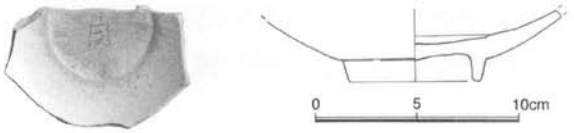




우연당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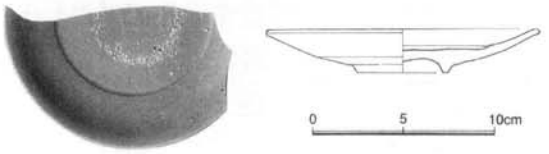
64) 백자명문접시(사진 805, 그림 398)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저원각 중앙에 반파되어 파악할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외면에 유가 흘러 뭉쳐 있지만 대체로 시유상태가 양호하다.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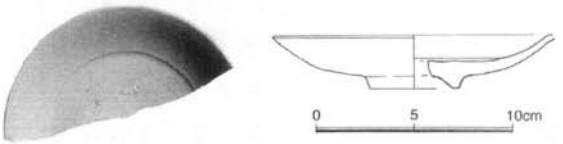
65) 백자명문접시(사진 806, 그림 399)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살짝 외반된 접시로 내면 중앙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반파되어 확인할 수 없다. 굽은 낮고 둥글게 성형되었으며 내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은 회녹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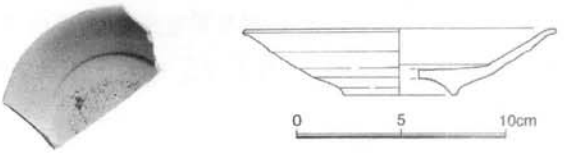
66) 백자명문접시(사진 807, 그림 400)

내저원각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접시로 내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있고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외면 동체부에 불순물이 붙어 있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양질이다. 와선각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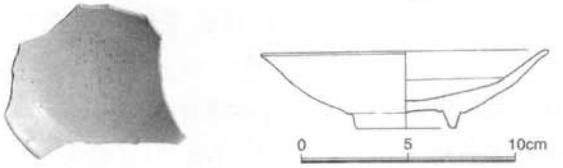
67) 백자명문접시(사진 808, 그림 401)

굽은 낮고 둥글게 성형되었고 내저원각이 있는 외반구연의 접시이다. 내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파손되었다. 내면과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는 황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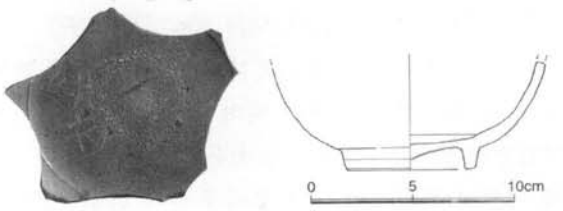
68) 백자명문접시(사진 809, 그림 402)

내면 바닥이 곡면이고 희미한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파악할 수 없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에 가는 백색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외면에 기공이 생겨 다소 지저분하다. 연못지



69) 백자명문접시(사진 810, 그림 403)

넓은 내저원각이 있는 접시로 내저원각 안쪽 한쪽에 치우쳐 井자와 유사한 모양 2개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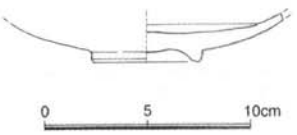


면과 둥근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광택이 있고 회녹색을 띤다.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연못지

70) 백자명문대접(사진 811, 그림 404)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내면 중앙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쪼아져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가는 백색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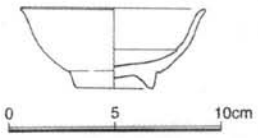




71) 백자명문종지(사진 812, 그림 405)

굽이 곧고 동체 하단이 볼록하며 구연이 외반된 소형 종지로 기벽이 얇게 성형되었다. 내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반파되어 파악할 수 없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황백색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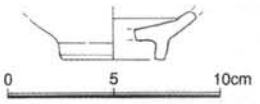




72) 백자명문대접(사진 813, 그림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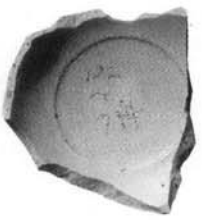
저부의 일부만 남아 있는 대접으로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다. 내저원각 안쪽으로 한쪽에 치우쳐 뜻을 알 수 없는 기호가 새겨져 있다. 굽은 곧고 단정하며 시유상태도 좋다. 접지면에 굵은 백색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홍화각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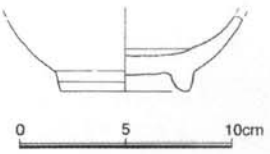




73) 백자 '막개' 명대접(사진 814, 그림 407)

굽 둘레 정도의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으로 내저원각 안쪽에 한글로 '막개' 명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굽은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성형되었으며 접지면에 번조받침 흔적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다. 전면에 회백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굽 주변에 유가 뭉쳐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이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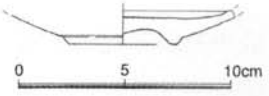




74) 백자 '문' 명접시(사진 815, 그림 408)

내면 바닥에 한글로 '문' 자가 새겨진 접시로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내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놓고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표면은 암회색을 띤다.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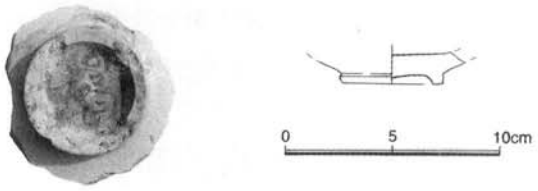




75) 백자 '나일년' 명 접시(사진 816, 그림 409)

접시의 저부편으로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시유되지 않은 굽 속에 '나일년' 명이 묵서되어 있다. 내면과 굽에 각 4개의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빙렬이 있다.

연못지



7. 일본자기(사진 817)

지표 가까운 곳에서 많은 양의 일본자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자기편 모두 기계생산품이기 때문에 규격이 일정하고 깨끗하다. 기형은 다양한 편이나 그 중에서도 종지, 찻잔, 뚜껑달린 주전자, 꼭지달린 뚜껑 등이 많다.

무늬는 모두 그려 넣은 것으로 청화안료를 많이 사용하였고 이 외에 붉은색, 녹색의 안료를 사용한 것도 있다. 기계제품이므로 무늬가 규칙적이며 통일감이 있다.

굽속에 「清峯」, 「滴井製」, 「平山」등과 글자가 확실치 않은 도장이 찍힌 것이 있는데 아마도 그릇이 제작된 회사의 상호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8. 기 타

1) 청자의 무늬와 수법(사진 818)

출토된 청자의 무늬와 수법은 다양하다. 순청자, 상감청자, 철회청자 등과 투각기법을 이용하여 성형된 것도 소량 확인된다. 발색은 다소 어둡고 잔빙렬이 있으나 흑·백토의 감입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며 태토도 양질이다. 무늬는 국화문, 연판문, 포도문, 초화문 등이 있다.

2) 분청사기의 무늬와 수법(사진 819)

소편이라 정확한 기형은 파악할 수 없으나 여러 종류의 무늬와 수법이 확인된다.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덤벙분장 그리고 분장되지 않은 분청사기 등 분청사기 장식의 각 수법이 사용된 자기편들이 출토되었다. 확인되는 기형으로는 대접과 접시외에 병, 호 등이 다수 확인되며 매병과 투각기법으로 성형된 그릇도 발견된다. 특히 박지, 조화수법으로 장식된 병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3) 백자의 무늬와 수법(사진 820)

순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화, 청채, 철화백자가 소량 확인되었다. 청화백자는 거의 말기의 것으로 기형이 둔하고 무늬의 구성도 단순하다. 출토된 백자 중 양질의 순백자 병류가 다수 있으며 굽다리의 높이가 높고 각

이지거나 둥근 제기 접시류도 확인된다.

4) 이형 도자기편(사진 821)

사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듬은 도자기편이다. 전구역에서 여러점이 확인되었는데 도기나 백자의 파손품을 둥글게 갈아서 만들었다. 서로 크기가 다르며 용도는 알 수 없다. (김 정 선)



사진 818. 청자의 무늬와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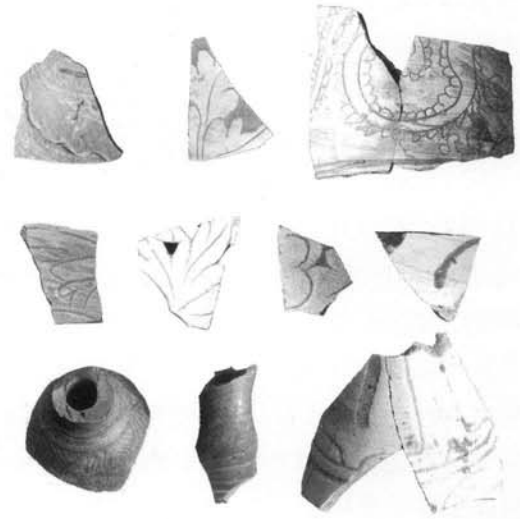


사진 819. 분청사기의 무늬와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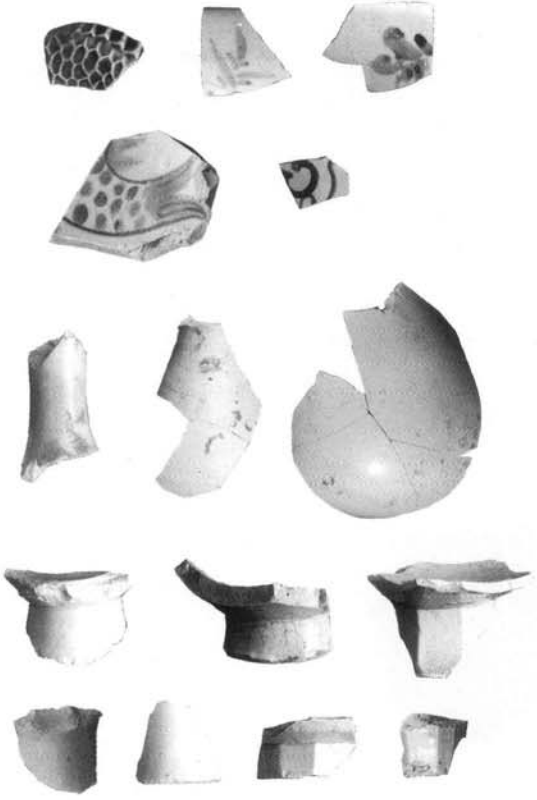


사진 820. 백자의 무늬와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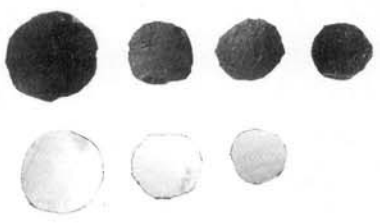


사진 821. 이형 도자기편

제3절 기타 유물

1. 赤葛色壺形土器(郭支里式土器)와 赤葛色深鉢形土器(高內里式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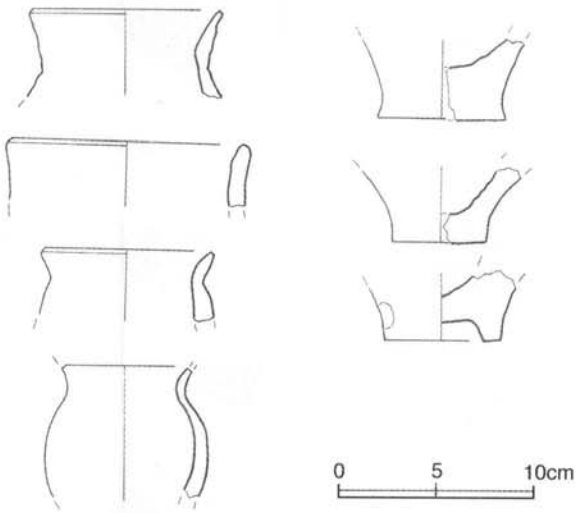
여기서 확인되는 토기편은 곽지리식토기와 고내리식토기이다. 관아지유구의 맨 아래층과 조선시대 관아조성시 파헤쳐진 구덩이 유구내, NS.Trench조사지역, B-2구역 탐라시대문화층 바닥에서 대부분 수습되었다.

곽지리식토기는 항아리 형태로, 탐라시대 전기(기원0~500년경)의 유적인 곽지패총 2지구와 5지구에서 대표적으로 출토되는 토기이다.

고내리식토기는 심발형토기유형으로, 매우 발달된 토기성형방법으로 구어낸 탐라시대 후기(기원500~900년경)에 해당하는 그릇이다.

1) 곽지리식토기(그림 410)

이 토기는 ①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진 각도는 대체로 30°내외인 것이 보통이다. 입술부위는 대부분이 손으로 오무렸기 때문에 형태가 일정치 않고 두께가 얇다가 목부분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예가 있다. ② 바닥형태는 대부분 바닥 모서리 바로 윗부분이 축약되지 않고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동시 연결성형하였다. 밑바닥형태는 바닥면 전체가 평평한 것과 가운데만 들리어 가장자리가 마치 굽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색조는 적갈색, 황갈색 색조를 띠며 색조의 차이는 소성도의 차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태토성분은 직경 2~3mm 이상되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다. ⑤ 토기내면에는 검은 탄흔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릇을 끓이는 용도로 쓴 것 같다. ⑥ 이 전체적인 그릇 형태는 곽지패총 5지구 출토 동시기 토기로 미루어 볼 때, 그릇 어깨부분에서 최대폭을 이루고 아가리가 크게 밖으로 벌어지는 항아리형 토기로 판단된다.



1992년도 탐라시대 문화층 출토 곽지리식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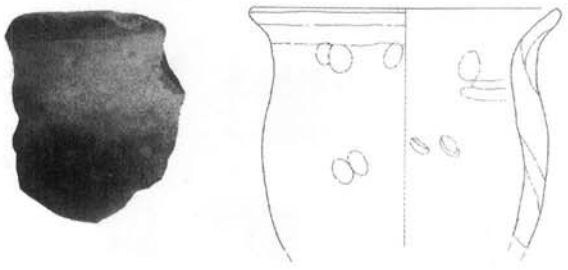
이 시기의 유물을 개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2, 그림 411)

흑갈색조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외면은 빗질과 손누름수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내면은 빗질과 목판누르기흔이 관찰된다. 태토보강제로는 굵은 모래알갱이를 사용하고 있다.

예고지(禮庫址)

현장 : 16.0cm 두께 :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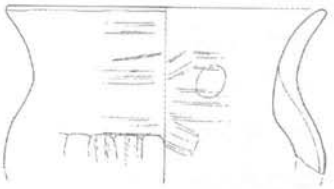
(2)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3, 그림 412)

적갈색조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어깨부분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기형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과 빗질수법이 사용되었다. 내면에는 손누름수법이 관찰되며 외면의 목부분에서 접합흔이 관찰된다.

예고 서쪽 단애면

현장 : 19.1cm 두께 :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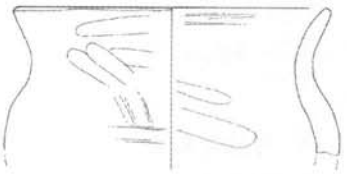
(3)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4, 그림 413)

흑갈색조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거친편이다. 외면은 빗질과 손누름수법이 내면은 빗질과 목판누르기흔이 관찰된다.

예고 서쪽 단애면

현장 : 19.3cm 두께 :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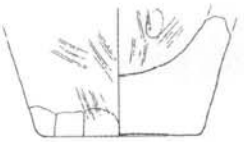
(4)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5, 그림 414)

황갈색조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에 의한 문지르기가 행해졌다. 저부의 일부분은 폭 2.2cm 가량의 목판으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은 바깥쪽에서 중심쪽으로 약간 오목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태토보강제로는 굵은모래알갱이와 함께 패각부스러기가 일부 혼입되었다.

B-2구역 탐라시대층

저경 : 19.2cm 현고 : 6.8cm





(5)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6, 그림 415)

황갈색조의 호형토기 저부편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과 손누름수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저부의 밑부분은 손누름수법으로 축약시킨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릇 내면 바닥은 일부 그을음이 확인되며 점토채움방식으로 제작하였다.

B구역

현고 : 4.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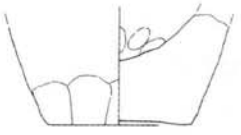




(6)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7, 그림 416)

적갈색조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굵은모래알갱이를 태토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저부의 밑부분은 넓이 2.3cm 가량의 목판으로 돌아가면서 누르기수법으로 정리하였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과 빗질수법을 이용하





였다.

B구역

현고 : 6.1cm

(7)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8, 그림 417)

황갈색조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동부와 저부의 접합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으며 접합부분은 손누름수법으로 접합 후 축약시켰다. 내외면 모두 강한 빗질흔이 보이고 내면에는 검은 그을음이 관찰된다.

B-2구역 탐라시대층

현고 : 6.8cm 저경 :11.7cm

(8) 적갈색호형토기(사진 829, 그림 418)

적갈색조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동부에서 밋밋하게 내려와 저부로 연결되는 기형이다. 외면은 물손질과 문지르기 수법을 사용하여 매우 매끄러운 편이다. 보강제로는 굵은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다.

지표

현고 : 6..3cm

(9) 뚜껑(사진 830, 그림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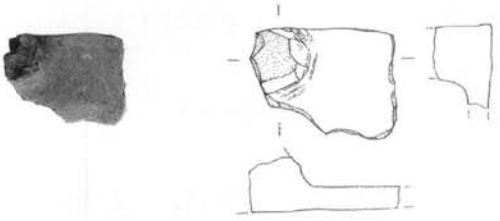
적갈색 호형토기의 뚜껑편이다. 환형 파수형태가 뚜껑 상면에 부착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에 물손질한 흔적이 뚜렷하며 태토에는 굵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와선각 북편

현장 : 9.3cm 두께 : 1.3~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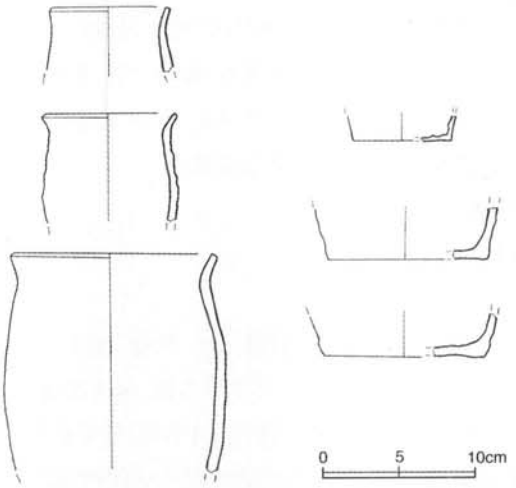






2) 고내리식토기(그림 420)

고내리식토기는 1992년 발굴 당시 조선시대 담장지 하층과 군관청지의 하층조사시 맨하층과 Test pit(6)근처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들 토기의 공통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 구연부는 모두 입술을 평평한 바닥면에 닿게 거꾸로 놓고 제작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평평한 면을 만들었거나 하여 성형한 형태이다. ② 곽지1식 항아리형 적갈색토기가 바닥은 저부와 동체를 동시에 만들어간



1992년도 탐라시대 문화층 출토 고내리식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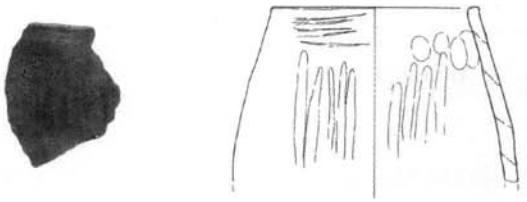
것과는 달리 원판형바닥과 동체를 각기 따로 만들어 접합하여 성형하였다. ③ 색조는 적갈색을 띠는 것들이다. ④ 태토는 세사 혹은 비교적 자잘한 휘석, 사장석, 각섬석 등을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다. ⑤ 토기표면처리는 매끈하게 물손질된 것이 이 토기의 특징이나 이곳 관아지 출토 토기는 가로 혹은 세로의 빗질흔이 뚜렷하다. ⑥ 태토의 두께는 0.4~0.7cm로, 1cm를 넘지 않는다. ⑦ 전체적인 기형은 저부에서 동체로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며 아가리의 외반도가 10~15° 정도 벌어졌다.

(1) 적갈색심발형토기(사진 831, 그림 421)

적갈색조의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에서 동부로 벌어지다가 다시 저부로 내려오면서 밋밋하게 축약되어지는 기형이다. 자잘한 모래알갱이를 태토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외면은 깎기와 빗질수법으로 내면은 손누름과 빗질수법으로 처리하였다.

B-2 탐라시대층

현장 : 11.3cm 두께 : 0.6cm



(2) 적갈색심발형토기(사진 832, 그림 422)

적갈색조의 심발형토기 저부 바닥부분이다. 동체부와의 접합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어 접합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후 매끄럽게 정면처리 하였다.

B-2 탐라시대층

현장 : 10.2cm 두께 : 0.8cm



(3) 적갈색심발형토기(사진 833, 그림 423)

황갈색조의 심발형토기 저부편으로 성형시 고온으로 인해 일부 내려 앉은 흔적이 보인다. 바닥 부분에서는 그을음이 관찰되며 자잘한 모래 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동부와의 접합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으며 내외면 모두 물손질수법이 관찰된다.

B-2 탐라시대층

현고 : 2.8cm 두께 :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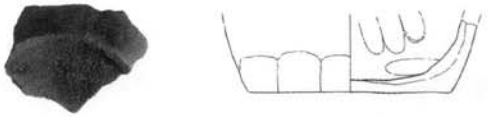


(4) 적갈색심발형토기(사진 834, 그림 424)

적갈색조의 심발형토기 저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약간 거친편이다. 저부 밑부분은 폭 3.2cm 가량의 목판으로 돌아가면서 눌러서 정리한 흔적이 관찰된다. 자잘한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예고 서쪽 단애면

현고 : 4.1cm 두께 : 0.7cm



(5) 적갈색심발형토기(사진 835, 그림 425)

적갈색 심발형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에서 동부로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면은 석기질화 되어 있으며 외면은 물손질 처리되어 약간 매끄러운 편이다. 자잘한 모래알갱이를 태토보강제로 사용하였다.



우물지(1) 부근 매립지

현고 : 5.4cm 두께 :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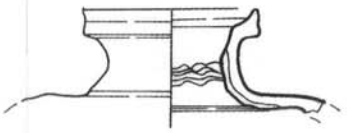
2. 회청색경질토기와 질그릇

이 시대의 토기는 A구역 교방지하층 Test pit(6)의 하층과 A구역 영주협당지 동편하층 Test pit(3), A구역 담장지 중복지점 Test pit(2)의 맨하층 탐라시대 문화층에서 대부분 수습되었다. 반면 고려·조선시대 질그릇은 통일신라시대의 회청색경질토기와는 다른 발달된 수법과 고온의 소성도, 유약수법등이 발견된다. 각 토기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甁과 壺

(1) 단경병(그림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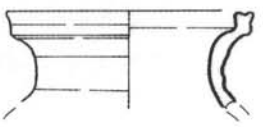
넓은 견부에서 짧은 경부를 거쳐 반구형 구연으로 이어지는 병이다. 반구부는 높이 0.7cm이고 반구상에 외면 1조의 침선대가 돌려져있다. 내면은 부드럽게 순부에서 내려 오면서 둔턱을 두고 있고 외면은 회전흔, 내면은 빗질흔과 회전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회청색을 띤다.



통일신라후기. 구경 6.2cm 두께 0.5cm

(2) 단경병(그림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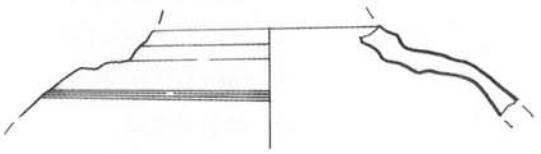
부드럽게 올라온 경부가 구순부와 연결되는 병편으로 구순부 1단 반구부이다. 내면은 부드러운 둔턱을 지우고 물손질과 빗질흔, 회전흔이 관찰된다. 경부에 미미한 2조의 침선대가 형성되어있다. 외면은 흑갈색을 띤다.



통일신라후기. 구경 8.2cm 경폭 4.0cm 두께 0.6cm

(3) 호(그림 428)

견부 중앙에 5조 파상밀집선문이 시문된 호편이다. 견부와 경부 경계에 1조의 돌대와 파상선문대 하단에 2조의 침선대가 형성되어있다. 내면은 물손질, 손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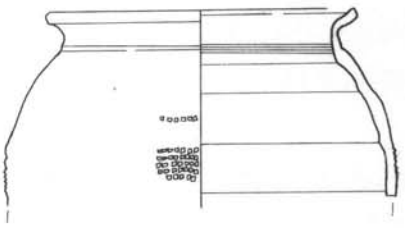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은 회청색을 띤다.

통일신라후기. 두께 0.7cm

(4) 호(그림 429)

짧게 외반된 경부, 동체중앙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 구연부편이다. 내면에 회전흔이 관찰되고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되었다. 외면은 회청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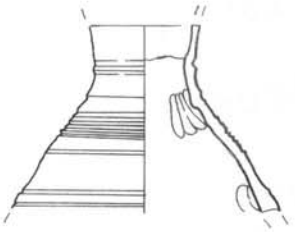
고려시대. 구경 12.0cm, 두께 0.6cm



(5) 병(그림 430)

경부에 1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고 견부 중앙에 6조의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다. 동체중앙에 3조침선대가 형성되어있다. 내면처리는 견부와 경부경계에 손누름 흔적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외면에 흑갈색유가 시유되었다.

고려시대. 경고 3.2cm 경폭 4.5cm 두께 0.6cm



(6) 대발(그림 431)

구순부를 수평으로 처리하고 밖으로 확장한 'T' 자형 구연부가 형성되어있다. 대발 또는 호의 구연부로 여겨진다. 외면에 흑갈색유가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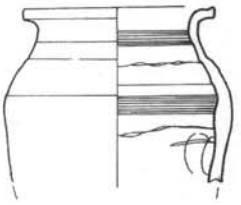
조선시대. 구경15.2cm 두께 0.4cm



(7) 호(그림 432)

동체중앙에 격자문이 타날되어있는 호편이다. 내면에 빗질흔이 확인되고 구순부는 밖으로 외반시키고 둥글게 마감되었다. 외면에 갈색유가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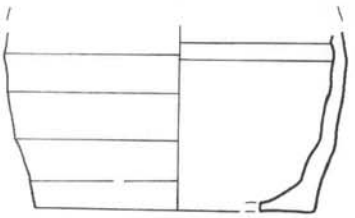
고려시대. 구경 5.2cm 두께 0.4cm



(8) 호(그림 433)

광택부분이 드문드문 나타난 호저부편이다. 동체부에 일정간격으로 접어 올라간 흔적이 있고, 내부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저부에서 동체로의 연결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형성되었다. 외면에 녹갈색유가 시유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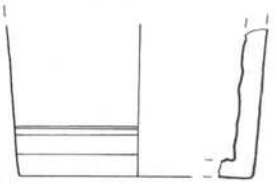
고려시대. 저경 8.0cm 두께 0.6cm



(9) 호(그림 434)

외부 동체중앙에 격자문이 타날되어있는 항아리저부편이다. 내부 동체하단에 회전흔이 확인되고 바닥에서 동체로의 연결은 직각으로 형성되어있다. 외면에는 흑갈색유가 시유되어있다.

고려시대. 저경 13.0cm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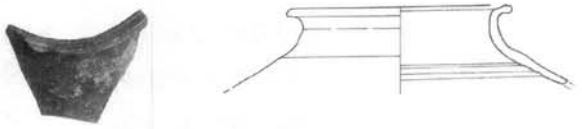


(10) 단경호(사진 836, 그림 435)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외면의 견부에서부터 격자문이 타날되어있다. 외면은 흑갈색을 띠며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갈색이다.

B-2구역

고려시대. 구경 12.8cm 현고 4.6cm 두께 0.4~0.6cm



(11) 단경호(사진 837, 그림 436)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녹색의 자연유가 남아있다. 구연은 둥글게 처리되면서 말려져있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자갈색이다.

우물지(1) 부근 매립지

고려시대. 구경 16.7cm 현고 4.2cm 두께 0.3~0.5cm



(12) 단경호(사진 838, 그림 437)

구연부편으로 외면에 소성시 달라붙은 유가 남아있다. 견부 밑으로 1조의 돌대가 형성되어있다. 내·외면 모두 회청색, 속심은 자갈색이다.

예고 서쪽 단애면

고려초기. 구경 10.1cm 현고 3.8cm 두께 0.6~1.0cm



(13) 병(사진 839, 그림 438)

병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유약을 바르고 소성되었다. 내외면 모두 명녹갈색, 속심은 갈색이다.

우연당 서쪽

고려초기. 구경 6.7cm 현고 2.9cm 두께 0.3~0.4cm



(14) 단경호(사진 840, 그림 439)

단경호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견부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갈색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고려초기. 구경 24.2cm 현고 4.0cm 두께 0.4~0.5cm

(15) 병(사진 841, 그림 440)

병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내외면은 암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홍화각 상층

조선시대. 구경 8.0cm 현고 3.0cm 두께 0.2~0.3cm

(16) 대호(사진 842, 그림 441)

대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단 아래가 들린형이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와적담장 주변

고려시대. 구경 21.8cm 현고 3.2cm 두께 0.5~0.6cm

(17) 호(사진 843, 그림 442)

호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녹색의 자연유가 남아 있다. 경부 내면에 손누름흔적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녹갈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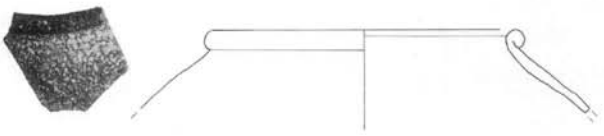


B-2구역 탐라시대층

조선시대. 구경 11.2cm 현고 3.7cm 두께 0.4~0.5cm

(18) 호(사진 844, 그림 443)

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이 둥글게 말려있다. 외면에 유리질화된 유약이 남아 있다. 내외면 모두 흑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B-2구역

고려시대. 구경 19.6cm 현고 5.2cm 두께 0.4~0.7cm

(19) 호(사진 845, 그림 444)

호의 구연부편으로 외면에 흑녹색의 자연유가 남아 있다. 태토에 석영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흑녹색이고 내면은 암회청색, 속심은 갈색이다.



우연당 서쪽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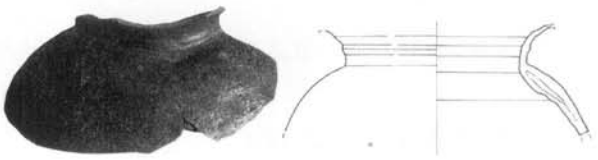
고려시대. 구경 13.0cm 현고 3.7cm 두께 0.3~0.4cm

(20) 단경호(사진 846, 그림 445)

단경호편으로 외면에 흑녹색의 자연유가 남아 있다. 경부에 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외면은 흑녹색이고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갈색이다.

우물지(1) 주변 매립지

고려초기. 현고 6.8cm 두께 0.4~0.9cm



(21) 단경호(사진 847, 그림 446)

단경호의 구연부편으로 구단부가 형성되어 있다. 내외면에 흑녹색의 유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흑녹색이고 속심은 암자갈색이다.

예리장방지 내부 하층

조선시대. 구경 13.4cm 현고 3.9cm 두께 0.5~0.6cm



(22) 호(사진 848, 그림 447)

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순부 상면이 들린형이다. 내외 전면에 흑녹색의 유가 남아 있다. 기면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흑녹색이고 속심은 명회색이다.

B-2구역

조선시대. 구경 12.2cm 현고 5.9cm 두께 0.4~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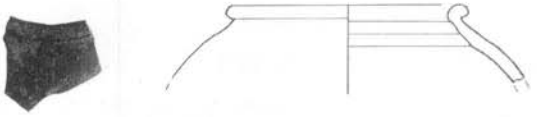


(23) 호(사진 849, 그림 448)

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이 말려져 있다. 외면에 자연유가 남아 광택이 있다. 태토에 석영 등의 보강제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흑색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와선각 북편

고려초기. 구경 13.6cm 현고 4.3cm 두께 0.6~0.7cm



(24) 장경호(사진 850, 그림 449)

장경호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 석영 등이 보강제로 사용되었다. 외면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은 명회색이다.

홍화각 상층

조선시대. 구경 10.0cm

현고 4.4cm 두께 0.4~0.6cm



(25) 호(사진 851, 그림 450)

호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명회색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B-2구역

고려시대. 저경 13.6cm 현고 5.6cm 두께 0.7~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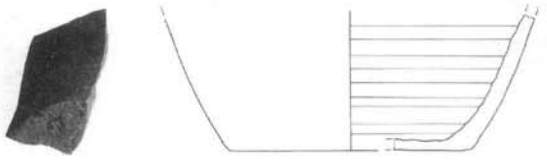


(26) 호(사진 852, 그림 451)

호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외면에는 광택이 있고 내외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외면은 암회청색이고 내면과 속심은 회색이다.

B-2구역 탐라시대층

고려시대. 저경 14.4cm 현고 8.1cm 두께 0.7~0.9cm



(27) 호(사진 853, 그림 452)

호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내면의 태토 성형상태가 불량하고 대칼로 정리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회색이다.

B구역

조선시대. 저경 15.4cm 현고 8.2cm 두께 0.6~1.0cm



(28) 호(사진 854, 그림 453)

호의 저부편으로 내외면에 연두색의 유약이 남아 있다. 저부와 동체의 접합부에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내외면은 회녹색이고 속심은 갈색이다.

우물지(1) 부근 매립지

조선시대. 저경 12.0cm 현고 3.4cm 두께 0.3~0.8cm



(29) 호(사진 855, 그림 454)

호의 저부편으로 외면에 광택이 있고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외면은 암회색 내면은 회색이고 속심은 갈색이다.

우물지(1) 부근 매립지

고려시대. 저경 23.8cm 현고 5.9cm 두께 0.4~1.0cm



(30) 호(사진 856, 그림 455)

호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내외 전면에 흑녹색의 유가 남아 있다. 내면에 동체와 저부 접합상태가 확인된다. 태토에 석영 등의 보강제가 사용되었다. 외면은



흑녹색 내면은 녹갈색이고 속심은 명회색이다.

B-2구역

조선시대. 저경 12.2cm 현고 4.7cm 두께 0.6~0.7cm



(31) 병(사진 857, 그림 456)

평저와 나팔형 구연의 병이다. 경부와 동체의 접합상태가 확인된다.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외면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이다.

고려초기. 구경 12.6cm 저경 12.8cm 현고 24.3cm 두께 0.7~1.1cm

(32) 병(사진 858, 그림 457)

병의 동체부 편으로 내면의 소성상태가 불량하다. 경부에 2조의 돌대와 동체부에 12조의 침선이 시문되어 있다. 외면은 흑색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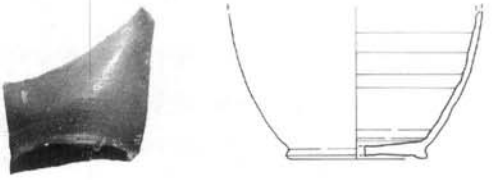


우연당 상층

고려시대. 현장 8.3cm 두께 0.9~1.0cm

(33) 편병(사진 859, 그림 458)

편병의 저부편으로 외면에 광택이 있다. 태토에는 석영 등의 보강제가 혼입되어 있고 저부의 기면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외면은 회갈색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우연당 상층

고려초기. 저경 8.4cm 현고 8.8cm 두께 0.3~0.5cm

(34) 병(사진 890, 그림 459)

병의 저부편으로 낮은 굽이 형성되어 있다 태토에 석영등의 보강제가 혼입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광택이 있다. 전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암회청색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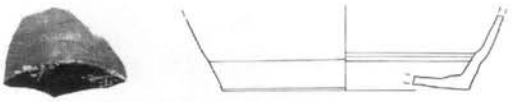


영리장방 상층

고려시대. 저경 9.0cm 현고 3.5cm 두께 1.0~1.4cm

(35) 호(사진 861, 그림 460)

호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내외 전면에 녹색유가 남아있고 저부 내면에서 동체와 저부의 접합상태가



확인된다. 외면은 녹갈색 내면은 녹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예리장방지

고려시대. 저경 14.8cm 현고 4.7cm 두께 0.4~0.6cm

(36) 병(사진 862, 그림 461)

병의 저부편으로 내외면에 흑색의 유약이 남아 있다. 평저인 굽의 주위 5~6곳에 소성시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외면은 흑갈색 내면은 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우연당 상층

조선시대. 저경 6.2cm 현고 2.9cm 두께 0.8~1.0cm

(37) 병(사진 863, 그림 462)

낮은굽이 형성된 저부편으로 외면에 흑색의 유가 남아있어 광택이 있다.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외면은 흑색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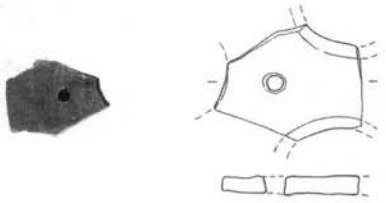


우물지(1) 부근 매립지

고려시대. 구경 1.0cm 현고 3.8cm 두께 0.5~0.8cm

(38) 시루(사진 864, 그림 463)

암회색의 경질시루바닥편으로 외면은 회전흔이 뚜렷이 관찰되며 내면은 물손질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직경 1.0cm의 시루구멍이 뚫려있다.



조선시대. 현고 7.3cm 두께 0.6cm

2) 뚜껑(蓋)

(1) 뚜껑(사진 865, 그림 464)

회청색조의 경질뚜껑으로 외면은 회전흔, 빗질흔이 보이며 뚜껑 상면에 깎기수법으로 깎은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은 빗질흔과 회전흔이 관찰되며 꼭지의 형태는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 현고 2.5cm 두께 0.7cm

(2) 뚜껑(사진 866, 그림 465)

황회색조의 연질뚜껑으로 무꼭지형이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석영, 운모, 미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고려시대. 구경 7.8cm 높이 2.8cm

(3) 뚜껑(사진 867, 그림 466)

황갈색조 연질의 뚜껑이다.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판단되나 파손상태가 심하여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과 회전흔이 관찰된다.

조선시대. 구경 6.8cm



3) 손잡이(把手部)

(1) 뚜껑손잡이(사진 868, 그림 467)

적갈색조 경질의 뚜껑 손잡이 편으로 추정되나 견부에 부착되는 파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손질과 손누름수법 그리고 빗질흔이 관찰된다.

조선시대. 현고 4.9cm 두께 2.4cm



(2) 파수부(사진 869, 그림 468)

암녹색조 경질의 반원형 파수부편으로 견부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자연유가 시유되어 있고 태토가 불량하며 소성상태도 불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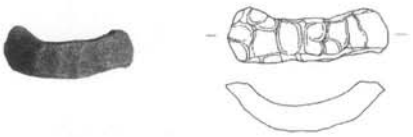
조선시대. 현고 5.2cm 두께 0.7cm



(3) 파수부(사진 870, 그림 469)

회청색조 경질의 반원형 파수부편으로 추정되나 뚜껑의 손잡이일 가능성도 있다. 물손질과 손누름수법으로 제작한 후 빗질로 마감하였다. 소성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고려시대. 현고 8.1cm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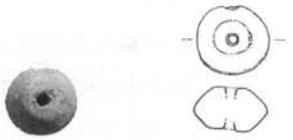


3. 土製品

(1) 방추차(사진 871, 그림 470)

적갈색조의 주판알모양 방추차이다. 태토보강제는 비교적 자잘한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다.

직경 3.4cm 두께 2.3cm



(2) 방추차(사진 872, 그림 471)

적갈색조의 원판형 토제방추차이다. 소성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거칠은 편이다. 태토보강제로는 다소 굵은 모래알갱이와 패각부스러기를 사용하였다.

직경 4.5cm 두께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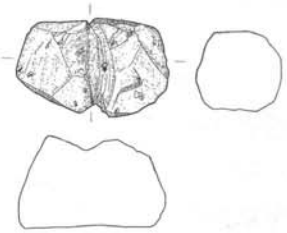


4. 石製品

(1) 그물추(그림 472)

현무암제 부석을 알맞게 때려 끈을 매기에 편하도록 중간에 홈줄을 만들었다. 자른면은 대롱박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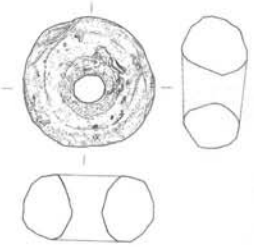
길이 9.2cm 홈줄부 폭 5.2cm



(2) 그물추(그림 473)

현무암제로, 둥그스름한 돌 가운데에 큼직한 구멍을 뚫은 것이다. 구멍은 전부 양쪽에서 뚫은 방식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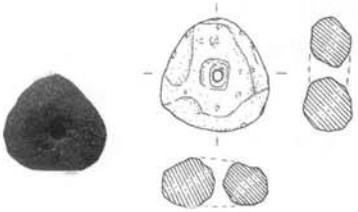
길이 15.2cm 폭 6.8cm 구멍지름 장 5.9cm



(3) 어망추(사진 873, 그림 474)

하트모양의 어망추로 중앙부에 직경 1.0cm의 구멍이 뚫려져 있다. 측면과 앞뒷면이 마모되어 있어 사용정도를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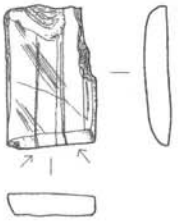
직경 6.2cm 두께 2.2cm



(4) 돌대패(그림 475)

B구역 방형우물 북쪽 Test pit(6)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응회암제 돌대패로 단면은 장방형꼴 이다. 돌의 상하면을 모두 갈고 한쪽 날부분을 날카롭게 갈아서 만든 외날의 대팻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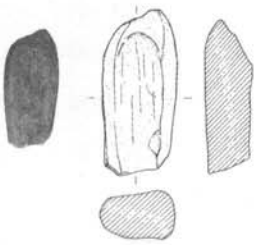
길이 5.4cm 폭 3.2cm 두께 2.9cm



(5) 숫돌(砥石) (사진 874, 그림 476)

안산암제의 숫돌로 앞·뒷면 모두 심하게 마모된 것으로 보아서 사용을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장방형의 단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현고 11.4cm 두께 2.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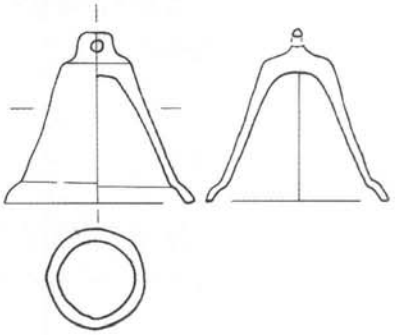


5. 동탁·상평통보·골제장신구

(1) 銅製馬鐸(그림 477)

C구역의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문지(1)에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횡단면이 원형이며 종단면은 U자형태이다. 동탁신의 무늬는 무문이며 동탁신의 맨 상부에는 매달기 위한 방형의 고리가 달려있다. 동탁신의 하단은 약간 외반하면서 그 구분선에 1조 침선대가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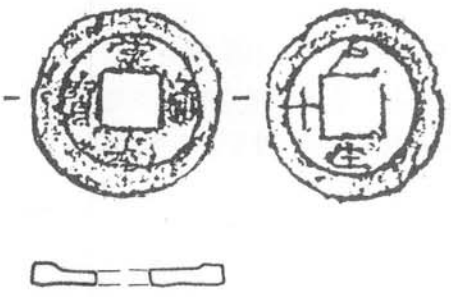
폭 5.2cm 현고 5.1cm 두께 0.2cm



(2) 常平通寶(그림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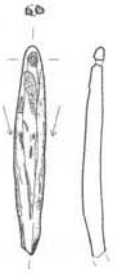
숙종 4년(1678년) 이후의 화폐인 상평통보로, 담장지(10)의 하단에서 수습되었다. 완형이며 주연부가 뚜렷하게 만들어졌다. 사용흔이 보인다. 앞면은 상하에 '常平' 좌우는 '通寶' 자가 배치되어 있다. 뒷면은 상하 '戶生' 왼쪽에 '十' 자가 나타나 있다.

지름 2.0cm 두께 0.25cm



(3) 骨制佩用具(그림 479)

사슴뼈를 갈아서 길게 장타원형태로 만든 골제 장신구이다. 모든 면이 마연되어 있고 상단에 작은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끈을 매어다는데 사용된 구멍으로 여겨진다. 길이 8.9cm 중앙너비 1.2cm 두께 0.5~0.7cm



제5장 고 찰

1. 문헌적 접근

현재 파악가능한 제주목관아지는 1435년(세종 17)에 홍화각을 비롯한 주변 건물이 206칸 중수되면서 골격을 갖추었고, 그 후 누대에 걸쳐 증·개축되었다.

제주목관아지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 자료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0年)/李元鎭, 『耽羅志』(1653年)/李益泰, 『知瀛錄』(1696年)/李衡祥, 『耽羅巡歷圖』(1703年)/李衡祥, 『南宦博物』(1704年)/『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濟州邑誌』(正祖年間)/『濟州大靜旌義邑誌』(1793年)/李源祚, 『耽羅誌草本』(1842~3年頃)/李源祚, 『耽羅錄』(1842~3年頃)/『濟州郡邑誌』(1899年)/金錫翼, 『耽羅紀年』(1915年)/全羅南道 濟州島廳, 『未開の寶庫 濟州島』(1924年)/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島』(1929年)/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1935, 7, 9年)/高禎鍾, 『濟州島便覽』(1930年)/淡水契, 『增補耽羅誌』(1954年) 등이다. 이 자료 중에 『耽羅巡歷圖』(1703年)에는 주요 관아 배치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 있으며,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에는 관아배치도가 잘 명시되어 있다. 본 고찰부분을 서술함에 있어 문헌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관아시설은 읍성 내에 자리해 있게 마련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읍성의 西城 인근에 위치한 觀德亭을 중심으로 좌측에 濟州牧使의 東軒을 비롯한 관아시설, 우측은 濟州判官의 관아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지역은 거슬러 올라가면 耽羅國의 관아터가 자리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高麗의 지방행정구획으로 편입된 후에도 濟州島의 행정과 관련된 官衙가 위치해 있어서 大村縣으로 불리어왔다. 대촌현은 1416년(태종 16) 제주도가 濟州牧·大靜縣·旌義縣으로 구획될 당시, 제주목의 本邑으로 정해지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조선후기에는 面里制가 발달하면서 제주목 中面의 一徒里·二徒里·三徒里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제주도 중심지역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관아시설은 해당 지역에 파견된 守令들이 보다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다. 官員들이 政務를 보는 官衙는 官廳·官署라고도 불리는데, 크게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구분된다. 지방관아는 다시 관찰사가 道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監營과 郡縣의 守令이 해당 邑을 다스리기 위한 관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중앙의 경우, 최고 통치자인 왕이 거주하는 궁궐을 중심으로 중앙관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현의 경우도 수령의 관아인 東軒을 중심으로 많은 관아시설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궁궐이 중앙통치의 산실이라면 지방통치의 산실은 동헌이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사료상 1435년(세종 17) 이전 제주목 관아시설에 대한 추정은 대단히 어렵다. 1435년(세종 17)은 제주목 관아건물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였다. 그것은 高得宗의 「弘化閣記」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 「〈상략〉 公(당시 都安撫使 兼 判牧使인 崔海山을 지칭함:필자주)은 人和를 돈독히 하고, 무너진 관사를 수리하고자 하여 그 일을 중히 여겼으나 틈을 내지 못하였다. 때마침 관청에 불이 나자 거처할 곳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머리깎은 죄수와 번을 서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무너진 절간에서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세우니 거문고 타는 방과 욕실·부엌·낭사를 갖추고, 조금 서쪽에 집 三楹을 세워 政事를 보는 堂으로 하고, 좌우에 각각 곁채를 마련하여 방을 마련하니 독서하는 곳이다. 또 그 서쪽에 三楹을 세우고 겹처마로 보충하니 규모가 굉장하고 정밀하며 제도가 아름다워 가까이에서 보면 크고 높아 보이고, 바라보면 으리으리하여 빨간색을 칠하여 단장을 하니 볼만하였다. 그 남쪽에 牢刺의 堂을 세우고 그 북쪽에는 나라에 바치는 말의 마구간을 두고 동쪽에는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만들어 진상할 물품을 저장하고 그 남쪽 밖에 따로 樓門을 지어서 밑으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아 시간을 알리는 설비를 갖추었다. 동쪽의 藥庫와 서쪽의 廳所가 동서로 대치하게 하여 모두 담을 두르니 돌은 잘 다듬어지고 견고하였다. 집 수는 모두 206칸인데 집마다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으니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까닭이다.〈하략〉」

라 하여 이전의 관아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거의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弘化閣을 건립하면서 種樓, 침실, 욕실, 독서방, 琴堂, 政堂, 藥庫, 廳所, 廊舍, 營庫 등 모두 206칸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工役은 죄수와 番을 서는 사람을 동원하였고, 재료는 島內 무너진 사찰의 재목과 기와를 이용하였다. 공사기간은 최해산 목사의 도임이 1434년 10월이고 「弘化閣記」가 쓰여진 것이 1435년임을 감안해 볼 때 수개월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나 동원된 인원수의 규모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재목과 기와를 가져왔다는 무너진 사찰이 어느 사찰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鐘樓에 달았던 鐘이 妙蓮寺의 종이라는 것으로 보아, 무너진 사찰은 제주성에서 서남 20리에 있던 묘련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후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을 서로 닿지않도록 건축하여 담장을 쌓았다. 어떻든 현재 문헌사료로 추정할 수 있는 관아건물의 골격은 이 당시부터 형성되어 나갔으며, 한말까지 누대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관아건물이 훼철되고 말았다. 즉, 자혜의원을 이아터에 설치(1912년), 북성문 헐림(1913년), 망경루·동성문·서성문·간성문 등 헐림(1914년), 소민문과 북성 헐림(1915년), 탐라포정사 훼철(1916년), 남성문루 훼철(1918년), 동성 위에 측후소 설치(1923년), 연희각 훼철(1924년), 홍화각 훼철(1940년)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발굴지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아건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外大門[일명 鐘樓, 鎭海樓, 耽羅布政司]

제주목사의 관아건물로 통하는 營門의 大門樓로 弘化閣 동남쪽에 위치했었으며, 일명 鐘樓·鎭海樓·耽羅布政司라 불리었다. 1435년(세종 17) 홍화각 창건 때에 건립되었다. 樓閣 위에는 일종의 통행시간을 알리기 위해 鐘을 메달아 놓고, 이를 쳐서 성문을 열고 닫았다. 본래 이 종은 濟州城 서남 20리에 위치했던 妙蓮寺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으나, 1847년(헌종 13) 목사 李宜植이 종을 녹여 병기와 놋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이듬 해에 목사 張寅植이 역사가 오랜 耽羅古都에 종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萬戶 張錫佐로 하여금 전라남도 영암 美黃寺에서 큰 종을 사들여 다시 메달았으나, 일제 때에 없어지고 말았다.

1699년(숙종 25)에 南至薰 목사가 개건하면서 진해루를 탐라포정사라 改扁하였다. 문 위에는 李益泰 목사가 쓴 '海中仙府天外雄藩' 이란 8字가 있었다. 그리고 門樓 앞에는 「守令以下皆下馬」라는 下馬碑를 세워 수령 이하는 營門을 출입할 때 모두 말에서 내리도록 하여 관아의 위엄을 높였다. 탐라포정사는 1916년에 훼철되었다.

2) 弘化閣

延曦閣 남쪽에 있었으며, 安撫使 및 節制使의 營廳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713년(숙종 39) 제주목사가 防禦使 겸직으로 파견되면서 正衙를 別設하게 되어 이 곳은 營吏廳으로 이용되었다. 홍화각이 營廳이라 불리어지게 된 것은 제주목사가 전라도 관찰사의 임무를 일부 넘겨받아 대정현감·정의현감을 지휘·감독하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권을 장악한 데서 유래한다.

관아의 건립은 세종 때에 관아건물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자, 1434년(세종 16)부터 役事를 시작하여 1435년(세종 17)에 崔海山 목사가 침실, 욕실, 독서방, 琴堂, 政堂 등 모두 206칸을 완성하면서 홍화각이 창건되었다. 불에 타기 전의 관아명칭은 萬京樓라 하였다. 즉, 元의 世祖가 궁실을 짓고 이름하여 만경루라 했었는데, 그 의미는 사철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에서 취하였다고 한다. 만경루라는 관아명을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관아가 불에 모두 타 버렸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에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화각이라 명명한 것은 왕의 어진 덕화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1648년(인조 26) 11월 18일에 金汝水 목사가 중수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 1월 8일에 완성하였다. 「金晉鎔弘化閣重修記」(1649년 2월 1일)에 의하면, 필요한 재목은 金寧林에서 벌목하여 배에 실어 산지포구로 운반해 왔다. 그리고 '동서남 3면은 과거에 빈 터여서 오직 허물어지는 담장과 담장 안은 옛날에 초가집 몇 칸이 있었는데, 이를 官家에서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홍화각 동쪽 모서리가 우연당 북쪽 구석에 바로 닿게 하였다.' 라 한 바와 같이, 홍화각이 매우 크게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화각은 耽羅古閣이라 불리어질 정도로 관아건물 중에서 유명한 건물이었다. 그후 이 건물은 1772년(영조 48) 목사 梁世絢이 중수하였고, 1829년(순조 29)에 李行敎 목사가 개건하였다. 그러나 1940년에 홍화각은 훼철되었다.

3) 延曦閣

연희각은 홍화각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목사의 執政堂으로 제주의 安危가 이에 달려 있었다. 즉, 上衙의 東軒, 목사의 居衙, 목사 衙舍, 牧使 正衙 등으로 불리웠다. 上衙라 한 것은 濟州判官의 집무처인 貳衙의 동헌과 구분해 명명된 것이다. 연희각 앞에는 빈객이 머물러 쉬도록 한 內歇과 밖에서 동헌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한 簾席이 마련되어 있었다.

李源祚의 「延曦閣記」에 의하면, 연희각은 예로부터 記가 없어서 그 건치연대 및 板額의 의미와 누구의 글씨인지를 상세히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희각과 관련된 沈演 목사(1638. 6~1640. 9 재임)의 詩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638년(인조 16)에 제주목사의 겸직이었던 절제사가 방어사로 바뀌면서 건립되었거나 그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목사의 겸직은 1642년(인조 20)에 다시 節制使, 1713년(숙종 39) 이후부터는 다시 防禦使라 하였다. 1885년(고종 22) 洪圭 목사가 연희각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1924년 일제에 의하여 연희각은 헐리고 말았다.

4) 友蓮堂

관덕정 북쪽과 홍화각 남쪽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일종의 연회장소였다. 1526년(중종 21) 목사 李壽童이 성안에 우물이 없으므로 못을 파서 저수하여 연꽃을 심고 그 위에 亭子를 세워 우연당이라 하였다. 우물을 만든 이유는 관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연못 가운데에는 제주를 상징하는 작은 돌섬을 만들어 꽃과 대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후 선조 때의 楊大樹 목사(1592~1595년 재임)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하여, 연못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서 '양대수 개구리 미워하듯 한다' 는 속담이 유래되었다.

1694년 9월 이익태 목사가 우연당 5칸을 중건하고 사적을 적은 현판을 세웠다. 이에 의하면 연못 담장 벽을 네모나게 반드시 하였고, 연못을 파낸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 꽃나무를 심었으며, 우연당에 연꽃을 심고 돌로 막아 연못 중심에다 하나의 작은 섬을 만들고 도랑을 통해 연못 물을 북쪽으로 끌어 장마가 오면 넘치게 하였다고 한다.

영조 때 金俶 목사(1735~1737년 재임)가 다시 정자를 중수하고 못 가운데에 돌로 臺를 쌓아서 化竹을 심어 享儀室이라 하고 貢獻 封進 장소로 사용하였다.

5) 愛梅軒

홍화각 동쪽의 8칸 건물이었는데, 1580년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에 舊基로 나타나고 있어, 이 이전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67년(현종 8) 李塤 목사가 개건한 바 있다.

6) 橘林堂

연희각 동쪽 과원 가운데 있었던 5칸 건물로 주로 詩酒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李源祚의 「橘林堂重修記」에 의하면, 귤림당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43년(영조 19) 安慶運 목사가 중수하였고, 1769년(영조 45)에 또 중수하였다. 그 후 이원조 목사가 1842년(헌종 8)에 중수하였다.

7) 素行亭

연희각 동쪽에 있었으며, 1칸 건물이었다. 1660년(현종 원년) 李禋 목사가 창건하였다. 즉, 동헌 마당 빈터에 네모진 못을 파서 자그만 섬을 쌓고 한 칸되는 정자를 지어 연못가에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고 거닐며 쉬는 장소로 삼은 것이다. 李禋의 「素行亭記」에 의하면 소행정이란 '지위를 깨끗이 행한다' 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知瀛錄』(李益泰, 1696年)에 의하면 소행정은 '연희각 동쪽 마당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라 하여 창건되어서 얼마 없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淸心堂

애매헌 동쪽에 있었으며, 1704년(숙종 30)에 李喜泰 목사가 창건하였다. 그러나 1726년(영조 2)에 군기청이 불타자 이 당을 移建하여 洗兵軒으로 삼았다. 청심당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이다. 본래 청심당 주변에는 꽃나무가 울창하였고 사방으로 대나무를 심어 흰 모래를 가운데에 깔았었다.

9) 中大門

외대문 북쪽에 있었으며, 관아의 출입구이다. 1694년(숙종 20)에 이익태가 중건한 바 있다.

10) 內大門

중대문 동북쪽에 있었으며, 동헌의 출입구이다.

11) 東軒內衙

동헌 서쪽에 위치한 제주목사의 살림채이다.

12) 戶籍庫

홍화각 남쪽, 혹은 종루의 서쪽에 있었다. 삼읍의 호적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耽羅志』(李元鎭, 1653年)에 따르면 호수는 4,663호에 인구는 남자가 9,340명, 여자는 11,347명이었다. 그러나 호적은 최해산 때에 모두 불타 그 이전 것은 보관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에도 관원들이 그 중요함을 잘몰라 철권을 송두리 채 훔쳐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심지어 백성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찢어버리거나, 도려내고 혹은 발라 개조하였다. 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賤 자를 없애고, 공천에 투신하고자 하는 자는 私賤의 私 자를 없애고, 종을 데리고 살던 자는 良妻로 바꾸는 등 그 폐단이 심하였으나 호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원진 목사는 두권을 만들어 한 권은 營門에서 철저히 보관토록 하였다.

13) 戶庫

홍화각 동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耽羅營事例」(哲宗年間)에 의하면, 白米, 小米, 太, 陸白米, 眞荏, 水荏, 菜種, 眞油, 法油, 眞末, 菜豆榧子, 皮牟, 正木, 利木 등의 보관 창고이다.

14) 禮庫

호적고 서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전복, 해삼, 표고, 미역, 비자, 동백, 오징어, 추복, 인복, 은어, 生魚, 淸蜜, 白荏, 民魚, 石魚, 秀魚, 靑角, 柏子, 石花, 海衣, 白蠟, 五味子 등 각종 진상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이다.

15) 奴婢行廊

관노비들이 거처하는 방으로 『耽羅防營總覽』(1760~70年代)에 의하면 內衙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南宦博物』(李衡祥, 1704年)에 따르면 관노는 時存 111명, 藥工 7명, 營及唱 26명, 牧及唱 21명이며, 관비는 時存 83명, 妓生 66명이다.

16) 營吏掌房

「耽羅營事例」(哲宗年間)에 의하면 營吏掌房은 戶長, 吏房, 副吏房, 公事戶房, 番吏房 6, 刑房, 禮吏, 都鎭色, 州賑色, 東賑色, 西賑色, 州補色, 東補色, 西補色, 都船色, 副船色, 箋文色, 啓書色, 習啓書色, 戶房色, 歲抄色, 耗粗色, 都承發, 會計色, 書寫, 重記色書寫, 啓錄書寫, 戶籍色, 番禮吏 9, 番承發 6, 紙筒通引, 番首通引 6으로 나타난다.

17) 敎坊

新果園 서쪽에 있었으며, 일명 藏春院이라고도 한다. 1689년(숙종 15) 목사 李宇恒이 창건하였다. 교방은 官妓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곳이다. 樂工은 官奴에서 擇定하였고, 妓生은 官婢 중에서 재모가 있는 자를 택하였다.

18) 審藥房

左衛廊에 있었는데, 일명 審檢堂이라고도 한다. 원래 심약과 의생들이 거쳐하였으나 뒤에 檢律도 함께 기거하였다. 심약은 조정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는 종9품의 관원이다.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원 중에서 선임되었으며, 제주에는 1인이 파견되었다. 1849년(헌종 15)에

張寅植 목사가 건물을 개건하였다.

19) 雇馬庫

營牧의 刷馬價인 元木 30여 同으로 매년 이자를 거두어서 교체되어 가는 지방관의 行資로 사용하였다. 즉, 고마고는 지방관이 바다를 건넌 후에 말을 빌리는 자금으로 삼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1781년(정조 5)에 朴天衡 어사가 狀啓를 올려 혁파하였다.

20) 臥仙閣

연희각 북쪽에 있었다. 李益泰 목사가『知瀛錄』(1696年)을 이 곳에서 저술하였다. 따라서 목사의 서재 등의 용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21) 軍官廳

애매헌 동쪽에 있었다. 옛날에 군관의 수가 15인이었는데, 어사 이경억이 장계하여 10인을 감하였다. 그리고 왕래 때에는 말[馬]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으로 말을 가지는 것은 금지하였다.

(김 동 전)

2. 관아 시설지

92년도에 진행한 제1차, 2차, 3차 발굴조사를 통해 제주목관아지의 중심시설인 동헌지와 내아건물시설은 물론, 중대문-동헌지 마당으로 연결되는 중심도로가 밝혀졌고, 98년에 행해진 4차발굴을 통해 외대문, 중대문지를 비롯하여 이를 축으로 서편에 자리했던 홍화각, 애매헌(舊址), 호고, 호적고, 우연당, 향리방, 영리장방, 성내연못, 우물지와 이를 둘러싼 담장지가 모두 확인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들 유구의 하층조사 과정에서 조선전기층, 아래로 고려시대・탐라시대문화층이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어, 제주목관아지 전역에 고대로부터 중요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목관아지 발굴 유구에 대한 해석에는 무엇보다도 문헌 자료가 참조된다. 특히『耽羅志』(1653년),『知瀛錄』(1696년),『耽羅巡歷圖』(1703년),『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관아에 대한 기록과 그림, 배치약도를 남기고 있어 유구해석에 중요한 문헌자료로 활용되었다.

관아지에서 발굴된 유구의 중심시기는 18세기이다. 그것은『耽羅巡歷圖』(1703년),『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 나타난 관아배치도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관아시설을 만들면서 전대의 석재를 再使用하였기 때문에 18세기 이전의 건물지 기단과 초석은 대부분 원상에서 이동되어 있었다. 다만 유구의 층서적 관계와 중복상태로 축조시기를 가늠할 뿐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같은 용도의 시설물을 같은 장소에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건물지가 만들어진 곳은 계속해서 건물지를, 담장이 있었던 곳은 담장을, 마당지는 그대로 마당으로 재사용하였다. 다만, 시기를 달리하면서 축조방위각과 축조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점은 시기별 건물지의 변천을 읽어내는데 유용하게 쓰였다.

먼저 유구의 시기적 평면관계와 시기별 변천을 읽는 자료인 토층은 크게 3개 층위로 구분되는데, 자갈층과 점토층, 재층으로 요약된다. 이 자갈층은 발굴구역의 토층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층위로, 굵은 자갈층과 잔 자갈층으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굵은 자갈층은 유적의 모든 범위에 걸쳐 깔려 있었으며 매립층에 속한다. 잔자갈층은 건물지 밖의 마당이나 도로에 깐 층위로 확인되었다.

건물지 성토층은 크게 적석층과 점토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점토층은 먼저 적석을 매립한 후 10cm

정도 두께의 점토를 깔아 다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층위이다. 조선전기말 건물지에서는 점토만을 다져 성토한 흔적이 보이며 조선 후기 건물지는 모두 이 과정을 반복하여 여러번 성토, 단을 높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재층은 주로 조선전기면을 중심으로 건물지 상면이나 주변에서 확인되며, 건물의 화재와 관련된 층위로 파악된다. 조선후기의 유구층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층위이다.

발굴된 제주목관아지의 시설물은 건물지, 대문지, 협문지, 도로와 보도, 연못과 우물, 담장과 배수시설, 적석시설물 등이다.

1) 건물지

제주목관아지 발굴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는 총 26동이다. 각 건물지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건 물 지 명	규 모	면 적(㎡, 坪)	정 면	측 면	방 향	석 재
연희각지	30.0×18.0m	540, 163.6	5칸이상	3~4칸	N-20-E	판석
내아지	13.0×4.9m	63.7, 19.3	5칸이상	1칸	N-20-E	판석
노비행랑지	11.1×4.1m	45.5, 13.8	4칸이상	1칸	N-20-E	판석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	?	3칸이상	1칸	N-20-E	판석
홍화각지	21.0×16.0m	330.0, 101.8	5칸이상	3칸이상	N-20-E	판석
예리장방지	10.6×5.7m	60.4, 18.3	3칸이상	1칸	N-20-E	할석
예고지	14.0×5.7m	79.8, 24.2	3칸이상	1칸	N-20-E	할석
호적고지	5.4×22.3m	120.4, 36.5	8칸	1칸	N-20-E	할석
호고지	16.0×4.2m	67.2, 20.4	5칸	1칸	N-20-E	할석
영리장방지	12.3×7.7m	94.7, 28.7	3칸이상	2칸이상	N-20-E	할석
우연당지	11.0×15.5m	107.5, 51.6	5칸	3칸	N-20-E	판석
소행정지			1칸	1칸	N-20-E	판석
청심당지	6.2×11.0m	68.2, 20.6	3칸이상	1칸	정북	할석
애매헌지	11.7×12.5m	146.2, 44.3	3칸이상	2칸이상	정북	판석
영주협당지	12.3×18.9m	232.4, 70.4	3칸이상	2칸이상	N-20-E	판석
교방지	13.7×5.4m	74.0, 22.4	4칸이상	1칸	N-10-E	할석
심약방지	5.7×11.2m	63.8, 19.3	4칸이상	1칸	N-10-E	할석
마구지	8.5×?	?	?	1칸이상	N-10-E	할석
와선각지	10.4×3.8	39.5, 12.0	3칸	2칸	정북	할석
군관청지	?	?	3칸이상	2칸이상	정북	판석
노비행랑동편회랑지하층건물지	2.9×?	?	2칸이상	2칸	정북	판석
영리장방하층건물지	8.0×?	?	?	?	정북	판석
영주협당하층건물지	6.0×?	?	?	?	정북	할석
호적고하층건물지	?	?	?	?	정북	판석
교방상층건물지	9.2×9.0m	?	?	?	N-20-E	판석
호적고상층건물지	13.5×2.5m	?	?	?	N-20-E	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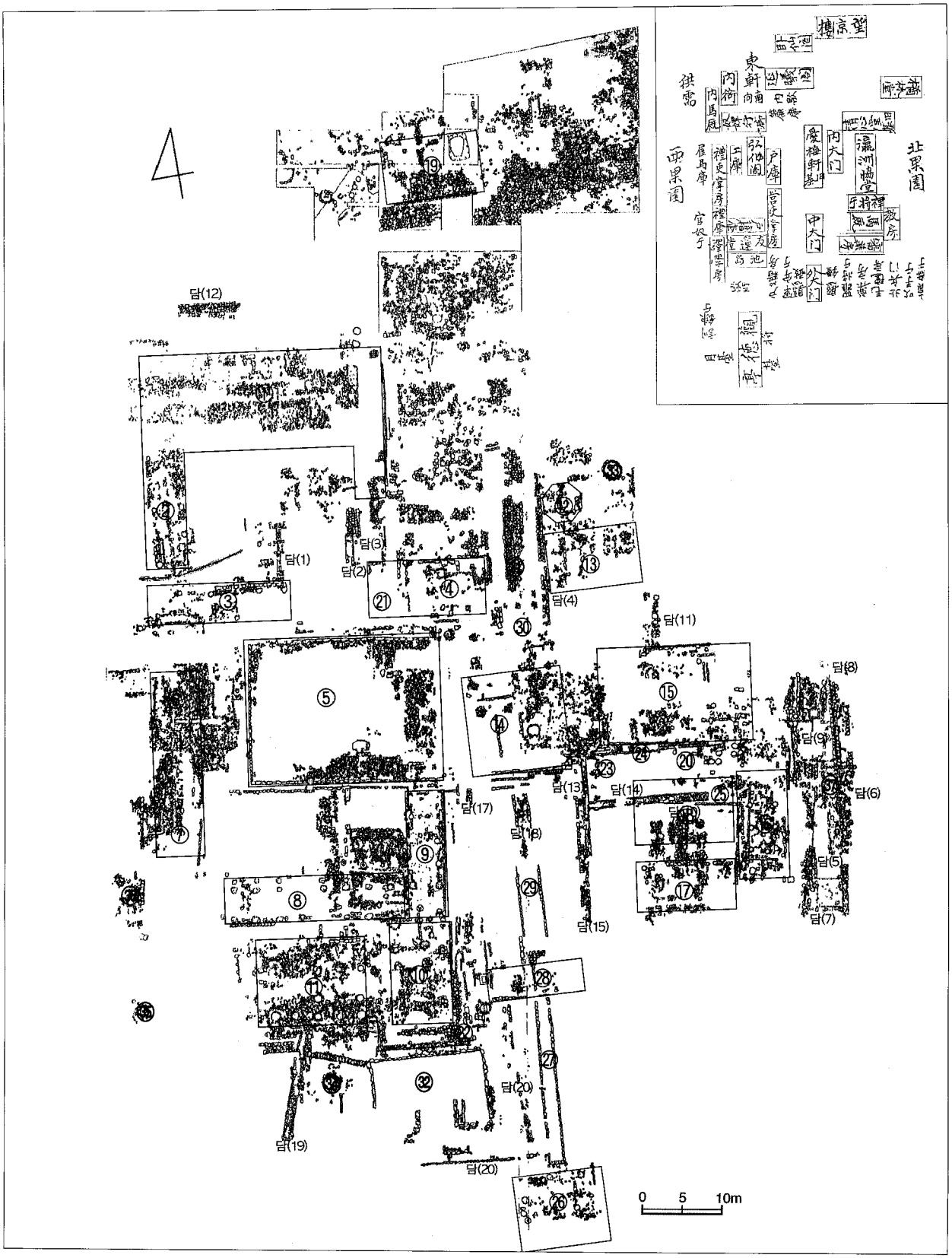
* 건물지의 규모와 면적은 현재 남아 있는 기단의 범위를 가지고 推算했으며, 당시 건물 여건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1)延曦閣(東軒)址

李衡祥의 『南宦博物』(1704년)에 의하면 '東軒'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규모는 10칸, 위치는 弘化閣 북쪽에 있다고 전한다. 李源祚의 「延曦閣記」에 의하면 14間으로 기재되어 있다.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에는 역시 '東軒'으로 표기되어 있고 홍화각의 북쪽, 노비행랑과 내아를 가진 중심건물로 나타난다. 1885년 목사 홍규에 의해 마지막으로 重修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범례 : 1. 연희각지 2. 동헌내아지 3. 노비행랑지 4. 노비행랑동편회랑지 5. 홍화각지 6. 예리장방지 7. 예고지 8. 호적고지 9. 호고지 10. 영리장방지 11. 우연당지 12. 소행정지 13. 청심당지 14. 애매헌지 15. 영주협당지 16. 교방지 17. 심약방지 18. 마구지 19. 와선각지 20. 군관청지 21. 노비행랑동편회랑지하층건물지 22. 영리장방지하층전기건물지 23. 영주협당지하층중기건물지 24. 호적고하층중기건물지 25. 교방지상층말기건물지 26. 외대문지(포정사) 27. 외대문-중대문간도로 28. 중대문지 29. 중대문-내대문간도로 30. 내대문지 31. 내대문안쪽도로 32. 연못 33. 전기원형우물지 34. 원형우물지 35. 원형우물지 36. 관아지서편외곽담장지(후기) 37. 관아지동편외곽담장지(후기)



범례 : 1. 연희각지 2. 동헌내아지 3. 노비행랑지 4. 노비행랑동편회랑지 5. 홍화각지 6. 예리장방지 7. 예고지 8. 호적고지 9. 호고지 10. 영리장방지 11. 우연당지 12. 소행정지 13. 청심당지 14. 애매헌지 15. 영주협당지 16. 교방지 17. 심약방지 18. 마구지 19. 와선각지 20. 군관청지 21. 노비행랑동편회랑지하층건물지 22. 영리장방지하층전기건물지 23. 영주협당지하층중기건물지 24. 호적고하층중기건물지 25. 교방지상층말기건물지 26. 외대문지(포정사) 27. 외대문-중대문간도로 28. 중대문지 29. 중대문-내대문간도로 30. 내대문지 31. 내대문안쪽도로 32. 연못 33. 전기원형우물지 34. 원형우물지 35. 원형우물지 36. 관아지서편외곽담장지(담장지 16) 37. 관아지동편외곽담장지(담장지 8)

발굴에서 드러난 이 건물지 목관아지 한 복판에 중심건물지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20° 틀어진 남향집이었다. 『耽羅巡歷圖』와 『耽羅防營總覽』의 관아배치도와도 일치한다.

건물지의 전체 규모는 정면 30.0m, 측면 18.0m 이상되는 건물이다. 이를 推算해보면 면적은 540㎡(163평)이고 정면 5칸, 측면 3~4칸이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목관아지내의 건물 중 관덕정(87평), 홍화각(101평)보다 큰 건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耽羅防營總覽』에 등장하는 '簾席'과 '內歇'처럼 마당에 평평한 돌을 장방형으로 깐 부석시설과 배수로, 주변담장, 차양시설, 판석형기단석, 계단, 주변회랑지 등이 모두 확인되었다.

(2) 東軒 內衙址

『耽羅防營總覽』에는 연희각 서편에 자리하며 연희각과 직각으로 마주하는 것으로 표기되었다. 발굴에서 확인된 이 건물지는 연희각지 남서편에 직각으로 붙여서 시설되어 있었고 정면 5칸 이상, 측면 1칸의 건물이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13.0m 이상, 측면 4.9m로 63.7㎡(19.3평)이다. 건물지 내부의 초석은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초석은 기단석열과 맞물리게 축조되어 있어 회랑식 건물임을 짐작케한다. 초간 간격은 3.2m에서 2.8m에 이른다. 건물지의 내부시설로는 장방형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외부시설은 연희각과 마주한 곳에 자갈을 깐 마당과 기와배수로가 확인되었다.

(3) 奴婢行廊址

『耽羅防營總覽』에는 내아와 직각으로 마주하여 앉은 동서장축의 장방형 남향 건물로 나타난다. 발굴된 건물지는 위치와 성토층의 유물시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앞서 내아 남쪽끝과 직각으로 교차하여 동-서로 놓여 있었다. 건물지 규모는 동서 11.1m이상, 남북 4.1m 정도로 45.5㎡(13.8평) 이상된다. 초간 간격 3.0m로 정면 4칸 이상, 측면 1칸인 회랑식 건물이다. 초석은 5기가 확인되었고, 건물지 내부시설로는 방고래시설과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4) 奴婢行廊址 동편 回廊址

『耽羅巡歷圖』(1703)에는 동헌 앞에 동서장축의 남향 건물로 보이고 있어 60년 후인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 등장하는 노비행랑과 연결된 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발굴된 건물지는 회랑 성격의 남향 건물지로 판단되며 정면 3칸, 측면 1칸 이상되며, 10평 정도의 크기이나 후대에 들어선 경찰서 지하건물로 인해 파괴된 범위가 15평 이상된다. 내부초석은 건물지의 맨 동편에 좌우 2기가 남아있다. 초석간의 간격은 3.7m이다. 북쪽의 대형 초석에는 기둥이 놓였던 홈과 대문 여닫이 흔적이 남아있어, 문지도리로 여겨진다. 여닫이 부분의 홈을 자세히 관찰하면, 여닫이 방향이 휘어져 돌아가기 때문에 동쪽으로 입구를 만든 문임을 알 수 있다.

(5) 弘化閣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안무사의 營이었으나 절제사의 營廳이 되었다고 한다. 『知瀛錄』(1696)에는 인조27년(1649)에 중창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南宦博物』(1704)에는 9칸으로 나오며, 상아의 남쪽으로 기재되어 있고 『耽羅巡歷圖』의 '濟州殿最' 그림에는 애매헌의 서편에 자리한다. 『耽羅防營總覽』에는 동헌 남쪽 노비행랑의 남쪽에 자리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濟州邑誌』(正祖年間)에는 耽羅古閣으로 나온다.

이 건물지는 예고지 동편, 노비행랑지와 그 동편 회랑지의 남쪽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노출된 건물

은 정면 21.0m이고 측면 16.0m(336㎡, 101.8평)인 장방형 남향 건물지이다. 내부시설로는 동북쪽에서 확인되는 기단적심석과 북에서 남으로 들어오는 고래시설 일부가 확인된다. 한편 외부시설로는 남쪽에서 건물지 정면으로 들어오는 'ㄷ'자 형태의 진입시설과 전대 부석된 마당시설이 있다. 각종 문헌에도 등장하듯 여러 차례 증·개축한 흔적이 뚜렷하다.

(6) 禮吏掌房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예고지의 북쪽에 있는 건물로 예리장방과 일직선상에 있는 건물로 표기되었다. 발굴된 건물지는 정면 多間 측면 1칸 건물로 확인되었고, 남북으로 길게 자리한 정동향 건물로 노출된 면적은 10.6 m×5.7m(60.4㎡, 18.3평)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에 적심석이나 초석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내부시설로는 동서방향으로 놓인 폭 35~40㎝의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7) 禮庫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예리장방지 남쪽에 있는 건물로 예리장방과 일직선상에 있는 건물로 표기하고 있다. 확인된 건물지는 예리장방지와 바로 맞붙어 있는 남북장축의 건물로 정면 多間, 측면 1칸의 긴 건물이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14.0m×5.7m(79.8㎡, 24.2평) 정도이다. 기단과 초석이 놓여있는 층은 조선전기의 자갈층 상면이었다. 내부시설로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 바로 서쪽편에서 경사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관아초기에 이미 만들어진 담장지가 있었다. 『耽羅防營總覽』에는 예고와 예리장방이 반대로 표기되었다. 발굴결과 건물의 내부구조가 서로 다른점에서 이 두 건물지의 명칭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8) 戶籍庫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우연당 북쪽에 있으며, 우연당과 맞붙은 동서 장축의 건물로 표기되었다. 『南宦博物』(1704)에는 종루의 서쪽에 있다고 기재되었으나, 『탐라지초본』(1843년경)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노출된 건물지는 동서장축의 긴 건물지로 정면 8칸, 측면 1칸 건물지이다. 측면으로 협칸이 달린 형태로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5.4 m×22.3m(120.4㎡, 36.5평) 정도이다. 기단과 초석의 놓인 층밑으로 자갈층을 사이에 두고 전대 부석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9) 戶庫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으며, 영리장방과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표기되었다. 노출된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1칸 건물인 것으로 보이나 초석 5기만이 남아 있고 하부로도 중복된 건물지가 존재한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16.0 m×4.2m(67.2㎡, 20.4평) 정도이다. 앞서 호적고 건물과 'ㄱ'자상으로 직교한다. 기단석은 부정형의 할석형 석재를 사용하였다. 조선전기 자갈층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 초석과 기단이 자리하며 초석은 상면을 치석한 원형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적심은 확인되지 않았다.

(10) 官吏掌房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호고 남쪽에 위치하며, 호고와 일직선상에 배치된 건물로 표기되었다. 발굴과정에서 이 건물지는 우연당의 성토층을 밑에 두고 그 보다 약 40~50㎝정도 높은 지점에 자리하여 분명 17~8세기경에 만들어진 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耽羅巡歷圖』 '제주전최'

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12.3m×7.7m(94.7㎡, 28.7평) 정도이다. 이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와는 달리 적심구조가 튼튼하며 성토가 높게된 이유는 연못지의 석축이 높게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건물지의 성토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건물지의 기단과 초석은 후대에 상당량이 유실되었다. 이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로는 건물지의 남동쪽에서 확인되는 박석시설과 수로시설이 있다.

(11) 友蓮堂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예리장방 서편, 호적고의 정남쪽에 위치한 건물로 나타난다. 『남사록』(1601)에는 목사 이수동이 성중에 우물이 없어 못을 파서 저수하여 연을 심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나, 목사 양대수가 개구리 소리가 듣기 싫다 하여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탐라지』(1653)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지영록』(1696)에서는 5칸을 중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南宦博物』(1704)에는 10칸으로 나오고 연못이 있으며, 동헌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제주읍지』(정조년간)에는 홍화각 남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탐라지초본』(1843년경)에는 김정목사시 중수하여 향의실로 삼아 공헌봉진 장소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건물지는 거의 완전하게 확인되었다. 호적고 바로 남쪽에 위치한 건물이며, 연못지의 북서편에 자리한 남향건물지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규모는 11.0m×15.5m(170.5㎡, 51.6평) 정도이다. 초석은 직경 1m 이상의 대형초석이며, 적심은 성토면을 파고 들어가 초석을 놓고는 주위로 둥그렇게 잡석과 괴석을 채웠으며, 적심의 직경은 1.60~1.70m에 달한다.

(12) 素行亭址

『지영록』(1696)에 '연희각 東便에 있었으며, 이는 현종 원년(1660)년 목시 이회가 만들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영록』의 素行亭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헌마당 앞 빈터에 번을 서는 하졸을 시켜 네모진 못(塘)을 파게하고 자그만 섬을 쌓고 한 칸되는 정자를 지어 연못가에 여러가지 꽃나무를 심고는 거닐며 쉬는 장소로 삼았다' 는 내용이 전한다. 그 후의 문헌인 『耽羅防營總覽』(1760년대)과 『耽羅巡歷圖』(1703)에는 동헌 正東便에 영조 19년(1743)에 개건했다 하는 橘林堂 있다. 이 귤림당은 분명 다른 건물과 달리 팔각의 정자건물로 『耽羅巡歷圖』에 그려져 있다. 건물의 형태는 소행정 역시 팔각형태이다. 소행정을 개건하여 귤림당으로 개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발굴된 건물지중 특이한 건물지임은 분명하다.

현재 남아 있는 팔각건물지 중앙의 못의 규모는 2.0×2.0m, 깊이 0.6m이다. 팔각으로 돌아가는 초간 간격은 2.0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팔각 정자형태의 건물안에 못이 자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못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조선초기의 분청사기와 '万戶' 명기와로 18세기 이후의 유물은 단 한점도 보이지 않는다.

(13) 淸心堂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에는 영주협당지 정북에 자리하며 '淸心堂舊基'로 표기되어 있다. 이희태 목사가 애매헌 동쪽에 건립하였는데, 1726년 세병헌이 불타 없어지자 세병헌 자리로 이건하였다. 이 건물지는 성토층에서 분청사기편만이 출토되어 18세기 이전에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소행정지와는 존속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남향건물지로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이다. 규모는 6.2m×11.0m(68.2㎡, 20.6평) 정도이다. 초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적심석만 확인된다.

(14) 愛梅軒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舊基로 표기되어 있고 내대문 서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탐라지』(1653)에는 홍화각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南宦博物』(1704)에 8칸으로 기재되었다. 『탐라지초본』(1843)에는 홍화각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고 나타난다. 이 건물은 적어도 정조연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지는 홍화각지의 동편에 위치한 남향건물지로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이다. 규모는 11.7m×12.5m(146.2㎡, 44.3평) 정도이다. 초석과 적심은 확인되지 않으나, 건물지 정면기단석열 남쪽으로 맞붙여 시설한 바닥전 출입시설이 있다.

(15) 瀛州協堂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내대문의 동쪽, 애매헌 동편, 청심당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된 건물지는 애매헌지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4개의 건물지가 높이차를 보이며 중복된 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12.3m×18.9m(232.4㎡, 70.4평) 정도이다. 남향 건물로 판석형 건물지이다. 내부는 점토와 적석을 채워 넣었다. 내부시설로는 수 개의 방고래가 확인되어 온돌방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16) 敎房址

『耽羅防營總覽』(1761)에는 영주협당 남쪽에 자리한 건물로, 남북 장축의 건물로 표기되었다.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13.7m×5.4m(74.0㎡, 22.4평 이상) 정도이다. 초석 배치상태로 보아 정면 5칸 이상, 측면 1칸 건물로 확인된다. 건물지 내부성토는 황색점토로 상면에 검은 재층이 약 3~4cm 가량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초석 주변에서 검게 탄 평기와·백자 접시류가 주로 출토되었다.

(17) 審藥房

『耽羅防營總覽』(1761)에는 교방의 남서쪽에 자리한 건물로 동서장축의 건물로 표기되었다.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5.7m×11.2m(63.8.㎡, 19.3평 이상) 정도이다. 초석배치상태로 보아 정면 5칸 이상, 측면 1칸의 남향 건물로 확인된다. 내부 성토층은 점토층이며 내부시설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으며, 성토층 상면으로 자갈층이 두텁게 깔려 있어서 건물이 폐기된 후 마당시설이나 도로 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 馬廐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심약방의 북쪽에 자리한 동서장축의 건물로 교방의 서편에 직각으로 자리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이 건물지는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심약방과 교방보다 앞서 만들어진 건물지로 판단된다.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8.5m×3.0m 정도이다. 초석 배치상태로 보아 정면 3칸 이상되는 건물로 확인된다. 내부 성토층은 점토층이며 심약방 건물의 북쪽 기단석열이 하단에서 맞물려 확인된다. 건물지의 적심석은 군데군데 확인되며 조선중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건물로, 고래시설이나 일정한 내부·주변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요 용도의 건물지로 보기는 어렵다.

(19) 臥仙閣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연희각 북편에 자리한 건물로 표기되었다. 『지영록』(1696)에는 이

익태목사가 이곳에서 『지영록』을 기술했다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건물지는 연희각 건물지에서 북서편에 치우쳐 있다. 동서장축인 이 건물지는 정면 10.4m×측면 3.8m(39.5㎡, 12평 이상) 정도이다. 건물지는 황색점토층 위에 잡석을 다지고 그 위로 황갈색 점토로 성토 다짐을 하였다. 내부 온돌시설이 일부 확인된다.

(20) 軍官廳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耽羅巡歷圖』의 '제주전최' 그림에는 애매헌 동편에 동서장축의 남향건물로 나타난다. 또한 『제주읍지』(정조연간)에는 홍화각 동쪽에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건물지는 영주협당지의 아래층에서 확인되었다. 애매헌과 동일시기에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장축인 이 건물지는 정면 11.0m 이상×측면 7.0m(77.0㎡, 23평 이상) 정도이다. 건물지의 성토층은 황색점토층이며 내부 적석층이 일부 확인된다.

(21) 노비행랑지 동편 회랑지 하층건물지

조선전기 건물지로 판단되며 건물지 노비행랑 동편 회랑지 하부에 자리한 건물지로 적어도 정면 2칸 이상, 측면 2칸의 건물지로 완전한 유구 조사가 어려운 상태인 건물지이다. 성토층은 기와와 잔돌로 수평을 유지하려는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인다. 서편 기단석열의 초석간의 간격은 2.8m이고 중앙초석의 동서간격은 3.1m이다.

(22) 영리장방지 하층건물지

영리장방지의 동편 테스트피트 하층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로 상층건물지보다 약간 편서향하는 건물지로 남북장축의 동편 기단석만 확인하였다. 건물지 방향은 정북방향으로 관아지 방위각으로 보면 조선전기에 해당되는 건물이다. 동서장축의 남향 건물로 판단된다.

(23) 영주협당지 하층건물지

영주협당지 하층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로 기단석열 일부만 남아 있다. 이 건물지는 후대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파괴되었다. 건물지는 동서장축의 남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은 영주협당지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24) 호적고 하층 부석건물지

호적고의 하층과 호고의 동편 기단석열 서편에서 확인되는 부석시설은 천석과 할석을 사용하여 바닥을 깐 시설이다. 동편과 서편은 부석이 일부 결실되었으나, 북편의 석열은 일정하게 바깥면을 맞추었다. 부석시설 내부에는 장방형의 매립부가 있고, 내부에 초석과 황갈색토가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부석된 상태로 보아 건물지의 하부구조로 보인다. 이 건물지의 소속시기는 조선중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5) 敎坊址 상층 건물지

교방지·마구지·심약방지 상층에서 확인된 건물지로 원래는 'ㄷ'자형 건물로 판단된다. 호적고 상층건물지와 방향과 석재가 일치하며 석재는 판석형석재이다. 현재 확인된 기단석열은 동서 9.2m, 남북 9.0m로, 지표에서 약 10~15cm하단에서 유구가 발견되어 일제시대와 현대건물 신축시 내부초석

및 시설물이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된다. 층위상으로 한말, 혹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최말기 건물지로 판단된다.

(26) 戶籍庫址 상층 건물지

호적고 초석레벨보다 10cm위에서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 역시 교방지 상층건물지와 동일한 수법으로 만들어졌다. 남북장축의 긴 건물로 동편 기단석열의 길이는 13.5m, 서편 기단석열도 이와 비슷하다. 잘 다듬은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기단은 'ㄱ' 자상으로 꺾이는 회랑식 건물인지 아니면 도로와 같은 경계석인지 확실치 않다. 이 건물지는 한말기에, 혹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말기 건물지로 여겨진다.

2) 문지와 도로

목관아지 내부도로는 처음 만들어진 시기인 조선초기(15세기)의 골격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점은 외대문이 원래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조선후기까지 존속하다가 일제시대에 없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도로는 정북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도로는 3개소가 확인되었다. 먼저 ① 외대문에서 중대문간 길이 17.0m, 폭 1.8m의 도로 ② 중대문에서 외대문간의 도로로, 길이 40.0m정도이나 일제시대 재차 신축되어 폭 3.0m로 넓어진 도로 ③ 내대문-연희각마당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길이 15.0m, 폭 2.5m이고 도로 좌우에 보도를 두었다. 이 보도는 크게 할석형 보도와 판석형보도로 나누어지며 좌우보도는 폭 2.0~2.3m, 길이 16.0m 정도이다.

목관아내의 문지는 모두 4개소가 확인되었다. 먼저 ① 외대문지는 문헌에 '耽羅布政司', '鎭海樓'로 표기되어 있다. 관아의 관문으로 1435년 홍화각 창건시에 건립했다고 전하며, 1699년 南至薰목사가 개건했다고 한다. 2층 누각건물로 鐘樓로도 활용되었다. 여기서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성문을 여닫는다고 하며, 그 종은 묘련사의 옛 터에서 가져왔다고 전한다. 李衡祥의 『耽羅巡歷圖』(1703년),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 목관아지 정문으로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南宦博物』(1704년)에 의하면 총 18칸으로 나오며, 관아가 존속했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20세기말의 사진자료를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 누각이 확인되는데, 발굴에서는 측면 1칸 규모가 발굴구역을 벗어난 도로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면 3칸, 측면 1칸만 노출되었다. 초석은 모두 원상에서 이동되었고, 하부적심의 간격은 정면칸 3.3m, 측면칸 3.5m였다. 바닥 성토는 황갈색점토로 하였다. 중심칸은 외대문-중대문간의 도로와 일직선으로 맞췄다.

② 중대문지는 외대문지와 일직선상에 있으며, 외대문지 도로가 끝나는 북단에 위치한다. 흑색부식토와 잔 자갈이 섞인 교란된 층 밑에서 확인된다. 외대문지 도로보다 약간 올라가서 시설된 도로가 약 2.5m정도 남아 있는 바로 밑층에서 확인된다. 현재 동서 3.9m의 남쪽기단과 남북 2.0m정도의 서쪽기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동서장축의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추정내대문지는 외대문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관아중심도로의 끝부분에서 확인되었다. 2기의 초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심석만이 확인되었으며 적심간의 거리는 2.4m이다. 적심은 잡석으로 채워져 있었고 가공된 기단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지내부 동편에 후대에 파괴된 매립층이 보이고 바닥은 잔 자갈이 넓게 깔려 있었다. ④ 조선전기 문지는 내대문지 아래층에서 확인되었다. 내대문지와는 층위상으로 자갈층과 점토층밑으로 문지 적심석만이 나란히 3군데가 확인되었다. 문지 적심석은 잡석으로 채워져 있으며 동서 적심간의 간격은 2.0m이다. 현재 상태로는 전체적인 문지의 규모는 알 수 없다.

3) 연못과 우물지

관아지 내부에서는 연못 1개소와 3개소의 원형우물지가 확인되었다. 먼저 연못은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에 우연당 남쪽에 '池島' 로 표기되어 있어 현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문헌에 의하면 1526년(중종 21년)에 李壽童목사가 성안에 우물이 없어서 만들었고, 양대수 목사(제주목 재임기간:1592~1595년)때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메웠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본 보고서의 소행정지 바로 앞쪽 원형우물지로 판단되며 이 연못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못지는 우연당지 · 영리장방지 남쪽에 자리하며, 외대문과 중대문간 도로와 담장을 경계로 서쪽에 자리한다. 연못의 길이는 동서 13.5m 남북 7.7m, 깊이는 1.5m 정도이다. 호안석축은 3단이 확인되었는데, 3단 석축은 잘다듬은 할석을 세워 맞추어 석축의 높이가 일정치 않으나, 그 밑 2~3단 석축은 판석형석재를 눕혀서 수평을 맞추었다.

우물지 서북쪽에는 우연당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7.0m의 배수로가 만들어졌다. 이 수로의 용도는 『지영록』에서 연못의 저수량이 많을 경우, 넘쳐나는 물을 흘려보내게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연못지를 중심으로 외곽담장이 둘러져 있다.

우물지(1)은 소행정지의 동편으로 2.9m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원형우물지이다.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었으며, 층위상으로는 소행정보다 이른 시기에 매립되어진 것으로 보아 문헌에 나와 있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매웠다는 못일 가능성이 짙다. 이 우물지는 할석과 자연석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 처음에 유구를 노출시켰을 때는 원형의 우물안에 자연석을 매립한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방형우물지를 축조하기 이전에 이 우물지를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토층상 점토층이 퇴적된 후에 소행정이 축조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우물의 직경은 2.2m이고 현존 깊이는 2.5m이다. 우물지(2)는 연못지 서편에서 확인된 우물지이다. 상면에서 잡석무더기로 확인되었으나, 외곽의 돌들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부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를 들어 내었다. 조사 결과 이 유구는 우물지로 확인되었다. 석축은 북쪽 일부에만 남아 있고, 우물지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만들다가 중도에 그만 둔 우물지로 판단된다. 우물의 직경은 약 2.1m 정도이다. 우물지(3)은 우연당 서쪽에 자리한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우물지로, 황갈색 점토를 파고 들어가 시설되었다. 이 곳의 층위는 비교적 단순하여 근대 매립토층 바로 밑으로 황갈색토가 나타난다. 관아지의 다른 지점에서 나타나지 않는 단순 층위로 주변에 아무런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일시에 매립된 토층으로 보인다.

4)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모두 잔 자갈을 깐 건물지 마당 하부와 외곽 담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확인되는 시설이다. 할석형 석재를 사용한 배수시설과 기와를 사용한 배수시설이 있다. 배수시설(1)은 먼저 연희각 남쪽 마당에 시설된 기와배수시설이다. 수키와 2매를 합쳐서 만든 배수시설이다. 마당 중앙에서 서편 외곽으로 이어지는 기와열이 확인되는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경사지게 시설되어 있다. 현존 길이는 12.5m이다. 배수시설(2)는 조선전기의 와적 담장지가 있는 교방지 서편 하층에서 확인된다. 배수시설(3)은 할석을 사용하여 만든 배수로로 연희각 동편 마당부석시설 사이와 예고지 동편 외곽시설에서 확인된다. 배수시설(4)는 연못지의 북서쪽에서 확인되며, 우연당 남쪽의 空地로 길게 이어지는 길이 7.0m의 배수시설이다.

5) 담장지

제주목관아지에서 확인된 담장지는 건물지의 배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담장지는 총 21개소가 확인되었고 조선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동일지점에 중첩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조선초기의 담장지는 와적담장이 주이고 조선후기의 담장지는 할석형 담장지가 대부분이다. 연희각 북편에는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할석형 담장이 남아 있다. (강 창 화)

담장지	현길이(m)	폭(m)	방 향	석재	축조방법
담장지1	4.7	0.5	남북	판석	와적담장
담장지2	3.9	1.0	남북	판석	와적담장
담장지3	1.6	1.0	동서	판석	와적담장
담장지4	14.4	0.8	남북	할석과 자연석	석축담장
담장지5	25.8	0.8	동서	할석	와적담장
담장지6	1.7	0.6	남북	판석	와적담장
담장지7	25.2	1.2	남북	할석과 자연석	석축담장
담장지8	15.7	0.8	남북	자연석	석축담장
담장지9	24.3	0.8	남북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10	8.0	1.2	동서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11	5.9	1.0	남북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12	20.5	1.2	동서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13	20.5	0.7	동서	판석	와적담장
담장지14	14.0	0.9	남북	판석과 할석	와적담장
담장지15	7.1	1.2	남북	판석과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16	13.0	0.7	남북	할석과 자연석	와적담장
담장지17	1.2	0.6	남북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18	7.7	2.0	남북	판석	석축담장
담장지19	11.0	1.0	남북	할석과 자연석	석축담장
담장지20	18.5, 14.4	0.7	남북, 동서	할석	석축담장
담장지21	17.4	1.7	남북	할석	석축담장

3. 유 물

1) 기와류

(1) 막새

관아지에서 확인된 막새는 암막새 4종, 수막새 7종이나 문양별로 구분한다면 연화문수막새가 4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출토된 막새의 종류는 많지 않다.

암막새중 '俊戊申' 명암막새와 '明崇禎' 명암막새는 삼단으로 늘어진 형태와 좌·우에 제비로 보이는 새, 조그맣게 표현된 花文이 공통적으로 표현된 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막새로 보인다. 崇禎은 1628년에서 1644년 사이에 사용된 명의 연호나 이 기간에 해당되는 戊申年이 없다. 가장 가까운 무신년에 해당되는 해가 1668년 戊申年으로 망경루가 중수된 해이다. 한편 이러한 명문암막새는 암기와와 직각으로 접합되나 일부는 둔각으로 접합하는 예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범문암막새는 내림새의 폭이 짧고 암기와와 직각으로 접합되는 점, 고려시대에 성행한 梵語文이 주 문양이며, 부착된 암기와가 순수어골문인 점 등에서 고려시대 막새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구역 와적담장에서 출토된 점으로 보아 문헌에서 밝히고 있듯이 都近川邊의 사찰이었던 수정사 혹은 묘련사에서 사용된 막새로 보인다.

D구역 지표에서 수습된 암막새는 형태가 분명치 않으나 단순한 문양과 후면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포목의 흔적 등은 조선시대 막새의 특징이다.

모두 4종이 확인되는 연화문수막새는 연화문(1)식이 관아지 전 범위에서 고루 출토하고 있다. 연화문(2)식도 일부 구역에서 출토되었다. 연화문(3)식과 연화문(4)는 단 1점 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조선시대막새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길상문수막새와 문양을 알 수 없는 수막새편 또한 1점씩 밖에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관아건물에 쓰였던 수막새는 연화문(1)식과 (2)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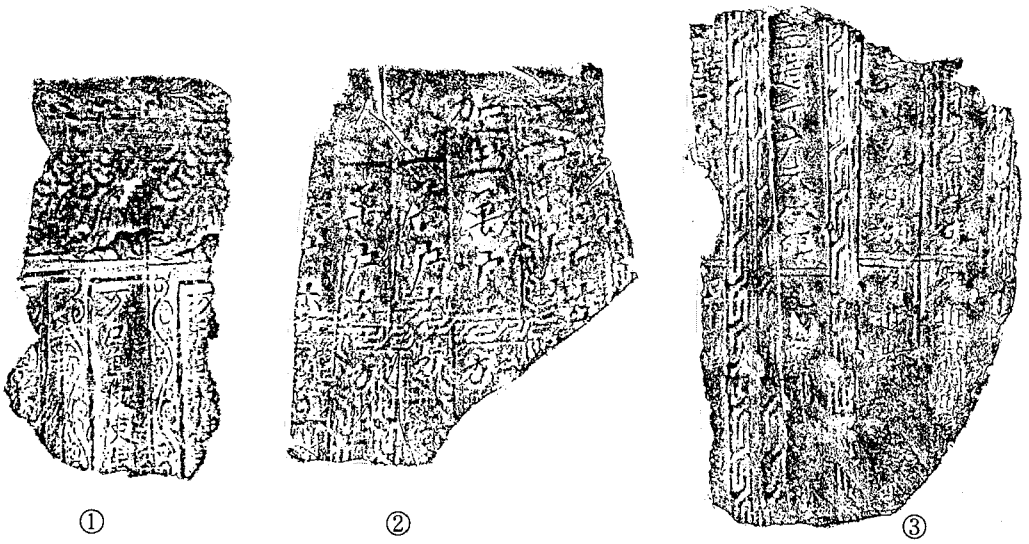
출토지 / 종류	그림	사진	A구역 와적 담장	A구역	B구역	B-2구역 상층	C구역	D구역 지표	소행 정지	연못지 배수로	영리 장방
'俊戊申' 명	50	457							●		
'明崇禎' 명	51	458							●		
범 문	52	459		●							
암막새	53	460						●			
연화문(1)	54	461	●			●	●			●	
연화문(2)	55	462		●	●						
연화문(3)	56	463			●						
연화문(4)	57	464					●				
국화문	58	465			●	●					●
길상문	59	466						●			
수막새	60	467					●				

(2) 명문기와

발굴지의 전 구역에서 많은 양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출토위치가 가장 확실한 와적담장 위에 놓인 명문기와는 '○○二月修正禪師達○○佛/ 萬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명와, '施主萬戶李/同願此處官' 명와와 '監造千戶夫承碩/瓦近無閑媳師呂介○' 명와이다(삽도 참조). 명문부 외각에 결합되는 문양은 唐草文, 回文이었다.

'萬戶兼牧使' 명와에 나타나는 金仲光은 禑王 원년(1375)과 9년(1383)에 2차에 걸쳐 도임했던 목사였다. 반면에 같은 명문에 나타나는 奉益大夫는 忠宣王 2년에 처음 나타났으며, 從二品에 해당하는 文散階이다. 봉익대부의 官品은 恭愍王 5년에 없어졌다가 11년에 고쳐 다시 종2품에 해당하는 文散階로 되었으며, 다시 동왕 18년에 사라졌다가 21년에 다시 고쳤으나, 그 기록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萬戶兼牧使' 명와가 출토되어 김중광 목사는 만호의 직을 겸하고 봉익대부를 제수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문의 판독으로 와적담장에 놓인 기와의 소속연대가 문헌에 밝히는 폐사된 사찰의 기와가 고려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와적담장에서 확인되는 '萬戶' 명와와 '千戶' 명와 또한 고려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酉貳西岳' 명와는 제주향교의 지붕마루에 올려진 기와에서도 확인되는 기와로 명문주위로 투박한 선문과 중호문이 결합된다. '○衣式厂氾' 명와는 크고작은 중원문과 사선문이 명문주위로 결합한다. '東南' 명와는 상위와 좌측에 어골문과 기하문이 결합한다. '客貝戊子' 명와는 하위의 종선문과 명문주위에 반호가 결합된다. '大' 명와는 어골문과 결합한다. '造瓦' 명와는 명문으로만 구성되었고 글자체가 거칠고 투박하다. '門' 명와는 어골문과 결합한다. '左主監造' 명와는 투박한 명문과 명문을 두



① '○○二月修正禪師達○○○/ 萬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명와
② '施主萬戶李/同願此處官' 명와
③ '監造千戶夫承碩/瓦近無閑嫂師呂介○' 명와

출토지 / 명문명	그림	사진	A 구역	B 구역	B-2 구역 탐라시대층	C 구역	D 구역 지표	연못지 주변	호적고 상층	내아 배수시설	홍화각 상층	예고 서쪽 담장 주변	애매헌 상층	외대문지	우연당 상층	우연당 서쪽 우물지
○酉貳西岳	61	468						●								
○衣式厂氾	62	469		●												
東南	63	470							●							
客貝戊子	64	471								●					●	
大	65	472									●					
명문와	473	473			●						●					
造瓦	67	474										●			●	
門	68	475											●			
左主監造	69	476												●		
上甲	70	477					●									
壬申	168	575	●			●		●		●						●

른 테두리내부에 사선문이 들어 있으며, 타날판은 단판으로 추정된다. '上甲' 명와는 중호문과 결합한다. '壬申' 명와는 당초문과 함께 나타난다.

이상의 명문와 중 고려말 제작이라고 생각되는 기와는 '東南' 명와, '大' 명와, '門' 명와, '左主監造' 명와로 이들 기와는 주변에 결합되는 문양이 선문, 어골문 등으로 나타난다. 이외의 명문와는 조선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반하는 문양이 선문, 중호문 등으로 평기와에서 주로 확인되는 문양이다.

(3) 평기와

암기와는 복합어골문이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 어골문과 방곽문, 원문, 화문, 기하문, 격자문,

종류 \ 출토지	그림	사진	A구역와적담장	D구역와적담장	D구역지표	홍화각	홍화각적석층	우연당	우연당적심내부	호적고	영리장방	영리장방동편배수로	호고	예고	예고적석층	예리장방	예리장방적석층	예리장방서쪽배수로	예리장방서쪽단애면	외대문	외대문적심내부	중대문바닥	B-2구역	B-2구역탐라시대층	연못지내부	연못지수로남쪽	연못지축대내부	C구역교란층	내아배수시설
암기와 격자문(1)	72	479																						●				●	
격자문(2)	73	460			●	●	●																		●			●	
격자문(3)	74	461				●																							
격자문(4)	75	462												●					●								●		
어골문(1)	76	463	●												●														
어골문(2)	77	464				●																●							
어골문(3)	78	465							●														●						
어골문(4)	79	466			●		●										●							●					
어골문(5)	80	467															●						●						
어골문(6)	81	468			●		●																	●					
어골문(7)	82	469					●	●	●								●	●											
어골문(8)	83	470							●							●									●				
어골문(9)	84	471																				●							
어골문(10)	85	472							●																				
어골문(11)	86	473				●									●		●												
어골문(12)	87	474					●	●																					
어골문(13)	88	475				●																●							
어골문(14)	89	476								●							●							●					
어골문(15)	90	477					●																						
어골문(16)	91	478												●															
어골문(17)	92	479			●	●																							
어골문(18)	93	480										●																	
어골문(19)	94	481			●														●			●							
어골문(20)	95	482					●				●																		
어골문(21)	96	483			●																		●						
어골문(22)	97	484																						●					
어골문(23)	98	485				●																							
어골문(24)	99	486												●															
어골문(25)	100	487				●																							
어골문(26)	101	488																											●
어골문(27)	102	489				●																							
어골문(28)	103	490												●															
어골문(29)	104	491																					●						
어골문(30)	105	492	●						●	●																			
어골문(31)	106	493								●																			
어골문(32)	107	494		●																		●							
어골문(33)	108	495											●																
어골문(34)	109	496				●																							
어골문(35)	110	497			●																								
수형문	111	498			●				●																				
화문	112	499																						●					
선문(1)	113	500									●																		
선문(2)	114	501											●																
선문(3)	115	502											●																
복합문(1)	116	503				●																							
복합문(2)	117	504					●																						
복합문(3)	118	505																											

출토지 / 종류	그림	사진	A구역와적담장	D구역와적담장	D구역지표	홍화각	홍화각적석층	우연당	우연당적심내부	호적고	영리장방	영리장방동편배수로	호고	예고	예고적석층	예리장방	예리장방적석층	예리장방서쪽배수로	예리장방서쪽단애면	외대문	외대문적심내부	중대문바닥	B-2구역	B-2구역탐라시대층	연못지내부	연못지수로남쪽	연못지축대내부	C구역교란층	내아배수시설
복합문(4)	119	506			●		●																						
중호문(1)	120	507													●	●				●									
중호문(2)	121	508				●											●				●		●			●			
복합문(1)	122	509																	●										
복합문(2)	123	510																	●										
복합문(3)	124	511																	●										
수키와 격자문	126	533																						●					
어골문(1)	127	514																						●					
어골문(2)	128	515		●																			●						
어골문(3)	129	516																						●					
어골문(4)	130	517				●					●																		
어골문(5)	131	518						●																					
어골문(6)	132	519	●	●		●			●													●							
어골문(7)	133	520				●						●									●	●							
어골문(8)	134	521						●																					
어골문(9)	135	522					●																						
어골문(10)	136	523												●															
어골문(11)	137	524																				●							●
어골문(12)	138	525		●			●															●							
어골문(13)	139	526					●																						
어골문(14)	140	527				●																							
어골문(15)	141	528						●																					
어골문(16)	142	529												●		●													
어골문(17)	143	530										●																	
어골문(18)	144	531											●			●													
수엽문	145	532								●																			
선문(1)	146	533												●															
선문(2)	147	534					●				●				●														
중호문(1)	148	535								●																	●		
중호문(2)	149	536			●										●										●				
복합문(1)	150	537				●																							
복합문(2)	151	538					●						●																
복합문(3)	152	539																	●	●									
복합문(4)	153	540												●															
복합문(5)	154	541													●										●				
복합문(6)	155	542				●																							
복합문(7)	156	543											●																
복합문(8)	157	544																								●			
복합문(9)	158	545					●											●											
복합문(10)	159	546																	●										
복합문(11)	160	547																							●				●
어골문	161	548														●													
어골문	162	569										●																	
격자문	163	570																											●
중호문(3)	164	571														●									●				●
무문전(1)	169	576					●										●												
무문전(2)	170	577															●												

선문 등이 결합된 복합어골문은 관아의 전구역에서 출토되었다. 반면 어골문이 단일문양으로 쓰인 기와는 B-2구역의 탐라시대층에서 많은 수가 확인되며 격자문기와와 복합어골문기와(어골문 22)도 일부 확인된다.

A구역의 와적담장상에서 확인되는 기와는 암기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수키와도 간혹 확인되는데 문양의장은 어골문, 어골문+화문, 어골문+기하문, 어골문+梵字文, 어골문+수형문 등이며, 문양의장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관아지 전 범위에서 출토되는 기와에서 확인되는 어골문과 결합하는 문양의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건물지의 적심내부나 바닥에서 확인되는 기와들은 표에서 보듯 제한되게 나타난다. 그리고 건물지의 내부와 주변, 상층에서는 중호문기와가 함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복합어골문은 14세기경부터 어골문전통을 이어 제작되다가 15세기경부터 새로이 나타나는 중호문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중호문은 내아의 배수시설과 D구역 건물지의 상층에서 확인된다. 내아 건물이 골격을 갖춘 시기가 중호문이 본격적으로 제작된 시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고 서쪽 단애면에서 확인되는 암기와는 관아지에서 출토되는 다른 기와와 성격을 달리하는데 복합문이 많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복합문 기와는 제주향교의 지붕에서 확인되는 기와와 동일한 기와들로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수키와는 크게 무단식기와와 유단식기와로 구분된다. 무단식기와는 어골문기와, 복합어골문, 무문기와에서 확인되며, 유단식은 복합어골문, 선문, 중호문, 복합문기와에서 확인된다. 가장 이른 시기인 와적담장상에서 발견되는 기와는 어골문과 화문+어골문기와, 기하문+어골문기와이다. 어골문수키와의 경우 암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으로 제작된 수키와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수키와의 등문양의 변천 또한 암기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호문수키와와 복합문수키와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양식의 암기와가 출토된다는 점은 암키와의 편년과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사실에서 평기와류는 어골문·격자문→복합어골문→중호문→복합문순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어골문·격자문은 14세기 이전에 제작되었고 복합어골문은 14~15세기, 중호문은 15세기이후부터 관아의 골격을 완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복합문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용 범)

2) 도자기류

출토된 도자기는 고려청자, 조선청자, 중국자기, 분청사기, 백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발굴지 전역에서 고르게 출토되었다.

고려청자는 5점의 해무리굽청자와 순청자, 음각청자, 상감청자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해무리굽청자는 서남해안일대에 분포하는 청자가마에서 제작된 것들로 갈색을 머금은 유색과 작은 내저원각이 있는 소위 한국형 해무리굽청자이다. 출토된 해무리굽청자는 접지면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고 모두 갑번되었다. 해무리굽청자외의 순청자, 음각청자, 상감청자 등은 한두점이 초기의 세련된 무늬나 기형을 보이지만 대부분 무늬의 구성이나 유색, 기형 등에 있어서 다소 퇴락한 모습을 띠며 녹청자계통의 조질청자류도 다수 확인되었다.

출토된 조선청자는 3점으로 태토가 회색으로 다소 밝고 양질이며 유색도 고려청자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으로 투명하고 가벼운 감이 있다.

중국자기는 청자와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청자는 무늬시문시 시문구를 약간 눕혀서 성형하는 획화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출토된 중국자기는 국내산 자기에 비해 저부쪽에 무게감이 있으며 태토도 미세

하고 갈색조를 띤다. 출토된 자기류는 중국 남송대의 용천요계통의 요에서 번조된 것으로 中日교섭의 창구인 北九州의 大宰府유적과 일본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최근에 제주도 신창리 앞바다에서도 수습된 적이 있어서 한·중·일의 무역도자연구에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분청사기는 상감, 인화, 귀얄, 철화, 덤벙분장, 백토분장되지 않은 분청 등 각 수법을 모두 보이고 있으며 기형은 대접과 접시, 병, 호, 대발 등이 있다. 굽다리를 포함한 전면에 빽빽하게 시문되고 백토감입도 좋은 인화분청이 소량있으나 거의 내외면 한면에만 시문되고 무늬의 구성이 느슨해지거나 인화시문된 후 귀얄로 백토를 대충 바른 형태를 하고있다. 병, 호 등에는 거의 귀얄문과 덤벙분장 수법이 확인되며 철화문은 병편으로 보이는 소편에서 확인될 뿐 수량이 많지않다. 관사명이 인화된 그릇이 2점 출토되었는데 제주도의 다른 조사지의 출토예와 마찬가지로 전라도지방의 여러 요에서 주로 집중되어 출토되는 '內贍'명으로 내면에 번조받침흔적이 있다. 출토된 분청사기는 전면에 시문되고 백토의 감입상태가 좋은 양질의 인화분청 몇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면에 대량생산의 흔적인 번조받침흔적이 남아있다.

발굴지 전역에서 출토량이 가장 많은 백자는 거의 순백자이며 소량의 말기 청화백자와 순백자에 글자를 날카로운 도구로 쪼아서 새긴 명문백자가 다수 확인된다. 순백자는 접시와 대접이 다수를 차지하며 소량의 병, 호 등이 있다. 제작된 시대의 폭도 넓어 16~17세기의 굽이 좁고 길며 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한 그릇에서부터 19~20세기의 틀로 찍어 성형하여 8개 이상의 번조받침을 받쳐 번조한 소형접시류나 종지류도 있다. 말기의 백자류 중에 태토는 양호하지만 완전한 磁化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질인 것이 다수있다. 순백자 중에 匣燔 또는 常燔으로 번조된 그릇이 여러점 있으나 대부분 例燔으로 번조되었다.

소량 출토된 청화백자는 굽이 낮고 굽속을 굽다리의 높이보다 깊게 성형한 말기의 백자로 내면 중앙에 발색이 좋지않은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작은 무늬 혹은 글자를 시문하였다.

명문백자는 유약을 씌운 후 음각한 것과 굽속에 묵서한 몇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날카로운 도구로 쪼아서 새겨진 것이다. 유약 위에 음각한 것은 左 또는 右와 干支를 함께 음각한 것으로 출토된 명문백자 중 '右乙卯' 명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해 161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굽속에 묵서된 것도 몇 점 있는데 반파되거나 희미해져 대부분 알아 볼 수 없고 1점만이 굽속에 '나일년'이라는 한글명문이 있는데 아마도 人名으로 여겨진다. 출토명문백자 중에 '任正牧上, 大允金○奉, 夫巳天上, 金生' 명 등은 모두 人名으로 파악되며 이외에도 '大男, 朴用, 愛用, 末只, 忠, 仁名, 亭, 亭供, 上, 天別官上, 別官, 官上, 州上, 草卜, 春, 吉己, 軍德, 得男, 막개, 문' 명 등 인명인지 관직명인지 불분명한 명문이 있다. 출토된 명문백자 중 '大男' 명은 모두 연못지의 뻘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다른 명문백자들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유력자가 관아에 진상했던 것으로 보이며 '막개' 명 백자는 새겨진 한글이름과 다소 떨어지는 백자의 질로 봐서 당시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목관아지에서 다량 출토된 명문백자의 성격을 보면 이들 그릇이 관아내의 각 부처의 소속을 표기했다기 보다는 人名, 官職名 또는 특정한 부호 등이 새겨져 있고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어도 각 기명이 기형상으로나 제작수법상으로 조합을 이루지 않고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개인이 소유했던 것을 진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제주목관아지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일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출토 도자기편들이 비록 관아의 각 시설물들의 시대편년에 결정적인 자료는 되지 못하지만 아직 제주도에서 자기가마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의 육지산 도자기의 유입경로와 수용층의 신분정도를 파악하는 데 좋

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산 자기의 출토는 당시의 대외무역에 대한 연구의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김 정 선)

4. 官衙施設址의 變遷

관아 시설지의 변천을 읽어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層位, 遺構重複關係, 築造方向, 石材, 出土遺物이다. 이곳의 모든 유구는 같은 용도의 시설물을 동일 장소에 계속해서 만들었다. 평면적인 중복보다는 층서적인 중복상태가 심하다. 즉, 건물지 중복지점의 기단석열이 높낮이가 모두 다르다.

층위는 유구의 선후관계를 읽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된 토층은 성토층(점토층+적석다짐층), 자갈층, 소토층이다. 자갈층은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일정한 두께로 깔아 넣은 층으로, 마당과 도로 상면에서 확인된다. 성토층은 먼저 적석다짐을 한 후 고운 황갈색점토를 깔아 재다짐한 층위다. 소토층은 화재나 일정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수평층으로 얇게 나타난다.

축조방향은 크게 정북방향과 N-20-E방향이다. 전기 시설물지는 정북방향으로 축조되었고, 후기 시설물지는 동으로 20도 정도 틀어져 있다. 건물지의 석재는 할석을 위주로 축조한 건물지와 대형판석을 위주로 축조한 건물지로 대별된다.

소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층서관계와 건물지 성토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주로 전기의 건물지에는 청자와 분청, 명문기와, 어골문, 격자문기와류이고 후기에는 백자류와 복합문, 중호문기와 등이 출토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層位, 遺構重複關係, 築造方向, 石材, 出土遺物로 보아 동 유적의 시설물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차 시기(조선전기, 15세기 초반~16세기 중반)는 제주목관아의 골격을 이룬 시기이다. 그 시기는 1435년(세종 17)으로, 고득종의 弘化閣記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전의 관아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거의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弘化閣을 건립하면서 種樓, 침실, 욕실, 독서방, 琴堂, 政堂, 藥庫, 廳所, 廊舍, 營庫 등 모두 206칸의 건물이 만들어졌다. 이 건물의 석재는 후대 건물건립시 再使用하였기 때문에 기단과 초석은 거의 원상에서 이동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건물지는 6동이 확인되었는데, 현무암제 할석형 석재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건물을 시설하였다. 이 시기에 속하는 담장지는 대부분 다듬은 판석을 이용하여 하단을 시설하고 그 위로 기와와 점토를 번갈아 쌓아 올린 瓦積담장지로 확인된다. 이 담장지는 건물지 외곽 테두리 담장지와 건물간의 경계담장지로 대별되는데, 건물지간의 담장지에는 협문지가 확인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건물지 외에 깊이 3m 이상의 원형우물지가 확인된다. 유구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소수의 청자편과 분청 그리고 여말선초 명문기와가 있다. 이러한 유구상태로 볼 때, 초창기 관아터의 골격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골격은 10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건물과 외곽·내부 와적담장의 축조방향은 모두 정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 축조방향은 동일시기의 건물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2차 시기(조선중기, 16세기말~17세기 중반)는 현무암 자연석을 대충 쳐서 만든 할석을 사용하여 건물을 만들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건물지는 총 5동이 확인되었다. 이들 건물지의 축조기법으로 보아 급하게 축조한 면이 확인된다. 또한 이 시기의 건물지의 평면 중복상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담장지는 대부분 냇돌과 괴석을 주로 사용하여 축조하고 있어, 전 시기의 와적담장과는 비교될 정도로 허술하고 급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유구에서 출토되는 도자기편은 다음 시기

의 유구에서 출토되는 도자기편과 시기차가 거의 없고 자갈층을 간층으로 구분되는 상층의 건물지와의 높이차가 적어, 아마도 건물지 군락의 존재시기가 짧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설물의 축조방향도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3차 시기(조선후기, 17세기 중반~20세기 초)는 濟州牧官衙가 자리했던 건물군락 중 가장 화려한 건물군이 존재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제주목관아지내의 시설물은 『耽羅志』(1653년), 『知瀛錄』(1696년), 『耽羅巡歷圖』(1703년), 『耽羅防營總覽』(1760년대) 등에 잘 기록되어 있다. 특히 『耽羅巡歷圖』(1703년)의 '濟州殿最' 등의 그림과 『耽羅防營總覽』(1760년대)에 나타난 관아배치도와 거의 일치한다.

시기	시대설정	축조방향	출토유물	소속시설지
1차시기	조선전기 (15세기초반 ~16세기)	N-0-E(정북)	청자,분청사기 명문기와, 어골문기와 격자문기와	외대문지, 중대문지, 문지간도로, 노비행랑 하층건물지, 군관청지, 애매헌지, 영리장방 하층건물지, 원형우물지, 담장지(1),(2),(3),(4),(5),(6),(13),(14),(16),(17), 기와배수로
2차시기	조선중기 (16세기말 ~17세기중반)	N-20~10-E	백자 어골문기와 중호문기와	외대문지, 중대문지, 도로, 교방지, 마구지, 심약방지, 호적고하층부석건물지, 연못지, 담장지(7),(9),(10),(15),(18),(19),(20)
3차시기	조선후기 (17세기중반 ~20세기초)	N-20-E	후기백자 복합문기와 중호문기와	외대문지, 중대문지, 내대문지, 문지간도로, 보도, 연희각지, 동헌내아지, 노비행랑, 회랑지, 홍화각지, 예고지, 예리장방지, 호적고지, 호고지, 영리장방지, 우연당지, 영주협당지, 교방지, 마구지, 심약방지, 담장지(8),(12),(16), 연희각 외곽담장, 홍화각마당시설, 연희각마당시설, 배수시설

이 시기의 건물지는 모두 18동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건물과 담장은 모두 일정한 축조방향을 갖고 있다. 대체적인 방향으로 N-20-E이다. 시설물의 배치는 제1차 시기에 만들어진 정북방향의 외대문과 중대문 사이의 도로를 그대로 두고 도로 동편에 우연당터과 예고터, 호고터, 홍화각터, 서편에 영주협당터, 교방터, 심약방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대문지 안쪽으로 동헌마당을 연결하는 내도로와 보도가 노출되었다. 이 도로의 동편으로 한 칸의 소행정 건물지와 서편에는 동헌으로 연희각터와 회랑으로 연결되는 내아, 노비행랑터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치는 『耽羅防營總覽』의 18세기 중반 관아배치와 동일하다. 이들 건물을 안에 두는 동-서외곽에 석축담장지가 길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 담장 밖으로는 2m 정도 단애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 시설물은 층위상 맨 상층의 자갈층과 점토층에 시설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건물 석재는 대형의 반듯한 판석형 석재이며 기단석열도 정교하게 맞물림하였으며 내부 담장은 할석위주로 쌓아 올려 진흙을 바른 석축 담장이다. 이 시기의 건물지는 일제시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으나 그래도 가장 잘 남아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B-2구역 바닥층인 통일신라시대(탐라시대후기)와 고려시대 전기층에서 이 시기의 기둥구멍, 적심시설, 화덕시설, 적석시설 등과 함께 내부에서 토기와 질그릇이 다량 확인된다. 또한 1차 시기 이전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건물터나 관아 골격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물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정형성을 갖는 결정적인 시설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분명한 점은 1차 시기의 구지표면이 완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기의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강 창 화)

맺 음 말

관덕정 일대의 제주목 관아지는 탐라국 이래 제주역사의 중심지였다. 도민들에 대한 행정이 모두 이 곳에서 입안되고, 처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전통시대에는 도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상징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전반에는 도민의 원한이 맺힌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서울의 덕수궁, 경복궁, 경희궁 보다도 더 의미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는 초기부터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제주도 정치의 산실이고 도민의 혼과 한이 교감되는 제주목 관아지는 해방 후에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등 심하게 훼손되어 왔다. 그러나 다행히 제주시 당국의 지원에 의해, 지난 1991년부터 우리 박물관에서 4차례에 걸쳐 발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곳은 사적지 제380호(93. 3. 31)로 지정되었다.

또한, 지난 1~3차 발굴조사를 통해 제주목관아터의 중심시설인 동헌지와 내아 건물시설은 물론, 중대문에서 동헌지 마당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보도가 확인되었다. 금번 4차 발굴을 통해서는 외대문, 중대문지를 비롯하여 이를 축으로 서편에 자리했던 홍화각, 애매헌, 호적고, 우연당, 예고, 예리장방, 호고, 영리장방, 연못, 우물 등의 시설물과 이를 둘러싼 와적·석축담장도 모두 확인되었다. 결국 18세기에 자리했던 관아건물의 모든 건물배치가 확인된 셈이다. 이는 한국에서 조사된 지방관아 발굴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장차 복원을 위한 작업으로는 연차적으로 종루[외대문], 홍화각, 우연당, 연희각[동헌], 연못 등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원시 고려될 사항은 반드시 발굴된 건물터에 의존하여 규모와 건물간 거리, 나아가 전체 건물 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물의 양식이라든가 구조는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건축모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가급적 육지지방의 표본적인 건축양식을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觀德亭, 濟州邑城, 산지천 등의 주변 유적과의 조화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제 제주목 관아지는 조선시대 이후 많은 문헌기록을 통해서 제주의 정치·행정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발굴조사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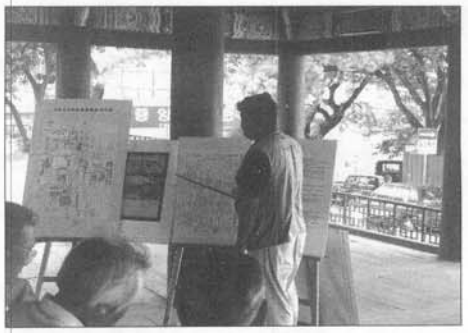




사진 1, 2.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1992)
3. 3차 현장설명회(1995)
4, 5.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1998)

해 고대 탐라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정치·행정·역사·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유적지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 곳이 탐라국 이래 제주도 역사의 중심 현장이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제주목관아지의 복원사업'은 제주역사의 중심을 설정하는 자긍심이라 할 것이다.

(김동전·강창화)